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26

에스겔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에 스 겔

Ezekiel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37 : 11, 12)

וַיֹּאמֶר אֵלַי בֶּן-אָדָם הָעֵצְמוֹת הָאֵלֶּה כָּל-בַּיִת יִשְׂרָאֵל
הֵמָּה הֵנָּה אֹמְרִים יְבֹשׁוּ עֵצְמוֹתֵינוּ וְאָבְדָה תִּקְוַתֵּנוּ נְגַזְרֵנוּ
לָנוּ : לָכֵן הִנְבֵּא וְאָמַרְתָּ אֲלֵיהֶם כֹּה-אָמַר אֲדֹנָי יְהוִה
הֵנָּה אֲנִי פֹתֵחַ אֶת-קִבְרוֹתֵיכֶם וְהֵעֵלִיתִי אֶתְכֶם מִקִּבְרוֹתֵיכֶם
עִמִּי וְהִבֵּאתִי אֶתְכֶם אֶל-אֲדֹמַת יִשְׂרָאֵל :

에스겔 차례

에스겔 서론	〈18제〉	353
제 1 장 영광스런 여호와와의 환상	〈30제〉	359
제 2 장 에스겔이 받은 소명	〈17제〉	367
제 3 장 에스겔의 파송	〈32제〉	372
제 4 장 예루살렘 포위에 대한 예언	〈18제〉	381
제 5 장 예루살렘에 재앙과 멸망이 예언되다	〈21제〉	387
제 6 장 이스라엘이 받을 심판과 구원이 예언되다	〈19제〉	394
제 7 장 이스라엘에 종말이 다가오다	〈26제〉	400
제 8 장 심판의 원인이 예언되다	〈21제〉	408
제 9 장 예루살렘 심판의 명령이 떨어지다	〈12제〉	415
제 10 장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다	〈15제〉	419
제 11 장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심판과 구원이 예언되다	〈17제〉	424
제 12 장 표적을 통해 심판의 확실성이 예언되다	〈10제〉	430
제 13 장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와 부녀에게 저주가 내리다	〈11제〉	435
제 14 장 우상을 섬기는 위선자들을 향한 책망과 죄에 대한 심판이 경고되다	〈9 제〉	440
제 15 장 예루살렘이 쓸모없는 포도나무처럼 버려질 것이다	〈3 제〉	444
제 16 장 예루살렘이 음란한 여인에 비유되다	〈28제〉	446
제 17 장 배반한 예루살렘이 받을 형벌	〈15제〉	456
제 18 장 자신의 죄는 자신이 담당하라	〈23제〉	461
제 19 장 이스라엘을 위한 애가(哀歌)	〈14제〉	467
제 20 장 이스라엘의 배반과 회복	〈26제〉	471
제 21 장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칼	〈20제〉	479
제 22 장 유다 백성의 죄	〈19제〉	485
제 23 장 부정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18제〉	491
제 24 장 예루살렘의 멸망이 끊는 가마에 비유되다	〈20제〉	497
제 25 장 이방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예언	〈12제〉	502
제 26 장 느부갓네살을 통한 두로의 심판	〈16제〉	506
제 27 장 두로를 애도하다	〈24제〉	511

제 28 장	두로와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21제〉	517
제 29 장	바로와 애굽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	〈20제〉	523
제 30 장	애굽과 동맹국들의 파멸	〈18제〉	529
제 31 장	애굽에게 앗수르의 영광과 몰락을 보이다	〈16제〉	534
제 32 장	애굽을 향한 애가(哀歌)	〈24제〉	539
제 33 장	에스겔이 예언자의 소명(召命)을 받다	〈22제〉	546
제 34 장	이스라엘의 목자(牧者)에게 심판이 내리다	〈21제〉	553
제 35 장	세일 산에 여호와의 심판이 내리다	〈12제〉	559
제 36 장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	〈18제〉	563
제 37 장	이스라엘 회복의 환상을 보이시다	〈17제〉	569
제 38 장	이스라엘을 향한 곡의 침략	〈17제〉	574
제 39 장	곡에게 여호와의 심판이 내리다	〈17제〉	579
제 40 장	에스겔이 미래에 세워질 성전의 환상을 보다	〈20제〉	585
제 41 장	성전의 구조와 장식	〈14제〉	591
제 42 장	제사장들의 방과 성전 안마당	〈 6 제〉	595
제 43 장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다	〈12제〉	597
제 44 장	제사장들에 관한 규례	〈16제〉	601
제 45 장	거룩한 공의가 지켜질 나라	〈10제〉	606
제 46 장	제사의 규례	〈11제〉	610
제 47 장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 나온 생명수와 성지(聖地)의 경계	〈13제〉	614
제 48 장	열 두 지파의 지계(地界)	〈11제〉	619

에스겔 특별 자료 차례

에스겔 서론 〈연구 자료〉	본서의 연대표	358
제 1 장 〈본장의 요절〉		366
제 2 장 〈연구 자료〉	에스겔이 이해한 하나님	370
제 3 장 〈화보 자료〉	두루마리를 받아 먹고 있는 에스겔	380
제 4 장 〈본장의 요절〉		386
제 5 장 〈화보 자료〉	수염을 쥐고 있는 에스겔	393

제 6 장	〈지도 자료〉	리블라의 위치	399
제 7 장	〈화보 자료〉	나팔을 불고 있는 천사	407
제 8 장	〈연구 자료〉	신약에 나오는 에스겔서의 인용 귀절들	414
제 9 장	〈본장의 요절〉	418
제 10 장	〈본장의 요절〉	423
제 12 장	〈화보 자료〉	봇짐을 멘 노인	434
제 13 장	〈연구 자료〉	환상(幻像)	439
제 14 장	〈본장의 요절〉	443
제 15 장	〈화보 자료〉	싹을 피우고 있는 포도나무	445
제 16 장	〈화보 자료〉	빵과 기름 병	455
제 17 장	〈연구 자료〉	그룹(Cherubim)	460
제 18 장	〈본장의 요절〉	466
제 19 장	〈화보 자료〉	마른 나무 등치	470
제 20 장	〈본장의 요절〉	478
제 21 장	〈화보 자료〉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자	484
제 22 장	〈연구 자료〉	에스겔서에 대한 제(諸) 비평과 그 정경성(正經性)	490
제 23 장	〈본장의 요절〉	496
제 25 장	〈본장의 요절〉	505
제 26 장	〈본장의 요절〉	510
제 28 장	〈연구 자료〉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 져야 할 책임	522
제 29 장	〈본장의 요절〉	528
제 30 장	〈본장의 요절〉	533
제 31 장	〈지도 자료〉	에스겔이 예언하였던 나라들	538
제 32 장	〈본장의 요절〉	545
제 33 장	〈화보 자료〉	악기를 켜며 노래부르는 가수	552
제 35 장	〈화보 자료〉	세일 산(the Mount of Seir)	562
제 39 장	〈연구 자료〉	유대교에 끼친 에스겔의 영향	584
제 46 장	〈본장의 요절〉	613
제 47 장	〈연구 자료〉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성전의 의미와 그 정체	618
제 48 장	〈지도 자료〉	하나님께 드릴 거룩히 구별된 땅	623

에스겔 서론

1. ㉠ 본서의 저자와 명칭에 대해 설명하라.

- ㉠ (1) 본서의 저자는 에스겔이다. 그 이유는 1:3에서 보여 주듯이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서전적(自叙傳的)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에스겔이 자신을 1인칭인 '내가'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이다(1:1, 4, 15)
- (2) 또한 유대 사가 요세푸스(Josephus)도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멸망과 유다가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한 것과 같은 일을 에스겔이 두 권의 책으로 기록했다고 한다.
- (3) 한편 본서의 명칭은 본서 저자의 이름을 따라 '에스겔' 서(書)로 정해졌다.
- (4) 그런데 본서의 명칭인 '에스겔'은 <하자크>란 동사와 <엘>이란 명사로 구성된 복합 명사로서 '하나님은 강하시다' 혹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2. ㉡ 본서의 저자 에스겔의 생애를 약술(略述)하라.

- ㉡ (1) 에스겔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태어났으며(1:3;40:46;44:15) B.C. 59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Nebuchanezzar, B.C. 605-562)이 예루살렘을 2차 침입했을 때 여호야긴 왕과 방백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왕하 24:14).
- (2) 그리고 포로 기간 중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있는 텔-아빍(Tel-Abib)에서 거주하였으며(1:1,3) 거기서 여호와의 소명을 받았다.
- (3) 또한 그가 소명을 받은 때는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후인 B.C. 593년이며 그의 예언 활동은 22년 뒤인 B.C. 570년까지 계속되었다(1:2;29:17). 그러나 사역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다.
- (4) 한편 에스겔과 동시대 사람인 예레미야와의 관계는 알 수 없으나 예레미야가 이미 3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예언 사역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겔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자주 들었을 것이다.

3. ㉢ 본서의 기록 연대는 언제인가?

- ㉢ (1) 본서에는 기록된 시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본서에 언급된 에스겔의 활동 시기가 본서의 저작 시기와 일치한다고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 (2) 한편 본서는 각 부분마다 몇 개의 연대로 나누어지는데 에스겔이 본서를 기록한 때를 B.C. 6세기 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40:1).
- (3) 그리고 본서의 기록 연대를 장절별로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기 록 연 대	장 절
여호야긴 왕이 포로된 이후	
5년 4월 5일	1-7장
6년 6월 5일	8-19장
7년 5월 10일	20-23장
9년 10월 10일	24, 25장
10년 10월 12일	29:1-16; 30:1-19

11년 10월 1일	26-28장
11년 1월 7일	30:20-26
11년 3월 1일	31장
12년 10월 5일	33장
12년 12월 1일	32:1-16
12년 10월 15일	32:17-32
25년 1월 10일	40-48장
27년 1월 1일	29:17-21

4. **㉠** 본서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라.

- ㉠** (1) 이 시대는 고대 근동의 대국인 앗수르가 멸망하고(B.C. 612) 애굽이 몰락하던 중이었으며 신흥 세력인 바벨론이 근동의 패권을 잡기 시작하던 때였다.
- (2) 이 무렵 유다 왕 여호야김은 B.C. 605년 이후 몇 년 동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섬겼으나 결국 배반하였다(왕하 23:34-37;24:1).
- (3) 그 후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3개월 동안 통치하다가(왕하 24:8)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성이 함락되므로(B.C. 598) 여호야킨 왕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방백 그리고 수많은 병사와 기술자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다(왕하 24:14-16).
- (4) 이때 에스겔도 많은 제사장의 무리에 섞여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그 후 여호야킨의 뒤를 이은 시드기야도 바벨론에 반란을 일으킴으로 예루살렘은 B.C. 586년 완전히 파괴되었다(왕하 25:8-21).

5. **㉠** 본서에 나타난 에스겔의 예언 활동에 대해서 설명하라.

- ㉠** (1)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그발 강가에서 거주하던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언하기 시작하였다(1:1, 3).
- (2) 그의 예언 활동 초기에는(B.C. 593-586) 대체로 예루살렘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하였다(1-24장).
- (3) 한편 그는 오랫동안 침묵의 기간을 가졌으며(3:26, 27;33:21, 22) 그의 사역의 첫번째 기간의 말기에 그의 부인이 사망했다(24:16-18).
- (4) 두번째 기간은 B.C. 586-570년으로 예루살렘 멸망 이후 에스겔은 바벨론의 유다 포로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자(使者)이며 그들의 파수군으로서(33:1-39:29) 정신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었다.

6. **㉠** 선지자 에스겔의 인간성에 대해 설명하라.

- ㉠** (1) 에스겔의 인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그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그는 부드럽거나 마음이 온유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강하고 단호한 일면이 있었다(3:15, 24;8:10).
- (2) 그러나 그는 제사장의 직분과 예언자의 직분을 조화있게 수행할 능력과 더불어 예언자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25:5, 7, 11).
- (3) 또한 그에게 있는 강하고 단호한 성격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 자신의 권능에 의해 다듬어진 기질이다(3:14).

7. **㉠** 에스겔서와 다른 선지서를 서로 비교하라.

- ㉠** (1) 에스겔서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와 비교할 때 특이한 일면과 유사한 일면을 지닌다.
- (2) 특이한 일면은 다음과 같다. 이사야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의 자격으로 이스라엘에게 임한 심판을 무섭게 선언했으며(사 6장) 예레미야는 깊은 탄식의 권고를 하고 있으나 에스겔은 강한 용어를 사용하여 유다의 죄를 질책하고(6-10장) 다시 그들을 위로하며 감싸는 부드러운 면을 보였다(36-39장).

- (3) 특히 에스겔은 상징적인 용어와 행위으로써 나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메시아적 소망의 메시지를 불 같은 열정으로 선포하였다(1-5, 8, 17, 40장).
- (4) 한편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유사점도 종종 보인다. 그들은 거짓 목자들을 꾸짖으며(34:2; 렘 23:1) 갈라진 남북 왕국을 모두 비난하지만 그들이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였다(16장; 렘 3:6, 14-18). 또한 그들은 메시아를 제사장과 왕으로 묘사하며(21:25-27; 45:22; 렘 30:21; 33:17, 18) 유다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 활동했다.
- (5) 그리고 에스겔과 이사야의 유사한 점은 죄인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음으로써 만민에게 구원이 이룬다는 사상을 갖고 있는 점이다(참조, 16:53, 61; 34:26; 사 2:2-22; 11:10).

8. **㉠** 본서의 구조(構造)를 설명하라.

- ㉠** (1) 본서는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부분은(1-32장) 죄에 대한 심판과 경고이며, 둘째 부분은(33-48장) 위로와 구원의 예언이 각각 기록되어 있다.
- (2) 전반부를 다시 세분하면 1-24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으며, 25-32장은 이방의 일곱 나라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다.
- (3) 그리고 후반부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33-39장은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회복과 승리가 예언되어 있으며, 40-48장은 먼 미래에 나타날 메시아 왕국에서 성취될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들로 구성되어 있다.

9. **㉠** 본서의 문학적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라.

- ㉠** (1) 에스겔 예언의 특색은 첫째, 풍유적 상징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징주의는 에스겔의 예언을 생동감 넘치게 만들고 있다(4:4-17; 5:1-4; 37:15-23).
- (2)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는 주로 환상을 통하여 전해지고 있다. 이들 환상은 종교적이며 윤리적인 측면에서 비롯된 것이다(1, 8, 40장).
- (3) 이러한 환상적 표현은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유배지에서의 불안과 좌절의 생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원하게 만든다(1, 37, 40-48장).
- (4) 또한 비유와 비교가 사용되고 있는데(16, 17, 23장) 그 이유는 그의 시적인 소질(15:1-5; 19:14-21)과 그가 예언한 지역에 자신이 있지 않은 것(1:3; 3:11, 15) 그리고 그의 백성을 감동시키기 위해서였다.
- (5) 그 외에도 에스겔은 애가(哀歌)를 사용한 비유를 즐겨 썼다(27장; 28:11-19; 32장).

10. **㉠** 본서에 나타난 메시아 사상에 대해 설명하라.

- ㉠** (1) 에스겔이 예언한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은 유다 왕족의 백향목 가지로 묘사되었으며(17:22-24) 의를 가지고 오시는 자로 표현되었다(21:32).
- (2) 특히 빨리 묘사된(29:21) 메시아는 회복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진실한 목자가 되심을 나타낸다(34:23, 24). 그는 모든 일을 수행하는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이다(37:24).
- (3) 한편 에스겔의 예언에 나타난 메시아는 왕직이 두드러진 반면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은 배후에 암시되어 있다.
- (4) 따라서 본서는 이사야가 묘사한 '어린 양'과 같은 희생 제물의 개념은 없어도 메시아가 구원의 중보자임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다(22:30).
- (5) 그리고 바벨론에서의 귀환에 대한 메시아적 해석으로는 주께 대한 변화라는 의미를 갖는다(24:5; 31:10).
- (6)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아의 구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스라엘이 정결케 되는 것과 연관을 갖는다(28:25; 36:22, 25; 39:27).
- (7) 이같이 이스라엘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여호와와 새 영(靈)을 부어 주시는

것이다(36:26, 27). 그러므로 에스겔이 예언하는 메시야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이다.

11. ㉠ 본서의 주제에 대해 설명하라.

- ㉠ (1) 본서의 두드러진 주제는 첫째, 하나님을 떠나 패역한 생활에 빠진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의 영광은 떠나고(11:22, 23) 그들의 구원자이시며 보호자이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되셨다는 것이다(6장).
- (2)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며 그분이 인간의 삶 속에 내재하실 때 그 삶이 생기를 얻고 회복된다는 것이다(37:1-14; 47:1-12).
- (3) 즉 여호와 삼마(Yahweh Shamah,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운데 계시어서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다(43장; 48:35).
- (4)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는 민족적 신으로만 알고 있었으나(참조, 신 7:19) 에스겔서에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심판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으로 나타났다(25-32장).
- (5) 마지막으로 에스겔은 개인의 책임을 강조했다. 즉 각 개인은 부모의 죄를 상속하지 않으며 자신의 죄로 인해 그 영혼이 죽게 되리라는 것이다(18장).
- (6)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의 의로운 생활로써만 심판을 피할 수 있으며 그것이 곧 개인의 책임인 것이다(18:31).

12. ㉠ 본서의 예언이 히브리 신앙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

- ㉠ (1) 에스겔의 예언은 성전(聖殿)과 조국을 잃고 이방의 땅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스라엘에게 새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34:11-31; 39장).
- (2) 또한 이스라엘이 상실한 과거의 신앙을 회복하는 데 큰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를 제공하였다(40-48장).
- (3) 그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붕괴된 요인이 이방 신의 유입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향한 태도를 새롭게 하는 데 기초를 마련했다(11:20; 16:61; 20:43).

13. ㉠ 본서의 예언이 신약 사상(新約思想)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

- ㉠ (1) 1:22-28에 나타난 하나님 환상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참조, 계 1:15; 4:3, 6).
- (2) 또한 계 22:1, 2에 나오는 하나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生水)의 강에 관한 부분은 에스겔의 묘사 방법과 동일하다(47:1-12).
- (3) 그리고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먹이는 목자라는 용어으로써 메시지를 말하였는데(34:11-31) 그것은 예수께서 선한 목자로 비유된 것과 유사하다(요 10:1-39).
- (4) 그 외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都城)인 새 예루살렘에 대한 계 21:10-27의 환상도 그 근원을 본서에서 찾을 수 있다(48:15-35).
- (5) 본서 38, 39장에 언급되어 있는 곡과 마곡은 신약의 계 20:8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언의 기초가 된다.
- (6) 마지막으로 결실치 못하는 포도나무의 비유는 본서 15장과 요 15장에 공통으로 나와 있다.

14. ㉠ 본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 ㉠ (1) 본서의 기록 목적은 극도로 부패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이다.
- (2) 그것은 죄를 증오케 하여 예루살렘 멸망이 그들의 죄의 결과란 것을 명백히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36-39장).
- (3) 또한 모든 사람이 심판의 고통을 견디면서 그들의 옛 신앙을 회복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다(36, 37장).

(4) 그것은 그들의 앞에 나타날 새로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여 지루한 포로생활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40-48장).

15. **㉠** 본서와 묵시 문학(默示文學)과의 관계를 설명하라.

- ㉠ (1)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추방되어 남의 나라의 포로로 유배된 이스라엘은 이전의 종교와 땅과 생활로 돌아가기를 기대했으나 성취되지 못했다(참조, 렘 28:3, 4, 11).
- (2)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곳을 현세적인 땅이 아니라 초월적인 장소로 믿 되었다(47, 48장).
- (3) 이것은 묵시 문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기심과 기대를 만족시키고자 한 것이다.
- (4) 이런 면에 있어서 에스겔의 예언은 많은 여호와와 적이 살륙되어 패망하고(38, 39장)이 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없었던 땅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36, 37장).

16. **㉠** 본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였는가?

- ㉠ (1) 본서의 예언에 나타난 하나님은 최고의 전능자(1:24)이시며 자신 안에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시다(1:20).
- (2) 그리고 열국을 다스리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으로(39:7) 피조물의 절대적 통치자이시며 '만군의 주 여호와'로 불리우시는 분이시다.
- (3)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의(義)와 연관된다. 따라서 죄를 지은 예루살렘과 이방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고 가린 행위를 징계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36:23, 32; 39:7).
-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구원을 베푸시며(16:53, 61; 23장)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37장).

17. **㉠** 본서의 대지를 구분하라.

- ㉠ (1) 에스겔의 소명과 파송/1:1-3:27
 - ① 에스겔의 환경/1:1-3
 - ② 에스겔이 본 여호와와 환상/1:4-28
 - ③ 에스겔의 소명/2:1-10
 - ④ 에스겔의 파송/3:1-27
- (2)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들/4:1-24:27
 - ① 네 가지 상징을 통한 예언/ 4:1-5:17
 - ② 심판의 이유/6:1-7:27
 - ③ 환상을 통한 예언/ 8:1-11:25
 - ④ 심판의 확실성/12:1-24:27
 - ㄱ. 예견된 포로 생활/12:1-28
 - 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13:1-23
 - ㄷ. 우상을 섬기는 장로들에 대한 경고/14:1-23
 - ㄹ. 열매 없는 포도나무의 비유/15:1-8
 - ㅁ. 간음하는 여인의 비유/16:1-63
 - ㅂ. 두 독수리의 비유/17:1-24
 - ㅅ. 거절된 신 포도의 교훈/18:1-32
 - ㅇ. 이스라엘 방백들에 대한 애곡/19:1-14
 - ㅈ. 불성실한 이스라엘/ 20:1-49
 - ㅊ. 칼/21:1-32
 - ㅋ. 심판의 풀무/22:1-31

- ㄷ. 두 여인의 비유/23:1-49
- ㄹ. 꿩는 가마의 비유/24:1-14
- ㅎ. 에스겔 부인이 죽은 표적/24:15-27

(3)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 / 25:1-32:32

- ① 암몬에 대한 심판 / 25:1-7
- ② 모압에 대한 심판 / 25:8-11
- ③ 에돔에 대한 심판 / 25:12-14
- ④ 블레셋에 대한 심판 / 25:15-17
- ⑤ 두로에 대한 심판 / 26:1-28:19
- ⑥ 시돈에 대한 심판 / 28:20-26
- ⑦ 애굽에 대한 심판 / 29:1-32:32

(4)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들 / 33:1-39:29

- ① 파수군으로 임명된 에스겔 / 33:1-33
- ② 이스라엘의 목자들 / 34:1-31
- ③ 이스라엘의 재건 / 35:1-36:38
- ④ 이스라엘의 부흥 / 37:1-14
- ⑤ 이스라엘과 유다의 재통일 / 37:15-28
- ⑥ 곡과 마곡에 대한 승리 / 38:1-39:29

(5) 메시아 왕국에서 성취될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 / 40:1-48:35

- ① 새 성전 / 40:1-43:27
- ② 새 예배 / 44:1-46:24
- ③ 거룩한 새 땅 / 47:1-48:35

18. ㉠ 본서의 요절은 무엇인가?

㉠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所望)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 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도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37:11, 12).

연구자료		
본서의 연대표		
에스겔이 그랄 강가에서 환상을 보다(1장)	B. C. 593	여호야긴 왕이 체포된 지 5년 4월 5일
우상에 대한 환상(8장)		6년 6월 5일
장로들의 질문(20장)		7년 5월 10일
	590	
꿩는 가마 예표(24장)		9년 10월 10일
	587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29장)		10년 10월 10일
애굽 멸망에 대한 애가(32장)	585	12년 12월 1일
성전에 대한 환상(40장)		B. C. 573년

제 1 장 영광스런 여호와의 환상

단락구분 1-3 에스겔이 부름을 받은 장소와 시기 / 4-14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네 생물의 형상과 움직임 / 15-21 수리의 구조와 활동 / 22-28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

1 제 삼십 년 사 월 오 일에 내가 그 밭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2 여호야킨 왕이 사로잡힌 지 오 년 그 달 오 일이라
 3 갈대야 땅 그 밭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4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취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5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6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7 그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땅한 구리같이 빛나며
 8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9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10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11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퍼서 각기 들씩 서로 연하였고 또 들은 몸을 가리웠으며
 12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13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14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15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걸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16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

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17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18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들레로 돌아 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19 생물이 행할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20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 생물도 신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21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22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퍼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23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퍼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으며
 24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들 들은즉 많은 물 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라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드리우더라
 25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드리우더라
 26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27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28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리어 그 말씀 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1. ㉠ 본장의 중심 내용을 말하라.

- Ⓐ (1) 본장에서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소와 시기가 나오며 그가 본 여호와의 영광의 환상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 (2) 그는 여호야긴 왕(B. C. 597)이 바벨론에 끌려간 지 5년 4월 5일에(1, 2절) 갈대아 땅, 즉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포로의 신세로 있던 중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
- (3) 한편 그가 소명을 받을 당시 유다와 바벨론에 있던 포로들 사이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렘 29:21), 하나님께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며(렘 28:3, 4) 이제는 전쟁이 없이 평화가 있게 하시리라는 거짓 예언을 하였다(13:16).
- (4)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돕는 동역자를 세워 포로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실 필요가 있었다(2:4, 5). 그런데 에스겔에게 임한 여러 가지 계시의 방법 중 특히 본장과 같이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압도적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북중하는 마음과 경외심으로 그 말씀을 따르게 된다.

2. ⓐ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상(異像)을 보이신 '30년 4월 5일'은 언제를 말하는가?
(1절)

- Ⓐ (1) 그때는 요시아 왕(B. C. 640-609) 제 18년으로부터 계산한 해, 즉 요시아 왕 18년으로부터 30년 되는 해로서 B. C. 593년 6월 혹은 7월 5일로 추정된다.
- (2) 그런데 이 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 요시아 왕 제 18년은 회년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그 해가 회년인 까닭에 요시아 왕은 그 해 유월절을 성대히 지켰을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대하 35:18).
- (3) 또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요벨>, 즉 회년으로부터 연대를 계산하였다.
- (4) 그리고 그날은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된 날이라고 했는데(2절) 여호야긴이 포로된 해는 B.C. 597년이다(참조, 왕하 24:14).
- (5) 한편 4월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유월절 달인 니산 월에서 계산한 것 같다(출 12:2; 느 2:1; 렘 3:7).
- (6) 따라서 4월은 담무스 월로 오늘날의 태양력으로는 6월이나 7월에 해당한다.

3. ⓐ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곳은 어디인가?(1절)

- Ⓐ (1) 그곳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살고 있던 그발 강가이다.
- (2) 이 그발 강은 바벨론에서 동남쪽으로 약 80km 떨어진 님불(Nippur)에서 발견된 비문에 의하면 운하의 하나였으며 그 비문에서는 나르 가바리(Nar Kabari), 즉 대운하로 불리었다.
- (3) 그런데 이 운하는 바벨론의 북쪽 유프라테스 강에서 갈라져 님불을 통과하면서 남하하여 오늘날의 나스리에(Nasrieh)에서 유프라테스로 다시 흘러들어가는 길이 150km의 대운하이다.

4. ⓐ '사로잡힌 자 중에'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가?(1절)

- Ⓐ (1) 이 상태는 그가 포로들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에스겔 자신이 포로의 한 사람으로 있던 상태를 말한다.
- (2) 왜냐하면 3:11, 15에 의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강가에 홀로 있었으며 그 후에도 그가 환상을 볼 때까지 포로들의 정착지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 (3)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서 돌이키시려고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보내셨으나(참조, 사 6:9, 10; 렘 2:2, 3)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여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사 3:1-9; 렘 8:8-17).
-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그대로 놓아 두지 않으시고 좌절과 실의에 빠진 그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주셨다(36:7-15).
- (5)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에게

위로와 은총을 베푸신다(참조, 출 2:24, 25).

(6)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뻗칠 때 우리는 귀를 기울여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하겠다(참조, 사55:3).

5. **㉠**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1절)

- ㉡** (1)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며 에스겔에게 이상(異像)을 보이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2) 이것은 실제로 하늘이 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상을 보이시기 위해 그의 영안을 여셨다는 의미이다(참조, 마3:16; 행 7:5, 6).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도우시려고 우둔한 인간이 깨달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신다(참조, 단 10:11, 12).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6. **㉠**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때는 언제인가? (2절)

- ㉡** (1) 그때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게 함락되던 해인 B.C.597년이다.
 (2) 그 당시 예루살렘은 18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여호야긴이 치세 3개월을 채우고 있던 때였다(왕하 24:8).
 (3) 그러나 그는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 성을 빼앗기고 많은 방백과 기능공 그리고 병사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다(왕하 24:12-14).
 (4) 이런 와중에서도 그와 백성들은 2년 뒤에는 반드시 왕국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자 하나나의 말로 위로를 받기도 했다(렘 28:3, 4, 11).
 (5) 더우기 그는 포로지 바벨론에서조차 포로가 아닌 왕으로서의 예우를 받는 행운아였다. 특별히 포로 생활 39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 왕(에일므르다, B.C.562-560) 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인으로 인정받았다(왕하 25:27-30).

7. **㉠** 에스겔은 그 밭 강가에서 어떤 체험을 하였는가? (3절)

- ㉡** (1) 에스겔은 여호와와 말씀이 자신에게 임한 것과 여호와와 권능(權能)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경험했다.
 (2) 여기서 ‘여호와와 말씀’과 ‘여호와와 권능’이란 하나님으로부터의 직접적인 계시를 뜻한다(참조, 창 15:1; 말 1:1; 눅 3:2).
 (3) 그리고 ‘여호와와 권능’이란 말을 다른 번역본(KJV, RSV)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이며 불가항력적인 능력을 의미하는(참조, 3:14, 22; 8:1; 33:22) ‘여호와와 손’으로 표현하고 있다.
 (4) 따라서 에스겔은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소명을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참조, 왕상 18:46; 왕하 3:15).
 (5)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야 자신의 능력과 노고를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다(참조, 렘 20:7, 9).

8. **㉠**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 환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4절)

- ㉡** (1) 이것은 북쪽에서 다가오는 갈대아인의 노도와 같은 침략을 의미한다.
 (2) 그런데 이 침략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음을 나타낸 것이다(참조, 11:23; 렘 1:14; 30:23). 또한 이 환상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키기도 한다(43:3).
 (3)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같은 환상을 보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헛된 소망, 즉 예루살렘이 안전하리라는 소망을 버리도록 두려움을 주시기 위함이다.

9. **㉠** 북방에서 오는 큰 구름 속에서는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가? (4절)

- ㉡** (1)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사면(四面)에 비취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보인다.

- (2)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며(참조, 출 9:24) 여기서 ‘단쇠 같은 것’은 문자적으로 금과 은의 합성물인 눈(目)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빛을 발하는 불의 구체(球體)를 의미한다(참조, 단 10:6; 계 1:15).
- (3) 이 같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며 단지 마음의 정결한 눈으로만 볼 수 있으며 알 수 있다(참조, 신 29:4; 마 5:8).

10. **㉠** 네 생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5-10절)

- ㉠** (1) 네 생물의 모습은 사람의 얼굴과 손을 갖고 있는 형상이다.
- (2) 그들은 속죄소의 그룹들과 유사한 모습으로(10:15) 네 발 짐승들의 상징에서 발전한 것이다.
- (3) 또한 이 생물들을 앗수르와 바벨론의 조각품 중 날개 달린 네 발 짐승을 연상케 한다.
- (4) 이 같은 천사의 모습이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 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은 인간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신다는 것이다(창 2:26-28).

11. **㉠** 네 생물과 이사야의 이상에 나오는 스랍의 형상을 비교하라(6절).

- ㉠** (1) 이사야가 본 이상 중에 나오는 스랍은 날개가 여섯인 반면, 본서에 나오는 네 생물은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를 가지고 있다.
- (2) 한편 제 4:8에 나오는 생물은 이사야서의 스랍과 같이 여섯 날개를 갖고 있으며 머리는 각 생물이 하나씩 가지고(제 4:7) 있는데 본서의 생물은 각 네 얼굴을 가지고 있다.
- (3) 이들은 생물의 형상을 가진 천사들로서 생명을 상징한다(참조, 눅 20:36). 또한 그들의 존재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참조, 시 91:11; 단 6:22).

12. **㉠** 네 생물의 다리와 발의 모양은 어떠한가? (7절)

- ㉠** (1) 그들의 다리는 곧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으며 마광(磨光)한 구리같이 빛난다.
- (2) 이 생물의 다리는 굽어졌거나 무릎이 없이 막대기처럼 곧은 다리이다. 이것은 어떠한 방향으로도 이동이 가능하며 움직임이 다양하고 기민하기 위해서이다(14절).
- (3) 한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과 같이 단단하여 강인한 인상을 주며 그것이 또한 잘 닦은 구리같이 빛난다.
- (4) 이 같은 표현들은 그 생물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기민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여 준다(11, 14절).

13. **㉠** 생물들의 날개는 어떤 모습과 기능을 가졌는가? (8, 9절)

- ㉠** (1)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었으며 네 생물이 모두 얼굴과 날개가 따로따로 있었고 날개를 서로서로 맞대고 가는데 들지 않고 곧장 앞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었다.
- (2) 그런데 날개 밑에 있는 사람의 손은 어떤 일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과 힘이 있음을 상징한다.
- (3) 또한 손을 덮고 있는 날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며 날개들이 서로 맞대어 있다는 것은 일사 불란한 사역을 가리킨다(17절).
- (4) 그리고 그 날개들이 움직일 때는 들지 않고 곧바로 나아가는 것도 각기의 생물이 따로 움직이지 않고 통일된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10:11).
- (5) 이 같은 생물들의 모습과 움직임은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권능과 명령에 의해 행동하는 것을 나타낸다(12, 20절).
- (6) 이와 같이 하나님의 피조물 중 하나인 천사의 행위는 순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전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며 다투지도 않는다(20절).
- (7)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지체(肢體)가 서로 연합하면서도 각자의 일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롬 12:4,5).

14. ㉠ 네 생물의 얼굴은 무슨 형상인가? (10절)

- ㉠ (1) 네 생물 얼굴에서 앞면은 사람의 얼굴이며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을 가졌고 왼쪽은 소의 얼굴이며 뒷면은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다.
- (2) 즉 이 생물들은 각각 사방을 볼 수 있도록 네 개의 얼굴을 가졌으며 또한 각기 형상도 다르다.
- (3) 여기서 앞면의 사람 얼굴은 하나님의 최고의 상징으로서(참조, 단 :9, 13) 이성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임을 예표한다.
- (4) 그리고 사자의 모습은 주권과 왕적 권위를 상징하며(왕상 7:29;10:20;대하 9:18, 19) 또한 유대 왕의 힘을 나타내기도 한다(참조, 창 49:9).
- (5) 세째로 소는 창조적 힘의 상징으로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열 두 마리의 소가 거대한 바다를 바치고 있다(왕상 7:25).
- (6) 이와 같이 사자와 소는 성전이나 궁전에서 주권과 힘을 상징하는 동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독수리 역시 왕의 힘을 나타낸다(17:3, 7).

15. ㉠ 생물들의 날개의 움직임과 행동은 어떠한가? (11, 12절)

- ㉠ (1) 생물들은 날개를 공중으로 펴서 두 날개를 서로 맞대고 가며 두 날개로는 몸을 가리우고 신(神)이 가는 방향대로 따라 앞으로 곧장 날아간다.
- (2) 먼저 그들이 두 날개로 몸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보이는 행동이다(참조, 사 6:2)
- (3)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주관하는 '신'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바람이나 영을 의미한다(참조, 창 1:1;6:3;시 139:7;사 40:7, 13).
- (4) 여기서 영은 마음이나 의지를 가리키며(참조, 시 104:4) 생물들은 자신들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임을 보여 준다(20, 21절).
- (5)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참조, 시 143:10; 롬 12:2).

16. ㉠ 생물들은 무슨 모양을 하고 있는가? (13, 14절)

- ㉠ (1) 그들은 숯불과 횃불 모양을 하고 있으며 그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광채(光彩)가 나며 그 속에서 번개가 튀어 나왔다.
- (2) 이 숯불과 횃불은 악을 소멸시키는 성결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참조, 출 3:2;13:22;19:18;민 11:1-3;신 4:24).
- (3) 또한 14절에서 그 생물이 번개같이 빠르다고 했는데 그것은 행동의 민첩함을 나타낸다.
- (4) 그리고 이처럼 밝고 빛나는 불은 생명과 불타는 열심 그리고 사랑을 느끼게 한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불타는 열정과 생명이다(참조, 롬 12:11;딤후 2:14).

17. ㉠ 생물의 움직임에 따라 같이 행동하는 것은 무엇인가? (15절)

- ㉠ (1) 그것은 생물 결 땅 위에 있는 바퀴이다.
- (2) 여기서 이 바퀴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며(참조, 약 3:6) 그들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섭리의 변화를 말한다(참조, 전 1:9, 10).
- (3) 또한 바퀴들은 생물의 움직임에 따라 같이 행동하는데 그것은 생물이 그 바퀴를 조정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되는 것들이다(19, 20절).
- (4) 그리고 바퀴는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각기 사방을 바라보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 어디에나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참조, 대하 20:6).

18. **㉠** 바퀴는 어떤 형상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16절)

- ㉠** (1) 네 바퀴가 모두 같은 형상과 구조를 갖고 있으며 바퀴 속에 바퀴가 있어 돌아가듯 되어 있었다.
- (2) 네 바퀴가 한결같이 동일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느 한 사건이나 개인에게만 적용되거나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적용됨을 의미한다.
- (3) 또한 바퀴가 이중(二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인과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 바퀴는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조정하신 사건들의 의도는 항상 동일한 의미를 지녔음을 의미한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은 모두 한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업들이 각기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으나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조화를 이룬다.

19. **㉠** 바퀴들은 어떤 색깔을 띄고 있는가? (16절)

- ㉠** (1) 그 바퀴들은 모두가 똑같이 황옥의 빛을 띄고 있었다.
- (2) 그런데 ‘황옥’은 연한 푸른 바다 빛의 보석을 말한다(참조, 출 28:20).
- (3)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바다와 같이 깊고 오묘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 준다(참조, 전 3:11).

20. **㉠** 바퀴의 둘레에 가득한 것은 무엇인가? (18절)

- ㉠** (1) 바퀴의 네 둘레에는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웠다.
- (2) 바퀴의 이런 현상은 에스겔을 두렵게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둘레가 매우 크고 눈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 (3) 여기서 둘레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상징하면서 그 섭리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과 지혜에 의해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대하 16:9).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는 일들 속에 관심과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며 지도하신다(참조, 사 48:15).

21. **㉠** 생물의 움직임과 바퀴의 움직임은 어떤 연관을 갖는가? (19절)

- ㉠** (1) 그 생물들이 움직이면 옆에 있던 바퀴도 움직이고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도 따라 떠올랐다.
- (2) 그런데 9절에서 보았듯이 생물들이 움직일 때는 돌지 않고 곧장 앞으로 나아갔으며 바퀴들도 사방 어디를 가든지 떠날 때 돌지 않고도 갈 수 있게 되어 있었다(17절).
- (3) 이처럼 생물과 바퀴들은 동일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조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 (4) 이와 같이 성도의 삶 속에 있어서는 믿음과 행위의 조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같이 서로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참조, 약 2:26).

22. **㉠** 생물의 신(神)은 생물의 어디에 위치하는가? (20절)

- ㉠** (1) 생물의 신은 바퀴 가운데 있다. 그래서 신이 움직이려는 방향으로 생물과 바퀴가 따라 움직인다.
- (2) 이처럼 생물과 바퀴의 활동 근원은 한가지인데 그것은 그 생물의 신이다(10:17).
- (3) 이같이 피조 세계, 즉 자연의 모든 활동과 결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의해 이루어지며 자연의 힘과 인간의 능력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어진다.

23. **㉠** 생물의 머리 위에 펼쳐 있는 것은 무엇인가? (22절)

- ㉠** (1) 그것은 보기에 매우 두렵고 수정같이 환히 빛나는 궁창(穹蒼)의 형상이다.

- (2) 이제 에스겔의 환상은 차츰 하나님 곁으로 다가간다. 따라서 그의 눈에 궁창의 모양이 뚜렷이 보인 것이다.
- (3) 그러나 그것은 실제 하늘이 아니라 단지 하늘과 같은 새로운 모양일 뿐이다. 따라서 그것은 하늘같이 푸르고 광활한 공간을 의미한다(참조, 출 24:10).
- (4) 또한 그 궁창의 형상은 수정같이 맑고 투명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헬라이어의 <크루ystal로스>, 즉 '찬' 혹은 '차거운'의 뜻과 같은 의미이다(참조, 제 4:6).
- (5) 그리고 그 형상이 매우 두렵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수정같이 맑고 투명하기 때문에 그 찬란함에 압도된 것을 말한다(18절).
- (6) 에스겔은 아직 하나님 보좌의 광경을 보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에 경외심을 나타냈다(참조, 욥 37:22).
- (7)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그리고 위대함에 대해서 많이 둔감한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거룩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이 되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참조, 제 4:11).

24. ㉠ 생물들이 움직일 때 나는 소리는 무엇과 비슷한가? (24절)

- ㉠ (1) 생물들이 움직일 때 나는 소리는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전능자(全能者)의 음성과도 같고 떠드는 소리 곧 군대가 싸움터에서 고향치는 것 같았다.
- (2) 이 소리들은 노도와도 같이 밀려드는 바다의 소리와(참조, 시 107:23)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 즉 여호와와 소리는 천둥과 우뢰 소리와 동일시되었다(참조, 제 1:15). 그리고 전쟁터에서 군대의 함성과 같았다.
- (3) 이처럼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생물들이 움직일 때는 먼저 순종의 날개 소리를 내는 것이다(참조, 제 19:6).
- (4)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들리는 음성 혹은 소리로 이해된다(참조, 43:2; 시 29:3, 4).
- (5) 이와 같이 우리의 귀에 직접 들리지는 않지만 마음의 귀에 들리는 여호와와 영광과 거룩한 음성은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을 주관하신다(참조, 시 105:21, 22).

25. ㉠ 생물들이 날개를 드리운 이유는 무엇인가? (25절)

- ㉠ (1) 날개 짓을 하며 많은 소리를 내던 생물들은 자신들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날기를 멈추고 날개를 드리웠다.
- (2) 이러한 자세는 겸손과 그리고 경외를 표시하는 동작이다(11절).
-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경외의 마음을 가지나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세를 가진다(참조, 사 9:9).

26. ㉠ 궁창 위에 있는 형상은 무엇인가? (26절)

- ㉠ (1) 궁창 위에 있는 것은 남보석(藍寶石) 같은 보좌의 형상이다.
- (2) 그런데 남보석은 출 24:10에 언급된 청옥과 같은 것으로 구슬 인장(印章) 등에 쓰이는 푸른 유리 보석이다.
- (3) 또한 그것은 제사장의 판결(判決) 흉패에 사용되었으며(출 28:18; 39:11)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 기초석으로 사용되었다(제 21:19).
- (4) 그리고 하늘의 맑고 푸른 색깔은 이 땅의 어둠침침한 빛깔과 대조를 이루어 순결함을 더욱 강조한다(참조, 출 24:10).
- (5) 한편 에스겔이 본 '보좌'는 신의 계시를 나타내는 권위를 의미하며 또한 그것은 영광과 심판 그리고 통치의 보좌를 의미한다(참조, 왕상 2:19).
- (6)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以上)의 영광과 존귀 가운데 계시며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심판의 주(主)로도 계신다(참조, 시 9:7).

27. ㉠ 보좌의 형상 위에 있는 모습은 무슨 모양을 하고 있는가? (26절)

- ㉠ (1) 궁창 위 그리고 보좌의 형상 위에 있는 모습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람의 모양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시하는 것이다(참조, 딤펢전 3:16).
 (3) 이와 같은 사실은 다니엘의 환상 중에서 나타남(단 7:9,13) '인자(人者) 같은 이'에게 심판의 권세와 영광과 주권이 주어지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4) 이처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요 1:14)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다(요 1:1, 2).

28. ㉠ 허리 이상(以上)의 모양은 무엇과 같은가? (27절)

- ㉠ (1) 그 속과 주위(周圍)가 불 같은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 쇠와 같다.
 (2) 이 같은 환상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을 번쩍이는 빛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은 빛 속에서 거주하시는 분으로 표현하였다(1:4;8:2).
 (3)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순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별히 에스겔은 불 같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공포를 느꼈다(28절; 단 10:7).
 (4) 또한 이 불은 소멸시키는 심판의 불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한다(1:4). 따라서 에스겔은 보좌 위에 있는 분을 신적 권위를 가진 왕과 심판자로 보았다(참조, 계 14:7).
 (5) 이 같은 하나님의 형상 묘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형상을 가지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그리고 에스겔에게 알리려고 하신 뜻을 일반인들에게 보다 쉽게 이해시켜 신적 권위에 복종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8:2).

29. ㉠ 에스겔은 사면 광채의 모양을 어떻게 보았는가? (28절)

- ㉠ (1) 에스겔은 사람의 형상에서 나오는 사면 광채를 비 오는 날 구름 속의 무지개로 보았다.
 (2) 이러한 형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면서도(참조, 계 4:3;10:1) 그 안에는 자비와 구원의 언약이 내포되어 있다(참조, 창 9:16).
 (3) 이 같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환상에서 알 수 있듯이 보좌에 앉으신 이는 영광 중에 거주하시는 분이시며 구원의 영원한 증보자가 되신다(참조, 딤펢전 2:5).

30. ㉠ 에스겔이 엎드린 이유는 무엇인가? (28절)

- ㉠ (1)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보고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엎드렸다.
 (2) 이러한 자세는 여호와의 앞에서 가장 겸손하게 경배드리는 자의 자세로 그는 여호와의 영광에 압도되었기 때문이다(참조, 10:4).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말씀을 받겠다는 순종의 자세이다(참조, 고전 4:2).

본장의 요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3절).

제 2 장 에스겔이 받은 소명

단락구분 1-5 에스겔이 받은 소명 / 6-7 에스겔이 받은 교시(敎示) / 8-10 재앙의 두루마리

1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2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시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3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4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박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5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을 알지니라

6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7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8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9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10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1. ㉠ 에스겔이 받은 소명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1) 본장에는 영광의 형상 가운데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에스겔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을 전할 소명이 기록되어 있다.

(2) 특별히 에스겔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신(神)이 임하였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직접 그 음성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1, 2절).

(3) 그러나 그의 사명은 뻔뻔스러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에스겔의 예언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4, 5절).

(4)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어려운 사명을 띤 에스겔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것을 교훈하셨다.

(5) 이처럼 본장에는 아무리 패역한 자들이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종을 보내서 마음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2. ㉠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어떤 호칭을 사용하여 부르셨는가? (1절)

㉠ (1)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인자' (人子)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부르셨다.

(2) 그런데 이 호칭은 다른 예언자들에게는 사용되지 않았고 단지 에스겔과 다니엘에게만 사용되었는데 다니엘에게는 단 한 번뿐이었다(단 8:17).

(3)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인자'의 의미는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말하는 것으로 에스겔이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임을 나타내는 것이다(참조, 시 8:4).

(4) 이처럼 에스겔은 비록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음성을 들었으나 그는 단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자로 부름을 받았다(3:17).

(5)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가 행한 선이 오직 하나님의 능

력으로부터 왔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참조, 고후12:7).

3. **㉠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이 에스겔에게 무엇을 명하셨는가? (1절)**

- ㉠ (1) 그 음성은 여호와와 영광의 형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에스겔에게 일어설 것을 명하셨다.
- (2) 즉 그 음성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위해 일어설 것을 명하신 것이다.
- (3) 이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날에도 성도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 음성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각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으나 우리는 단지 이 음성의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3:24; 43:3, 5; 단8:18).

4. **㉠ 에스겔은 어떻게 일어섰는가? (2절)**

- ㉠ (1)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신(神)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그를 일으켜 세웠다.
- (2) 이는 에스겔이 일어서라는 명령을 받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신 사실을 가리킨다(참조, 단 10:18).
- (3) 이와 같이 에스겔에게 임한 성령은 그를 압도하며 감동시켜서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참조, 계 1:17).
- (4)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기란 참으로 힘이 든다(참조, 롬 6:19). 따라서 우리는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기대해야 한다(롬 5:6).

5. **㉠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누구에게 보내시는가? (3절)**

- ㉠ (1)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하는 자들이 패역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에스겔을 보내신다.
- (2) 여기서 패역(悖逆)한 백성이란 반역하는 백성을 말하며, '백성'은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사용되던 히브리어 <고임>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 (3) 그 이유는 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너무나도 패역했기 때문이다(참조, 암 9:7).
- (4) 이와 같이 말씀을 전파할 때 마음이 강박하여 말씀을 배척하는 자들이 많지만 그런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더욱 값진 일이다(33:14-16).

6. **㉠ 이스라엘 족속이 지은 죄의 특징은 무엇인가? (3절)**

- ㉠ (1) 그들은 조상 때부터 대대로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 (2) 따라서 이스라엘이 받고 있는 현재의 고난은 그들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지은 죄악으로 인한 형벌이다(18장).
- (3) 이처럼 각 개인은 어느 누구의 죄에 의해서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다(신 24:16).

7. **㉠ 에스겔이 자신의 백성을 <고임>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부른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 (1) 그 이유는 이 칭호를 사용함으로써 이제껏 선민 의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을 이방 백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려 했기 때문이다.
- (2) 그런데 이 단어는 '혐오', '더러움'을 나타내는 단어로 하나님께 버림 받은 백성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 단어가 복수 명사로 쓰인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으로 가득 차서 자신들의 죄악까지도 정당화하려는 자들을 징계하실 때 가장 귀중한 것이나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빼앗아 가신다(참조, 습 1:11).

8. **㉠ 이스라엘 자손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4절)**

- ㉠ (1)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박(剛愎)하여 자신들의 잘못에 무관심한 상태였다.
- (2) 문자적으로는 얼굴이 굳고 마음이 완고한 상태를 말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타락한 정도를 가르쳐 준다(참조, 사 48:4).
- (3) 이와 같이 한 사회나 국가의 전체적 죄악은 그 국민들의 도덕성을 말살시켜 세계 평화와 그 국민의 파멸을 초래한다(참조, 습 1:12).

9. **㉠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은 무엇인가? (5절)**

- Ⓐ (1) 그것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 주 여호와와 말씀의 뜻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려는 것이다.
- (2)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선교가 실패하더라도 낙심치 말고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하신다(33:33; 렘 28:9).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르쳐 주신다(참조, 눅 1:20).

10. Ⓢ 에스겔이 앞으로 겪을 어려움은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6절)

- Ⓐ (1) 그는 가시와 질러(疾黎)와 함께 처하여 전갈(全蠍)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 (2) 여기서 '가시와 질러'는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키며 그들이 에스겔에게 고통을 주는 가시와 질러가 됨을 말한다(미 7:4).
- (3) 또한 그들은 독을 가진 전갈과 같은 존재로 선지자를 괴롭히며 박해한다(참조, 마 22:15).
- (4) 예로부터 이 같은 박해자들이 의인들을 괴롭혀 왔으나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다(참조, 욥 21:30).

11. Ⓢ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전할 에스겔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6절)

- Ⓐ (1) 말씀을 전할 대상이 비록 악하여 그를 괴롭힐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말까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 (2) 이것은 그를 대적하는 박해자들의 행위가 그를 괴롭히고 무섭게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함을 가지라는 말씀이다(참조, 렘 1:8).
- (3)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다른 존재를 더 두려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그 존재보다 더 작게 보는 것이다(참조, 계 19:15).

12. Ⓢ 패역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에스겔의 사명은 무엇인가? (7절)

- Ⓐ (1)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듣지도 않겠지만 듣든 안 듣든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일이다.
- (2) 비록 그들이 반항하는 일밖에 모르는 족속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든 원치 않든 에스겔은 말씀을 전하여야 한다는 뜻이다(참조, 28:24).
- (3) 또한 그 말씀은 만군의 주 여호와와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전하여야 하며(참조, 마 10:19, 20) 자신의 생각이나 메시지를 전해서는 안 됨을 말한다(참조, 13:7).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종종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여 자신이 받은 소명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것은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행동이다(참조, 은 1:3).

13. Ⓢ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인가? (8절)

- Ⓐ (1)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항하는 일밖에 모르는 이스라엘 족속처럼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가 되지 말고 입을 벌려 그분이 주시는 것을 받아 먹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 (2) 이 말씀은 에스겔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회피하려는 데 대해 미리 경고하는 것이다. 즉 사명을 거절하거나 이스라엘 족속에게 해를 입을까 두려워 회피하는 경우에 대한 경고 말씀이다(참조, 출 3:11; 4:10-13; 사 6:5).
- (3) 따라서 죄를 지적해야 하는 직분을 받은 자가 그 일을 회피하는 것은 죄를 묵인하는 것이며 조장하는 것과 같다(참조, 스펴 3:4, 5).
- (4)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공직을 맡은 자가 자신의 직무를 올바르게 행치 않거나 그 사회의 죄를 고발치 않고 묵인하는 경우 사회는 더욱 악이 만연하게 된다(참조, 스펴 7:8-12).

14. Ⓢ 하나님께 순종하는 에스겔이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8절)

- Ⓐ (1) 그것은 그의 입을 벌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는 것이다.
- (2) 여기서 에스겔이 받아 먹은 것은 두루마리 책이며(9절), 말씀을 먹는다는 함은 그 말씀이 선지자의 영혼 깊숙이 들어가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을 말한다(참조, 계 10:9).

(3) 또한 이것은 상징을 통해 에스겔의 사명을 확증시키는 것이기도 하다(3:1).

(4) 이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는 먼저 그 말씀을 스스로 깨달아 알고 그것이 그 자신을 감동시키며 움직일 수 있어야 주의 말씀을 올바르게 그리고 정확히 전할 수 있다(히4:2).

15. **㉠** 두루마리 책은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9, 10절)

- ㉠** (1) 환상 중에 에스겔이 보니 한 손이 그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직접 에스겔 앞에서 그 책을 펼쳐 보이셨다.
- (2) 이처럼 선지자를 향해 뻗은 손은 그의 앞에 나타난 새로운 환상으로서 신적 권위를 상징한다(참조, 단 5:5).
- (3) 또한 선지자는 이상 중에 나타난 책을 환상의 손이 직접 보이기에 더욱 하나님의 사명을 확신하게 되었다(참조, 6, 7절).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전할 말씀을 확실히 알고 이해하기를 원하신다(참조, 계 10:9).

16. **㉠** 에스겔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 말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9, 10절)

- ㉠** (1)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전하라고 명하신 말씀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었다.
- (2)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파피루스나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며 대체로 한 쪽에만 쓰는데 양면에 쓴 것은 심판이 광범위함을 나타낸다(참조, 계 5:1).
- (3) 이처럼 우리가 전할 말들은 우리 자신이 생각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 주신다(3:1).

17. **㉠** 두루마리 안팎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인가? (10절)

- ㉠** (1) 그것은 심판에 관한 내용으로 애가(哀歌)와 애곡(哀哭)과 재앙(災殃)이다.
- (2) 그 내용은 이스라엘과 열방의 죄악과 그들이 받을 심판 그리고 그들의 패망이 기록되어 있다(6:1-7:27; 25:1-32; 32:35).
- (3) 이 같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임무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 내용에 자극을 받아 깨달도록 하는 것이다(참조, 5절).

연구자료

에스겔이 이해한 하나님

에스겔의 신학 사상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다. 그 가운데서도 일차적으로 주목하여야 할 점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이다. 에스겔은 그 발 강가에서 최초로 본 환상 중에 먼저 '여호와와 영광의 형상'(1:28)을 보았다. 즉 그가 보았던 보좌에 앉은 사람의 형상(1:26-28)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무한하신 전능성 그리고 그의 전지성(全知性) 및 무소 부재성(無所不在性)을 나타내 주는 상징체였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에스겔이 본 그룹들(1:4-25)이 상징하는 바도 역시 동일하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에스겔의 언급은 본서 전체에 걸쳐 거듭 제시되어 있다(3:23; 10:1-20; 11:22-24; 41:18-20). 또한 본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거룩한 성전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에스겔은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

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임한즉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와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게 되는 광경을 목격하였다(9:3; 10:4).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것으로서 신·구약 성경에 자주 언급되어 있다(출 16:10; 민 9:15; 왕상 8:10; 시 99:7; 단 7:13; 마 17:5; 24:30; 살전 4:17; 계 1:7). 이외에도 에스겔은 43, 44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 기술(記述)하고 있다. 그가 본 이상(異像)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본 이상과 같은 것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은 마치 많은 물 소리 같았으며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인해 빛났었다(43:2, 3).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은 에스겔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말인 '인자'(人子)라는 칭호와 관련되어 상대적으로 나타난다(참조, 43:7, 8). 즉 '인자'라는 칭호는 타락한 인간성의 연약함과 장차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유한성을 드러내고 있는 말인데 반해 하나님의 영광은 영속적이며 무한, 불변하는 성질의 것이다. 그러므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었다(1:28; 43:3).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이름과도 상호 관련적으로 나타난다. 본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YHWH, 여호와)인데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는 '나 주 여호와와 같이니라'라는 말이 그분의 영광과 관련된 모든 사역에 있어서 거듭 강조되고 있다(16:63; 24:17; 29:16, 21; 34:24; 37:28; 48:29).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뿐 아니라 온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섭리적 사역은 과거나 현재, 미래에도 오직 '여호와와 이름', '여호와와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두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에스겔의 개념을 이해함에 있어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그분의 거룩성(holiness)에 대한 것이다. 본서에는 '나(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다'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20:41; 28:22, 25; 36:23; 38:16, 23; 39:27).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함(히, 코데쉬)이란 그분의 본질적인 신성(神性, deity),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과 본질적으로 구별되시는 존재임을 의미한다. 이 같은 거룩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고까지 하셨다(39:7). 이 말은 곧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체를 깨달거나 또는 그분께 그분의 참된 본성(nature)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 드리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인정하는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示唆)해 준다.

이상과 같이 에스겔의 신학 사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그분의 영광 및 그분의 거룩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제 3 장 에스겔의 파송

단락구분 1-3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다 / 4-11 에스겔이 교시(敎示)를 받다 / 12-15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가는 에스겔 / 16-21 선지자로써의 직책과 임무 / 22-27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짐룩을 명하다

1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2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3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끝 같더라

4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5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6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7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박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8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도

9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10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튿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11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12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이다 하니

13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14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15 이에 내가 뿔아뿔이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민담하 칠 일을 지내니라

16 칠 일 후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17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군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18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요

19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라

20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21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라

22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23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24 주의 신이 내게 임하시니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25 인자야 우리가 줄로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26 내가 너 히로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병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27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의 말씀

이 이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들 | 족속임이니라
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1. ㉠ 본장에 나타난 중심 사상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가는 에스겔을 준비시키시며 격려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말씀을 전하라는 그분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다.
- (2) 그리고 앞 장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에스겔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는 내용이 묘사되어 있으며 마음이 강팍(剛愎)한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 말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것을 기록하고 있다(3, 7, 11절).
- (3) 특히 에스겔은 성령에 의해 선교지로 공수(空輸)되며(14절) 그가 임무를 회피할 경우 그에게 처벌이 있을 것이 언급되어 있다(20절).
- (4) 또한 에스겔의 언행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이끄신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24, 26절).
- (5) 본장에는 선지자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하며 선지자는 다만 그의 임무만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잘 나타나 있다(참조, 마 25:27).

2. ㉠ 에스겔이 받은 명령은 무엇인가? (1절)

- ㉠ (1) 그것은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는 말씀이다.
- (2) 이것은 2:8의 명령을 반복하는 것으로 선지자는 자신의 말을 전하지 말고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전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참조, 요 4:34).
- (3) 여기서 보듯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우(愚)는 자기 도취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말을 하는 경우이다(참조, 왕상 22:11, 24).
- (4)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신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참조, 계 22:18, 19).

3. ㉠ 에스겔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2절)

- ㉠ (1)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입을 벌릴 때 하나님께서는 두루마리 책을 에스겔에게 먹이셨다.
- (2)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심을 의미하며 그는 단지 그 말씀을 받아야 함을 뜻한다(참조, 눅 9:44).
- (3)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그 말씀에 의탁해야 한다(참조, 딤후 4:15).

4. ㉠ 에스겔이 먹은 두루마리 책은 그의 입에 어떠한가? (3절)

- ㉠ (1) 그가 배불리 먹은 두루마리 책은 꿀과 같이 달았다.
- (2) 그런데 여기서 그 두루마리가 달다는 것은 처음에 그가 하나님을 대하였을 때는 두려움이 앞섰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분의 사자가 된 지금 무한히 기쁘다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렘 15:16).
- (3) 또한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운다는 것은 말씀으로 가득 채운다는 의미이며 그의 영혼에 양식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시 40:8; 눅 9:44).
- (4) 이와 같이 말씀 선포자는 자신의 일이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은 데 대해 감사와 기쁨을 가져야 한다(참조, 딤후 1:12).

5. ㉠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을 전할 대상은 누구인가? (4절)

- ㉠ (1) 에스겔이 예언의 말을 전할 대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던 이스라엘 족속이다.
- (2) 그런데 이 이스라엘 족속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모든 백성을 말한다(10, 11절).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자식을 잊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부르신다(참조, 애 1:19).

6. **㉠**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방 족속에게 보내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5, 6절)
- ㉠** (1)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방이 아닌 자신의 백성에게 보내신 이유는 에스겔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 말씀을 거절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2) 즉 에스겔의 선교가 외적으로는 이방 민족에게로 보내어진 것보다 쉬운 것이라는 의미이다(참조, 마 11:21).
 (3) 또한 그가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친숙하다는 것이다(2:3).
 (4) 그 뿐 아니라 그는 자신의 백성들과 같이 포로의 신세이기 때문에 그들과 에스겔 사이에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1:1, 3).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세미한 일까지 신경을 쓰신다(참조, 시 139:14).
7. **㉠**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방인에게 보낸다면 그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낼 것인가? (6절)
- ㉠** (1) 만일 에스겔이 이방 족속에게 보내어졌다면 이방 족속은 정녕 그 말을 들었을 것이다.
 (2) 그런데 이 말은 말씀에 순종치 않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강조한 말이며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방 족속들보다 더욱 완고함을 나타낸다(참조, 은 3:1-10).
 (3) 이처럼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것을 무시할 때 마음이 굳어진다(참조, 마 11:21-24; 눅 10:12-14).
8.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의 완고함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7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박(剛愎)하여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2) 즉 이 말은 그들이 매우 뻔뻔하여 자신들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떠한 경고에도 두려움을 갖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배척함을 의미한다(참조, 사 48:4).
 (3) 이같이 이미 양심이 무디어져서 마음이 굳은 사람은 선악을 구분할 능력마저도 상실한다(참조, 잠 12:26).
9. **㉠**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듣지 않음과 같은가? (7절)
- ㉠** (1) 이스라엘 족속이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에스겔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같다.
 (2) 이것은 이스라엘 족속이 얼마나 하나님께 패역한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말로서 설혹 그들이 에스겔을 배척한다 해도 낙심치 말 것을 이르신 말이다(2:6).
 (3) 또한 그러한 행동은 그들의 죄를 더욱 가중시키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같은 행동을 보일 줄 아셨으면서도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셨다(2:4).
 (4)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떠한 난관에 부딪칠지라도 낙심치 말아야 한다.
10. **㉠**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가? (8절)
- ㉠** (1)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의 얼굴과 이마를 굳게 하셨다.
 (2)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보다 에스겔을 더 강하게 하셔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참조, 사 50:7).
 (3) 이것은 에스겔이 자신의 지혜나 능력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무장하여야 함을 의미한다(참조, 사 41:10).
 (4)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는 결코 자신의 강함이나 연약함을 보지 말

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참조, 사 43:1).

11. **㉠**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9절)

- ㉠** (1)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이마를 화석(火石)보다 굳은 금강석(金剛石)같이 하셨기 때문이다.
- (2) 여기서 ‘금강석’은 히브리어로 <쉬미르>인데 단단한 보석을 가리키는 말이며 속 7:12에서도 본절에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 (3) 그리고 그 가루는 금강사(金剛砂)로 또한 화석(火石), 즉 부식들을 자르는 데 사용된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얼굴과 이마가 굳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에스겔을 더 강하게 만드셨다(참조, 렘1:18).
- (5)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는 부름 받은 자를 훈련시키시며 능력을 주시어서 강하게 하신다(참조, 출 2장).

12. **㉠**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가? (10절)

- ㉠** (1)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들으라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서 문장이 도치되면 더욱 자연스러울 것이다. 즉 귀로 듣고 깨달아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 (3) 따라서 이 말은 1, 3, 4절의 명령을 반복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말라는 것이다.
- (4) 또한 전하는 자가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들은 말씀을 자신의 마음 밭에 심어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기 전에는 전하지 말라는 명령이기도 하다(참조, 시 119:11).
- (5)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올바르게 들을 수 있으며 들은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참조, 마 13:23).

13. **㉠** 에스겔은 어느 족속에게 보냄을 받았는가? (11절)

- ㉠** (1) 에스겔의 선교 대상이 된 족속은 사로잡힌 자신의 민족이었다.
- (2) 그런데 사로잡힌 그의 동족은 환난 가운데 있었으며 자신들이 떠나 온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었다(참조, 시 137편).
- (3)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비록 패역한 백성이었으나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경고와 위로의 말을 전하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셨다(참조, 2:3; 37장).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자신의 사자에게 명하여서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말씀을 들려주신다(참조, 렘 1:7; 행 1:8).

14. **㉠** 에스겔을 들어 올린 존재는 무엇인가? (12절)

- ㉠** (1) 에스겔을 들어 올린 존재는 주의 신(神)이다.
- (2) 그런데 여기서 주의 신은 2:2에 나오는 신과 같은 것이며, 이 주의 신은 에스겔이 말씀을 받도록 일으켜 세웠고 이제는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그를 들어 올렸다(마 4:1).
- (3) 그리고 에스겔을 들어 올렸다 함은 성령의 감동으로 황홀한 상태의 한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그가 있던 장소에서 이동되었다는 것은 아니다(참조, 11:24).
- (4) 따라서 이런 일은 그가 환상을 보던 때와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2:2). 특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감동시켜서 이마가 굳은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할 용기를 주신다(9절).
- (5) 이와 같이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도 그들이 낙심할 때 성령께서는 감동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제심을 보이신다(참조, 마 1:23).

15. **㉠** 주의 신이 에스겔을 들어 올리실 때 그의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는 어떤 내용인

가? (12절)

- Ⓐ (1) 그 소리는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讚頌)하라는 내용이다.
- (2) 그런데 이 소리는 에스겔의 사역을 기뻐하며 격려하는 찬송 소리이다(참조, 1:24; 사 6:3).
- (3) 한편 '여호와의 처소'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참조, 11:23) 여호와의 영광이 계신 곳을 의미한다.
- (4) 이처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하늘의 모든 천사들은 그 일로 인하여 찬송을 부른다(참조, 계 19:1).

16. Ⓒ 에스겔의 뒤에서 들리는 소리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13절)

- Ⓐ (1) 에스겔의 뒤에서 크게 울린 소리는 생물들의 날개가 부딪힐 때 그리고 생물 결의 바퀴에서 나왔다.
- (2) 그런데 여기서 '부딪히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샤크>는 부드럽게 서로 접촉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또한 바퀴들도 소리를 내는데 이 모든 소리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며 에스겔에게 깊은 감동을 주기 위한 것이다(2:2).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신이 사랑하시는 인간들에게서는 무시와 멸시를 당하실 때가 있으나 인간 이외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항상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다(대상 29:11).

17. Ⓒ 주의 신(神)이 에스겔을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실 때 그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14절)

- Ⓐ (1) 주의 신이 그를 데려갈 때 그는 근심스럽고 분한 마음이었다.
- (2) 여기서 '분한 마음'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뜨거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곳(신 29:23; 렘 4:4)에서는 진노나 분노로 번역되었다.
- (3) 그런데 에스겔은 자신의 백성이 죄로 인해 받을 심판을 전함에 있어서 매우 안타까웠으며 그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 분노를 느꼈다(참조, 렘 15:17).
- (4) 또한 그는 성령에 이끌려 가면서도 자신의 백성에게 심판과 경고의 말을 전함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참조, 9절).
- (5)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몹시도 패역하여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까 하는 염려에서였다(2:6).

18. Ⓒ 에스겔이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14절)

- Ⓐ (1) 에스겔은 근심과 분한 마음을 갖고 있었으나 여호와께서는 권능으로 힘있게 그를 감동(感動) 시키셨다.
- (2) 여기서 '힘있게'란 그의 이름의 뜻인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와 같은 의미이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비록 근심과 분노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에게 임무를 맡겼으며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셨다(참조, 시 72:26; 89:21).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실 때는 그의 능력과 약함을 아시고 그를 훈련시키고 힘을 주시어 그가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참조, 골 1:11; 딤후 1:12).

19. Ⓒ 에스겔이 주의 신(神)에게 이끌려 간 곳은 어디인가? (15절)

- Ⓐ (1) 그곳은 사로잡힌 자신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던 곳인 그발 강가 델아빡이다.
- (2) 여기서 델(Tel)은 성벽 내부에 흩어 쌓여서 점차 지층이 높아져 그 위에 성읍이 생기는 경우와 언덕 꼭대기에 성읍이 생기는 경우로 고대 근동 지방의 성읍 유적지의 작은 언덕을 가리킨다(참조, 민 13:28; 신 1:28).
- (3) 그리고 델아빡(Tel-Abib)은 '곡식의 언덕'이란 뜻으로 바벨론의 큰 운하인 그발 강가에 위치한 지역이다.

(4) 한편 아카드어로는 ‘홍수의 언덕’이란 뜻의 툴 아부비(Til-Abubi)였는데 히브리어로 쓰여 ‘꼭식의 언덕’이란 뜻으로 변했다.

20. ㉠ 에스겔은 텔아비브에 도착해서 처음에 무슨 일을 했는가? (15절)

- ㉠ (1) 에스겔은 텔아비브에서 사로잡힌 자신의 백성에게 가서 민담(悶奮)히 칠 일을 지냈다.
 (2) 여기서 ‘민담히’란 ‘황량하다’, ‘놀라다’란 의미로 경악하여 얼빠진 상태로 침묵함을 말한다(참조, 렘 14:9).
 (3) 그런데 그가 이 같은 행동을 취한 이유는 그가 보았던 환상에 압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상태를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4) 한편 칠 일이란 기간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애곡의 기간(창 50:10; 욥 2:13)을 나타내거나 성스러운 일을 위한 예비의 기간으로 간주되고 있다(출 29:29; 레 8:33).
 (5)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마음의 자세와 사역에 대해 준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참조, 마 3:3).

21. ㉠ 칠 일 후에 에스겔은 여호와와 말씀에 의해 무엇으로 임명되었는가? (16, 17절)

- ㉠ (1) 에스겔은 여호와에 의해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군(把守軍)으로 임명되었다.
 (2) 그런데 이 파수군은 망대 위에 서서 적의 동정을 감시하며 적의 침입을 사전에 경고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3) 이것은 선지자의 사역을 비유한 것으로(참조, 렘 6:17)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압박한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7장).
 (4) 이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과 같은 파수군을 보내 주셨으나 세상이 점점 사악해짐으로 그 목소리는 점차 작아지고 있다(참조, 마 23:31, 32).

22. ㉠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군으로 임명된 에스겔의 임무는 무엇인가? (17절)

- ㉠ (1) 파수군으로서 에스겔의 임무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깨우치는 것이다.
 (2) 이처럼 그의 임무는 2:4, 7에서 그리고 본장 4절에서와 같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3) 그 다음에 그는 들은 말씀을 깨달아 알고(3절)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스라엘 족속을 깨우쳐야 하는 것이다(33:7).
 (4) 따라서 그는 선포자인 동시에 무지한 자들의 죄를 깨우치는 교사의 직분까지도 겸하고 있다(18절).
 (5) 우리가 여기서 보듯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듣는 자에게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이다(참조, 고후 2:16).

23. ㉠ 에스겔이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때는 언제인가? (18절)

- ㉠ (1) 악인은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에스겔이 전하여 깨우치지 않거나 악인에게 그 길을 떠나라고 말하지 않아 악인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을 경우이다.
 (2) 여기서 악인에게 말한 ‘너는 꼭 죽으리라’는 말은 그의 죄가 깊거나 크기 때문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죄라 할지라도 그 죄가 중하기 때문에 선언된다(참조, 창 2:17).
 (3) 그리고 에스겔이 깨우치지 않는 것은 파수군이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는 것과 같으며 또한 한 개인의 죄를 일러주지 않는 것과 같다(33:6).
 (4) 이처럼 그의 사역의 특이성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예언 활동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영혼 구원도 그의 임무였다는 데 있다(참조, 히 13:7).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악인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깨우쳐 구원 얻기를 바라신다(참조, 딤후 2:4).

24. ㉠ 에스겔이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했을 때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가? (18절)

- Ⓐ (1) 만일 에스겔이 전하지 않아 악인이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 피값을 에스겔에게서 찾으신다.
- (2) 이것은 예언자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는 귀절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과 지식이 부족한 것은 묻지 않으시며 그가 자신의 직분을 소홀히 한 죄를 물으신다(참조, 창 9:5).
- (3) 또한 피값을 찾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맡기신 것이 이스라엘의 생명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참조, 행 20:26).
- (4) 따라서 직분을 잊은 선지자는 악인의 생명을 죽이는 간접 살인의 죄를 범하게 된다(참조, 요 10:12).
- (5) 여기서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며 가치있는 일인가를 깨닫게 된다(마 18:14).

25. Ⓞ 에스겔이 자신의 임무 수행 중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보존할 때는 언제인가? (19절)

- Ⓐ (1) 비록 에스겔이 전한 말씀을 듣고도 악인이 회개치 않아 자신의 죄로 인해 죽었다 해도 에스겔은 목숨을 보존한다.
- (2) 이처럼 선지자의 임무는 이스라엘 백성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다(2:4, 7).
- (3)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선교 결과에 대한 책임은 선지자에게 묻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사명은 단지 전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참조, 사 52:8).
- (4) 한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사역이 힘든 데 대해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
- (5)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복음 전도자가 비는 평안이 그 집에 합당(合當)치 않으면 그 비는 평안이 전도자에게 돌아옴을 말씀하셨다(마 10:12, 13; 눅 10:5, 6).
- (6) 그러므로 복음의 일꾼들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일을 충실히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참조, 고전 4:2).

26. Ⓞ 의인이 행한 의(義)는 어떤 경우에 기억되지 않는가? (20절)

- Ⓐ (1) 그것은 의인이 이제까지 행하던 길에서 돌아서 악을 행할 때이다.
- (2) 그런데 여기서 ‘의인’은 이스라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본질에 나오는 ‘의인’은 자신의 외형적 의에서 돌아섰다.
- (3)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앞에 거치는 돌을 두셨는데 이 거치는 돌은 일종의 시험으로서 그가 의에서 돌아켜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롬 7:13).
- (4) 그러므로 이때 선지자가 나서서 그를 깨우친다면 그는 시험을 이기겠지만 선지자가 자신의 직무에 불충실해서 그 사람이 경고를 받지 못한다면 자신의 죄로 인해 죽고 만다.
- (5) 따라서 사람의 행위에 대한 의는 그가 완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의 죄로 인해 상실되고 만다(참조, 약 2:10).
- (6) 이처럼 구원이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며 구원을 얻게 된다(참조, 갈 3:10, 11).

27. Ⓞ 선지자가 임무 수행의 결과 자신의 영혼을 보존하는 경우는 어느 때인가? (21절)

- Ⓐ (1) 선지자가 악의 길로 들어서려는 의인을 깨우쳐서 그 사람이 범되지 않는 경우이다.
- (2) 이처럼 선지자의 임무는 악인을 깨우쳐 의(義)의 길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며 의인(義人)들은 계속 의를 행하도록 이끄는 것이다(18-20절).
- (3) 그러나 깨우친 자들이라 하더라도 주위의 수많은 유혹에 넘어지기 쉬우니 지속적인 깨우침이 필요하다(참조, 딤후 4:16).
- (4) 이와 같이 사람들은 조그만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보호와 가르침이 없이는 넘어지기 쉽다(참조, 시 127:1).

28. **㉠**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에게 어디로 가라고 명하셨는가? (22절)

- ㉠** (1)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에스겔을 들로 가라고 명하셨다.
 (2) 이제 에스겔은 자신의 임무에 대한 지시를 받고 새로운 장소로 이동한다. 그런데 그는 처음 그밭 강가에서 본 것과 같은 이상을 보았다(1:3).
 (3) 그는 처음 그밭 강가에서 이상을 본 후 성령에 이끌려서 텔아빕에 왔으며 그곳에서 칠 일을 침묵 속에 지낸 후 사명을 받고 이제는 또 다른 지시를 받기 위해 들로 나간다.
 (4)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14절) 순종하는 에스겔을 보게 된다.
 (5)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불합리하고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순종하며 따르는 자세가 필요하다(참조, 삼상 15:22).

29. **㉠** 주의 신(神)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24절)

- ㉠** (1) 그 말씀은 에스겔에게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는 것이었다.
 (2) 여기서 이 명령은 격리의 상징으로 얼마 동안 공적인 일은 하지 말 것을 의미한다(4:8).
 (3) 또한 이같이 침묵을 위한 격리는 미래의 예언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즉 다가올 예루살렘의 운명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7:2, 3).
 (4) 이처럼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의 진퇴(進退)를 아는 것이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의 행동이다(참조, 전 3:1-8).

30. **㉠**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25절)

- ㉠** (1)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겔을 줄로 동여 댈 것이기 때문이다.
 (2) 그런데 에스겔이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은 것은 자신의 백성들이 두려워서 피한 것은 아니었다.
 (3) 그러나 그 백성들은 선지자를 끌어내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취급한 것과 같이 핍박하였다(참조, 렘 32:3; 33:1; 38:6).
 (4) 따라서 그들의 행위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아직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과 선지자는 이에 대해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참조, 전 3:1).
 (5) 즉 그들이 지금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 비난받을 때 매우 교만하고 난폭하여 그 말씀을 받을 수 없으나 때가 되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참조, 막 1:15).
 (6) 이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조급하지 말고 그때를 기다려야 한다(참조, 엡 4:2).

31. **㉠**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26절)

- ㉠** (1)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 그를 병어리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책망자(責望者)가 되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2) 이것은 24절의 의미와 같이 공적 사역을 중단시키는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기 때문이다(2:3).
 (3)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포기하신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돌아서기까지 기다리신다(참조, 시 74:9; 렘 7:2; 11:7).
 (4)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의 감각은 무디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함을 알지 못한다(참조, 마 28:20).
 (5) 그러나 포로로 잡혀간 자신의 백성을 깨우치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무더진 감각을 깨우치시려고 자신의 사자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막 16:15).

32. **㉠** 선지자 에스겔의 사역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27절)

- ㉠** (1) 지금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침묵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입을 열어 주실 것이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하다고 전할 것이다.
 (2)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의 손짓이시며 그들과의 대

화를 위한 것이다(24:27).

- (3) 또한 에스겔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할 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것이다.
- (4) 반면에 듣는 자는 구원을 얻으며 듣기 싫은 자는 이미 그들이 지은 죄로 형벌을 받게 된다(참조, 고전 15:2).
- (5)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지 않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선지자의 책임은 아니다(참조, 잠 9:12).
- (6)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단지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참조, 창 6:22).

화보자료

두루마리를 받아 먹고 있는 에스겔. 본장 1-3절 및 2:8-10 말씀이 제재(題材)가 된 이 그림은 파리, 생트 샤펠 교회의 스테인드 글라스화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애가(哀歌)와 애곡(哀哭)과 재앙(災殃)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한 것(2:8-10)은 에스겔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나아가 그 같은 말을 선포할 선지자적 사명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참조, 1절). 뿐만 아니라 에스겔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니 입에서 달기가 꿀 같았다는 것(3절)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뒤따르는 결과가 선한 것임을 의미한다.

제 4 장 예루살렘 포위에 대한 예언

단락구분 1-3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을 당할 것에 대한 예언 / 4-8 이스라엘과 유다가 범죄할 기간 / 9-17 예루살렘에 임할 기근에 대한 예언

1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2 그 성읍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토둔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3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4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네 늙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5 내가 그들의 범죄한 햇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삼백 구십 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6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사십 일로 정하였나니 일 일이 일 년이니라

7 너는 또 에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 매고 예언하라

8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9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네 모로 늙

는 날수 곧 삼백 구십 일에 먹되

10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 이십 세겔 중씩 때를 따라 먹고

11 물도 한 욕분 일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12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13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흠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14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15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16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계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담 중에 물을 되어 마시다가

17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담하여 하며 그 죄악 중에서 쇠패하리라

1. ㉠ 본장에 나타난 상징은 무엇을 말하는가?

㉠ (1) 본장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바벨론 군대의 포위 공격이 세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다.

(2) 이러한 상징적 행동들은 에스겔 자신의 집에서 일어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침묵을 명하신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다(참조, 3:24, 26).

(3) 첫째 상징은 박석(礮石) 위에 그린 예루살렘 성에 포위 공격을 가하는 행동이다(1-3절).

(4) 둘째 상징은 에스겔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범죄한 햇수를 날수(數)로 계산하여 그 날수대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한 것을 말한다(4-8절).

(5) 마지막 상징은 에스겔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조금씩 먹는 것으로 예루살렘의 기근을 예언하고 있다(9-17절).

(6) 에스겔은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내릴 심판을 침묵의 언어인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에스겔 특유의 선교 방식이기 때문이다(1:1).

2. ㉠ 에스겔이 어디에 예루살렘 성읍의 그림을 그렸는가? (1절)

㉠ (1)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박석(礮石) 위에 예루살렘 성읍을 그렸다.

- (2) 그런데 이 박석은 흙을 이겨 불에 구운 토판으로 바벨론과 앗수르에서는 서판(書板)으로 사용되어 역사적 비문이나 천문 관찰을 기록하였다.
- (3) 또한 벽돌로 만든 것은 성벽을 쌓는 건축재로 사용되었으며 가나안에서도 이 같은 흙벽돌이 통용되었다(참조, 사 9:10).

3. **㉠ 성읍을 공격하기 위해 주위에 무엇을 설치했는가? (2절)**

- ㉠** (1) 예루살렘 성읍을 공격하기 위해 운제(雲梯)를 세우고 토둔(土屯)을 쌓고 진(陣)을 치고 공성퇴(攻城鏈)를 둘러 세웠다.
- (2) 여기서 운제는 성을 굽어보기 위해 만든 망대로 포위군이 쉽게 성을 점령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왕하 25:1; 렘 52:4).
- (3) 또한 토둔은 흙으로 쌓은 작은 언덕으로 성벽 위의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렘6:6; 32:34).
- (4) 그리고 포위군은 야영할 진을 쳤으며 공성퇴를 둘러 세웠다. 한편 공성퇴는 히브리어로 <카림>인데 원뜻은 ‘어린 양’ 또는 ‘수양’을 의미한다(참조, 신32:14; 삼상 15:9).
- (5) 그런데 이 공성퇴는 수양이 머리로 받듯이 성문과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된 전쟁 무기로서 장대 끝에 금속을 단 수레이다(21:22; 26:9; 삼하 20:15).
- (6) 이 같은 무기나 시설은 장차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한 것들이며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그 상황을 그림과 모형으로 보여 주었다(참조, 왕하 25:1).

4. **㉠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 위한 또 다른 설치물은 무엇인가? (3절)**

- ㉠** (1) 그것은 전철(煎鐵)로 철성(鐵城)을 만들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것이다.
- (2) 여기서 ‘전철’은 음식을 볶거나 굽기 위한 납작하고 판판한 그릇인데(참조, 레 2:5; 6:21) 전투에서는 땅에 세워 놓고 방패나 방어물로 사용하며 그 뒤에서 활을 쏘게 된다.
- (3) 그런데 본절에서는 공격군이 이 전철을 사용하여 철성을 만들고 그것을 방어물로 삼아 성을 공격하고 있다.
- (4) 이같이 에스겔은 침묵의 예언 방식으로 델아빔에 포로로 잡혀온 자신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다(3:26).
- (5) 그리고 이 예언은 유다 왕 시드기야(B.C. 597-586) 때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 포위당한 것을 말하며(왕하 25:1) 결국 이 예언은 시드기야 11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유다가 완전히 멸망됨으로(왕하 25:8-12) 실현되었다.
- (6)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잔혹한 심판 날의 광경을 미리 가르쳐 줌으로써 그들을 깨우치신다(24:24).

5. **㉠ 에스겔은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어떤 상징적 행동을 통해 담당하는가? (4절)**

- ㉠** (1) 에스겔은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였다.
- (2) 여기서 ‘좌편’은 한 사람이 동쪽을 바라볼 때 북쪽에 해당하는 위치로서 북왕국 이스라엘 곧 사마리아 땅을 가리킨다(16:46).
- (3) 한편 그가 누워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꿈쩍하지 못하고 주저앉은 것을 상징한다(참조, 왕하 17:6).
- (4) 그리고 그가 죄를 담당한 것은 그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릴 형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참조, 44:10).
- (5) 이처럼 에스겔은 상징적 행동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악을 나타내고 있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직접 짊어지시고 고통을 당하셨다(참조, 사 53:5).

6. **㉠ 에스겔이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는 기간은 얼마 동안인가? (4-6절)**

- ㉠** (1) 에스겔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을 자신이 늙는 날수(數)대로 담당하게 된다.
- (2) 그런데 에스겔은 3절까지 하나님의 행위를 대신한 반면, 4절부터 8절까지는 죄를 지

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대신하여 죄를 담당한다.

(3) 한편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날수' 대로 분리하여 계산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분하여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유다에 우월권을 주려는 의도이다(참조, 전 10:2).

(4) 그리고 날수 계산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범죄하였을 때 적용되었다(민14:34).

7. **㉠** 에스겔은 얼마 동안 이스라엘 족속의 범죄를 담당할 것인가? (5절)

㉠ (1)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범죄한 햇수(數)를 날수(數)로 정(定)한 기간인 삼백 구십 일 동안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2) 여기서 이 390년이란 기간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으며 70인역(LXX)에서는 390일이 190일로 기록되었다.

(3) 그런데 유다의 정통적인 해석은 390년이란 기간을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 때부터 앗수르에게 멸망할 때까지 범죄한(B. C. 722) 기간으로 본다.

(4)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만족한 해석은 없으며 다만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패역했는가를 알려 준다(5:11).

8. **㉠** 유다 족속의 범죄한 햇수는 얼마인가? (6절)

㉠ (1)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의 죄악을 40년으로 정하셨으며 에스겔은 1일을 1년으로 환산(換算)하여 유다 족속의 죄악을 40일 동안 우편으로 누워 담당하게 되었다.

(2) 이 40년이란 기간은 유다 왕 요시아(B.C. 640-609) 통치 18년, 즉 요시아의 종교 개혁 이후 유다 족속이 범죄한 햇수를 말한다.

(3) 또 다른 학설에 의하면 이 기간은 예루살렘 멸망(B.C. 586) 후부터 고레스가 바벨론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때까지(B.C. 546) 유다 족속이 바벨론에서 포로로서 고난을 당하던 기간을 말한다.

(4) 이처럼 유다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은 것을 보고서도 자신의 죄를 누우치지 않고 계속 범죄하였다(참조, 왕하 17:19-23).

(5) 한편 일 일을 일 년으로 계산하는 형식은 민 14:34에서 시작하여 다니엘의 '칠십 이레'(단 9:24-27)와 계시록 11:3절과 9절의 '일천 이백 육십 일'과 '사흘 반'에 적용되었다.

9. **㉠**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어떤 모습으로 예언하라고 명하셨는가? (7절)

㉠ (1) 하나님께서는 에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 메고 예언하라고 명하셨다.

(2) 이 같은 모습은 활동적이며 민첩한 자세로서 비록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이 갈대아 군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정죄하심을 보여 준다(참조, 사 52:10).

(3) 또한 다른 번역에서는 '향하여'를 '향하여 네 얼굴을 돌리라'로 번역하는데 이것은 적을 노려보는 날카로움을 나타낸다(참조, 14:8; 15:7).

(4) 이러한 기세는 바벨론 군대의 집요한 공격에서도 보여지는데 결국 그들은 18개월에 걸친 포위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다(왕하 25:4).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자들을 깨우치시기 위해 두렵고 자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실 때도 있다(참조, 잠 13:24).

10. **㉠**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줄로 묶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8절)

㉠ (1) 그것은 에스겔이 갇혀 있을 기한이 차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려 눕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2)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줄로 묶은 것은 예루살렘 포위에 대한 확고함을 보이시기 위한 것이다(참조, 렘 52:4-6).

(3) 그런데 이 같은 상징은 예루살렘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패망을 피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참조, 렘 39:1, 2).

(4) 한편 에스겔이 밤낮 끊임없이 누웠다고 생각할 수는 없으며 그가 누워 있는 동안 받는

고통은 예루살렘의 형벌을 대신 받고 있는 것이다(5, 6절).

11. **㉠** 에스겔이 삼백 구십 일 동안 먹을 음식은 무엇인가? (9절)

- ㉠** (1) 그것은 밀과 보리와 콩 그리고 팥과 조와 귀리를 섞어 만든 떡이다.
 (2) 이것은 예루살렘 성에 대한 포위로 인한 기근을 상징하는 것으로 식량이 결핍된 상황에서 식량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거두어야 하는 공핍을 말한다(참조, 왕상 22: 27).
 (3) 그리고 밀은 보통의 음식을 만드는 재료였으며(신 32:14; 시 81:16) 보리는 가난한 자들의 주식이었고(13:19; 호 3:2) 콩과 팥은 좋은 음식이었는데(창 25:34) 애굽에서는 장례식에 이 팥을 먹었다.
 (4) 또한 조와 귀리는 질이 낮은 곡식이었다(참조, 출 9:32). 그런데 이 모든 곡식을 섞어 만든 떡은 조잡하고 맛이 없었다.
 (5) 여기서 우리는 현재의 평안한 생활 속에서 먹는 음식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 있다(참조, 전 3:13).

12. **㉠** 에스겔이 하루 먹을 식물의 무게는 얼마인가? (10절)

- ㉠** (1) 에스겔이 때를 따라 하루 먹을 음식의 무게는 20세겔이다.
 (2) 이것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질이 나쁜 떡을 저울에 달아서 일정한 시간에 제한된 양을 배급받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은 바벨론 군대의 포위 공격이 계속되는 동안 줄곧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통을 받았다(참조, 렘 37:21).
 (3) 한편 이스라엘에서는 '세겔'이 무게를 측정하는 기본적 단위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 세겔에는 '보통 세겔'과 그것의 두 배인 '왕실 세겔'이 있었으며 또한 그것들은 '무거운 세겔'과 '가벼운 세겔'의 두 체제로 되어 있었다.
 (4) 따라서 무게를 잴 때에는 가벼운 왕실 세겔인지 무거운 보통 세겔인지를 구분하였으며 돈이 주조되기 이전에는 금, 은 등의 덩어리를 저울에 달아 물건 값으로 지불했다.
 (5) 또한 이 '세겔'은 무게를 재는 단위였으나 후에는 주화나 주화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다.

명 칭	무	계	환 계 정 귀
게 라	0.57g(세겔의 1/20)	0.15돈	출 30:13
반 세 겔	5.7g	1.5 돈	창 24:22
세 겔	11.4g	3 돈	삼하 14:26
므 나	570g	0.95돈	눅 19:13-25
달 란 트	약 34kg (3,000세겔)	57 근	출 38:25, 27 왕상 16:24 제 16:21

13. **㉠** 에스겔이 하루 마실 물의 양은 얼마인가? (11절)

- ㉠** (1) 그는 하루 육분의 일 힌의 물을 정한 시간에 마셨다.
 (2) 이 양은 약 0.61ℓ가 되는데 하루에 배급되는 양이 이 정도면 매우 갈증을 느낄 것이다(참조, 삼하 23:15; 사 41:17).
 (3) 한편 성경상의 도량형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단위의 치수를 정할 수는 없으나 대략 다음과 같다.
 (4) 먼저 이스라엘에서 액체의 부피를 재는 기준이 되는 단위는 바이며 고체의 경우는 호멜 또는 고르이다.

		명 칭	용 적		판 계 성 귀
고 체		갑	1.3ℓ	0.66되	왕하 6:25
	오	멜	2.34ℓ	1.2되	출 16:16
	스	아	7.33ℓ	4되	창 18:6
	에	바	22ℓ	12되	출 16:36
	반	호 멜	110ℓ	6말	호 3:2
	호	멜	220ℓ	12말	레 27:16 45:11-14
액 체		룩	0.31ℓ	1.65홉	레 14:10
		갑	1.3ℓ	0.66되	왕하 6:25
		린	3.67ℓ	2되	출 29:40
		밭	22ℓ	12되	왕상 7:26
		고르 혹은 호멜	220ℓ	12말	45:14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궁핍한 생활을 명하시므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망의 징조를 보이셨다(12:19).

(6)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징조를 보이시는데 우리는 그 징조가 나타내는 의미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참조, 삼상 10:7).

14. ㉠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곡식을 어떻게 요리해서 먹으라 하셨는가? (12절)

㉠ (1) 하나님께서는 여러 곡식을 섞어서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人糞)으로 불을 피워 구워 먹으라고 명하셨다.

(2) 여기서 '보리떡'은 히브리어로 <우가트>인데 이것은 뜨거운 숯불에 구운 과자떡을 말하며 여행 중이나 비상시 곧 포로 중의 궁핍한 상황에서 먹었다(참조, 왕하 4:42; 호 9:3).

(3) 그리고 인분 불에 피워 먹는 것은 매우 부정한 행위로서 율법에서도 금하고 있었는데(레 5:3; 7:21)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타락하여 부정한 이방 민족과 같음을 보이시기 위함이었다(5:6).

(4) 그러나 재를 피워 떡을 굽는 방법은 이스라엘의 오랜 요리법으로 그 기원이 아브라함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참조, 창 18:6).

(5) 그런데 포위된 예루살렘 성에서는 식량 뿐만 아니라 연료도 구하기가 힘들어서 인분이나 가축의 마른 분(糞)을 사용했을 것이다(참조, 렘 52:4-6).

(6)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낮추시면 한없이 낮아져서 보잘것없는 존재가 된다(참조, 대하 28:19; 욥 40:12, 13).

(7)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형상을 잃지 않기 위해 경건한 삶을 유지해야 한다(참조, 살후 2:13-17; 히 12:14).

15. ㉠ 에스겔이 먹는 부정한 떡을 또 누가 먹을 것인가? (13절)

㉠ (1) 그 떡은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쫓아 흠을 이스라엘 자손이 먹을 것이다.

(2)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부정하고 질이 나쁜 떡을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을 때 뿐 아니라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할 곳에서도 먹게 될 것이다(참조, 호 9:3).

(3) 여기서도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께서 죄를 질책하실 때는 철저히 그들이 깨달아 알 때까지 계속하신다(참조, 계 3:19).

16. ㉠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부정한 떡을 먹으라고 하셨을 때 에스겔은 어떻게 대답하였는가? (14절)

㉠ (1) 에스겔은 하나님께 자신은 이제까지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으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과 짐승에게 찢긴 것과 가증(可憎)한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

- (2) 여기서 ‘오호라’는 감탄과 두려움 그리고 공포를 나타내는 감탄사인데 예레미야에게서도 이 같은 어휘 사용을 볼 수 있다(참조, 렘 1:6; 14:13).
- (3) 그리고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다’는 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설명과 같이 그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것이다(참조, 단 1:8).
- (4) 이것은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죽은 짐승이나 짐승에게 찢긴 짐승은 먹어서는 안 되었다(출 22:31; 레 7:24).
- (5) 또한 가증한 고기는 신 14:3-21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한 고기인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고기를 말한다.
- (6) 이와 마찬가지로 불결한 인분(人糞)은 흙으로 덮는 것이 그들의 규례였기 때문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이의(異義)를 제기했다(참조, 신 23:13, 14).
- (7) 그러나 이에 반해 우리 주님께서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다(마 15:11).

17. **㉠** 에스겔의 호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허락하셨는가? (15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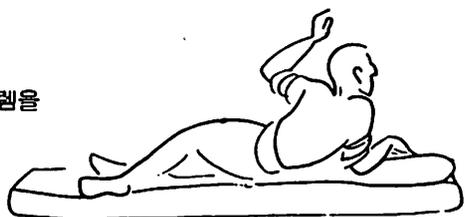
- ㉠** (1) 하나님께서는 인분 대신에 쇠똥으로 떡을 구워도 됨을 허락하셨다.
- (2) 이처럼 하나님께서 쇠똥으로 대신할 것을 허락하심은 에스겔을 위한 것으로 단지 그의 혐오감만을 경감시켰을 뿐이다.
- (3)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으로 쫓겨 가서 먹을 부정한 음식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은 변함이 없었다.
- (4) 그러나 권위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양보하시고 에스겔의 호소를 들어주심으로 양보의 본을 보여 주셨다(참조, 왕하 20:11).

18. **㉠**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양식을 끊으심으로 그들의 형편은 어떻게 될 것인가? (16절)

- ㉠** (1)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경겁(驚怯)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답(閔沓) 중에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민답하여 하며 그 최악 중에서 쇠패(衰敗)할 것이다.
- (2) 이 상황은 예루살렘 백성이 포위자들에 의해 양식의 공급이 중단되어 기근으로 망해 가는 모습을 가리킨다(참조, 레 26:26).
- (3) 이같이 그들에게 닥친 재앙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한 죄악 때문이었다(2:3).
- (4)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한 백성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비참하게 되는 것을 본다(참조, 사 52:10).
- (5)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아 자신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참조, 고후 13:5).

본장의 요절

‘너는 또 애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 메고 예언하라’ (7절).



제 5 장 예루살렘에 재앙과 멸망이 예언되다

단락구분 1-4 털을 깎아서 멸망을 예언하라 / 5-12 여호와께서 멸망의 원인과 앞으로 닥칠 환난을 말씀하시다 / 13-17 여호와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말씀하시다

1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2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삼분지 일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삼분지 일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삼분지 일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3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 네 옷자락에 싸고

4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5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 있게 하였거늘

6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 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7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8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9 네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 후무하게 네게 내릴지라

10 그리한즉 너희 중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버를 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11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 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12 너희 가운데서 삼분지 일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삼분지 일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삼분지 일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13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14 내가 또 너로 황무케 하고 너를 둘러 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능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15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 있는 이방인에게 내가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괴이한 것이 되리라 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16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려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17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역과 살륙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1. Q 본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A (1) 본장에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될 원인과 그들에게 임할 온갖 재앙이 기록되어 있다.
- (2)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주위에 있던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였으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6절).

- (3) 즉 예루살렘 거민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온역(瘟疫)과 기근으로 죽게 될 것이며 전쟁에서 살육당하고 남은 자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는 재앙을 겪게 될 것이다(12절).
- (4) 이러한 예언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기억하며 죄의 유혹과 악에 대해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참조, 고전 15:34; 벧전 5:8).

2. **㉠**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무엇을 자르라고 명하셨는가? (1절)

- ㉠** (1)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削刀)를 삼아 그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고 명하셨다.
- (2) 여기서 '날카로운 칼'은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상징한다(참조, 시 7:20).
- (3) 또한 4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에스겔은 예루살렘 백성을 예표하므로 그의 머리털과 수염은 예루살렘 백성 개개인을 상징한다고 보아야 한다(44:20).
- (4) 따라서 날카로운 삭도로 그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것은 잔혹한 바벨론 군대를 들어 그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사 1:24).
-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심으로 자신의 권능으로부터 아무도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 주신다(참조, 44:25).
- (6) 비록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에 가시적(可視的)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이 세상이 인간들의 손에 의해 움직여 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역사를 움직이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3. **㉠** 날카로운 칼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지니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인가? (1절)

- ㉠** (1) 그것은 율법이 금지하는 것을 행하라는 명령이다. 즉 율법에 의하면 삭도로 제사장들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는 것은 금하고 있다. 이러한 일은 당시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종교 규례로 행하였기 때문이다(레 19:27; 21:5).
-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율법이 금하는 행위로써 심판을 예언하는 것은 당시 유대 사람들이 바로 율법을 어기는 것 때문에 심판이 임함을 보여 주기 위함이다.
- (3) 이와 같이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을 수치롭게 만들기 위하여 그들이 하기 싫어하는 행위조차 강제로 하게 만드실 것이다.

4. **㉠** 에스겔이 자른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은 어떻게 나누었는가? (1절)

- ㉠** (1) 그는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
- (2) 이 같은 상징적 행동은 심판의 공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루살렘 거민들의 지위 고향을 막론하고 멸망당할 것인데 설사 그 심판에서 벗어난 자라 할지라도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을 보여 준다(참조, 사 28:17).
- (3) 이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불공평해 보여도 공의(公義)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지혜로 악인을 심판하신다(창 18:25; 시 33:5).

5. **㉠**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터럭을 어떻게 처분하라고 명하셨는가? (2절)

- ㉠** (1) 하나님께서는 터럭 삼분지 일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삼분지 일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나머지는 바람에 흩으라고 에스겔에게 명하셨다.
- (2) 그런데 에스겔이 이것을 행하는 날은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찼을 때', 즉 바벨론의 오랜 포위(왕하 25:1, 2)로 예루살렘 거민들이 가아와 질병으로 지쳐 있을 때이다(4:8).
- (3) 이처럼 기아와 질병으로 시달린 예루살렘 거민들 중 삼분지 일이 그로 인해 죽게 될 것이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12절).

- (4) 또한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는 그들이 침략군과의 전투에서 살륙될 것을 나타낸다(12, 17절).
- (5) 그리고 나머지 삼분지 일을 바람에 흩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이 자신의 조국을 떠나 사로잡혀 가거나 피난처를 찾아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상징한다(왕하 25: 11, 12, 26).
- (6) 그러나 이같이 철저한 멸망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에서 벗어난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찾아가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였다(12:14; 렘 9:16).
- (7) 이와 같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버리는 자들에게도 세상 끝날에 엄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참조, 딤후 5:12).

6. **㉠**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터럭의 일부를 어떻게 하라고 명하셨는가? (3, 4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터럭의 일부를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고 명하셨다.
- (2) 이 명령 중에서 터럭의 조금을 가지고 옷자락에 싸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 남은 자들이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참조, 렘 40:6).
- (3) 그리고 또다시 그중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는 명령은 소수의 안전한 자들의 일부도 다시 임하는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됨을 상징한다(참조, 왕하 25:25).
-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옷자락에 싸고'라는 표현을 통해 그 백성 중 조금이라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으나 아무도 회개하는 자가 없으며 깨닫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 징벌하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보여 주셨다(참조, 왕하 25:24).
-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인간의 죄악을 참으시되 하나님을 거부하고 성도를 괴롭히는 자들까지도 인내와 자비로써 참으시며 그들이 회개하고 새 삶을 살아가길 바라신다(참조, 습 3:4).

7. **㉠** 에스겔이 터럭 일부를 불에 던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4절)

- ㉠** (1) 그가 터럭을 불에 던져 사를 때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올 것이다.
- (2)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초기의 재앙에서 살아 남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나타날 것을 의미한다(참조, 렘 42:18).
- (3) 즉 이러한 상징적인 예언은 바벨론의 침공에서 목숨을 건진 예루살렘 사람들 중 포로로 잡혀가거나 재난을 피해 이방 나라로 도망한 자들에 대한 것이다(참조, 왕하 25:26).
- (4) 이들은 모두가 다시 자신들의 고국 땅으로 돌아가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결코 돌아갈 수 없으며 이방인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렘 42:18-22).
- (5)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서 살아 남아 포로의 신분으로 이방인들 사이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이다(2:3, 4; 렘 42:21).
- (6) 이와 같이 죄는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도록 우리를 어둡게 하며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든다(참조, 히 3:13).
- (7) 따라서 우리는 이 죄의 미혹과 파괴에 경각심을 갖고 죄에 빠지지 말기를 기도해야 한다(참조, 롬 6:12; 7:11; 고전 15:34).

8. **㉠** 예호와께서 머리털과 수염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셨는가? (5절)

- ㉠** (1) 예호와께서는 에스겔이 삭도로 깎은 머리털과 수염이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에스겔을 통해 상징으로 말씀하셨으나 비유적 방법을 중지하시고 직접적인 해석을 하셨다(3:26).
- (3) 또한 하나님께서는 본절부터 7절까지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에 대해 말씀하시며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셨다.
- (4) 이 같은 상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 머리털과 같이 연약하다는 것이다(참조, 마 8:17).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창조주를 기억하여 그를 의지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시 39:4; 잠 1:7; 전 12장).

9. **㉠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을 어디에 자리잡게 하셨는가? (5절)**

- ㉠** (1)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을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列邦)으로 둘러 있게 하셨다.
 (2) 이것은 예루살렘이 문화가 발달하고 강대한 열강(列強)의 중심에 있어서 세계의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3) 또한 예루살렘은 모든 나라와 이스라엘의 성읍보다 우수하여 그들의 중심에 위치하였으며 거룩한 도성이라 일컬음을 받았다(참조, 사 2:2; 미 4:1).
 (4) 그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이방을 위한 구원의 빛으로 계획하셔서 그곳으로부터 모든 빛이 세상의 모든 어두운 구석을 밝히게 하셨다(참조, 요 4:22).
 (5) 이처럼 우리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은 썩어 가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소임(所任)을 다하여야 한다(마 5:13-16).

10. **㉠ 예루살렘은 여호와께 무슨 죄를 범하였는가? (6절)**

- ㉠** (1) 그들은 여호와와 규례(規例)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였으며 여호와와 규례를 버리고 율례(律例)를 행치 않았다.
 (2) 이와 같이 예루살렘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직분인 이방의 빛으로서의 소임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까지 버리고 악의 길에 빠졌다(참조, 습 3:1, 2).
 (3) 또한 그들의 죄악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한 데 있었다. 즉 그들은 주변의 이방인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16:47, 48).
 (4) 이처럼 말씀을 먼저 받은 우리가 불신자보다 옳바르지 못할 경우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것이며 또한 그들로 하여금 짓밟힐 것이다(마 5:13).

11. **㉠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백성과 이방인을 어떻게 비교하셨는가? (7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방인보다 더욱 요란하여 율례를 행치 않으며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않았다고 말씀하셨다.
 (2) 여기서 '요란함'이란 '다수'(multitude)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들의 죄악이 이방인보다 더욱 증가함을 말한다(참조, 시 2:4). 즉 그들이 말씀을 받고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자신들의 죄를 누적시킴을 가리킨다.
 (3) 또한 그들이 이방인보다 못한 것은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신(神)에게 충실했으나 예루살렘은 자신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신을 섬겼다는 것이다(참조, 렘 2:10, 11).
 (4) 이와 같이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신의(信義)를 저버리는 행동은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 교회에 큰 누(累)를 끼치는 것이다(참조, 빌 4:8).

12. **㉠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보다 못한 예루살렘 백성을 어떻게 처벌하신다고 말씀하셨는가? (8, 9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증한 일로 인하여 이방인의 목전에서 전무 후무(前無後無)하게 그들을 처벌하신다고 하셨다.
 (2)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빛과 모범이 되도록 세운 예루살렘이 범죄하였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알도록 처벌하실 것이다(애 1:12).
 (3) 또한 그 처벌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울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사 48:11).
 (4) 그러므로 하나님께 범죄함은 먼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업신여기는 것이며 존귀하신 그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참조, 민 15:31; 삼상 2:30).

13. **㉠ 하나님께서 내리실 전무 후무(前無後無)한 재앙은 무엇인가? (10절)**

- ㉠** (1) 그것은 기근으로 인해 예루살렘 거민들 중에서 아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버를

먹는 재앙과 또한 갈대아 군대를 통하여 살아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어 버린 사건을 가리킨다.

- (2) 이처럼 하나님께 범죄한 예루살렘 백성은 인간으로서 그 존엄성을 상실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다.
- (3) 이같이 비참한 재앙은 갈대아 군대에 의해 포위된 예루살렘 성의 기근으로 일어난 것이며 사마리아가 갈대아인들에게 포위되었을 때(참조, 왕하 6:28, 29)와 후대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포위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과 흡사하다.
- (4) 여기서 우리는 한 범죄가 죄를 가중시키며(7절) 그 죄가 재앙을 불러일으키고(8, 9절) 또한 그 재앙으로 인해 새로운 죄를 범하는 악순환을 보게 된다(참조, 시 140:11).

14. **㉠**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돌보지 않으실 이유는 무엇인가? (11절)

- ㉠** (1) 그 이유는 예루살렘 백성이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 (2) 여기서 예루살렘 백성이 행한 가증한 일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사면 벽에 각종 곤충과 가증한 짐승의 그림을 그린 것을 말한다(8:10).
 - (3) 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은 그곳에서 은밀히 우상에게 제사 의식을 행하였다(8:12).
 - (4) 이같이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분의 도움을 무시하는 것이다(8:12).
 - (5)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생활 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우위에 두고 중요시하는 것은 그분을 멸시하는 것이다(참조, 요 2:15).

15. **㉠**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예루살렘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 (11절)

- ㉠** (1)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아껴 보지 않으시며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고 미약(微弱)하게 만드실 것이다.
- (2) 그런데 '나도 너를 아껴 보지 아니하며'라는 귀절을 70인역(LXX)에서는 '내가 거절할 것이며'로 번역하였으며 벌게이트(Vulgate) 역에서는 '내가 산산조각을 낼 것이며'라고 번역하였다.
 - (3) 이렇게 볼 때 본절은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와 이제까지 그들에게 베푸시던 자비와 은총을 거두시는 모습을 보여 준다(8:18; 9:10).
 - (4)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백성을 온갖 재앙으로 죽게 하셨으며 그들을 뿔뿔이 흩어 버려 연약한 민족이 되게 하셨다(참조, 렘 21:7).
 - (5)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는 그의 삶 전체가 미약하여져서 결국 파멸에 이르고 만다(참조, 속 11:17).

16. **㉠**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가? (13절)

- ㉠** (1) 하나님의 진노가 다한 후 예루살렘 백성을 향한 분(忿)이 풀려서 그분의 마음은 시원할 것이다.
- (2) 그런데 '풀려서'는 RSV에서 '만족하다'(satisfy myself)로 번역되어 있으며 KJV에서는 '휴식하다'(rest)로 번역하였다.
 - (3) 따라서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실 일을 하시고 휴식하는 것으로 그때 마음이 만족하며 편하게 되어서 시원해짐을 말한다(참조, 신 28:63).
 - (4)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公義)가 이루어진 데 대한 그분 자신의 만족을 표현한 것이다(참조, 사 30:18; 61:8).
 -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타락하여 뉘우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악을 행할 때 그들을 징벌하신다(잠 15:10).

17. **㉠** 여호와의 진노가 타락한 예루살렘 백성에게 내린 후 그들은 무엇을 깨닫게 될 것인가?

가? (13절)

- Ⓐ (1) 예루살렘 백성은 여호와께서 열심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 (2)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해 왔으며 (7절) 그들을 위해 보내신 선지자들의 경고와 심판의 예언을 듣지 않았었다.
- (3) 그러나 그 경고와 예언의 말씀이 심판과 재앙으로 임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회개를 요구했는지를 고난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될 것이다 (7:4).
- (4) 이처럼 형벌에 의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때는 이미 기회를 놓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참조, 애 2:5).

18. Ⓢ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예루살렘과 그 거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14절)

- Ⓐ (1)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황무(荒蕪)케 하시고 그 백성을 이방인 중에서 능욕(凌辱)거리게 되게 하실 것이다.
- (2) 본절은 앞에서 말한 징벌(8절)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그들이 이방의 침략으로 멸망케 되며 이방의 포로로 조롱거리가 됨을 말하는 것이다.
- (3) 이 같은 그들의 운명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치욕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조, 신 4:37; 10:15). 따라서 하나님의 징벌이 이스라엘을 깨우치며 이방인들에게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 준다 (참조, 왕상 9:8).
- (4) 그러므로 인생의 흥망(興亡)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한다 (참조, 대하 20:6).

19. Ⓢ 하나님의 징벌은 예루살렘 백성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15절)

- Ⓐ (1) 하나님의 노와 분과 책망의 형벌은 예루살렘 백성이 이방인에게 수욕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며 경계(警戒)와 괴이(怪異)한 것이 될 것이다.
- (2) 여기서 같은 말의 반복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대변해 주며 징벌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보여 준다 (25:17).
- (3) 왜냐하면 이 예언을 듣는 자들은 패역한 자들이라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이며 예언을 하는 선지자도 그들과 같은 처지의 포로이므로 경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1:1; 2:4).
- (4) 또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타락한 그 백성들을 참으셨으므로 그토록 비참한 징벌은 그들이 보기에 놀라운 일이었다 (14:21).
-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 대해 진노를 참으시며 형벌을 늦추시기도 하신다 (참조, 롬 9:22).
- (6) 따라서 우리는 늘 경성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어야 하겠다 (참조, 시 50:14).

20. Ⓢ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루살렘 백성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으실 것인가? (16절)

- Ⓐ (1) 하나님께서는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그들을 멸하실 것이며 기근을 심하게 하여 그들이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실 것이다.
- (2) 여기서 '기근의 독한 살'이란 기근의 극심한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모든 식물이 말라 죽거나 해충의 피해를 입는 극심한 가뭄에 비유된다 (참조, 시 78:46-49).
- (3) 이처럼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 항전을 하던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양식뿐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 의지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보여 주셨다 (참조, 잠 3:5).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이라도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시며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주신다 (참조, 출 20:5; 잠 11:28).

21. Ⓢ 기근 이외에 예루살렘 백성이 당하는 고통은 무엇인가? (17절)

- Ⓐ (1) 그것은 악한 짐승과 질병과 살륙이 있으며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고통이다.

- (2) 이처럼 예루살렘 백성들은 온갖 재앙에 의해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며 그 고통 중에 많은 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도와 줄 자가 없으며 의지할 자도 없어 모두가 외로운 처지에 있게 된다(38:22).
- (3) 그리고 이 모든 형벌은 비록 인간인 에스겔이 전하지만 그것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이 강조되어 있다(25:17).
- (4)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지혜나 능력은 미약하기 이를 데 없으며 그분의 진노에 대항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참조, 사 40:6, 7).

화보자료

수염을 깎고 있는 에스겔. 하이몬의 에스겔 주해서에 나오는 삽화의 일부분이다. 머리털과 수염을 깎은 후 그것을 저울에 달고 있는 에스겔의 모습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1절).



예레미야 선지자(렘 13:1-11; 19:1-13; 27:1-15)와 마찬가지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을 좇아 그대로 행한 여러 가지 행위(1-12절; 4:1-17; 12:1-20)는 예루살렘 멸망을 예표하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그중 에스겔이 머리털과 수염을 깎은 후 저울에 달아 상등분한 것을 각각 불사르며 칼로 치고 바람에 흩날린 것(1, 2절)은 유다 백성들이 온역과 기근,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할 뿐 아니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의미한다(12절).

제 6 장 이스라엘이 받을 심판과 구원이 예언되다

단락구분 1-7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에게 파멸이 예언되다 / 8-10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회개할 것이다 / 11-14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재앙을 슬퍼하라고 명하시다

- 1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 2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 3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이 주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 4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훼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리게 할 것이라
- 5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 6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며 산당으로 황무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이 썩으며 너희 만든 것이다 폐하며
- 7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리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 8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 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 9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 10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 11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하므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 12 먼 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리고 남아 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 13 그 살육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 14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 거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 ㉠ 본장의 예언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한 파멸과 이방에 포로로 잡혀간 자들 중 남은 자가 회개할 것 등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
- (2)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악은 그들이 자신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위해 전국 곳곳에 산당과 신상(神像)을 세워 여호와 신앙을 버린 것이다.
- (3)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산당과 우상을 파괴하며 그들을 살육하여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보이신다(3-7절).
- (4) 또한 유다의 멸망으로 포로로 잡혀간 고통의 땅인 이방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뉘우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9절).
- (5) 이처럼 본장에서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며 그로 인한 파멸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 준다(11-14절).

2. **㉠** 에스겔 선지자는 어느 곳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명령을 받았는가? (2절)

- ㉠** (1)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명령을 받았다.
 (2) 그런데 에스겔이 예언을 한 장소는 바벨론의 그밭 강가였으며(1:3;3:15) 그는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고국의 산과 강 그리고 골짜기를 향해 예언하라는 명령을 받았다(3절).
 (3)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우상 숭배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며(참조, 출 32:21-24) 이스라엘의 산들은 그 우상 숭배의 온상(溫床)이었기 때문이다(참조, 왕하 17:10, 11).
 (4)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슨 이유로 심판을 받게 될지를 알리려 하신 것이며(참조, 렘 3:6) 포로로 잡혀온 자신의 백성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고국을 향해 예언하라고 명하신 것이다(3:25, 27).
 (5)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자(使者)들을 통해 직접 회개를 요구하실 때 누우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거두어진다(참조, 시 38:21, 22).

3. **㉠** 산과 시내와 골짜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3절)

- ㉠** (1)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 칼로 산과 시내와 골짜기에 임하게 하여 그곳에 있는 산당을 멸하시라는 것이다.
 (2)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인 '이스라엘 산들'은 무생물인 산(山) 자체가 아니라 그 산에서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왕하 17:16, 17).
 (3) 그리고 그들은 시내와 골짜기를 우상 숭배의 장소로 정하여 이스라엘 전국토를 더럽혔다(참조, 왕하 23:10; 사 57:5, 6).
 (4)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시고 그들이 경배의 장소로 사용하던 산당을 모두 파괴하라고 말씀하셨다.
 (5) 그런데 이 살륙과 파괴는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바벨론 군대의 침략으로 이루어졌다(대하 36:10, 17, 20).
 (6)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시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차없이 파괴하신다(참조, 레 26:30).

4. **㉠** 이스라엘 백성의 산당 제사는 어떤 양상을 보였는가? (4-7절)

- ㉠** (1) 그들은 모든 성읍과 산과 시내 그리고 골짜기마다 우상의 전을 지어 놓고 섬겼다.
 (2) 그런데 '산당'은 희생 제사 및 예배를 드리던 장소였는데 히브리어로는 <바마>이며 이 산당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그곳에 있었다(참조, 민 33:52).
 (3)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것들을 파괴하라고 명하셨는데(신 33:29) 그 이유는 그곳이 이방 신인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던 곳이었기 때문이다(참조, 민 22:41).
 (4) 그러나 이 산당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계속하여 이곳에서 여호와에 대한 경배와 우상 숭배가 같이 이루어졌다(참조, 삼상 9:12-14; 10:5).
 (5) 더우기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B. C. 931-910)는 벧엘과 단에 있는 송아지 우상 곁에 산당을 짓고 숭배하였다(왕상 12:31).
 (6) 반면 아사라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는 산당을 옮기거나 파괴하였으나(왕하 18:4; 23:8; 대하 14:3, 5) 므낫세는 오히려 산당을 재건하였다(왕하 21:3).
 (7) 이 같은 산당 제사는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 계속되어(렘 19:3, 5)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분노를 일으켰다.

5. **㉠** 이스라엘 백성이 산당에서 특별히 숭배한 우상은 무엇인가? (4절)

- ㉠** (1) 그것은 태양을 숭배한 태양상(太陽像)이다.
 (2) 그런데 천체에 대한 숭배의 하나인 태양 숭배는 인간의 오랜 종교 의식 가운데 하나였

으며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친 것은 고대 바벨론과 애굽의 풍습이었다.

- (3) 그리고 이 태양 숭배는 하나님께서 이미 금지하셨으며(레 26:30; 신 4:19) 그에 대한 형벌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경우 돌로 쳐죽이는 것이었다(신 17:3).
- (4) 한편 이 의식에서 숭배의 대상이 되는 태양상은 모서리마다 뿔을 가진 작은 석회암의 제단을 말한다.
- (5) 또한 유다의 여러 왕들은 태양 숭배를 위해 말과 수레를 바치며 분향한 자들도 있었다(왕하 23:11).
- (6) 역사적으로는 유다 왕 므낫세(B. C. 913-910)가 여호와와의 전까지 일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세웠다(왕하 21:3-5).
- (7) 반면 유다의 아사 왕(B. C. 913-910)과 요시야 왕(B. C. 640-609)은 이스라엘 전역의 태양 제단을 파괴했으나(대하 14:5; 34:4, 7) 그 풍습은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 남아 있었다.

6. **㉠** 우상 숭배자들에게 임할 심판은 무엇인가? (4절)

- ㉠** (1) 그들이 숭배하던 제단이 황무(荒蕪)하고 태양상(太陽像)이 훼손(毀破)될 것이며 또한 우상 앞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 (2) 본질은 3절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우상 숭배 행위를 교묘하게 정당화시키면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참조, 대하 11:15).
- (3) 이러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 앞에서 죽임을 당하였다(참조, 왕하 23:14, 16).
- (4)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주의(主義)가 옳바르다고 주장하나 그것을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참조, 계 20:13).

7. **㉠** 우상 숭배자들이 받게 될 참혹한 형벌이 어떻게 묘사되었는가? (5절)

- ㉠** (1)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그들의 해골을 제단 사방에 흩을 것이다.
- (2) 이와 같이 우상 숭배자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섬기던 우상은 그들을 구원치 못하고 숭배자들과 우상이 함께 파괴되어 텅굴게 될 뿐이다(참조, 왕상 18:27, 28, 40).
- (3)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미혹하는 악의 무리들이 있어 거짓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 거짓 목자들이 많다(마 24:23-26).
- (4) 따라서 이 험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같이 악한 무리들에게 유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한다(참조, 벰전 5:8).

8. **㉠** 이스라엘에 임한 살륙과 파괴는 무슨 이유에서인가? (7절)

- ㉠** (1)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살륙과 파괴를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되심을 알게 하려 함이다.
- (2) 즉 그들이 멸시하고 업신여기던(습 1:12)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재앙을 가져다 줌으로써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능력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7:4).
- (3) 또한 그들이 의지하던 우상들은 환난 날에 그들을 구원치 못하는 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며 능력을 발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대조되어 있다(참조, 함 2:18).
- (4)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도리어 세상의 지식이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13:9).

9. **㉠** 패역(悖逆)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공훈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8절)

- ㉠** (1)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列邦)에 흩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칼을 피하여 남아 있는 자가 있게 할 것이다.
- (2) 이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으나 공훈을

베푸시사 열방에 흩어진 자들 중 살아 남은 자가 있게 하셨다(참조, 사 10:20).

(3) 그러나 그들의 안전은 단지 생명을 연장시킨 것으로 그들은 이방인들 중에서 살면서 이방인들의 조소와 멸시 속에서 자신들의 죄를 누우치게 된다(3:14; 12:16).

(4)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구원은 그들을 패망케 하시며 목숨을 연장시키시고 누우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12:20; 16:62; 20:44).

10. **㉠**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 중에서 깨달을 바는 무엇인가? (9절)

㉠ (1) 그들이 깨달을 바는 음란(淫亂)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그분을 근심케 한 것이다.

(2)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했으며(참조, 레 26:40) 하나님께 대해 무관심했다.

(3) 또한 그 환난에서 살아 남은 자들이 누우칠 수 있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이다. 왜냐하면 긍휼을 입어 살아 남은 자들 외에 모든 사람이 그 환난에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5, 6, 13절).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실 때 우리는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

11. **㉠**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악은 무엇인가? (9절)

㉠ (1)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근심케 한 것이다.

(2)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 마치 여인이 남편을 버리고 정부(情夫)를 찾아가듯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광적으로 섬긴 것이다(36:31).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 오래 참으셨으나 그들의 죄는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고 그들에 대한 인내를 거두게 하였다(2:9).

(4)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길이 참으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될 것이다(참조, 롬 2:4).

12. **㉠** 죄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9절)

㉠ (1) 그들은 자신들이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을 깨닫고 스스로 한탄(恨嘆)할 것이다.

(2) 그런데 여기서 ‘스스로 한탄하리니’라는 귀절을 RSV에서는 ‘내가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I have broken their wanton heart)로 번역하였다.

(3) 따라서 그 의미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 주며 또한 그들은 죄를 깨닫고 자신 스스로 혐오하는 것을 말한다(참조, 렘 23:9).

(4)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대적하는 행위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 더 큰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참조, 18:29-32).

13. **㉠**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깨달은 후 새롭게 알 것은 무엇인가? (10절)

㉠ (1) 그들이 죄를 깨달은 후 여호와를 참하나님으로 알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헛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2)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헛된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선지자의 사역 자체도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말씀이다(3:21, 27).

(3) 여기서 헛되지 않는다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전하는 신약 시대의 사도들에게서도 볼 수 있다(고전 15:14, 58; 고후 6:1).

(4)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나 경고의 말씀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온전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한다.

14.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어떻게 표현하라고 하셨는가? (11절)

- (1)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멸망을 예언하라고 명하셨다.
- (2) 한편 본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되풀이되어 나오는데 여기서는 선지자에게 비통해 하라는 명령이 나온다(21:12).
- (3) 이것은 임박한 멸망에 대해 몸짓으로 표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마음이 굳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것이다(21:12; 렘 31:19).
- (4) 오늘날 우리들도 모두가 순수함을 잃고 악에 몰들어 가는 이 사회에 깨우침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다(참조, 마 5:13, 14, 17).

15. **㉠**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한 이스라엘 족속은 어떤 운명에 처할 것인가? (11절)

- ㉠** (1) 이스라엘 족속은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칼과 기근과 온역(瘟疫)에 망할 것이다.
- (2)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이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며 그들에게 임할 재앙은 특히 적의 침략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적인 환난을 말한다(4:3; 7:14).
- (3) 이처럼 민족적인 죄악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치거나 형벌을 가하기 위해 전쟁을 통한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신다.

16. **㉠** 이스라엘 족속을 향한 칼과 기근과 온역은 어떻게 임하는가? (12절)

- ㉠** (1) 그들 중 먼 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며 남아 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을 것이다.
- (2) 여기서 '먼 데 있는 자'란 기근과 칼의 위협에서 벗어난 자들로서 그와 같은 위협에서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전염병이 찾아와 죽게 될 것이다(5:12; 7:15).
- (3)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바벨론 군대와와의 전투에 참여하거나 피난민들로서 침략군의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참조, 왕하 25:18-21).
- (4) 또한 침략군에 의해 포위된 성안의 사람들은 식수와 식량의 부족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4:15-17; 5:10).
- (5) 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재앙은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므로 그들의 쓰라린 교훈을 거울삼아 하나님께 범죄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시 19:8; 잠 13:14; 고전 10:11).

17. **㉠** 이스라엘 백성의 비참한 죽음은 어떻게 묘사되었는가? (13절)

- ㉠** (1) 그들의 살륙당한 시체가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과 제단 사방에 그리고 각 높은 고개와 산꼭대기에 있으며 우상에게 분향을 하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와 무성(茂盛)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을 것이다.
- (2) 본절은 6절의 사상과 비슷하나 6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던 모든 우상의 파괴를 설명하고 있는 반면, 본절은 7절을 보다 상세히 묘사하여 우상 숭배자들의 비참한 말로를 보여 준다.
- (3) 그리고 '고개와 산꼭대기'에서는 산당 예배가 행해졌으며(렘 2:20; 3:6; 57:5) 푸른 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는 가나안의 신인 우상들을 세웠는데(신 12:2; 16:21)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죽으리라고 예언하였다.
- (4) 또한 그들의 시체가 그들이 섬기던 우상과 제단 사이에 있었다는 것은 거짓된 신인 우상을 조롱거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보응(報應)을 나타내며 우상과 제단을 모독하는 것이다.
- (5) 이같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어떤 대상에 대한 숭배는 인간 스스로를 나무나 금으로 만든 우상보다 낮추는 것으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18. **㉠** 이스라엘은 어느 지경까지 황폐하게 될 것인가? (14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손을 이스라엘에 펴서 그들이 거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 디블라

까지 처량(淒涼)하고도 황무하게 하실 것이다.

- (2) 한편 '내가 내 손을 펴다' 라는 귀절은 에스겔의 독특한 표현법으로 14:9, 13; 16:27; 25:7 등에서 나타난다.
- (3) 그리고 '광야'는 팔레스틴 남쪽 유목 지역을 가리키며, '디블라'의 정확한 지명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료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윗 왕 때부터 여로보암 2세까지의 이스라엘 북쪽 국경 지대의 성읍을 말하는데 오론테스 강가에 위치하였다(왕상 8:65; 왕하 14:25).
- (4)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역을 이방 침략군의 노략으로 황폐화시켜 징계하시려는 의도이다(25:7; 사 5:25).
- (5)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미치지 않는 지역도, 범위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참조, 삼상 2:3; 단 2:22).

19. **㉠** 이스라엘에 내린 심판은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인가? (14절)

- ㉠** (1)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실 목적이었다.
- (2)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즉 자존(自存)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이다(참조, 출 3:14-16).
- (3) 특별히 여호와 혹은 야웨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는 언약과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출 20:2).
- (4) 또한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가장 신성하여 모독할 수 없는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이다(창 4:26; 레 24:16).
- (5)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의 이스라엘의 멸망은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겔 25:7).
- (6) 이 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참조, 롬 8:14, 15; 갈 4:6).

지도자료

리블라의 위치

14절에 나오는 디블라는 리블라(Riblah)의 오기(誤記)이다. 리블라는 오론테스 강 부근에 있는 수리아의 성읍이다. 그런데 본장에서는 이곳이 팔레스틴 땅의 한 경계지(境界地)로 언급되고 있다.



제 7 장 이스라엘에 종말이 다가오다

단락구분 1-4 이스라엘에 보응(報應)이 예언되다 / 5-9 진노로부터 재앙이 임하다 / 10-13 그 심판은 어느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 / 14-22 재물과 우상이 이스라엘을 구원 못 할 것이다 / 23-27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전반적 패망이 예언되다

1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 너 인자야 주 여호와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3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발하여 네 행위를 국문하고 너의 모든 가중한 일을 보응하리라
 4 내가 너를 아껴 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중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뉘어 여호와와 인 줄 알리라
 5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불지어다 임박하도다
 6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불지어다 임박하도다
 7 이 땅 거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왔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8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네 모든 가중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9 내가 너를 아껴 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중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와 내가 치는 줄을 내가 알리라
 10 불지어다 그날이로다 불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쫓피며 교만이 싹났도다
 11 포학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중의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12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왔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13 판 자가 살아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목시로 그 모든 무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도 돌아갈 자 없겠고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도 없으리라 하였음으로다
 14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예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

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미쳤음이라
 15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은역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은역에 망할 것이며
 16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까닭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17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18 그들이 굵은 베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19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예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치는 것이 됨이로다
 20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중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은즉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예물이 되게 하여
 21 외인의 손에 붙여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붙여 그들로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22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강포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23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그 성읍에 찻음이라
 24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이르러 그 짐들을 점령하게 하고 악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25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26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이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목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27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웃입 듯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즉 그들

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 **㉠ 본장의 중심 내용을 말하라.**

- ㉠** (1) 본장에는 이스라엘에 임박한 종말의 원인과 심판의 형태 그리고 그 결과가 급박하게 예언되어 있다.
- (2) 그런데 그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증한 우상 숭배로 인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공물을 베푸시지 않고 가차없이 보용하실 것이다(3, 4절).
- (3) 또한 심판의 날에는 어느 무엇으로도, 즉 재물이나 권력으로도 재앙을 피할 수 없으며(13, 14, 19, 20절) 결국 그들은 패망하여 이방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23, 25절).
- (4) 이 같은 심판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 급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범하는 죄에 대해 애타는 심정으로 경고하신다(참조, 눅 3:7-9).

2.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임박한 멸망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2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 (2)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종말이 임박했으며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경고를 되풀이하여 말씀하셨다(애 4:18; 습 1:14; 2:1).
- (3) 한편 ‘사방’은 히브리어로 <카스포트>인데 그 뜻은 ‘새의 날개들’을 의미하며 우리 말로는 사면(四面)을 말한다(참조, 사 11:12).
- (4) 즉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전체의 운명이 종국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며(6:14)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 공격이 끝나 그 성읍이 함락될 때가 왔다는 것을 말한다(11:13).
- (5) 이처럼 한 국가의 멸망의 때가 오듯이 개인에게도 죽음의 때는 반드시 찾아온다(히 9:27). 따라서 우리는 그 죽음 후에 있을 심판에 대비해야 한다(참조, 요 5:24).

3.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 (1) 그것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가증히 섬겼기 때문이다.
- (2)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과 언약을 맺은(창 9:9; 출 2:24)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뜻대로 말 못 하는 우상에게 자신들의 영혼을 맡겼다(습 1:4-6).
- (3)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 재앙에 대한 체험을 통해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와 형벌을 받게 된 이유를 알리시려 하셨다(4절).
- (4) 이와 같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시킬 때 그 죄는 누적되고 우리는 죄에 대한 면역이 생긴 나머지 죄에 대해 무감각해진다(참조, 욕 11:14).

4. **㉠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4절)**

- ㉠** (1)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벌하여 그들의 가증한 일을 자신들의 눈앞에 드러나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스스로 알게 하실 것이다.
- (2)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민족인지를 보이시며(2:3, 4) 또한 그들의 행위에 대해 얼마나 참으셨는지를 보이신다(참조, 롬 2:4).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죄를 참으시고 우리가 죄를 뉘우쳐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신다(참조, 눅 15:32).

5. **㉠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박한 것은 무엇인가? (5절)**

- ㉠** (1)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급작스레 임하는 비상(非常)한 재앙이다.
- (2) 그런데 이 재앙은 전무 후무한 재앙으로서(5:9) 어느 누구도 그 재앙을 피할 수 없으며(11절) 설혹 한 재앙에서 피하였다 할지라도 또 다른 재앙이 찾아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5:12).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거하셔서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을 아시며 우

리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신다(참조, 시 33:15;139:1-5).

6. **㉠** 선지자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종말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6절)

- ㉠** (1)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종말을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불 지어다 임박하도다’ 라고 묘사하고 있다.
 (2) 본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에 자신들과 재앙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았으나 그들이 무시한 하나님의 재앙이 갑자기 찾아 들 것을 나타내고 있다(슌 1:14;2:2).
 (3) 이처럼 이 세상의 일은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때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는 것이다(참조, 전 3:17).

7. **㉠** 이스라엘 거민(居民)에게 임한 날은 어떤 날인가? (7절)

- ㉠** (1) 그날은 정한 재앙이 이스라엘 거민에게 임한 날이며 요란한 날이고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다.
 (2) 여기서 ‘정한 재앙’을 KJV에서는 ‘아침’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사 28:5에서는 ‘화관’으로 번역되었는데 그 의미는 등근 장식품을 말한다.
 (3) 한편 RSV에서는 ‘운명’으로 번역되어 있다. 따라서 그 의미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이스라엘 거민에게 닥치는 것을 뜻한다.
 (4) 또한 그날은 죄인을 징벌하는 요란한 날, 즉 고난의 날이며(사 22:5;암 3:9) 포도를 수확할 때와 같이 즐거운 날이 아닌 비명과 슬픔의 소리가 퍼져 나가는 날이다(6:6).
 (5) 이처럼 인간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일의 성공과 실패는 모두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참조, 잠 16:1,2).

8. **㉠** 정한 재앙이 이스라엘에 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10절)

- ㉠** (1) 재앙의 날이 이스라엘에 임박하고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쫓피며 교만이 짝이 날 것이다.
 (2) 이것은 이스라엘에 운명의 날이 다가와 그들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가 예비되었다는 것이다(참조, 민 17:8).
 (3) 여기서 ‘몽둥이’는 이스라엘에 재난을 가져다 주는 바벨론 군대를 가리키는데(참조, 사 10:24-26) 그 형벌의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교만하였기 때문이다(참조, 사 27:6).
 (4) 이처럼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께 범죄함이며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인식치 못함에서 온다(참조, 계 3:17).

9. **㉠**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11절)

- ㉠** (1) 그들의 죄악은 포학(暴虐)이 일어나게 하며 몽둥이가 되게 하여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도 남지 않게 한다.
 (2)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원인이 되어 잔인하고 포학한 침공을 일으키며 그 침공은 징벌의 몽둥이가 되어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것을 가리킨다(참조, 사 10:5).
 (3) 이처럼 철저한 파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진노하셨는가를 보여 주며(4절),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얼마나 악을 행하였는지를 알게 한다(9절).
 (4) 여기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의 원인이 다른 어느 누구에게 있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는다(참조, 롬 1:20).

10. **㉠** 운명의 때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상은 어떠한가? (12절)

- ㉠** (1)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여 사는 자도 기뻐하지 않고 파는 자도 근심할 필요가 없게 된다.
 (2)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도 변하게 된다. 즉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될 것이다(참조, 사 24:2).
 (3) 그들에게 임할 혼란은 사는 자가 즐거움과 기쁨을 가질 수 없으며 가난하여 자신의 소

유를 팔지 않을 수 없는 자도 슬퍼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참조, 렘 34:8-16).

- (4) 이것은 그들에게 닥칠 재앙으로 지위나 소유들이 생활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다만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의 신분이거나 실향민의 위치로 전락하고 말 것을 말해 준다(6:12).
- (5)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도 영원한 것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행동이다(참조, 사 34:4).

11. **㉠** 소유를 판 자가 살아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13절)

- ㉡** (1) 그것은 묵시(默示)로 그 모든 무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도 돌아갈 자가 없겠고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2) 그런데 레위의 율법에 의하면 회년이 되었을 때는 팔린 땅이라도 배상 없이 본래의 소유주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레 25:13, 14).
- (3) 따라서 이 말은 그들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에 설사 그들이 살아 있을지라도 이전의 소유를 주장할 처지가 되지 못함을 의미한다(9:8-10).
- (4) 그리고 이 예언(사 1:1; 나 1:1)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은 방해될 받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므로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돌이킬 수 없음을 알 수 있다(사 55:10, 11).
- (5) 그 뿐 아니라 악한 행위로 자신을 강하게 할지라도 그 심판에서 건디어 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참조, 시 52:7).
- (6) 따라서 이 예언은 심판의 가혹함을 보여 주며(4, 9절)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파멸밖에 없음을 알게 한다.
- (7) 여기서 우리는 마음을 강퍽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알 수 있다(참조, 사 26:11).

12. **㉡** 나팔을 불어 위급을 알려도 전투에 나갈 사람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14절)

- ㉢** (1)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진노하여 재앙을 피할 자가 없게 하셨기 때문이다.
- (2) 이것은 비록 그들이 적의 침공에 대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였을지라도 운명의 날이 오면 그 준비도 다 소용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참조, 레 26:36).
- (3) 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시 127:1).

13. **㉡** 외적의 침입이 이스라엘에 닥칠 때 그들의 형편은 어떠한 것인가? (16절)

- ㉣** (1) 그들은 각기 산 위로 도망하여 자기 죄악 때문에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다.
- (2) 이처럼 그들은 피난처를 찾아 산으로 도망하나(참조, 시 11:1) 거기서도 편안하지 못하며 또한 독수리나 사냥군의 위협에 어찌할 바를 몰라 쨍쨍매다가 슬피 우는 비둘기와 같이 될 것이다(참조, 사 38:14).
- (3) 이것은 그들이 아무리 재앙을 피해 도망을 해도 소용없음을 말하며 하나님의 징계는 어느 곳이나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참조, 마 24:16).
- (4) 이렇듯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은 그들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안정을 찾을 수 없고 다만 자신의 죄로 인해 스스로 두려워할 뿐이다(참조, 신 28:67).

14. **㉡**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었는가? (17절)

- ㉤** (1) 그들의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 (2) 이것은 그들이 완전한 탈진 상태에 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전에 그들은 자신들의 부와 권세를 믿고 강함을 자랑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생명을 잃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참조, 렘 6:24).
- (3) 이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은 그 마음에 안정이 없으며 항상 두려움에 떠난다(참조, 렘 6:24).

15. **㉠** 죄를 부끄러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18절)
- ㉠** (1) 그들은 굵은 베로 허리를 묶을 것이며,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며,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그리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다.
- (2) 여기서 굵은 베로 허리를 동이는 것은 재앙과 죽음이 찾아와 슬픔을 나타내는 것으로 (삼하 3:32; 왕하 6:30) 그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슬픔의 의식을 표현하는 것이다(사 15:3).
- (3) 또한 이들은 참혹한 재앙과 고통 속에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머리를 쥐어뜯어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 했다(스 9:3).
- (4) 이처럼 우리가 인간들 앞에서는 자신의 죄를 숨기고 위선의 행동을 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저절로 그 죄가 드러나게 된다(참조, 롬 2:1).
16. **㉠** 이스라엘 백성이 은(銀)을 거리에 던지고 금(金)을 오물로 여길 이유는 무엇인가? (19절)
- ㉠** (1)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단지 죄에 빠지게 하는 도구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 (2) 즉 환난 날에 금과 은이 그들을 그 재앙에서 구할 수 없으며 식량의 부족으로 물절이 있어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참조, 습 1:18).
- (3) 그리고 금과 은, 즉 재물을 생명보다 귀중하게 여기면 그것 자체가 인간의 우상이 되어 죄악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참조, 딤후 6:10).
- (4) 또한 환난에 빠진 그들에게 금과 은은 오히려 거치장스러운 존재가 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재물보다 생명이 더 중하기 때문이다(참조, 사 2:20; 30:22).
- (5) 이와 같이 인간은 최후의 순간에는 그 생명을 가장 중히 여기며 자신의 창조주를 부를 수밖에 없다(참조, 삼하 22:7).
17. **㉠** 이스라엘 백성이 재물을 오물과 같이 여길 이유는 무엇인가? (20절)
- ㉠** (1)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화려한 장식으로 교만을 품었고 또한 재물로 가중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재물을 오물처럼 여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 (2)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재물을 탐하여 그것을 모았으며 그들에게 있어서 화려한 장식과 재물은 지위의 척도(尺度)가 되어 교만한 마음을 갖게 했다(참조, 사 2:16; 렘 4:30).
- (3) 또한 그들은 그 장식으로 더러운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을 위한 예물로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찮은 물건이 되게 하셨다(16:17).
- (4) 이같이 재물을 탐하고 물질이 우선시되는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되고 하나님은 기억되지 않는다(참조, 신 8:13,14).
18. **㉠** 재물에 눈이 어두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무엇인가? (21절)
- ㉠** (1)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중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외인으로 하여금 노략(擄掠)케 하며 세상 악인에게 붙여 약탈(掠奪)케 하여 그들이 만든 우상을 더럽게 하실 것이다.
- (2) 여기서 '외인'이라 하면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는 바벨론 군대를 가리키는데 이들의 침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중하게 여기는 금과 은이 약탈당할 것이다(대하 36:17, 18).
- (3) 또한 그들은 침략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혀 여기지 않고 잔인하게 살륙하며(6:12) 이스라엘이 금과 은을 사용하여 만든 우상을 단지 전리품으로 여겨 약탈할 것이다(대하 36:18).
- (4) 그리고 이방의 침략군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성소를 짓밟고 더럽힐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먼저 우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이다(5:11).
- (5)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분을 모독하였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게 가장 중한 것을 빼앗으시거나 하찮은 것으로 만드신다(24:21).

19.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신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22절)

- ㉠ (1) 그 결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강포(強暴)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힐 것이다.
- (2) 본절에서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라는 말은 중오의 표시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돌보시던 보호의 손길을 거둬 가지겠다는 의미이다(참조, 시 143:7).
- (3) 그리고 '은밀한 처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가리키는 말로서 '감추다' 혹은 '소중히 하다'라는 뜻을 가진 어원에서 왔다.
- (4)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원래 그들에게 거룩히 섬기도록 하셨던 성소를 이제는 그들의 죄를 벌하시기 위해 이방 침략군의 손에 더럽히도록 내주셨다(24절; 5:11).
- (5)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와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골 3:15).

20. ㉠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쇠사슬을 만들라고 명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23절)

- ㉠ (1) 그것은 피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그 성읍에 찻기 때문이다.
- (2) 여기서 '쇠사슬'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상징을 통해 그들의 운명이 '경백해졌다'(참조, 나 3:10).
- (3) 그리고 그들이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는 불신앙과 악행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 (4) 한편 '피흘리는 죄'는 '피의 심판'을 의미하는데(렘 51:9)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의 '피의 심판'은 죽음의 심판을 의미한다.
- (5) 또한 그들의 죄악상은 예루살렘 성읍에 불법과 압제가 만연한 것이었으며(슘 1:8; 3:3)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더 이상 두실 수 없어 그들을 그대로 심판하신다고 하셨다(9:9).
- (6) 세상에 많은 법과 규례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전체 사회를 위한 것이 아니고 소수의 집단을 위해 존재한다면 그 법과 규례는 죄의 온상(溫床)이 될 것이다.

21. ㉠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4절)

- ㉠ (1)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이방인을 명하여 그 집들을 점령(占領)하게 하고 악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 (2) 이스라엘 백성이 극에 달한 악행을 저질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방의 악한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점령케 하시며 그들이 가졌던 선민 의식을 통한 교만을 없애 버리신 것이다(참조, 신 26:19; 28:1).
- (3) 또한 이 교만은 하나님의 성전이 자신들을 보호한다는 생각에서 유래한 것인데(참조, 렘 7:4) 그들은 오히려 그 성전을 더럽힘으로 그들의 죄를 가중시켰다(참조, 암 7:9).
- (4) 그러므로 구태 의연한 신앙 생활은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성을 잃게 하고 위선에 빠지게 하여 죄를 가중시킨다.

22. ㉠ 이스라엘이 피흘리는 죄를 저지른 결과는 어떠한가? (25절)

- ㉠ (1) 그 결과 그들에게 패망이 이를 것이며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다.
- (2) 이제 그들에게는 침략군의 공격에 의한 패망만이 남았으며(2절) 설사 그들이 침략군과 화친을 맺으려 해도 소용이 없어 그들은 평화를 얻을 수 없게 되었다(참조, 왕하 24:1).
- (3) 이처럼 하나님께 범죄한 자는 무슨 방법으로도 형벌을 벗어날 수 없고 다만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18:30).

23. ㉠ 이스라엘에 패망이 가까움에 따라 그 사회상은 어떠한 것인가? (26절)

- Ⓐ (1) 그때에는 환난에 환난이 더할 것이며 소문에 소문이 더할 것이다.
 (2) 이제 그들에 대한 바벨론 군대의 포위는 더욱 압축해 들어올 것이며 나가서 싸울 군사는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다(14절).
 (3) 또한 성안에는 기근과 전염병이 극심해 죽어 가는 사람이 날로 늘어 가며(렘 14:12) 들리는 소문은 패망에 대한 절망적인 소식만 들릴 것이다(참조, 렘 4:20).
 (4) 이 같은 상황에서는 유언 비어가 난무하며 모든 사람들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우왕 좌왕할 것이다(참조, 마 24:6).
 (5) 이처럼 하나님이 떠난 개인과 사회는 가장 비참하며 인간적인 어떠한 방법으로도 환난을 피할 수 없다(참조, 미 3:4).

24. ⓐ 환난과 소문이 더할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26절)

- Ⓐ (1) 그때에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목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고, 장로에게는 모략(謀略)이 없어질 것이다.
 (2)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무질서로 인해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도움이 하나도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참조, 시 74:9).
 (3)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전달하는 의미를 띤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아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음을 말한다(암 8:11).
 (4) 또한 율법의 해석자로 백성들의 종교적 지도자인 제사장도 그들에게 아무런 위안을 줄 수 없게 되었다(말 2:7).
 (5) 한편 백성들의 정치적 지도자가 되는 장로(참조, 민 11:16)들도 이 환난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자신들의 살 길만을 찾았다.
 (6)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지도자들은 그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파멸의 길로 이끈다(참조, 습 3:3).

25. ⓐ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기가 닥칠 때 장로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 (26절)

- Ⓐ (1) 그들은 모략과 지혜로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하여야 하나 능력이 상실되어 아무것도 못 할 것이다.
 (2) 한편 '장로'는 원래 지역 사회의 덕망있는 연장자로 권위를 행사하는 어른을 가리켰다(참조, 출 12:21).
 (3) 또한 백성들 중 재덕이 겸비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실한 자가 선출되었으며(출 18:21) 그들의 역할은 전쟁시의 지도자 혹은 분쟁시의 재판관으로 공동체를 유지, 대표하는 행정의 일도 담당했다(참조, 레 4:13-21; 신 21:1-9).
 (4) 그런데 본절에 나타난 장로는 히브리어로 <자켄>인데 특히 이들의 역할은 전쟁 수행이나 재판이라기 보다는 백성들의 정치적, 행정적 지도였다(참조, 수 23;2; 왕상 21:8).
 (5) 따라서 책임을 맡은 지도자는 먼저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늘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참조, 왕상 3:9; 고후 13:5).

26. ⓐ 이스라엘 패망의 때에 왕과 방백들 그리고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27절)

- Ⓐ (1) 이스라엘의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웃입 듯하고 거민의 손은 떨릴 것이다.
 (2) 민족의 지도자인 왕은 자신의 보좌 역할을 해야 할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의 능력 상실로 패망을 눈앞에 두고 애통할 수밖에 없다(참조, 왕하 6:30).
 (3) 그리고 '방백'은 히브리어로 <나쉬>인데 본래 의미는 높은 지위의 사람인 왕 또는 추장을 가리킨다(출 16:22).
 (4) 그런데 본절에서는 왕 아래 있는 최고 통치자를 말하는데 그는 잔인한 바벨론 군대의 침공에 떨 수밖에 없다(12:12).
 (5) 또한 지도층의 붕괴와 환난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공포에 떨게 된다(참조, 눅 6:25).

- (6) 이와 같이 환난의 때가 오면 이제까지 믿던 세상의 모든 것은 소용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을 멀리하던 자들은 후회할 것이다(참조, 습 1:11).

화보자료

나팔을 불고 있는 천사. 세즈듀 수도원의 한 돌기둥에 새겨진 이 양각(陽刻) 그림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계시록의 일곱 천사를 연상시켜 준다(계 8:6-10:11).



나팔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음악을 연주하는 데 사용되던 악기이기도 하지만(왕하 11:14;대상 13:8;시 98:6) 긴급한 재난을 알리는 기구나 전투 중의 신호를 위한 기구로도 곧잘 사용되었다(수 6:20;삿 7:8;습 1:16). 그런데 본장에서 '나팔을 불어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다'(14절)는 말은 유다가 힘없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의미한다.

제 8 장 심판의 원인이 예언되다

단락구분 1-4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다 / 5-6 투기(妬忌)의 우상을 보이시다 / 7-13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상을 숭배하다 / 14-15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다 / 16-18 태양을 경배하는 자들을 보이시다

1 제 육 년 유 월 오 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2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 쇠 같은데

3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4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5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귀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6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7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8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9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10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11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칠십 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12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13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14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15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16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이십 오 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17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무 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18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 보지 아니하고 공흠을 빼놓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1. ㉠ 이스라엘에게 예언된 본장의 말씀을 요약하라.

- ㉠ (1) 본장에는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다시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환상으로 보이시고 이러한 죄악으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이 예언되어 있다.
- (2)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선지자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악성을 보이신다 (3, 12, 14, 16절).
- (3)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명백히 하고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公義)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4)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알고서도 그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이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그 순간에는 고통일지 모르나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용기이다.

2. **㉠**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다시 임한 때는 언제인가? (1절)

- ㉠** (1) 그때는 에스겔이 유다 장로들과 함께 자신의 집에 앉아 있던 때로 제 육 년 유월 오일이었다.
- (2) 또한 이때는 그발 강가에서 이상을 본 후(1:2, 3) 1년 2개월이 지난 때로 자신의 집에서의 일이다(3:24).
- (3) 이제까지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예언했는데 본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4) 이와 같은 예루살렘의 사정은 당시 본국과 유배지 사이를 오가는 여행자들에 의해 전해진 것이다(렘 29:1-3, 9).
- (5) 그리고 그와 마주 앉아 있던 유다 장로들은 포로로 와 있던 백성들 중의 장로로 그들이 무슨 이유로 에스겔에게 왔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 (6) 이러한 상황에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셨고 환상을 보이셨다(3:14-22).
- (7)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

3. **㉠**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형상은 어떤 모습인가? (2절)

- ㉠** (1)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석 같으며 허리 이하는 불 같은 형상이었다.
- (2) 이 형상은 본서의 1:27에 나오는 것과 같은 형상인데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다.
- (3) 여기서 하나님께서 불 같은 영광의 형상으로 나타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믿으면서 우상을 숭배한 교만을 책망키 위해서였다(참조, 암 5:18).
- (4) 즉 비록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기나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는 영광 중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이신다(출 24:17; 눅 2:9).
- (5)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 안에 가두고 하나님의 뜻을 멋대로 단정하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사고 속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참조, 왕상 8:27; 행 17:28).

4. **㉠** 주의 신(神)은 에스겔을 어떻게 들어 올리셨는가? (3절)

- ㉠** (1) 주의 신은 손 같은 것을 펴서 에스겔의 머리털 한 줌을 잡아 공중으로 들어 올리셨다.
- (2) 그런데 그를 들어 올리신 일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행 8:39) 그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시고(2:2) 그를 감화하시는 것을 말한다(마 4:1).
- (3) 한편 '손 같은'이란 실제 손이 아니라 이상 중에 나타난 형상을 가리킨다(참조, 단 5:5).
- (4)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신의 뜻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감화를 받아 전해야 한다(2:7).

5. **㉠** 주의 신이 에스겔을 이상 가운데 데리고 가신 곳은 어디인가? (3절)

- ㉠** (1) 그곳은 예루살렘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北向) 문으로 투기(妬忌)를 불러일으키는 우상이 자리하는 곳이다.
- (2) 여기서 성전 안뜰이란 제사장의 뜰(렘 36:10)로 백성의 뜰보다 높은 지대에 있었으며 백성이 넘겨다보지 못하도록 제사장의 뜰과 백성의 뜰 사이를 벽으로 막아 놓았다(참조, 왕상 6:36).
- (3) 그리고 북향한 문은 5절의 제단 문과 동일한 것으로 9:2의 윗문 그리고 렘 20:2의 윗

문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본절에서 성전 구조에 대해 언급된 것으로 보아 에스겔은 성전 내부 사정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것 같다.

- (4) 한편 안뜰로 들어가는 북문(北門)에는 희생 제물을 씻는 데 사용되는 설비가 있었으며 (40:38) 북문 바로 밖에는 노래하는 자들을 위한 방들이 남쪽을 향해 열려 있었고 (40:44) 그 문의 동쪽에는 제사장들을 위한 방이 있었다(40:46).
- (5) 이처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참조, 욥 2:28).

6. **㉠ 예루살렘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北向) 문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3절)**

- ㉠** (1) 에스겔이 북향한 문이 있는 곳에서 발견한 것은 투기를 불러일으키는 우상이었다.
- (2) 이 우상은 어떤 것인지 확실치 않지만 므낫세(B.C. 697-642) 통치 때 성전에 둔 아세라 상(像)으로(왕하 21:7) 추측된다.
- (3) 그런데 이 우상은 백성들의 뜰에 위치했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존재였다(참조, 신 32:16).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으로서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하셨기 때문이다(출 20:4, 5).
- (4)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장스런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 입구에 놓여 있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패역한 민족인가를 알리시기 위함이었다(신 32:21).
- (5)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인(고전 3:16)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그 삶은 하나님께 버림 받는다(출 20:6).

7. **㉠ 투기의 우상이 있는 곳에는 또한 무엇이 있었는가? (4절)**

- ㉠** (1) 그곳에는 에스겔이 들에서 보았던 이상과 같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 (2) 이 영광은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본 하나님의 형상으로 투기의 우상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1:4-28).
- (3) 그리고 이 대조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악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난 이유가 되었다(6절).
- (4) 이처럼 악이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악은 선이 있음으로 해서 더욱 추해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은 늘 우리 곁에 있는 것이다(참조, 렘 13:23).

8. **㉠ 하나님의 명령으로 에스겔은 어디를 바라보았는가? (5절)**

- ㉠** (1) 그는 북편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제단 문 어귀 북편에 투기의 우상이 있었다.
- (2) 한편 제단 문은 3절에 나오는 북향 문과 동일한 것으로 그 문의 현관 양쪽에 네 개의 상이 있었는데 그 위에서 희생 제물을 잡았다(40:39).
- (3) 또한 문결의 양쪽에 희생 제물을 잡는 상이 들쭉 더 있어서 모두 8개의 상이 있었으며(40:41) 번제에 쓰이는 상이 다듬은 돌로 만들어 네 개가 있었다(40:42).
- (4) 그리고 현관에는 희생 제물을 걸어 두고 갈고리들이 정돈되어 있었는데 유다의 아has왕(B. C. 740-728) 때는 바벨론의 제단을 본따 새 단을 만들어 그곳에 두었다(왕하 16:14).
- (5) 따라서 제단 문 어귀는 우상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성전을 우상의 제단으로 바꾸는 죄악을 범했다(16절; 왕하 21:4, 5).
- (6) 이처럼 오늘날 인간들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자연을 파괴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성을 세상의 악으로 바꾸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9. **㉠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증한 일을 행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실 것인가? (6절)**

- ㉠** (1) 그들의 가증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성소(聖所)를 떠나실 이유가 되었다.
- (2)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상 중에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신 것은 이스라

엘 백성의 우상 숭배 현장을 보이시고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를 확증하시기 위해서이다(참조, 대상 10:13).

(3)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으로 보일지라도 모두 명백한 이유와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 있다(참조, 롬 2:4).

10. **㉠** 에스겔이 뜰 문에 이르러 행한 일은 무엇인가? (7,8절)

㉠ (1) 에스겔은 주의 신의 인도로 뜰 문에 이르러 답에 구멍이 있는 것을 보았으며 주의 신이 답을 헐라고 명하시므로 그가 답을 허니 한 문이 있었다.

(2) 이것은 에스겔이 주의 신의 인도로 안뜰에서 바깥 뜰로 나간 것을 말하는데 거기서 그는 제사장의 뜰(안뜰)과 백성의 뜰(바깥 뜰) 사이를 가르는 벽에 구멍이 뚫린 것을 발견했다.

(3) 그리고 에스겔의 행동을 보면 그곳은 비밀스런 장소로 묘사되었는데(12:5)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망각하고 은밀한 처소에서 우상을 숭배하였다(11절).

(4) 이같이 오늘날에도 국가나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밀한 죄를 짓고 있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질책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참조, 롬 2:16).

11. **㉠** 에스겔은 담 속에 있는 방에서 무엇을 발견하였는가? (9,10절)

㉠ (1) 에스겔은 주의 신의 명령으로 담 속에 있는 방에서 각양(各樣) 곤충과 가증한 짐승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면 벽에 그린 것을 발견했다.

(2) 그런데 이 담 속에 있는 방은 에스겔이 답을 헐고 문을 찾아낸 것으로 보아서(8절) 담 내부에 은밀히 통로를 내서 만든 방이다.

(3) 왜냐하면 성전 안에 있는 방(렘 35:3, 4)이나 복문, 즉 안뜰로 들어가는 문 주변에 있는 것으로 노래하는 자들이 사용하던 방(40:44)과 문 동쪽의 제사장을 위한 방(40:46)은 외부에서 쉽게 발견되기 때문이다.

(4) 한편 방 사면 벽에 그려진 각 가지 우상들은 애굽에서 숭배되던 우상들과 유사한데(참조, 레 26:30; 신 29:17) 여호야김(B.C. 608-597)과 애굽 왕 바로느고의 동맹으로 애굽의 우상이 이스라엘에 만연되었을 것이다(왕하 23:33-35).

(5)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민족적 수치도 잊은 채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의 우상으로 가득 채워 만신전(萬神殿)으로 만들었다.

(6) 이와 같이 우리 교회 내에도 오늘날 복음을 해치는 여러 사상들의 유입으로 복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참조, 딤후 4:6,7).

12. **㉠** 골방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은 누구인가? (11절)

㉠ (1)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로 모두 칠십 명이었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나도 그 가운데 있었다.

(2) 이 70명의 장로들은 출애굽 후에 모세가 세운 칠십 장로들에서 유래한 것으로(출 24:9, 10; 민 11:16) 이들은 이스라엘 족속을 대표하는 자들이었다.

(3) 한편 사반의 아들 야아사나는 11장 1절에 나오는 앗술의 아들 야아사나와는 동일 인물이 아니며 그의 아버지 사반은 요시아 왕(B.C. 640-609) 치하의 유명한 서기관이었다(왕하 22:3).

(4) 따라서 평판이 좋은(왕하 22:12) 사반의 아들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자라는 것은 에스겔에게 있어서 큰 충격이었다.

(5)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같은 광경을 보이신 것은 백성의 지도자들부터 타락했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이었다.

(6) 이같이 지도자들이 은밀히 저지르는 죄악은 쉽게 발견될 수는 없지만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 파급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13. **㉠** 칠십 인의 장로들이 은밀한 방에서 행한 일은 무엇인가? (11절)

- ㉠** (1) 그들은 각각 손에 향로를 들고 우상에게 경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 향연(香煙)이 구름 같이 올랐다.
 (2) 그런데 여기서 분향은 가장 큰 경배의 표시며 여호와 경배 이외에 일반적인 용도로는 사용이 금지되었다(레 16:13).
 (3) 그러나 이러한 분향을 우상에게 바친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그들의 죄악을 쌓는 것이다.
 (4) 이처럼 우리의 생활에서 마땅히 드릴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악의 일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14. **㉠**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은 여호와께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12절)

- ㉠** (1) 그들은 우상의 방 안 어두운 속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보지 않으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2) 여기서 그들이 어두운 방에서 행하는 일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어두운 지식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참조, 사 29:15).
 (3) 즉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의 한 신(神)으로 격하시키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믿게 되었다(시 10:11).
 (4) 이들의 이 같은 행동은 그들이 이제껏 받아온 형벌이 자신들의 타락으로 인한 것을 인정치 않는 것이며(2:3, 4), 또한 그들이 재앙에서 벗어나려고 이제는 다른 신을 찾고 있다(7:26).
 (5) 이와 같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늘을 떠나 자신의 뜻대로 행하려는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참조, 창 11:4).

15. **㉠** 주의 신이 에스겔에게 또 다른 가증한 일을 보이신 것은 무엇인가? (13, 14절)

- ㉠** (1) 그것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복문에서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哀哭)하는 광경이다.
 (2) 여기서 '담무스'는 수메르인에서 비롯된 곡신(穀神)의 이름으로 바벨론과 베니게에서 숭배되었는데 애굽의 오시리스 숭배와 수리아의 아도니스 숭배 풍습은 담무스(Tamuz) 제사 의식과 유사한 점이 많다(참조, 숙 12:11).
 (3) 그리고 바벨론의 제 4월(6,7월) 2일에는 매년 담무스 신을 애곡하는 제사 의식이 행해지는데 바벨론 신화에 의하면 이 기간에 담무스 신이 지상에서 모습을 감추기 때문이다.
 (4) 한편 유대에 있어서의 담무스 숭배는 므낫세(B.C.697-642) 치세 이후로 추정되며 바벨론 포로기 이후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네째 달을 '탐무즈'(Tamuz)로 이름짓게 되었다.
 (5)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여인들도 이처럼 여호와의 전 앞에서 이방 신을 섬기며 타락해 있었다.
 (6) 항상 우리가 자신의 것보다 타인의 것을 더 좋게 여기고 강대국의 문화를 우리의 문화보다 더 높게 평가하기만 한다면 자신의 주체성을 잃고 타인의 의사나 타국의 간섭에 따라 행동하게 되며 급기야는 자신의 정신마저도 잃게 된다.

16. **㉠**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玄關)과 제단 사이에서 행해진 일은 무엇인가? (15, 16절)

- ㉠** (1) 그곳에서는 약 25명이 모여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고 있었다.
 (2)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안뜰에서 행해지는 가증스런 일을 보이시는데 왕정 시대에는 이 안뜰에 제사장과 왕 그리고 중요 인물들만 드나들 수 있었으며(왕상 8:22; 9:25; 왕하 11:4-15; 19:14; 23:2) 포로기 이후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가게 되었다.

- (3) 그런데 에스겔은 그가 본 사람들의 신분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십 오 인이라는 수자는 그들이 제사직의 이십 사 반열의 반장들과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 (4) 그러므로 백성을 대표하는 칠십 인 장로들이 가증한 일을 행한 것처럼(11절) 이제는 백성의 종교적 지도자들이 여호와와의 전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다(참조, 36:14).
- (5)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와 교계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의 위치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으며 그들에게 영적 강건성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새삼 느끼게 한다.
17. **㉠ 여호와와의 전 문 앞 현관(玄關)과 제단 사이에서 행해진 일은 무엇인가? (16절)**
- ㉠** (1) 그곳에서는 유다의 25명 제사장들이 모여 여호와와의 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고 있었다.
- (2) 이들이 여호와와의 전을 등진 것은 배교(背敎)를 상징하는 것으로(렘 7:24) 떠오르는 태양의 방향인 동쪽을 향하여 경배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보였다.
- (3) 그런데 본절에 나타난 태양 숭배는 6:4에 보이는 산당 제사에 있어서의 태양상 경배와는 약간 다른 의식으로 태양 자체에 대한 경배를 의미한다(참조, 욕 31:26).
- (4) 한편 그들이 태양 경배를 하던 자리는 이스라엘의 신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인데 이곳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장소이다.
- (5) 이처럼 그들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그 만드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에 대한 경배를 함으로써 스스로를 낮추었다(신 4:8).
- (6)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어떤 피조물을 경배하는 행위는 그 피조물의 창조자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자신을 그 피조물보다 낮추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특권을 주셨기 때문이다(창 2:26).
18. **㉠ 이십 오 인의 제사장들이 태양 경배를 하던 곳은 어디인가? (16절)**
- ㉠** (1) 이들이 경배를 하던 곳은 여호와와의 전 문 앞 현관(玄關)과 제단 사이이다.
- (2) 그런데 이곳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던 장소인데 이 현관은 동쪽을 향하여 성전 뜰 정면에 있으며 층계를 거쳐서 들어오게 되어 있다(40:6).
- (3) 그리고 돛으로 만든 단은 성전 뜰에 있는데 가로 세로 모두 20규빗(9.1m)이며 높이는 10규빗(4.56m)이고 후대에(대하 15:8;33:16) 모서리를 널판으로 만들어 제물을 태운 재를 밀으로 떨어뜨리는 화상(火床)을 첨가시켰다.
- (4) 또한 이 제단은 제사장의 뜰에 위치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제사장과 중요 인물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에서 가증한 일을 행했던 곳이다.
- (5)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특권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고 그 특권을 남용하여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 형벌은 더욱 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개인에게 특권을 주실 때는 그것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며 이 옷을 위해 사용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19. **㉠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유다 족속의 가증한 일은 무엇인가? (17절)**
- ㉠** (1) 그것은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하나님의 노를 격동(激動)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둔 것이다.
- (2) 그들은 사악한 행동으로 그 사회를 더럽히고 기어코 가증한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와서(10절)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14, 16절)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이다.
- (3) 뿐만 아니라 이들은 나뭇가지를 그 코에 들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가증시켰는데 이 나뭇가지를 코에 갔다 대는 행위는 태양 숭배자들이 태양에 기도할 때에 코앞을 가리워서 태양 광선이 인간의 숨으로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4) 이 같은 행동은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태도를 보인 것이며 일설(Lightfoot)

에 의하면 '코'를 '진노'의 상징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타는 불길에 연료를 보태 주는 일로 해석한다.

20. ㉠ 부패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한 것인가? (18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분노(憤怒)를 나타내시며 그들이 큰소리로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않으실 것이다.
- (2) 이제껏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먼저 구원의 손길을 펼치셨으나 지금은 그들이 울부짖으며 구원을 호소해도 듣지 않으시고 징벌하실 것을 말씀하신다 (잠 1:28).
- (3)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악한 길로 다니며 배은 망덕한 행위를 하다가 자신이 괴로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된다.

21. ㉠ 본장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18절)

- ㉠ (1)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오래 참음에도 불구하고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뜻대로 살려는 인간 본성의 사악함을 알 수 있다.
- (2)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지으셨으나 우리 인간이 이러한 악을 지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잘못이다 (창 1:27).
- (3) 따라서 우리 인간은 자신의 악한 본성을 버리고 본래의 모습대로 살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들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으로 가능할 것이다.

연구자료

신약에 나오는 에스겔서의 인용 귀절들. 신약 성경에는 본서에서 따간 인용 귀절 및 거기에서 도출해 낸 많은 언급들이 있다.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3:27) 라는 말은 마 11:15; 13:16 그리고 눅 14:35 및 계 13:9 등등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이다' 라는 관용구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심판은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리라는 벨전 4:17의 엄중한 경고는 그 기원이 본서 9:6 말씀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주석자(註釋者)들은 고후 6:16 말씀 중에 나오는 '내가 저희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은 레 26:11, 12 말씀과 본서 37:27 말씀이 결합된 압축형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그렇게 볼 것 같으면 뒤이어 나오는 '너 회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회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고후 6:18) 라는 말은 본서 36:28 말씀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다.

제 9 장 예루살렘 심판의 명령이 떨어지다

단락구분 1-2 심판의 도구가 준비되다 / 3-4 구원받을 자들이 구별되다 / 5-7 악인들에 대한 살륙이 시작되다 / 8-10 선지자가 심판의 경감을 호소하나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다 / 11 명령을 수행한 자의 보고

1 그가 또 큰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륙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2 내가 본즉 여섯 사람이 북향한 뒷문 길로 좇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륙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 그릇을 찻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늦제단 곁에 서더라

3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 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4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5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좇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 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6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

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7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8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혼로 있는지라 엎드리어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옵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9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찻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10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 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갓으리라 하시더라

11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먹 그릇을 찬 사람이 북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1. ㉠ 본장의 개요를 말하라.

- ㉠ (1) 본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잔혹한 살륙이 있을 것이 예언되어 있으며 특별히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선별이 언급되어 있다.
- (2) 그런데 심판은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모든 자에게 찾아온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증한 죄를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는 구원의 표가 찍히게 된다.
- (3) 한편 본장에서 특이한 것은 심판을 위해 하나님께서 살륙하는 기계를 든 자와 구원의 표를 이마에 찍기 위해 먹 그릇을 찬 자를 예비하신 것이다(2절).
- (4) 본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2. ㉠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외치신 말씀은 무엇인가? (1절)

- ㉠ (1) 그 말씀은 예루살렘 성읍을 관할(管轄)하는 자들에게 일러 각각 살륙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라는 명령이다.
- (2) 여기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시는 분은 정확히 8:2에 있는 ‘불 같은 형상’을 하신 분이며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은 소돔 성에 찾아왔던 천사(창 9:11)나 삼하 24:16과 대상 21:16에 칼을 든 천사와 같은 존재이다.

(3) 그리고 그들이 손에 든 살륙하는 기계는 칼[刀]이라기 보다는 도끼나 철퇴 같은 무기를 가리킨다(렘 51:20).

(4) 이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매정한 것 같으나 그분의 심판은 우리의 정결과 깨우침을 위한 계획의 일환이기 때문에 우리도 환난이 닥칠 때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 잘못된 점이 없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36:25).

3. **㉠ 살륙하는 기계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2절)**

㉠ (1) 그들은 성전의 윗문 길로부터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섰다.

(2) 그런데 그들이 들어온 성전의 윗문은 유다 왕 요람(B. C. 751-736)이 건축한 것으로(왕하 15:35) 북쪽을 향해 있었다.

(3) 이들이 북쪽인 윗문에서 들어왔다는 사실은 에스겔이 본 환상이 북쪽에서 왔다는 것과 함께(1:4)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군대가 침공해 오는 방향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참조, 렘 1:13-15).

(4) 한편 이들이 성전 뜰로 들어와서 현관 앞 제단에 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가 극에 달해 하나님을 모독한 바로 그 자리에서 형벌이 시작된다는 의미(8:16)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놋 제단에 올려질 희생 제물이 될 것을 암시한다(습 1:7).

4. **㉠ 여섯 사람 이외의 또 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2절)**

㉠ (1) 그는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는 서기관의 떡 그릇을 찼다.

(2)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이 여섯 중의 한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그에 대한 특별한 의형 묘사에서 알 수 있다.

(3) 그리고 그가 입은 가는 베옷은 대제사장의 옷차림으로(레 16:4, 23) 성결케 하는 중보 자로서의 제사장처럼 그는 구원받을 자의 이마에 표를 찍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4절).

(4) 또한 그의 모습은 전쟁 포로와 사망자 그리고 생존자의 수(數)를 세는 자 그리고 바벨론 서기관의 모습과 유사한데 그들이 차고 있는 떡 그릇 속에는 붓과 밀납으로 된 서판이 들어 있었다.

(5) 한편 본절에서 나타난 일곱 인의 사람은 실제 사람이 아니라 에스겔의 환상 중에 나타난 존재들로 계 15:6에서 나타난 일곱 천사들을 예표하고 있다.

5. **㉠ 그룹에 계시던 여호와께서는 어떤 행동을 보이셨는가? (3절)**

㉠ (1)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은 머물러 계시던 그룹을 떠나 성전 문지방에 이르러서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떡 그릇을 찬 사람을 부르셨다.

(2)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법례 위 시온소 위에 나타난 영광으로 지성소에서 나온 영광을 말한다.

(3) 또한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던 '그룹'은 집합 명사로 단수 취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그룹을 떠나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에만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다.

(4)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은 성전을 떠나실 것을 암시하는데(10:20) 지금으로서는 일곱 사람에게 임무를 부여하시려고 문지방에 서신 것이다(4,5절).

(5)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여기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도 하나님을 자신의 사고의 틀 속에 가둬 두는 경우가 많으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왕상 8:27).

6. **㉠ 하나님께서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떡 그릇을 허리에 찬 자에게 이른 말씀은 무엇인가? (4절)**

㉠ (1) 그는 예루살렘 성읍을 다니면서 그들 중에 일어나는 가증한 일에 대해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찍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 (2) 여기서 '표' (標)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타우>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로 옛 날 글에서는 십자가의 표와 같은 기호로 사용되었다.
- (3) 또한 <타우>라는 글자 모양은 일반적인 기호로 사용되고 서명 대신 사용되기도 하였다 (욥 31:35).
- (4) 유대인 저술가들은 그 이유를 그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로서 완성을 의미한다고 보며 '내가 너를 살게 하리라'는 뜻을 가질 <티히에>라는 단어의 첫 글자인 점을 들어 설명하였다.
- (5) 한편 이 같은 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라 멸하는 천사가 건너뉘 것과의 유사한 의미이며(출 12:13, 22), 가인에게 준 표(창 4:15)와 계 7:3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과 같다.
- (6)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에 앞서서 구원을 먼저 생각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어 자신들의 죄를 깨우치고 돌아서기를 바라셨다(6:3-7).

7. ㉠ 하나님께서 살륙하는 자들에게 내리신 명령은 무엇인가? (5절)

- ㉠ (1) 그 명령은 살륙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 이마에 표를 찍는 자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예루살렘 성 거민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치라는 것이다.
- (2) 이 의미는 심판에 앞서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남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심과 같이(6:8)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 내신 다음 진노를 내리시는 것을 뜻한다(참조, 고후 10:6).
- (3)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예표하는 것으로 그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통한 인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 준다(참조, 딤후 2:19).

8. ㉠ 살륙을 맡은 자들이 죽일 자들은 누구인가? (6절)

- ㉠ (1) 그들이 죽일 자들은 여호와와 성소(聖所)에서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예루살렘 성의 모든 자들이다.
- (2) 이것은 형벌의 출발점이 최악이 절정에 달한 곳이 되고 있음을 말하는데 바로 성전 앞의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였다.
- (3) 그런데 이 '늙은 자'가 누구를 의미하는가에 대해 논란이 많다. 어떤 학자들은 8:16에 있는 25명의 제사장이라고 하고 70명의 장로들이라고 하나 헝스텐베르그(Hengstenberg), 히지그(Hitzig)나 카일(Keil)은 단순히 연령이 많은 자를 의미한다고 본다.
- (4) 사람들은 환난 날에 교회를 피난처로 여겨서 그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결코 악인들을 위한 은신처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전이 더럽혀졌다면 가차없이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9. ㉠ 하나님께서 시체로 더럽히라고 명령하신 곳은 어디인가? (7절)

- ㉠ (1) 하나님께서는 살륙하는 자들에게 시체로 성전 뜰을 채워 성전을 더럽히라고 명하셨다.
- (2) 비록 하나님께서 성전을 영구한 처소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으나(시 132:14)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증스런 죄악으로 더럽혀진 곳에서 거하실 수 없었다.
- (3) 이 일은 바벨론 군대의 침공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들은 예루살렘 거민들을 죽여 시체와 그 피로 성전을 더럽혔다(7:21, 22).
- (4) 이처럼 오늘날의 성도들도 교회나 성령의 전(殿)인 자신의 몸을 더럽힐 경우 그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10. ㉠ 살륙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거민을 칠 때 에스겔이 한 말은 무엇인가? (8절)

- ㉠ (1) 에스겔은 땅에 엎드려 '오호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옵니 이

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었다.

- (2) 예루살렘 거민들의 참혹한 살륙을 볼 때 에스겔은 그들이 비록 악을 저질렀으나 그들에 대해 연민의 정을 가졌으며(렘9:1) 이마에 표를 받은 소수의 사람들 이외에는 모든 자가 죽임을 당하겠기에 부르짖었다.
- (3) 또 다른 이유는 소수의 남은 자를 제외하고 모두 멸망당한다면 누가 미래의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11:13).
- (4) 오늘날도 이와 같이 국가와 사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그들의 기도 와 선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은 결실을 거둘 것이다(왕하 19:10, 19;20:6).

11. **Q** 징계의 경감을 요구하는 에스겔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가? (9, 10절)

- A**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해서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성읍에 불법(不法)이 가득 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 (2) 에스겔은 하나님의 형벌을 경감하기 위해 호소했으나(렘 12:1) 거절당했다. 왜냐하면 죄가 너무 심해 그 심판을 경감시키는 것은 죄를 묵인하는 것과 같으며 하나님의 공의(公義)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 (3) 이처럼 그들의 죄악은 너무 심해서 그 사회에는 정의나 율법은 찾아 볼 수가 없으며 오히려 불법과 피흘리는 일로 가득 차다(참조, 대하 36:14-16).
- (4) 더우기 그들은 자신들의 그와 같은 행위를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상관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8:12).
- (5)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피를 흘리고 성소를 더럽힌 것과 같이 그들의 피를 흘리고 그들의 시체로 성소를 더럽히는 형벌로 그 죄를 보응하실 것을 말씀하셨다(7:8).

12. **Q**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 그릇을 찬 사람이 한 말은 무엇인가? (11절)

- A** (1) 그는 하나님께 보고하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遵行)하였나이다'라고 말하였다.
- (2) 여기서 살륙을 명령받은 자들의 임무 수행에 대한 보고는 없이 보호의 임무를 띤 자의 보고만이 나와 있다.
- (3) 그 이유는 이미 그들의 모든 임무가 끝난 것을 의미하며 베옷을 입은 자가 그들을 대표해서 보고하기 때문이다.

본장의 요절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 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11절).

제 10 장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다

단락구분 · 1-2 하나님께서 솟불을 던지라 명하시다 / 3-8 가는 베통 입은 자가 솟불을 쥐하다 / 9-14 그룹의 모습이 상세히 묘사되다 / 15-17 그룹의 움직임이 묘사되다 / 18-19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다 / 20-22 그룹과 생물은 동일한 존재이다

1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2 하나님이 가는 베통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그룹 밑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속에서 솟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흠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3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4 여호와와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그룹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와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5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6 하나님이 가는 베통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끝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7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베통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8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9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10 그 모양은 넷이 한결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11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되 돌이키지 않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행하며
 12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끝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13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칭하며
 14 그룹들은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15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16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17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18 여호와와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19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와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20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21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22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동이기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행하더라

1. ㉠ 본장의 환상이 무엇을 말하는지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징조가 두 가지 환상을 통해 표현되어 있으며 에스겔이 전에 보았던 생물과 같은 그룹의 형상과 움직임이 묘사되어 있다.
 (2) 특히 에스겔이 본 두 가지 환상은 하나님께서 가는 베통 입은 자에게 명하여서 그룹들 사이에 있는 솟불을 가지고 성읍 위에 뿌리라는 것과 여호와와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이다.
 (3) 또한 본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와 그룹들이 나타나 심판

의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 (4) 오늘날 현대 사회는 과학적 사고의 팽배로 많은 종교는 그 설 땅을 잃어 가고 있으며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자신의 생활 속에서 배제시키나 하나님 없는 삶이 곧 멸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2. **㉠** 그룹들의 머리 위에는 무슨 존재가 있었는가? (1절)

- ㉠** (1) 에스겔은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보좌 형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 (2) 그런데 이 형상은 그가 1장에서 언급한 첫번째 이상과 같은 것이나 단지 사람의 형상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1:26) 그룹들도 1장에 나오는 네 생물과 같은 모습과 움직임을 보이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7절).
- (3) 이 보좌 형상은 영광스런 하나님의 현시(顯示)로서 하나님께서 이 같은 모습으로 보이신 이유는 심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더럽힌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7:27).
- (4) 비록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여 그분의 역사하심을 비웃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며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참조, 제 22:5).

3. **㉠** 하나님께서 가는 배움 입을 사람에게 이르신 말씀은 무엇인가? (2절)

- ㉠** (1) 그것은 그룹 밑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숯불을 두 손에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흠으라는 명령이다.
- (2) 여기서 이 '숯불'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예루살렘 성 전체에 내려서 그들을 멸할 것을 명령하셨다(제 8:5)
- (3) 이처럼 예루살렘 백성은 자신들이 저지른 가증스런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 자신들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슌 1:7).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신(창 1: 27) 인간이 그 창조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단지 희생 제물이 되어 죽임을 당하는 일은 어느 누구에게도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자명한 자신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참조, 렘 11:11).

4. **㉠** 가는 배움을 입은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3절)

- ㉠** (1) 그때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였다.
- (2) 그룹들의 위치는 동편을 향하여 우측, 즉 남쪽을 가리키는데 이는 8:5의 살륙하는 자들이 들어오는 북쪽과 대조를 이룬다.
- (3) 한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난 의 부적인 표징이다(출 16:10; 19:9, 16; 40:34; 민 9:15).
- (4) 하나님께서 이 같은 영광을 보이신 이유는 에스겔에게 심판에 대한 확증을 보이시고 그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다(7:27).
- (5)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역사와 인간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참조, 고후 2:15).

5. **㉠**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임한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4,5절)

- ㉠** (1)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도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 같았다.
- (2) 여호와의 영광의 이동은 9:3의 재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시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심판을 명하시기 위해 성전 문지방에 임하셨다(2절).
- (3)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엘 쇠다이>는 족장 시대의 히브리

인들에게 인식된 하나님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며 지탱하시는 분이데 그분은 인간들에게 역사하시고 자연을 통치 주관하시는 분이시다(출 6:3).

- (4) 그런데 그 이름은 '엘로힘'이 하나님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시기에서 이스라엘과 계약 관계에 있으며 구속의 하나님이 되시는 <야웨> 혹은 <예호와>라는 명칭을 쓰던 시대 사이에 불리던 명칭으로 추정된다(창 17:1; 28:3; 43:14; 48:3).
- (5) 비록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면 그 모든 행동들은 한낱 껌데기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살아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선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6. ㉠ 하나님께서는 불을 어디에서 취하라고 명하셨는가? (6절)

- ㉠ (1) 하나님께서는 가는 배웃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시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섰다.
- (2) 이 불은 성결과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도 예루살렘 멸망 시(時)에 구원받을 자들의 이마에 표를 찍는 임무를 수행했으나 이제는 예루살렘 거민을 심판하는 불을 취하는 이중의 임무를 수행한다(9:4).
- (3) 그것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피조물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목적에 따라 그 도구들을 달리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신다.
- (4) 한편 '바퀴'로 번역된 두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서로 다른 것인데 전자는 <케루빔>으로 발음되는 단수 집합 명사로서 본절에서는 '수레'로 번역될 수 있으며, 후자는 <케륀>으로 그룹들의 네 바퀴 중 한 바퀴를 가리킨다(1:15, 16).
- (5)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과 물질도 사용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선하게도 악하게도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7. ㉠ 그룹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11절)

- ㉠ (1) 그룹들이 움직일 때는 사방 어느 쪽으로나 움직이는데 방향을 바꿀 때는 들지 않았으며 몸을 돌리지 않고 머리 쪽으로 움직였다.
- (2) 이 '머리'는 바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룹들이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으로 진로(進路)를 잡는다(욘 29:25).
- (3) 또한 그들이 방향을 전환할 때는 들지 않고 머리가 방향을 잡는 대로 움직였다. 이것은 이들의 일사 불란한 운동성을 말해 주는 것이다(1:9, 17).
- (4)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의 섭리에 따라 순종하나 유독 인간만이 그 섭리에 반항하여 조화를 깨뜨리고 창조주의 뜻에 거스리는 행동을 한다. 이것은 인간이 원초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반항하는 성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다(엡 2:2).

8. ㉠ 많은 눈들은 그룹의 어느 부분에 있었는가? (12절)

- ㉠ (1) 그 눈들은 그룹의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 둘레에 가득했다.
- (2) 1:18에 의하면 눈들은 바퀴의 둘레에 가득하다고 했는데 본절에 의하면 눈은 어디에나 가득하다고 표현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찰력에 대한 강조적 표현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감찰하신다는 사상이다(참조, 창 16:13; 슥 3:9; 계 4:6).
- (3) 이에 반해 한정된 이해와 능력을 가진 인간은 자신들의 잘못이 단지 인간의 눈을 속여 피하면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사(人間事)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으며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다(참조, 히 4:12, 13).

9. ㉠ 바퀴들은 어떻게 불려졌는가? (13절)

- ㉠ (1) 에스겔은 그 바퀴들이 '도는 것'이라 칭함을 받는 소리를 들었다.

(2) RSV에서는 이 말을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은 도는 바퀴들이라 불려졌다’ (They were called in my hearing the whirling wheels)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돌라’고 바퀴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의미한다.

(3) 즉 그것은 그 바퀴들이 회전하며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어진 것이다.

10. **㉠** 그룹들의 네 면(面)의 얼굴은 각각 어떤 모양인가? (14절)

㉠ (1) 그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며,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고, 세째는 사자(獅子)의 얼굴, 네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2) 본절에는 첫 면이 그룹의 얼굴이라고 언급되어 있지만 1:10에는 ‘소의 얼굴’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것이 1장에서는 세번째로 나왔는데 반해 본절에는 첫번째로 나왔다.

(3) 이 같은 이유는 그룹의 형상을 보다더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으로 깨우치시려 하시기 때문에 그룹의 형상을 부각시킨 것이다(2절).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각하기에 보잘것없고 가치없는 자를 높이고 그를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보이실 때가 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킬 수도 타인을 멸시할 수도 없다(참조, 삼상 2:7; 시 89:19).

11. **㉠** 그룹들이 올라갈 때 에스겔은 무엇을 알았는가? (15절)

㉠ (1) 그룹들이 올라갈 때 에스겔은 그들이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2) 여기서 그룹들이 올라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성전에 계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이유는 악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이다.

(3) 또한 에스겔이 이 그룹들을 그발 강가에서 본 생물이라고 부인한 것은 이 이상(理想)이 반복됨으로 예언의 말씀을 쉽게 믿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언을 확증시키기 위함이다(2:4).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둔하고 교훈을 쉽게 잊는 인간들을 오래 참으시고 거듭 가르침의 말씀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알려 주신다.

12. **㉠** 그룹들의 움직임의 특징은 무엇인가? (16, 17절)

㉠ (1) 그룹들이 움직이면 바퀴들도 옆에서 같이 움직이며 땅에서 떠올 때나 멈출 때도 바퀴들은 같이 움직였다.

(2)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퀴에는 독자적인 움직임이 없이 그룹이 조종하는 대로 끌려다닌다는 점이다. 그것은 또한 바퀴와 날개와 그룹들이 모두 하나로 조화롭게 움직인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11:22).

(3) 한편 본절은 1:19의 중복인데 1장에서는 그룹의 날개는 언급되지 않았다.

(4) 이 세상의 모든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으며,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맹목적인 것 같으나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밀하신 섭리에 의한 것이다(참조, 사 51:16).

13. **㉠** 여호와의 영광은 어디로 이동하였는가? (18, 19절)

㉠ (1) 여호와의 영광은 그룹들의 선도(先導)로 성전 문지방을 떠나 동문(東門)으로 이동했다.

(2)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영원히 안전하리라는 확신과 하나님의 성전이 안식의 처소가 되리라는 약속을 믿어(시 132:14) 겸손하기 보다는 오히려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특히 하나님의 성전을 가증스런 우상으로 더럽혔다(8:5, 10, 11, 14, 16).

(3)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더러움으로 가득 찬 성전을 버리고 떠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패한 곳에 더 이상 영광은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4) 그러나 비록 여호와의 영광은 사라지고 성전은 바벨론 군대의 파괴로 황폐되었을지라

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 다시 영광을 받으시며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다(습 3:17).

(5) 이와 같이 악한 무리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징계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다(사 1:26).

14. **㉠** 본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19절)

- ㉠** (1)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의식으로 가득 차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영원히 보호하실 것으로 믿은 나머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다(참조, 사 66:1).
- (2) 더우기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늘 계시기 때문에 성전은 그들의 피난처가 된다고 믿으면서 가증스러운 죄악들을 서슴없이 범하였다.
- (3)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여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셨다(5:12).
-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기 전에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죄악 가운데 돌이키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셨으나 패역하고 마음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배척하여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2:5; 7:10, 11).
- (5) 이처럼 약속을 이행치 않고 어기는 측은 언제나 인간들이었다(사 24:5).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맺은 언약을 변치 않으시고 지켜 오셨으며(참조, 히 13:20) 인간이 보기에 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으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뜻에 따르지 않으시고 자신의 방법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오셨다(참조, 사 28:21).

15. **㉠** 에스겔이 자신이 본 환상 가운데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20-22절)

- ㉠** (1) 그것은 여호와와 영광이 성전을 떠날 때 그가 본 그룹과 그발 강가에서 본 생물이 동일 존재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 (2) 그가 이와 같이 여러 번에 걸쳐 강조하는 이유는(15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상이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 주신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며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예언을 비웃는 자들에게 결코 용서를 베풀지 않으리라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였다(3:8).
- (3) 불신자를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은 불신자들의 본이 되어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참조, 시 116:13; 요 13:15; 행 20:35).

본장의 요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와 전으로
들어가는 동시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19절).



제 11 장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심판과 구원이 예언되다

단락구분 1-4 예루살렘에 남은 지도자들에게 예언하라 / 5-7 예루살렘의 많은 자들이 죽임을 당하리라 / 8-13 블라다가 죽다 / 14-15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포로된 자들을 비웃다 / 16-21 포로된 사람들에 대한 구원과 자비가 약속되다 / 22-25 여호와의 영광과 에스겔의 환상이 사라지다

1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여호와와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문
에 이 십 오 인이 있는데 내가 그중에서 앗술
의 아들 야아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
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방백이라

2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
의를 품고 이 성읍에서 악한 죄를 베푸는 자
니라

3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4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
고 예언할지니라

5 여호와와 신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
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
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6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살육하여 그 시체
로 거리에 채웠도다

7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살육한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
읍은 그 가마려니와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8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러
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고

9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
의 손에 붙여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10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
엘 변경에서 너희를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
호와인 줄 알리라

11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
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국문하리니

12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
고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
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13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

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리어 큰소리로 부르
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
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14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15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너의 형제 곧 너의
형제와 친속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
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
나니

16 그러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
간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17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흠은 열
방 가운데서 모아 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
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18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19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
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20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
나님이 되리라

21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좇
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

22 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
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
였더니

23 여호와와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
서 성읍 동편 산에 머물고

24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25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로 고하리라

1. ㉠ 본장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에스겔의 환상을 통한 마지막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본장에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악을 행하고 있는 교만한 자들에 대한 심판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 대한 위로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
- (2) 예루살렘에 있으며 재앙과 사로잡힘을 면한 자들은 여전히 악을 행하며 사로잡혀 가는 자들을 업신여겼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며 포로 생활 중에서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 (3) 결국 본장은 우리에게 현실이 안락하다고 해서 만족하거나 교만하지 말며 또한 현실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낙심치 말고 선을 행하면 반드시 구원과 평안이 오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증을 보여 준다(참조, 갈 6:9).

2. ㉠ 에스겔이 여호와의 전 동문(東門)에서 본 광경은 무엇인가? (1절)

- ㉠ (1) 에스겔은 주의 신의 인도를 받아 여호와의 전 동문에서 25인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중에는 백성의 방백인 잇술의 아들 야아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도 있었다.
- (2) 이 동문은 10:19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렀던 장소이며 그곳에 있던 25인은 8:16의 태양 숭배자들과는 다른 사람들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들쭉 나온 사람들과 그들의 우두머리로 구성된 25인으로 추정된다.
- (3) 또한 그중에 있었던 야아사냐는 8:11과 렘 35:3에 나오는 인물과는 다른 인물로 브나야와 함께 백성의 지도자로 여겨지며 25인 중에서도 중요 인물로 보인다.
- (4) 특히 이들은 바벨론의 예루살렘 2차 침공(B.C. 597)을 무사히 넘긴 자들로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의 지도자 역할을 했다.

3. ㉠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들의 성품이 어떻다고 말씀하셨는가? (2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불의를 품고 이 성중(城中)에서 악한 죄를 베푸는 자라고 말씀하셨다.
- (2) 에스겔이 말하는 예루살렘 성 멸망의 원인 중 하나는 적어도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에 있었다. 즉 그들은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이스라엘의 잘못을 깨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책임을 잊고 오히려 앞장서서 악의 길로 달려갔다(참조, 마 15:14; 눅 6:39).
- (3)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들의 잘못을 쳐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셨다(4절). 이처럼 교회 지도자의 타락은 신자들의 부패와 신앙에 대한 무관심을 가져오는 물론 그 사회 윤리 도덕의 타락을 야기시킨다(참조, 렘 23:2).

4. ㉠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부패한 생각은 무엇인가? (3절)

- ㉠ (1) 그들은 집 건축(建築)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니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는 생각을 가졌다.
- (2) 이 말은 예레미야의 사상에 대항하는 말로(렘 29:5) '심판은 가깝지 않으며 선지자의 말과는 달리 우리는 포로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 예루살렘에 평안히 거하자'는 뜻이다.
- (3)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성읍은 끓는 가마가 되고 성중의 거민은 고기가 된다고 말하며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한 반면(렘 1:13) 이들은 예루살렘 성벽은 견고하여 능히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4) 이처럼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며 자신이 어떻게 그 한계를 가진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참조, 롬 10:3).

5. ㉠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4,5절)

- Ⓐ (1)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인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예언할 것을 명하셨다.
 (2) 여기서 에스겔에게 여호와와 신이 임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에스겔의 예언을 듣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참조, 10:15, 20).
 (3)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의 마음을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다른 무엇에 의지하여 구원을 얻을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전능자로서 명령과 권고를 하시는 것을 의미한다(20:32).
 (4)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감추거나 변명하려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 자신의 잘못과 욕심 그리고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깨닫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참조, 잠4:7).
6. Ⓢ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6, 7절)
 Ⓐ (1)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그 성에서 사람을 많이 죽여 시체로 거리를 더럽혔으며 그들이 살륙한 시체는 고기가 되었고 그 성은 가마가 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끌려 나올 것이다.
 (2) 그 성의 지도자들은 압제로 많은 백성을 죽게 했으며 소용없는 항쟁으로 많은 사람을 기근과 은역과 전투에서 죽게 하여 예루살렘 성읍을 시체로 채웠다(5:12).
 (3) 따라서 그 시체들은 가마 속의 고기와 같은 신세가 되었지만 그들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3절) 성에서 끌려 나와 포로의 운명을 겪게 될 것이다.
 (4) 이처럼 한 사람 혹은 소수의 무리에 의한 욕심과 판단 착오는 무서운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킨다. 비록 명분이 없는 전쟁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이 쓰러질 때 전쟁 결정자들은 그 희생자들에 대한 살인의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7. Ⓢ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어떤 형태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8-11절)
 Ⓐ (1) 그들이 칼을 두려워하므로 하나님께서 칼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겠으며 그들은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他國人)의 손에 붙여 이스라엘의 변경에서 국문(鞫問)하실 것이다.
 (2)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바벨론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 성을 굳게 닫고 있으면 안전하리라고 생각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끌어내서 이방인에 의해 심판을 당하게 할 것이다.
 (3) 그런데 이 예언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Nebuchanezzar, B. C. 605-562)에 의해 하맛 땅 립나에서 유다의 귀족들이 모두 살해됨으로 성취되었다(왕하 25:21).
 (4) 이처럼 인간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것을 잃는 형벌을 받을 때가 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8. Ⓢ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죄악은 무엇인가? (12절)
 Ⓐ (1)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律例)를 행치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한 것이다.
 (2)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근본적인 죄악을 강조하신다. 즉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적이며 타락한 이방 족속으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올바른 길로 걷기를 원하셨으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방인의 타락한 종교를 따랐다(8:5, 10, 14, 16).
 (3)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고 그것도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환난, 즉 전쟁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분이 그들과 언약을 맺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종치 않는 자들을 징계하심으로써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

사고, 당신이 인간의 사고 안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다(참조, 히 2:2, 3).

9. **㉠ 에스겔이 예언할 때 죽은 자는 누구인가? (13절)**

- ㉠** (1) 그는 여호와와의 전 동문에 모여 있던 25인의 방백 중 하나인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이다.
 (2) 이 장면이 에스겔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환상인 것은 분명하며(1절) 그는 당시 포로들 중에 있었다(25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표적을 통해 성읍의 멸망이 가까왔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셨다.
 (3) 그러나 에스겔은 그 남은 자들마저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약간의 소수는 살려 주실 것을 애원한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자는 남겨 달라는 호소이다(9:8).
 (4)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죄인을 치심으로 세상의 불의와 하나님의 의(義)를 나타내시고 장차 나타날 일에 대한 경고로 삼으실 때가 있다(참조, 행 5:5, 10).

10. **㉠ 예루살렘 거민은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어떻게 업신여겼는가? (14, 15절)**

- ㉠** (1)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며 그들을 업신여겼다.
 (2) 이스라엘의 기업 이을 자를 남겨 달라는 에스겔의 호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영감으로 그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신다.
 (3) 그런데 예루살렘 거민은 B. C.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앗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과(왕하 17:6) B. C. 597년 바벨론의 침공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왕하 25:11)을 비웃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땅인 유다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에 이 땅은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생각했다.
 (4) 그러나 예레미야의 이상에 의하면(렘 24:1-10) 사로잡혀 간 자들은 좋은 무화과로 비유되었으며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오히려 비열하고 하찮은 존재로 묘사되었다.
 (5) 자신이 평안하고 부할 때 타인의 어려움과 고통을 생각하거나 그들을 도와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업신여기며 멸시하는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11. **㉠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무엇이라고 칭하셨는가? (15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스겔의 형제와 친속(親屬) 그리고 이스라엘은 족속이라고 칭하셨다.
 (2) 여기서 친속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게올라>는 <고엘>의 의무와 기능을 지닌다. 즉 친족들 중에 가난한 자와 빛진 자를 대신해서 속량자와 갚아 주는 자가 되는 의무를 진 자를 말한다(레 25:25, 48; 민 5:8).
 (3)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그 포로된 자들의 <고엘>로서 선지자의 책임을 다하여야 함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4) 이처럼 먼저 믿은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말씀으로 깨우치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참조, 시 46:13).

12. **㉠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인가? (16절)**

- ㉠** (1) 그것은 비록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하나님께서 잠깐 그들에게 성소(聖所)가 되리라고 약속하셨다.
 (2)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로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보내시고 은혜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은 성전이 없는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그들의 성전이 되겠다는 것이다.
 (3) 이 말의 의미는 성전이 아닌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따라서 성전이 없는 바벨론 땅에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게 하나님께서 임하시어 피난처가 되시겠다는 것이다(참조, 창 28:15; 사 43:2).

- (4) 또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첫째 성전을 버리시고 새로운 성전을 회복하시리라는 것을 암시하며(40-48장), 궁극적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인 그리스도 교회의 출현을 예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갈 6:16).

13. C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 임재 사상은 어떻게 발전했는가? (16절)

- A** (1) 처음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전 곧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고 믿었다(참조, 시 132:14). 그러나 그들이 의지하던 성전은 이방인의 발에 짓밟히고 그들은 자신의 땅에서 쫓겨났다(왕하 25:11).
- (2) 그러나 성전이 없는 이방 땅에서 자신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심으로써 자신이 그들과 함께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 (3) 그 후 바벨론과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회당이 들어서서 성전을 대신하여 예배와 교육의 중심이 되었다.
- (4) 한편 신약 시대에는 예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는 약속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는 더욱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다(마 18:20; 요 4:21-24).
- (5) 이 같은 사상의 변천에서 우리는 성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성소 곧 교회를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된다(참조, 사 8:14).

14. C 이방에 흩어진 자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17, 18절)

- A** (1)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민(萬民)과 흩어진 열방 가운데서 모아 그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주시고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모든 미운 물건들과 가증(可憎)한 것을 제(除)하여 버릴 것을 약속하셨다.
- (2)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키기 위해 그들의 본국 귀환을 약속하시며 포로 생활을 통해 자신들의 타락했던 과거를 누우치고(6:9) 돌아온 본국에서 우상을 제하게 할 것이다.
- (3) 이 같은 그들의 회개로 포로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는 우상 숭배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하나님께 모두 신실하였다(렘 24:7).
- (4)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경건한 모습과 거룩한 의식을 나타낼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에게 잘 보이려 하고 교회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이다(벧전 5:2).

15. C 본국으로 귀환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인가? (19, 20절)

- A** (1)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치(一致)한 마음과 새 신(神)을 주시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 (2)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많은 신들을 섬기던 행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마음과 방황치 않는 마음을 주신다는 의미와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서 나뉘지 않고 연합하여 한 인간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렘 32:37-39).
- (3)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연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렘 31:31-33) 그 영은 그들을 성결케 유지시키며 하나님께 충실하도록 만들 것이다(참조, 고후 5:17).
- (4)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제껏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의 외침을 듣지 않는 그들의 강박한 마음을(3:7; 속 7:12) 부드럽게 만드시어 하나님의 선(善)을 이루기 위해 애를 쓰는 마음을 갖는 데까지 도달하도록 하실 것이다.
- (5) 인간은 선을 이루기 위해 모두 애를 쓰지만 그들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를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 홀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악에 대한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에 사로잡혀야만 선을 이룰 수 있다.

16. **㉠** 새 신(神)을 받은 자와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좇는 자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20, 21절)

- ㉠** (1) 새 신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좇을 수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가증한 것을 좇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갓으실 것이다.
- (2) 이 말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 뿐 아니라 그 생활을 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 (3) 그러나 예전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그분의 진노를 받을 것이 경고되어 있는데 그들은 악인과 우상의 마음을 본받아 그들의 악함과 타락함을 배운다. 여기에 바로 그들의 악의 뿌리가 있는 것이다.
- (4) 인간에게 악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은 참으로 많다. 그러나 그 마음에 있어서 자신이 늘 올바른 길을 걷고 악의 모습을 따르지 않으려는 노력 속에서 최소한의 경건성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따르지 말아야 한다(살전 5:22).

17. **㉠** 예루살렘에서의 에스겔의 환상은 어떻게 끝나는가? (23-25절)

- ㉠** (1) 여호와와 영광은 성읍 중에서 올라가서 성읍 동편 산에 머물고 주의 신은 이상(異像) 중에 에스겔을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들 가운데로 데려오니 이상이 그를 떠났다.
- (2) 성전의 동쪽 문에 머물러 있던 (10:19) 여호와와 영광이 여기서는 성읍 중에 있었다고 묘사되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성읍 동편 산 곧 감람산에 머물렀다(슥 14:4).
- (3) 여호와와 영광이 성전을 버리고 감람산에 오르신 것은 이제 그들을 심판키 위해 좌정하신 것이다. 한편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며 우신 곳도 바로 이곳이다(눅 19:41).
- (4) 이러한 광경을 환상 중에 보이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가 있던 갈대아 땅 포로들이 있는 곳인 그밭 강가 델아빔으로 그를 옮기셨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모두 고하였다(1:1).
- (5)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포로 생활의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보내신다(19, 20절).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는 계속 저주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10절).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악을 행하는 자들로서 포로 된 자신의 동족을 업신여기기까지 했기 때문이다(15절).
- (6)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는 무서운 심판자이시지만 죄를 뉘우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낙심 중에 있을 때에라도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동을 그분은 원하신다(참조, 시 34:18).

제 12 장 표적을 통해 심판의 확실성이 예언되다

단락구분 1-7 선지자가 행구를 옮김으로써 이스라엘의 탈주를 표징하다 / 8-16 이사하는 행동의 예언을 통하여 시드기아가 포로로 잡힐 것을 시사하다 / 17-20 이스라엘의 기근이 예언되다 / 21-25 거짓 예언을 책망하다 / 26-28 예언이 속히 이루어라 하는 것을 확증하다

1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 인자야 네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불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3 인자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4 너는 낮에 그 목전에서 네 행구를 밖으로 내기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5 너는 그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쫓아 옮기되

6 캄캄할 때에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니라 하시기로

7 내가 그 명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구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내어 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구를 내어다가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8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9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패역한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10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 하셨다 하고

11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 갈지라

12 우리가 성벽을 뚫고 행구를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구를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리라 하라

13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읍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14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15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헤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6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중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7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18 인자야 너는 떨면서 네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네 물을 마시며

19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거민의 강포를 인하여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됴리라

20 사람의 거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황무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21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2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목시가 융합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찜이뇨

23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목시의 융합이 가까우니

24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목시나 아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25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옹허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어라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26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7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목
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하나니
28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

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
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어라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1. ㉠ 본장의 표적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 ㉠ (1) 본장에는 에스겔이 자신의 행구를 옮김으로써 이스라엘 족속의 패주(敗走)를 예언하며 이스라엘 땅에 임한 기근과 예언의 확실성이 기록되어 있다.
- (2) 그런데 선지자가 거주지를 옮긴 것은 바벨론 군대의 공격(B.C. 586)에 의해 유다 왕 시드기야(B.C. 597-586)가 밤에 성벽을 뚫고 탈출하다 붙잡히는 사건을 예언한 것이며, 식물을 떨면서 먹이라는 명령으로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기근을 예표했는데 특히 본장은 4장과 8장에서 취급한 기근을 재언급하고 있다.
-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예언에도 불구하고 속담을 들어서 심판을 조롱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그 심판의 확실성을 강조하신다.
- (4) 우리는 본장에서 마음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고 들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애쓰심과 자애로운 수고와 죄인을 구원시키려는 당신의 사랑을 보게 된다.

2.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평하셨는가? (1, 2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않는 패역한 족속이라고 평하셨다.
- (2) 이제까지와는 달리 본장에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에스겔에게 전달되는 방법이 바뀌었다. 즉 '하나님의 이상'을 통한 메시지 전달 방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에스겔에게 임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에게는 자주 사용되던 방법이다(렘 25:1; 26:1; 27:1).
- (3) 한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그들이 얼마나 패역한 민족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장님이며 귀머거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된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자신들이 자원했기 때문이었다(참조, 사 6:9).
- (4)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죄악조차 모르는 백성들을 깨우치시기 위해 에스겔에게 표적을 통한 예언을 하라고 명하셨다(참조, 마 13:13).
- (5) 이처럼 인간의 사악함과 우둔함은 자신의 죄과를 인정치 않고 변명함으로써 그 순간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데 있다. 그 같은 행위는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물론 더 큰 죄악을 불러들이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반해 현명한 자는 자신이 저지른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자유를 찾는다(참조, 행 3:19).

3.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어떤 표적을 보이려고 명하셨는가? (3절)

- ㉠ (1) 하나님께서는 행구(行具)를 준비하고 낮에 에스겔 자신의 동쪽, 즉 포로된 백성의 목전에서 이사(移徙)하여 처소를 옮김으로 그들이 그것을 보고 생각이 있도록 명하셨다.
- (2) 이 의미는 이스라엘이 다시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에 여행 도구를 준비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 같은 명령의 목적은 비록 그들이 패역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혹시 그 광경을 보면 깨닫는 바가 있게 하려는 것이다(4:12; 21:6).
- (3) 특히 이 표징은 시드기야가 포로될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왕인 시드기야가 자신들을 포로 생활에서 구출해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4) 이러한 기대 속에 있는 한 그들은 자신들이 받는 고난에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가 구원자가 될 수 없으며 그도 포로가 되어야 할 을 보여 주셨다(왕하 25:4-7).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잘못된 점을 깨우치시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신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비록 그 성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 에스겔은 낮에 이사 준비를 한 후 어떤 명령을 다시 받았는가? (4-7절)

㉠ (1) 감감할 때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행구를 어깨에 메고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않고 나가기를 마치 포로 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고 명령받았으며 또한 그는 성벽을 뚫고 나가야 했다.

(2) 이 같은 표징은 예루살렘 성에서 바벨론 군대에 항전하던 사람들이 그 성이 함락되어 포로로 잡혀가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조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참조, 사 8:18).

(3) 또한 성벽을 뚫고 나가는 모습은 밤에 예루살렘 성을 탈출하는 자들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들의 정체가 탄로나는 것을 두려워 얼굴을 가리고 땅만 보고 황급히 도망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12절).

(4) 이 같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허황되고 환상적인 일을 따르는 것과 같을 때가 많으나 우리의 지혜와 이해가 부족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표징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 믿음이란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히 11:1).

5. **㉠**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명하신 행동에 대해 어떤 해석을 주셨는가? (8-11절)

㉠ (1)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은 족속에 대한 예조(豫兆)이며 에스겔이 행한 대로 그들이 사로잡혀 옮겨갈 것이라는 설명을 하셨다.

(2) 여기서 '예조'란 말은 예언의 의미로서 이사야나 예레미야 그리고 호세아(8:10)와 나훔(1:1)이 흔히 사용하던 용어이지만 에스겔은 여기서만 사용하였다.

(3) 한편 예루살렘 왕은 시드기야를 가리키고 있으며 이 같은 표징은 그와 그의 백성들이 어떠한 운명에 처할 것인가를 미리 보여 주는 예조이다(렘 39:4).

(4)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행동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이 조롱하지 않더냐고 물으신 후 그 행위에 대한 해석을 패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려는 자들에게 설명해 줄 것을 명하셨다(11절).

(5) 이처럼 마음이 굳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기다리시며 그들은 일깨우시기 위해 자신의 말씀을 여러 가지 계시의 방법을 통해 끊임없이 보내신다.

6. **㉠** 예루살렘 왕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12, 13절)

㉠ (1) 우리들이 행구를 메고 성벽을 뚫고 나가는데 그중에는 예루살렘 왕도 섞여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위에 치고 읍무에 걸리게 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신다. 결국 그는 거기서 죽을 것이며 자신의 고국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2) 이것은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일반 백성의 눈을 피해 동산의 지하 통로를 통하여 탈출하는 광경을 묘사한 것인데 바벨론 군대는 미리 그 사실을 알고 여러고 평지에서 그를 잡았다(왕하 25:4, 5).

(3) 왕을 잡은 바벨론 군대는 그를 하맛 땅 립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B.C. 605-562)에게로 끌고 가서 신문하고 그의 앞에서 두 아들을 죽인 후 그의 두 눈을 뽑고 바

벨론으로 끌고 갔으며 결국 그는 거기서 죽었다(렘 39:5-7).

- (4) 이 같은 모든 일들은 바벨론 군대에게 의해 이루어졌으나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다는 것이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와 '내 울무에 걸리게 하여'라는 표현에 잘 나타나 있다.
- (5) 인간들은 하나님의 눈을 통해 자신들의 계획과 뜻대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지혜에 한계를 가진 인간들의 생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7. **㉠ 예루살렘 왕을 호위하던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14, 15절)**

- ㉠** (1) 하나님께서 그들과 부대들을 다 흠으시고 그 뒤를 따라 칼을 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 중에 흠어질 것이다.
- (2) 즉 예루살렘 백성이 의지하던 왕과 그의 호위 부대는 성을 탈출하지만 얼마 못 가서 붙잡히고 만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시고 살아 남은 자들을 이방의 포로로 만들어서 그들 스스로 그곳에서 자신들의 죄를 말하게 하실 것이다(5:2).
-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죽이지 않으시고 그들이 무슨 이유로 그 같은 형벌을 받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시며 이방인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행하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6:8, 9).
- (4) 이처럼 신자가 불신자들 앞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할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과 인간 앞에서 죄 지은 것이 없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8. **㉠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 거민이 당할 기근은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17-20절)**

- ㉠** (1) 에스겔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음식을 먹고 놀라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강포(強暴)로 성읍이 황폐하여 땅이 황무할 것을 가리킨다.
- (2) 그런데 이것은 에스겔이 갈대아 땅 그밭 강가에 있는 자신의 백성에게 표징으로 보인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땅이 바벨론 군대의 포위 공격으로 인해 비참한 상태에 빠질 것을 보여 준다(4:10, 11).
- (3) 즉 그들은 에스겔이 보인 행동처럼 공포와 근심 중에 음식을 먹으며 또한 식량 부족으로 굶어 죽어 가는 자들이 늘어나 성읍들을 황폐하게 될 것이다(5:10).
- (4) 그런데 그들이 이같이 비참한 상태에 빠질 이유는 그들이 행한 불의와 압제 그리고 약탈에 대한 보응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를 도구로 사용하여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9. **㉠ 이스라엘에 대한 묵시와 복술은 계속될 것인가? (24, 25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卜術)을 금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는 더디지 않고 응할 것을 약속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들의 생전(生前)에 이루실 것이라고 하셨다.
- (2) 그런데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감언 이설(甘言利說)로 속여 선지자들이 말하는 경고를 듣지 못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심판의 예언은 하나님의 약속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렘 28:3).
-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경고가 결국 입증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허탄한 묵시와 아첨하는 복술이 이스라엘에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7:7).
- (4)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도구를 사용하여 이미 경고한 보응을 실행하심으로써 자신의 신실하심을 보이실 것이다.
- (5) 우리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 중에 그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 것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뜻이 있으시기 때문이며 기도하는 자

를 위한 놀라운 섭리가 있으시기 때문이다(참조, 시 40:1; 사 25:9).

10. **Q** 예언에 대한 이스라엘 족속의 말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가? (26-28절)

- A** (1) 그들은 에스겔의 묵시는 지금 이스라엘 족속이 당할 재앙이 아니라 먼 훗날에 있을 예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당신의 말씀이 하나도 더디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리라고 말씀하셨다.
- (2) 이것은 25절까지의 내용을 확인하는 말로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장기로 몰아붙이는 신성 모독(神聖冒瀆)의 죄까지도 저지른다. 즉 그 예언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와는 상관이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자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과 선지자를 조롱하는 것이다(참조, 암 6:3).
-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속히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참조, 민 23:19).
- (4)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려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처럼 쉽게 그 계획을 바꾸는 분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이 하신 말씀을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다(참조, 삼상 15:29).

화보자료

뭇짐을 멘 노인. 아래 페르시아 노인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행구를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 성밖으로 나가던 에스겔의 모습(7절)을 연상케 해준다.



본장에는 유다 멸망과 관계된 에스겔의 몇 가지 상징적 행동이 언급되어 있다. 그중 에스겔이 이사 짐을 꾸려 메고 예루살렘 성밖으로 나간 행위(7절)는 장차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예표한다. 그리고 그가 떨면서 음식을 먹은 행위(18절)는 장차 예루살렘 주민들이 식량 부족으로 인해 굶어 죽게 될 것을 예표한다.

제 13 장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와 부녀에게 저주가 내리다

단락구분 1-7 거짓 예언자들의 행위가 설명되다 / 8-16 거짓 예언자들에게 저주가 내릴 것이다 / 17-19 거짓 예언을 하는 부녀자들의 악행이 설명되다 / 20-23 거짓 예언을 하는 부녀자들에게 대한 형벌과 백성에 대한 구원이 예언되다

1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라
 3 주 여호와와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4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5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와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6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7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와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목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8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
 9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목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0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흑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
 11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12 그 담이 무너진즉 흑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겠

느냐
 13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궤멸하리라
 14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궤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5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도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16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목시를 쓴다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니라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17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18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 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19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끝이들은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20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 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21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22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

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23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록 보지 못하고

점복도 못 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 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1. ㉠ 본장의 예언에 대해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앞장에서 잠깐 언급한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신랄한 비난과 저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예언을 하는 부녀자들은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이스라엘 전체에 해를 끼쳤다.
- (2)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과 바벨론에 포로 된 자들 중 어디에나 있었다(렘 23:14). 그들은 자신들에게 예언의 영이 전달되었다고 뽐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예언을 멸시하였다(22절).
- (3) 또한 포로들 중에 있던 거짓 예언자들은 백성들에게 조속한 귀국을 약속하여 그들에게서 인기를 얻으려 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선포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은 포로된 자들에게는 너무나 긴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 (4) 한 시대의 종교와 윤리가 타락하면 자칭 구원자들이 속출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켜 그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의 체제를 뒤흔들어 놓는데 본장에서는 한 국가의 말기 현상 속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의 예를 보여 준다(참조, 마 24:5).

2. ㉠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명령은 무엇인가? (1-3절)

- ㉠ (1)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들을 쳐서 예언하길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라 명하셨다.
- (2) 그런데 이들은 성령에 의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예언하는 자들로서(렘 14:14) 하나님께로부터 우매한 선지자라는 평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혜가 결핍되었고 자신의 생각에 의존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참조, 시 53:1).
- (3) 오늘날도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주장과 함께 자신의 말을 따르면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망언을 하고 다닌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내세움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았음을 증거하고 있다(22:28).
- (4) 그러므로 이 같은 거짓 예언자들이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성도들은 말씀에 충실하고 거짓 예언에 현혹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마 24:43).

3. ㉠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무엇에 비유하셨는가? (4, 5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황무지의 여우로 비유하시면서 그들은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았으며 여호와와 날에 전쟁을 방비(防備) 하기 위해 성벽을 수축(修築) 하지도 않았다고 비난하셨다.
- (2) 그런데 교활한 여우는 황무지에 살면서 포도원과 그 열매를 해친다(아 2:15). 이와 같이 여우로 비유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포도원인 이스라엘(사 5:7)을 망치고 그 파멸을 통해 자신들은 이익을 취하는 간사한 자들이었다(마 7:15).
- (3) 또한 그들은 성 무너진 곳에는 올라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백성의 종교적 타락을 보고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가리킨다(참조, 사 58:12).
- (4) 더우기 그들은 여호와와 진노의 날을 대비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악행을 그치고 영적인 새로운 건설을 하도록 중보의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

(5) 그러므로 먼저 믿은 우리들은 불신자들이 악의 길에서 방황할 때 그들을 깨우치고 이끌어서 구원의 길에 들어서도록 인도할 책임이 있다(참조, 빌 2:15).

4. **㉠** 거짓 예언자들은 어떻게 예언했는가? (6, 7절)

- ㉠** (1) 그들은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占卦)를 보며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기를 바라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거짓된 것들이었다.
- (2) 이처럼 예루살렘 멸망 당시의 자칭 선지자나 예언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생각과 꿈 이야기를 늘어놓는 데 불과했다(12:24).
- (3) 더우기 그들은 거짓된 점괘로 선지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형벌을 내리실 분이 아니라는 헛된 소망을 갖게 했다(참조, 렘 23:21).
- (4) 오늘날 교회에도 이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뜻과 생각만을 전달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믿도록 하는 거짓 목자들이 횡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같은 거짓 목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한다(참조, 마 15:9).

5. **㉠** 거짓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실 형벌은 무엇인가? (8, 9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공회(公會)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그 족속의 호적(戶籍)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 (2) 여기서 ‘백성의 공회’란 히브리어로는 이스라엘의 비밀 회의를 가리키는데(시 89:7) 그것은 백성들의 모임 곧 이스라엘 회중(會衆)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백성의 공회(公會)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의 백성과 교제를 할 수 없음을 말한다(시 1:5).
- (3) 그 뿐 아니라 그들은 아예 자신의 민족에게서 버림을 받으며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그들만은 돌아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참조, 사 57:13).
- (4) 이 같은 자들의 행위는 불신자들이 자신들의 죄가 너무 크고 무거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떠는 것에 비하면 파렴치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신앙의 경륜이 짧고 말은 직책이 없더라도 순수한 신앙의 자세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6. **㉠**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자들의 행위를 무엇에 비유하셨는가? (10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평강이 없을 것인데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행위를 어떤 이가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칠(灰漆)하는 것으로 비유하셨다.
- (2) 이 비유는 5절에 언급된 내용과 연관되는 것으로 그들은 성벽에 구멍이 뚫려도 그것을 막지 않았으며 누가 담을 쌓을 때에는 반죽도 제대로 하지 않고 회칠만 하였다.
- (3) 이것은 기초 없이 부실 공사를 하는 것과 같이 그 결함을 숨기기 위해 결만 회칠을 하여 속이는 행위를 가리킨다(마 7:24, 25).
- (4) 이같이 거짓 예언자들은 백성을 속이고 그들이 평안 가운데 있는 것으로 믿게 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종교나 정치 지도자들 중에는 외형이나 수치에 치중해 내용 없는 일들을 마치 하나님과 국민을 위한 일인 것처럼 선전을 한다. 그러나 얼마 후에는 그들의 잘못이 모두에게 밝혀질 것이다(12절).
- (5) 따라서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고 좋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그 일을 다지고 마무리짓는 것은 좋은 성과를 거두는 기초가 된다.

7. **㉠** 거짓 예언자들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11-16절)

- ㉠** (1)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어 그들이 회칠한 담을 폭풍으로 열파하고 폭우를 내리시며 큰 우박덩이로 꺾멸(毀滅)시켜서 담도 회칠한 자도 없게 만드실 것이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속여 허탄한 점괘를 따르게 한 거짓 예언자들에게 진노를 내리실 것이다.
- (3) 그런데 그 방법은 거짓 예언자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에게 폭풍우와 같이 쳐들어오는 바

벨론 군대를 보냄으로써 그들의 예언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이다(참조, 딤후 3:9).

- (4) 이처럼 권력의 힘과 술수로써 국민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고 국민을 탄압하는 압제자들도 그들의 때가 지나면 자신들이 행한 모든 불의가 세상에 드러나서 수치를 당케 될 것이다(시 37:38).

8. **㉠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을 향한 예언은 무엇인가? (17, 18 절)**

- ㉠** (1) 그것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方席)을 모든 팔뚝에 꿰어 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에 씌우는 부녀에게 화가 있으리라는 내용이다.
- (2) 여기서 팔뚝에 매는 방석은 마술하는 여자들이 신(神)의 지시를 받아 그것을 상대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두른 띠나 부적을 가리키며 수건은 마술자 자신이 머리에 쓰고 신의 지시를 받는 도구이다(참조, 마 23:5).
-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짓 여선지들은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요란한 옷치장과 많은 의식을 거행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라는 말에서 보듯이 어느 누구에게나 거짓 예언을 하였다.
- (4)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그들에게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21절).
- (5) 이 같은 미신은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발달하고 합리적인 사고가 지배적인 사회에서도 불안한 생활을 하는 자들을 유혹하여 행운을 점쳐 주고 악운을 피할 길을 가르쳐 주지만 그것은 허황된 꿈을 보는 행위로 문체의 핵심을 지적하여 주지는 못한다(욘 1:8).
- (6)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결코 불안이 엄습할 수 없기 때문에 위기와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안에 있기를 구해야 한다(참조, 시 28:7).

9. **㉠ 거짓 여선지자들이 백성을 미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9절)**

- ㉠** (1) 그들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 거짓말이나 귀가 솔깃해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을 죽이고 죽여야 할 자는 살려 두었다.
- (2) 이처럼 그들이 거짓을 말하는 이유는 단지 소량(少量)의 양식을 위해 백성을 속인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가치 없는 적은 양식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한 신성모독의 죄악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된 것으로 무시하는 죄를 범하였다.
- (3)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되기를 바라는 곳에서 그분의 이름을 더럽힘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가중시켰을 뿐 아니라 이미 멸망의 선고를 받은 영혼에게 생명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영혼을 오히려 죽이는 죄를 범하였다(22:25).
- (4) 왜냐하면 그들이 선포하는 예언은 신앙과 회개와는 동떨어진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 사단의 거짓 교훈을 멀리하고 참되고 진실된 삶을 좇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생명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마 13:23).

10. **㉠ 이스라엘 백성을 거짓 여선지자들에게서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행위를 설명하라 (20, 21절).**

- ㉠** (1) 하나님께서는 거짓 여선지자들이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그들의 방식을 떼어 내시고 수건을 찢어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을 구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그들의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 (2) 이것은 거짓 여선지자들의 사기와 술수를 세상에 드러내서 그들이 조롱을 받고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치 못하게 하실 것을 의미한다(8절).
- (3)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과 불안한 시대에 의지할 것을 찾으려고 인간이 만든 종교나 철학에 심취하나 그것들은 오히려 인간 스스로를 얽어매는 울무가 된다. 따라서 진정한 자

유를 얻으려면 인간이 만들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참조, 요 8:32).

11. ㉠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인가? (22, 23절)

- ㉠ (1) 그 징계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허탄한 묵시와 점복(占卜)을 못 하게 하는 것이다.
 (2) 이처럼 그들은 모든 사람을 무차별 위협했으며 그로 인해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도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의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확신을 상실케 하였다(참조, 롬 16:18).
 (3)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살아 제서서 역사하심을 보이시기 위해 그들의 거짓이 세상에 드러나게 함으로써 다시는 거짓 예언을 못 하게 하시며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신다(사 44:25).
 (4) 오늘날의 거짓 종교들도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악의 유혹을 분간치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우리들은 진정한 종교가 보이는 사랑과 선(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알게 하여야 한다(요삼 1:3, 4).

연구자료

환상(幻像). 환상 또는 이상(異像)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한 방법으로서 정상적인 시각이 아닌 다른 방편에 의해 인간으로 하여금 어떠한 광경을 목격케 하는 것을 가리킨다(참조, 1:1-25). 이러한 환상은 주로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것이기는 하지만(8:4; 11:24; 사 1:1; 단 8:1; 9:23) 아브라함(창 15:1)이나 야곱(창 28:10-16) 그리고 신약 시대의 사도들(행 10:9-16; 고후 12:1-4; 계 1:9-20)에게도 주어졌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에는 이와 같은 환상(vision)을 가리키는 다양한 용어들이 나온다. 우선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로서 대표적인 것을 들 것 같으면 <하존>과 <로에>, <마르에>가 있다. <하존>은 '꿈', '이상', '환상', '계시', '신탁'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말로서 7:26; 삼상 3:1; 대상 17:15 등에 나온다. 그리고 <로에>는 사 28:7에 나오는데 선지자가 보는 이상을 의미한다. <마르에>는 '광경', '출현', '모양', '이상'이란 의미로서 8:4; 11:24; 단 8:16; 9:23 등에 나와 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에도 '초자연적 광경'을 의미하는 <호라마>, '환영', '이상'을 뜻하는 <움타시아> 그리고 '모습'을 의미하는 <호라시스>와 같은 단어가 있다. 이 가운데 <호라마>는 주로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며(행 9:10; 11:5; 16:9; 26:19), <움타시아>는 눅 1:22; 24:23; 고후 12:1 등에 나온다. 반면 <호라시스>는 행 2:17; 계 9:17에서만 찾아 볼 수 있다. 이상(以上)과 같은 다양한 용어로 표현된 환상의 주된 의미는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을 구속(救贖)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데 있다.

제 14 장 우상을 섬기는 위선자들을 향한 책망과 죄에 대한 심판이 경고되다

단락구분 1-5 우상을 따르는 장로들이 책임받다 / 6-11 회개치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경고되다 / 12-20 의인이 간구한다 할지라도 심판은 변경될 수 없다 / 21-23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이 약속되다

1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2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3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라

4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와 그 우상의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5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6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이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7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중에 무릇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8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9 만일 선지자가 유희를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희를 받게 하였음이여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10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11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와 말씀이 나 하셨다 하라

12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13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14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5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케 하며 황무케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16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7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칼아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18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9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20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21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가 지중 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22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로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됨 받을 것이라

23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에 그들로 인하여 위로됨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 **㉠ 본장의 중요 내용을 요약하라.**

- ㉠** (1) 본장에는 우상을 섬기는 장로들이 책망을 받는 내용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회개에 대한 권면이 기록되어 있으며, 비록 의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간구한다 할지라도 심판이 변경될 수 없음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도 언급되어 있다.
- (2) 이는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되는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에게 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직도 우상을 따르는 것을 책망 하시면서 이같이 어느 누구도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용서치 않으리라고 하신 내용이다.
- (3)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나 다니엘 그리고 욥과 같은 의인의 간구로도 변경될 수 없음이 강조되어 있으며 환난 후에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
- (4) 따라서 본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그분이 내리신 결정은 어느 누구도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것과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다(시 47:2; 습 3:17).

2. **㉠ 에스겔 선지자 앞에 나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어떤 자들인가? (1-3절)**

- ㉠** (1) 그들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의 신탁(神託)을 듣기 위해 선지자 앞에 나왔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우상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응답치 않으시며 책망하신다.
- (2) 그런데 그들은 8:1에 나오는 '유다 장로들'처럼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다. 여기서 선지자가 그들을 '이스라엘 장로'라고 언급한 것은 원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장로를 구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지도자들임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20:16).
- (3) 한편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여 선지자의 앞에 나왔으나 그들은 우상을 믿는 자들로서 단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20:3).
- (4) 또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분열된 두 마음을 갖게 하여 그들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이 있음을 보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참조, 약 1:8).
- (5)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실 자리에 다른 것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면 그분을 우리의 중심에 모셔야 한다(참조, 잠 3:6).

3. **㉠ 마음에 우상을 품고 하나님께 나온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무엇인가? (4, 5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우상이 많은 대로 응답하실 것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족속이 모두 그 우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시는 것이다.
- (2)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상태대로 판단하시겠다는 것이다. 즉 그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 계속 허무한 상태를 가리킨다(사 45:20).
- (3) 또한 이스라엘 족속의 마음을 잡으시겠다는 표현은 그들의 마음의 형편대로 벌하시겠다는 일종의 위협이다(살후 2:11, 12).
- (4) 이처럼 우상을 따르는 행위는 무지한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그러한 자들은 자신의 지각을 잃어버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지혜롭게 살려고 한다면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참조, 빌 4:7).

4. ㉠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6-8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과 그들 중에 거하는 외인(外人)에게 명하시기를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만일 마음에 우상을 가진 채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으면 그들을 놀라움과 감계(鑑戒)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 (2)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 마음속의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이다. 그 다음 그들은 가장한 것들에서 자신들의 얼굴을 돌이켜 완전히 떠나야 한다.
- (3) 그런데 이 같은 명령은 이스라엘 족속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적용된다. 왜냐하면 그들도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을 준수하기로 약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다(참조, 민 15:15, 16).
- (4) 그러나 우상을 가슴에 지닌 채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형벌을 내리셔서 그 주위 사람들이 그들에게 닦친 환난을 보고 그 사실을 놀람과 속담거리와 거울로 삼도록 하실 것이다(신 28:37).
-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든 이들에게 소문거리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실 것이다.
- (6)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따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세상을 따른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멀어졌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간구해야 한다(참조, 요 16:33).

5. ㉠ 유혹을 받은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무엇인가? (9, 10절)

- ㉠ (1)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혹을 받게 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 버릴 것이며 그러한 선지자에게 묻는 자에게도 벌을 내리실 것이다.
- (2) 이것은 사람들이 진리보다 거짓을 더 좋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말하게 하고 그 말을 들으려는 자들도 유혹에 빠지게 하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유혹은 불신앙과 범죄에 빠진 자들에 대한 공의로운 형벌이기 때문이다(참조, 살후 2:11).
- (3) 또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물으려 오는 자들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의 가르침을 따랐다면 마땅히 거짓 예언을 들으려 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같은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참조, 마 15:14).
- (4)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교회를 비판만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떠나 계속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참조, 롬 1:18).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도 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신다(참조, 눅 13:2, 3).

6. ㉠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자와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벌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11절)

- ㉠ (1) 그것은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迷惑)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 하기 때문이다.
- (2) 이것은 완악한 이스라엘 족속을 치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으로, 그분께서는 이 같은 징계로써 자신의 백성을 교훈하시고 신앙의 길로 이끄시는 것이다(37:23).
- (3) 여기서 우리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긍휼로써 자신의 백성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많은 죄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11:20).

7. ㉠ 범죄한 나라에 의인들이 있을 경우 그 나라의 운명은 어떠한 것인가? (12-14절)

- ㉠ (1) 비록 그 나라에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의인이 있을지라도 그 나라는 기근으로 인해

사람과 짐승이 멸절되며 그 세 명의 의인만 자신들의 의(義)로 생명을 건지게 될 것이다.

- (2)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가 죄로 가득 찼을 때 심판의 한 방편으로 기근을 보내신다. 왜냐하면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빼앗으므로 이 세상에서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시려고 하시기 때문이다(5:13).
- (3) 또한 그 나라가 저지른 의도적인 범죄로 인해 받을 형벌은 노아나 다니엘 그리고 욥과 같은 의인이 있을지라도 면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형벌은 어느 누구도 변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4) 특히 본절은 렘 15:1, 2과 유사한 사상을 보인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모세와 사무엘이 그 같은 형벌에서 백성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한다(참조, 출 32:11, 12; 삼상 7:9; 12:23).
- (5) 이같이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에 놓여 있으므로 오직 자신의 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참조, 18:10-13). 그러나 비록 우리가 우리의 의로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스스로 이룬 의가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참조, 요일 2:27).

8. **㉠ 세 가지 가장적 재앙이 말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15-20절)**

- ㉠** (1) 가령 하나님께서 사나운 짐승과 칼 그리고 온역(瘟疫)의 재앙을 내리실 때 비록 그 가운데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 그 땅은 황무하게 되며 그 세 사람은 그들의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 것이다.
- (2)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한 땅에 대해 짐승과 전쟁 그리고 전염병에 의한 재앙이 임하는 것으로 그 가운데 아무리 경건한 자들이 있다 해도 민족적인 죄악에 대해 하나님이 정하신 형벌에서 그들은 아무도 구할 수 없다(18:10-13).
- (3)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만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그 재앙에서 구원받았다면 고난 중에 있는 타인의 고통을 염려해야 한다(참조, 엡 5:2).

9. **㉠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예루살렘의 재앙에서 살아 남은 자들의 행동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21-23절)**

- ㉠** (1)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살아 남은 자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무고(無故)히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다.
- (2) 여기서 ‘살아 남은 자’는 이사야가 말하는 ‘남은 자’, 즉 포로 생활을 통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과는 달리 그 재앙에서 피하여 목숨을 건진 자들로서 바벨론에 먼저 포로로 잡혀온 동족과 같이 포로 신세가 된 자들을 가리킨다(참조, 사 10:20-22).
- (3) 한편 지금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출신 포로들은 예루살렘에 남은 동족의 죄악을 알았을 때 그들 모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6:10).
- (4) 이 같은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징계하신다는 것과 그 심판이 죄인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신 32:4).

본장의 요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14절).

제 15 장 예루살렘이 쓸모없는 포도나무처럼 버려질 것이다

단락구분 1-5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버려지는 것은 당연하다 / **6-8** 예루살렘이 포도나무처럼 버려질 것이다

- 1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 2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삼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 3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 4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 5 그것이 온전한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 6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수풀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 7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 8 내가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 하시니라

1. **㉠** 본장에 언급된 상징은 무엇을 말하는가?

- ㉠** (1) 본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이 그들 자신의 우수성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에 의한 것이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쓸모없는 포도나무와 같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다.
- (2)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거민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여 쓸모없는 포도나무는 불에 던져 화목이 되게 하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 진노의 형벌을 받아야 함을 말씀하셨다.
- (3) 결국 본장은 우리도 자신에게 닥치는 심한 환난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음을 알 때는 자신의 정당함과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게 됨을 가르쳐 준다(참조, 롬 3:10).

2. **㉠**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어떻게 평하셨는가? (1-5절)

- ㉠** (1)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 가지는 다른 나무와 비교하여 재목으로도 사용할 수가 없으며 심지어는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도 없다고 하셨다. 그것은 단지 땀감으로 쓰일 뿐이며 더우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는 아무 쓸모가 없음을 말씀하셨다.
- (2) 포도나무가 유실수(有實樹)로서는 다른 나무보다 훨씬 가치가 있으나 일단 땅에서 뽑혀 나오면 화목으로밖에는 쓸모가 없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가치와 우월성이 단지 하나님의 은총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 준다(시 80:8; 렘 2:21).
- (3) 따라서 이 같은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월감으로 자신들은 멸망당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경멸하는 것이다(참조, 사 22:23, 24).
- (4)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생각하여 자신의 뜻대로만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요 15:6).

3. **㉠** 예루살렘 거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6-8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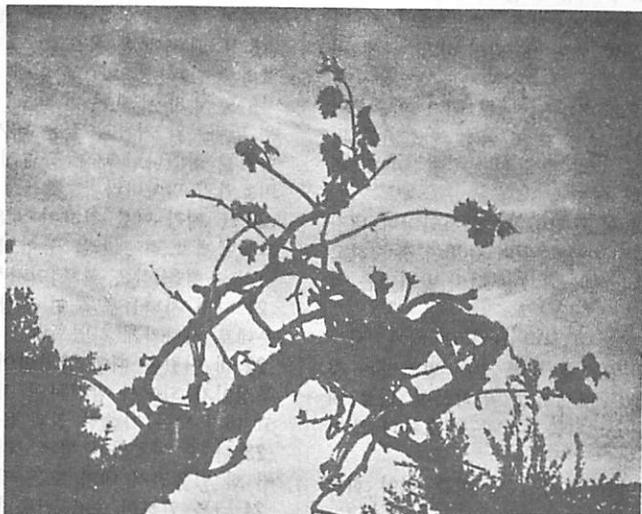
- ㉠** (1)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므로 포도나무가 화목이 되듯이 그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며 그

재앙 가운데서 나오는 자도 불이 그들을 사르게 될 것이다.

- (2)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교만한 우월감을 꺾으시고 그들을 깨우치시려고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역을 황폐화시켰다. 그리고 이제 남은 예루살렘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분의 징계를 받게 된 것이다(4절).
- (3) 특히 '불'로 표현된 이 재앙은 기근과 칼 그리고 온역과 사나운 짐승의 습격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 가지 재앙에서 살아 남은 자가 있더라도 또 다른 재앙이 그들을 기다려 반드시 파멸에 이르도록 한다(14:13, 15, 17, 19).
- (4) 그런데 그들은 이 같은 형벌을 받은 후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이유이다(6:14).
- (5)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교만에 빠지기 쉬우므로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여 인간적인 자만으로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사 57:15).

화보자료

싹을 피우고 있는 포도나무. 겨울이 지나자 새로이 싹을 피우고 있는 이 포도나무는 농부로 하여금 풍성한 수확을 기대토록 하기에 충분하다.



포도나무는 육적(肉的) 이스라엘 뿐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자손을 상징하는 단어이다(참조, 6절; 요 15:1-8). 그러나 비록 포도나무라 할 지라도 그 가지에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 이는 그 효용성을 잃은 나무이다. 그러므로 농부는 그 나무를 찍어 버리고 다른 열매를 심을 것이다(참조, 눅 13:6-9). 따라서 우리들은 이 같은 교훈을 깊이 명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힘쓰자.

제 16 장 예루살렘이 음란한 여인에 비유되다

단락구분 1-5 예루살렘 본래의 모습은 고아였다 / 6-14 예루살렘에 배부신 하나님의 은총 / 15-22 예루살렘이 음행을 저지르다 / 23-29 부끄러움을 모르는 예루살렘의 음행 / 30-34 창기와는 다른 음행 / 35-43 음행하던 예루살렘에 형벌이 가해지다 / 44-52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더 심한 죄로 인한 심판 / 53-59 심판은 예루살렘의 죄로 인해 임하다 / 60-63 회개한 이스라엘에 긍휼이 약속되다

1 여호와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장한 일을 알게 하여
3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4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낳 때에 네 배 품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5 너를 돌아보아 이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꺼린 바 되어 네가 들에 버려졌었느니라
6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7 내가 너로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답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8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9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네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10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뉘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베로 띠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11 패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드리우고
12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13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베로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용

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14 네 화려함을 인하여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15 그러나 내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하므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16 내가 네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 후무하니라
17 내가 또 나의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18 또 네 수놓은 옷으로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으로 그 앞에 베풀며
19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20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러 제물을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너의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21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붙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22 네 어렸을 때에 벌거벗어 적신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장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23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24 너를 위하여 누를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25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머리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하고
26 하체가 큰 네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행음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네 노를 격동하였도다
27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네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네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붙여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28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앓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오히려 부족히 여겨

29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오히려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30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부의 행위라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31 내가 누를 모든 길머리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않도다

32 그 지아비 대신에 외인과 사롱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33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네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34 너의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35 그러므로 너 음부야 여호와와 말을 들을지어다

36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정든 자와 행음하므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네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37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오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네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38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국문함 같이 너를 국문하여 진노의 피와 투기의 피를 네게 돌리고

39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네 누를 힐며 네 높은 대를 꺾파하며 네 의복을 벗기고 네 장식품을 빼앗고 네 몸을 벌거벗겨 버려 두며

40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41 불로 너의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로 곧 행음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42 그리한즉 내가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투기가 네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43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격노케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네 머리를 보용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

44 무릇 속담하는 자가 네게 대하여 속담하기를 어미가 어찌하면 딸도 그렇다 하리라

45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미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네 어미는 헛 사람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46 네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네 좌편에 거하는 사마리아요 네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네 우편에 거하는 소돔이라

47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치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치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네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48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우 소돔 곧 그와 그 딸들은 너와 네 딸들의 행위같이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49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 주지 아니하며

50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51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범치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한고로 너의 가증한 행위로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52 내가 네 형과 아우를 논단하였은즉 너도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하므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53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돌이켜서

54 너로 네 수욕을 담당하고 너의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됴이라

55 네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그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네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56 내가 교만하던 때에 네 아우 소돔을 네 임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57 곧 네 악이 드러나기 전에며 아람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에며 너의 사방에 들러 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에니라

58 네 음란과 네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59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

로 내게 행하리라

60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61 내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62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뉘어 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63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와 함께 하라

1. **㉠** 본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음란한 여인으로 비유되어 있으며 그들의 음행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어 있다.
- (2) 앞 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이유를 명백히 하신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음녀로 비유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 배반한 결과 버림을 받게 된다.
- (3) 이와 같이 죄인을 용서하여 죄의 삯을 면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그 저지른 죄를 깨우쳐 주고 다시는 그 길에 빠지지 않게 이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긍휼이라고 할 수 있다(3:18;33:9;사 58:1).

2. **㉠** 가증(可憎)스런 예루살렘의 근본(根本)과 난 땅은 어디인가? (1-3절)

- ㉠** (1)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근본과 난 땅을 가나안이라 하셨으며 예루살렘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그들의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하셨다.
- (2)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 심한 책망을 하시면서 그들이 본래는 거룩한 민족이 아니라 가나안의 족속 곧 아모리족과 헷 족속과 같이 가증스런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라고 말씀하신다.
- (3) 이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이유가 자격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실 필요가 있었다(5절).
- (4) 이처럼 자신들이 흥하고 잘될 때는 그 이유가 전적으로 자신들의 능력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며, 고통과 환난 중에 있을 때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다(대하 26:16).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언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다(참조, 시 103:13, 14, 17).

3. **㉠** 가나안 땅과 아모리 사람 그리고 헷 사람은 종교적 도덕적으로 어떠한가? (3절)

- ㉠** (1)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을 포함하는 가나안 족속(창 10:15-19)은 바알과 같은 포악한 신(神)을 주로 섬기는 족속으로 그 외에도 다른 여러 음란한 신을 섬겼다.
- (2) 특히 그들은 <크데심>이란 명칭을 가진 종교상의 창녀를 두고 있었으며(참조, 신23:17, 18) '물렉'이라는 신(神)에게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다(참조, 신 12:31).
- (3) 이처럼 그들의 종교는 성적(性的)으로 타락한 요소를 갖고 있었으며 인륜(人倫)의 파괴를 가져오는 퇴폐적인 성향을 지녔다. 이러한 종교는 그들의 문화의 도덕성에 영향을 미쳐 그들을 육적(肉的)으로나 영적(靈的)으로 타락한 종족으로 만들었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의 종교나 문화는 단지 인간의 본능을 충족시키는 도구에 불과하여 오히려 그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참조, 신 7:26; 왕하 23:10).

4. **㉠** 예루살렘 출생 때의 상태는 어떠한가? (4, 5절)

- ㉠** (1) 그들이 낳을 때 아무도 그들의 배꼽줄을 자르지 않았으며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않았고 소금을 뿌리지 않았으며 강보로 싸지도 않았다. 누구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 돌보는 자

가 없어 마치 들에 버리운 자와 같았다.

- (2) 여기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데 본질의 내용은 그들이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될 때 애굽 땅에서 매우 비참한 상황에 처해있었음을 비유한 것이다(출 1:16, 22).
- (3) 특히 그들은 출생했을 때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해 버리운 갓난아기와 같았다. 한편 '정결케'라는 말은 부드럽게 하거나 새 힘을 얻게 하는 것을 말하며(Calvin), 갓난아기를 소금으로 문질러 닦는 행위는 피부를 강하게 하는 위생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데 지금도 근동 지방에서 행하는 관습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인생은 들에 버리운 외로운 자와 같이 험한 세상에서 많은 사람의 멸시와 이용의 대상이 될 뿐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창 43:32; 출 2:23).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할 때는 하나님의 보호와 자식으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참조, 고후 6:18).

5. **㉠** 갓 태어나 버리운 자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하셨는가? (6절)

- ㉠** (1) 하나님께서는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이스라엘을 보시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말씀하셨다.
- (2)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 밑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긍휼이 여기신 것으로, 여기서 '발짓하는'이란 말이 KJV에서는 '더럽혀진'(polluted)으로 번역되어 있으며 RSV에서는 '딩구는'(weltering)으로 번역되어 있다.
- (3) 즉 이스라엘은 갓 태어났는데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 핏덩이 그대로의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살라'는 명령으로 그들을 애굽의 고통스런 생활에서 구원하셨다(출 3:7, 8).
- (4) 이처럼 인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스스로를 구원하기 힘들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가르치시며 희망을 갖고 살게 하신다.
- (5) 따라서 우리가 이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참조, 히 11:6).

6. **㉠**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묘사되었는가? (7절)

- ㉠** (1) 그들은 들의 풀같이 많이 되었으며 커가면서 유방이 뚜렷하고 머리털이 자랐으며 매우 아름답게 되었으나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赤身)이었다.
- (2) 이것은 70명의 소집단으로 애굽에 들어간(창 46:26) 이스라엘이 430년 후(출 12:40, 41) 약 200만 명(참조, 민 1:46, 47)으로 늘어나 한 국가를 형성할 만큼 성장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출 5:19).
- (3) 또한 '심히 아름다우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장식품 중의 장식품'이란 뜻인데 이것은 한 여인이 시집을 갈 만큼 신체적으로도 성장하여 조화를 이룬 상태를 말한다(출 5:19).
- (4) 따라서 이 같은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던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크고 조화를 이룬 민족으로 만들어 주심을 뜻한다. 그러나 '네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여전히 약소 민족으로 애굽의 박해를 받는 처지였다(출 1:13, 14).
- (5)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모두 가진 것이 없어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욥 1:21).

7. **㉠** 이스라엘의 사랑스런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8절)

- ㉠** (1)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옷으로 이스라엘을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그들에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그분에게 속하게 하셨다.
- (2)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성장하여 하나님과 결혼할 만큼

되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맞이하려 하셨다

- (3) 즉 하나님께서는 수치와 모욕 가운데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속(救贖)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보호하셔서 자신과 연합시키려 하셨다.
- (4) 한편 본질에서 묘사된 이스라엘의 구속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뜻 3:9)과 언약(출 24:6, 7)에 비유되어 있으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신 4:7).
- (5)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갈 6:14).

8. **㉠**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9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씻어서 그들의 피를 없이 하고 기름을 바르셨다.
- (2) 여기서 물로 씻고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유대인의 결혼을 위한 풍습의 일부로서(뜻 3:3) 이스라엘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9.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장식하셨는가? (10-13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수놓은 옷을 입히시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셨으며 가는 베로 띠우고 각종 고리와 사슬로 치장한 후 화려한 면류관(冕旒冠)을 머리에 씌우셨다.
- (2) 즉 화려한 옷과 장식 그리고 고급 음식은(13절) 왕후에게 합당한 대우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부 이스라엘에게 신령한 은혜와 율법을 주신 사실을 의미한다(참조, 벧전 3:3, 4).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자신의 신부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신다.

10. **㉠** 이스라엘의 명성이 이방에 퍼진 이유는 무엇인가? (14절)

- ㉠** (1) 그것은 하나님께서 입히신 영화로 이스라엘의 화려함이 온전하였기 때문이다.
- (2)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그같이 훌륭한 은혜를 계속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화려함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참조, 왕상 10:1).
- (3) 그러나 그들의 화려함은 자신들의 덕행이나 능력 그리고 민족에 비하여 탁월한 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에서 기인(基因)한 것이다(참조, 신 2:7).
- (4)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우리의 공로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롬 3:23, 24; 엡 5:2).

11. **㉠** 화려했던 이스라엘이 행한 죄악은 무엇인가? (15절)

- ㉠** (1) 이스라엘은 자신의 화려함을 보고 또한 명성을 인하여 행음(行淫)하되 지나가는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한 결과 그들의 몸이 지나는 자들의 것이 되었다.
- (2)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인한 번영으로 교만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와 교류하는 가운데 이방의 종교를 받아들였다.
- (3) 즉 이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풍족으로 세상의 모든 쾌락을 찾아다니면서 미신과 우상을 섬겼다. 또한 '지나가는 자면'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세상의 모든 종교나 유희를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 (4) 이처럼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늘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교만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12. **㉠** 이스라엘의 가장스런 우상 숭배는 어떤 모습을 나타냈는가? (16-19절)

- ㉠ (1) 그들은 자신들의 옷감으로 산당을 장식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금으로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했을 뿐 아니라 수놓은 옷을 우상에게 입히고 그 앞에 좋은 음식과 향을 바쳤다.
- (2)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섬기던 산당은 페르시아 용단과 같은 화려한 천으로 장식되었으며(왕하 23:7), ‘남자 우상’은 ‘드라빔’이나 ‘페네이티즈’(penates) 같은 가정 수호신을 말한다(참조, 사 18:14; 삼상 19:13).
- (3) 한편 그들은 하나님 예배에 바쳐야 할 예물을 오히려 우상에게 들렸는데 그들이 우상에게 바친 ‘기름’은(18절) 거룩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구별된 기름이었다(출 30:23, 25).
- (4)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신량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한 여인처럼 이방의 우상을 섬겼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의 의식은 성적(性的)으로 음란한 모습을 보였다.
- (5)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경우 큰 욕망과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겸손을 가짐으로써 세상의 많은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13. ㉠ 타락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서 그들이 제물로 바친 것은 무엇인가? (20-22절)

- ㉠ (1)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낳은 자녀를 이방 신(神)에게 제물로 바쳐 불사르거나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다.
- (2) 이처럼 이스라엘은 자신이 별거벗은 채로 버리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사실을 잊어버리고 타락한 상태에 있었는데 특히 그들의 우상 숭배의 절정은 유다 왕조가 계속되는 동안 지속된 몰렉에 대한 숭배였다(왕하 16:3; 사 57:5; 렘 7:32).
- (3) 이 몰렉(Molech)은 암몬 사람들의 국가 신(神)으로 ‘밀곰’(왕상 11:5) 혹은 ‘몰룩’으로 불리어졌는데 모세 율법(레 18:21; 20:2-5)에는 이 몰렉 숭배가 단호하게 금지되어 있다.
- (4) 한편 몰렉 숭배의 으뜸가는 장소로는 ‘힌놈의 골짜기’에 있는 도벳(Topheth)이었으며 그곳에서 바쳐진 인신 제물(人身祭物)은 죽인 후 번제로 드려졌는데, ‘아이를 불 속으로 나게 하는’ 또 다른 의식은 그 아이를 불로 정화(淨化)하는 의미로서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 (5) 그러나 이같이 자신의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행위는 그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主權)을 무시한 행위이다. 왜냐하면 그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약(救援契約)에 참여할 자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체로서 다만 하나님께서 양육을 부모에게 맡기신 것임을 알아야 한다.

14. ㉠ 이스라엘이 저주받을 이유는 무엇인가? (23-25절)

- ㉠ (1) 그들은 여러 우상을 섬긴 후에도 누(樓)를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臺)를 쌓아 지나가는 자들과 행음을 했기 때문이다.
- (2) 이것은 바벨론의 미리타(Mylita) 예배나 고린도 지방의 아프로디테(Aphrodite) 예배에서 보는 것처럼 길거리의 높은 곳에 작은 방을 꾸며 놓고 행하는 종교적 매춘(賣春)을 비유한 것으로 이 종교적 창기들은 받은 보수의 일부를 자신의 신(神)에게 바쳤다.
- (3) 이처럼 길거리의 창기로 비유된 이스라엘은 한 가지 우상에만 빠진 것이 아니라 마치 지나가는 남자들을 유혹하는 창기들과 같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여러 우상을 섬겼다.

15. ㉠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음행은 무엇인가? (26-29절)

- ㉠ (1) 그들은 여러 우상을 섬기는 데 만족하지 않고 하체가 큰 애굽 사람과도 행음을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감함과 동시에 블레셋 여자의 손에 붙였으나 음욕이 차지 않아 그들은 앗수르와 갈대아 사람들과도 행음을 하였다.

- (2) 여기서 ‘하체가 크다’는 것은 육체가 강한, 즉 정욕이 세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같이 이스라엘이 이방의 강국과 행음을 하는 행위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보다는 그들과 정치적, 경제적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사 23:17; 나 3:4).
- (3)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보호 아래에 있기를 바라셨다. 그들은 외부에서 어떤 위협이 닥치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이방과 조약을 맺기에 바빴다(왕하 16:7-9).
- (4)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징계로서 기근을 보내셨으며(참조, 호 2:9, 10) 사무엘 시대부터 아하스 왕 때까지는 블레셋 군대를 보내셔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대하 28:18; 사 9:12; 14:29). 하지만 그들은 계속 이방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죄를 더하였다.
- (5) 특히 그들은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B.C. 744-727)과 정치적 동맹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왕하 16:7)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갈대아와도 관계를 맺었다(왕하 20: 12-19; 대하 32:31).
- (6) 이처럼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킨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에서 제외될 것이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될 것이다.

16. **㉠** 음란한 이스라엘이 다른 창기와 비교해서 다른 점은 무엇인가? (30-34절)

- ㉠** (1) 다른 창기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서 보수와 선물을 받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찾아오는 자들에게 선물과 값을 주고 음행을 하였다.
- (2) 이들의 마음은 대단히 교만하여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계속했으며(27절), 또한 자신들의 이 같은 욕망과 교만을 제어할 힘도 없었다(30절).
- (3) 특히 두로와 시돈은 외국과의 교역을 통해 많은 번영을 누리고 명성이 높아졌으나 이스라엘은 오히려 외국과의 관계에서 복종과 조공을 바치는 입장이었다(왕하 16:18; 사 30:6; 호 12:1).
- (4)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결코 교만하지 않으며 욕망을 억제하지 못해 괴로워하지도 않을 것이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것이다. 왜냐하면 음행이 곧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며 자신의 삶을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벧후 2:14).

17. **㉠** 음행하던 이스라엘이 받을 심판은 무엇인가? (35-37절)

- ㉠** (1) 이스라엘이 자신의 누추(陋醜)한 것을 쏟으며 음행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고 자녀의 피를 우상에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랑하던 자와 정든 자 그리고 미워하던 모든 자를 사방에서 모아 그들을 대적케 하며 벗은 몸을 보이실 것이다.
- (2) 여기서 ‘누추한 것’이란 문자적으로는 ‘놋쇠’(brass)를 가리키는데 이 놋쇠는 화폐 대용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누추한 것을 쏟으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재산을 우상에게 바친 사실을 가리킨다.
- (3) 또한 그들은 열방과 동맹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열방에게 조공을 바치는 수치를 당했으며 우상에게 자녀를 바치는 잔악한 일을 서슴지 않았다(대하 28:3).
- (4) 이스라엘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들고 사랑하던 자 곧 애굽, 바벨론, 앗수르나 그들이 미워하던 자 곧 암몬과 모압(신 23:3-6)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침략케 하실 것이다.

18. **㉠** ‘피를 흘리는 여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38절)

- ㉠** (1) 이것은 이스라엘이 피를 흘리는 죄를 범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들의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바침으로 피를 흘린 사실을 지적한다.
- (2) 그런데 그들 사회에서는 살인과 강탈 그리고 온갖 고문이 자행되고 있었으며, 재판관들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불법 재판도 서슴지 않았다(렘 2:34).
- (3)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합당한 형벌로서 열방의 군대를 불러들여서 그들을 죽이실 것이다(37절).

19. ㉠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무엇인가? (39-41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의 산당을 파괴하고 그들에게 주신의 복과 장식품을 빼앗으시며 그들을 들로 치고 칼로 찌르며 집에 불을 놓아 사르셔서 징계하실 것이다.
- (2) 특히 들로 치는 형벌은 율법을 어기거나 부정한 자에게 가하는 형벌이었으며(민15:36) 주로 회중이나 성읍 사람들이 가했다(레 20:2).
- (3) 또한 불로 집을 사르는 예언은 유다 왕 시드기야(B.C. 597-586) 때 성전과 왕궁 및 예루살렘의 많은 집들이 불에 탄 사실을 가리킨다(왕하 25:9; 렘 52:13).
- (4) 이스라엘에 대한 이 같은 형벌의 목적은 그들이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방의 중의 신세가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41절).
-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잘못을 징계함과 동시에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교훈하시기 위해서이다.

20. ㉠ 형벌을 내리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가? (42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와 투기를 그치시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않으실 것이다.
- (2)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결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멸시하던 이스라엘 앞에서 영광을 다시 찾으셨기 때문이다.
- (3) 또한 심판에서 살아 남은 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함으로써 그분을 높이는 것이다.

21. ㉠ '어미가 어떠한 딸도 그렇다' 라는 속담의 의미는 무엇인가? (44절)

- ㉠ (1) 이 속담은 부전 자전(父傳子傳)과 같은 의미로서 행실이 부정한 어미의 딸은 역시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 (2) 즉 이스라엘은 도덕적·영적 어미가 되는 헷 사람의 영향을 받아 우상을 숭배하는 음행을 저질렀다는 뜻이다(3절).

22. ㉠ 이스라엘의 도덕적 가계(家系)를 설명하라(45, 46절).

- ㉠ (1) 이스라엘은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미의 딸이며 역시 그러한 형의 동생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어미는 헷 사람이며, 형은 사마리아, 동생은 소돔이다.
- (2) 그들의 영적 부모가 되는 아모리와 헷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며, 예루살렘보다 영토가 크고 넓어서 형으로 불린 사마리아나 작기 때문에 동생으로 불린 소돔도 음행으로 인하여 망했다(왕하 17:4, 7, 8; 렘 49:18).
- (3) 이와 같이 한 개인이나 국가가 주변 사람들이나 국가들로부터 받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이나 인접 국가로부터 좋은 점은 배우되 나쁜 점은 본받지 말아야 하겠다.

23. ㉠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치 아니하며' 란 어떤 의미인가? (47절)

- ㉠ (1) 이것은 이스라엘(예루살렘)이 아모리 족속이나 헷 족속 그리고 사마리아나 소돔보다 더 부패했다는 의미이다.
- (2) 예루살렘은 자신들에게 여호와의 성전과 법궤가 있었으며 다윗 가문(家門)의 대(代)를 잇는 특권과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했었다.
- (3) 즉 그들은 이방인들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부패했었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불신자들에 비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

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신자들보다 더 올바르게 살아야 함은 당연하다(참조, 마 5:13-16; 롬 11:21; 뱀전 2:12).

24. **㉠** 소돔은 어떤 죄를 범하였는가? (49, 50절)

- ㉠** (1) 그들은 식량이 풍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 주지 않았고 오히려 교만하고 게을렀다(창 13:10).
- (2) 이와 같이 본절에서 소돔의 죄악이 언급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가 소돔의 죄보다 더 무거웠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였다.
- (3) 그런데 소돔은 풍부한 식량으로 온갖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풍요를 자랑하여 교만에 빠졌다(창 18:20, 21).
- (4)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형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만과 방종은 기어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보복을 받았다(창 19:24).
- (5) 이처럼 교만은 우리를 끝없는 죄의 구덩이로 몰아가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겸손과 절제의 훈련을 쌓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견디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잠 11:2; 16:18; 21:4; 뱀전 5:5).

25. **㉠** 남왕국 유다의 죄는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가? (51, 52절)

- ㉠** (1) 그들의 가증한 죄는 오히려 사마리아와 소돔의 행위를 의롭게 하였다.
- (2) 즉 사마리아와 소돔도 악한 죄를 저질렀으나 유다에 비하면 의로운 편에 속하였다. 왜냐하면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통해 충분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 (3) 오히려 그들은 북왕국의 패망을 조롱하고 기뻐하였으며 자신들은 죄가 없는 의인인 것처럼 행동하였기 때문에 마침내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다.
- (4) 이와 같은 위선은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는 결코 타인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참조, 마 7:1-5; 롬 2:1-3).

26. **㉠** 유다(예루살렘)의 패망은 사마리아와 소돔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53-55절)

- ㉠** (1) 유다가 패망함으로써 사마리아와 소돔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 (2) 왜냐하면 자신들의 몰락을 기뻐하던 유다도 결국은 멸망하였기 때문이다.
- (3) 그러나 소돔의 회복은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예전에 멸망하여(창 19:24) 그 자손들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으며 그들의 회복에 대한 귀절도 본서에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 (4) 따라서 55절에 언급된 회복의 약속은 이방 세계까지도 포함하는 메시아의 구원으로 이해해야 한다(참조, 롬 11:32).
- (5) 그런데 본절(53, 55절)에서 사마리아와 소돔의 회복이 언급된 이유는 만일 그들이 회복된다면 유다도 회복될 수 있다는 역설로 이해하여 유다가 가지고 있던 안전에 대한 소망을 철저히 깨뜨리려는 데 있었다.

27. **㉠** 유다가 교만하던 때의 소행은 어떠한가? (56, 57절)

- ㉠** (1) 유다가 풍요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소돔의 교훈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았었다.
- (2) 즉 그들은 죄악에 빠져 하나님께서 역사(歷史) 속에서 공의의 심판을 실행하신 일을 이미 잊어버렸다.
- (3) 그런데 그때는 그들의 죄가 드러나서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서로 지적할 그 이전이었으며 아람(왕하 16:5-7; 사 7:1, 2)과 앗수르(왕하 18:17) 그리고 바벨론(왕하 25:10)의 침공이 있기 전이었다.

- (4)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역사의 교훈을 쉽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같은 잘못을 범하는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다. 그러므로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다.
28. **㉠** 이스라엘(유다)이 형과 아우를 접대(接待)할 때 이스라엘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61절)
- ㉠** (1)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의 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2)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그들에게 장차 도래할 그리스도 왕국의 장자(長子)의 역할을 맡기실 것이다(시 110:2; 사 2:3; 미 4:2).
 (3)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세상의 모든 민족(형과 아우)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4) 그런데 그들이 장자와 이방인들의 영적 어미의 직분을 갖게 된 것은 그들이 예전에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언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에 의해 된 것이다(렘 31:31-33; 요 10:16).
 (5)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은혜이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요 3:16; 롬 8:32).

화보자료

빵과 기름 병. 식탁 위에 놓여 있는 빵과 기름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상징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서는 일찌기 인간이 자신에게로부터 받은 풍성한 수확물의 일부를 감사 제물로 바치도록 명하셨다(레 23:9-24:9).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우상에게 갖다 바치기만 하였으니(19절)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행위로서 규탄받기 마땅하다.

제 17 장 배반한 예루살렘이 받을 형벌

단락구분 1-6 백향목 가지가 꺾이다 / 7-10 포도나무에 비유된 시드기야 / 11-16 시드기야의 죽음이 예언되다 / 17-21 배반에 대한 심판 / 22-24 다윗의 집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 1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 2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 3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술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 4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고
- 5 또 그 땅의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 6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짧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의 아래 있었더라
- 7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발하고 가지가 퍼졌도다
- 8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 9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실과를 따며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 10 볼지어다 그것이 심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 11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 12 너는 패역한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고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방백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 13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로 맹세케 하고 또 그 땅의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 14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어늘
- 15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하므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 16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의 거하는 곳 바벨론 중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 17 대적이 토성을 쌓으며 운계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르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 주지 못하리라
- 18 그가 이미 손을 내어 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 19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들리되
- 20 내 그물을 그 위에 베풀며 내 울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국문할지며
- 21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 22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놓고 빼어난 산에 심되
- 23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 24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1. **㉠** 본장의 중심 사상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벨론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리라는 경고가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로 예언되어 있다.
- (2)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유다를 벌하시기 위해 그들의 압제자로 바벨론을 세웠으나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에 도움을 청했다(렘 37:5, 7). 그러나 그 애굽도 범죄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막을 수는 없었다.
- (3) 한편 하나님께서는 다윗 가문(家門)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유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신다.
- (4) 그런데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 중 특별히 본장에서 강조된 것은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렀다는 점이다.

2. **㉠** 하나님께서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 (1) 마음이 강박하여 선지자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족속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였다.
- (2) 또한 직접적인 진술은 순간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반면에 오래 지속되기 힘들다. 그러나 비유를 통한 방법은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그 사람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백성을 깨우치신다.

3. **㉠** 날개가 크고 깃이 긴 '독수리'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3절)

- ㉠** (1) 대제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가리킨다(렘 46:26; 48:40; 49:22).
- (2) 그런데 이 독수리에 대한 묘사에서 '채색(彩色)이 구비하고'란 표현은 왕의 통치하에 있는 제국이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인다(단 3:4; 4:1).
- (3) 또한 날개가 크다는 것은 그 제국의 통치 범위가 넓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깃이 길고 털이 술하다는 것은 병력이 많음과 그 군대가 강함을 가리킨다.

4. **㉠**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柏香木) 높은 가지를 취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 4절)

- ㉠** (1)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유다 왕 여호야긴(B.C. 597)을 잡아간 사실을 가리킨다.
- (2) 여기서 레바논은 예루살렘에 비유되는데 그 이유는 성전과 왕궁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건축되었기 때문이다(왕상 6:9, 15, 16; 7:2).
- (3) 또한 '높은 곳에 있는 연한 가지'란 유다의 연약한 왕 여호야긴을 가리킨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나무 중의 왕과 같은 백향목으로 그리고 그중 제일 높은 가지로 비유된 이유는 유다인이 하나님의 선민(選民)이기 때문이다.

5. **㉠** '장사하는 땅과 상고(商賈)의 성읍'은 어디인가? (4절)

- ㉠** (1) 그곳은 바로 바벨론을 말하는데 '장사하는 땅'이 70인역(LXX)과 벌게이트(Vulgate) 역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번역되어 있다(16:29).
- (2)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팔레스틴 지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이 많은 곳, 즉 상업 도시를 의미한다(슌 1:11).
- (3) 그런데 본절은 유다 왕 여호야김(B.C. 608-597)의 아들 여호야킨이 3개월 동안 왕위에 있다가 느부갓네살에게 폐위되어(왕하 24:8-17; 렘 22:24-30)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실을 비유한 것이다.

6. **㉠** 큰 독수리는 그 땅의 종자를 어느 곳에 심었는가? (5절)

- ㉠** (1) 옥토(沃土)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다.

- (2) 여기서 ‘그 땅의 종자’는 시드기야를 가리키는데 그는 요시아(B.C. 640-609)의 세째 아들로써(대상 3:15) 여호야긴의 삼촌이었다.
- (3)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대신 갈대아 사람이 아닌 ‘그 땅의 종자’ 곧 유다 사람인 맛다니아를 왕위(王位)에 앉히고 이름도 시드기야, 즉 ‘여호와와 공의’로 바꾸었다(왕하 24:17).
- (4) 한편 그 종자가 심긴 땅이 옥토라 했는데 그 이유는 느부갓네살을 배경으로 하여 바벨론에 조공만 잘 바치면 그 왕위는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을 저버림으로써 불행을 자초했다(왕하 25:7).
- (5) 이처럼 잘못 중에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큰 불행을 막는 길이다(참조, 신 11:28; 28:15).

7. **㉠** 큰 봄 가에 심긴 그 땅의 종자는 어떤 모습으로 자랐는가? (6절)

- ㉠**(1)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의 아래에 있었다.
- (2) 이처럼 시드기야의 유다 왕국은 다행히도 바벨론에 의지하여 어느 정도 국가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었으나 바벨론의 속박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다.
- (3)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안정을 찾긴 했으나 이 같은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굴욕적이고 비참한가를 보여 준다(왕하 17:7-18).

8. **㉠**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베푸신 은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6절)

- ㉠**(1) 하나님께서는 배은 망덕(背恩忘德)한 유다를 참으시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연기하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
- (2) 또한 그들이 겸손해질까 하여 그들을 낮추심으로 그분 곁으로 돌아오길 바라셨다.
- (3)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가 악의 길에서 헤매일지라도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며 그들을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얻게 된다(눅 15:20, 22, 23).

9. **㉠**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또 다른 독수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7, 8절)

- ㉠**(1) 바로(Paraoh) 아프리카에나 호브라(렘 44:30) 통치하의 애굽을 가리키는데 채색이 구비되지 않은 점과 긴깃이 없는 점으로 보아 그렇게 강한 제국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3절).
- (2) 그러나 시드기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였으며 바벨론의 조공국(朝貢國)이 된 것을 못마땅히 여겨 애굽과 동맹 관계를 맺으려 하였다(왕하 24:20).
- (3) 한편 B.C. 588년 아프리카에스(Apries)는 애굽의 왕위에 오른 것을 계기로 시드기야에게 압력을 넣어 그로 하여금 바벨론에 대해 반란을 일으키고 애굽에 지원을 요청하게 했다(렘 27:1-22).

10. **㉠** 바벨론을 배반한 유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9, 10절)

- ㉠**(1) 바벨론은 자신에 대해 반역을 일으킨 유다를 철저히 짓밟을 것이다. 또한 유다가 이룩한 잠시 동안의 번영(연한 입사귀)마저도 바벨론의 작은 힘으로 능히 파괴시킬 수 있을 것이다.
- (2) 또한 유다는 비록 그들이 의지하던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었으나 바벨론의 침공으로 다시 일어서지도 못하고 멸망케 될 것이다(호 13:15).
- (3) 한편 바벨론의 침공으로 비유된 ‘동풍’은 동쪽 사막에서 팔레스틴 지방으로 불어오는 열풍으로서 그 지역의 모든 농산물을 전부 말라 죽게 하므로 대단히 무서운 존재였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어느 누구에 대한 배신으로 잠시는 이득을 볼 수 있

을지 모르나 그 배신으로 인한 관계의 파괴는 자신의 삶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온다.

11. ㉠ '이 비유'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11-15절)

- ㉠ (1) '이 비유'는 바벨론 땅 텔아비브(Tel-Abib)에 유배된 패역한 유다 포로를 향한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다.
- (2)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자신의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다(렘 28:2-4).
- (3) 따라서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은 애굽과의 동맹을 환영하며 바벨론에 의한 유다 패망의 예언을 믿지 않으려 했다.
- (4)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왕이 잡혀갈 때(B.C. 597) 유다의 능한 자들, 즉 대장장이, 석공, 목공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데려왔기 때문에 유다는 비록 애굽과 동맹을 맺었으나 바벨론에 대항할 힘은 없었다.

12. ㉠ 바벨론 왕과의 언약을 파기한 시드기야 왕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16절)

- ㉠ (1) 그는 바벨론의 감옥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다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렘 52:1-11).
- (2) 그에 앞서 B.C. 587년 예루살렘 성을 포위 공격하던 바벨론 군대는 기어코 성벽을 뚫고 들어왔다(왕하 25:4; 렘 39:1).
- (3) 그때 시드기야는 적은 수의 부하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내성(內城)과 외성(外城) 사이를 빠져 나가 남동쪽의 아라바, 즉 요단 계곡을 돌아 여리고 평지까지 도망쳤으나 뒤쫓아온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혔다(왕하 25:4, 5).
- (4) 바벨론 군대는 그를 느부갓네살이 주둔해 있던 시리아의 립나, 즉 리블라로 끌고 가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그의 두 눈을 뽑고 쇠사슬에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갔던 것이다(왕하 25:6, 7).

13. ㉠ 하나님을 배반한 시드기야의 유다 왕국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17-21절)

- ㉠ (1) 비록 애굽의 바로(Paraoh)가 대군을 거느리고 그들을 도와 준다 해도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파멸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 (2) 그런데 이 부분은 유다가 패망하는 과정을 잘 보여 준다. 즉 바벨론 군대의 예루살렘 공략(17절), 시드기야의 비참한 운명(20절), 풍지박산이 난 유다 왕국(21절) 등이다.
- (3) 이처럼 이스라엘(유다)의 패망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는 아무리 지혜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14. ㉠ 패망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22, 23절)

- ㉠ (1)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백향목 꼭대기)에서 새로운 왕(새 가지)을 택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케 하실 것이다.
- (2) 그런데 그 왕은 겸손할 것이며(연한 가지) 그 나라는 번성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불러들일 것이다(31:6, 12; 시 8:7, 9; 84:4; 단 4:9; 마 13:32).
- (3) 한편 이 비유에서 새 이스라엘의 건설은 스룹바벨의 예루살렘 성 재건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으며(스 2:2; 학 1:14) 궁극적으로는 장차 세워질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 (4) 그러므로 연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며(11: 1; 사 53:2) 모든 민족들이 그 아래 깃들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앞에 복종하며 따르게 됨을 가리킨다(마 13:32).

15. ㉠ 이스라엘(유다)의 패망 과정을 지켜 본 이방의 왕들은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24절)

- ㉠ (1)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 세상에 대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것이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높은 나무(여호야긴)를 낮추시고 푸른 나무(시드기야)를 말리시는 분이심을 알 것이다.
- (3) 또한 그들은 낮은 나무와 마른 나무 곧 몰락한 다윗의 가문에서 새로운 왕이 나게 하

여 새로운 이스라엘 건설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 것이다.

- (4) 그러므로 본절에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주관하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마 11:1; 엡 1장).

연구자료

그룹 (Cherubim)

‘그룹’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케룹> (복수는 케루빔)인데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아카드어(Akkad)에 근거해 볼 때 이 단어의 뜻은 ‘중보자’가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같은 그룹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일단(一團)의 천사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그룹의 형상에 대하여서는 정확히 규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성경 귀절이 많을 뿐 아니라 거기에 묘사되어 있는 그룹의 형상이 제각기 조금씩 다르게 나와 있기 때문이다. 왕상 6:23-28에 나오는 그룹은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반면 본서 1, 10장에 나오는 그룹은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와는 달리 그룹과 관련지워 생각하여야 할 제 4:6-8의 생물은 여섯 개의 날개를 가진 것으로 묘사되어져 있다. 이 중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그룹은 두 날개로써 날며 나머지 두 개의 날개로써는 몸을 가리웠다(1:11). 한편 이 같은 그룹이 지니고 있는 얼굴에 대해서도 묘사하고 있는 곳마다 조금씩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즉 1:5-14과 10장에 나오는 그룹은 네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반면, 41:18-20에 나오는 그룹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5-14에 나오는 그룹과 제 4:6-9에 나오는 네 생물의 얼굴이 사자, 송아지(또는 소), 사람, 독수리의 형상을 띠고 있는 점은 일치한다. 이외에도 그룹의 형상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성경 귀절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 의하면 그룹의 발은 송아지 발과 같으며(1:7) 날개와는 별도로 사람의 손과 같은 것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1:8; 10:7, 8). 그리고 이 같은 그룹에게는 바퀴(wheel)가 있는데(1:15-21; 10장) 이 바퀴가 제 4:8에 나오는 생물의 눈[眼]과 같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한편 이상과 같은 형상을 지니고 있는 그룹의 전체 수효가 얼마나 되는지에 관하여서도 확인할 수 없다. 1:5과 10:9, 12에는 네 명의 그룹만이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들의 직무에 대하여서는 비교적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데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창세 초기에 이들은 아담이 쫓겨 난 에덴 동산에서 생명 나무를 지켰다(창 3:22-24).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신 보좌 병거를 끄는 사역을 담당한다(1:20). 그러므로 이 그룹은 항상 하나님 가까이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참조, 28:14).

제 18 장 자신의 죄는 자신이 담당하라

단락구분 1-4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다 / 5-9 의인은 자신의 의로 살리라 / 10-13 의인이라도 악한 아들을 구원치 못한다 / 14-18 악인의 아들이라도 의를 행하면 살리라 / 19-20 의와 악은 행한 대로 돌아 가리라 / 21-29 하나님의 공평한 섭리 / 30-32 회개에 대한 권고

1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이노
 3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4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5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6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7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빗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8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람 사이에 진실히 판단하며
 9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히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녕 살리라 나 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10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이 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11 산 위에서 제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12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빗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13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녕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14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15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

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16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전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억탈하지도 아니하고 주린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17 손은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녕 살겠고
 18 그 아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에 불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19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녕 살려니와
 20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21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22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23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24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25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이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나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26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27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28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뉘었으니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29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나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30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때망게 아니하리라

31 너희는 법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32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1. ㉠ 본장의 중심 사상을 간략히 설명하라.

㉠ (1) 본장에는 이스라엘의 속담을 비유로 들어 인간은 어느 누구의 죄도 담당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 따라서 범죄한 이스라엘 족속도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야만이 살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3)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 같은 고생을 하는 것이 모두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았다(25절).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모두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족속은 그들 자신의 죄로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기를 명하셨다.

(5) 이처럼 인간은 항상 모든 잘못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자신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마 16:27).

2. ㉠ '아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은 무슨 뜻인가? (2절)

㉠ (1) 이 속담은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하던 당시 예루살렘과 바벨론에서 흔히 사용된 속담으로 아버가 범한 죄값이 아들에게 미친다는 의미이다.

(2)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현재 당하는 고난이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면서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고 했다(25절).

(3)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출 20:5을 잘못 이해한 데서 기인하였다. 출 20:5에 '아버로부터 아들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말씀은 그 자손들이 아버지와 같은 죄를 범하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경우를 지적하는 말이다(출 34:7; 레 26:39; 민 14:18).

(4)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義)는 결코 무죄한 자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격이 고유의 영역을 지니고 있다.

3. ㉠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1) 그 이유는 이제 그들의 죄가 명백히 드러나서 그들이 받는 형벌의 정당성을 온 세상이 인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2) 또한 그들의 죄가 절정에 달하여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형벌이 가해지더라도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었다(16:48).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연한 죄의 보응을 받고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다시는 변명이나 불평을 하지 못하게 못을 박으셨다.

(4) 여기서 보듯이 인간은 본질상 사악하여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당하게 대한다는 생각을 늘 지니기 쉽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참조, 빌 2:12).

4. ㉠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는 말씀이 지니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4절)

㉠ (1) 이 말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소유권을 의미한다(렘 18:6).

(2)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모든 인간의 창조주로서 자신이 만드신 인간을 향한 사랑을 보이신다.

(3) 그러므로 인간이 비록 원죄로 인해 추하고 더러운 것은 사실이나 하나님께는 여전히 귀하고 사랑스런 존재이다(참조, 롬 31:3; 요 3:16; 롬 5:8).

5. **㉠**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4절)

㉠ (1) 이 의미는 범죄하는 자는 자신의 범죄로 인해 멸망하리라는 것이다. 즉 인간 개개인(個人)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는 의미이다(20절).

(2)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타인의 죄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참조, 눅 13:2, 3).

6. **㉠** 어떠한 삶이 의인의 삶인가? (5-9절)

㉠ (1)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삶이다.

(2) 본문들에서 나타난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계명 특히 십계명과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가리킨다.

(3) 그러나 한결음 더 나아가 여기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는 자’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런 사람은 이웃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서로 나누면서 불의를 제거하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다.

(4) 한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데서 오기 때문에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증거이다(참조, 요일 3:15-19).

7. **㉠**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가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6절)

㉠ (1) 이것은 산 위에서 우상을 섬기고 경배 후에 나누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뜻이다.

(2) 즉 우상을 섬기지도 않으며 그곳에서 바쳐진 제물도 먹지 않는다는 뜻인데 그 제물을 먹는 행위는 그 제사를 찬동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고전 8:10; 10:20-22).

8. **㉠**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6절)

㉠ (1) ‘우상에게 눈을 들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2) 여기서 ‘눈을 든다’는 것은 열성적으로 우상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3) 즉 인간이 집념이나 욕망을 가질 때 마음의 창(窓)인 눈을 그 욕망의 대상에 고정시키는 행위와 같은 것이다.

9. **㉠** 의인이 금하는 음행은 어떤 것인가? (6절)

㉠ (1) 그것은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는 것과 월경(月經)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2) 다른 죄는 몸 밖에서 범하지만 음행은 몸 자체를 파괴하는 죄이며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 모두를 파괴한다(고전 6:18).

(3) 또한 그 음행 중에서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는 행위는 그의 남편의 권리를 모독하는 행위이며, 월경 중의 여인을 가까이 하는 행위를 율법은 여인의 피 근원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하여 금하고 있다(레 18:19; 20:18).

(4) 이 같은 음행이 한 사회 속에 만연되었을 때는 그 사회를 타락시키며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의 근본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성(性) 문제에 대한 교회의 관심이 사회 전체에 파고들어야 한다.

10. **㉠** 인권(人權)을 존중하는 의인의 행동은 어떤 것인가? (7절)

㉠ (1) 의인은 사람을 학대(虐待)하지 않는다.

(2) 인간이 타인을 학대하는 행위는 곧 그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부여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다.

(3) 또한 그 같은 행위는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행위이기 때문에 타인을 학대하는 자는 스

스로를 낮추고 멸시하는 행위이다. 왜냐하면 자신도 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 (4)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인간은 이처럼 타인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행위들을 저질러 왔다. 그러나 이제는 인간을 존중하는 인류 사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먼저 앞장서야겠다(참조, 레 19:18; 말 2:10; 막 12:31; 행 17:26).

11. ㉠ 자비를 베푸는 의인의 모습을 말하라(7절).

- ㉠ (1) 그는 빚진 자의 전당물(典當物)을 도로 준다.
 (2) 여기서 '빚진 자'란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에게 제한시키고 있는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출 22:25; 신 24:6, 13) 빚이나 담보(擔保)로 생존에 필요한 물건을 취하지 말 것을 명하고 있다.
 (3) 즉 빈민의 옷이나 이불, 연장 등은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담보물로 취하는 행위는 그를 비참하게 만들고 동시에 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신 24:6).
 (4) 따라서 이 같은 자비는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행위로 하나의 율법이지만 그 율법에는 가난한 자를 향한 율법 이상의 사랑과 배려가 내포되어 있다.
 (5) 그러므로 이 같은 자비를 베푸는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이기에 때문에 지키기 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행하는 자이다(요일 3:15-19).

12. ㉠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의인의 모습은 어떠한가? (7절)

- ㉠ (1) 그는 주린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힌다.
 (2) 이 같은 사랑의 행위는 곧 내 소유를 항상 내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자신에게 맡기신 것이라 생각하는 데서 나타날 수 있다.
 (3)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행위를 자신에게 베푸신 것으로 간주하신다(마 25:40).
 (4)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라 할 수 있겠다(호 6:3).

13. ㉠ 이스라엘에서 이방인 나그네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동족에게 금지된 일은 무엇인가? (8절)

- ㉠ (1) 그것은 변(邊)을 위하여 타인에게 돈을 꾸어 주는 행위와 이식(利息)을 받는 행위이다.
 (2) 여기서 '변'이란 말은 문자적으로 '물어뜯다' (히, 네씩)라는 단어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꾸어 주는 사악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3) 한편 외국인들과의 상업 거래에서는 그 행위가 허락되었으나(신 23:20) 동족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금지되었다(출 22:25; 레 25:35, 37; 신 23:19; 사 24:2).
 (4) 왜냐하면 일단 돈을 빌려 주게 되면 가난한 형제에게 빌려 주는 것이므로(마 5:42; 눅 6:35) 거기서 이자를 받는 행위는 가난한 형제를 해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5)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들이 유대인과의 거래에서 '변'을 받거나 '이식'을 받는 행위가 이미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는 공평한 균형을 위해 받는 것이 허락되었다.
 (6) 그러므로 이 같은 율법의 취지(趣旨)는 돈을 탐욕적으로 긁어 모으려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하려는 것이다(참조, 시 15:5).

14. ㉠ '사람 사람 사이에 진실히 판단하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8절)

- ㉠ (1) 이것은 공무를 집행하는 재판관의 임무이지만 각 사람의 생활 규범이 되기도 한다.
 (2)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임무이면서 생활 규범이 되어야 하며 당연히 지켜져야 할 일이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다(삼상 8:3; 12:3).
 (3) 따라서 선지자는 의인의 덕성(德性)에 '올바른 판단'을 집어 넣고 있다.
 (4) 그러나 우리의 사회에서 일반 상식이 지켜진다면 규범도 필요 없으며 새로운 규제(規制)를 위해 법을 만들 필요도 없을 것이다(참조, 왕상 3:28; 렘 22:15).

15. **㉠ 불의(不義)를 행하는 의인의 아들은 어찌될 것인가? (10-13절)**

㉠ (1) 그는 정녕 죽게 될 것이며 자기의 피가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2) 즉 그의 아버지의 선한 일이 자식의 죄를 갚지 못하며 죽음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참조, 레 20:9, 11, 13, 16, 27).

(3) 이것은 구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적용되는 진리이다. 하나님께서는 한 공동체 전체와 관계 하시기도 하지만 끝내는 개개인의 인격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문이나 환경을 믿고 방종한 생활을 하는 어리석음을 삼가해야 한다.

16. **㉠ 악인의 아들이 선을 행하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14-20절)**

㉠ (1) 행악자의 아들이라도 아버지의 나쁜 본(本)을 보고 경고를 받아 선을 행할 수 있다.

(2) 따라서 아버의 죄가 자식에게 전가(轉嫁)된다는 유대인의 속담은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는 데서 나온 말이다.

(3) 그러므로 그 선을 행하는 자식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고 자신의 의(義)로 인해 살겠으나 그 아버지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죽을 것이다(17, 18절).

17. **㉠ 회개한 악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21, 22절)**

㉠ (1) 하나님께서는 그의 과거의 죄를 기억치 않으시고 단지 그가 회개하여 행한 의로 인해 살리신다.

(2)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타낸 것으로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를 하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요 3:1-15; 고후 5:17).

(3)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가로 치르고 성립된 것이다(마 26:28).

(4) 또한 이 은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허황된 것이 아니다(사 43:25; 요일 1:9).

(5) 특히 본절(21-24절)은 마음이 굳어 도무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유대인을 향한 회개의 권고라 할 수 있다(30-32절).

18. **㉠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23절)**

㉠ (1) 그것은 악인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의의 길에 들어서서서 일이다.

(2) 즉 악인이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음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이 회개하여 생명 얻기를 바라신다.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심판으로 죄인이 죽기 보다는 그가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기 바라신다.

(4) 이와 같은 사랑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으로 그 본성을 잃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 모두가 이루어야 할 과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마음이다(참조, 창 1:26, 27).

19. **㉠ 의인이 돌이켜 범죄하고 악인의 길을 걸을 때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24절)**

㉠ (1) 만일 그가 악의 길을 걷는다면 그의 이제까지 의로운 일은 기억되지 않으며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해 그는 죽을 것이다.

(2) 즉 비록 율법을 준행하는 의인이라도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다. 따라서 그가 항상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과거에 지킨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3) 그러나 이처럼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간은 어느 누구나 구원이 필요하다.

(4)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합 2:4; 롬 4:3).

20. **㉠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족속의 불평은 무엇인가? (25-29절)**

- Ⓐ (1)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가 공평치 않다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 (2) 즉 이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환난이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값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그 같은 심판을 내려 자신들로 하여금 이방의 포로 신세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25절).
-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사는 것은 자신의 의(義)로 인한 것이며 악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하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하신다(26, 27절).
- (4) 따라서 그들이 현재 당하는 고통은 단지 자신들의 죄값으로 인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들의 불평 자체가 자신들의 죄를 인정치 않는 사악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하신다.
- (5) 이처럼 인간은 환난과 고통이 자신의 앞에 놓일 때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신다는 불평을 한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도 알 수 없기에 그 불평은 잘못된 행위이다(출 14:10-31).

21. ㉠ 불평하는 이스라엘 족속의 행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25-29절)

- Ⓐ (1) 우리 인간들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기만을 기다리신다.
- (2)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짧은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얼마 안 된다.
- (3)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판단은 항상 잘못되고 모순 투성이인 것을 알 수 있다.
- (4)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에 대해 오래 참으시며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이끄신다.
- (5) 그러므로 본장에서 우리에게 비쳐진 하나님은 특별히 의로우시며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이다.

22. ㉠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은 무엇인가? (30절)

- Ⓐ (1)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며 날뛰는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떠나기를 권고하신다.
- (2)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판자가 되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려 하신다.
- (3) 그러나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죄에서 떠나기를 명하셨다. 즉 그들의 전적인 회개를 요구하시면서 구원 얻기를 권면하셨다.

23. ㉠ 회개한 자가 하나님께 얻는 것은 무엇인가? (31, 32절)

- Ⓐ (1) 본절에서는 회개하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새 마음과 영'은 자신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11:19).
- (2)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은 죄인의 회개 여부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회개는 부분적이 아닌 전면적인 회개가 되어야 한다(30절).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최후까지도 자신의 백성을 벌하시기 보다는 깨우쳐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32절; 애 3:33).

본장의 요점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27절).

제 19 장 이스라엘을 위한 애가(哀歌)

단락구분 1-4 여호아하스가 애굽으로 끌려가다 / 5-9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의 운명 / 10-14 시드기야 왕국의 멸망

1 너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2 부르기를 네 어머니나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엮드리어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3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4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5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취하여 젊은 사자가 되게 하니
 6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7 그의 궁실들을 헐고 성읍들을 훼파하니 그 우는 소리로 인하여 땅과 그 가득한 것이 황무한지라
 8 이방이 들려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9 갈고리로 꿰고 철통에 넣어 끌고 바벨론 왕

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서 그 소리로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10 네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11 그 가지들은 건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흠이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서 보이다가
 12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실과를 동풍에 마르고 그 건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뒀더니
 13 이제는 팡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긴 바 되고
 14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흠이 될 만한 건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1. ㉠ 본장의 애가(哀歌)는 무슨 사실을 비유하였는가?

- ㉠ (1) 본장은 17장과 마찬가지로 유다 왕국의 패망을 탄식하는 내용이 비유로 기록되어 있다.
 (2) 즉 유다 왕국의 말기 왕들인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의 비극적 최후가 비유로 기록되어 있다.
 (3) 한편 다윗 왕가는 암사자로, 그 왕들은 젊은 사자로 비유되었는데 그들은 애굽과 바벨론에 끌려가는 비참한 운명을 겪게 된다.
 (4) 또한 같은 식으로 다윗 왕가와 왕들이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되며 또한 다윗 왕가와 유다 왕국의 멸망이 꺾여지고 태워지는 포도나무의 비유로 묘사되어 있다.
 (5) 그런데 이 애가의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파멸이 아닌 평온에 대한 헛된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하려는 데 있었다.

2. ㉠ '이스라엘 방백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1절)

- ㉠ (1) 이들은 유다 왕국의 말기 왕들인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를 가리키는데 본장에서는 젊은 사자 (2, 6절) 와 포도나무 가지 (11절) 로 비유되었다.
 (2) 그런데 70인역 (LXX) 은 '방백들' 을 단수로 번역하여 시드기야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지만 많은 학자들은 복수를 주장한다 (Keil, Cooke).

3. ㉠ 애가(哀歌)란 무엇인가? (1절)

- ㉠ (1) 이스라엘에서는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슬퍼할 때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재앙이 닥쳐왔

을 때 전(全) 국민이 애곡하였었다(출 33:4; 민 14:39; 렘 14:2; 욥 1:13). 그런데 그 애곡에 대한 묘사가 시적(詩的)인 언어로 묘사된 부분도 있다(참조, 애 1-5장).

- (2) 또한 그 애곡은 국가적 재앙을 선지자들이 예언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키기 위해 행하는 경우도 있었다(왕하 19:1-14; 스 8:21; 렘 9:17-19; 14:12; 36:9; 은 3:5-10).
- (3) 그러나 국민적인 애곡의 경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데 대한 참회의 마음을 표현하며 지나간 자신들의 죄를 뉘우침으로써 그 기억을 지우려는 의도에서 애가(哀歌)를 지어 불렀다(욥 2:12-17).
- (4) 그런데 본장의 애가는 유다 왕국의 패망을 슬퍼하는 노래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심판을 후대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려는 기록이다.

4. **㉠ 사자(獅子)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2절)**

- ㉠** (1) 여기서 암사자는 유다 왕국을 의미하며, '사자들'과 '젊은 사자'는 이웃의 여러 나라를 가리킨다(창 49:9; 민 23:24; 나 2:11, 12).
- (2) 그리고 '그 새끼'는 유다 왕 여호아하스(B.C.609-608)를 지칭한다.
- (3) 한편 '젊은 사자 중에서 새끼를 길렀다'는 의미는 유다 왕국의 말기에 주변국들의 난폭성과 사악성의 영향을 받으면서 새끼를 길렀다는 것을 말한다.
- (4) 이처럼 유다는 그의 말기에 이방인들의 잘못된 윤리와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은총을 잃게 되었다.

5. **㉠ '암사자'가 키운 새끼는 어떤 모습으로 자라났는가? (3절)**

- ㉠** (1) 유다 왕 여호아하스는 극히 난폭하고 잔인하게 자라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되었다(왕하 23:31, 32).
- (2) 이처럼 그는 권력을 손에 잡은 후 포악한 정치를 하여 많은 사람을 해치고 그들을 악의 길로 인도하였다.
- (3) 이와 같이 사악한 지도자는 단지 자신의 권력 유지에만 급급하여 국민의 생활을 전혀 돌보지 않고 오히려 국민을 착취의 대상으로 여긴다(왕하 21장).

6. **㉠ 사악한 여호아하스의 소문을 들은 이방은 어떤 행동을 취하였는가? (4절)**

- ㉠** (1) 애굽의 바로노고는 이 같은 소문을 듣고 그를 애굽으로 사로잡아 갔다.
- (2) 애굽이 그를 잡아간 이유는 애굽이 강대국들과의 전쟁으로 소란한 틈을 타 유다가 애굽 주변의 성읍들을 점령하려 했었기 때문이다(Calvin).
- (3) 이에 놀란 애굽과 그 주변국들은 유다를 침공해 그를 잡아갔다(B. C.609, 대하 36:1-3).

7. **㉠ 두번째 사자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었는가? (5, 6절)**

- ㉠** (1) 두번째 사자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왕(B.C. 597)을 가리키는데 그도 역시 자신의 백성에게는 포악한 왕이었다.
- (2) 특히 그는 18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는 동안 많은 악을 저질렀다(왕하 24:8, 9).

8. **㉠ 두번째 사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8, 9절)**

- ㉠** (1) 이방의 열국은 그의 소문을 듣고 유다를 치러 와서 그를 철망에 가두어 바벨론으로 끌고 갈 것이다.
- (2) 여기서 '이방'은 바벨론, 시리아, 모압 그리고 암몬을 가리킨다.
- (3) 결국 그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두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으며, 그 후 자신의 두 눈이 뽑히운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9. **㉠ 유다 왕국의 번성이 어떻게 묘사되었는가? (10절)**

- ㉠** (1) '네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무성하며'라고 표현되었다.
- (2) 여기서 '네 피의'는 '네 생명의'란 뜻인데 RSV의 난외에는 '네 닳은'으로 번역되어

있다. 따라서 ‘네 피의 어미’란 ‘그 백성을 해산한 어머니’, 즉 초기의 유다인을 가리킨다(신 8:7-9).

- (3) 한편 ‘물이 많다’라는 말은 ‘그 땅이 비옥하다’라는 뜻이다(17:5).
- (4) 그러므로 본절의 의미는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가난한 땅에 정착했는데 그 땅이 매우 비옥하여 그들은 풍족한 생활을 하였다’라는 뜻이다.
- (5)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된다(16:1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열과 성을 다하여 돌보시고 키우신다.

10. ㉠ ‘포도나무의 가지’는 누구를 말하는가? (11절)

- ㉠ (1) 그것은 유다 왕국의 열왕(列王) 곧 다윗부터 시드기야까지의 많은 왕들을 말한다.
- (2) 한편 ‘그 가지들이 견강(堅強)하다’라는 뜻은 유다 왕가의 강력한 힘을 상징한다.
- (3) 그리고 ‘흙’(히, 마테호오즈)은 주로 왕들이 권력자의 상징으로 지니고 다니던 막대기로서 구부러진 모양을 하고 있었다(렘 48:17; 시 110:2).
- (4) 또한 그 가지들 중 ‘굵은 가지’ 곧 키가 크고 굵은 가지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B.C. 597-586)를 가리킨다(왕하 24:18-20).
- (5) 그러므로 본절의 의미는 유다 왕국에 다윗 왕가의 강성으로 강력한 왕이 나타나고 그 왕국이 번성하게 될 상태를 말한다.

11. ㉠ ‘포도나무가 뽑히고 열매가 마르며 가지가 꺾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2절)

- ㉠ (1) 그것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유다가 멸망당하고(B.C. 586) 시드기야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됨을 가리킨다(렘 52:11).
- (2) 이 같은 패망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 그리고 회개에 대한 간곡한 권면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계속 불순종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 (3) 따라서 다윗 왕가는 몰락하고 동쪽 곧 바벨론 군대의 침공으로 많은 백성은 살육을 당하며 예루살렘 성은 철저히 파괴될 것이다.

12. ㉠ 패망한 유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13절)

- ㉠ (1) 이제는 광야 곧 메마르고 가뭄이 든 땅에 심기우게 될 것이다.
- (2) 포도나무의 실과가 마르고 가지는 꺾여 불에 탔으나 하나님께서는 새싹이 나올 수 있도록 적은 수의 씨를 남겨 메마른 땅에 심으셨다(사 1:9).
- (3) 그런데 이 메마른 땅은 바벨론 땅을 가리킨다. 실제로 당시 바벨론은 강하고 풍족한 나라였다.
- (4) 그러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땅이 희망 없는 황무지로 보여진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참조, 시 63:1).

13. ㉠ 시드기야의 통치에 대해 평가하라.

- ㉠ (1) 하나님을 떠난 시드기야의 통치는(왕하 24:19,25) 결국 자신의 파멸 뿐만 아니라 왕가의 대(代)를 끊어 버렸다(왕하 25:7, 12).
- (2) 즉 시드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을 뿐 아니라 바벨론과의 동맹을 깨뜨리고 애굽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바벨론을 자극하여 스스로 멸망을 자초(自招)하고 말았다.
- (3) 그 결과 유다는 대(代)를 이을 왕족들이 죽임을 당하거나(왕하 25:7) 바벨론으로 끌려가 결국 권세잡은 자의 흙이 될 만한 건강한 가지가 없게 되었다(참조, 사 9:15).

14. ㉠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14절)

- ㉠ (1)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의 최후 멸망을 내포하고 있다.
- (2) 또한 이 애가는 후손들에게 자기 조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슬픈 이야기거리를 제공한다.

- (3) 그러므로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운명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과 이웃을 돌아보아서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을 말끔히 씻어 버리고 정의롭고 밝은 사회를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화보자료

마른 나무 등치. 마른 지 오래 되어 걸이 허영게 핀 나무 등치는 보는 이로 하여금 무상(無常)함을 갖게 한다.



하나님께 있어서 택함 받은 성도들은 물가에 심기운 푸른 나무(렘 17:7, 8)와 풍성한 열매 맺은 포도나무(호 10:1)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비록 그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 행악(行惡)의 길을 걷게 되면 그는 부리가 뽑힌 나무와 같으니 결국은 말라 죽고 말 것이다(참조, 12절).

제 20 장 이스라엘의 배반과 회복

단락구분 1 이스라엘의 장로가 방문하다 / 2-4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불만을 나타내다 / 5-9 애굽에서의 배반 / 10-26 광야에서 배반하다 / 27-29 가나안에서 배반하다 / 30-32 현재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악 / 33-39 이스라엘의 성결 / 40-44 소망이 예언되다 / 45-49 남방을 치는 예언

1 제 칠 년 오 월 십 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2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3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치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4 인자야 내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너는 그들로 그 열조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5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6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의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7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8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노라

9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음으로라

10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11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12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13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노라

14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으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으로라

15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의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16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좇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17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 보아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18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열조의 율례를 좇지 말고 그 규례를 지키지 말고 그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19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20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21 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좇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내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내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노라

22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금하고 달리 행하였으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으로라

23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

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흠으며 열방 중에 헤택리라 하였으니

24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 열조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25 또 내가 그들에게 선지 못한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26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로 멸망케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27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 열조가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28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었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격노케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를 부어 드린지라

29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나 하였노라(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라라 일컫느니라)

30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가 열조의 풍속을 따라 스스로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좃아 행음하느냐

31 너희가 또 너희 아들로 화제를 삼아 예물로 드려 오늘날까지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물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물기된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32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열국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숭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33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단정코 다스릴지라

34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흠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 내고

35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국문하되

36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같이 너희를 국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

37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38 너희 가운데서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우거하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39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이후에도 그리하려무나마는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40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이스라엘 은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친신하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41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흠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 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42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들일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43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44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나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45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46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방들의 삼림을 쳐서 예언하라

47 남방 삼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은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을 그슬릴지라

48 무릇 열기있는 자는 나 여호와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49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와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1. ㉠ 본장의 중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1) 본장은 14장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유배지에 있던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여호와께 물기 위해 선지자를 찾아오는 내용부터 시작된다.

(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답을 주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신다.

- (3)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반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 (4)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실 때(6절)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도 그들은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시려고 그들에 대해 참으셨다(14절).
- (5)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땅에 들어와서도 계속 그 땅의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 (6)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결을 위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후(33-39절) 미래에 있을 그들의 회복을 약속하셨다.

2. **Q** '제 칠 년 오 월 십 일'은 언제인가? (1절)

- A** (1) 그때는 여호야긴 왕(B.C. 597)이 바벨론에 잡혀온 지 7년이 지난 해[年]인 B.C. 591년 7, 8월(유대 종교력 제 5월)경이다.
- (2) 한편 이때는 8:1에서 날짜를 기록한(6년 6월 5일)이후 11개월 5일이 지난 날이다.

3. **Q** 이스라엘 장로들이 선지자를 찾아온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1절)

- A** (1)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당시 오랜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차차 실망과 좌절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 (2) 이에 따라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포로 생활에 지쳐 있는 자들에게 귀국의 희망을 줌으로써 사람들은 혼란한 상태에 있었다.
- (3) 따라서 그들은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 점장이와 예언자들을 찾아 나섰다.
- (4) 이 같은 상황에서 백성들은 자신들을 대표하는 장로 두 사람을 에스겔에게 보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였다.
- (5) 오늘날도 사회가 불안하거나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은 점장을 찾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처신해야 한다(참조, 신 4:48; 사 45:20; 렘 10:5).

4. **Q**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답하길 거절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A** (1)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으며 오히려 마음에는 가증스런 우상을 숭배하는 생각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이다(14:3).
- (2) 또한 그들은 순종하는 마음과 배우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이 단지 장래의 운명을 알고자 하는 마음뿐이었기 때문이다.
- (3) 특히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과 그들이 현재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신세가 비참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의 불공정한 심판에 있다고 불평하였다(18:25).
- (4) 이같이 우리 인간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다. 어떤 경우에는 그 어려움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불평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을 돌아보면 모든 잘못이 자기에게 있음을 알게 된다(참조, 시 53:3; 잠 20:9; 사 53:6).

5. **Q** 하나님께서 '네가 그들을 국문(鞫問)하려느냐'란 말을 반복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A** (1) 이같이 질문을 반복하신 이유는 심판에 대한 강한 명령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다.
- (2) 또한 질문체를 사용하신 것도 명령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이다.
- (3) 한편 '국문하다'(히, 쉐포트)는 '판단하다'(judge)라는 의미인데 이 같은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판단하라고 명하신다.
- (4) 즉 이스라엘이 그 역사의 초기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저질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들의 죄를 알려 주어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라는 명령을 하셨다.

6. **㉠** ‘아굽 집의 후예(後裔)를 향하여 맹세하고’가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5절)

- ㉠** (1)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능력 행하심을 가리킨다.
- (2) 여기서 ‘맹세하고’란 ‘내 손을 들고’란 뜻으로(RSV)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맹세하신 것과 같다(출 6:8).
- (3)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권능을 행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심을 보여 주는 것이다.
- (4) 이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배은 망덕(背恩忘德)의 죄를 범하였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

7.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찾아 두신 땅은 어디인가? (6절)

- ㉠** (1) 그곳은 췌과 풀이 흐르는 땅이며 모든 땅 중의 아름다운 곳인 가나안 땅이다.
- (2) 여기서 ‘췌과 풀이 흐르는 땅’이란 다른 땅보다 더 비옥하여 많은 소출을 거둘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출 3:8,17; 13:5).
- (3) 따라서 본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출 3:14) 그들을 위해 비옥한 땅을 미리 마련하셨다는 내용이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귀하신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 인간들은 당장 우리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는 경우가 많다(민 11:4-6; 신 9:23,24).

8. **㉠**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은 무엇인가? (7, 8절)

- ㉠** (1)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출애굽 후에도 애굽의 우상을 잊지 못하였다.
- (2) 즉 그들은 모세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부터 순종치 않았으며(출 6:9,12) 광야 생활 중에도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였다(민 11:5, 6).
- (3) 또한 약속의 땅으로 가던 도중에도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영향을 받았던 애굽의 신성한 황소 아피스(Apis)의 형상을 본떠서 ‘금송아지’를 섬겼다(출 32:1-8).
- (4) 한편 이 ‘금송아지’ 우상은 애굽과 가나안의 보편적인 우상으로서 다산(多産)과 비옥의 신(神)이었다.
- (5)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참고 용서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죄를 참으시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9. **㉠**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8, 9절)

- ㉠** (1) 그 이유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시려는 이유에서였다.
- (2)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의(義)가 있어서 참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義)와 능력 그리고 그 이름에 내포된 속성들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 (3)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신다면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택하신 백성을 버렸다고 비난할 것이기 때문이다(신 9: 25-29).
- (4) 여기서 ‘내 이름을 위하여’라 함은 ‘그들은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민 14:13-19)는 표현과 일치한다. 즉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임을 말한다.
- (5) 또한 이 사상은 자신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방인에게 보이는 것과 같다(13:23; 16:60, 61).

10.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알게 하셨는가? (11절)

- ㉠ (1)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준행(遵行)하면 삶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
 (2) 여기서 '삶을 얻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의 현재의 삶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다(레 18:5; 신 4:40; 5:16).
 (3) 또한 그 뜻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이다.
 (4)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이 같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능력이 없다(롬 4:15; 신 30:15).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5) 따라서 율법이 무가치하다는 비난이 나올 수 있으나 본질의 의미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언약을 지키심으로 백성도 언약을 지키는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11. ㉠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12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기 위해 안식일을 주시고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표징(表徵)을 삼으셨다.
 (2) 그런데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과 구별하여 그들이 자신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데에 있었다.
 (3) 한편 안식일은 율법의 일부로서(출 20:8-11)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굳게 결속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선민(選民)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 것이다.
 (4) 따라서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길이며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된다.
 (5)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의(義)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안식일을 그들에게 주셨다.
 (6)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이 우리에게서 부당과 제약(制約)을 가져다 주는 것 같으나 오히려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은총이 담겨 있다.

12. ㉠ '너희 열조의 율례'란 무엇을 말하는가? (18절)

- ㉠ (1) 그것은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례를 의미한다.
 (2) 그런데 당시의 백성은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였다(수 24:14).
 (3) 따라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규례란 특별히 어떤 규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 즉 모세의 율법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던 사실을 말한다.

13. ㉠ '그들의 자손'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18절)

- ㉠ (1) 출애굽 세대의 자손을 가리킨다.
 (2) 그런데 출애굽 세대는 광야 생활을 하는 도중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범죄하였기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으리라는 저주를 받았다(민 14:22-24).
 (3) 오늘날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채 자신의 감정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출애굽 세대들이 많다. 이런 자들은 가나안(천국)이라는 소문만 들을 뿐이지 직접 그곳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14. ㉠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흠으리라는 뜻은 무엇인가? (23절)

- ㉠ (1) 본질의 의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저주라기 보다는 후대에 그들 자손에 대한 저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왜냐하면 광야를 지나던 출애굽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민 14:30) 모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들의 후손은 흠어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3) 따라서 그 분산의 실현은 헬선 후대, 즉 앓수르의 살만에셀 (Shalmaneser, B.C. 727-722)에 의한 북이스라엘 열 지파의 추방과(왕하 17:6) 바벨론의 느부갓네살(Nebuchanezzar, B. C. 605-562)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B. C. 586)으로 이루어졌다(왕하 25:11).

15. ㉠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치 못한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25절)

㉠ (1) 그것은 그들이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2)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뜻대로 살게 하여 고통과 비참한 상황에 빠지도록 방임하셨다(시 81:12; 롬 1:24; 살후 2:11, 12).

(3) 즉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거짓된 피조물을 믿게 하신 것과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를 거두어 가신 것을 의미한다.

(4) 이처럼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자신의 보호를 주시고 방임하신다. 따라서 이 방임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과 역경 속에 있게 하는 형벌의 방편이 된다(행 7:42, 43).

16. ㉠ '장자(長子)를 화제(火祭)로 드리는' 이스라엘의 행위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26절)

㉠ (1)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첫아들이나 짐승의 첫 새끼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셨다(출 13:2; 22:29; 34:19, 20).

(2) 왜냐하면 짐승이나 사람의 초태생이 애굽 땅에서 전멸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재앙을 모면했기 때문이다(출 12:29; 민 3:13; 8:16).

(3) 그런데 그와 같이 성별된 장자를 우상의 제물로 바쳐 불태워 죽인다는 것은 잔인한 행위임의 물론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인 것이다.

(4) 그러므로 그들의 행위는 그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배은 망덕한 족속인지를 가르쳐 준다.

17. ㉠ 하나님께서 장자를 예물로 드리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더럽히신 이유는 무엇인가? (26절)

㉠ (1) 그것은 그들로 멸망케 하여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셨기 때문이다.

(2) 즉 그들로 하여금 가증스럽고 잔인한 행위를 하도록 방임하십시오으로써 스스로 파멸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다.

(3) 또한 그렇게 하십시오로써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심판자가 되시며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이다(6:7).

18. ㉠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에게 '분향(焚香) 하고 전제(奠祭)를 드린' 행위는 어떤 의식인가? (28절)

㉠ (1) 그들은 가나안의 신(神)들을 받아들여 높은 산이나 잎이 무성한 나무 주변에 산당 혹은 제단을 쌓고 아세라나 아스다롯을 섬겼다(사 57:5)

(2) 한편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로 그 제물은 포도주 약 1/4헌, 즉 5홉 정도이다(출 19:40; 레 23:13).

(3) 그리고 전제는 상번제(출 29:40, 41; 민 28:7) 때에 조석으로 함께 드렸었고 안식일 제사 때(민 28:9)와 월삭의 제사 때(민 28:14)에 드렸었다.

(4) 또한 전제는 번제 의식의 핵심 부분으로서 그 의식상 반드시 따랐었다. 그러므로 전제는 보통 번제와 화목제 제물을 드린 다음에 드렸었다(민 15:1-10).

(5)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제물과 의식(儀式)을 이방 신을 위해 바침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19. ㉠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신(神)을 섬기던 산당을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29절)

- A** (1) 그곳은 오늘날까지도 바마라 일컫고 있다.
 (2) 여기서 '바' 라는 말은 '간다' 라는 뜻이며 '마' 는 '어디로' 혹은 '무엇이나' 는 뜻으로 곧 '너희가 다니는 곳이 어디인가', '너희가 다니는 장소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다.
 (3) 그리고 바마는 복수로 <바모스>인테 '산당'에 대한 히브리어였다. 원래 이산당은 어떤 지역적 성소가 있는 언덕에 위치했다(왕상 3:4).
 (4) 그러나 성전이 건축되어 성전이 유일한 성소로 지명되면서부터 그곳은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었다(왕상 8장).
 (5) 이와 같이 인간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자신의 욕심과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자신마저도 기만한다. 그러나 자신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며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참조, 대상 28:9; 시 33:15; 139).
- 20. C**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문의(問議)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30, 31절)
A (1)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와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까지도 계속 우상을 섬기는 사악한 행위를 해왔기 때문이다.
 (2)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이스라엘 장로들이지만 실제로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과 본국에 남아 있던 동포들이다.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포로로 잡혀와서까지도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사악성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응답을 거절하신다.
- 21. C** **이방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32절)
A (1) 그들은 오랜 포로 생활 속에서 답답한 마음을 풀려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나왔으나 그 속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찼다.
 (2) 이처럼 그들은 오랜 이방 생활 동안에 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미 이방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어 있었다.
 (3)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기 위해 그들의 귀향에 대한 소망과 우상 숭배의 마음을 빼앗아 가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
 (4) 즉 그들의 희망인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괴가 되고 아직도 우상을 섬기며 패역한 생활을 하던 본국의 동포들도 자신들과 같은 비참한 신세에 처하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 22. C**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맹세는 무엇인가?** (33-36절)
A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비록 열국 중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광야에 모아 국문(鞫問)하실 것을 맹세하셨다.
 (2) 즉 그들이 이방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능한 손과 편 팔)으로 그들을 열국에서 불러모아 그들의 패역함을 지적하시겠다는 말씀이다(신 4:34; 5:15).
 (3) 그런데 여기서 '열국 광야'는 그들의 포로됨을 강조한 상징으로 비록 그들이 이방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새로운 포로가 될 것임을 가리키는 말이다(비교, 호 2:16).
 (4) 이 같은 국문은 이미 그들의 조상이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여 심판받은 사실을 회상케 한다(민 17:5, 6, 10).
- 23. C**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37절)
A (1) 이스라엘 백성을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는 것과 언약의 줄로 매는 것이 있었다.
 (2) 여기서 '막대기'는 양 떼를 모으는 목자의 막대기를 의미한다(34: 11; 레 27:32; 미 7:14). 따라서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한다'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하나님)의 보호

와 지도 아래 있게 됨을 가리키는 말이며 '언약의 줄에 매임'은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언약의 관계를 다시 맺게 됨을 의미한다(참조, 사 52:2; 렘 5:5; 27:2).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새로이 하여 이제는 자신의 백성을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계획을 하신 것이다(36:24-28).

24.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려고 그들에게 요구하실 것은 무엇인가? (40절)

- ㉠** (1) 그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첫 열매와 예물 그리고 성물이다.
 (2) 이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미신으로 오염된 이스라엘의 제물과 예물을 받지 않으셨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순수히 섬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와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3)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기도도 그 의도가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불행을 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기도와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행위에 대한 징벌을 내리실 것이다(요 4:23; 롬 12:1, 2).

25. **㉠**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하신 예언의 말씀은 무엇인가? (46절)

- ㉠** (1)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얼굴을 남으로 향하여 남방(南方) 들의 삼림을 쳐서 예언하라는 명령을 하셨다.
 (2) 여기서 히브리어 <다름>은 밝고 햇빛 비치는 남쪽 땅을 가리키며(신 33:23; 욥 37:17; 전 1:6; 11:3), '남방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게브>는 메마르고 건조한 땅을 가리키는데 일반적으로는 팔레스틴의 남쪽 지역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수 15:21).
 (3) 그리고 '삼림'은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언어이다. 그런데 북쪽 바벨론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남방들의 삼림과 같은 것이다.
 (4) 따라서 본질의 의미는 고국 이스라엘(유다)을 향하여 예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26. **㉠** 남방 삼림을 향한 예언의 내용은 무엇인가? (47절)

- ㉠** (1)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멸하리라는 예언이다.
 (2) 그런데 이 '불'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전쟁의 불을 말한다. 그리고 이 불이 태울 푸른 나무는 의인을 상징하며(시 1:1, 2), 마른 나무는 악인을 상징함으로(눅 23:31) 이 심판은 이스라엘의 전국토(남에서 북까지)와 모든 국민(얼굴)에게 해당됨을 가리킨다.
 (3) 그러나 에스겔이 전한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포로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선지자를 비난하였다. 따라서 에스겔은 슬픔과 분노의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사실을 고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징과 비유의 예언에 대한 해석을 주신다.
 (4) 이와 같은 내용 전개는 45절 이후의 말씀이 본장보다는 21장과 더 잘 연결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서는 45절 이후를 21장에 포함시켰다.

본장의 요약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좇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니라' (16절).



제 21 장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칼

단락구분 1-5 심림의 불에 대해 설명되다 / 6-7 환난에 대한 슬픔이 명령되다 / 8-17 환난이 예언되다 / 18-24 바벨론 왕의 짐공에 대한 전망 / 25-27 시드기야에게 내린 심판 선언 / 28-32 임문의 멸망이 예언되다

1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 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3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4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5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꽃혀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6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7 그들이 내게 물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을 인함이라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풀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녕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하라

8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9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광되었도다

10 그 칼이 날카로운은 살륙을 위함ियो 마광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흙이 모든 나무를 엷신여 기는도다

11 그 칼이 손에 잡아 쓸 만하도록 마광되되 살륙하는 자의 손에 붙이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마광되었도다 하셨다 하라

12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붙인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13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엷신여기는 흙이 없거든 어찌할고 나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4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손뼉을 쳐서 칼로 세 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

케 하는 칼이로다

15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많이 엷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살륙을 위하여 날카로왔도다

16 칼아 모이라 우향하라 향오를 차리라 좌향하라 향한 대로 가라

17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을 다하리로나 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8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19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머리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20 칼이 암문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21 바벨론 왕이 갈랫길 곧 두 길머리에 서서 점을 치되 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회생의 간을 살펴서

22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퇴를 베풀며 입을 벌리고 살륙하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퇴를 베풀고 토성을 쌓고 운제를 세우게 되었나니

23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헛점으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24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일으키며 너희의 건과가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25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네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끝 때니라

26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며 면류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27 내가 엷드러뜨리고 엷드러뜨리고 엷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있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28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암문 족속과 그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너는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살륙하

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마광되었도다
 29 네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네게 대하여 거짓 복술을 하는 자가 너를 중상을 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끝 때가 이룸이로다
 30 그러나 칼을 그 집에 꽂을지이다 네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너의 성장한 땅에서 내가 너

를 국문하리로다
 31 내가 내 분노를 네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네게 불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붙이리로다
 32 내가 불과 쇠과 같이 될 것이며 네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라

1. ㉠ 본장의 심판 예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 (1) 본장의 서두에는 앞 장의 끝(45-49절)에 예언된 삼림의 불에 관해 설명되었는데 이 심판은 그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포로들이 오히려 불평하였기 때문에 내려진 심판이었다(20:49).
 (2) 그리고 임박한 환난이 칼로 상징되었으며 심판의 도구가 되는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과 암몬의 침공 순서를 점을 쳐서 결정한다. 뒤이어 유다 왕 시드기야(B.C. 597-586)와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다.
 (3) 이처럼 본장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 즉 이스라엘을 깨우치고 회복시켜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환난과 바벨론 왕의 점술(占術) 그리고 패역한 왕가(王家)의 몰락을 주도하시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자신의 백성을 의(義)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의 모든 역사(歷史)를 주관하신다(참조, 사60:21, 22).

2. ㉠ 하나님께서 성소(聖所)를 향하여 예언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 (1)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2) 즉 그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복 주신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 성 그리고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이다(20:46).

3. ㉠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는 예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3절)

- ㉠ (1) 그것은 의인도 민족 전체가 당하는 환난에 동참함을 가리킨다(참조, 욕9:22).
 (2) 그러나 의인이 악인과 같이 취급된다는 의미는 아니다(창18:25). 즉 의인들은(좋은 무화과나무) 바벨론에 보내져서 목숨을 보존하지만(렘24:4, 6) 악인들은 환난 가운데서 죽게 됨을 의미한다(5:12).
 (3) 그러므로 본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 준다.

4. ㉠ '내 칼'이란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4절)

- ㉠ (1) 여기서 '내 칼'이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전쟁을 의미한다(신32:41).
 (2) 또한 이 '칼'은 20:48에서 나타난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는 '불'과 동일한 상징이다.
 (3) 따라서 바벨론 군대의 유다 침공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임을 알 수 있다.
 (4) 이와 같이 오늘날 급변하는 세계 정세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움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한다(참조, 잠29:25).

5. ㉠ '혈기(血氣) 있는 자'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4절)

- ㉠ (1) 그것은 '살아 있는 모든 것', 특히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창6:12).
 (2) 그리고 본절에 있어서 '혈기 있는 자' 곧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지칭한 반면, 5절의 '혈기 있는 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6. ㉠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양태(樣態)를 나타내는가? (4, 5절)

- ㉠ (1) 하나님께서는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시되 그 칼이 다시는 쫓혀지지 않

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2) 이것은 의인도 악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에 연대 책임을 지고 동참하며 그 심판의 범위도 이스라엘 모든 땅에 걸쳐 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3) 또한 심판의 칼이 칼집에서 뽑힐 때는 그 심판이 완전히 끝나기까지 칼집에 꽂히지 않을 것이다.

(4)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알 수 있다.

7. **㉠**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6, 7절)

㉠ (1)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에스겔의 행동에 관심을 갖게 하여 질문을 유도하려는 의도에서였다.

(2) 즉 패역한 족속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한 방편인 것이다(4:4;5:1-4).

(3) 또한 선지자는 이 행동이 소문, 즉 자신에게 들려진 계시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같은 상징적 행동은 훗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행동이었다(7:17).

8. **㉠** 재앙으로 인해 두려움에 떠는 백성의 모습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7절)

㉠ (1) 그들은 압박한 재앙으로 인해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과 무릎이 약해지고 각 영이 쇠하여질 것이다.

(2) 이것은 바벨론 군대의 침공이 압박해 오며 따라 예언이 아닌 실제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백성이 보일 행동이다.

(3) 즉 그들은 재앙의 소문을 듣고 저항해 볼 용기와 힘을 잃게 되어서 어떤 대책도 수립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참조, 나 2:10).

(4) 이처럼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좌절에 빠지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코 어느 환난 가운데서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평안을 얻을 것이다(시 57:1).

9. **㉠** 심판의 두려움은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9, 10절)

㉠ (1) ‘칼이여 칼이여’와 같이 동일한 말을 반복함으로써 그리고 칼이 날카롭다는 표현으로써 그 재앙의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2)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혹독하게 묘사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두려움으로 인해 회개케 하시려는 이유에서였다.

10. **㉠** ‘내 아들의 흙이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란 무슨 의미인가? (10절)

㉠ (1) 유다의 왕이 모든 세상의 다른 왕들과 나라를 무시하고 교만에 빠진 상태를 의미한다.

(2) 여기서 ‘내 아들’은 유다를 의미하며 ‘흙’은 KJV에서 지팡이(rod)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지팡이는 왕권을 상징한다(참조, 창 49:10).

(3) 또한 ‘모든 나무’는 이방의 다른 나라들을 상징한다(참조, 사 9:15).

(4) 이처럼 유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만 속에서 심판의 경고를 무시한 채 자신들이 안전하리라는 환상에 젖어 있었다(12:22, 23).

(5)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종종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타인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겠다는 잘못을 범할 때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잠 16:18).

11. **㉠** ‘네 넓적다리를 칠지어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가? (12절)

㉠ (1)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극심한 절망 상태에 빠진 모습을 보여 주는 표현이다(참조, 렘

31:19).

- (2) 왜냐하면 그들의 방백들, 즉 왕과 지도자들도 그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다(6절).

12. **㉠**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흠이 없다면 어찌할고’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3절)

- ㉠** (1) 그것은 유다의 왕이 왕권을 잃고 국가는 비참한 상태에 있게 됨을 의미한다.
 (2) 즉 그 상태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한 유다의 시련을 의미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비참한 운명을 보시고 오히려 탄식하신다.
 (3)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그들이 당한 처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4) 이러한 하나님의 탄식에서 우리는 자신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연합이다(요일 4:10).

13. **㉠** 고위층의 관리들도 환난을 피할 수 없음이 어떻게 묘사되었는가? (14절)

- ㉠** (1) ‘손뼉을 쳐서 칼로 세 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 칼은 중상(重傷)케 하는 칼이라 밀실(密室)에 들어가서 대인(大人)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라고 묘사되었다.
 (2) 여기서 ‘세 번’이란 그 회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살륙 또는 환난의 강한 정도를 의미한다(9절).
 (3) 그리고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란 은밀한 중에 있는 고위층들에게도 살륙이 임하게 됨을 가리킨다(30:24).
 (4) 따라서 이 환난은 지위 고하(地位高下)를 막론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임하게 됨을 알 수 있다(12절).

14. **㉠** ‘칼’을 향한 명령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6절)

- ㉠** (1) 이 명령은 바벨론 군대의 살륙이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절정에 이른 상태를 의미한다.
 (2) 여기서 ‘우향(右向)하라’나 ‘좌향(左向)하라’는 말은 남(南)쪽이나 북(北)쪽으로 향하라는 지시로서 바벨론 군대의 이동에 대한 명령을 가리킨다(20:47).
 (3) 또한 ‘향하라’는 표현은 20:46과 본장 2절의 ‘얼굴을...로 향하라’는 표현과 같다.
 (4) 따라서 칼을 향한 명령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향한 살륙의 명령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또한 군대의 이동에 대한 명령에서 우리는 그 심판이 매우 철저함을 알 수 있다.

15. **㉠** 하나님께서 손뼉을 치신 이유는 무엇인가? (17절)

- ㉠** (1)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이다.
 (2) 이같이 손뼉을 치는 행위는 공포와 슬픔 그리고 분노를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보이는 행동이다(14절; 22:13; 민 24:10).
 (3)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진노는 그들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미움과 그들이 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다(20:8, 13, 17, 21).
 (4)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죄인들에 대한 정죄와 비판에 앞서(마 7:1, 2; 롬 2:1)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도록 훈계하며(마 3:2) 기도해야 한다(참조, 창 18:23; 스 9:6).

16. **㉠** 바벨론 군대의 유다 침공은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19, 20절)

- ㉠** (1)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에 대항한 연합군에 대한 정벌에 나선다.
 (2) 왜냐하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비롯하여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시돈의 왕들은 연

합군을 결성하여 바벨론에 반기를 들려 했기 때문이다(렘 27:3).

- (3) 팔레스틴 정벌에 나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과 암몬 족속의 랍바로 가는 길목에서 어느 쪽을 먼저 침공할지 몰라 점을 치게 된다(21절).
- (4) 이때 예루살렘 백성과 포로된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침공이 랍바를 향하리라고 믿었다.
- (5) 그러나 결국 느부갓네살은 유다 침공의 점괘(占卦)를 얻어 예루살렘을 치게 된다(22, 23절).

17. **㉠**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침공을 결정한 방법을 설명하라(21절).

- ㉠** (1) 그 방법은 점(占)을 치는 것으로 먼저 ‘살’[矢] 곧 화살에 예루살렘과 랍바의 이름을 적은 후 전통(箭筒)에 넣어 혼든 다음 하나를 뽑아 결정했다.
- (2) 또한 우상을 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 ‘우상’(히, 테라뎀)은 가정 수호신의 역할을 하면서(창 31:34, 35) 점술에도 사용되었다(참조, 슥 10:2).
- (3) 마지막으로 그는 제물(祭物)을 신(神)에게 바친 후 그 간(肝)의 색깔을 보고서 침공 방향을 결정했다. 그런데 이 방법은 그리스와 로마의 점괘(占卦) 방법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었다.
- (4) 이 같은 방법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침공을 결정했으나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사항이었다(2, 9, 14절).
- (5)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사(世上史)를 주관하심을 다시 깨닫게 된다.

18. **㉠**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헛점으로 여길 것’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23절)

- ㉠** (1) 예전에 바벨론에 충성하기로 맹세한 자들인 이스라엘은 느부갓네살이 점을 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엉터리라고 일축하였다.
- (2)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이 과거에도 배신한 사실을 기억하고(17:12, 15) 반드시 이스라엘을 쳐부술 것을 결심하였다.
- (3) 그런데 바벨론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신은 곧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유다를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으나 이스라엘은 그 징계에 대항했기 때문이다(왕하 24:20).
- (4)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항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을 멸시함이며 그분을 거역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참조, 잠 3:11, 12; 4:13; 5:23).

19. **㉠**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26, 27절)

- ㉠** (1)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면류관을 벗기시며 그들을 낮추고 마땅히 그 면류관을 얻을 자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 주신다.
- (2) 특히 이 사실은 사악한 시드기야 왕의 몰락을 지적한 것으로 결국 이것은 다윗 왕가의 몰락을 의미한다.
-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면류관을 ‘마땅히 얻을 자’인 메시아(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심으로써 다윗 왕가의 계승과 아울러 이스라엘의 영원한 회복을 약속하셨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 주신 재능과 직분을 충분히 활용하고 지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야 한다(벧전 4:10).

20. **㉠** 암몬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28-30절)

- ㉠** (1) 그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몰락을 보고 기뻐하였기 때문이다(참조, 25:3, 6; 슥 2:8; 애 1:2; 3:61).
- (2)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점술가들에 의한 잘못된 점(占)으로 안심하고 있었으나 결국은 살륙을 당한 유대인(중상을 당한 악인)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였다(36:15).
- (3) 한편 그들의 패망은 어떠한 방어와 시도로도 막을 수 없음이 ‘칼을 그 집에 꽂을지어

다' 라는 표현에 잘 나타나 있다.

- (4) 여기서 우리는 타인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초래하는지 잘 보았다. 그런데 이 같은 심성(心性)은 우리 인간 모두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비방에 대한 금지만으로는 그 심성을 고칠 수 없다.
- (5) 그러므로 우리 인간 모두는 자신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탁을 통해서 만이 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참조, 함 2:4; 빌 3:9).

화보자료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자. 13세기경 헬라어 성경에 나오는 이 삽화는 계 6:4 말씀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칼을 받고서 굳은 결의에 차 있는 기사의 모습이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그림은 현재 캄브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백성이 어그러진 길로 나아갈 때에는 도리어 불의한 자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책망하며 교훈하시기도 하신다(참조, 창 20장). 그러한 점에서는 불의한 자가 곧 하나님의 징계 도구인 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본장에는 바벨론이 유다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칼로 묘사되어 있다(1-23절).

제 22 장 유다 백성의 죄

단락구분 1-5 심판이 다가오다 / 6-12 유다의 죄악상(罪惡相)이 열거되다 / 13-16 열국(列國)에 흩어질 유다 / 17-22 유다가 찌끼와 같이 녹으리라 / 23-31 유다의 모든 백성이 죄를 짓다

1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 인자야 네가 국문하려느냐 이 피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가 증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3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로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4 내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까왔고 네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5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6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자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었도다
 7 그들이 네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네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8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9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산 위에서 제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음란한 자도 있었으며
 10 네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구합하는 자도 있었으며
 11 혹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혹은 그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네 가운데 혹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구합하였으며
 12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전과 이식을 취하였으며 이를 탐하여 이웃에게 토색하였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
 13 너의 불의를 행하여 이를 얻은 일과 네 가운데 피흘린 일을 인하여 내가 손뼉을 쳤나니
 14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건디겠느냐 네 손이 힘아 있을지느냐 나 여호와와 말이 되었으니 이룰지라
 15 내가 너를 열국 중에 흠으며 각 나라에 헤

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서 멸하리라
 16 네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17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18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끼가 되었나니 곧 풀무 가운데 있는 낫이나 상납이나 철이나 납이며 은의 찌끼로다
 19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찌끼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20 사람이 은이나 낫이나 철이나 납이나 상납이나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불을 붙어 녹이는 것같이 내가 노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라
 21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22 은이 풀무 가운데서 녹는 것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23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4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25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킵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채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26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27 그 가운데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의 이를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게
 28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술을 행하며 여호와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와 말씀이라 하였으며

29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누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거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30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멀리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31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멀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용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와 의 말이니라

1. **㉠ 본장의 예언은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는가?**

- ㉠** (1) 본장에는 유다 백성 전체의 죄악상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열방에 흩어질 것이며 풀무 속의 찌끼와 같이 녹아질 것이 예언되어 있다.
 (2) 특히 본장은 세 가지의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1-16절에는 예루살렘 백성의 죄악이 폭로되었고, 17-22절에서는 이스라엘(유다) 족속이 찌끼로 비유되어 은이 풀무 속에서 녹듯이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녹을 때 그들은 여호와와 분노를 알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었으며, 23-31절에는 유다 백성 전체의 죄가 고발되었다.
 (3) 따라서 본장에 나타난 예언의 목적은 유다 백성에게 그들의 죄와 그로 인해 그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을 알리는 데 있었다(2-4절).

2. **㉠ 에스겔은 하나님께 어떤 임무를 부여(附与) 받았는가? (2절)**

- ㉠** (1) 그는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알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2) 특히 예루살렘 성을 '피흘린 성읍'이라고 한 이유는 그곳에서 많은 살인 행위가 있었으며 포악한 지도자들이 많은 의인과 예언자들을 살해했기 때문이다(7:23; 11:6, 7).
 (3)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와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수 있게 되었다.

3. **㉠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3, 4절)**

- ㉠** (1) 그 이유는 그들이 피흘린 죄와 우상 숭배로 스스로를 더럽혔기 때문이다(5절).
 (2) 특히 그들은 성읍 한 가운데서 무법 천지(無法天地)와도 같이 살인과 폭력 그리고 불법 재판에 의한 살해가 난무(亂舞)하는 죄를 범하였다(참조, 마 23:37).
 (3) 그 뿐 아니라 그들은 우상을 섬김으로써 자신들에게 도리어 해를 끼쳤다. 그러므로 그 같은 행위는 자신들의 멸망의 날을 앞당기는 요인이 되었다.
 (4)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폭력과 불법 그리고 미신 행위가 성행하는데 이것은 말세(末世)의 징조로서 종말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處身)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살전 5:14-24).

4. **㉠ 죄를 지은 유다의 운명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4, 5절)**

- ㉠** (1) 유다는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만국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2)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이 모두 알 정도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만드실 것이다.
 (3)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5:6)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인보다 더 낮추어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5:8).
 (4)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자신이 저지르는 죄를 회개치 않으면 불신자들 앞에서 추한 꼴을 보이게 된다(참조, 마 5:13).

5. **㉠ 이스라엘 방백들의 죄는 무엇인가? (6절)**

- ㉠** (1) 백성의 지도자로서 백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그들은 도리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피흘리는 일에 앞장섰다.
 (2) 이처럼 한 시대나 정권의 말기에는 통치자들이 앞장서서 악을 행함으로써 국민을 고통 가운데 있게 하여 왔었다(삼상 2:22-25; 왕상 11:4-8; 12:8-10; 왕하 23:32; 24:4).

6. ㉠ 통치자들이 배운 악은 백성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7절)

- ㉠ (1) 통치자들의 죄악은 백성들로 하여금 부모를 업신여기며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학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 (2) 즉 이스라엘(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제 5 계명을 범하여(참조, 사3:5)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도리어 착취함으로써 무자비한 모습을 보였다.
-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객(客)으로 있던 시절을 기억하여 나그네를 돌보고(출 22:21; 레 19:34) 의지할 데 없는 고아와 과부에 대한 구제를 명하였다(출 22:22; 신 24:17; 26:12; 사 1:17).
- (4) 이와 같이 오늘날도 일반 국민들은 사회 지도층이나 부유한 자들을 닮아 가려는 충동에 의해 선악의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물량주의와 배금 사상(拜金思想)에 젖게 된다.
- (5) 따라서 교회는 이 같은 사회에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참조, 빌 2:15).

7. ㉠ 이스라엘(유다) 백성이 어떤 종류의 신성 모독(神性冒瀆)의 죄를 범하였는가? (8절)

- ㉠ (1) 그들은 하나님의 성물(聖物)들을 업신여겼으며 안식일을 더럽혔다.
- (2) 즉 그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우상에게 바치거나 다른 곳에 사용하였으며(출 22:20) 안식일을 지키는 대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였다(20:13).
- (3) 이 같은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자신의 백성과의 계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다(16:59).

8. ㉠ 이스라엘(유다) 백성의 음란한 행위에 대해 설명하라 (10, 11절).

- ㉠ (1) 그들은 계모와 그리고 이웃의 여자, 자매, 며느리, 월경하는 여자라도 성 관계(性關係)를 맺을 정도로 음란했다.
- (2) 이 같은 행위들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사형에 처할 범죄들이나(레 20:10, 11, 12, 17, 18) 그들은 이미 윤리나 도덕 그리고 율법마저도 저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다.
- (3)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았다. 즉 죄는 한 가지로만 머무를 수가 없어 또 다른 죄를 불러오며 결국은 죄를 짓는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독소가 된다(시 34:21; 잠 8:36; 약 1:15).

9. ㉠ 지도층의 죄악은 무엇인가? (12절)

- ㉠ (1) 지도층이나 상류 계층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세나 부(富)를 이용하여 조그만 이익을 위해 살인을 서슴지 않았다(참조, 신 27:25).
- (2) 또한 율법에는 동족에게 이자(利子)나 이식(利殖)을 위해서 돈을 꾸어 주지 말라 했으나(출 22:25; 레 25:37; 신 23:19; 시 15:5) 그들은 오히려 변전(邊錢)과 이식을 위해 동족을 착취했다.
- (3) 그 뿐 아니라 관직(官職)에 있는 자들은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의 물질을 빼앗아 갔다.
- (4) 그런데 이 같은 그들의 죄악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신 32:18; 렘 2:32).

10. ㉠ 죄를 범한 이스라엘(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무엇인가? (13-15절)

- ㉠ (1) 이스라엘은 '심판 날'에 하나님의 형벌을 견딜 수 없으며 하나님의 흠으심에 따라 열방에 흩어져서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이다.
- (2)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벌하심은 그들을 죄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려는 것과(15절) 그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보이시려는 의도에서였다(15절).
- (3)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심은 그 심판을 통해 우리를 정화(淨化)시키어

좀더 나은 인격과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목적과 악을 벌하시고 의로운 자에게 상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려는 의도에서이다(신 32:4; 시 82:3; 습 3:5).

11. **㉠** 이스라엘 족속은 무엇에 비유되었는가? (18절)

- ㉠** (1) 이스라엘 족속은 찌끼 곧 풀무 가운데 있는 낫이나 상납(주석) 그리고 철과 납이나 은의 찌끼에 비유되었다.
- (2) 이 '찌끼'는 문자적으로는 은과 섞여진 나쁜 광석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광석(銀鑛石)을 녹이면 빼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3) 이처럼 이스라엘이 '찌끼'로 비유된 이유는 그들이 순수한 광석과 같지 않고 더럽고 불순한 물질과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참조, 사 48:4).

12.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예루살렘에 모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19, 20절)

- ㉠** (1) 그것은 은광석을 녹여 은과 다른 광석을 분리해 내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 (2) 그런데 여기서 '예루살렘에 모으고'라는 표현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된 상태를 말한다.
-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풀무로 비유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족속으로 하여금 갈히게 하여 진노의 불, 즉 바벨론 군대의 맹렬한 공격을 받게 하시는 것이다.
- (4)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살리시고(참조, 21장 ㉠ 3) 악인은 멸하시는 선별(選別)의 심판을 펼치신다(사 1:22, 25; 렘 6:28).

13. **㉠** '찌끼' 곧 나쁜 광석은 이스라엘 족속이 어떠한가를 가리키는가? (19-22절)

- ㉠** (1) '낫'과 같다는 것은 그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철면피(鐵面皮)한 자들임을 지적한다(참조, 신 33:25; 사 48:4).
- (2) 또한 '상납', 즉 주석(朱錫)으로 비유된 이유는 속은 불의(不義)로 가득 찬 반면 겉은 경건을 가장하였기 때문이다.
- (3) 그리고 '철'은 그들의 잔인하고 호전적(好戰的)인 면을 묘사하며 '납'으로 비유된 것은 그들의 나약한 면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Matthew Henry).
-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훌륭한 정금(精金)으로 만드셔서 열방의 부러움을 사게 하셨다(왕상 10:14-29).
- (5) 따라서 '찌끼'와 같은 이스라엘의 처지를 볼 때 우리도 높고 편안한 처지에서 낮아질 수 있음을 생각하여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참조, 약 1:9, 10).
- (6)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 10:12)고 경고했다.

14. **㉠**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24절)

- ㉠** (1) 이는 그들에게 더러움이 가득하며 그들은 '심판의 날'에 어떤 축복이나 자비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 (2) 그런데 본절에 나타난 형벌의 이유는 25절 이하에서 제시되었다. 즉 선지자들(25절)과 제사장들(26절) 그리고 방백들(27절)과 평민들(29절)의 죄악으로 인한 이스라엘 족속 전체의 부패 때문이다(6-12절).

15. **㉠** 예루살렘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25절)

- ㉠** (1)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왜곡시켜 심판이 심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평화와 안전을 약속하였다(렘 28:1-4).
- (2) 또한 그들은 탐욕이 가득하여 물질을 찾아다님이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아 울부짖는 것과 같이 재물을 거둬들이기에 바빴다(습 3:3).

- (3) 그 뿐 아니라 그들은 많은 사람을 악의 길로 인도하여 죄를 짓게 함으로써 악인으로 만들었다(참조, 마 23:13).
- (4) 특히 그들은 자신들의 예언을 믿지 않는 자들을 죽임으로써 많은 과부가 있게 하였다(슌 3:4).
- (5) 한편 어떤 학자는(Hitzig) 본절에 나타난 선지자들을 27절의 방백들과 같은 자들로 보는데 이는 슌 3:3, 4에 언급된 내용과 본장의 내용들이 유사한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16. ㉠ 제사장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말하라 (26절).

- ㉠ (1) 그들은 자신들은 물론 백성들이 제사 의무를 이행치 않아도 아무 제재(制裁)를 가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다.
- (2) 또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레 10:10, 11) 안식일에 관심이 없어 백성이 안식일을 범하여도 꾸짖지 않았다(참조, 렘 17:22, 24, 27; 말 2:8).
- (3)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같은 죄악으로 인해 영광과 존귀에 손상을 입으셨다(참조, 레 10:1; 삼상 2:17; 6:19).

17. ㉠ ‘방백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27절)

- ㉠ (1) 6절에서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네쉬에>라고 표기한 반면 본절에서는 <사레이하>로 표기하고 있다.
- (2) 이 <사레이하>라는 말은 히브리어 <사르>에서 온 말로 ‘ 지배자’나 ‘지도자’를 가리키는 가장 일반적인 말이다(참조, 왕상 20:15; 렘 34:19).
- (3) 한편 6절의 <네쉬에>란 말은 <나시이>에서 파생된 말로 이스라엘의 ‘부족장’, ‘가장’(家長) 그리고 ‘장손’(長孫)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 말이다(출 16:22; 레 4:22).
- (4) 그런데 에스겔이 지도자들에게 이 같은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그들이 많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찮은 존재로 여긴 데 있다(참조, 왕상 21:1-29).
- (5) 또한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이들의 죄를 정당화시킴으로써 악을 행하는 일에 이들과 동행하였다(미 3:1, 2).
- (6) 이처럼 이 세상의 거짓된 무리들은 서로 짝하여 죄를 짓기에 바빠 다니지만 이에 대해 우리 성도들은 이들 어둠의 자식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복음의 빛을 발해야겠다(참조, 요 13:15; 롬 12:2; 살전 5:14).

18. ㉠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한 죄악은 무엇인가? (29절)

- ㉠ (1) 종교와 정치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백성의 지도자들의 타락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행위를 보고 그대로 따르게 하였다.
- (2) 즉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가난한 자와 이방인을 압제하는 죄를 범하였다(출 22:20; 신 24:17).
- (3) 이처럼 국민의 편의를 위해 봉사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국민을 압제할 경우 그 지도 체제는 조만간 하나님과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참조, 신 27:19; 사 3:14).

19. ㉠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 기대하신 것은 무엇인가? (30, 31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자신의 백성을 위해 간구하는 의인이 있기를 바라셨다.
- (2) 왜냐하면 이스라엘(유다)은 백성 전체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간구했듯이 이스라엘을 위해 간구하는 의인을 찾으셨기 때문이다(사 59:16).
- (3) 그러나 단 한 명의 의인도 발견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내리셨다(렘 13:5; 렘 5:1).
- (4) 그러므로 오늘날의 성도들은 썩어져 가는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세상의 악을 몰아내

기 위한 영적 싸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참조, 엠 6:10-17; 딤편 1:18; 약 4:7).

연구자료

에스겔서에 대한 제(諸) 비평과 그 정경성(正經性)

히브리어 정경이 형성된 지 얼마되지 아니하여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본서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그 정경성을 의심받아 왔다. 이와 같은 의심은 샴마이(Shammai)와 힐렐(Hillel)이라는 유명한 두 랍비가 활동하던 B.C. 1세기 초엽에 최초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의심을 품은 자들은 본서가 몇 가지 점에 있어서 모세 오경과 상충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마침내 본서를 안티레고메나(Antilegomena, '문제의 책'이란 뜻)에 포함시켜 버렸다. 그러나 당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본서가 정경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 당시의 당면 문제는 본서를 예배 의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중(公衆) 앞에서 봉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이처럼 유대인들간에서 논란을 일으킨 주요 부분은 40-48장인데 여기에 나오는 성전 구조 및 제사 의식이 예루살렘 성전 및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제도와 몇 가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큰 논쟁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변호할 수 있다. 40-48장의 내용은 회복된 모세주의(Mosaism)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과 관련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언급이다. 그러므로 새롭게 제정되는 제도와 이전의 제도 간의 차이점이 본서의 정경성을 의심할 수 있는 요인은 되지 못한다.

그런데 17세기에 이르러서는 베네딕트 스피노자(Benedict Spinoza)가 나타나 '현재의 에스겔서는 본래의 에스겔서 대부분이 분실된 후 그 남은 것이 와전(訛傳)된 형태로 전해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18세기의 외더(G. L. Oeder)는 에스겔서가 두 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중 1-39장이 담겨 있는 첫 권만이 선지자 에스겔이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19세기의 레오폴드 쥘즈(Leopold Zunz)는 본서 전체를 의심스러운 것으로 보았으며 1930년에 토레이(Charles C. Torrey)는 에스겔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것에 대하여 비평하였다.

하지만 이상과 같은 제 비평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역사성과 정경성은 계속되는 고고학적 발굴로 인하여 보다 확고히 지지되고 있다. 토레이와 그의 학파는 본서의 역사성을 의심하였지만 바벨론에서 발굴된 여러 비명(碑銘)과 목록들은 그 같은 의심을 한낱 기우(杞憂)에 불과한 것으로 돌려 놓고 말았다. 따라서 우리에게 본서의 정경성에 대하여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제 23 장 부정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단락구분 1-4 오홀리와 오홀리바 자매 / 5-10 행음하던 사마리아가 형벌을 받다 / 11-21 유다의 행음 / 22-35 유다의 타락과 형벌 / 36-45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동일한 음행을 저지르다 / 46-49 오홀리와 오홀리바에 심판이 내리다

1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3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놀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었나니
 4 그 이름이 형은 오홀리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리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5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 앗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6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준수한 소년, 말 타는 자들이라
 7 그가 앗수르 중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혔으며
 8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하매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며 그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마지 아니하였느니라
 9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 정든 자 곧 그 연애하는 앗수르 사람의 손에 붙였더니
 10 그들이 그 하체를 드러내고 그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그 누명을 여자에게 드러내었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문을 행함이나
 11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하므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였느니라
 12 그가 그 이웃 앗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소년이었느니라
 13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하므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14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 것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나
 15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싸으며 용모는 다 존귀한 자 곧 그 고토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16 그가 보고 곧 연애하여 사자를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17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란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18 그가 이와 같이 그 음행을 나타내며 그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19 그가 그 음행을 더하여 그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음행하던 때를 생각하고
 20 그 하체는 나귀 같고 그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연애하였도다
 21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진 바 되었던 것을 오히려 생각하도다
 22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가 너의 연애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격동시켜서 그들로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23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브긱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 한 모든 앗수르 사람 곧 준수한 소년이며 다 방백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 다 말 타는 자들이라
 24 그들이 병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에워쌀지라 내가 심문권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 심문권대로 너를 심문하리라
 25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발하리니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행하여 네 코와 귀를 깎아 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엮드러뜨리며 네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26 또 네 옷을 벗기며 네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27 이와 같이 내가 네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음행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28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가 너의 미워하는 자와 네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불이리니

29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네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겨 적신으로 두어서 네 음행의 빛은 몸 끝 네 음란하며 음행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다

30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히 이방을 좃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음이다

31 내가 네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네 손에 주리라

32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네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비소와 조롱을 당하리라

33 내가 네 형 사마리아의 잔 끝 놀랍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34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네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씀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35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네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36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국문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고하라

37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 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38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39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당일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며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40 또 사자를 원방에 보내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41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베풀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42 그 무리와 편히 지끼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쇠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43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44 그들이 그에게 나아오기환 기생에게 나아 음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아왔은즉

45 의인의 음부를 심문함같이 심문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심문함같이 심문하리니 그들은 음부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니라

46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치게 하여 그들로 학대와 약탈을 당하게 하리니

47 그 군대가 그들을 들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48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경성하여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49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여던 죄를 담당할지라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1. ㉠ 본장의 비유를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16장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배교(背教) 하는 모습이 음란한 여인으로 비유되어 있고 그에 따른 형벌이 기록되어 있다.
- (2) 즉 사마리아(이스라엘)와 유다(예루살렘)가 자신들보다 강하고 문명이 발달된 애굽, 앗수르, 바벨론을 의지한 역사적 사건이 두 여인(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음란한 행실에 비유되어 있다.
- (3) 특히 예루살렘은 사마리아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것을 보고서도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11절).
- (4)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가 의지하던 앗수르에게 멸망당했듯이 예루살렘도 자신들이 흠모(欽慕)하던 바벨론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하셨다.
- (5)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은 영적 간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여러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신앙의 순수함을 지속시켜야 한다(신 5:8; 욥 31:1).

2. ㉠ ‘한 어머니의 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2절)

- ㉠ (1)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본래 연합된 백성이었음을 의미한다.
- (2) 여기서 ‘한 어머니의 딸’을 가리키는 본절의 ‘두 여인’은 4절에 나오는 오홀라(사마리아)

아)와 오홀리바(예루살렘)를 가리킨다(4절).

(3) 그런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대표하는 이름이며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두 지파를 지칭한다.

3. **㉠** 두 여인이 애굽에서 행음한 사실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3절)

㉠ (1) 그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우상 숭배한 사실을 가리킨다(참조, 20:7, 8).

(2) 여기서 '어렸을 때'란 그 민족의 형성 초기를 의미하는 말이다(16:4, 5).

(3) 이와 같이 과거에도 그들은 자신들을 압박하는 민족의 종교를 섬길 정도로 부패해 있었다(참조, 출32:4).

4. **㉠** 두 여인의 이름은 무엇인가? (4절)

㉠ (1) 두 여인 중 언니의 이름은 오홀라이며 동생의 이름은 오홀리바이다.

(2) 그런데 '오홀라'는 '그녀의 장막', 즉 '그녀 안에 있는 그녀의 장막'이란 뜻이며 여기서 '장막'이란 성소(성막과 성전)를 가리킨다.

(3) 따라서 이 이름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지 않은 자신의 성소에서 우상을 섬긴 사실을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왕상 12:28-33).

(4) 한편 '오홀리바'는 '그녀 안에 있는 나의 장막'이란 뜻으로 이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자신의 성소를 세우신 사람을 의미하는 명칭이라 할 수 있다(창 36:18).

(5) 그리고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을 '형'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 먼저 패망한 사실과 사마리아가 보다 넓은 지파와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Matthew Henry).

5. **㉠** '오홀라'가 지은 죄는 무엇인가? (5절)

㉠ (1) '오홀라'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앗수르를 의지하는 죄를 지었다.

(2) 이 사실은 사마리아가 하나님보다 앗수르를 더 믿어 그들의 종교를 따르며 정치적으로 그들을 의존하였음을 가리킨다(왕하 15:19; 16:7, 9; 17:3; 호 8:9).

(3) 즉 사마리아는 강대한 국가와 정치적 동맹을 맺고 그들과 교류가 잦아짐에 따라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는 죄를 저질렀다.

6. **㉠** 앗수르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6, 7절)

㉠ (1) 그들은 모두 자색 옷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며 준수(俊秀)한 소년, 말 타는 자들이었다.

(2) 이것은 그 나라의 화려함과 군사력의 강대함을 표현한 말로서 이에 미혹된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권세를 따르게 되었다.

(3) 여기서 '방백'(히, 파호트)과 '감독'(히, 세가님)은 '통치자' 또는 '사령관'을 의미하며 '말 타는 자'는 나귀나 낙타를 타는 자들과 비교해서 귀인을 나타내는 말이다(참조, 사 21:7; 렘 2:57).

(4) 이처럼 우리 주위에도 돈과 사치 그리고 권세를 좇아다니는 자들이 많은데 그 행위는 곧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우위에 두고 우상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같은 행위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비교, 막 10:29, 30).

7. **㉠** 애굽과 음란한 관계를 맺은 사마리아의 죄는 무엇인가? (8절)

㉠ (1) 사마리아는 애굽에 있던 당시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잊지 못하고 계속 그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였다(20:7).

(2) 그에 앞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은 민족 형성 초기에 자신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배반하고 애굽의 우상을 섬김에 따라 그들의 가증스런 행위를 배우게 되었다(참조, 출 32:41).

(3) 이와 같이 우리들도 어렸을 때 형성된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삶을 어렵게 사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잘못된 행실이나 사상에 몰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살전 5:22).

8. **㉠ '사마리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무엇인가? (9, 10절)**

- ㉠ (1)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그들이 의지하던 앗수르의 손에 붙여 그들의 왕국을 파괴하고 자식들을 노예로 끌려가게 하셨다.
- (2) 또한 이 사실이 열방들에 알려져서 사마리아는 자신의 수치를 세상에 드러내게 되었다.
- (3) 한편 '그 누명(陋名)을 여자에게 드러내었나니'라는 뜻은 '그녀가 여인들 사이에 이름이 났다'라는 의미로 사마리아가 형벌을 받는 것이 열방에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5:8).
- (4)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성도들도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과 믿는 형제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된다(참조, 고후 2:15, 16).

9. **㉠ 동생 '오홀리바'의 행실은 어떠했는가? (11, 12절)**

- ㉠ (1) '오홀리바'는 '오홀라'보다 더 악하고 부패하였다.
- (2) 왜냐하면 '오홀라', 즉 예루살렘은 사마리아가 하나님께 패역하여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사마리아보다 더 악한 행실을 보였기 때문이다.
- (3) 즉 그들은 앗수르(사 7:1-25) 뿐만 아니라 바벨론(왕하 24:1)과도 동맹 관계를 맺었으나 바벨론을 배신하고 새로이 애굽(사 30, 31 장)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더 사악한 면을 보였다.

10. **㉠ '오홀리바'가 자신의 언니보다 더 많은 음행을 저지른 이유는 무엇인가? (14, 15절)**

- ㉠ (1) 붉은 것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기 때문이다.
- (2) 그런데 이 그림은 바벨론 군대의 전쟁 장면을 그린 조각이나 승전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Keil, Hengstenberg).
- (3) 따라서 이 그림을 본 유다의 지도자들이 곧 바벨론을 의지하려는 생각을 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4) 한편 그림에 나타난 그들의 형상은 허리를 띠고 동이고 머리에는 터번을 쓴 모습이었다. 한편 여기서 '그 고토'라 한 것은 곧 갈대아 우르를 지칭하는 것이다(창 11:28).
- (5) 그 이유는 아마도 자신들이 앗수르와의 동맹을 깨고 새로이 바벨론과 관계를 맺는 근거를 동족의 혈연 관계에서 찾으려는 의도인 듯하다(Hengstenberg).
- (6) 이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믿을 대상을 찾아 여기저기를 헤매나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은 아무데도 없다. 오직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만 안정을 얻을 수 있다(요 14:27).

11. **㉠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본 유다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16, 17절)**

- ㉠ (1) 그들은 곧 사자를 바벨론(갈대아)에 보내어 바벨론 사람들과 정치적 동맹을 맺었다(렘 29:3).
- (2) 그런데 이 같은 정치적 동맹은 곧 종교적 부패를 가져왔으며 정치적, 종교적으로 부패한 유다는 애굽의 아프리에스(B. C. 588-569)가 왕위에 오른 것을 계기로 바벨론을 배신하고 친애굽 정책을 폈다(B. C. 588, 왕하 24:20).
- (3) 여기서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라는 말은 바벨론과 여러 교류를 하는 가운데 그들의 문물과 종교의 영향을 입어 사치스러운 생활과 우상 숭배에 빠진 상태를 말한다.
- (4) 이와 같이 아무리 신앙이 견고한 자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에 빠져 그 생활을 오래 한다면 그도 부패해져서 회복되기가 힘들 것이다.

12. **㉠ 바벨론을 배신한 유다는 어느 나라와 동맹을 맺었는가? (19-21절)**

- ㉠ (1) 바벨론과 관계를 끊은 유다는 애굽과 새로운 동맹을 맺었다.

- (2) 즉 그들은 바벨론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굽과 친하게 된 것이다(렘 27:1-22).
- (3) 이 같은 그들의 행위는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려는 행동으로 이것은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을 다시 의지하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 (4) 따라서 그들의 이 같은 행동은 아직도 자신들의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단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해 하는 데서 나온 것이다(참조, 렘 2:18; 37:7).
- (5)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세상의 어느 무엇으로도 평안을 이룰 수 없으며, 하나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또 다른 불완전한 것에 의지하지만 역시 만족을 찾을 수 없다(전 1:2, 3; 12:13, 14).

13. **㉠** 바벨론은 자신들을 배반한 유다에 대해 어떻게 대했는가? (22-26절)

- ㉠** (1) 그들은 많은 군대와 병기를 이끌고 와서 유다를 공격하였다. 이때 유다는 많은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재물은 모두 빼앗겼다.
- (2) 그런데 바벨론 군대 가운데 브곳과 소아와 고아 사람은 갈대아인들에 속한 세 지파를 의미하며(Ewald), 앗수르 사람은 바벨론 제국의 동쪽 지역에 자리잡은 자들을 가리키는 데 그들은 예전에 그 제국을 지배하던 자들이었다.
- (3) 한편 '내가 심문권을 그들에게 맡긴즉'이라는 귀절에서 우리는 이 바벨론의 침공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침공은 유다의 죄를 징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 행위인 것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배반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음은 물론 자신이 믿던 모든 것으로부터도 배반을 당하게 된다(참조, 창 3:14-19).

14. **㉠** 오홀리바 곧 유다의 패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27-35절)

- ㉠** (1) 유다는 패망을 통해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음은 물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 (2) 그러나 그들의 패망은 자신들이 이전에 행한 비겁한 행위 곧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을 의지한 행위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조롱을 샀다.
- (3) 또한 그들은 놀람과 패망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여기서 '잔을 기울여 마시고'란 의미는 그들이 슬픔과 고통으로 미칠 지경에 이른 상태를 말한다(참조, 시 75:8; 사 51:17; 렘 13:13).
- (4)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을 때는 이 같은 고통이 찾아올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죄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참조, 롬 6:12; 고전 15:34; 벧전 2:11).

15. **㉠** 유다 백성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8, 39절)

- ㉠** (1)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물룩에게 바친 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 경배한 사실을 가리킨다.
- (2) 즉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물룩을 동일한 위치에 두고 숭배했던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몰랐으며 패역했는가를 가르쳐 주는 실례이다(16: 20, 21, 36; 23: 37; 렘 23:11).
- (3)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신앙의 출발이며 신앙의 완성을 위해 나아가는 길의 지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잠 1:7; 9:10, 11; 호 6:3).

16. **㉠** '하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베풀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에서 우리가

㉠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41절)

- (1) 이것은 유다가 이방의 사신(使臣)이나 상인들과 교류하여 정치적 동맹이나 무역 거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2) 즉 유다는 이방과의 동맹을 통해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바벨론이나 애굽과 같은 강대국을 의지하였으며 이방의 종교와 문화를 들여와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숭배를 더럽혔다.
- (3) 더우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향과 기름을 이방의 사신들을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하였다(참조, 16:18; 호 2:9).
- (4)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건강, 부(富) 등을 자신의 쾌락과 이익을 위해 사용함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소유한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다(마 6:19, 20; 13:44; 25:34-40).

17. **㉠** 이스라엘과 유다의 행실은 어떠했는가? (43, 44절)

- ㉠** (1) 그들은 마치 기생과도 같아서 이방의 모든 나라들과 교류하였으며 그 일로 인해 그들의 국력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같은 일을 자행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 (2)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보다 앗수르, 바벨론, 애굽 등과 같은 강대국을 더 의지하여 그들 사이에서 방황하는 동안 국력은 쇠하고 국민들은 타락의 길을 걸었던 역사를 지적한다(참조, 왕하 17:3-6; 24:1, 20).
- (3) 이 같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은 곧 무지하고 연약한 인간 모두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호 14:2; 욥 2:12; 눅 15:11-32; 행 3:19).

18. **㉠** 이스라엘과 유다의 패망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는가? (48, 49절)

- ㉠** (1) 이들의 패망은 당시의 여러 나라들에게 하나님께 범죄한 자가 받는 심판이 어떠한지를 보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같은 교훈을 주고 있다(렘 6:23).
- (2) 또한 그들이 당하는 징계는 곧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됨을 가르쳐 준다(암 9:2).
- (3) 더우기 그 패망은 우리들이 잊기 쉬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잘 말해 주고 있다(시 93편).

본장의 요절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경성(警戒)하여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48절).



제 24 장 예루살렘의 멸망이

끓는 가마에 비유되다

단락구분 1-2 날짜를 기입하라는 명령을 받다 / 3-5 예루살렘 포위를 상징하는 끓는 가마 / 6-14 가마의 비유와 해석 / 15-24 에스겔 선지자 아내의 죽음을 통한 예루살렘 멸망의 극적 표현 / 25-27 에스겔의 행동이 멸망의 표징이 되다

1 제 구 년 시 월 십 일에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접근하였느니라

3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4-5 건 후에 물을 붓고 양 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과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6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의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똥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7 그 피가 가운데 있음이여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말간 반석 위에 두었도다

8 내가 그 피를 말간 반석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함은 분노를 발하여 보응하려 함이로라

9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10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즐기고 그 뼈를 태우고

11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못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12 이 성읍이 수고하므로 스스로 곧비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13 너의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이라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내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14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룰지라 내가 들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심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15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16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17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뚫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18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19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20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1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 둔 자녀를 칼에 엮드리게 할지라

22 너희가 에스겔의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우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23 수건으로 머리를 뚫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쇠퇴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24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25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의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의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

26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네게 나아와서 네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27 그날에 네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

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 ㉠ 본장의 비유와 징조를 설명하라.

㉠ (1) 본장은 본서의 전환점이 되는 장으로서 본서의 전반부(前半部)에 나타난 심판의 예언이 현실로 나타나는 부분이다.

(2) 한편 본장에 언급된 시기는 예루살렘이 포위된 B. C. 588년 1월경인데 본장에는 그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이 끊는 가마에 비유되어 있다.

(3)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내의 죽음을 애통하지 않음으로써 예루살렘에 닥칠 멸망이 절망적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도록 명령받았다.

(4)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하나는 비록 형벌이 가혹할지라도 죄는 그 뿌리 채 뽑아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말씀을 받는 자는 어떤 회생이라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고후 6:4-10).

2. ㉠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한 ‘제 구 년 시 월 십 일’은 언제인가? (1절)

㉠ (1) 그날은 여호야긴 왕(B. C. 597)이 바벨론에 끌려간 지 9년 10개월 10일이 된 날이다.
 (2) 또한 이날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당하던 해인 B. C. 588년 1월 15일에 해당한다(왕하 25:1; 렘 52:4).

3. ㉠ 하나님께서 날짜를 기록하라고 명하신 날은 언제인가? (2절)

㉠ (1) 그날은 바로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된 날이다.
 (2)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이 포위된 사실을 기록하여 그날 강가의 유대 포로들에게 알릴 것을 명하셨다.
 (3) 이것은 예루살렘과 유대 포로들이 헛된 소망을 가진 데 대한 현실적 증거를 제시하라는 것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이 단지 바벨론 군대의 무력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간섭에 의해 이루어짐을 보이는 것이다.
 (4) 한편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치욕적인 이날을 금식일로 선포하여 지켰다(슌 8:19).

4. ㉠ 포위된 예루살렘 성은 무엇에 비유되었는가? (3절)

㉠ (1) 끊는 가마에 비유되었으며 예루살렘 백성은 그 안의 고기와 뼈에 비유되었다.
 (2) 이 비유는 이미 11:3에서 유대인들이 잘못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안전을 주장한 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의미를 바르게 가르쳐 주셨다(11:7).
 (3)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비유의 올바른 해석의 실체를 보여 주시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로 다시 가마의 비유를 드신 것이다(14절).

5. ㉠ 가마의 비유에 대해 설명하라(4, 5절).

㉠ (1) 여기서 가마 속의 내용물인 ‘양 떼에서 고른 것’과 ‘모든 좋은 덩이’ 그리고 ‘고른 뼈’란 이스라엘의 왕과 왕족 그리고 재능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11:3, 11; 삼상 2:13-17).
 (2) 그리고 가마를 끊이는 불은 전쟁의 불, 즉 바벨론 군대의 강력한 포위 공격을 의미한다(20:47; 21:31).
 (3) 또한 가마 속의 ‘고기와 뼈’인 예루살렘의 중요 인물들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이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라는 표현으로 묘사되어 있다(렘 39:9, 10).

6. ㉠ ‘늙은 가마’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6절)

㉠ (1) 이것은 예루살렘이 그 백성의 죄로 인해 더럽혀진 상태를 말한다.

- (2) 따라서 예루살렘은 자신들의 죄를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심판을 받는 것이다.
- (3) 그리고 그 환난 속에서 그들의 운명은 모두가 죽거나 사로잡혀 가는 처지에 놓인다. 따라서 요인(要人)들이라 하여 특별히 제외될 수는 없다(5:12; 삼하 8:2; 욥 3:3).
- (4)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들이 특권층이 되기를 바라고 세상의 환난에서 자신들은 제외되기를 바라지만 공동 운명체 안에서의 공통된 기쁨과 슬픔을 느끼는 삶을 사는 것은 오히려 소외된 특권층보다 더 참다운 기쁨을 누리며 산다고 할 수 있다.

7. **㉠ 예루살렘 패망의 원인은 무엇인가? (7, 8절)**

- ㉠** (1) 여러 가지 패망의 원인 가운데서 본절에서는 그들이 피흘린 죄를 말하고 있다.
- (2) 예루살렘 사람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고서도 자신들의 죄를 두려운 줄 모르고 회개나 속죄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레 17:13; 신 12:16).
-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죄를 마치 피를 말간 반석 위에 두고 덮지 않음과 같이 그대로 드러내어 그들로 하여금 죄의 대가를 받게 하셨다(22:2).

8. **㉠ 죄를 지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은 어느 정도인가? (9-11절)**

- ㉠** (1)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고기를 삶고 뼈를 태운 후에 가마가 빈 다음에는 가마의 못을 달궈 그 속의 녹을 제하여 버리실 정도였다.
- (2) 즉 이것은 바벨론 군대의 맹렬한 포위 공격으로 예루살렘 백성은 철저히 살육되고 그 후에도 계속되는 형벌로 인해 예루살렘의 죄악이 벗겨지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22:15; 사 30:33).
- (3)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정화(淨化) 하심은 그 뿌리를 뽑을 정도로 철저히 해서 다시는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않도록 만드신다.

9. **㉠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철저한 형벌을 내리신 이유는 무엇인가? (12절)**

- ㉠** (1)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부드러운 방법, 즉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방법을 사용하여 그들이 깨닫게하기를 바라셨으나 여전히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철저히 징계하셨다.
- (2) 따라서 본절은 9-11절까지 묘사된 형벌의 이유가 된다.

10. **㉠ 예루살렘 백성의 사악한 면을 설명하라 (13, 14절).**

- ㉠** (1) 그들의 음란 곧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더러운 죄는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
- (2) 여기서 '음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지마>는 고의적인 범죄를 지시하는 말인데 대개는 악한 의미로 사용되며 '생각하다', '의도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자맘>에서 유래되었다.
- (3) 따라서 이들의 죄악은 고의적이었으며 자신들의 행위를 떳떳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4)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방 열국을 시키셔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이 같은 징계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데 대한 보용이라는 사실을 알리시려는 의도를 갖고 계셨다(5:11; 민 23:19; 삼상 15:29).

11. **㉠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서 빼앗으실 것은 무엇인가? (16절)**

- ㉠** (1) 그것은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것이다.
- (2) 여기서 '기뻐하는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마드>는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는 것을 의미하며 안목의 정욕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왕상 20:6).
- (3) 또한 '치다' (히, 마게파)는 말은 히브리어 <나가프>에서 유래한 말로서 갑작스런 죽음을 의미한다.
- (4) 따라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서 빼앗으실 것은 그가 사랑하는 아내(18절)이며 이 사건은 21절에서 예루살렘 멸망을 상징한다.

12. **㉠**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금하신 것은 무엇인가? (17절)

- ㉠** (1) 아내의 죽음에 대한 슬픈 감정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을 금하셨다.
 (2) 왜냐하면 이 같은 죽음이 얼마 후에는 보편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7:11).
 (3) 또한 이 같은 자신의 행동이 예루살렘 멸망 때 모든 사람들이 보일 모습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바벨론의 유다 포로들에게 징조가 되도록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셨다(19, 21-24절).
 (4) 이처럼 오늘날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여러 가지 징조로써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눈과 귀가 어두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
 (5)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맑은 마음과 정결한 눈 그리고 뚫린 귀로 이 징조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13. **㉠** 이스라엘에서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를 설명하라(17절).

- ㉠** (1)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는 행위는 일반적인 표현이며 머리 장식을 풀고(사61:3) 머리에 재나 먼지를 뿌리는 것은 개인적인 비극(삼하1:2;13:19)과 국가적인 재앙(수7:6;삼하15:32)과 관련이 있었다.
 (2) 또한 그들은 ‘쭈은 베’라고 불리는 검정색의 옷을 입고 애곡하는데 그때는 일체의 장식을 제거하였으며(출33:4) 맨발로 다니기도 하였다(삼하15:30). 한편 그들은 슬픔과 의분 그리고 경건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그 옷을 찢었다(창37:29;삼하3:31;스9:3;마26:25).
 (3) 그러나 애곡 의식에 있어서 금지된 행위도 있었는데 곧 몸에 상처를 가한다든가 또는 머리카락이나 털을 면도로 밀어 버리는 행위이다(레19:28;신14:1;렘16:6). 그런데 이러한 의식은 주변의 이방인들의 풍습이 전래된 것이었다.

14. **㉠** 자신의 아내를 잃은 에스겔은 어떤 행동을 보였는가? (17, 18절)

- ㉠** (1) 그는 슬퍼하지 않고 조용히 탄식할 뿐이었으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않았고 부의(賻儀)하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2) 이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17절)을 따르는 행위로서 저녁에 자신의 아내가 죽은 후에 나타내 보였다.
 (3) 여기서 ‘부의(賻儀)하는 식물’이란 사람이 죽었을 때 이웃에서 초상집에 보내는 음식을 말한다.
 (4) 이것은 그들의 동정을 표시하고 슬퍼하는 자를 위안하기 위해 보내졌다(신26:14;렘16:4;호9:7).

15. **㉠** 아내가 죽었을 때 보인 에스겔의 행동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8절)

- ㉠** (1) 그는 자신의 슬픔을 자제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다.
 (2) 그 뿐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백성에게 앞으로 있을 국민적 슬픔에 대한 본을 보여 주었다.
 (3) 이와 같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개인적 슬픔마저도 참아야 했다.
 (4) 이처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 택함을 입은 자들은 자신의 삶을 희생해 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참조, 마6:10, 33).

16. **㉠** 에스겔의 행동을 본 백성은 어떤 행동을 나타냈는가? (19절)

- ㉠** (1) 그들은 에스겔의 행동에서 이상함을 느끼고 그 행동이 자신들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2) 패역하고 마음이 완악한 백성이라도 이같이 일반 관습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데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4:12;12:9).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그들의 죄로 인해 형벌을 받는 것을 안타까와 하시면서 그들의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녹이려 하셨다(2:4, 6).

17. **㉠** 에스겔 아내의 죽음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21-24절)

- ㉠** (1) 그것은 이스라엘(유다) 백성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할 것과 그들의 버려 둔 자녀가 칼에 죽임을 당할 사건을 상징한다.
- (2) 이스라엘 백성은 성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소를 이방인에게 넘겨 주지 않으시리라 생각하여 성소와 예루살렘 그리고 그곳에 거하는 자신들이 보호를 받으리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다(렘 7:4).
-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바벨론 군대의 말발굽 아래 밟히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헛된 소망이 사라짐은 물론 포로로 끌려갈 때(B. C. 597, 왕하 24:14) 두고 간 자녀들마저도 바벨론 군대에 의해 학살을 당하게 하셨다(7:21; 23:47; 대하 36:17).
- (4) 이 같은 고통을 당하고서도 그들은 슬픔을 겉으로 표현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운명에 처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단지 서로 바라보고 탄식할 뿐이었다(16, 17절).
- (5) 그러므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멋대로 생각하여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키는 우(愚)를 범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18. **㉠** 예루살렘 패망으로 인해 백성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23, 24절)

- ㉠** (1)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며 회개와 속죄를 통해 새 생활을 하게 된다. 또한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것이다.
- (2) 그들은 에스겔이 자신의 슬픔을 억제하였던 것과 같은 행동을 스스로 나타냄으로써 에스겔의 예언과 그를 보낸 하나님을 그제서야 인정할 것이다(4:3; 6:7).

19. **㉠** 에스겔의 입이 열려 말을 하게 될 날은 언제인가? (25, 26절)

- ㉠** (1)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의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의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이다.
- (2) 또한 그날은 예루살렘 성의 함락 당시 도망한 자가 에스겔에게 와서 소식을 전할 날이기도 하다.
- (3)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의 기뻐하는 것'은 곧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킨다(21절).

20. **㉠** 에스겔의 입이 열릴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27절)

- ㉠** (1) 에스겔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새롭게 시작할 때 입을 열어 말하였다(33장).
- (2) 이제까지 에스겔은 침묵을 지키면서(3:26, 27) 단지 상징과 비유로써 하나님의 계시를 포로된 자신의 백성에게 전하였다(4, 12, 15, 17, 18, 23장).
- (3) 그런데 이제까지 에스겔의 상징적 행동은 패역한 예루살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여 임박한 심판을 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 (4) 또한 포로된 백성들에게는 헛된 소망과 이상 승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써 새 삶을 살도록 하려는 의도에서였다.
- (5)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시기 위해 그의 입을 열릴 것이다.
- (6) 그 새로운 계시는 전반부(前半部)와는 달리 이스라엘을 조롱한 이방을 향한 심판과 이스라엘을 향한 자비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
- (7)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이 말씀을 듣는 그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다.

제 25 장 이방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예언

단락구분 1-7 임몬에 심판이 예언되다 / 8-11 모압에 선포된 심판의 예언 / 12-14 에돔에 심판이 선포되다 / 15-17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1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3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와 말씀을 들을지이다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에 네가 그것을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에 네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4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리니 그들이 네 가운데 진을 치며 네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네 실과를 먹으며 네 젖을 마실지라

5 내가 랍바로 약대의 우리를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으로 양 무리의 늪은 곳을 삼은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6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밭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7 그런즉 내가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붙여 노락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 버리며 너를 열국 중에서 패망케 하여 멸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8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하도다

9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변

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벨여시못과 바알므온과 기라다임을 열고

10 암몬 족속 일반으로 동방 사람에게 붙여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으로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11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2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13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데만에서부터 황무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리지리라

14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빙자하여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

15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코자 하였도다

16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17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1. ㉠ 본장의 예언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때와 그 이후에도 계속 유다를 괴롭힌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다.
- (2) 한편 본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이사야(사 13-23장)와 예레미야(렘 46-51장)가 예언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멸시킨 여러 이방인도 이스라엘이 당한 수치를 겪어야 한다는 데 근본 목적이 있었다(36:5-7).
- (3) 한편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에 처야 할 족속과 에스겔이 심판을 예언한 이방 족속은 일치하였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멸하여야 할 족속과도 일치하였다(신 7:1).

(4) 에스겔을 포함한 선지자들이 이방 족속을 향해 심판을 선포한 목적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킨 데 대한 보응임과 동시에 이 심판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데 있었다.

2. **㉠ 심판의 예언이 암몬 족속에게 선포된 이유는 무엇인가? (2, 3절)**

㉠ (1) 그들은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패망할 때 유다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였기 때문이다.

(2) 그런데 암몬 족속은 롯의 작은 딸의 아들인 벤암미의 후손들로(창 19:30-38) 때마다 이스라엘과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중에 서로의 적대감은 대단하였다(삿 11:9; 삼상 11:1; 삼하 10:3; 왕하 24:2; 시 83:6-8; 암 1:13; 습 2:7, 8).

(3) 특히 그들이 갖는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심은 이스라엘의 신성한 소명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되었다(참조, 신 26:19; 28:1).

3. **㉠ 암몬 족속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무엇인가? (4절)**

㉠ (1) 암몬 족속은 자신들의 땅을 잃게 되며 그 땅은 동방(東方) 사람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2) 즉 그들은 자신들의 땅과 그곳의 모든 소산을 아랍의 유목 민족에게 넘기게 된다는 말이다(창 25:13-18).

(3) 그런데 이 심판의 예언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B. C. 605-562)이 암몬을 정복한 후 아랍의 유목 민족(삿 6:3, 33; 7:12; 8:10; 왕상 4:30; 사 11:14)이 그 땅을 차지함으로써 성취되었다(렘 49:28).

(4) 이들과 같이 우리 믿는 성도들도 타인을 미워하고 타인의 불행을 기뻐한다면 이 같은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잠 24:17, 18).

4. **㉠ 암몬의 수도(首都) 랍바는 어떤 운명에 처할 것인가? (5절)**

㉠ (1) 랍바는 황폐해져서 약대의 우리가 되며 양(羊) 무리의 거처가 될 것이다(사 17:2; 습 2:14, 15).

(2) 이 랍바는 압복 강의 상류 요단 강 동쪽 약 37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6세기경 암몬이 멸망한 후 랍바는 그 명칭조차 사라지고 그 후에는 암만(Amman)이라고 불리어졌다.

(3) 또한 랍바의 명칭은 바벨론 포로 이후의 유대 역사에 관련된 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4)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을 저주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았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거룩이 침해받을 때와 자신의 백성이 멸시와 학대를 받을 때 결코 그 사실을 용납하시지 않으신다(26:2, 3; 28:2-10; 29:3-5).

5. **㉠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만민과 열국 중에서 끊어 버리실 이유는 무엇인가? (6, 7절)**

㉠ (1)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패망을 즐거워하는 죄를 범한 그들을 벌하시므로써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2)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심은 그를 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3) 그러므로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고통과 시련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를 징계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참조, 엠 6:18; 히 6:10; 요일 5:16).

6. **㉠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一般)'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8절)**

㉠ (1) 이 말은 유다가 패망함으로 인해 종교마저도 말살되어 이방인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될 것을 조롱하는 말이다.

- (2) 이처럼 모압도 암몬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유다)의 불행을 즐거워했다.
- (3) 한편 모압을 세일 산 골 에돔과 연결시켜 언급한 이유는 모압과 에돔이 공동 보조(共同步調)를 취해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 (4)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이 자신의 믿음을 옳바로 지키지 못할 때는 오히려 불신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교회에 누(累)를 끼치게 된다.

7. **㉠**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한 모압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9-11절)

- ㉠** (1)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변경(邊境)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즉 벤여시못과 바알므온과 기라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만드실 것이다.
- (2) 이것은 모압의 북쪽에 위치한 요새들이 파멸될 것을 가리킨 말로 변경에 있는 성읍을 ‘영화로운 성읍’이라 한 이유는 그곳이 곡식이 잘되며 비옥한 목축 지대이기 때문이다.
- (3) 또한 여기서 ‘성읍들을 열고’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들 강력한 성읍을 무력하게 만드셔서 이방의 군대들이 쉽게 쳐들어올 수 있도록 하신 사실을 지적하는 말이다.
- (4) 그런데 이 예언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 군대가 5년 후 모압을 침략함으로써 성취되었다(사 15:1-9; 렘 48:1-47).

8. **㉠** 벤여시못과 바알므온 그리고 기라다임은 어떤 도시인가? (9, 10절)

- ㉠** (1) 이 세 도시는 모압을 보호해 주는 국경 도시들이다.
- (2) 벤여시못은 ‘폐허의 집’ (민 12:1) 또는 ‘사막의 땅’ (민 33:49)이란 뜻을 가진 도시로 모압 평지에 있는 헤스본 지역 성읍들 중 하나로서 르우벤 지파의 기업으로 할당되었던 곳이다.
- (3) 한편 ‘벤바알므온’이라고도 지칭되는 ‘바알므온’은 처음에는 르우벤 지파에 속하였으나 후에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잡혀갔을 때(사 15, 16장; 렘 48:1, 23) 모압의 영토가 된 성읍이다(수 13:17). 그 위치는 마데바(Madeba) 남서쪽 약 10km 지점에 있는 오늘날의 메인(Main)과 동일시되고 있다.
- (4) 마지막으로 기라다임은 납달리 지파에 속하는 도피성(대상 6:76)으로 다른 곳(수 21:32)에서는 가르다로 불리우기도 한다.
- (5) 그런데 이곳도 처음에는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으나 르우벤 지파가 차지했으며(민 32:37; 수 13:19) 바벨론 유배 당시 다시 모압 족속이 차지했다(렘 48:1).
- (6)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들도 암몬 족속의 땅이 아랍 민족의 목축 지대가 되었던 것처럼 같은 운명에 처하게 하셨다.

9. **㉠** 이스라엘에 대한 에돔의 행위는 어떠했는가? (12절)

- ㉠** (1) 야곱의 장자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은 야곱의 열 한번째 아들인 요셉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 (2) 즉 그들은 출애굽 당시 그들의 땅을 지나가게 해 달라는 모세의 요청을 거절했으며(민 20:14-20) 사울 왕(삼상 14:47)과 다윗(왕상 11:14-17), 솔로몬(왕상 11:14-25)을 대적했고 여호람을 배반하였다(대하 21:8).
- (3) 특히 에돔은 이스라엘에 대해 보복의 기회를 찾았고(암 1:11; 욥 1:11) 그래서 35:5에서 에스겔은 에돔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라고 하였다.

10. **㉠**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설명하라 (13절).

- ㉠** (1)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을 에돔 위에 퍼셔서 데만에서부터 드단까지 모든 사람과 짐승을 칼로 멸하여 황무케 하실 것이다.
- (2)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에돔에게 하나님의 원수를 갚도록 하실 것이다.
- (3) 여기서 ‘데만에서부터 드단까지’라 함은 에돔의 북쪽에서 남쪽까지의 전(全) 영토를 말

함인데 데만의 위치는 이두매의 남쪽 지역이었으며 드단은 예언에서 팔레스틴과 수리아로 가는 '유향로'(乳香路)에 있어서 중요한 오아시스를 가리킨다.

- (4) 한편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보고 기뻐하던 에돔 족속(시 137:7; 애 4:21, 22; 욥 1:10-16)은 그 후 남부 유다를 점령하여 헤브론을 수도로 삼았으나 B.C. 5세기에는 아랍의 지배 아래 있었으며, B.C. 4세기에는 나바리안 족속들에 의해 황폐하게 되었다.
- (5) 더우기 마카비 반란 때(B.C. 164) 유다인들에게 점령당하여 그 영토가 유다에 편입됨으로써 이 예언은 성취되었다.

11. ㉠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1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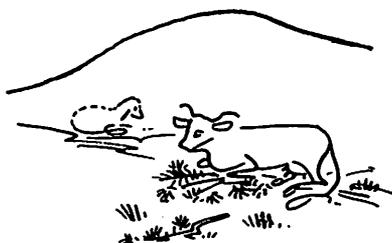
- ㉠ (1) 블레셋은 옛날부터 이스라엘에 대해 적개심을 갖고 있으면서 이스라엘과 숙적(宿敵)의 관계에 있었다.
- (2) 이 블레셋은 크레테(Crete)로 여겨지는 갑돌(렘 47:4; 암 9:7)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크레테 족속을 의미하는 명칭인 '그렛 사람'이라는 말에 의해 뒷받침된다(삼상 30:14; 습 2:5, 6).
- (3) 한편 성경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B.C. 11세기 초엽부터였으며(삿 13-16장) 사울의 통치(B.C. 1040-1010) 때까지도 이스라엘을 압제하였으나(삿 18:11, 29; 삼상 10:5; 13:3, 23) 다윗(B.C. 1010-970)과 솔로몬(B.C. 970-930) 시대부터는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눌러지냈다(왕상 4:21; 대상 18:1; 대하 17:11).
- (4) 이처럼 가나안의 서남부 지방에 위치했던 블레셋은 계속 내륙으로 영토를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끊임없는 투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되었다.

12. ㉠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설명하라 (16, 17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殄滅)하여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실 것이다.
- (2) 이 '그렛 사람'은 블레셋 족속이나 그들 중 일부에 대하여 사용되었는데(삼상 30:14; 습 2:5, 6)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던(렘 25:20) 블레셋 족속 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안에 거주하던 자들까지도 멸하실 것을 말씀하신다(렘 47장; 욥 3:4; 암 1:6).
- (3) 그런데 이 예언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블레셋 성읍들이 빼앗기고 백성이 추방됨으로 성취되었다(사 14:29-31; 렘 47장; 습 2:10).
- (4)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의 역사를 볼 때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은 작고 보잘것 없는 존재로서 불신자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백성을 높이고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참조, 시 32:1; 33:12).

본장의 요절

'내가 랍바로 악대의 우리를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으로 양 무리의
늪을 삼은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5절).



제 26 장 느부갓네살을 통한 두로의 심판

단락구분 1-2 두로의 죄악에 대해 진술되다 / 3-6 두로가 철저히 파멸되리라 / 7-14 두로의 파멸이 묘사되다 / 15-18 두로의 멸망을 보고 열국이 놀라리라 / 19-21 재기(再起) 못할 두로의 황폐(荒廢)

1 제 십 일 년 어느 달 초일 일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3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용케 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4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훼파하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 버려서 말간 반석이 되게 하며

5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6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7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가 열왕의 왕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북방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8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운제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추는 것이며

9 공성퇴를 베풀어 네 성을 치며 도끼로 방대를 찍을 것이며

10 말이 많으므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리울 것이며 사람이 훼파된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같이 그가 네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인하여 네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11 그가 그 말굽으로 네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네 백성을 죽일 것이며 네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뜨릴 것이며

12 네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네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네 성을 헐 것이며 네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네 돌들과 네 재목과

네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13 내가 네 노래 소리로 그치게 하며 네 수금 소리로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14 너로 말간 반석이 되게 한즉 내가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15 주 여호와께서 두로를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의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중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살륙을 당할 때에라

16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 듯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인하여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17 그들이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향해자의 거한 유명한 성이여 너와 너의 거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거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18 너의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임이여 바다 가운데 섬들이 네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19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가 너로 거민이 없는 성과 같이 황무한 성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로 네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로 너를 덮게 할 때에

20 내가 너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로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적한 곳에 거하게 할지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산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21 내가 너를 패망케 하여 다시 있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나 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 Ⓐ (1) 본장에는 두로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비웃으며 기뻐한 데 대한 징벌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징벌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이루어졌다.
- (2) 특히 두로와 시돈 지방은 지중해를 중심한 국제 무역의 요충지로서 이웃 나라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문명 국가였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풍부한 반면 정신적으로는 빈곤한 상태에 있었다.
- (3) 이 같은 배경을 갖고 있던 두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그들의 영적 각성제로 삼기 보다는 멸시하는 의미에서 기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인 바벨론 군대에 의해 그들의 부귀와 영화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었다(참조, 사23장; 렘25:22; 27:3; 47:4).
- (4) 오늘날에 있어서도 물질 문명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정신 문화가 쇠퇴(衰退)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세상의 패락은 오히려 우리의 정신을 좀먹어 들어가는 마약과 같은 작용을 한다(참조, 신8:13, 14; 시62:10; 막4:19; 딤펢전6:9).
2. ⓐ 에스겔이 두로에 대한 심판의 계시를 하나님께 받은 때는 언제인가? (1절)
- Ⓐ (1) 그때는 '제 십 일 년 어느 달 초일 일'이었다.
- (2) 더욱 분명하게 말한다면 그때는 여호야긴 왕(B. C. 597)이 사로잡힌 지 11년째가 되는 B. C. 586년, 즉 예루살렘이 멸망된 해(年)이다(참조, 왕하25:2; 렘39:2).
- (3) 한편 여기서 '어느 달'은 성이 함락된 달이 4월(태양력 6, 7월)이었고(렘39:2; 52:4)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탄 달, 즉 예루살렘이 멸망한 달이 5월(태양력 7, 8월)이었으므로(왕하25:8, 9) 2절의 내용으로 보아서 다만 예루살렘이 멸망한 5월 이후의 '어느 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3. ⓐ 두로는 어떠한 도시인가? (2절)
- Ⓐ (1) 두로는 시돈 남쪽 40km 지점에 위치한 고대 베니게(페니키아)의 도시로서 본토와 연결되지 않은 지중해 상(上)의 작은 섬에 위치하고 있었다.
- (2) 한편 이 도시 국가는 히람 왕(B. C. 980-947) 치하에서 가장 번성하였는데 이 히람 왕은 다윗 성의 건축을 위해(삼하5:11, 12) 그리고 솔로몬 궁전과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노동력과 건축 재료들을 제공하기도 했었다(대하2장).
- (3) 그런데 이 도시 국가는 당시 지중해 무역의 요충으로 많은 부와 영화를 누리던 곳이었으며 이 도시가 위치한 지역적 지점으로 인해 강대국(強大國)인 앗수르의 공격도 격퇴하였다.
4. ⓐ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란 무슨 의미인가? (2절)
- Ⓐ (1) '만민의 문' 곧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 인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이익이 두로에게 돌아옴을 의미한다.
- (2)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율법과 심판의 장소로서 그리고 솔로몬 이후부터 번영해 온 도시로서 세상의 각광을 받았으나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해 두로가 더욱 세상에서 이름을 높이고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사23:1-18).
- (3) 이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신보다 우수한 사람이 파멸에 이른 것을 보고 기뻐할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온 행동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위배되는 행동이다(마25:43; 막12:31).
5. ⓐ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는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무엇인가? (3절)
- Ⓐ (1) 그 형벌은 바다의 파도와 같이 열국이 두로를 향해 침략해 오는 것이다.
- (2) 이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의 침략을 표현한 말로서(7절) 두로가 해양에 인접한 국가라는 데서 이 표현을 사용하였다.
6. ⓐ 에스겔은 두로의 철저한 파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4절)

- Ⓐ (1) 이방의 군대는 두로의 성벽을 훼파(毀破)하고 그 망대(望臺)를 헐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 버려서 말간 반석이 되게 하실 것이다.
- (2) 이 표현은 바다 가운데 위치한 성인 두로가 자신들의 견고한 방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 돌 위에 먼지 하나 없도록 훼파되는 상태를 말한 것이다.
- (3) 이처럼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이 세상에서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소유는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욘 20:28; 24:18).

7. ⓐ 파괴된 두로와 주변 마을은 어떻게 될 것인가? (5, 6절)

- Ⓐ (1) 그곳은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과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며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을 것이다.
- (2) 여기서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은 히브리어로 <모셰타>인데 그 뜻은 무엇이 활짝 피는 장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어부들이 그물을 건조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 (3) 한편 '들'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사테>는 방어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지방을 가리키는 말로서 여기서는 두로 섬이 아닌 본토(本土)를 의미한다.
- (4) 또한 '딸들'이란 두로 주변에 있는 성읍이나 마을 그리고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 (5) 따라서 두로의 멸망은 견고한 방비를 갖춘 두로 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두로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지역까지도 황폐하게 될 것을 가리킨다(17:24).

8. ⓐ 두로를 징벌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는 누구인가? (7절)

- Ⓐ (1)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다.
- (2) 한 시대의 탁월한 지도자인 느부갓네살은 B.C.605년 유프라테스 강가의 갈그미스(Carchemish)에서 앗수르를 도우러 온 애굽의 바로느고(Pharaoh-Necoh)를 쳐부수었다(왕하 23:31; 대하 35:20-27).
- (3) 또한 그는 4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으며(왕하 24:7, 10; 25:1; 단 1:1) 팔레스틴 지방을 점령하고 애굽과도 3차에 걸쳐 싸워 자신의 영향력을 드높였다.
- (4) 이같이 당시의 근동 지방에서 세력을 떨친 느부갓네살은 그의 즉위 7년에서 20년까지 약 13년간(B. C. 598-585)이나 두로를 침략하여 장악하고 있었다.
- (5)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역사(役事)하시지만 현존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도구로 사용하셔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참조, 대하 36:23; 스 1:1, 2; 사 45:1-7).

9. ⓐ 바벨론 군대의 두로 함락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7-12절)

- Ⓐ (1) 그들은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성을 공략(攻掠)하여 집을 부수고 사람들을 죽이며 재물을 노략질해 갔다.
- (2) 여기서 '북방에서... 와서'란 표현은 바벨론에서 유다로 오는 길을 가리킨다(7절).
- (3) 그리고 운계(雲梯)와 토성과 방패(防牌) 그리고 공성쇠(攻城鎚)는 성을 공격하기 위한 시설과 무기를 말한다(참조, 4장 ⓐ3).
- (4) 한편 두로의 백성은 자신들이 의지하던 재물과 부를 바벨론 군대에게 빼앗기고 목숨마저도 잃게 되며 마침내 그들의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27:12-24).
- (5) 이 같은 바벨론 군대의 철저한 파괴와 약탈은 오히려 두로의 재물과 부를 탈취하려는 욕심에서 더욱 심했다고 할 수 있다.
- (6) 이처럼 많은 재물과 부는 오히려 이웃에게 노략과 도적질을 위한 표적이 된다. 따라서 분수(分數)에 넘치는 부(富)는 자신과 타인 모두를 위해서도 해가 된다(참조, 마 19:22; 딤편 6:10).

10. ⓐ 바벨론 군대가 두로를 점령한 후 두로의 상태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13, 14절)

- Ⓐ (1) 그들의 노래와 수금 소리가 들리지 않으며 그들의 땅은 말간 반석이 되어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두로가 건축되지 않을 것이다.
- (2) 이 예언은 두로가 철저히 파괴되어 다시는 그곳에 성읍이 들어서지 못하고 단지 해변가의 어부들이 그물을 말리는 장소로 사용될 뿐이라는 사실을 말한다(참조, 사 24:8; 렘 16:9).
- (3) 그런데 이 예언의 성취가 느부갓네살의 침공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그 후에도 두로는 이방 강대국의 침공을 받음으로써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다.
- (4) B. C. 332년 알렉산더(Alexander, B. C. 340-323)는 지형상의 이점을 이용하여 완강히 저항하던 두로를 섬과 본토를 잇는 방과계를 만들어 공격함으로써 점령할 수 있었다.
- (5) 이처럼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생각에는 허황되게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결코 변경치 않으시는 분이심을 보여 준다(참조, 민 23:19; 벰전 1:25).

11. ⓐ 두로의 멸망은 이웃 나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15절)

- Ⓐ (1) 두로 멸망의 소문은 이방 나라, 즉 두로 주변의 섬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 (2) 이것은 두로의 멸망 소식을 들은 섬들과 해안 지역의 두로 식민지 사람들이 놀람과 당황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이다(27:35).
- (3) 이처럼 한 정부나 국가의 멸망은 그것에 의해 지배를 받거나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왕하 25:18-20).
- (4) 그러나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어떤 변화가 와도 놀라지 않으며 떨지 않을 것이다(참조, 시 3:6; 27:3).

12. ⓐ '바다의 모든 왕'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16절)

- Ⓐ (1) 이들은 섬과 그 주변 지역의 왕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무역을 하는 부유한 상인들을 의미한다(23:8).
- (2) 그런데 이들이 왕으로 불린 이유는 자신들의 부(富)를 이용하여 귀족이나 왕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3) 그러나 그들도 두로의 멸망 소식은 큰 충격이었으므로 자신들의 화려하던 영화(榮華)가 사라지고 자신들에게도 화(禍)가 미칠까 하여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참조, 은 3:6).
- (4) 한편 '무시(無時)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리르가임)은 '매우 짧은 시간에'란 뜻으로 이것은 그들의 두려움과 떨림이 한 순간도 떠나지 않는 사실을 의미한다.
- (5) 이처럼 하나님 이외의 다른 무엇을 의지할 때 그 의지하는 대상이 사라지게 되면 인간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참조, 잠 11:4; 사 55:2).

13. ⓐ 두로의 주변 지역은 두로의 멸망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17, 18절)

- Ⓐ (1) 그들은 애가(哀歌)를 지어 두로의 파멸을 슬픔과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 (2) 두로는 해상 무역의 요충지로 지중해 연안 도시에 이름난 성읍이었으므로 그들의 부와 권세를 자랑하였다.
- (3) 그러나 그들의 몰락은 세상의 부귀 영화(富貴榮華)를 자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충격과 슬픔거리가 되었다.
- (4) 왜냐하면 자신들도 그런 운명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27:32).
- (5) 이처럼 사람들은 죽음과 파멸이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세상의 쾌락을 즐기지만 그 환난의 때가 지나가면 죽음과 심판이 찾아온다(시 103:15).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아끼고 삶에 충실해야 한다(참조, 엡 5:16; 골 4:5).

14. ⓐ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은 무엇인가? (19절)

- Ⓐ (1) 하나님께서는 두로 성을 사람들이 없는 황폐한 곳으로 만드시고 큰 홍수로 그들을 덮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 (2) 이 말씀은 20절에 나타난 형벌인 영원한 멸망, 즉 두로의 모든 것이 땅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부연 설명하는 말씀이다.
- (3) 한편 12절에 의하면 두로 성의 모든 것들은 바닷속에 가라앉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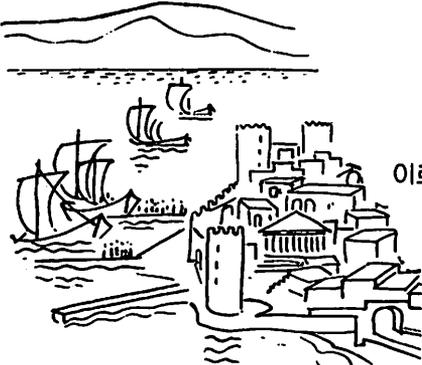
15. ⓐ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두로의 운명은 어찌될 것인가? (20, 21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땅 깊은 곳에 내려가게 하시고 다시는 그곳이 사람 사는 지역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 (2) 이 말씀은 그들이 '옛적에 죽은 조상들이 있는 곳, 즉 죽음의 세계로 내려감을 의미한다. 그리고 '예로부터 황적(荒寂)한 곳'이란 모든 것이 파괴되어 살아 있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곳을 말한다.
- (3) 이것은 그들에게 죽음이 임했음을 가리킨 말이다. 따라서 그들이 거하던 곳은 '산 자의 땅' 곧 죽음이 없는 생명과 소망이 있는 땅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참조, 욥 22:15).
- (4)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수고와 노력의 결실은 비록 그것이 아름답고 화려할 지라도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결국 허무와 죽음만이 남게 될 것이다(시 1:4; 37:35, 36).

16. ⓐ '구덩이'란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 (20절)

- Ⓐ (1) 이 '구덩이' (the pit)란 KJV의 번역을 따른 것으로 히브리어로는 죽은 자가 사후(死後)에 가는 곳인 <스울>을 말한다.
- (2)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이 '스울'을 죽은 자들이 거하는 어둡고 암울한 지하 세계로 이해하였다(욥 10:21, 22; 시 6:5; 94:17; 115:17; 143:3).
- (3) 그리고 그들은 '스울'의 사람들을 단지 지상에 있던 자들의 망령(亡靈)으로 여겨 '그림자들' 또는 '망령들'이라고 하는 <르바임>으로 불렀다.
- (4) 그러나 구약에 나타난 '스울'은 멸절되어 없어질 곳이 아닌 영원히 지속될 실제적인 장소로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그곳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곳으로 생각했다(욥 26:6; 시 139:8).

본장의 요점



'그들이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의 거한 유명한 성이여
너와 너의 거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어도다 해변의 모든 거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17절).

제 27 장 두로를 애도하다

단락구분 1-2 두로를 향한 애가(哀歌) / 3-9 풍성한 배를 만든다 / 10-11 두로의 음병(用兵) / 12-25 두로의 화려한 무역 / 26-36 두로의 멸망과 그에 대한 열국(列國)의 애도(哀悼)

1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3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하여 여러 섬 백성과 통상하는 자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4 네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음이여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5 스닐의 잣나무로 네 판자를 만들었음이여 너를 위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 돛대를 만들었도다
 6 바산 상수리나무로 네 노를 만들었었음이여 깃뎀 섬 황양목에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7 애굽의 수놓은 가는 베로 돛을 만들어 기를 삼았음이여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베로 차일을 만들었도다
 8 시돈과 아르와 거민들이 네 사공이 되었음이여 두로야 네 가운데 있는 박사가 네 선장이 되었도다
 9 그밭의 노인과 박사들이 네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음이여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네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10 바사와 뭇과 붓이 네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음이여 네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네 영광을 나타내었도다
 11 아르와 사람과 네 군대는 네 사면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네 여러 망대에 있었음이여 네 사면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네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12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하므로 너와 통상하였음이여 은과 철과 상납과 납을 가지고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13 아완과 두발과 메섹은 네 장사가 되었음이여 사람과 뭇그릇을 가지고 네 상품을 무역하였도다
 14 도갈마 족속은 말과 전마와 노새를 가지고 네 물품을 무역하며
 15 드단 사람은 네 장사가 되었음이여 여러 섬이 너와 통상하여 상아와 오목을 가져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16 너의 제조품이 풍부하므로 아람은 너와 통

상하였음이여 남보석과 자색 베와 수놓은 것과 가는 베와 산호와 홍보석을 가지고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17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네 장사가 되었음이여 민트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황을 가지고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18 너의 제조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하므로 다메섹이 너와 통상하였음이여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가지고 너와 무역하였도다

19 워단과 아완은 길쌈하는 실로 네 물품을 무역하였음이여 백철과 육제와 창포가 네 상품 중에 있었도다

20 드단은 네 장사가 되었음이여 탈 때 끼는 담으로 너와 무역하였도다

21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방백은 네 수하에 상고가 되어 어린 양과 수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무역하였도다

22 스바와 라아마의 장사들도 너의 장사들이 됨이여 각종 상등 향 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23 하란과 간네와 에텐과 스바와 앓수르와 길맛의 장사들도 너의 장사들이라

24 이들이 아름다운 물화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 가지고 너와 통상하여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25 다시스의 배는 떼를 지어 네 물화를 실었음이여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였도다

26 네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룸이여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하도다

27 네 재물과 상품과 무역한 물건과 네 사공과 선장과 네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네 장사와 네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네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네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임이여
 28 네 선장의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29 무릇 노를 잡은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 내려 언덕에 서서
 30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 질러 통곡하고 티

끝을 머리에 무릅쓰며 재 가운데 굽이여
31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굽은 베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32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조상하는 말씀이여 두로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33 네 물품을 바다로 실어 낼 때에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음이여 네 재물과 무역품

이 많으므로 세상 열왕을 풍부케 하였도다
34 네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한 때에 네 무역품과 네 승객이 다 빠져죽음이여
35 섬의 거민들이 너를 인하여 놀라고 열왕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나타나도다
36 열국의 상고가 다 너를 비웃음이여 네가 경제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1. **㉠** 본서에 나타난 애가(哀歌)를 요약하라.

- ㉠** (1) 이 애가는 두로의 영광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들의 강한 군사력을 찬양하고 이 모든 영광의 멸망에 대한 애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2) 이같이 두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26장에서 언급된 두로의 비참한 운명과는 큰 대조를 이룬다. 한편 본장에서 묘사된 것처럼 두로는 상업과 무역에 있어서 당시 근동 지방의 요충이었으나 그들의 종교는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을 때 올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했다.
 (3) 오늘날 고도 문명의 사회 속에서 풍요한 삶을 누리는 현대인들도 이 같은 풍요 속에서 잘못된 가치관을 갖기가 쉬우며 따라서 이제껏 모든 문명이 걸었던 파멸의 전철(前轍)을 밟으리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사회에 경종(警鐘)을 울릴 수 있어야 한다.

2. **㉠** 본서에 나타난 애가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라(2절).

- ㉠** (1) 본서의 애가는 여러 가지 문학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곧 비유시(比喩詩)와 산문(散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그러므로 그 구조를 살펴볼 것 같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분은 두로 성읍 사람들이 탄 배를 두로에 비유한 시이다(3-9절). 그리고 둘째 부분은 성읍과 군대 그리고 무역을 서술한 산문(9-25절)이며, 마지막은 바다에 가라앉은 배와 언덕에서 애곡하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시(25-36절)로 구성되어 있다.

3. **㉠**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로를 위한 애가를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 (1) 두로는 아직도 영광과 번영을 누리고 있었으나 그 번영이 오히려 그들의 율무가 되어 그들을 파멸로 이끌 것이기 때문이다.
 (2) 이처럼 일이 잘되고 평안할 때는 파멸이 다가옴을 결코 생각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들은 평안할 때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위해 대비해야 한다(참조, 살전 5:3, 6; 약 1:9-11).

4. **㉠** 두로는 지형상 어떤 곳에 위치하였는가? (3절)

- ㉠** (1) 두로는 섬으로서 바다 어귀에 위치해 있었다.
 (2) 여기서 '바다 어귀'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메보오트)는 '열림' 혹은 '바다의 입구'라는 뜻을 갖고 있다. 따라서 두로가 '바다 어귀'에 위치하였다는 것은 두로가 항구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3) 한편 두로는 두 항구가 있었는데 북쪽에 있는 것을 '시돈'이라고 하였다. 이는 그곳이 시돈 쪽에 위치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남쪽에 있는 항구는 애굽을 향한 방향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 항'이라고 하였다.
 (4) 그런데 두 항구 중 북쪽의 '시돈'이 더욱 유명하였다. 특히 이 '시돈 항'은 내(內)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항구는 성벽 안에 있었으며 외벽은 바위로 되어 있었다.

(5) 이처럼 두로는 천연(天然)의 요새(要塞)였으며 고대 근동 무역의 중심의 위치에 있었다(사 23:3).

5. **㉠** ‘네 지경(地境)이 바다 가운데 있음이여’란 무슨 의미인가? (4절)

- ㉠** (1) 이는 두로 성(城)이 섬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가리킴과 동시에 두로를 바다 가운데의 배에 비유한 것 모두를 의미한다. 즉 두로가 섬이란 사실을 배에 비유한 것이다.
 (2) 또한 두로가 아름답다는 표현은 두로 자체가 아름답다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왕성한 무역과 부를 자랑하는 말이다(25절; 시 50:2; 애 2:15).
 (3) 이와 같이 우리 인간들은 남들보다 자신에게 조금 나은 것이 있으면 자신이 세상에서 최고인 것처럼 여겨 뽐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헛된 자부심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교만한 자를 치신다(잠 16:18; 21:4; 요일 2:16).

6. **㉠** ‘너를 지은 자’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4절)

- ㉠** (1) 이는 곧 그 당시의 두로가 있게 한 두로의 정치가들과 지배자들을 가리킨다.
 (2) 한편 70인역(LXX)에는 ‘너의 아들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를 지은 너의 사람들’이란 뜻이다.
 (3) 따라서 본질은 두로를 포함한 베니게(Phoenicia)의 통치자들이 두로를 화려하고 번영된 성읍으로 만든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25절).

7. **㉠** 두로를 비유한 ‘배’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5절)

- ㉠** (1) 그 배의 판자는 ‘스닐의 잣나무’로 만들었으며 돛대는 레바논 백향목으로 만들었다.
 (2) 여기서 ‘스닐’은 아모리 족속의 헤르몬(Hermon) 산 명칭(신 3:9)인데 이 산에서는 단단하고 나무질이 이층적인 실삼나무가 유명하다.
 (3) 또한 ‘레바논 백향목’은 양질(良質)의 목재로서 두로의 왕궁과 솔로몬의 성전(왕상 5:10) 그리고 솔로몬의 궁전(왕상 7:2)을 짓는 데 사용되었다.

8. **㉠** 노(櫓)와 갑판(甲板)의 재질(材質)은 무엇인가? (6절)

- ㉠** (1) 노는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그리고 갑판은 깃딤 섬 황양목(黃楊木)에 상아로 꾸며 만들었다.
 (2) 그런데 바산은 남쪽으로는 길르앗 경계에서부터 북쪽으로는 헤르몬 산의 기슭까지 뻗어 있던 왕국의 이름이다(참조, 수 12:5; 13:11).
 (3) 이 바산 왕국에는 비옥하고 숲이 우거진 지역이 많았으며 그곳의 상수리나무는 질이 좋아 바산을 상징하였다(사 2:13).
 (4) 한편 깃딤(Kittim)은 히브리어로는 <키티>로 발음되며, 구브로 섬을 가리키는 말인데 나중에는 그리스와 로마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단 11:30).
 (5) 특히 이 구브로 섬은 세달(cedar) 곧 삼나무를 선박용 재료로 사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9. **㉠** 그 배는 무엇으로 치장하였는가? (7절)

- ㉠** (1) 애굽의 수놓은 가는 베로 돛을 만들어 기를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과 자색 베로 차일(遮日)을 만들었다.
 (2) 본질에 나타난 ‘기’는 애굽의 양식을 따른 표식이나 도안으로 항해에서 사용된 것이거나 뱃머리에 단 깃발을 의미한다.
 (3) 한편 ‘엘리사 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 구브로 섬이 가장 유력하다(참조 창 10:4).
 (4) 그런데 이 엘리사 섬에서 생산되는 베는 ‘청색과 자색’을 띠었다. 여기서 자색은 화려함과 제왕의 장엄함을 상징하며(아 3:10; 단 5:7) 이 자색을 내는 물감 재료는 조개류에서 얻었는데 베니게 사람은 당시 염료 공업으로 유명했다.
 (5) 그들은 이같이 화려한 색깔의 베로 배의 갑판에 쏟아지는 태양열을 막기 위한 차일을

만들어 사용했다.

(6) 이처럼 배를 만드는 여러 재료를 각처의 훌륭한 제품으로 사용한 것은 두로의 영광과 번영을 잘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10. **㉠** 그 배의 선장(般長)과 사공(沙工)은 누가 되었는가? (8절)

- ㉠ (1) 선장은 두로의 박사(博士)가 말았으며 사공은 시돈과 아르앗 사람들이 담당하였다.
- (2) 즉 배의 지휘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인 선장과 항해사는 두로의 지배 제국이 담당하였다.
- (3) 한편 사공들의 출신지인 시돈은 두로의 북쪽에 있는 성읍으로 베니게(Phoenicia)에서 가장 오래 도시이기 때문에 '어미'라고 불리었다. 또한 아르앗은 시돈 북쪽에 있는 작은 섬을 가리킨다.
- (4) 이처럼 두로에는 항해술에 능한 자들이 많았으므로 조선업과 해상 무역이 번창할 수 있었다.

11. **㉠** 그밤의 노인과 박사들은 무슨 일을 하였는가? (9절)

- ㉠ (1) 그들은 파손된 배를 수선하는 일을 하였다.
- (2) 여기서 '그밤'은 베니게의 항구로 베이루트(Beirut) 북쪽 약 40km 지점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곳 사람들도 조선과 항해술에 뛰어나 지중해의 해상 무역을 장악하였다(참조, 왕상 5:18).
- (3) 이처럼 본절에서도 계속 두로가 배로 비유되지만 하반기부터는 해상 무역의 중심지로 서의 항구 도시로 묘사되고 있다(27절).

12. **㉠** 두로는 어떤 사람들을 군사로 모집했는가? (10절)

- ㉠ (1) 두로는 자신들의 성읍 방어를 위해 바사와 뭇과 붓 사람들을 용병으로 삼았다.
- (2) 그런데 '바사'는 대제국 페르시아(Persia)를 가리키며 '뭇'은 소아시아의 루디아 족속을 의미하고(창 10:13) '붓'은 리비아 동쪽의 구레네 지방을 지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창 10:6; 대상 1:8).
- (3) 그리고 그 성에 방패를 다는 것은 성벽을 장식하는 것과 함께 베니게인들의 관습으로 여겨지는데 솔로몬의 이스라엘 왕국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왕상 10:16; 아 4:4).
- (4) 이처럼 두로는 비록 부유한 성읍이었으나 군사력은 약하였기 때문에 부(富)를 사용하여 이방 민족을 자신들의 용병으로 모집하였다.
- (5) 두로가 이처럼 여러 나라에서 용병을 모집한 사실은 앞에서 배를 제조할 때 이방의 훌륭한 자재(資材)만을 수입한 것과 같이 그들의 경제력과 당시 근동 지방에서의 영향력을 잘 말해 주고 있다.

13. **㉠** 다시스는 지금의 어디를 말하는가? (12절)

- ㉠ (1) 다시스는 두로의 서부에서 당시 가장 유명한 무역항으로 오늘날 스페인의 타르테수스(Tartessus)이다.
- (2) 그런데 이 다시스는 은의 생산지로 유명한 곳인데(렘 10:9) 그들은 철과 주석과 납(鐵)을 가지고 와서 다른 물품들을 바꿔 갔다.
- (3) 한편 '통상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는 <모할렙>으로 상인이나 거래인을 가리킨다.

14. **㉠** 두로와 무역 거래가 있었던 지역은 어느 곳인가? (12-25절)

- ㉠ (1) 두로는 극서(極西)쪽에 있던 다시스 그리고 헬라, 소아시아 동편 에돔에서 팔레스틴, 다메섹, 아라비아에서 메소포타미아에 이르기까지 그 거래 지역이 광범위하였다.
- (2) 이것도 두로의 영광과 번영을 나타내기 위해 언급한 내용으로 당시 두로가 지중해를 무대로 한 해상과 육상 무역의 중심지라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 (3) 한편 어떤 학자들은 본장이 홍수 이후에 볼 수 있는 열국의 정립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고 말한다.

15. **㉠** 야완과 두발과 메섹은 두로와 어떤 거래를 하였는가? (13절)

- ㉠** (1) 그들은 사람과 놋그릇을 가지고 와서 두로의 상품을 바꾸어 갔다.
 (2) 여기서 '야완'은 이오니아 헬라인을 가리키는데(창10:2,4) 이들은 사람을 노예로 파는 인신 매매(人身賣買)를 하였다(욥3:6).
 (3) 한편 '두발과 메섹'은 바사 시대에 티바레니(Tibareni) 혹은 모스키(Moschi)라고 부른 흑해와 카스피 해 사이에 사는 산악 민족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두로에 주로 놋쇠를 제공하였다.

16. **㉠** 도갈마 족속과 드단 사람이 두로에 제공한 상품은 무엇인가? (14, 15절)

- ㉠** (1) 도갈마 족속은 말과 전마(戰馬)와 노새를 그리고 드단 사람은 상아(象牙)와 오목(烏木), 즉 검은 박달나무를 두로와 거래하였다.
 (2) 여기서 '도갈마 족속'은 알메니아(Armenia) 민족인데 이 알메니아는 말의 사육지로 유명하였다. 한편 '전마'는 히브리어로 <파라썸>으로서 전투용 말을 의미한다.
 (3) 그리고 '드단 사람'은 구스 계통의 무역 중개인이나 아라비아 사람을 말한다(창10:7). 그런데 이들은 페르시아(Persia)만과 두로사이의 해상 무역과 대상(隊商)들의 육로 무역을 통해(사21:13) 상아와 오목을 두로에 공급했다.

17. **㉠** 아랍과 이스라엘이 두로와 교역한 물품은 무엇인가? (16-18절)

- ㉠** (1) 아랍은 보석과 수놓은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은 밀과 꿀과 기름, 유향(乳香)을 두로와 교역하였다.
 (2) 여기서 '아랍'은 '수리아'가 아니라 '에돔'을 지칭한다(70인역). 그곳의 페트라(Petra)는 중요한 상업 도시였으며 그들의 주산물은 루비, 산호, 진주 같은 귀금속과 직조물(織造物)이었다.
 (3) 한편 이스라엘은 암몬 지방에 있는 민닛(Minnith, 삿11:33; 대하27:5; 왕상5:25; 행12:20)에서 나는 밀과 과자를 그들과 교역하였으며 팔레스틴에서 유명한 꿀(신32:13)과 기름(신8:8; 왕상5:25; 대하2:10)을 두로에 제공하였다.

18. **㉠** 다메섹과 워단과 야완의 주산물은 무엇인가? (18, 19절)

- ㉠** (1) 다메섹에서는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이 주산물이었으며 워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과 백철 그리고 육계(肉桂)와 창포(菖蒲)가 많이 났다.
 (2) 여기서 다메섹이 특별히 언급된 것은 그들이 두로와의 무역에서 중요한 대상국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들은 헬본의 포도주를 바사 왕들에게 제공했으며 훌륭한 양털을 생산하였다.
 (3) 그리고 워단은 아라비아의 한 지방으로 여겨지며 야완도 헬라 땅이라기 보다는 아라비아의 헬라인 거주지로 추정된다.
 (4) 그런데 그들의 특산물인 '육계'는 계수나무의 껍질을 지칭하는 말로 이것과 '창포'는 약재 및 향을 내는 데 사용되었다.

19. **㉠** 드단과 아라비아의 무역 상품은 무엇인가? (20, 21절)

- ㉠** (1) 드단에서는 '달 때 까는 담'을 아라비아와 게달에서는 어린 양과 염소를 상품으로 내놓았다.
 (2) 그런데 이 '드단'은 15절의 지명과는 다르나 역시 아라비아의 한 지역이다.
 (3) 이들은 '달 때 까는 담', 즉 사람이 짐승을 달 때에 까는 천을 만들었다. 당시의 부유한 자들은 이 천도 호화스럽게 만들었는데(삿5:10) 말(馬)을 치장할 때도 사용했다.
 (4) 한편 '게달'은 북부 아라비아의 유목민들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었다(창25:13). 이들과 사막의 유목민인 베두인족도 두로와 장사를 하였다.

20. **㉠** 스바와 라아마의 장사들은 두로에 무엇을 팔았는가? (22절)

(1) 그들은 각종 상등(上等) 향 재료와 보석과 황금을 거래하였다.

(2) 이 스바와 라아마는 아라비아 남동쪽 페르시아 만에 거주하던 구스인들을 가리키는데 (창 10:7) 하드라마우트(Hadramaut)와 예멘(Yemen) 산맥에서는 보석과 금이 많이 나왔으며 향의 원료가 되는 참발삼나무가 많았다.

21. ㉠ 하란, 간네, 예덴, 길맛은 각각 어떤 지역인가? (23절)

㉠ (1) 하란은 성경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서(창 11:31, 32; 12:4, 5)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중간 요충지이다.

(2) 그리고 간네는 티그리스 유역의 상업 도시이며 예덴은 수리아의 도시가 아닌 메소포타미아의 예덴으로 유프라테스 삼각주에 위치한 도시이다(왕하 19:12; 사 37:12).

(3) 또한 스바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와 두로 사이에서 상거래를 한 것으로 이해되며 앗수르는 앗시리아(Assyria)의 땅이 아니라 상업 중심지 수라(Sura)를 말하는데(Keil) 이곳은 유프라테스 강변의 대상으로에 있었다. 한편 앗수르와 함께 언급된 길맛은 두로의 상업 도시이다(Hävernack).

22. ㉠ 하란, 간네, 예덴, 스바, 앗수르, 길맛의 장사들은 두로와 무엇을 거래하였는가? (24절)

㉠ (1) 이들은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아 노끈으로 묶어서 두로와 거래하였다.

(2) 그런데 ‘아름다운 물화(物貨)’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케루림>은 ‘장식품들’에서 유래된 말로 ‘아름다운 완제품 의류’를 가리킨다.

(3) 또한 ‘청색 옷’은 히브리어로 <게로매 테케헬>인데 망토나 아주 넓은 옷을 말한다.

(4) 이처럼 당시 두로에는 세상에서 진귀하거나 화려한 물품들이 모이는 세계적 도시였다.

23. ㉠ 두로의 파멸에 대해 설명하라(26-28절).

㉠ (1) 바다 한가운데에서 동풍을 만난 두로는 비록 유능한 사공과 선장, 기술자, 용병이 있었어도 파멸할 수밖에 없었다.

(2) 그런데 이 같은 파멸은 5-25절까지 서술된 두로의 영광과 큰 대조를 이루며 그들에게 이 같은 부(富)와 강한 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파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심판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다(26:19-21).

(3) 한편 ‘동풍’은 팔레스틴 지방에 불어오는 강한 들풍을 가리키는데 그것의 강함이 견고한 두로를 파괴하는 무서운 심판에 비유되었다(17:10; 19:12; 시 48:7, 8; 렘 18:17).

(4)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그 어떤 강함도 화려함도 유능함도 견뎌 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24. ㉠ 두로의 패망은 열국(列國)에 어떤 방향을 미칠 것인가? (29-36절)

㉠ (1) 두로 사람들은 공포와 슬픔으로 통곡할 것이며 여러 나라의 왕들도 두려움에 떨 것이며 세상의 상인들은 두로의 패망을 조롱할 것이다.

(2) 즉 과거의 화려했던 시절을 기억하는 두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패망을 슬퍼하였으며 지중해 연안 국가들은 자신들도 같은 운명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다.

(3) 그러나 그들의 경쟁국들은 두로의 패망을 기뻐하고 비웃었다.

(4) 이와 같이 악인은 비록 자신의 하는 일이 잘되고 성공하는 듯이 보일지라도 그 성공은 오래 가지 못하며 결국은 망하고 만다(시 37:16, 35, 36).

제 28 장 두로와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단락구분 1-10 두로 왕에 대해 멸망이 선포되다 / 11-19 피멸의 원인 / 20-23 시돈의 멸망이 예언되다 / 24-26 이스라엘의 회복이 약속되다

1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어늘

3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와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4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 은을 고간에 저축하였으며

5 네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6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하였으니

7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요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8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륙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9 너를 살륙하는 자 앞에서 내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

10 내가 외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11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12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왔도다

13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음이여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14 너는 기쁨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15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16 네 무역이 풍성하므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17 내가 아름다우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우므로 네 지혜를 더럽혔음이여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18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하므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음이여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19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임이여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고 하셨다 하라

20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1 인자야 너는 낮은 시돈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라

22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니니 네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국문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22 내가 그에게 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24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25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토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 지라

26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거하여 집을 건 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들의 사면에서 열사하던 모든 자를 내가 국문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나를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1. ㉠ 본장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자칭 신(神)이라 하던 두로 왕의 패망에 대한 예언과 그를 위한 애가(哀歌) 그리고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약속되어 있다.
- (2) 그런데 두로의 패망은 지혜와 부를 자랑하여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긴 교만에 그 원인이 있었다. 한편 시돈은 이 같은 두로와 함께 죄에 빠졌기 때문에 징벌이 예언된 것이다.
- (3) 이처럼 오늘날에 있어서도 국가나 개인이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부귀를 지나치게 의지할 때 그들은 자신들이 마치 무한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 (4) 이것은 곧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를 반복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참조, 창2:17; 빌2:2-11).

2. ㉠ 두로 왕의 교만한 행동을 말하라(1절).

- ㉠ (1) 그는 바다 중심, 즉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면서 스스로 신(神)으로 자처하였다.
- (2) 이것은 두로가 위치한 곳이 섬이기 때문에 어떠한 적의 공격도 막아 낼 수 있다는 자만심에서 나온 말이다.
- (3) 또한 베니게(Phoenicia)의 신화에 의하면 두로는 신(神)의 거처가 있는 신전(神殿)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두로는 신의 작품으로 그리고 두로 왕은 신의 현현(顯現)으로 여겼다(참조, 사14:12-15).
- (4) 그러나 두로 왕은 세습 군주(世襲君主)로 권력이 있는 상인 귀족들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원로원의 보좌를 받았다. 그러므로 두로 왕은 <나기드>, 즉 통치자로 지칭되었다.
- (5) 이와 같이 인간은 조그만 지혜와 능력을 소유해도 타인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착각하여 자궁(自矜)하지만 인간의 능력에는 모두 한계가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피조물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창1장; 잠27:1; 마5:36).

3. ㉠ 신(神)으로 자처하는 두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인가? (2절)

- ㉠ (1)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 (2) 여기서 '마음'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리베카>는 생각과 상상의 자리를 의미하는 말이다. 따라서 인간에 불과한 그는 자신의 마음을 신의 마음으로 여겨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였다.
- (3) 그러므로 자신이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가 진정으로 지혜 있는 자이다. 또한 이 같은 기초 위에서만이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시103:14).

4. ㉠ 두로 왕은 무엇 때문에 교만했는가? (3-5절)

- ㉠ (1) 그는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자신의 지혜와 총명으로 장사하여 많은 재물을 얻었기 때문에 교만해졌다.
- (2) 여기서 다니엘이 언급된 이유는 당시 바벨론에서 다니엘만큼 지혜로운 자도 없었기 때문이다(단2:10, 11, 19; 4:6).
- (3) 한편 '은밀한 것'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칼 사툼>은 '숨겨진 비밀'을 뜻한다.
- (4) 그런데 두로 왕은 많은 나라와의 교역에 자신이 사랑하는 지혜로써 재물을 모았고 그 재물로 인해 더욱 교만하였다.
- (5) 이처럼 오늘날에도 자신의 작은 능력과 부를 의지하는 자들이 많은데 이것은 오늘날과 같이 가치관이 혼란된 시대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교화는 이 사회에

올바른 가치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시대를 이끌어 갈 책임을 져야 한다(마 5:13-16; 빌 2:15).

5. **㉠ 교만한 두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무엇인가? (7-9절)**

- ㉡** (1)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그들의 아름다운 것을 치고 영화를 더럽히며 그들을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하실 것이다.
- (2) 이 ‘열국의 강포한 자’는 바벨론 군대를 가리킨다(30:10, 11; 32:11, 12). 이들은 두로에 쳐들어와서 그들의 아름다운 도시와 소유를 파괴할 것이다.
- (3) 그 뿐 아니라 바벨론 군대는 두로 왕을 구덩이에 빠뜨려서 그가 신이 아니라 인간에 지나지 않음을 보일 것이다.
- (4) 여기서 ‘구덩이’는 ‘음부’, 즉 죽은 영혼이 가는 곳을 말하며 ‘죽음’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메토테>는 복수 명사로서 여러 번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은 고통스런 죽음을 의미한다(참조, 렘 16:4).
- (5) 따라서 이 같은 형벌은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자의 교만을 철저히 징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2절).

6. **㉠ 두로 왕은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가? (10절)**

- ㉡** (1) 그는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과 같은 죽음을 당할 것이다.
- (2)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 의식을 중요시 여기며 할례받지 않은 자들은 언약에서 제외된 자로 여겼다(삼상 17:36; 31:4).
- (3) 한편 사학가 헤로도투스(Herodotus)에 의하면 베니게 사람들도 할례의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 (4) 비록 그가 할례를 받았어도 그는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서 부끄러운 죽음을 당했다.
- (5) 이와 같이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께 구원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의 길에 들어선다면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참조, 롬 11:22; 고전 9:27).

7. **㉠ 두로 왕은 어떤 처지에 있었는가? (12절)**

- ㉡** (1) 여호와와의 말씀에 그는 완전한 인(印)이었고 지혜가 총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 (2) 즉 ‘그는 완전을 인쳤다’로 이해되며 이것은 그가 지도자로서 나라를 완전하게 다스려 번영시킨 사실을 지적한다(참조, 렘 22:24).
- (3) 한편 이 두로 왕은 지혜가 출중했던 옛바알(Ethabaal) 왕으로 전해지고 있다.

8. **㉠ 두로 왕은 누구에 비유되었는가? (13절)**

- ㉡** (1) 그는 에덴 동산의 완전한 환경 속에 살던 아담에 비유되었다.
- (2) 왜냐하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이다.
- (3) 그는 에덴 동산과 같이 많은 귀금속을 가지고(창 2:11, 12) 있었으며 비파와 소고 소리가 들리는 생활을 하였다.

9. **㉠ ‘네가 지음 받던 날’이란 어느 날을 말하는가? (13절)**

- ㉡** (1) 그날은 두로의 왕이 즉위하던 날을 가리킨다.
- (2) 한편 다른 학자들(Herrmann, Cooke)에 의하면 ‘창조되던 날’ 혹은 ‘두로 왕의 생일’(Redpath)로 해석한다.
- (3) 그런데 고대 근동 지방 왕들의 대관식(戴冠式)에서는 소고를 치는 첩(노예)들의 춤이 성행하였다.

10. **㉠ 두로 왕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무엇에 비유되었는가? (14절)**

- ㉡** (1)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으로 비유되었다.
- (2) 이는 법계를 날개로 덮는 지성소의 그룹을 가리킨다(출 25:20; 37:9; 왕상 8:7; 대상 28:

- 18). 그러므로 이 의미는 두로의 왕이 자신의 백성을 지키는 천사로 비유되었음을 상징한다(Matthew Henry).
- (3) 한편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왕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한다(삼상 10:1; 16:13; 왕상 1:39).
- (4)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나(롬 13:1) 그 권력을 사용하는 데는 개개인의 책임이 따른다(참조, 눅 19:13, 15).
11. **㉠ '하나님의 성산(聖山)에 있어서'란 무슨 의미인가? (14절)**
- ㉠** (1) 이는 그가 보석으로 꾸민 호화로운 궁전에서 거처하였음을 가리킨다.
- (2) 원래 하나님의 성산은 시온 산을 말하며 히브리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산으로 이해하였다(대하 3장).
- (3) 그런데 그는 온갖 보석으로 꾸민 화려한 궁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영광이 마치 하나님의 성산에 거한 것으로 비유되었다.
12. **㉠ '네 모든 길에 완전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15절)**
- ㉠** (1) 이는 그가 즉위하던 날부터 모든 일에 있어서 성공적이었으며 그로 인해 두로가 번창하고 명성이 세상에 드러난 사실을 의미한다.
- (2) 그런데 이것은 인류의 조상과 천사가 완전하게 지음을 받은 사실에 비유한 것으로 두로의 영광과 번영을 잘 나타내 준다(창 1:26, 27; 사 14:12).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개개인에게 나름대로 지혜와 능력을 갖고 태어나게 하셨다(참조, 마 25:14-30).
13. **㉠ 두로 왕이 불행한 처지에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16-18절)**
- ㉠** (1) 그것은 그가 강포(強暴)하며 교만하고 자신의 지혜와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 (2) 그런데 그가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역을 통해 많은 재물을 모아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가운데 불의가 점점 드러났기 때문이다.
- (3) 즉 그는 많은 재물과 호화로운 생활 속에서 교만하게 되어 죄를 짓게 되었다.
- (4)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많은 재물과 부유한 생활 속에 나타나는 불의의 씨앗을 경계하여야 한다(참조, 신 8:18; 막 4:19; 딤후 6:9).
14. **㉠ 두로 왕에게 닥친 불행의 발단(發端)은 어디에 있었는가? (16절)**
- ㉠** (1) 두로의 왕은 타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자신의 지혜를 이용하여 불의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했다.
- (2) 그 뿐 아니라 그는 오히려 자신의 권세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였으며 타인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다시피 하여 자신의 배를 채웠다.
- (3)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불의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비록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불행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참조, 고후 6:14; 벧후 2:13).
15. **㉠ 강포(強暴)한 두로 왕에 대한 형벌은 무엇인가? (16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셨다.
- (2) 이는 그가 왕위를 잃고 온갖 보석으로 꾸민 왕궁에서 쫓겨 남을 의미하는 말이다.
- (3) 그가 가지고 있던 왕위와 궁전, 보석은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이었으나 그가 그것들을 불의한 일로 더럽혔기 때문에 그는 호화로운 보석들 사이에서 죽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 (4)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악의 길에 사용한다면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이 오히려 옴무가 되어 파멸에 이를 것이다(참조, 잠 14:12, 16).
16. **㉠ 교만하며 지혜를 더럽힌 두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인가? (17절)**

- (1) 하나님께서는 그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지혜로 교만해진 두로 왕을 낮추시고 모든 나라 왕들에게 교훈거리가 되게 하셨다.
- (3) 이처럼 믿는 자들도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성도의 특권을 상실하게 되어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그는 믿는 자도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형벌을 받는다는 산 증거가 될 것이다(참조, 마 21:43; 25:28; 눅 20:16).

17. **㉠**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란 무슨 뜻인가? (18절)

- ㉠** (1)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내어서 그들을 불 가운데서 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로는 침략군이 불을 놓아 모든 것을 사르는 것을 가리킨다.
- (2) 이처럼 두로는 자신들 내부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파멸시켰으며 태워 버리고 말았다.
- (3) 오늘날의 두로 섬은 느부갓네살과 알렉산더 대왕(Alexander, B. C. 340-323)의 두로 침공 때 놓은 독길이 육지와 연결되어 이제는 반도(半島)가 되었으며 예전의 유적은 바다와 땅 밑에 묻히고 단지 어부들이 그물을 말리는 장소가 되었다(26:4, 5).

18. **㉠** 하나님께서 시돈을 대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21, 22절)

- ㉠** (1)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며 그때 그 사실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다.
- (2) 왜냐하면 시돈도 두로와 마찬가지로 베니게(Phoenicia) 왕국의 도시로 두로보다는 덜 화려했으나 그들도 다른 나라와의 무역 거래 때 많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 (3) 특히 시돈은 아스다뭇을 숭배하였는데 솔로몬은 이를 이스라엘에 들여와서 이스라엘을 더럽혔으며(왕상 11:5) 아합 왕(B. C. 874-853)의 왕비였던 이세벨은 두로와 시돈의 왕인 엣바알(Ethabaal)의 딸로서(왕상 16:31)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 끌어들이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다(왕상 16:31-33).
- (4)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시돈인들에 의해 더럽혀진 자신의 영광과 거룩을 되찾으시기 위해 그들의 죄를 심판하심으로써 자신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보이신 것이다(참조, 왕하 19:28; 대하 20:6).

19. **㉠**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시돈을 징계하실 것인가? (23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질병과 전쟁의 화(禍)를 보내어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 (2) 즉 그들은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과 침략군에 의한 학살로 죽을 것이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가린 시돈인들을 징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보이셨다.

20. **㉠**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은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24절)

- ㉠** (1)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라고 표현되었다.
- (2)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며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을 멸하심은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해방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비롯되었다(렘 23:6; 32:37).
- (3)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베푸신 긍휼을 통해 잘못을 뉘우친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37:27, 28).
- (4) 이와 같이 믿는 성도가 잠시 실수하여 죄를 지었다 해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나타내는 것이다.

21. **㉠**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25, 26절)

- ㉠** (1) 그것은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족속을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평안히 살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다.

- (2) 하나님은 이 같은 회복을 통해 열국의 목전에서 거룩함을 찾으실 것이다.
- (3)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방의 포로가 된 것이 결코 이방의 군사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4)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포로로 잡혀간 자신의 백성을 이방인들의 손에서 구원하심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보이셨다.
- (5)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백성을 멸시하고 조롱하던 이방을 징계하심으로써 이방인에게 더럽혀졌던 자신의 영광을 되찾으신다.
- (6)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고향에서 평안히 살도록 하심으로써 자신의 백성과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신다.

연구자료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 저야 할 책임

본서에 가장 강렬하게 나타나 있는 사상적 개념 중의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 저야 할 책임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예레미야서에도 나와 있으나(렘 31:29, 30) 에스겔은 이것을 자신의 독특한 화술(詬術)로 재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일면 당연한 것이기도 한 이러한 개념이 새삼스럽게 강조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니고 있던 '공동 책임'(corporate responsibility)이라는 사상과 연관이 있다. 즉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한 사람의 범과(犯過)에 대하여 마을 전체가 공동 책임을 느껴 왔던 것이 하나의 전통이었다(참조, 신 13:12-18; 21:1-9). 그러나 이와 같은 미덕(美德)이 결코 개인이 저야 할 고유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 주지는 못한다. 오직 자신의 범과 사실에 대하여선 자신이 책임을 저야 할 뿐이다. 그러므로 에스겔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18:20)라고 기본 원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뿐 아니라 그는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여호와께 범죄하므로 그분께서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 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전지리라'(14:13, 14)라고까지 말하였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 저야 할 책임에 관한 개념은 예레미야가 에스겔보다 먼저 강조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죄가 결코 어떤 회개한 죄인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다는 원칙을 가장 논리적으로 발전시킨 자는 바로 에스겔이다.

제 29 장 바로와 애굽을

향한 여호와와의 진노

단락구분 1-7 애굽 왕의 피멸이 예언되다 / 8-12 예언된 애굽 땅의 황폐 / 13-16 40년 후의 회복이 약속되다 / 17-20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진 분깃 / 21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의 약속

1 제 십 년 시 월 십 이 일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낮을 향하고 처서 예언하라

3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4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네 강의 고기로 네 비늘에 붙게 하고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네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5 너와 네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음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음이라

6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7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로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8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칼로 네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즉

9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10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밭들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무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11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접하는 사람이 없이 사십 년이 지날지라

12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한 열국같이 황무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열국의 성읍같이 사십 년 동안 황무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헤치리라

13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십 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 내되

14 애굽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15 15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16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뢰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나게 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17 제 이십 칠 년 정월 초일 일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18 인자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각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각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보수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19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리니 그가 그 무리를 옮겨 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리라

20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보수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21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 Ⓐ (1) 본장에는 애굽 왕 바로(Pharaoh)와 애굽의 파멸이 예언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의 멸망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부언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패망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의 멸망으로서 황폐된 지 40년 후 부분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펼쳐진 사건이다.
- (2) 한편 본장은 애굽을 치는 일곱 예언(29-32장)의 첫 부분과 끝 부분을 담고 있는데 첫째 것은(1-16절) B. C. 586년의 일이며, 다음 것은(17-21절) B. C. 571-570년의 일을 예언한 내용이다.
- (3) 그런데 애굽의 왕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이유는 그가 마치 창조주와 같이 행동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따르게 하였기 때문이다.
- (4) 이처럼 이 세상의 어떤 국가나 개인이 비록 능력이 있고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치 자신의 내부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하여 교만에 빠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낮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의 으뜸이 되시길 원하시기 때문이다.
2. ⓐ 애굽에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설명하라(1, 2절).
- Ⓐ (1) 26-28장까지 두로의 멸망에 대해 예언이 있은 후 본장부터는 애굽에 대한 예언이 계속된다(29-32장).
- (2) 그런데 이 예언은 모두 일곱 가지로 되어 있다. 첫째는(29:1-16) 포로 제 10년의 예언으로 바로(Pharaoh)와 애굽에 대한 위협이다.
- (3) 둘째는(29:17-21) 느부갓네살에 의한 애굽 정복의 내용, 셋째는(30:1-19) 애굽과 그 동맹국들에 임할 심판 날의 묘사이다.
- (4) 넷째는(30:20-26) 바벨론 왕에 의한 바로의 쇠약, 다섯째는(31장) 앗수르의 영광과 멸망이 애굽에게 경고로 보여진다.
- (5) 여섯째는(32:1-16) 애굽 왕에 대한 애가, 일곱째는(32:17-32) 애굽의 몰락에 대한 애가로 애굽의 패망이 네 장에 걸쳐서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
3. ⓐ 애굽 왕과 애굽에 대한 예언은 어느 때에 선포되었는가? (1, 2 절)
- Ⓐ (1) 그때는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된 지 10년 되던 해이다.
- (2) 그런데 이 예언이 유다의 바벨론 포로 생활 제 11년에 선포된 두로에 대한 예언보다 뒤에 언급된 이유는 두로의 멸망이 애굽의 멸망보다 앞섰기 때문이다.
- (3) 한편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침공한 것은 애굽이 두로의 환난을 구원하기 위해 바벨론에 대적했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이 같은 배경에서 애굽에 대한 예언이 두로보다 뒤에 언급되었다.
4. ⓐ '바로'의 의미는 무엇인가? (2절)
- Ⓐ (1) 이 '바로'(Pharaoh)는 히브리어로 <파라에>로 '큰 집'을 뜻하는 애굽어에서 유래한 고대 애굽 왕들의 칭호이다.
- (2) '큰 집'이라는 의미의 '바로'라는 말이 애굽에서 왕 개인의 호칭으로 사용된 것은 신(新) 왕국 시대(B. C. 1550-1070)에 와서였다.
- (3) 한편 구약 성경에서는 애굽 왕을 가리킬 때 다른 고유 명칭 없이 '바로'라는 단독 명칭만 사용하거나 때로는 여기서 '애굽 왕'이라는 호칭까지 덧붙였는데 이는 솔로몬 시대까지 계속되었다.
- (4) 그 뒤 제 22왕조 이후부터는 '바로'라는 칭호 앞에 왕 이름을 붙여 부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호칭법은 B. C. 1000년 이후 구약 성경에 반영되어 '바로느고', '바로 호브라'(렘 44:30;46:2)라는 칭호가 성경에 사용되었다.
5. ⓐ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를 무엇에 비유하셨는가? (3절)
- Ⓐ (1)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에 바로를 비유하셨다.

- (2) 그런데 여기서 ‘악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타님>으로 문자대로 해석하면 ‘긴 짐승’을 가리킨다.
- (3) 한편 애굽의 나일 강은 악어로 유명한데 이 악어의 포악하고 사나운 점에 있어서 애굽 왕이 비유되었다(참조, 시 74:13; 사 51:9; 27:1).
- (4) 그리고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이란 바로 자신이 가진 안정된 권세를 자랑하는 말로서 나일 강과 그 지류(支流) 그리고 운하(사 7:18) 속에 있는 악어가 거드름을 피우는 모습에 비유되었다.

6. ㉠ 애굽 왕의 교만한 모습은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3절)

- ㉠ (1)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다.
- (2) 즉 그는 자신을 절대 군주로 혹은 창조자로 여겨서 애굽의 모든 것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뽐내고 있었던 것이다.
- (3) 그런데 애굽인들이 이해하기에 애굽 왕은 그 땅의 신(神)이었으며 절대 주권자였다(참조, 28:2).
- (4) 그러나 그의 이 같은 교만은 곧 자신을 과멸로 이끌어 가는 요인이 되었지만 그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다(잠 16:18; 29:23).

7. ㉠ 애굽 왕은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로 이해되었는가? (3절)

- ㉠ (1) 애굽의 왕은 자기 백성에게 있어서는 인간 가운데 거하는 하나의 신(神)이며 신들의 세계에 거하는 하나의 인간이었다.
- (2) 즉 그는 애굽 백성과 우주의 신들 사이를 중재하는 자이며 지상을 다스리는 신의化身(化身)이었다.
- (3) 따라서 애굽의 왕은 매의 신(神)이면서 통치권을 가진 승리의 신 호루스(Horus)와 동일시되었다. 그러나 고왕국 시대에 와서는 태양신 레(Re)의 아들로 이해되면서 왕의 신적 지위는 약화되었다.
- (4) 더우기 후대(後代)에 들어와서는 왕이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영원한 힘을 가진 아몬(Amon) 신의 명령이나 계획을 집행하는 자로 이해되었고 신들에 대한 백성의 대표자와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였다.
-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은 여전히 백성들에게 신으로 인식되어 그 권세와 지위는 막강하였다(출 7:1; 12:12; 사 19:11).
- (6) 고대로부터 모든 왕이나 주권자들은 자신이 신(神)과 백성의 아버지로 여겨지기를 바라고 또한 그렇게 행동하였으나 이 같은 행동은 자신이 인간이며 인간은 어느 누구나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망각한 데서 비롯되었다(참조, 전 12:11).

8. ㉠ 애굽 왕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무엇인가? (4절)

- ㉠ (1)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침략군을 보내셔서 애굽 왕과 그의 신하 및 군대와 백성 모두가 패망의 길로 떨어지게 하실 것이다.
- (2) 여기서 ‘악어’로 비유된 바로는 당시 나일 강의 악어가 특수하게 제작된 낚시에 의해 잡히듯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 정복될 것이다(19, 20절).
- (3) 한편 그의 군대와 백성은 그를 의지하고 충성하였으나 결국은 그와 마찬가지로 버림을 당할 것이다.
- (4) 이처럼 불의한 자에게 의지하며 그의 불의한 행동을 도와 주는 자들은 비록 당시에는 불의한 일로 인해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때가 다하여 몰락의 길을 걷게 되면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거나 도와 주지 않을 것이다(시 139:19; 잠 5:22).

9. ㉠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애굽 왕과 그의 백성은 어떤 상태에 처할 것인가? (5절)

- Ⓐ (1) 그들은 들에 던져져서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되어 다시는 모음을 입지 못하는 처지에 빠질 것이다.
- (2) 그런데 '들'은 사막 가운데 있어서 풍요함과 서늘함을 주는 나일 강과 대조를 이루는 장소로서 죽음과 기아(飢餓)와 목마름이 있는 곳을 상징한다.
- (3)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나일 강과 같은 풍요로운 곳에서 쫓겨 나 사막에서 매장되지도 못한 채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 (4) 이처럼 우리 인간은 풍요한 평안 가운데 있을 때 타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풍요로울 때 교만하거나 타인을 해칠 때가 있는데 만일 그가 몰락의 길을 걷는다면 모두가 그의 과거를 생각하여 멸시와 조롱을 던질 것이기 때문이다(욥 5:3-5).
10. Ⓢ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애굽은 어떤 존재였는가? (6절)
- Ⓐ (1)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있어서는 갈대 지팡이었다.
- (2) 그런데 애굽이 '갈대 지팡이'로 비유된 것은 애굽에 갈대가 많은 까닭이었다(출 2:3, 5; 사 19:6).
- (3) 또한 이 '갈대 지팡이'란 상징은 사 36:6에서 유래한 것으로 앗수르 왕의 입에서 나와 갈대아인들이 대대로 전한 말이다.
- (4) 그런데 그 의미는 의지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즉 그것을 가지거나 의지하는 자는 오히려 해를 입는다는 뜻으로 애굽과 이스라엘 모두를 조롱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11. Ⓢ 갈대 지팡이에 비유된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7절)
- Ⓐ (1)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할 때 애굽은 이스라엘의 도움이 되어 주기 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실망시키거나 그 일로 인해 해를 당하게 하였다.
- (2) 특히 애굽은 바벨론과의 동맹 관계에 있던 이스라엘을 충동시켜 그 관계를 끊고 자신들과 새로운 동맹을 맺게 하면서 바벨론과 적대 관계에 있게 함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하였다(왕하 24:20; 25:1, 2).
- (3)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화려하고 멋지게 보이는 사람이나 주의(主義), 이론(理論)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히나 실상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치는 돌들뿐이다.
- (4)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지식과 부(富)를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겸손히 맡기어야 한다.
12. Ⓢ 이스라엘로 하여금 파멸의 길에 들어서게 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무엇인가? (8, 9절)
- Ⓐ (1) 애굽은 침략군에 의해 짓밟혀서 사람도 짐승도 굶김을 당하여 애굽 전역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 (2) 그런데 그 이유는 애굽 왕의 교만과 애굽의 범죄, 즉 이스라엘을 파멸로 인도한 죄 때문이었다(3, 7절).
- (3) 이처럼 교만한 자와 사악한 자가 세상에서 더 번성하고 잘되는 것같이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죄를 몰으시고 그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신다(1:4).
13. Ⓢ 므깃도와 수에네는 어떤 곳인가? (10절)
- Ⓐ (1) 므깃도는 애굽 최북단(最北端)의 성읍이며 수에네는 최남단(最南端)의 지역이다.
- (2) '탑'이라는 뜻을 가진 므깃도(Migdol)은 팔레스틴으로부터 해안을 따라 애굽으로 들어오는 길에 망루처럼 높은 곳에 위치한 곳이다(30:6; 출 13:17; 렘 44:1; 46:14).
- (3) 또한 수에네는 애굽의 남쪽, 나일 강의 동편 에티오피아 쪽 지방을 말하는데 지금의 아스완(Assuan)에 해당하는 곳이다.

14. **㉠** 애굽은 파멸된 지 얼마 후에 회복될 것인가? (11-13절)

- ㉠** (1) 하나님께서는 열방에 흩어진 애굽을 40년 후에 다시 모을 것이다.
 (2) 여기서 40년이라는 기간은 번창했던 애굽이 완전히 폐허가 되기에 적절한 기간으로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유랑하던 기간과 일치한다.
 (3) 한편 애굽의 '광야 생활'은 화려하고 번창하던 옛 생활에 비해 파멸과 고통의 나날을 의미한다.
 (4) 따라서 이 기간은 애굽의 고난의 시기를 가리키는 상징적 연수(年數)이다(Delitzsch).

15. **㉠**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애굽 백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14절)

- ㉠** (1)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지만 그들은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다.
 (2) 40년간의 고통의 기간이 지나갈 무렵 바벨론은 그 전성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는 바사(Persia)의 고레스가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을 잡게 된다.
 (3) 이에 따라 바벨론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던 애굽 백성들도 흩어진 지역에서 고향 땅 바드로스로 모여든다.
 (4) 그런데 이 바드로스(Pathros)는 남쪽, 즉 나일 강의 상류 지역을 말한다. 특히 애굽인들의 신화와 역사가들(Herodotus, Diodorus)에 의하면 나일 강의 상류 애굽을 애굽인의 모국과 본토로 설명한다.
 (5) 이처럼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오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이전의 권세와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신뢰의 대상도 되지 못하는 미약한 국가로 남는다.

16. **㉠**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의지의 대상이 되었던 강대국 애굽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15, 16절)

- ㉠** (1) 그들이 다시는 강국이 되지 못하여 이방을 다스리는 국가가 되지 못할 것이며 더 이상 이스라엘이 의지할 대상이 못 될 것이다.
 (2) 애굽이 이같이 비참한 운명에 빠지게 된 원인은 첫째, 그들이 지극한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낮아지고 멸시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3) 또 하나는, 애굽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4)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다시 애굽을 의외하는 죄를 범치 않을 뿐더러 하나님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조차 생기지 않을 것이다.
 (5)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한다면 의지하는 자와 대상 모두가 파멸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이다(참조, 창 1:26-28).

17. **㉠**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제 이십 칠 년 정월 초일 일'은 언제인가? (17절)

- ㉠** (1) 이때는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이 포로된 지 27년 되는 해이다.
 (2) 즉 본장 16 절까지의 예언이 있는 지 16년이며 30-32장 사이의 예언과 같은 시기이다.
 (3) 그런데 16년 후의 사건이 본장에 나온 이유는 본장에서 예언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4) 한편 예루살렘 멸망 이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암몬과 모압의 정복을 위해 세 번 출정하여 결국 그들을 정복하였다. 그 후 그는 두로를 공략하는 데 13년을 보냈다.
 (5) 그 동안 애굽은 구레네인들과의 전쟁으로 인해 많이 약해져 있었으며 두로의 공략을 끝낸 느부갓네살은 애굽을 침공하게 되었다.

18. **㉠**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침공한 결과 얻은 것은 무엇인가? (18절)

- Ⓐ (1) 그는 보수(報酬)를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그의 군대는 머리털이 무지러지고 어깨가 벗어지는 고생을 하였다.
- (2) 즉 13년간의 포위 공격으로도 느부갓네살은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고 병사들은 운계(雲梯)를 세우고 토성을 쌓는 데(26:8) 많은 고생을 하였다.
- (3)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두로 공격에서 이득을 얻지 못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포위 기간 동안 두로는 자신들의 재물을 다른 곳으로 도피시켰다는 설(說)과 화가 난 바벨론 군대가 모든 것을 파괴해서 아무 소득도 없었다는 설 등이 있다.

19. Ⓞ 두로 공격에서 아무 이득을 얻지 못한 느부갓네살에 대한 하나님의 보수는 무엇인가? (19, 20절)

- Ⓐ (1)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수고를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하셨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을 그에게 허락하셔서 두로 침공에서 얻지 못한 보수를 약속하셨다.
- (2) 또한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 애굽 정벌은 반(反) 갈대아 동맹의 추축이 되는 애굽을 쳐부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에 필요하였다.
- (3) 한편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을 위한 수고라고 하신 이유는, 비록 그들이 두로를 공격한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명예심과 탐욕을 사용하시어 교만한 두로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잘못된 의도를 갖고서 무슨 일을 할 때에도 그 행동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참조, 사45:1-7; 빌 1:15-18).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주인이심을 알 수 있다.

20. Ⓞ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란 무슨 뜻인가? (21절)

- Ⓐ (1) 이것은 느부갓네살에 의해 애굽이 멸망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의미이다.
- (2) 여기서 ‘뿔’은 권세와 힘을 상징하는데 멸망으로 인해 힘을 잃은(렘 48:25; 애 2:3)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는다.
- (3) 그런데 이 뿔은 스룹바벨도 아니며 메시아도 아니라 24:26, 27에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말한다(34:23, 24; 37:15-17; 시 132:17).
- (4) 한편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열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선지자를 강하게 불드시고 그의 예언이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뜻이다(참조, 율 3장).
- (5) 따라서 애굽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한다. 왜냐하면 애굽은 당시 세상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 (6)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타협하여 오히려 파멸의 길을 걷던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신 후 그들을 정결케 하여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이다.

본장의 요절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21절).

제 30 장 애굽과 동맹국들의 파멸

단락구분 1-5 심판이 선포되다 / 6-9 애굽은 황무해질 것이다 / 10-12 심판의 집행자 / 13-19 파괴와 학살이 예언되다 / 20-26 느부갓네살이 바로의 세력을 꺾다

- 1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 2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 이여 하라
- 3 그날이 가까와도다 여호와와 날이 가까와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 4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살륙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옮기우며 그 기지가 험할 것이요
- 5 구스와 붓과 콧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굶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 6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굽을 불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므돤에서부터 수에내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
- 7 황무한 열방같이 그들도 황무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 8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한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 9 그날에 사자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 10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애굽 무리들을 끊으리니
- 11 그가 열국 중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할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살륙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 12 내가 그 모든 강을 말리우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렸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무케 하리라 나 여호와와 말이니라
- 13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우상들을 멸하며 산상들을 높 가운데서 끊으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

- 려움이 있게 하리라
- 14 내가 바드로스를 황무케 하며 소안에 불을 일으키며 노를 국문하며
- 15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 신에 쏟고 또 노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 16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이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는 쪼어 나뉠 것이며 높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 17 아헨과 비벡셋의 소년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거민들은 포로 될 것이라
- 18 내가 애굽 명어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합느헤스에 사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 될 것이라
- 19 이와 같이 내가 애굽을 국문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 20 제 십 일 년 정월 칠 일에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 21 인자야 내가 애굽 왕 바로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그저 싸매지도 못하고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 22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왕 바로를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 23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흠으며 열방 가운데로 헤칠지라
- 24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붙이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의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 25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 주고 바로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고 그로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 26 내가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흠으며 열방 가운데로 헤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 Ⓐ (1) 본장에는 앞장에 이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계속되고 있다.
- (2) 애굽이 멸망하는 날, 즉 ‘여호와의 날’에는 애굽의 동맹국들도 망할 것이다. 그런데 애굽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강하게 불드시고 바로를 약하게 하신 결과이다.
- (3) 그리고 그날은 이방에 혼란이 오는 암흑의 날로서(을 1:15; 2:1, 2) 특히 본장에 언급된 날은 애굽을 심판하기 위한 특별한 날이다.
- (4) 또한 본장은 애굽에 심판을 내리는 도구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다는 점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 (5) 우리가 느끼기에 이 세상의 역사가 단지 강대국들의 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역사의 향방은 우리 각 개인에게 역사(役事)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써 결정되는 것이다.

2. Ⓢ 슬픔이 임하는 이날은 언제를 가리키는가? (2, 3절)

- Ⓐ (1) 이날은 여호와의 날이며 열국이 심판을 받는 때이다.
- (2) 그런데 이날은 세상 종말의 날이 아니라 단지 애굽과 애굽의 동맹국들이 멸망하는 날이다(4절; 을 1:15).
- (3) 이에 반해 아모스와 스바나는 여호와의 날을 이스라엘 심판의 날로 해석한다(암 5:18-20; 8:9, 10).
- (4) 그러나 이날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이며 이스라엘이 이방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날이다(암 9:11).
- (5) 따라서 이방인에 대한 심판의 날이 그들에게 얽매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기쁨과 구원의 날이 된다.

3. Ⓢ 애굽에 칼이 임하는 날 애굽의 사회상(社會相)을 설명하라(4절).

- Ⓐ (1) 애굽의 무리가 옮기우며 그 기지(基址)가 헐릴 것이다.
- (2) 여기서 무리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하모나〉인데 그 뜻은 ‘균중’ 혹은 ‘부(富)’를 의미한다(29:19). 그런데 RSV나 현대에 번역된 성경들에는 ‘부’로 번역되어 있다.
- (3) 한편 ‘기지’는 사회를 밀받침하고 유지시키는 규례와 법률을 의미한다.
- (4) 그러므로 이 두 낱말은 애굽 사회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경제와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지극한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을 의미해 준다.
- (5) 이처럼 전쟁은 인간들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으며 한 사회의 전통과 문화와 법질서를 파괴한다. 따라서 인간의 삶을 파멸로 이끄는 전쟁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한다.

4. Ⓢ 애굽과 운명을 같이 할 족속은 어떤 민족들인가? (5절)

- Ⓐ (1) 그들은 구스, 붓, 뚝과 굽의 백성들이다.
- (2) 여기서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붓은 리비아, 뚝은 아프리카의 리디아를 가리키며(27:10) ‘섞인 백성’이란 이 같은 애굽 주변의 백성들이 애굽 군대의 용병으로 와 있던 사실을 가리킨다(렘 46:9).
- (3) 그리고 ‘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리비아라는 말인 쿠브(Kûb)를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
- (4) 한편 ‘동맹(同盟)한 땅의 백성’이란 애굽 근처에 있으면서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족속을 의미한다.
- (5) 이같이 애굽과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족속들은 애굽이 위기에 빠졌을 때 도움을 주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애굽과 같은 패망을 맞이하게 되었다.
- (6) 이처럼 불의한 자를 도움은 곧 그 불의를 더욱 키우는 것이며 불의를 두둔하는 행위가

다. 따라서 불의한 자를 돕는 자도 형벌을 면치 못한다(28:21-23).

5. **㉠**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6절)

㉡ (1) 이는 애굽이 의지하는 무엇을 가리킨다.

(2) 그런데 70인역(LXX)에서는 원조(援助) 곧 애굽을 도와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또한 ‘우상’이나 지도자, 동맹국들 그리고 애굽의 병사를 가리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6. **㉠** 하나님께서 애굽에 불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8절)

㉡ (1)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의 불을 애굽에 내리시는 것을 의미한다.

(2) 그런데 그 ‘불’은 애굽의 모든 것을 태워 버려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28:18).

(3) 애굽이 이 같은 패망을 당한 후에는 자신들에게 임한 환난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4) 이처럼 우리 인간은 평소에는 하나님을 잊고 있다가 환난과 고통에 직면해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무지한 존재이다(참조, 시 103:14).

7. **㉠** 구스가 근심하게 될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9절)

㉡ (1) 애굽이 멸망하는 날에 사자(使者)들이 배로 구스 사람에게 애굽 멸망의 소식을 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2) 그런데 상(上)애굽과 에티오피아의 국경 지대에는 소식을 전하는 사자(使者)들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속히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었다(Lange).

(3) 그러므로 애굽의 패망 소식을 들은 에티오피아인들은 자신들에게도 환난이 미칠까 생각하여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다(참조, 사 18:1, 2).

8. **㉠**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執行)할 대리자(代理者)는 누구인가? (10, 11절)

㉡ (1) 그는 당시 근동 지방에 세력을 떨치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다.

(2) 그는 팔레스틴 침공을 끝낸 후 자신의 군대를 애굽으로 이끌어 와서 애굽의 모든 무리, 즉 사람과 가축을 죽이고 또한 재산을 약탈할 것이다(29:19).

(3) 이처럼 불의하고 사악한 자는 자신이 저지른 것과 같이 자신도 포악한 자의 손에 의해 고통을 당한다(참조, 시 34:21).

9. **㉠** ‘강을 말리우고’란 무슨 뜻인가? (12절)

㉡ (1)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가 애굽 땅에 들어갈 때 장애물이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함을 의미한다.

(2) 그런데 이 ‘강’은 나일 강과 지류 및 운하를 말하는데 애굽 땅은 이곳으로부터 농산물을 자라게 하는 물을 공급받았다.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가 침공을 쉽게 하도록 그들 앞에 놓인 모든 자연적 장애물을 제거하셨다.

(4) 따라서 애굽은 전쟁으로 인한 학살과 파괴 위에 양식의 부족으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되었다(사 19:5, 6).

10. **㉠** 바벨론의 침공은 애굽의 종교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13절)

㉡ (1) 애굽의 우상들과 신상(神像)들이 흙 가운데서 끊어지며 애굽 땅에서는 왕이 다시 나지 못할 것이다.

(2) 여기서 우상과 신상, 왕은 모두 애굽의 경배 대상이 되는 것들이다. 즉 애굽의 신들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치심으로써 애굽이 의지하는 신(神)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 주신다.

(3) 그런데 ‘놉’(Noph)은 중부 이집트에 있는 우상 숭배의 중심 도시로서 지금의 멤피스(Memphis)에 해당한다.

- (4) 이 ‘놉’에는 불의 신인 ‘프타’(Ptah)를 모신 신전이 있었다. 그런데 프타는 애굽 최고(最古)의 신으로 대대로 애굽의 왕들은 이 프타를 경건하게 섬겨 왔다.
- (5) 이같이 애굽의 종교는 백성으로부터 신(神)으로 여겨지던 바로가 그 권세를 잃게 되고 전국의 신전이 파괴되어 애굽인들도 이스라엘 족속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종교를 잃게 되었다(25:8).

11. ㉠ ‘바드로스’와 ‘소안’과 ‘노’는 어디를 말하는가? (14절)

- ㉠ (1) 이곳들은 하(下)애굽에서 상(上)애굽까지의 애굽 전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 (2) 그런데 ‘바드로스’(Pathros)는 상애굽 지역을 말하며, ‘노’는 그곳의 중요 도시로 ‘노아몬’이 완전한 명칭이며 지금의 테베(Thebes)를 가리킨다.
- (3) 그리고 ‘노’는 애굽어로 ‘관찰자의 사슬’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아몬’(Amon)이 거하는 곳을 의미한다.
- (4) 이 ‘아몬’은 제 11왕조까지 ‘노’를 중심으로 한 상애굽을 다스렸으며 그 뜻은 ‘높은 곳에서 다스리는 은밀자’를 의미한다.
- (5) 한편 ‘소안’은 하애굽에 위치한 고대의 타니스로 나일 강 지류의 도시 명칭이다(민 13:22; 시 78:12).
- (6) 그런데 본질은 애굽 종교의 중심이 되는 도시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보인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힘은 그 나라의 종교나 철학에 의해 지지되기 때문이다.

12. ㉠ 하나님의 분노가 임할 곳은 어디인가? (15, 16절)

- ㉠ (1) 그곳은 애굽의 견고한 성(城) 신(Sin= Pelusium)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의 무리를 꾸을 것이며 놉에게는 날로 대적이 있게 하실 것이다.
- (2) 그런데 이 ‘신’은 ‘진흙’이란 뜻을 갖고 있는 동부 애굽의 도시로 애굽은 외적이 이곳으로 침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애굽의 열쇠’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 (3) 그렇지만 아무리 견고한 성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다.
- (4) 우리의 생활에서도 굳게 믿던 것이 무너졌을 때 그 사람의 전체 생활이 쉽게 무너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평안한 삶을 누려야겠다(참조, 시 4:8; 29:11).

13. ㉠ 아헨과 비베셋은 어떤 환난을 겪을 것인가? (17절)

- ㉠ (1) 그들의 소년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 성읍 거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 (2) 여기서 ‘소년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후레>는 젊은 용사들을 가리킨다(마 14:51).
- (3) 그리고 ‘아헨’은 하(下)애굽에 있는 헬리오폴리스(Heliopolis)의 고유 이름이었는데(창 41:45,50; 렘 43:13) ‘태양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 (4) 그런데 이곳은 애굽인들이 태양을 숭배하는 특별한 장소이며 많은 제사장들이 모여 있는 태양의 신(神) 라(Ra)의 신전이 있는 곳이다.
- (5) 한편 ‘비베셋’은 나일 강 하류의 우상 도시인데 후에 바사인들에 의해 멸망당했다.
- (6) 이처럼 하(下)애굽에 있어서 중요한 종교 도시들은 장차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용사들은 모두 죽고 그 주민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14. ㉠ ‘드함스헤스’의 운명은 어찌될 것인가? (18절)

- ㉠ (1)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그곳은 무너지고 주변의 작은 촌락 주민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 (2) 그런데 이 도시는 프삼메티쿠스(Psammetichus) 시대 이후에 애굽의 강력한 군대가 있었던 국경 도시로 이곳에서 바로의 궁전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 (3) 한편 예루살렘이 망한 후 유대인 피난민 중의 일부는 이곳을 피난처로 삼았으나(렘 43:7) 예레미야도 이곳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고 예언했다(렘 43:7-13; 44:1 이하).

- (4) 그런데 애굽에 대한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과 열방을 얹어맨 애굽의 명을 꺾고 그들의 교만을 그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 (5) 결국 그의 예언대로 ‘드합느헤스’는 주변의 작은 촌락까지도 공격을 받아 모든 자들이 죽거나 포로가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15. **㉠** ‘제 십 일 년 정월 칠 일’은 역사적으로 어느 때를 가리키는가? (20절)

- ㉠** (1) 이때는 29:1 이하의 내용보다 3개월 가량 늦은 시기로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게 2년째 포위된 때이다.
- (2) 또한 이때는 애굽의 바로호프라(Paraoh-Hophra)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구조하기 위해 왔으나 바벨론 군대에게 패배한 후이다(21절).
- (3) 한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3개월 후 예루살렘을 정복했으며(렘 39:2) 16년 후에는 애굽을 침공하였다. 따라서 본 예언은 애굽이 침공받기 16년 전의 예언이다.

16. **㉠** 애굽 왕을 향한 하나님의 조처(措處)는 무엇인가? (21절)

- ㉠** (1)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팔을 꺾어 칼을 잡지 못하도록 하였다.
- (2) 이것은 B. C. 605년 애굽 왕 느고 2세(Necho II)가 갈그미스(Carchemish)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에게 참패한 사실을 가리킨다(렘 46:2).
- (3) 또한 본절에서 ‘싸맨다’는 말은 바로의 군대가 타격을 입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며 흩어진 군대를 재편성(再編成)하여 강하게(칼 잡을 힘을 가짐) 함을 말한다.

17. **㉠** ‘성한 팔을 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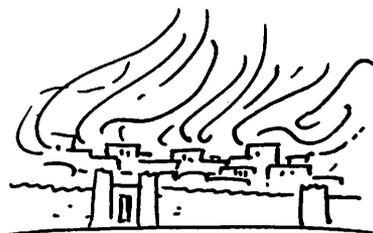
- ㉠** (1) 이것은 애굽이 계속되는 이방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재기 불능(再起不能)의 상태에 빠진 것을 말한다.
- (2) 즉 애굽의 바로호프라(Paraoh-Hophra)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되었을 때(B. C. 587-586) 원군을 보내었으나 이때 바벨론 군대와와의 전투에서 큰 패배를 입었다(참조, 렘 37:5, 7).
- (3) 따라서 바로는 다시 위세를 떨칠 힘이 없게 되었으며 결국 16년 후에 닥칠 바벨론 군대의 침공에서도 전(全)국토가 황폐화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11-19절).

18. **㉠**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멸망시키기 위해 어떤 조처(措處)를 취하실 것인가?(24-26절)

- ㉠** (1)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시고 애굽 왕의 팔은 떨어뜨리실 것이며 여호와 의 칼을 바벨론 왕에게 붙여 애굽을 치게 하실 것이다.
- (2) 이것은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애굽을 침공하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 (3) 이처럼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며 애굽도 자신들이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대하 20:6; 단 4:17, 25, 26, 32, ;5:29).

본장의 요절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8절).



제 31 장 애굽에게 앗수르의 영광과 몰락을 보이다

단락구분 1-2 바로에게 전달된 예언 / 3-9 앗수르의 영광을 보이다 / 10-14 앗수르의 교만한 모습 / 15-17 앗수르의 멸망 소식이 전해지다 / 18 앗수르가 애굽의 교훈거리가 되다

1 제 십 일 년 삼월 초일 일에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네 큰 위엄을 뉘게 비하랴
 3 불지이다 앗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 들은 삼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4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흐르며 보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며
 5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났고
 6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느니라
 7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답우며
 8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 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 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9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10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뻗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11 내가 열국의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 그가 임의로 대접할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쫓아내었음이라
 12 열국의 강포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 버렸

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며
 13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14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로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 대임을 받는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는 데 붙여서 인생 중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니라
 15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로 그로 인하여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16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 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 올 받게 하였느니라
 17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음부에 내려갈에 살륙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열국 중에서 그 그늘 아래 거하던 자니라
 18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륙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 하라

1. ㉠ 본장의 예언은 어떠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는가?
 ㉡ (1) 본장에는 앗수르의 영광과 몰락을 애굽에게 상기(想起) 시킴으로써 애굽으로 하여금 자선들의 패망을 예견(豫見) 하도록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2) 즉 앓수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와 풍요로 열국(列國)의 지배자가 되었으나 그로 인해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셨으며 이것을 애굽에게 보임으로써 애굽에게 경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3) 한편 앓수르의 영광과 번영은 아름다운 레바논 백향목에 비유되어 그 나무가 피조된 나무들 중 가장 아름답듯이 앓수르의 권세가 모든 나라에 뛰어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
- (4) 그러므로 이 비유의 목적은 지극한 교만에 빠진 바로에게 앓수르의 전철(前轍)을 밟지 말도록 경고하는 데 있다.

2. **㉠ 본장의 예언이 에스겔에게 임한 때는 언제인가? (1절)**

- ㉠** (1) 그때는 에스겔과 유다인이 바벨론에 포로된 지 11년 3개월이 지난 때이며 예루살렘이 정복되기 1개월 전이다.
- (2) 또한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깊은 실의(失意)에 빠져 있을 때로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은 그들을 증오하던 이방인에게로 향하였다.
- (3) 따라서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위로가 되며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의 교만과 악의에 대한 경고가 된다(사 51:22, 23).

3. **㉠ ‘네 큰 위엄(威嚴)을 낮게 비하라’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2절)**

- ㉠** (1) 이 말씀은 애굽 왕 바로의 위엄과 권세를 인정하는 말이면서 또한 바로(Paraoh) 스스로가 가진 자만(自慢)을 지적하는 말이다.
- (2) 따라서 이 말씀은 현재 그가 갖고 있는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 그는 앓수르와 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과 연결된다(18절).
- (3) 마찬가지로 타인들의 불행이 곧 나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4. **㉠ 앓수르 사람은 무엇에 비유되었는가? (3절)**

- ㉠** (1) 그들은 아름답고 훌륭한 ‘레바논 백향목’에 비유되었다.
- (2) 그런데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대단히 단단하고 키가 다른 나무보다 월등히 큰 나무였기 때문에 당시 앓수르의 권세가 그것에 비유되었다(17:23; 사 9:15).
- (3) 이처럼 남들보다 훌륭하고 재능이 많은 자들이 겸손하기란 참으로 힘들다(28:2-6). 그러나 겸손하여야만이 그러한 재능을 지킬 수 있고 여전히 훌륭한 자로 남을 수 있다(참조, 왕상 3:6-14).

5. **㉠ ‘레바논 백향목’을 아름답게 자라도록 만든 것은 무엇인가? (4절)**

- ㉠** (1) ‘깊은 물’이 그것을 아름답게 자라게 하였다.
- (2) 여기서 ‘깊은 물’ 혹은 ‘물들’이란 앓수르의 수도 니느웨 주변의 티그리스(Tigris) 강과 수로(水路)들을 가리킨다(29:3).
- (3) 또한 ‘보’(狀)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쳤다는 것은 백향목 이외의 나무들, 즉 앓수르 주변의 족속들이 앓수르의 영향을 받아 풍성한 삶을 살은 것을 의미한다.
- (4)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영적 성숙과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경건한 성도들이다.

6. **㉠ 훌륭하게 자란 ‘레바논 백향목’은 주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5, 6절)**

- ㉠** (1)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이 그 가지에 깃들며 새끼를 낳고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게 하였다.
- (2) 이처럼 훌륭하게 자란 ‘레바논 백향목’의 모습은 앓수르 왕의 권위와 위엄을 보이는 것이다.

- (3) 또한 그 가지들이 번성(蕃盛)한 것은 그 나라가 영토를 넓히고 통치력과 권세가 확장 되었음을 가리킨다.
- (4) 한편 그 가지들에 모여든 '새와 짐승들'은 앗수르의 치하(治下)에 들어온 많은 나라의 왕들을 가리킨다.
- (5) 이처럼 권세를 가진 자들의 주변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물려들게 마련이다. 따라서 권세를 가진 자들은 그 권세를 모든 사람의 평화와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권세는 단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참조, 마 25:14, 15; 뱀전 4:10).

7. **㉠** '레바논 백향목'이 크고 가지가 길어 아름다운 모양을 갖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7절)

- ㉡** (1) 그 원인은 그 나무의 뿌리가 큰 물가에 있었기 때문이다.
- (2) 이것은 앗수르가 위치한 지리적 조건과 함께 앗수르를 번영시키는 재물과 강력한 군사력을 말한다(참조, 시 1:3; 렘 17:8).
- (3) 즉 앗수르는 티그리스(Tigris) 강 유역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풍부한 물로 인해 많은 농산물을 거둘 수가 있었으며 그들의 재물과 막강한 군사력은 그 나라를 더욱 번성케 하였다.
- (4) 이처럼 한 나라를 부강케 하는 요소는 많은 자원이라는 것이 분명하지만 적은 자원을 가지고도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인적 자원(人的資源)도 중요하다.
- (5) 따라서 우리 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는 훌륭한 인재(人材)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인재는 반드시 하나님과 인간을 섬길 줄 알아야 진정한 인재라 할 수 있겠다(마 22:37-40).

8. **㉠** '레바논 백향목'은 무엇과 비교되었는가? (8, 9절)

- ㉡** (1) 하나님의 동산 백향목과 비교되었지만 '레바논 백향목'이 오히려 더 아름다왔기 때문에 에덴의 모든 나무가 질투하였다.
- (2) '에덴의 모든 나무'보다 아름답다는 의미는 곧 세상에 피조된 모든 나무보다 아름답다는 뜻이며 앗수르의 영광이 에덴의 영광과 비교할 만큼 찬란했음을 보여 준다.
- (3) 레바논 백향목이 에덴의 나무와 비교된 것은 그들의 문화의 번창과 국력의 강성함이 얼마나 컸는가를 실감케 한다. 이러한 번성은 물질 만능주의에 휩싸여 있는 오늘날의 선진 열국들에 비교될 만하다.

9. **㉠** 앗수르의 영광은 무엇 때문에 사라지게 되었는가? (10절)

- ㉡** (1) 그것은 자신의 영광에 도취된 나머지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다.
- (2) 즉 그들이 누린 영화는 하나님의 은혜였으나 그들은 지극히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 (3) 이처럼 인간은 자신이 번창할 때 그 모든 원인이 자신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존재 근원을 모르는 무지한 자의 생각이다(창 1:27; 전 12:7).
- (4) 사람은 마땅히 자신의 지위가 올라가고 물질의 풍요가 찾아왔을 때 자신이 그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진정한 원인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만 한다.

10. **㉠** 교만한 앗수르는 하나님께 어떤 처벌을 받았는가? (11절)

- ㉡** (1)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능한 자의 손에 그들을 붙이셨다.
- (2) 여기서 '능한 자'(히, 엘 고임)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말하며 '그가 임의로 대접(待接)한다'는 말은 느부갓네살이 무엇이냐 자신의 뜻대로 행동한다는 뜻이다.
- (3) 즉 하나님께서 앗수르 왕에게 있던 권세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주시어 느부갓네살이 당시 근동 지방의 패권(霸權)을 잡게 되었다(참조, 시 75:7).

11. ㉠ **앗수르가 몰락한 후 열국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는가? (12, 13절)**

- ㉠ (1) 앗수르는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의 침공을 받아 여지없이 짓밟혔으며 앗수르의 영토와 식민지 및 그들에게 의존하던 많은 사람들도 앗수르를 떠나게 되었다.
- (2) 특히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 즉 앗수르의 크고 작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다스리던 산과 골짜기 그리고 물가에서 죽임을 당했다.
- (3) 그러자 보호처와 이득을 얻기 위해 앗수르를 찾았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앗수르를 떠나고 이제는 약탈자들만이 찾아오는 곳이 되었다.
- (4)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이 거느리는 자들에게 신의(信義)와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단지 그들을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그들도 자신의 윗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며 그에게 환난이 닥치게 되면 모두가 흩어질 것이다(참조, 마 25:21; 골 4:1).

12. ㉠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패망시키신 배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가? (14절)**

- ㉠ (1) 하나님께서는 주위의 열국들과 그 지도자들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충고하기 위해서 그들을 낮추어 사망에 이르게 하셨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주위의 많은 나라들이 앗수르를 교훈으로 삼아 겸손한 자세를 가지기를 원하셨다. 왜냐하면 앗수르는 교만과 허세로 인해 멸망했기 때문이다(5절; 26:20).
- (3) 앗수르 이후에도 강한 나라에는 힘이 있고 부한 왕들이 나타날 것이나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들이 부와 힘을 의지하여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앗수르의 지도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셨다(18절; 32:18).
- (4) 이처럼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생활을 한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징조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한다(참조, 마 24:3).

13. ㉠ **앗수르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 그들과 이방의 나라들은 어떠했는가? (15절)**

- ㉠ (1) 그들 모두는 앗수르의 멸망을 애곡(哀哭) 하며 이방의 왕들은 앗수르의 멸망으로 인해 쇠잔해졌다.
- (2) 여기서 ‘모든 강을 쉬게 하며’와 ‘큰 물을 그치게 하고’란 표현은 4절과 비교하여 그들의 풍성한 재물과 군사력, 즉 그들의 아름다움과 자랑거리가 사라졌음을 가리키는 말이다(3절).
- (3) 따라서 ‘레바논’ 즉 이방의 왕국들과 ‘들의 모든 나무’ 곧 멀고 가까운 나라의 왕들이 슬픔과 낙심에 빠졌었다(참조, 사 33:9).
- (4) 이처럼 오늘날에 있어서도 강대국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주위에서 교역을 하던 약소국들도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단지 인간적 생각이나 방법에 의지할 때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참조, 고전 3:18-20).
- (5)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웃과 상호 의존하면서 살아야 한다. 더우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과 함께 지혜로 환난을 극복할 수 있다(출 17:12; 빌 2:12, 13).

14. ㉠ **‘물 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16절)**

- ㉠ (1) 이들은 ‘레바논의 뛰어난 아름다운 나무들’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강하고 권세 있는 왕들을 가리킨다.
- (2) 그런데 그들은 이미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 있었으며 앗수르의 왕과 귀족들이 자신들과 같은 운명, 즉 죽어서 음부로 내려온 사실에 의해 위로를 받았다(32:31; 사 14:9, 10).
- (3) 이처럼 앗수르의 멸망은 모든 나라에게 위로를 주며 또 어떤 나라들은 멸시와 조롱을

하였다. 즉 앗수르에 의해 피해를 입은 나라들은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였다.

- (4) 이와 같이 악인이 멸망하면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그 사실을 기뻐하지만 의인의 보행은 모든 사람이 같이 슬퍼하고 위로하려 한다(참조, 4:18;5:11, 14).

15. **㉠** '그의 팔이 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17절)

- ㉠** (1) 그들은 앗수르 왕과 함께 음부에 내려갈 운명에 처한 자들로서 앗수르 왕의 신하와 보좌관 그리고 앗수르의 종속국의 왕들이다.
 (2) 이 사실은 다음 귀절인 '열국 중에서 그 그늘 아래 거하던 자나라'라는 표현에서 잘 뒷받침되고 있다.
 (3) 그러나 앗수르에 정치적, 군사적으로 의존하던 국가들도 앗수르가 멸망당함으로써 같은 길을 걷게 된 것이다.
 (4) 이와 같이 악한 자의 행위에 동조하고 그를 돕던 자들도 악한 자의 몰락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30:4-8).

16. **㉠** 본질의 예언은 누구를 향한 예언인가? (18절)

- ㉠** (1) 이 예언은 바로(Paraoh)와 그 모든 군대를 향한 예언이다.
 (2) 즉 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에서 비교되었듯이 애굽의 왕도 앗수르 왕의 운명과 같은 길을 걷게 됨을 알 수 있다.
 (3) 그런데 본질은 2절과 연결되어 본장의 결론을 맺고 있다.
 (4) 한편 '거기서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살륙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라는 표현은 애굽 사람들이 경건치 못한 이방인들과 같은 처지에 있게 됨을 가리킨다(28:10).

지도자료

에스겔이 예언하였던 나라들

- ① 암몬 (25:1-17)
- ② 모압 (25:8-11)
- ③ 에돔 (25:12-14)
- ④ 블레셋 (25:15-17)
- ⑤ 두로 (26:1-28:19)
- ⑥ 시돈 (28:20-26)
- ⑦ 애굽 (29:1-32:32)



제 32 장 애굽을 향한 애가(哀歌)

단락구분 1-6 바로의 멸망 / 7-10 그의 멸망이 세상에 미칠 영향 / 11-16 그 멸망은 바벨론 왕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 17-21 애굽 백성과 용사들의 죽음에 대한 애가 / 22-23 앗수르의 멸망 / 24-25 엘람의 죽음 / 26-28 메섹과 두발의 죽음 / 29-30 에돔과 시돈의 죽음 / 31-32 이방의 죽음과 같은 운명에 처할 바로

1 제 십이 년 이 월 초일 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는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여 그 강을 더럽혔도다

3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여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도다

4 내가 너를 물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로 네 위에 앉게 할 것임이여 온 땅의 짐승으로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도다

5 내가 네 고기를 여러 산에 두며 네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임이여

6 네 피로 네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에 채우리도다

7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임이여

8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두움을 네 땅에 베풀리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로다

9 내가 네 패망의 소문으로 열국 곧 너의 알지 못하는 열방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케 할 것임이여

10 내가 그 많은 백성으로 너를 인하여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로 그들의 왕 앞에서 출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를 인하여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도다

11 나 주 여호와가 말함이여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임하리도다

12 내가 네 무리로 용사 곧 열국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임이여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폐하며 모든 무리를 멸하리도다

13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 가에서 떨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르지 못할 것임이여

14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으로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로다

15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임이여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을 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도다

16 이는 슬피 부는 애가니 열국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름이여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로다 하라

17 제 십이 년 어느 달 십오 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18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애곡하고 그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19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누구보다 지나가느고 너는 내려가서 할례받지 않은 자와 함께 누울지이다

20 그들이 살륙당한 자 중에 엎드러질 것임이여 그는 칼에 붙인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이다

21 용사 중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음부 가운데서 그에게 말함이여 할례받지 않은 자 곧 칼에 살륙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도다

22 거기 앗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음이여 다 살륙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23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베풀렸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음이여 그들은 다 살륙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24 거기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면에 있음이여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살륙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롭 당하였도다

25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침상을 살륙당한 자 중에 베풀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음이여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살륙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살륙당한 자 중에 누웠도다

26 거기 매세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음이여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살륙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27 그들이 할례받지 못한 자 중에 이미 없던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 용사들은 다 병기를 가지고 음부에 내려 자기의 칼을 빼게 하였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음이며 생존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28 오직 너는 할례받지 못한 자와 일반으로 폐망할 것임이여 칼에 살륙당한 자와 함께 누

우리로다

29 거기 에돔 곧 그 열왕과 그 모든 방백이 있음이여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살륙당한 자와 함께 있었고 할례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30 거기 살륙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방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음이여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쥌고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살륙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욕을 당하였도다

31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것임이여 칼에 살륙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와의 말이로다

32 내가 바로로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로 더불어 할례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살륙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나 주 여호와와의 말이로다

1. **㉠ 본장에 있는 애가의 내용을 요약하라.**

- ㉠** (1) 본장은 애굽에 대한 일곱 예언 중 마지막 두 부분으로 애굽의 멸망에 대한 애가(哀歌)를 담고 있다.
- (2) 그런데 그 애가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한 애가(1-16절)와 그 왕국의 권세가 몰락될 것에 대한 애가(17-32절)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 (3) 한편 바다의 난폭한 괴물로 비유된 바로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비참한 운명에 빠지게 되어 그 이전에 멸망된 열국들과 마찬가지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
- (4)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다. 첫째, 인간 세상은 서로 물고 물리는 끊임 없는 싸움터로서 어떤 권세도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이슬과 같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시 103:15; 벰전 1:24).
- (5) 둘째, 따라서 범죄자들이 비록 화려한 생활을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 생활을 계속할 경우 수치와 죽음을 면할 수 없다(잠 28:14; 29:1; 롬 2:5; 히 3:13).

2. **㉠ 애굽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에스겔에게 임한 때는 언제인가? (1절)**

- ㉠** (1) 그때는 '제 십이 년 십이 월 초일 일'이다.
- (2) 그런데 이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 1년 7개월 된 때, 즉 B.C. 585년 2,3월경이다.
- (3) 한편 본장의 전반부(前半部)인 1-16절은 29:1-16과 30:20-26의 내용과 부합된다.

3. **㉠ 애굽 왕 바로의 행위는 어떠한가? (2절)**

- ㉠** (1) 그는 바다 가운데 큰 악어로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搖動)하여 그 강을 더럽혔다.
- (2) 원래 그는 '열국의 젊은 사자', 즉 열국(列國)을 지배하는 용감한 자였으나 이제는 열국을 괴롭히며 자신의 백성에게 혼란과 범죄 그리고 전쟁의 고통을 가져다 주는 바다의 괴물이 되었다.
- (3) 이처럼 오늘날에도 자신의 야망(野望)을 위해 국민을 억압하거나 전쟁을 일으키는 지도자들이 많지만 이들도 역사의 심판, 즉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왕하 19:28).

4. **㉠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어떻게 잡으실 것인가? (3절)**

Ⓐ (1)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바벨론 군대를 끌고 와서 그를 그물로 잡으실 것이다.

(2) 그런데 여기서 바로를 '그물'로 잡는다는 표현은 바로를 큰 바다나 강에 있는 큰 괴물이나 나일의 악어로 비유했기 때문이다(29:4).

5. ⓐ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애굽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4-6절)

Ⓐ (1) 그들의 군대와 백성은 침략군의 칼에 희생되어 시체는 산과 골짜기와 강을 메우는 비참한 상황에 이를 것이다.

(2) 이것은 패망한 애굽의 비참한 모습을 나타낸 말인데 '들'은 '강'(2절; 29:3)과 대조되는 표현으로 그들이 풍요한 상태에서 '광야'와 같은(29:5) 황폐한 모습으로 변할 것을 보이는 표현이다.

(3) 한편 그들의 시체를 파먹는 '새와 짐승'은 애굽의 멸망으로 인해 이득을 볼 이방의 여러 나라를 가리킨다(31:13).

6. ⓐ 애굽에 심판이 내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8절)

Ⓐ (1) 그날에 애굽의 하늘은 어두움으로 덮히고 빛은 사라질 것이다.

(2) 이것은 애굽에 임할 '여호와와 날'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애굽에 임했음을 나타내는 사상이다(30:3; 욥 2:4).

(3) 즉 하늘의 별빛과 같이 찬란한 영광을 간직했던 애굽은 이제 빛이 없는 어둠의 세상 곧 멸망으로 인해 모든 문화와 영화가 사라진 암흑의 세상이 될 것을 가리킨다(참조, 사 13:10).

(4) 이처럼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영광을 찾아 헤매고 그 영광을 찾으면 영원히 간직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 영광의 빛이 사라질 때 깊은 어두움을 맛보고는 누구나 이 세상에는 영원한 영광이 없음을 깨달을 것이다. 이 세상의 영광은 마침 아침 안개와 흡사하다.

7. ⓐ 애굽의 멸망은 열방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9, 10절)

Ⓐ (1) 열방은 애굽의 멸망 소식을 듣고 놀람과 두려움에 빠질 것이다.

(2) 이것은 애굽의 영화를 부러워하고 그것에 의지하던 나라들이 애굽의 권세가 몰락한 소식을 듣고 자신들에게도 그 같은 불행이 미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 한편 '알지 못하는 열방'에서 '알지 못하는'이란 의미는 단순한 지식 이상의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지금까지 애굽에 대해 전혀 몰랐던 나라나 아주 알려지지 않았던 나라를 가리킨다.

(4) 또한 그들의 특별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칼'이 바로의 주위에서 춤출 때 더욱 심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춤추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오페프>로 <우프>에서 유래했으며 '날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참조, 대상 21:16).

(5) 이처럼 불의한 자가 몰락하면 그 주위에 있던 자들이 두려워하거나 놀라는 것은 당연하며 멀리 있던 불의한 자들도 자신들의 소행을 기억하고 두려워할 것이다.

(6) 그러나 의로운 자는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다(신 31:6).

8. ⓐ '짐승의 멸함'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13절)

Ⓐ (1) 이것은 짐승같이 악한 애굽의 지도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을 가리킨 말이다.

(2) 이 같은 비유는 바로가 '나일의 악어'나 '바다의 괴물'로 비유된 것과 같으며 여기서 '물'은 애굽 번영의 기반이 되는 나일 강을 가리킨다.

(3) 또한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란 말은 포악한 애굽의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해서 이방이나 자신의 나라에서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고 잠잠할 것을 가리킨다.

(4) 따라서 '다시는'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애굽은 다시 이전 같은 권세를 가지고 열

국을 지배하여 교만한 상태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 (5) 이와 같이 교만한 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축복을 잃을 뿐 아니라 다시는 그 같은 축복을 받지 못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9. **㉠ 애굽에 대한 장래의 축복은 무엇인가? (14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으로 기름같이 흐르게 하실 것이다.
 (2) 여기서 ‘그때’란 강한 힘을 가졌던 애굽이 몰락한 때를 가르키는데 이제까지 애굽을 풍성케 하던 ‘물들’이 이제는 마르고 빈약한 상태에 이르렀다.
 (3) 그러나 그 물은 이제 탁하고 추한 상태에서부터 맑고 기름같이 흐르게 되었는데 이것은 흙탕물이 되었던 강물이 가라앉아서 깨끗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4) 이 같은 표현은 13절에서 지적한 대로 바로의 세력이 잠잠한 후에 애굽에게 주실 하나님의 신과 말씀의 능력을 상징한다.
 (5) 한편 ‘기름’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상징으로 애굽은 자신의 백성과 열국(列國)을 괴롭히던 지도자들이 사라짐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됨을 가리킨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교만과 죄를 제거해야만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6) 더우기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는 비록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얻은 것이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소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것이 곧 지혜이며 마땅히 우리가 행할 바이다(시 136:25).

10. **㉠ 하나님께서 애굽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15, 16절)**

- ㉠** (1) ‘애굽 땅은 황무하게 되어 사막이 되며 애굽 백성을 위해 열국(列國) 여자들이 슬피 애가(哀歌)를 부를 것이다’라는 말로 표현되었다.
 (2) 이 같은 열국(列國) 여자들의 애곡(哀哭)은 애굽의 멸망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한 실례가 된다(2, 9절; 19:14).
 (3) 한편 여기서 ‘애곡하는 자’들이 여인으로 나온 까닭은 대부분의 경우 장례식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자들이 여인들이었기 때문이다(렘 9:16).

11. **㉠ 본장의 두번째 예언은 언제 에스겔에게 임했는가? (17절)**

- ㉠** (1) 그때는 제 십이 년 어느 달 십오 일이다.
 (2) 달(月)에 대한 언급은 26:1과 같이 생략되어 있는데 70인역(LXX)에는 1월로 되어 있으며 다른 학자(Keil, Hengstenberg)들은 본장 1절을 근거로 하여 12월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본다.
 (3) 그러나 본예언이 언급된 달에 대해서는 성경 원문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측은 불가능하다.

12. **㉠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18절)**

- ㉠** (1) 이들은 망하기 전에 죽은 애굽 백성이나 열방의 모든 백성을 가리킨다.
 (2) 그리고 ‘유명한 나라 여자들’은 애굽의 식민지나 동맹국 그리고 열방의 유명한 나라 백성을 의미한다.
 (3) 이 같은 표현은 애굽의 파멸을 극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애굽의 멸망이 계획되었다는 사실을 강하게 보이려는 의도이다.

13. **㉠ 교만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은 무엇인가? (19절)**

- ㉠** (1) ‘너의 아름다움이 누구보다 지나가노고’, 즉 ‘너는 다른 누구보다 더 아름다우냐’라는 질문이다.
 (2) 그런데 이것은 애굽과 바로의 헛된 교만에 대한 질책의 말로 그들의 문화와 권세가 다

른 나라에 비해 그다지 월등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이다.

- (3) 따라서 애굽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 곧 ‘할례(割禮) 받지 않은 자’와 함께 구덩이(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할 것이다.
- (4) 이처럼 인간 세계에서 우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미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개인과 단체는 하나도 없다.

14. **㉠** 애굽은 어떠한 형벌로 인해 멸망당할 것인가? (20절)

- ㉠** (1) 그들은 바벨론 군대의 칼에 의해 살륙되며 이미 살륙당한 자들과 함께 무덤에 내려가는 처지에 이를 것이다.
- (2) 여기서 ‘끈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모쉐쿠>는 납치해 간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라는 말은 애굽과 그 지도자들이 무덤으로 끌려감을 의미한다(참조, 시 28:3).
- (3) 이처럼 인간들은 주위의 악인들이 망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에게도 그 같은 불행이 닥칠까 하여 가슴을 조이면서도 계속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키지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결국은 그보다 앞선 악인들이 망한 것과 같이 망할 것이다(시 9:17; 34:21).

15. **㉠** 바로가 음부(陰府)에 내려갈 때 그를 영접한 자들은 누구인가? (21절)

- ㉠** (1) 용사 중에 강한 자와 그를 돕는 자가 음부에 내려온 바로에게 말을 걸었다.
- (2) 한편 ‘용사 중에 강한 자’란 바로(Paraoh)보다 먼저 죽은 이방의 강한 지도자들을 가리키며(31:11), ‘그를 돕는 자’란 바로의 군인들로 바로를 위해 싸우다 죽은 자들이다.
- (3) 그런데 그들은 음부에 내려온 바로에게 그곳 음부에는 ‘할례받지 않은 자들’로서 ‘칼에 살륙당한 자들’, 즉 칼에 맞아 죽은 이방의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라고 말하였다.

16. **㉠**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베풀렸고’란 무슨 뜻인가? (23절)

- ㉠** (1) 그것은 앗수르가 가장 깊은 곳에 묻혔음을 보인다.
- (2) 여기서 ‘깊은 곳’ (히, 아르카타임)이란 ‘이중의’, ‘두 개의 다른 모서리’란 뜻으로 ‘구덩이’ (히, 보르)란 말을 덧붙여 ‘가장 깊은 곳’을 가리킨다.
- (3) 그런데 이 표현은 ‘생존(生存) 세상’이라는 것과 큰 대조를 이루는 말로 세상에서 권세를 떨치던 자들도 죽게 되면 어두운 무덤 속의 시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 (4) 이처럼 악한 인간은 죽음 후에는 이 세상에서 그가 누리던 부와 명예와는 무관하게 변화되지만 성도들은 죽음 후에도 영원한 산 소망이 예비되어 있다(요 14:1-4; 계 21:22).

17. **㉠** ‘엘람’은 어떤 나라인가? (24절)

- ㉠** (1) 엘람은 티그리스(Tigris) 강 동쪽에 있는 자그로스(Zagros) 산맥 남부 지역의 나라로 오늘날 이란의 쿠지스탄(Khuzistan) 지방과 일치한다.
- (2) 한편 성경에는 이 엘람이 셈의 아들(창 10:22; 대상 1:17)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호전적이고 정복욕이 강한 민족으로 앗수르의 앗술바니팔(Ashurbanipal, B. C. 633-619)의 통치 후반까지는 바벨론, 앗수르와 함께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을 다투던 나라였다(참조, 사 11:11; 21:2, 9; 22:6; 렘 25:25).
- (3) 따라서 그들은 세상을 두렵게 하는 존재였으나 B. C. 640년 앗수르에 의해 멸망함으로써 음부의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렘 49:34-39).

18. **㉠** ‘할례를 받지 못하고’란 무슨 뜻인가? (24절)

- ㉠** (1) 이것은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말한다. 곧 하나님께 버림 받은 것을 의미한다.
- (2)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있어서 히브리인들은 이 할례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몸을 맡기는 표시로 그리고 몸을 정결케 하는 행위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창 17:10-14).

- (3) 또한 할례는 종족적인 우월감의 표시를 함축하고 있는데 히브리인들은 블레셋인이나 헬라인들을 ‘할례받지 못한 자’, 즉 하층(下層) 민족으로 비난하였다(삿 14:3; 15:18; 삼상 14:6; 17:26; 행 15:1; 고전 10:4).
- (4) 그러므로 ‘할례받지 못하고 살륙당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상태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5) 따라서 오늘날 이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곧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정하는 개념과 동일시될 수 있다.

19. ㉠ 권세와 명성을 날리던 엘람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25절)

- ㉠ (1) 그들의 침상은 살륙당한 자 중에 있었으며 무덤이 그들 사방에 있었다.
- (2) 즉 화려했던 그들의 영화도 이제 사라지고 그들은 죽음만이 있는 음부에 내려가게 되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 (3) 이처럼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자들도 죽을 수밖에 없으며 죽음 이후에는 그들이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전 1:2, 3; 2:1-23).
- (4)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허상(虛想)과 같은 세상의 부귀 영화와 권세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골 1:5).

20. ㉠ ‘메섹과 두발’은 어떤 나라인가? (26절)

- ㉠ (1) 성경에서 이들은 아벳의 아들로 언급되었는데(창 10:2; 대상 1:5) 아완과 함께 넷그릇 장사를 했다(27:13).
- (2) 그런데 메섹은 앗수르 기록에 의하면 무스키족(Muskis)으로 불리었고 앗수르의 사르곤(Sargon, B. C. 722-705) 왕 때는 소아시아 일대에 세력을 떨쳤으나 B. C. 696년 키메르인에게 멸망당했다.
- (3) 한편 두발은 앗수르의 다발(Tabal)로 이해되며 그 위치로 소아시아의 갑바도기아 지방이 유력시된다.
- (4) 그리고 B. C. 8 세기에 우아수름(Uassurme) 왕은 두발을 통일하였으며 후대의 왕인 암바리스(Ambaris)는 무스키(Muski)와 우라르투(Urartu) 족속과 함께 앗수르의 사르곤 왕에게 대적하였으나 패하고 말았다.

21. ㉠ ‘그 백골(白骨)이 자기 죄악을 족음이어’란 무슨 의미인가? (27절)

- ㉠ (1) 메섹과 두발 족속은 죄에 대한 형벌로 죽음에 이르렀으며 자신들의 죄를 죽음으로 담당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한편 고대에 있어서 용사가 죽었을 때 최대의 영광은 자신의 칼을 곁에 두는 것이었다. 따라서 ‘자기의 칼을 베개 하였으니’란 귀절은 용사들의 영광스런 죽음을 의미한다.
- (3) 그러나 메섹과 두발 족속은 그 용사들과 같이 영광스럽게 죽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뼈 속 깊이 짊어지고 죽었다(사 14:18, 19).
- (4) 오늘날에 있어서도 타인을 괴롭히거나 두려움을 주는 자들은 죽어서도 칭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와 멸시를 받는다(참조, 시 58:10).

22. ㉠ ‘열왕과 그 모든 방백’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29절)

- ㉠ (1) ‘열왕’은 에돔의 역대 왕들을 가리키며 ‘모든 방백’은 에돔의 대신(大臣)들이나 족장들을 가리킨다.
- (2) 여기서 ‘방백’은 히브리어 <나시이>에서 온 말로 ‘높이 들리운 자’란 뜻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창 23:6; 출 16:22; 레 4:22).
- (3) 한편 ‘강성(強盛)하였다’란 ‘육체적인 힘’ 혹은 ‘용맹’의 뜻으로 에돔의 용사들이 강하였음을 보여 준다.
- (4) 그러나 이처럼 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칼에 살륙당한 자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다(25:12-14).

23. ㉠ '북방 모든 방백'은 누구를 말하는가? (30절)

- ㉠ (1) 이들은 팔레스틴 북쪽 모든 강국의 왕들을 가리킨다.
 (2) 특히 이들은 앗수르, 엘람, 메섹, 두발, 에돔, 시돈을 가리키며 모두가 군사력 또는 경제력에서 강한 나라였다(렘 25:26).
 (3) 그런데 이들 모두는 바로와 애굽의 운명을 보여 주는 전철(前轍)로 등장하고 있다.
 (4) 즉 이들 이방 나라들은 한 시대를 지배하던 강국들이었으나 교만과 죄악으로 인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역사에서 사라져갔다.
 (5) 이처럼 모든 권세와 부귀가 천 년을 갈 것 같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지만 때가 되면 부귀와 권세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잠 2:4-11).
 (6)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뜬 구름과 같은 부귀와 권세를 위해 자신과 타인을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참조, 신 8:10; 시 100:4; 골 1:12).

24. ㉠ 이방 열국의 멸망을 본 바로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31, 32절)

- ㉠ (1) 바로는 자신만이 멸망하여 음부에 내려간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위로를 받았다.
 (2) 물론 이것은 바로의 처지를 비웃는 풍자적인 말투이며 바로는 당연히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비참한 형벌을 받아야 했다.
 (3) 왜냐하면 그는 세상 사람을 두렵게 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4) 이처럼 개인이나 한 집단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국민을 전쟁터로 내모는 자나 국민의 피와 땀을 갈취해 가는 자들은 반드시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왕상 22:35, 38; 왕하 10:36, 37; 잠 11:19).

본장의 요절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여 그 강을 더럽혔도다'
 (2절).

제 33 장 에스겔이 예언자의 소명(召命)을 받다

단락구분 1-9 파수군으로 임명된 에스겔의 사명 / 10-20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해야 할 에스겔 / 21-22 예루살렘 멸망 소식을 듣다 / 23-29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선포되다 / 30-33 신실치 못한 자들에 대한 책망

1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군을 삼은
 3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4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5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6 그러나 파수군이 칼이 임함을 보기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군의 손에서 찾으리라
 7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군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8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파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9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전하리라
 10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중에서 쇠패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랴 하거니와
 11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 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

느냐 하셨다 하라
 12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13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중에서 죽으리라
 14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15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 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녕 살고 죽지 않을지라
 16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녕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17 그래도 네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18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19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20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21 우리가 사로잡힌 지 십이년 시월 오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아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22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아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아옴 임시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23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4 인자야 이 이스라엘 황무한 땅에 거한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중대한즉 더욱 이 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25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가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나

26 너희가 칼을 밧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자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나 하고

27 너는 그들에게 또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었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활여 먹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은역에 죽게 하리라

28 내가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

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무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29 내가 그들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면 그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30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 보자 하고

31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좃춤이라

32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33 그 말이 옳하리니 옳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1. Q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은 무엇인가?

- A (1) 본장에는 파수군으로 임명된 에스겔이 전하여야 할 말과 말씀 선포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에 대한 심판이 서술되어 있다.
- (2) 이미 파수군의 사명을 띤(3:17-21; 18:20-32) 에스겔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심판을 선포하고(4-24장) 열방의 멸망을 예언한(25-32장) 후 이제는 다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과 약속을 전한다.
- (3) 그런데 본장은 죄악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특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된다. 즉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들의 회개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본장의 목적은 예루살렘 멸망으로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예언하고 구원에 대해 낙심한 자들에게 새 생활에 대한 길을 제시함으로써 용기를 갖게 하려는 데 있다.

2. Q 파수군의 책임은 무엇인가? (2-6절)

- A (1) 그의 책임은 적의 접근을 미리 알아서 자신의 동료들에게 위험을 알려 주는 것이다.
- (2) 그러므로 파수군의 소명을 받은 에스겔은 예언을 받을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을 전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만일 파수군이 전하지 않아 죄지는 자가 형벌을 받는다면 에스겔은 전하지 않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3:18).
- (3) 한편 '파수군' (2, 6, 7 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추파>는 '망보는 사람' 이라는 뜻이며 도시를 방어하거나 추수 기간 동안에 경작지를 지키는 임무를 맡은 자를 말한다(삼하 18:24-27; 왕하 9:17-20; 시 127:1; 사 62:6).
- (4)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 중에도 특별히 파수군과 같은 임무를 지닌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맡은 일이 영(靈)의 일이든 육(肉)의 일이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인간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참조, 잠 25:13; 고전 4:2).

3. Q 파수군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대비하지 않은 자가 죽었을 경우 그 피값은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 (4, 5절)

- A (1) 이 경우에는 그 피가 죽은 자의 머리에 돌아갈 것이다. 즉 책임이 파수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 자신에게 있다.

- (2) 여기서 우리는 개인의 죄는 자신이 담당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곧 타인의 죄를 자신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은 자신의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신 24:16; 욥 19:4; 잠 9:12; 렘 31:30).
- (3) 그러나 우리 인간은 모든 잘못의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려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이며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행위이다(참조, 창 4:10).
- (4) 그러므로 인간은 어느 누구나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하며 아무도 자신의 죄를 대신 담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치르신 분이 있으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사 53:5; 갈 1:4; 3:13; 히 2:9).

4. **㉠ 경고를 듣지 못한 악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6절)**

- ㉠** (1)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을 것이다.
- (2) 악인이 비록 심판의 경고나 예언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계속 죄악된 생활을 한다 해도 그는 벌을 받을 것이다(롬 6:23).
- (3)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곧 죄이기 때문이다(참조, 신 11:28; 왕상 11:9; 시 73:27).
- (4) 그러나 먼저 믿은 우리들은 그 같은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11절; 고전 9:16).

5. **㉠ 파수군으로 임명받은 에스겔의 사명은 무엇인가? (7절)**

- ㉠** (1)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 대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 (2)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전해야 할 말씀은 자신의 지식, 경험, 자량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 말씀 자체이다(2:7; 3:1, 4, 17).
- (3) 왜냐하면 자신의 방법과 능력을 의지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을 제한시키기 때문이다.

6. **㉠ 심판의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10절)**

- ㉠** (1)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해 좌절과 실의(失意)에 빠졌다.
- (2) 에스겔 사역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중압감으로 구원을 절망적으로 생각했다.
- (3) 이처럼 죄를 깨달은 자만이 그 죄의 무서움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자들을 일깨워야 할 책임이 있다(참조, 사 49:6; 60:3; 호 2:23; 렘 3:6).
- (4)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써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이 참되고 올바른 삶이라는 생활의 표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7. **㉠ 죄로 인해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11절)**

- ㉠** (1)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죄에서 돌이킬 것을 강조하셨다.
- (2) 에스겔은 이미 18:23, 32에서 자신의 동족(同族)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었다.
- (3)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 가운데 있었던 것은 회개하면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던 것이다(참조, 마 9:22; 롬 14:23).
- (4) 이와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야만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잠 3:6).

8. **㉠ 의인이 범죄하였을 경우 그는 어떻게 될 것인가? (12, 13절)**

- Ⓐ (1) 의인은 그가 계속 의(義)를 행할 때에라야 구원과 생명이 약속되며 그가 죄를 범하게 되면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참조, 렘 6:15; 호 5:5)
- (2) 여기서 우리는 결국 인간의 의(義)가 그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계속 의를 행할 수 없으며 잘못을 저지르면 그 대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롬 6:23).
- (3) 따라서 구원은 인간 스스로가 이룰 수 없으며, 또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합 2:4; 롬 3:27; 9:30).

9. ⓐ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란 무슨 의미인가? (13절)

- Ⓐ (1) 이것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자랑하며 의지하는 마음을 가리킨다.
- (2) 즉 그는 자신의 의로운 행동을 자랑하고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다.
- (3)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의(義)를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인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불신앙이며 죄악이다(출 5:2; 대하 32:25; 단 5:23).

10. ⓐ '법과 의(義)대로 행하며'란 어떤 행동을 말하는가? (14절)

- Ⓐ (1) 이것은 이제까지 주장하던 자기 생각과 뜻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법과 뜻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2) 그런데 '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쉬파트>는 '율례', '관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정의'로 해석될 수 있다.
- (3) 즉 이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의식(選民意識)만 있었을 뿐이지 선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는 오히려 멀리하였다(22:3-12).
- (4)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사는 가운데 죄를 짓고 말았으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조차도 몰랐다.
- (5) 그러므로 악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법과 의(義)대로 행하는 것이다.
- (6)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성도들도 믿음의 경륜과 교회에서의 직분을 앞세워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지만 실은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경우가 더욱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며 계속해서 고개를 쳐드는 교만을 없애야 한다(시 40:8; 143:10; 마 12:50; 요 7:17).

11. ⓐ 법과 의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14절)

- Ⓐ (1) 그는 전당물(典當物)을 도로 주며 억탈물(抑奪物)을 돌려 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할 것이다.
- (2) 이것은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맡긴 자만이 행할 수 있는 행동이다.
- (3) 즉 율법의 형식이나 지키려 하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자들은 결코 행할 수 없는 행동이다.
- (4) 이처럼 자신의 의(義)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은 올바른 삶의 흉내는 낼 수 있을지언정 진정한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의를 실천할 수 없다.
- (5) 그러므로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께 비워 드러야 한다(빌 2:7).

12. ⓐ 죄인이 자신의 죄에서 떠나 의로운 삶을 살 경우 과거의 죄는 어떻게 될 것인가? (16절)

- Ⓐ (1) 과거의 모든 죄는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2) 또한 그는 과거의 죄로 인해 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옳은 일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다.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 길을 돌이킨다면 다시는 과거의 죄를 기억치 않고 우리를 용서하신다(사 43:25; 44:22; 단 4:27; 히 8:12).
13. ⓐ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판단하였는가? (17-20절)
 Ⓐ (1) 그들은 하나님의 길, 즉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치 않다고 불평하였다.
 (2) 이 같은 그들의 불평은 현재 그들의 고난이 자신들과는 상관없이 자신들 조상의 죄값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조상의 죄값을 자신들에게 씌우셨다는 것이다(18:2; 출 20:5).
 (3) 그러나 이들의 불평은 부당하며 무지에서 나온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개인이 자신의 죄만을 담당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18:4).
14. ⓐ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 함락 소식을 들은 때는 언제인가? (21절)
 Ⓐ (1) 그때는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 10개월 5일이 되는 날이었다.
 (2)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11년 4월 9일(B. C. 586)에 함락되었는데 그에게 그 소식이 전달된 것은 16개월이 지난 B. C. 584년이였다(24:25, 26; 26:1, 2).
 (3) 한편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함락이 11년이였다고 말하는데(렘 39:2) 팔레스틴의 연수(年數) 계산, 즉 태양력을 사용하면 이때는 예루살렘 함락이 있는 11년 4월보다 6개월 늦은 날짜이다.
 (4) 따라서 이때를 태양력으로 계산하면 B. C. 585년 1월경이 된다.
15. ⓐ 에스겔이 병어리 상태에서 어떻게 입을 열 수 있었는가? (22절)
 Ⓐ (1) 여호와와 그의 손이 에스겔에게 임함으로 그의 입이 열렸고 다시는 침묵을 지키지 않았다.
 (2) 그런데 이 명령은 24:27의 명령과 같은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존재(健在)한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패망하리라는 에스겔의 예언을 믿지 않을 것을 아시고 그에게 다만 상징적 행동만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것을 명하셨던 것이다.
 (3)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 성 함락의 소식이 전해진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희망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할 것이다(20:1).
 (4)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보다 구체적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의 닫혔던 입을 여신 것이다.
16. ⓐ 황폐화된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자들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24절)
 Ⓐ (1) 그들은 '아브라함은 혼자서도 이 땅을 소유했는데 우리들은 수가 많으므로 말할 것도 없이 이 땅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2) 이것은 그들이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땅을 자신들이 물려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 데서 비롯된 태도이다(마 3:9; 요 8:33, 39).
 (3)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었던 믿음과 순종은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규례를 더럽히는 패역함만이 있었다.
 (4)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겉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지만 진정한 그들의 행위의 근본은 자신의 명예와 위신 그리고 이익을 추구하려는 생각에 있다(참조, 마 3:9; 딤후 3:5).
17. ⓐ 이스라엘 땅에 남은 자들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부하는 자들의 죄악은 무엇인

가? (25절)

- Ⓐ (1) 그들은 하나님의 계율을 어기고 우상을 따르는 죄를 범하였다.
 (2) 특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손에게 땅을 주시면서 ‘고기를 피 채로 먹지 말라’는 계율을 어겼다(창9:4).
 (3)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고기를 피 채로 먹는 행위는 생명인 피를 먹기 때문에 살인 행위로 간주된다.
 (4)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모든 행동에 있어서 죄악된 일만 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더욱 쌓아 간다(참조, 잠29:16).

18. ⓐ 이스라엘 땅에 남은 자들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26절)

- Ⓐ (1)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오히려 우상과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였다.
 (2) 그들의 죄가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자신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 패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18:10;22:3).
 (3) 또한 그들은 모든 문제의 해결을 폭력에 의지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였는데 특히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18:6).
 (4)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며 심지어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마저도 파괴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저지르면서도 무감각한 자들이다(참조, 시14:1; 딤편1:15).

19. ⓐ 이스라엘에 남은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벌을 내리실 것인가? (27-29절)

- Ⓐ (1) 들에 있는 자들은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며 황무지에 있는 자들은 칼에 앞드리지며 산성(山城)과 굴(窟)에 있는 자는 질병으로 죽을 것이다.
 (2) 이 같은 심판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여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3)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 바벨론 왕의 임명을 받아 유다의 통치자가 된 그달리야가 살해된 이후 바벨론이 다시 군사를 끌고 와 유다 땅을 폐허로 만들고 많은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취되었다(렘41:2).
 (4) 또한 그 난리를 피해 들이나 산으로 숨은 자들도 짐승(참조, 출 23:19; 레 26:22; 왕하 17:25)과 기근 그리고 질병으로 죽었다.
 (5) 이 같은 심판 목적은 그들을 멸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자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참조, 욕 19:29).

20. ⓐ 예루살렘 멸망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포로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였는가? (30절)

- Ⓐ (1) 그들은 서로 에스겔에 대해 의견을 나눈 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에게 왔다.
 (2) 그들이 에스겔에게 나오게 된 동기 중 하나는 이제껏 예언했던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3) 따라서 그들은 이웃끼리 은밀하게(담 곁에서) 혹은 공개적으로(집 문에서) 에스겔에 대해 의논한 후 그를 찾아왔다.
 (4) 이처럼 현대의 교인들도 어떠한 징조, 즉 병고침이나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눈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기 보다는 오히려 인간 자체를 변화시키는 은밀하며 전체적인 능력을 말한다(참조, 롬 12:2; 고후 4:16).

21. ⓐ 에스겔에게 나온 이스라엘 포로들의 본마음은 어떠했는가? (31절)

- Ⓐ (1) 그들이 에스겔의 앞에서 그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면서도 마음은 이욕(利慾)을 쫓는 자들이었다.
 (2) 여기서 ‘백성이 모이는 것같이’란 사람의 떼가 몰려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사랑’으

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갑>은 부정한 사랑과 육적 욕정을 가리킨다.

- (3) 따라서 그들은 늘 사랑을 외치고 다녔으나 그 사랑은 말뿐인 사랑으로 오히려 부드러운 말을 통해 상대방을 속이고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한 사랑이었다.
- (4)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 주변에는 사랑을 외치는 자들은 많으나 교회와 사회는 변화되지 않았으며 사랑을 갈구하는 자들의 소리는 더욱 높아만 간다.
- (5) 그러므로 이제껏 사랑을 외친 자들은 모두 자신의 위신을 위해서가 아니면 이득을 위해서 사랑을 부르짖었다. 그러나 사랑은 소리 없이 찾아오는 것이며 우리가 사랑할 때도 소리 없이 사랑해야 한다(참조, 마 5:43-48; 6:1, 2; 고전 13:3).

22. Q 이스라엘 포로들은 에스겔을 어떻게 여겼는가? (32, 33절)

- A**
- (1) 그들은 에스겔을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다.
 - (2) 이것은 그들이 에스겔을 사랑의 노래나 하고 다니는 가수로 여겨서 그의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않았다는 말이다.
 - (3) 즉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를 하찮은 존재로 여겨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 (4) 그러나 그들은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신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들 가운데 보내신 이유이다.
 - (5) 이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한낱 책 속의 이야기거리로밖에 여겨지지 않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주와 인간 세상에 있어서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시 19:1, 2; 97:6; 행 14:17; 롬 1:2, 20).

화보자료

악기를 켜며 노래 부르는 가수. 전통 악기를 켜며 노래 부르고 있는 이 흑인은 벨베라인이다.



사람들이 노래를 듣는 것은 심신의 피로를 푸는데 그 한 목적이 있다. 하지만 타인의 충고를 듣는 것은 그것을 마음에 새겨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 에스겔의 충고를 한갓 노랫소리로만 들었으니(32절) 저들의 우매함이 어떠하였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제 34 장 이스라엘의 목자(牧者) 에게 심판이 내리다

단락구분 1-6 목자들이 짐책을 받다 / 7-10 목자들이 짐책을 읽으리라 / 11-16 하나님께서 직접 양 떼를 먹이시리라 / 17-19 악한 양 떼를 괴롭힌 목자들에 대한 비판 / 20-24 하나님께서 세우실 목자 / 25-31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1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나
 3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4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5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6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뱃부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니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7 그러므로 목자들이 여호와와 말씀을 들을지이다
 8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9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이 여호와와 말씀을 들을지이다
 10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 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11 나 주 여호와와 말씀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12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 낼지라
 13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14 좋은 풀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진 풀을 먹으리라
 15 나 주 여호와와 말씀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16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17 나 주 여호와와 말씀하노라 나의 양 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의 사이에 심판하노라
 18 너희가 좋은 풀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풀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19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20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21 너희가 열구리와 어깨로 밀드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22 그러므로 내가 내 양 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23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24 나 여호와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5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수풀 가운데서 잘지라

26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 비를 내리리라

27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멧밭목을 쥐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28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을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29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30 그들이 나 여호와와 그들의 하나님인 내가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와 나의 말이니라

31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와 나의 말이니라

1. **㉠ 본장의 심판과 약속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 ㉠** (1) 본장에는 양 떼를 돌보지 않고 자신의 사리 사욕(私利私慾)만을 위해 양 떼를 괴롭히는 목자들에게 대한 심판과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시며, 또한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
- (2) 그런데 이 사악한 목자들은 이스라엘의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인 방백들 모두를 가리키는데 이들에 대한 심판은 곧 이들에 의해 고통을 당하는 양 떼를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모으고 보살피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의미한다(렘 23:1-8).
- (3) 이처럼 동서 고금(東西古今)을 통해 백성의 지도자들 중 악한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세를 유지하고 또 그 권세를 이용하여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국민을 탄압하였지만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역사(歷史)를 통해서 악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교훈을 보여 주셨다(말 4:1; 롬 2:8; 벴후 2:4, 5; 계 21:8).

2. **㉠ 에스겔이 예언할 대상은 누구인가? (2절)**

- ㉠** (1) 그들은 자신만을 위하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다.
- (2) 여기서 ‘목자들’이란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 모두를 의미한다.
- (3)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양 떼인 백성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 같은 그들의 악한 행위는 3절부터 언급되어 있다.
- (4) 이와 같이 인간 모두는 ‘하여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함으로써’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 (5) 그렇지만 우리는 비록 항상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어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만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참조, 잠 4:4; 전 12:13).

3. **㉠ 목자들의 나쁜 행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3절)**

- ㉠** (1) 그들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었다’
- (2) 이 같은 그들의 행위는 특히 부유한 백성의 재산을 착취하고 그 재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한 사실을 의미한다(미 3:2, 3).
- (3) 오늘날에 있어서도 정치적 지도자 뿐만 아니라 종교적 지도자들도 각종 헌금을 빙자(憑藉)하여 교인들의 재물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에 바쁜 자들이 많다. 그러나 그들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렘 23:1; 유 1:12).

4. **㉠ 목자들이 당연히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한 것은 무엇인가? (4절)**

- ㉠** (1) 그들은 연약(軟弱)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긴 자, 잃어버린 자를 돌보지도 않았으며

찾지도 않았다.

- (2) 여기서 ‘연약한 자’ (히, 나헤로트)란 ‘병들어 약하고 비참하게 된 자’를 가리키며, ‘상한 자’ (히, 쇠바르)는 문자적으로 부러지거나 상쳐난 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쫓긴 자’ (히, 니다하)란 쫓겨 났거나 포로된 자를 가리킨다(신22:1).
- (3) 또한 ‘잃어버린 자’ (히, 아바드)는 ‘자기를 상실한 자’, ‘파멸한 자’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이들을 사랑과 동정으로 보살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포’, 즉 권력으로 불쌍한 자들을 다스렸다(21절; 속 11:4, 5, 16).
- (4) 그들이 이같이 행동함은 백성의 어려움을 조금도 보살피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권력 유지와 착취의 대상으로 생각한 데서 비롯되었다(참조, 왕하 4:1; 사 5:7).

5. **㉠ 목자들의 강포로 백성들의 형편은 어떻게 되었는가? (5, 6절)**

- ㉠** (1) 그들은 온 땅에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었으나 그들을 찾는 자가 없었다.
- (2) 이것은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신정 정치(神政政治)를 통하여 여호와와 이름 아래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세상 권세에 눌리고 만 사실을 가르쳐 준다(렘 50:17).
- (3) 이처럼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가 없으므로 인해 이스라엘은 이미 10지파가 이방의 포로 신세가 되었으며 유다도 역시 같은 운명에 이르게 되었다(참조, 민 27:17; 왕상 22:17; 왕하 25:11, 12).

6. **㉠ 백성을 돌보지 않은 나쁜 목자들에 대한 형벌은 무엇인가? (7-10절)**

- ㉠** (1) 그들은 목자로서의 직분을 잃을 뿐 아니라 다시는 양을 착취하지 못할 것이다.
- (2) 이 같은 형벌은 이미 예루살렘 멸망으로 인해 백성의 지도자들이 심판을 당함으로써 이루어졌으며 백성의 구원도 동시에 시작되었다.
- (3)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재능과 직분을 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이웃을 괴롭히고 자신의 이기적 목적에만 사용한다면 은혜는 사라지고 파멸만이 있을 것이다(참조, 마 21:43; 눅 16:12).

7. **㉠ 이스라엘의 새로운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11, 12절)**

- ㉠** (1) 그것은 여호와께서 흩어진 백성을 모든 곳에서 건져 내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 (2) 이는 여호와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자신의 양 떼를 곤경에서 구원하심을 의미한다.
- (3) 그런데 여기서 ‘흐리고 캄캄한 날’은 이스라엘이 흩어진 곳의 상태를 가리킨다. 따라서 ‘흩어진 모든 곳’에서 건져 낸다는 것은 ‘노예’, ‘압제’ 상태에서 구원하는 것을 의미한다(29:21; 30:3).
- (4) 이 같은 회복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을 그 죄에서부터 해방시키실 것을 지칭한다(요 10:1-6).

8.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13절)**

- ㉠** (1)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열방 중에서 모아 고국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 (2) 이는 이방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과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각국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오심을 말한다.
- (3) 또한 본절에서 ‘산 위’와 ‘시냇가’란 사람이 살기에 합당한 장소를 의미한다.
- (4)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의 강한 나라를 사용하셔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고 포로로 잡혀갔던 자신의 백성을 고국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 백성을 편히 거하게 하시는 것이다.

9. **㉠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14, 15절)**

- ㉠** (1) 하나님께서는 좋은 풀과 높은 산 위에 우리를 준비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리에게

누워 살진 풀을 먹게 하실 것이다.

- (2) 이것은 이스라엘에 안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즉 생활에 필요한 풍성한 양식을 주실 뿐 아니라(시 23:1, 2)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겠다는 약속이다(참조, 요 10:9).
- (3) 또한 그들이 거할 곳은 ‘좋은 우리’ 인데 이곳은 ‘높은 산 위에’ 있다. 그런데 여기서 ‘높은 산’이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곳이 평안한 곳임과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될 것을 가리킨다(렘 23:3, 4; 함 3:19).

10. **㉠ 좋은 목자가 행할 바는 무엇인가? (16절)**

- ㉠** (1) 그는 양이 누울 만한 푸른 초장으로 양을 인도하여 충분한 풀과 물을 주어야 한다(시 23:1; 요 10:9).
- (2) 들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애쓰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눅 15:4, 7). 세째, 그는 병든 자와 상한 자를 싸매 주며 보살피 주어야 한다(사 61:1).
- (3) 특히 그는 육체의 병을 고치는 의사와 같이 영혼에 병든 자를 보살피고 강건케 되도록 하나님께 인도해야 한다(마 9:12, 13).
- (4) 마지막으로 그는 교회 내에 있는 교만하고 회개치 않는 자들의 영혼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해야 한다(참조, 딤후 1:5).
- (5) 그러므로 이 같은 일을 행하려면 목자는 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야 한다. 따라서 목자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서약과 끊임없는 자기 복종이 필요하다(참조, 고전 4:1, 2; 딤후 6:11; 딤후 4:5).

11. **㉠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7절)**

- ㉠** (1) 양 무리 중 살진 자와 강한 자를 심판하심과 동시에(16절) 수염소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다.
- (2)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 중 기름지고 강한 자들 곧 재물과 권세를 가지고 약한 이웃을 괴롭히는 자들에겐 심판이 선포된다(참조, 삼하 12:4).
- (3) 이러한 자들은 자신의 재물을 이용하여 권세를 획득하고 또 그 권세로써 더 많은 재물을 얻는 과정에서 이웃의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자신들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 (4) 그러나 지나친 재물과 권세는 인간의 눈을 어둡게 하며 더 많은 욕심을 일으키게 되어 결국은 파멸로 이끌게 된다(참조, 신 8:13, 14; 시 62:10; 마 19:23; 막 4:19; 눅 16:19-31; 행 5장; 딤후 6:9).

12. **㉠ 이스라엘의 압제자들은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가? (18, 19절)**

- ㉠** (1) 그들은 자신들만 위하는 자들로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타인들이 혜택을 얻고자 하면 방해할 하는 일만 저질렀다.
- (2) 따라서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그들이 필요치 않아 버린 것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 (3) 한편 여기서 ‘더럽히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페스>는 ‘거칠은 발걸음으로 걷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의 악행으로 타인들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없음을 가리킨다(참조, 눅 11:52).
- (4) 그러나 우리 성도들 중 부하고 강한 자들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여 그들을 돕고 자신에게 부여된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제 3:17).

13. **㉠ 양 떼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20-22절)**

- ㉠** (1) 비록 살진 양들이 파리한 양들을 밀쳐 내어 흩어지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살진 양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양 떼를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도록 구원하시겠다는 것이다.
- (2) 이것은 이스라엘의 약하고 천한 자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압제자

들을 심판하시고 선한 양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이다.

- (3) 이처럼 악을 행하여 재물과 권세를 쌓은 자들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억누르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압제받는 자들의 간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출 3:7-9).

14. **㉠**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할 목자는 누구인가? (23절)

- ㉠** (1) 그는 하나님의 종 다윗으로 이스라엘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2) 여기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 직분을 취하게 된 이유는 먼저 그가 양을 먹이는 목자 생활을 한 경험이 있었으며(시 78:70, 71),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순종의 태도 때문이었다(참조, 삼하 3:18; 7:5; 왕하 8:19; 시 89:3, 20).
 (3) 그리고 그의 목자 됨은 하나님의 선택과 기름을 부음 받음으로 인한 것이었다(참조, 사 42:1).

15. **㉠** 이스라엘의 목자로 부름을 받은 다윗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가? (24절)

- ㉠** (1) 그는 이스라엘 왕조를 회복할 영원한 왕으로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가리킨다.
 (2)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참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보이신 것이다(렘 23:5; 30:9).
 (3)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의 표본으로 이스라엘의 나쁜 목자와 같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목자의 성격을 가졌다(참조, 삼하 2:8).
 (4) 이 같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험벗고 찢긴 모든 자들에게 희망의 소식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공의와 평화가 임하며 분열과 분쟁이 있지 않는 평화로운 나라가 임할 것을 계시하면서 위로를 주실 목적으로 말씀하셨다(참조, 61:1-3).

16.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어떤 것인가? (25-30절)

- ㉠** (1)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화평의 언약이다.
 (2)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칠 모든 것을 제거하심으로 그들이 평안히 살게 됨을 보여 준다(레 26:4-6; 호 2:20).
 (3) 또한 그들을 이방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다시는 열국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4) 그리고 때마다 알맞은 비를 내려 땅에 소산이 많게 하심으로 다시는 기근이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다(사 35:12).
 (5)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같은 축복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6) 그런데 이와 같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목자, 즉 다윗의 영원한 왕권을 가지신 메시아의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다(렘 23:5, 6; 33:14-16, 26).

17. **㉠** '악한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25절)

- ㉠** (1) 그것은 악한 적대 세력을 상징한다.
 (2) 즉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압제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악한 지도자들까지도 가리킨다(참조, 5절; 레 26:6).
 (3)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자가 백성을 다스릴 때 이 같은 자들은 제거되고 모두가 평안히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인간을 두려움과 공포에서 구원하신다. 따라서 이 사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대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참조, 제 21장) 지금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면 그 평화는 먼 곳이 아닌 바로 여기에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참조, 눅 17:21).

18.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실 복은 무엇인가? (26절)

- Ⓐ (1) 많은 소출을 가져올 수 있는 복된 장마 비이다.
- (2) 이에 덧붙여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있는 산과 예루살렘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다. 그런데 이곳은 곧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기 때문에(사 31:4; 10:32) 이 축복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비옥하게 만드시겠다는 약속이다(신 32:2; 사 55:10, 11; 롬 15:29; 엡 1:3).
- (3) 이같이 풍부한 소출에 대한 축복은 그들이 경험했던 기근과 대조되는 사건이며 이로 인해 그들의 정신까지도 풍요롭게 될 것이다(참조, 호 6:3).
- (4) 이처럼 풍요로운 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의 하나이다(레 26:5; 신 30:9, 10; 시 132:15). 그러나 우리성도들에게는 그 풍요로운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가난한 이웃에게는 사랑과 온정(溫情)을 베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참조, 벧전 4:8; 요일 2:10; 4:21).

19. ⓐ ‘그들의 멩엣목을 쥐고’란 무슨 의미인가? (27, 28절)

- Ⓐ (1)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됨을 의미한다.
- (2) 여기서 ‘멩엣목’ (히, 모토티)은 동물의 목을 누르는 도구로 밭 가는 쟁기를 잡아 끄는 힘을 모으는 도구이다.
- (3) 따라서 ‘멩엣목’을 목에 댄 상태는 곧 노예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참조, 출 1:14). 그러므로 이 ‘멩엣목’을 쥐는다는 것은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을 가리킨다(마 11:28; 요 8:36; 행 15:10).
- (4) 그런데 이 노예 상태는 이스라엘이 앓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실을 가리킨다.
- (5) 반면에 그들이 맞이한 해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풀려나 이제까지 우리를 얽매던 것들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도 암시한다(마 23:4; 롬 8:2; 고후 11:20; 갈 2:4).

20. ⓐ ‘유명한 종식(種植)할 땅’이란 무엇인가? (29절)

- Ⓐ (1) 이것은 곡식 씨앗을 심으면 풍성하게 열매 맺기로 유명한 땅을 가리킨다.
- (2) 여기서 히브리어 <마타>는 ‘심을 땅’ 혹은 ‘경작’을 의미하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열매가 풍성하여 다시는 굶주림에 쓰러지지 않을 것을 뜻한다(참조, 5:12, 16; 6:11, 12).
- (3) 또한 ‘유명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쉬>은 ‘이름을 위하여’라는 뜻인데 경작(耕作)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에게 이름을 날리게 됨을 의미한다.
- (4) 즉 그들이 더 이상 가난으로 이방에게 조롱을 당하지 아니하며 고생하지 않을 것을 가리킨다(참조, 렘 13:11; 습 3:19).

21.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무어라고 부르셨는가? (31절)

- Ⓐ (1) ‘내 양 곧 내 초장(草場)의 양 너희는 사람이라’고 부르셨다.
- (2) 여기서 ‘내 초장의 양’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의 포로 생활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모아 평안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심을 의미한다.
- (3) 한편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귀절의 의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그들이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함을 가리킨다.
- (4)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본질에는 하나님께 정계를 받아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시 36:8).

제 35 장 세일 산에 여호와의 심판이 내리다

단락구분 1-4 에돔(세일 산)의 황폐가 예언되다 / 5-9 이스라엘을 미워한 데 대한 보응 / 10-15 이스라엘 땅을 탐한 것과 하나님을 훼방하는 죄를 짓다

1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 인자야 네 얼굴을 세일 산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3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세일 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4 내가 네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너로 황무케 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5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끝 때에 칼의 권능에 그들을 붙였도다
 6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로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7 내가 세일 산으로 놀라움과 황무지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8 내가 그 살륙당한 자로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살륙당한 자로 네 여러 멧부리에, 골짜기에, 모든 시내에 었드러지게 하고
 9 너로 영원히 황무케 하여 네 성읍들에 다시는 거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

와인 줄 알리라

10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이 두 땅은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11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국문할 때에 그들로 나를 알게 하리라
 12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무하였으니 우리에게 붙이워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와는 줄을 내가 알리노라
 13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14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무케 하되
 15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무함을 인하여 내가 즐거워한 것같이 내가 너로 황무케 하리라 세일 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무하리니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1. ㉠ 본장의 심판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세일 산, 즉 에돔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땅을 탐한 데 대한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 그런데 에돔은 언약 백성의 대적(對敵)으로 메시아 구원에 참여하지 못할 타락한 민족으로 나타난다.
 (3)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망하게 되지만 이스라엘은 구원의 약속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
 (4)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결국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지만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주의 날을 고대하는 성도들에게는 평안과 안식이 약속됨을 말해 주고 있다(참조, 사 61:2, 3).

2. ㉠ '세일 산'은 어디를 말하는가? (2절)

- ㉠ (1) '세일 산'은 사해(死海) 동남쪽에 위치한(창 36:8; 신 2:5) 에돔을 가리킨다.
 (2) 그런데 이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이 세운(창 32:3; 36:20, 21, 30) 나라로 B. C. 587년 바

벨론에 합병되어 유다의 피난민을 학살하고 이스라엘 영토의 일부를 가로채는 악행을 저질렀다(5절).

(3) 한편 '에돔'은 붉다는 뜻인데 이는 에서의 별명으로 그가 붉은 팔죽을 야곱에게 요구한 데서 붙여졌다(창 25:30).

3. **㉠**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에돔이 깨달을 바는 무엇인가? (3, 4 절)

㉠ (1)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치는 환난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하시는 줄 깨달을 것이다.

(2) 즉 그들은 이스라엘을 압보며 늘 원한을 품어 오면서 언약 백성을 괴롭혔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므로써 악을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이심을 보여 주신다(7:4; 사 59:18; 렘 51:56; 호 9:7).

(3) 그러므로 우리가 악심을 품고서 하나님과 교체하며 그분의 은혜를 받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내면에 깃들여 있는 죄악의 요소를 먼저 뽑아 내어야 한다.

4. **㉠** 에돔이 심판을 당할 이유는 무엇인가? (5절)

㉠ (1) 그들이 옛날부터 이스라엘에 한(恨)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을 당할 때 칼을 휘둘러 이스라엘 백성을 학살했기 때문이다.

(2) 즉 근본 원인은 에돔이 이스라엘의 숙적(宿敵)이었다는 데 있었으며(삼하 8:13, 14; 왕상 11:14; 왕하 14:7; 대하 28:17; 암 1:11) 특히 그들은 이스라엘(유다)이 바벨론의 침공을 당해 환난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더욱 괴롭혔다(읍 1:10-14).

(3)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형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사랑과 동정으로 보살피며 위로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행한 사랑이 되기 때문이다(마 25:34-40).

5. **㉠** 이스라엘 백성을 학살한 에돔은 어떠한 형벌을 받을 것인가? (6절)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피흘리기를 좋아하였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피의 보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2) 즉 그들은 포악한 자들로서 피흘리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 같은 일을 즐겨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피로 변하게 하거나 그곳을 없애 버리실 것이다.

(3) 또한 이 '피의 보복'이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의 피를 흘린 죄는 반드시 자신의 피를 흘려야 하는 형벌을 받게 됨을 보여 준다(창 9:6).

(4) 더우기 이 형벌의 성격은 일회적(一回的)인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된 에돔을 계속 따라다닐 영속적인 것이다.

(5) 이처럼 우리들도 죄를 짓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죄의식을 갖게 되며 하나님께서도 결코 그 죄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징계하신다(창 3:19; 사 59:2; 롬 6:23).

6. **㉠** 에돔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7-9절)

㉠ (1)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것이며 그 땅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폐허로 변할 것이다.

(2) 이것은 에돔이 영원히 멸망할 것을 가리킨 예언인데 에돔이 마카비 반란 때(B. C. 164) 유대인들에게 점령당해 그 영토가 유대에 편입됨으로써 성취되었다.

(3) 이처럼 국가적인 범죄는 그 국민 모두를 죄악 가운데 있게 하여 결국은 국민 전체가 몰락하는 운명을 겪게 한다. 그러므로 개인 구원 뿐만 아니라 복음이 국가 전체에 퍼져 국민 모두를 복음화시켜야 할 것이다(은 1:2; 3:4-10).

7. **㉠** 에돔이 가졌던 탐심(貪心)은 어떤 것이었는가? (10절)

㉠ (1)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땅과 남유다의 땅 모두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자신들의 소유가

되리라고 생각하였다.

- (2) 즉 에돔은 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했을 때(B. C. 586) 무력으로 이스라엘 땅 전체를 소유하려 했으나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 (3)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였으며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국 에돔은 하나님의 소유를 탐하며 하나님을 멸시한 죄를 범하고 말았다(36:5; 시 83:12).
- (4)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인식이 흐려져서 하나님의 소유를 침범할 때가 있는데 이 같은 마음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교만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출 5:2; 대하 26:16; 단 5:23).

8. **㉠** 에돔의 탐심(貪心)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지켜진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0절)

- ㉠** (1)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신의 백성의 죄를 징계하시지만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며 동시에 불신자들의 멸시와 천대를 대적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2) 이 같은 사실은 이스라엘(유다)의 패망을 이용하여 영토를 넘본 에돔의 경우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패망을 기뻐한 경우에도 해당되었다(25장; 26:2; 29:6, 7).
- (3) 그러므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과 평안 가운데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슬픔 속에 있을 때와 심지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까지라도 지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신 32:10; 시 17:8; 121편).

9. **㉠** 하나님께서 맹세한 사실은 무엇인가? (11절)

- ㉠** (1) 에돔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질투한 대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겠다는 것이다.
- (2) 즉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대적인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패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예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자신들을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의미이다(15절).
- (3) 이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고 자기에게 조그마한 어려움이 닦쳤을 때 자신을 도와 주지 않는다는 불평을 늘어놓지만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출 16:3, 4, 7-12).

10. **㉠** 에돔의 행동 중에서 우리가 찾아 볼 수 있는 인간의 사악한 면은 무엇인가? (12절)

- ㉠** (1) 에돔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스라엘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를 이용해서 영토를 빼앗아 갔다.
- (2) 이 같은 현상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윤리와 도덕이 타락하고 종교가 그 빛을 잃어 감에 따라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 (3) 그런데 그 근본 원인은 타인을 생각지 않는 마음, 즉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 하나만 잘살고 타인은 못 살아도 좋다는 생각이 그 마음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사 5:8; 미 2:2; 함 2:9).

11. **㉠**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적인 에돔에 내릴 심판은 무엇인가? (14절)

- ㉠** (1)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황무(荒蕪)케 하실 것이다.
- (2) 이 심판은 온 세상이 에돔의 황폐함을 보고 기뻐할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에돔'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적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 (3) 따라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적인 무리들이 황폐하게 될 때 하나님께 속한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은 오히려 즐거워한다는 뜻이다(참조, 사 65:13, 14).
- (4) 이처럼 타인의 몰락과 슬픔을 오히려 기뻐하고 그 기회를 틈타서 이득을 얻으려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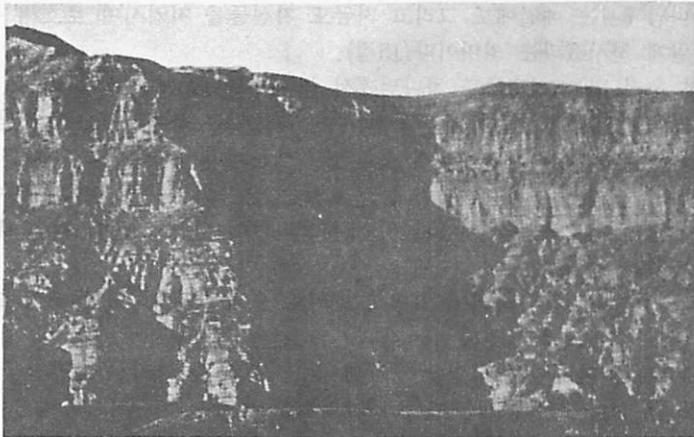
자들은 자신들도 그 같은 처지에 빠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시 137:7).

12. **Q** 이스라엘을 향한 에돔의 극심한 미움과 질투의 근본은 어디에서부터인가? (15절)

- A** (1) 그것은 한 형제인 에서(에돔)와 야곱(이스라엘) 사이의 경쟁에서 비롯되었다.
 (2) 즉 야곱에 대한 에서의 미움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는 야곱이 두 번에 걸쳐서 에서의 축복을 빼앗은 데 대하여 격분하였기 때문이다(창 27:36, 41, 42).
 (3) 또한 야곱 자손에게 허락된 땅은 에서의 자손(에돔)에게 주어진 땅보다 훨씬 훌륭하였기 때문에(참조, 창 28:4) 에돔은 대대로 이스라엘에 원한을 가졌다(민 20:14-21; 삼하 8:13, 14; 왕상 11:14; 왕하 14:7; 대하 28:17; 암 1:11).
 (4) 이처럼 모든 전쟁과 투쟁의 근본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탐욕과 시기과 질투에서이다. 그러므로 지혜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제어(制御)하여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참조, 시 40:8; 143:10; 마 26:42).

화보자료

세일 산(the Mount of Seir). 세일 산은 단순한 산이라기 보다는 거대한 산지(山地)라고 할 수 있다. 아래 사진은 그러한 산지 중의 일부분의 모습이다.



세일 산은 본래 호리(Hori) 족속들이 거주했던 곳이나 훗날 에서(Esau)와 그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된 땅이다(신 2:12). 그런데 이들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 간에는 옛부터 끊임없는 적대 관계가 형성되어 왔었다(참조, 삼하 8:13, 14; 왕하 14:7; 암 1:11). 본장에는 이러한 에돔 족속이 장차 멸망하게 되리라는 예언이 나오는데(15절) 실제로 이들은 B. C. 4세기경 나바테아인들에게 멸망당하였다.

제 36 장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

단락구분: 1-6 이방의 조롱거리가 된 이스라엘 / 7-15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예언 / 16-21 이스라엘의 죄와 그에 대한 심판 / 22-28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키는 이유 / 29-31 죄악을 깨닫는 이스라엘 / 32-36 이스라엘이 재건되리라 / 37-38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채우시리라.

1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산들이 여호와와 말씀들 으라

2 주 여호와와 말씀에 대적이 네게 대하여 말하기를 하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3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황무케 하고 너희 사망을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4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이아 주 여호와와 말씀을 들을지이다 주 여호와께서 산들과 멧부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무한 사막들과 사면에 남아 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5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투기로 남아 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니라

6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멧부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내 투기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욕을 당하였음이니라

7 그러므로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 수욕을 정녕 당하리라

8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이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울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9 내가 들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잡고 심을 것이며

10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11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증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

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2 내가 사람으로 너희 위에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로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13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네 나라 백성을 제한 자라 하거니와

14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나라 백성을 제한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

15 내가 또 너로 열국의 수욕을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네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16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17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18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19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흠으며 열방에 헤쳤더니

20 그들의 이름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와 백성이라도 여호와와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21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졌노라

22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3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와 말이 나라

24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25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26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29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30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31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밋게 보리라

32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33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점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 인즉

34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35 사람이 이르기쯤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 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36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7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 떼 같이 많아지게 하되

38 제사드릴 양 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 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였셨느니라

1. ㉠ 본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요약하라.

- ㉠ (1) 이스라엘 땅이 지금은 황폐하고 그 백성이 비록 이방의 포로가 되어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전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을 약속하신다.
- (2)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의 기쁨을 제공하실 것이다.
- (3)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조국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케 하시고 새 영(靈)을 그들에게 주셔서 다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다.
- (4)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과거의 죄를 부끄러워하게 만들고 자신들에게 복 주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는 사실을 깨우쳐 준다. 더우기 이 축복은 온 세상에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2. ㉠ '이스라엘 산들'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1절)

- ㉠ (1) 이스라엘의 땅과 백성을 가리킨다(6:2, 3).
- (2)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으나 그 산들은 영원히 남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기억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 예언하라고 명령하셨다(창 49:26; 신 33:15; 시 125:2).
- (3)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쉽게 잊어버리고 재갈 길로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분임을 가르쳐 준다(미 7:20).

3. ㉠ 이스라엘의 대적자(對敵者)들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비웃었는가? (2, 3절)

- ㉠ (1) 그들은 '하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고도다'라고 이스라엘을 비웃었다.
- (2) 여기서 '옛적 높은 곳'이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이 있는 시온을 가리키거나 왕의

도성(都城)이 있던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3) 따라서 이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인 이스라엘 땅이 자신들의 소유가 되었다고 득의 양양(得意揚揚)해 하는 말이다.

(4) 이처럼 우리는 믿는 성도들이 죄를 짓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불신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은 물론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가리는 결과를 초래함을 알아야 한다(25:3; 26:2; 35:10, 12).

4. **㉠**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는 누구인가? (2절)

㉠ (1) 본장과 35장에 있어서는 에돔을 가리키나(35:10) 넓은 의미로는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를 가리킨다.

(2) 그러므로 그들은 '남은 이방인', 즉 이스라엘(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 팔레스틴 지방에 남아 있던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참조, 25장).

(3) 이처럼 우리의 주위에는 항상 우리를 넘보는 사단의 무리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 사단의 무리들은 우리가 신앙 생활을 게을리하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찰 때는 가차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준비하고 있다.

(4)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 있어 대적자들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참조, 딤후 2:26; 벰전 5:8).

5. **㉠**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상은 무엇인가? (4절)

㉠ (1) 이스라엘의 산들, 뗏부리들, 시내들, 골짜기들, 황무한 사막들과 성읍들이었다.

(2) 그런데 이것들은 이스라엘 온 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6:3).

(3) 이 같은 표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보살피시고 지켜 보시는 분임을 알 수 있다(참조, 신 32:10; 시 17:8).

6. **㉠**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난 표현은 어떤 것들인가? (5, 6절)

㉠ (1) '내 맹렬한 투기'와 '내 투기와 내 분노'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에 지극한 관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2)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은(창 17장)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3) 따라서 하나님의 적이 이스라엘의 적이며 이스라엘의 적이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이다(참조, 출 23:22).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업신여기는 이방에 대해 맹렬한 분노와 투기를 나타내시는 것이다.

(4)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는 그분의 소유임과 동시에 그분과 영원한 계약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참조, 롬 4:13, 18).

7. **㉠** 하나님께서 이방을 향해 맹세하신 바는 무엇인가? (7절)

㉠ (1) 이스라엘의 사면(四面)에 있는 이방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2) 그들 이방인들은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무시하였으나 이제는 그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3)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복수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다.

(4) 이 세상에는 의로운 자들과 악한 자들이 악한 자들에게 수모(受侮)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에 대해 보복하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여길지 모르나 보복은 보복을 일으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5) 그러므로 복수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롬 12:19).

8.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실 축복은 무엇인가? (8-15절)

- ㉠** (1) 하나님께서는 황폐하게 버려진 땅에서 이제는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열매가 나에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다(8, 9절).
 (2) 또한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조국을 떠난 피난민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텅 빈 땅에 사람의 소리가 있게 하고 그들이 번성하여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다(10, 11절).
 (3) 따라서 그들은 바벨론에 의한 패망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11절).
 (4) 더우기 그들이 이방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은 물론 새 영(靈)을 받아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였기 때문에(26절) 그 땅에서는 착취와 폭력이 사라질 것이다(14절).
 (5) 따라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방의 멸시와 비난을 받지 않는 나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거하게 될 것이다.
 (6) 인간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자신의 뜻대로 살지만 이와 같이 한 나라나 개인도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만 번성하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16:13, 14; 단 6:28).

9. **㉠**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되기 이전, 즉 자신들의 고향에 있을 때의 행위는 무엇에 비유되었는가? (17절)

- ㉠** (1) 그들의 행위는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에 비유되었다.
 (2) 그런데 여인의 주기적인 월경(月經)을 부정한 것으로 보는 이유는 히브리인의 정결 개념에 있어서 피의 유출은 생명의 상실을 의미하는 동시에 죄를 뜻하기 때문이다. 즉 죽음은 죄의 결과로 온 것이기 때문에 피의 유출을 죄악시한 것이다.
 (3) 또한 모세의 율법에 있어서 월경 기간에 있는 여인은 외부와의 접촉이 금지되었으며 그 여인이 만진 것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다(레 15:19).
 (4) 한편 율법 이전 족장 시대의 아람 사람들간에도 이러한 규례가 있었다(창 31:35).
 (5) 그러나 여인의 월경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행위 자체를 이것에 비유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본절에 나타난 여인의 월경은 18절에 나오는 피와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더 적절하다.

10. **㉠** 이스라엘의 죄악 중 땅 위에 피를 쏟은 죄는 무엇을 말하는가? (18절)

- ㉠** (1) 이것은 그들의 사회에 폭력이 난무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가리킨다.
 (2) 이와 같이 유다가 멸망할 시기(B. C. 586)에는 사회가 극도로 혼란에 빠져 정치, 종교 등 모든 방면에 있어서 부패의 극을 달렸다.
 (3) 더우기 그들의 율법은 땅에 떨어져 사람을 죽이는 일을 예사로 여겼으며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
 (4) 이처럼 한 사회나 개인이 사람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근본은 그들이 생명의 근원되시는 하나님 곁을 떠났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 데서 비롯되었다(렘 2:13).

11. **㉠** 이스라엘(유다)의 멸망은 하나님께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20절)

- ㉠** (1) 유대인들이 멸망하여 온 백성이 여러 나라로 흩어진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2) 즉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백성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간 환난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할 수 없고 그의 땅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겼다.
 (3)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실추된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시기 위해서 포로되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모아 그들의 고국에서 평안히 거하게 할 것을 결심하셨다.
 (4)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에서 귀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자신이 전능하신 역사의 주관자임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역사(役事) 때문이었다고 하겠다(사 43:25; 48:11).

(5) 그러므로 우리가 잘되고 선한 행위를 나타내면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질 것이며, 우리가 잘못을 범하고 추한 면을 보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질 것이다(참조, 습 3:17; 고후 2:15).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 여부에 얽매인 분이 라는 것을 강조하기 보다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깨우쳐 주는 교훈이다.

12. **㉠**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22, 23 절)

- ㉠** (1) 그것은 이스라엘로 인해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 앞에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또 그 징계를 받은 백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란 것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을 이방의 포로에서 구하셨다.
- (3)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것은 결코 우리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임을 알 수 있다(20:41, 42).

13. **㉠** 고국으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役事)는 무엇인가? (25 절)

- ㉠** (1) 하나님께서는 고국으로 돌아올 자신의 백성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우상 숭배와 모든 더러운 것에서 그들을 정결(淨潔)케 하실 것이다.
- (2) 여기서 물로 씻는 것은 정결케 하는 것을 상징한다(참조, 민 19:17-19; 시 51:9).
- (3) 이것은 자신의 백성을 거룩한 민족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즉 포로 이전의 우상 숭배와 더러운 행실을 깨끗이 씻고 새로운 생활을 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인 것이다(사 4:4; 렘 33:8).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레 19:2).

14. **㉠** 사악하고 더러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은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가? (26, 27 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영(靈)과 새 마음을 주셔서 그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실 뿐 아니라 새 신(神)을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 (2)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 윤리가 개선되고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 새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내적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이다(37:23).
- (3)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규례를 지키는 것은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 신(神), 즉 성령을 주시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다(11:19, 20; 렘 31:31-34).
- (4)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행 2:38). 그런데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분이시다(요 14:16-18, 23; 16:7-15). 이 약속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되었다(행 2:1-4).

15.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은혜는 그들의 심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28-31절)

- ㉠** (1) 하나님의 은혜로 비옥한 땅과 풍성한 열매 그리고 평안한 거처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로 인해 과거의 죄를 기억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중요할 것이다.
- (2)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행위와 처지를 돌아보게 하여 과거에 지은 자신들의 죄를 누우치고 새 삶을 살기에 적합한 심령(心靈)으로 만든다(20:43).

(3) 이와 같이 믿음의 생활이란 먼저 자신의 행위와 더러운 마음의 죄악을 뉘우치고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참조 시 34:18; 51:17).

16. **㉠** 하나님께서는 무슨 까닭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셨는가? (32절)

㉠ (1)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목전(目前)에서 더럽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이다.

(2)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후 그들에게 새 영과 새 신을 부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도록 하실 것이다. 그 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케 하실 것이다.

(3) 그런데 이 같은 일련(一連)의 계획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가깝게 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으로 이방인들에게 인식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20, 21절).

(4)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백성조차도 보호할 수 없는 무능한 신(神)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39:21).

17. **㉠** 황폐하던 이스라엘이 다시 건축되고 그곳에 사람이 다시 살게 됨을 보고 이방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33-36절)

㉠ (1) 그들은 이같이 놀라운 일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줄 깨달을 것이다.

(2) 즉 국토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폐허화되었고 온 국민은 이방의 여기저기로 흩어져 멸시를 당하던 민족이 이제는 다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와 경작하며 성을 건축하는 모습을 본 이방인들은 이 모든 일이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役事)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을 것이다.

(3)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35절에 나타난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놀라운 정도로 번성할 것을 보여 준다.

(4) 특히 그들의 성채는 대단히 견고하여 다시는 그곳을 쫓겨 날 염려가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35절).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국가나 개인은 그 모든 일이 번성하여 두려울 것이 없다.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고전 9:27).

18. **㉠**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37, 38절)

㉠ (1) 이스라엘 백성을 양 떼같이 많이 하되 정한 절기의 양 떼같이 많이 하실 것이다.

(2) 즉 이스라엘 자손을 흩어진 열국(列國) 중에서 불러모으심이 마치 특별한 절기에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가지고 오는 양 떼와 같이 많이 하실 것이다(대하 35:7).

(3) 또한 이스라엘 절기에는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잃은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절기 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과 같이 그 백성의 수를 많이 하시리라고 약속하셨다(참조, 미 2:12).

(4)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하셨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그분을 의지하여야 함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참조, 단 9:2, 3).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면서도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그것을 위해 간구하기를 바라신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참조, 골 1:12; 3:15; 살전 5:18).

제 37 장 이스라엘 회복의

환상을 보이시다

단락구분 1-6 마른 뼈에 비유된 이스라엘 / 7-10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다 / 11-14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부르시다 / 15-23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되리라 / 24-28 그리스도의 왕국이 예언되다

1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2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많았더라

3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4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이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5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6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7 이에 내가 명을 좇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8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9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방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11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12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내 백성들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 내 백성들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와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15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16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17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들이 하나가 되리라

18 네 민중이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19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라

20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21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 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22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23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법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24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25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 손
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
원히 그 왕이 되리라

26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변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
게 하리니

27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
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
리라

28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
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케 하는 여호
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1. **㉠ 본서의 환상을 요약 설명하라.**

- ㉠** (1) 앞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흠어진 이방으로부터 구원하여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으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였다.
- (2) 왜냐하면 현재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을 도와 줄 어느 누구도 없었기 때문이다.
- (3)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죽어서 뼈만 남은 앙상한 물골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드실 수 있음을 보이시면서 분열된 이스라엘을 재결합시킬 곳까지도 약속하셨다.
- (4) 그런데 이 같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결합은 장차 세워질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한다.

2. **㉠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이신 것은 무엇인가? (1, 2절)**

- ㉠** (1) 하나님의 신은 에스겔을 인도하여 골짜기에 흠어진 마른 뼈들을 보이셨다.
- (2) 여기서 ‘신(神)이란 ‘호흡’, ‘바람’, ‘영’을 뜻하는 히브리어 <루아흐>로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이 ‘하나님의 신’의 인도로 골짜기에 흠어져 있는 마른 뼈를 보았다(3:22).
- (3) 그런데 이 마른 뼈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 것으로 그들은 전혀 생기가 없는 마른 뼈와 같아서 함께 모일 수도 없이 분열된 상태에 있었음을 잘 나타내 준다.
- (4) 그러나 이같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는 자는 오히려 구원의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눅 15:15-20).

3. **㉠ 마른 뼈들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슨 질문을 하셨는가? (3절)**

- ㉠** (1)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들이 살 수 있는지를 물으셨다.
- (2) 그런데 이 질문의 의도는 인간의 생각에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에스겔은 다만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참조, 신 32:39).
- (3) 이처럼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지혜의 방법으로 인간들 눈앞에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모든 무릎들을 당신 앞에 꿇게 만드신다(참조, 사 45:22-25).

4. **㉠ 에스겔에게 대언(代言)하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4, 5절)**

- ㉠** (1)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너희 마른 뼈들이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지어다’라고 대언케 하셨다.
- (2)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세상 모든 것들이 복종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모든 것들이 그대로 따를 것을 보여 주는 명령이다.
- (3) 또한 ‘내가 생기(生氣)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시는 분’임을 보여 준다(창 2:7).
- (4) 그런데 여기서 ‘생기’(生氣)는 문자적으로 생명을 주는 ‘영’이나 ‘숨’을 가리킨다(참조, 창 6:17; 7:22).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생기’는 생명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5) 이처럼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던 해방을 이룰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 (6)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생기를 잃고 죽은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이 임하게 되면 그는 참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참조, 요 1:4; 딤후 1:10; 요일 1:2; 5:12).

5. **㉠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代言) 하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7, 8절)**

- ㉠** (1) 그때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면서 뼈가 서로 들어맞고 그 뼈에 살과 힘줄이 올랐다.
- (2) 그런데 이 소리는 뼈들이 움직일 때 나는 소리로 간주해야 한다.
- (3) 그리고 이 같은 기적은 이방의 여러 곳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드는 것을 상징한다.
- (4)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참조, 엡 1:19).

6. **㉠ '사망을 당한 자' 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9절)**

- ㉠** (1) 그것은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킨다.
- (2) 그러나 본절에서 사망한 자가 생기를 얻는다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패망하여 죽은 자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소생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 (3) 한편 죽은 자를 살리는 '생기'는 '바람'이나 '영' 이라기 보다는 생명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즉 생명의 근원이나 생명을 주관하신 신적 본질을 의미한다(참조, 창 2:7).
- (4)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살해된 자, 즉 사망한 자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다시 살리신 것이다.
- (5) 이처럼 하나님께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산 자를 죽은 자와 같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다.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생명의 근원되시는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아 늘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롬 12:2; 엡 4:23).

7. **㉠ 실의(失意)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12절)**

- ㉠** (1) 하나님께서는 무덤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나와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 (2) 하나님의 선민(選民)으로 자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완전히 실의(失意)에 빠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하였다(참조, 시 88:6).
- (3) 따라서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죽은 사람과 같이 여겼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같은 포로 생활에서 그들을 구원시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 (4) 이와 같이 우리 인간들은 자신들이 의지하고 귀중하게 여기던 것을 잃게 되면 실의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고 전혀 구원이 없는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살피시고 베푸실 은혜를 준비하신다(참조, 고후 6:2).

8. **㉠ 하나님께서는 고국으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14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神)을 두어 살게 하실 것이다.
- (2)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경제적 회복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생활, 즉 종교의 회복을 가리킨다(사 14:1).
- (3)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져야만 살 수 있는 언약(言約)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 (4)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신(神)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야만 올바르게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넘어지고 범죄한 길로만 가려고 하기 때문이다(참조, 수 24:14-18).

9. **㉠**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하신 상징적 행동은 무엇인가? (16, 17절)

- ㉠** (1)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명하시길 막대기 하나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이라고 쓰게 하셨으며, 또 다른 막대기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은 족속' 이라고 쓰게 하셔서 둘을 하나가 되게 하라고 명하셨다(참조, 민 17:2).
- (2) 여기서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이란 남왕국 유다가 유다 족속 뿐만 아니라 베냐민과 시므온 그리고 레위 족속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 중 상당수의 사람들이 남유다로 이주한 사실을 가리킨다(참조, 대하 11:13; 15:9; 30:11, 18).
- (3) 또한 다른 막대기에 쓴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은 족속' 이라는 함은 나머지 북왕국의 지파들을 가리키는데, '에브라임의 막대기'라 함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열 지파의 핵심을 이루었기 때문이다(사 7:2-17).
- (4)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연합되지 않았던 남·북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19절).
- (5) 그러므로 한 민족이 나뉘고 한 종교가 여러 분파로 나뉘는 것은 모두가 인간의 욕심과 교만으로 인한 결과이지 결코 하나님께서는 나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10. **㉠**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란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19절)

- ㉠** (1) 에브라임 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2)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따른 열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폭정에 반기를 들고 다윗의 왕가(王家)에서 떨어져 나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설하였다(왕상 11:31; 대하 10:16).
- (3) 이때에 에브라임 지파는 야곱의 축복과 예언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었다(참조, 창 48:19, 20; 암 5:15; 욥 1:18).

11. **㉠**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에 에스겔은 어떤 응답을 하여야 하는가? (20-23절)

- ㉠**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둘로 나뉘었던 나라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응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야 한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후로 나뉘었던 민족을 하나 되게 만들어 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뜻을 갖고 계시었다(36:24-31).
- (3) 그런데 에스겔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상징적 행동으로 나타냄으로써(16-20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예언의 말씀의 효과를 증대시키려 하였다.
- (4) 이와 같이 오늘날의 목회자도 성도들이 물어 오는 질문에 효과적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위해 많은 기도와 개인적 지식의 축적이 필요하다(참조, 말 2:7).

12. **㉠** 이스라엘은 장차 어떤 정치 형태를 띠 것인가? (22절)

- ㉠** (1) 남북으로 나뉘었던 이스라엘은 한 임금이 다스리는 통합 국가를 형성할 것이다.
- (2) 앗수르에 의해 패망한 북왕국 이스라엘(B. C. 722)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왕국 유다는 흩어져 있던 열방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다(스 2장).
- (3) 그리고 그들을 다스릴 임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장차 나타날 메시아를 가리킨다(사 9:7; 32:1).
- (4) 또한 이 메시아가 다스릴 나라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의 모든 영적 이스라엘까지도 포함된다(참조, 롬 9:6-8; 갈 6:16).

13. **㉠**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23절)

- Ⓐ (1) 이것은 이스라엘이 처한 환경에서 그들이 죄를 지을 모든 요소를 제거한다는 말이다.
 (2) 즉 포로 이전의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의 영향을 받아 우상을 숭배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다(36:25-28).
 (3) 따라서 포로에서 귀환하여 고국을 찾은 이스라엘은 죄의 요소를 제거하고 정결함을 받아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이 될 것이다.
 (4)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과 밖에 있는 죄의 요소를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그 죄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롬 8:9).

14. Ⓒ **이스라엘의 왕이 될 하나님의 종 다윗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24절)**

- Ⓐ (1)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가리킨다.
 (2) 즉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통치로 인해 다시는 이방의 침략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우상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다.
 (3) 이 메시아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한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사 55:3; 렘 32:40).
 (4) 또한 이 메시아의 통치는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왕국과 부합되며 그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이방인까지도 포함된다(렘 31:31-34).

15. Ⓒ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질 곳은 어디인가? (26절)**

- Ⓐ (1) 그곳은 하나님께서 견고(堅固)하고 번성케 할 이스라엘 가운데이다.
 (2) 이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 제도가 외적(外的)으로 확고히 설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참조, 출 25:8).
 (3)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방을 구원할 메시아적 민족이라는 사실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사 49:3; 롬 3:2; 9:4, 5).
 (4)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전 3:16; 6:19).

16.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결케 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27절)**

- Ⓐ (1) 그것은 이방을 구원할 제사장 나라로서 부족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2) 이방과 온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신(참조, 딤후 2:4) 하나님께서는 그 임무를 수행할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정결하고 본을 보일 수 있기를 바라셨다.
 (3) 따라서 바벨론 포로 기간을 거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신(神)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수행할 자격이 있도록 변화되어야 했다.
 (4)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불신자들 앞에서 책잡힐 것이 없는 정결함을 유지하여야 한다(참조, 마 5:16).

17. Ⓒ **'열국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거룩케 하시는 분으로 알리라'라는 표현은 무엇을 암**

- Ⓐ **시하는가? (28절)**
 (1) 이것은 구원의 약속이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됨을 보이는 표현이다.
 (2) 즉 이스라엘을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는 이방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포함한 새로운 메시아 왕국 건설을 계획하시는 것이다.
 (3) 그런데 이 메시아 왕국은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 구원 받는 자들로 채워지며 이 교회의 확장은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는 것이다.
 (4) 이와 같이 우리도 처음에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에 합당한 일을 함이 마땅하다(롬 11:17).

제 38 장 이스라엘을 향한 곡의 침략

단락구분 1-6 곡이 침략 준비를 하다 / 7-9 이스라엘을 향한 곡의 침략 / 10-16 곡의 침략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 17-23 곡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1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3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4 너를 들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야
 5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6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7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8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랴
 9 내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떼와 너와 함께 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10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11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12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13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네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14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15 내가 네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16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곡아 끝 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17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중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18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19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20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21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들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22 내가 또 은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떼와 그 함께 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 듯하리라
 23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 본장의 예언을 요약하라.

㉠ (1) 본장의 예언은 이방의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평안히 살고 있던 이스라엘에 곡의 군대가 침략을 하지만 그 침략은 실패로 돌아가고 또한 그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그런데 이 예언은 곡의 침략이 하나님의 주관하(主管下)에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거룩한 분이심을 세상에 알리려 하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또한 이 예언의 목적은 비록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에서의 행복과 메시아 왕국을 확장시킬 특권을 가진 백성이 될 것이 약속되었지만 그들은 축복과 아울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을 가르치려는 것이었다(롬 8:17).

2. ㉡ ‘마곡 땅’은 어디를 가리키는가? (2절)

㉠ (1) 창10장에 의하면 ‘마곡’은 야벳의 아들인데 그의 자손들은 흑해와 카스피 해 중간인 코카서스 북방 지역에 거주하였다.

(2) 또한 ‘마곡’은 ‘로스’, ‘메섹’, ‘두발’의 통칭으로 통합된 민족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3) 그런데 이들은 극히 호전적이며 야만적인 민족으로 침략을 일삼았다. 따라서 이 ‘마곡’은 미래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힐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을 예표한다(계 20:8).

3. ㉢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은 누구인가? (3절)

㉠ (1) 그는 마곡 땅을 다스리는 ‘곡’이다.

(2) 그런데 그는 열방과 자신의 백성에게 명성을 떨치고 있던 유명한 인물로 추정된다(7절).

(3) 그러나 열방의 군대를 지휘하는 그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나 바사의 고레스와 같이 단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참조, 26:7).

(4) 이처럼 이 세상을 호령하고 강대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모두는 역사의 주관자(主管者)가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참조, 대하 36:22, 23; 스 1:1-4).

4. ㉣ 곡의 군대는 어떻게 군대를 일으키게 되었는가? (4절)

㉠ (1) 그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로 온 군대가 중(重)무장을 한 채로 출병(出兵)했다.

(2)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평안히 거하는 이스라엘을 침공할 마음을 갖게 하셨다.

(3) 한편 하나님에 의해 이끌림을 받는 곡의 군사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사 37:29).

(4) 왜냐하면 곡의 군대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5) 이처럼 이 세상의 어떤 국가나 개인도 비록 그들이 강하고 지혜가 있을지라도 그 능력과 지혜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참조, 잠 21:1; 사 37:29).

5. ㉤ 곡의 지휘를 받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인가? (5, 6절)

㉠ (1) 그들은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족속이다.

(2) 여기서 바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 극동에 있는 나라를 그리고 붓은 극서에 있는 나라를, 구스는 극남에 있는 나라를 가리킨다(참조, 27장 ㉠10). 또한 고멜과 도갈마 족속은 북방에 있는 나라들을 말한다(참조, 27장 ㉠14).

(3) 그런데 이들은 당시 세상에 알려진 변경에서 왔으며 모두 ‘곡’에 의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 소집되었다(참조, 계 20:8).

(4)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 즉 진실한 성도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셀 수 없이 많다.

(5)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같은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참조, 마 26:41; 고전 10:12; 뱀전 5:8).

6. **㉠** 이스라엘이 '곡'의 침략을 받을 때는 언제인가? (8절)

- ㉠** (1) 이스라엘은 이방의 칼을 벗어나서 자신들의 고국 땅에서 평안히 거할 때 '곡'의 침략을 받는다.
 (2) 그런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평안히 거할 때로 최후의 때, 세상 종말이 올 때를 가리킨다.
 (3) 즉 이스라엘은 전쟁을 생각지도 않고 평화를 생각할 때 곡의 침공을 당할 것이다.
 (4) 이처럼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악한 존재들은 우리 주변에 상당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함으로써 이들의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참조, 마 26:41; 엡 6:18; 빌 4:6; 골 4:2; 살전 5:17; 딤후전 2:8).

7. **㉠** '명령을 받고'란 귀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8절)

- ㉠** (1) '곡'은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데 이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한 '곡'의 침략이 자신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2) 한편 '명령을 받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티파케드>의 원래 의미는 '찾다', '탐구하다', '살펴보다'는 뜻으로 본절에서는 '방문하다', '찾아오다'란 뜻으로 사용되었다(참조, 사 24:22).
 (3) 따라서 '곡'은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된다.
 (4) 그러므로 이 사상은 곡이 하나님의 능력에 강제로 순종하게 됨을 보여 준다. 한편 계 20:8에서는 사단이 열방을 충동시키는 자로 묘사되는 반면, 본서에서는 열방의 주관자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다(참조, 삼하 24:1; 대상 21:1).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까지 자신의 주도권 아래에 들으로써 사단이 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음을 잘 나타내 준다(참조, 욥 1:6).

8. **㉠** '곡'은 어떠한 생각으로 이스라엘 땅을 침공할 것인가? (10절)

- ㉠** (1) 그는 야심과 탐욕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빼앗고 악한 피로 재물을 약탈할 것이다.
 (2) 그런데 이러한 악한 생각을 갖게 하는 '마음'은 히브리어로 <테바립>이라 하는데 이 말은 '사물들'이나 '말들'(words)을 의미하지 않고 마음속에 떠오르거나 들어온 생각을 가리킨다(참조, 막 7:21).
 (3) 이것은 유사한 뜻을 가진 히브리어 <하셈>의 뜻이 '생각을 품다', '악한 생각을 고안하다'인 것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4) 이와 같이 악한 생각은 항상 의로운 자를 상하게 하며 결국은 자신마저도 파멸로 이끌어 간다.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욕심에 이끌려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악한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있어야 한다(욥 28:28; 살전 5:22).

9. **㉠** '평원의 고을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1절)

- ㉠** (1) 그것은 외적이 침입하기 쉬운 곳으로 전혀 방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땅을 가리킨다.
 (2) 즉 문자적으로는 들판의 땅이나 방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고을을 말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음을 알려 준다(참조, 사 18:7, 8; 렘 49:31).
 (3) 그런데 이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성벽이나 문, 문빗장도 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음을 가르쳐 준다.
 (4)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두려움이 없

어졌음을 가리킨다.

- (5)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신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없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속 2:4, 5).

10. **㉠** '세상 증앙에 거하는 백성'은 어느 민족을 가리키는가? (12절)

- ㉠** (1)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
 (2) 이것은 그들이 열방 중에서 가장 귀한 지위를 차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영광과 축복을 받게 됨을 가리키는 말이다.
 (3)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하여 침공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의 행위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침공하는 것이다.
 (4) 그런데 이러한 축복의 민족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5)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여야 한다(참조, 롬 6:4; 8:1; 고후 5:7; 엡 4:1; 5:2; 5:15; 골 2:6; 요일 1:7; 2:6).

11. **㉠** 이스라엘을 침공한 '곡'의 행위에 대해 열방은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 (13절)

- ㉠** (1)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商賈)와 그 부자들은 '곡'의 이스라엘 침공은 탐심이 원인이었다고 말할 것이다.
 (2) 그런데 여기서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商賈)에 대해 언급한 이유는 그들도 탐심이 가득한 자들로서 그들의 사나움과 매정함에 대한 소문이 세상에 이미 알려졌기에 비교가 되기 때문이다(참조, 27장 **㉠** 11, 14, 18).
 (3) 즉 악한 자들은 서로가 상대방의 마음을 자신의 악한 마음을 근거로 하여 평가하기에 자신들끼리는 그 행동을 보기만 하여도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다.
 (4) 이와 같이 악인들은 그 사고 방식이 모두 악에 기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늘 타인을 침해하고 이용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그러나 이같이 검은 마음은 우리들 속에서도 늘 움직일 기회를 엿보기 때문에 그 근본이 되는 욕심을 없애야 한다(약 1:14, 15).

12. **㉠** 모두 말을 타고 이스라엘 땅을 침공한 '곡의 무리'는 어느 민족인가? (15절)

- ㉠** (1) 고대의 유대인 전통과 비잔틴 그리고 아랍 학자들은 '곡의 무리'인 마곡 백성을 스키타(Scythia) 족속으로 본다.
 (2) 한편 그리이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Herodotus)의 기록에 의하면 스키타의 기마대는 B. C. 626년 앗수르를 침공한 후 그 여세를 몰아 남진(南進)하여 유대를 짓밟았으나 그들은 곧 돌아서 물러간 것으로 되어 있다.
 (3) 그들은 비록 강한 군대를 이끌고 무방비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그 땅을 점령하려 했으나 결국 자신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운명에 빠지고 말았다(39:2-6).

13. **㉠** 하나님께서 '곡의 무리'를 불러 이스라엘을 치게 하실 이유는 무엇인가? (16절)

- ㉠** (1)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앞에서 거룩하심을 나타내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이유에서였다.
 (2) 즉 하나님께서는 악한 '곡의 무리'들을 충동하여 평화롭고 무방비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을 침공케 하심으로써 악인이 범죄하였을 때 어떠한 형벌을 받는지 공의의 심판을 통해 보여 주시려 하셨다.
 (3) 그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통해 악인은 멀하고 의인은 비록 악인의 억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평안을 누리게 됨을 보여 주시려 하셨다.
 (4) 그러므로 여러 나라를 침공한 '곡의 무리'를 아는 이방의 열국들은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볼 때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5) 이처럼 우리 주변의 여러 악한 존재들이 지금은 비록 악한 자들을 억압하고 괴롭힐지는 모르나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악인들의 행위에 대해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참조, 렘 17:10; 32:9; 마 16:27; 롬 2:6; 벰전 1:17; 계 2:23; 20:12; 22:12).

14. **㉠**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곡’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7절)

- ㉠** (1)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2) 그러나 예전의 선지자들이 반드시 곡에 대해 예언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곡’이 예전에도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대적자란 사실을 말하려는 의도에서 ‘곡’에 대한 예언이 옛적에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3) 한편 옛적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영원한 주의 나라가 도래하리라는 예언을 하였다(사 10:6; 17:14; 25:5, 10-12; 26:21; 렘 30:23, 25; 욥 3:2-21).
 (4)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 같은 약속은 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믿는 성도들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아야 한다.

15. **㉠**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는 표현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18절)

- ㉠** (1) 이것은 하나님을 의인화(擬人化)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2) 그런데 ‘내 노’로 번역된 히브리어 <베아피>는 짧은 코의 숨을 의미한다(참조, 시 18:9, 16). 또 이 말은 성난 사람의 몸짓이나 짐승들의 성난 모습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
 (3) 이같이 자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진노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아끼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신 7:8; 시 146:8).
 (4)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과 대적자들로부터 자신의 백성인 우리를 지켜 주시리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신 32:10; 삼상 30:23; 시 145:20).

16. **㉠**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땅에 일어날 일은 무엇인가? (19, 20절)

- ㉠** (1) ‘곡’을 심판하여 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는 지진과 그로 인해 지면에 살아 있는 모든 피조물의 두려움 그리고 모든 산과 절벽과 성벽이 무너지는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2)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에 온 세상이 떠는 모습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일어난 사실에 근거한다(출 19:16; 욥 3:16; 숙 14:4, 5).
 (3) 이와 같이 인간의 합리적 사고를 초월하는 초자연적 현상들은 우리들에게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하여 우리가 축소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만물에게 나타내 보인다(시 18:7-15; 29편; 68:7-9; 습 1:14-18; 욥 2:31, 32).

17. **㉠** 이스라엘을 침략한 ‘곡의 군대’는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21, 22절)

- ㉠** (1) 그들은 서로의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며 질병과 자연의 재해로 멸절될 것이다.
 (2) 그런데 자신들의 칼로 서로 죽임을 당하는 심판은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 족속의 패배(삿 7:22)에서 그 전형적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대하 20:23).
 (3) 악인들의 이 같은 멸망은 곧 자신들의 악한 요소가 자신들을 스스로 파멸시키는 모습을 보여 준다.
 (4) 따라서 타인을 괴롭히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내부에 있는 악의 요소에 의해 스스로 파멸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이다(시 141:10; 잠 11:5; 12:26).

제 39 장 곡에게 여호와와 심판이 내리다

단락구분 1-7 곡의 파멸이 선언되다 / 8-10 곡의 무기가 불탈 것이다 / 11-16 그들의 시체가 땅에 묻힐 것이다 / 17-20 땅에 묻히지 못한 시체는 새들의 먹이가 되리라 / 21-24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이유 / 25-29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1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 발 왕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2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3 네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4 나와 네 모든 떼와 너와 함께 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5 내가 빈 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6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밧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7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8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불지어다 그 일이 이르고 이루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니라

9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 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칠 년 동안 불 피우리라

10 이와 같이 그 병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며 삼림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누탈하던 자의 것을 누탈하리라 나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1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편 사람의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것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12 이스라엘 족속이 일곱 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13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장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

14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장사할 사람으로 더불어 지면에 남아 있는 시체를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일곱 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15 순행하는 자가 그 땅으로 통행하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표를 세워 장사하는 자로 와서 하몬곡 골짜기에 장사하게 할 것이요

16 성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와 같이 그 땅을 정결케 하리라

17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18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든 먹 듯할지라

19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쁨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토록 마시되

20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

21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22 그 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23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24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었느니라

25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은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26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27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라

28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

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29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 **㉠ 본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의 예언을 요약하라.**

㉠ (1) 본장에는 38장에 이어 곡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과 이스라엘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약속되어 있다.

(2)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곡은 철저하게 파멸되어 매장지를 찾아야 하는 운명에 빠질 수밖에 없다.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이에 반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3)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잘 나타내 준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심판을 통해 자신의 의로움과 거룩하심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계셨다.

2. **㉠ ‘곡의 군대’가 싸움을 못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3절)**

㉠ (1) 그들의 활을 쳐서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화살을 오른손에서 떨어뜨릴 것이다.

(2) 이스라엘 땅을 노략하러 온 ‘곡의 군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므로 자신들의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패하게 될 것이다.

(3) 이들을 전쟁터로 내보낸 분도 하나님이셨으며 그들에게 악한 마음을 발동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앞에 어떤 계획이 예비되었는지도 모르고 전쟁터로 달려들었고 이제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4) 이들의 이 같은 행동은 곧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인식치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마음에 악을 품고 타인을 해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대하 19:7).

(5) 이와 같이 악인은 자신의 마음대로, 즉 소욕(所欲)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으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행동하므로 그 일이 형통할 수 있는 것이다(참조, 함 2:4).

3. **㉠ ‘곡’의 운명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4, 5절)**

㉠ (1) 악인은 지혜와 능력이 있을지라도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2) 악인이 지금 누리는 부귀와 영화(榮華)가 비록 화려해 보이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지 모르나 그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城)과 같아서 곧 무너지고 말 것이다(마 7:26, 27).

(3)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결코 악한 방법이 아닌 선한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여야 하며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롬 2:7, 10; 8:28; 갈 6:9).

4. **㉠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란 무슨 의미인가? (6절)**

㉠ (1) 그것은 ‘곡의 군대’에 대한 형벌이 그들의 고국(故國)과 이방 국가에도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

(2) 여기서 ‘불’은 그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형벌을 가리킨다(참조, 38:22; 계 20:9).

(3)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같은 형벌을 내리시는 이유는 ‘곡’을 비롯하여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참조, 28:18;30:8).

(4) 이처럼 자연적 재앙(38:22) 뿐만 아니라 세계의 정치적 변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계신다. 따라서 이 사실을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소유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 잠1:7;9:10).

5.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곡의 군대’를 심판하신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7절)

㉠ (1)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2) 즉 그들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며 우상을 숭배하고 포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22:2-12).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행동으로 자신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셨는가를 깨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알 뿐 아니라 다시는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36:23).

(3)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환난과 절고를 겪은 후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신앙은 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진실한 신앙이라 할 수 있다(욥 23:10; 시 66:10; 벰전 1:7).

6. **㉠** ‘그 일이 이르고 이루어지니’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8절)

㉠ (1)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 일,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다.

(2) 왜냐하면 비록 이 예언이 훗날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3) 한편 ‘그 일이 이루어질 그날’은 심판 날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은 과거에도 자주 있었다(사 17:12-14;30:27-33;64:1-4;슌 1:14-18;욥 2:28-32; 학 2:21; 슌 14:3, 4).

(4) 비록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에는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으나 그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참조, 히 11:1; 약 5:7).

7. **㉠** 이스라엘 백성은 ‘곡의 군대’로부터 빼앗은 무기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9, 10절)

㉠ (1) 그들은 ‘곡의 군대’가 버리고 간 무기를 떨감으로 7년간 사용하여 떨감을 찾아 나서지 않을 것이다.

(2) 여기서 ‘곡의 군대’가 버리고 간 모든 무기를 태우는 이유는 그 대적의 흔적을 깨끗이 없애기 위한 것이며, 그것을 7년 동안 태운다는 데서 ‘7’이란 수자는 하나님의 심판 곧 신적(神的) 심판의 완전성을 상징한다(12절).

(3) 이처럼 아무리 강한 군대, 가공(可憐)할 무기라 할지라도 권능의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무용지물(無用之物)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참조, 왕하 19:28; 욥 12:19; 잠 21:1).

8. **㉠** ‘하몬곡의 골짜기’는 어디를 말하는가? (11절)

㉠ (1) 그곳은 하나님께서 ‘곡과 그 무리’를 매장하기 위해 준비하신 곳으로 바다 동편 사람이 동행하는 골짜기를 말한다.

(2) 그런데 그 골짜기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 사해(死海) 뒤편 요단 골짜기가 가장 유력하다(47:8).

(3) 한편 그 골짜기는 애굽과 갈대아 사이를 왕래하는 여행자들이 지나던 길이었으나 그곳이 매장지가 됨으로써 더 이상 교통로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4) 그리고 그곳의 이름은 ‘하몬곡의 골짜기’로 불리울 것인데, 그 뜻은 ‘곡의 무리의 골짜기’란 뜻이다.

(5) 이처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결국 하나의 골짜기를 메우는 존재에 불과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만일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가 있다면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삼상 12:15).

9. **㉠** 이스라엘 족속이 ‘곡의 무리’를 장사(葬事)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2, 13절)

- ㉠** (1) 그 이유는 그들의 시체로 이스라엘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 (2)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그 땅을 더럽히려는 의도(38:12)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 모두 이스라엘의 산과 들에 널린 시체로 변하고 만다(4, 5절). 따라서 이스라엘 족속은 이방인의 시체로 더럽혀진 자신의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해 ‘곡의 무리’를 매장하여야 한다.
- (3) 과거 이방의 종교와 관습 그리고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통해 더럽혀진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들려진 새 땅에서 정결한 생활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침략으로 더럽혀진 땅을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참조, 신 21:23).
- (4)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죄를 씻은 우리 성도들은 육체 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례 19:2; 고전 3:16).

10. **㉠** ‘곡의 무리’를 장사하는 행위는 결국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13절)

- ㉠** (1) 그 행위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행위이며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도 명성을 얻을 것이다.
- (2) 즉 그들의 선한 행위는 곧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마 5:16)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는 그 백성도 이름을 높일 수 있게 된다.
- (3) 이와 같이 대적자(對敵者)에게라도 자비를 베푸는 선행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이들에게 나타내는 결과를 가져오며 자신의 이름도 나타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이들은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참조, 마 5:16).

11. **㉠**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뽑은 자들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14, 15절)

- ㉠** (1) 그들은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니며 남은 시체를 장사(葬事)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하는 일을 맡을 것이다.
- (2) 이들은 그 땅을 두루 다니다가 시체를 만나면 그곳에 표를 하고 그 표식을 본 장사하는 자들로 시체를 가져다가 ‘하몬곡의 골짜기’에 장사하도록 돕는 일을 맡을 것이다.
- (3) 그런데 이 일은 시체를 매장하는 7개월 동안 뿐만 아니라 묻히지 않은 뼈가 없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개혁을 목표로 하는 국가나 교회 그리고 개인까지라도 정화(淨化)는 끊임없이 계속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개혁의 의지가 진행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곳에는 항상 더러운 것들이 끼어들게 마련이기 때문이다(참조, 사 1:16; 눅 1:74, 75).

12. **㉠** ‘하몬곡 골짜기’가 있는 성읍의 이름은 무엇인가? (16절)

- ㉠** (1) 그 이름은 하모나이다.
- (2)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땅을 정결케 한 사업을 기념하기 위해 그 성(城)에 새로운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어 <하몬>에서 유래한 <하모나>로서 곧 ‘무리’란 뜻이다(39:11).
- (3) 이와 같은 사건과 사업을 후손들에게 교훈으로 남기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교육은 조상들의 슬기로운 업적을 기억하고 보존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이다(출 12:1-14; 수 4:6, 7; 7:26).

13. **㉠**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각종 새와 들짐승들을 불러모으라고 명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7절)
- ㉠** (1) 그것은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하신 잔치에 그들을 초대하여 피와 고기를 먹게 하기 위해서이다.
- (2) 그런데 본질은 ‘곡의 무리’를 장사지내는 부분과 연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4절과 연결된다.
- (3) 여기서 이스라엘의 회생 제사에 각종 짐승을 초대하는 것은 죄인인 ‘곡의 무리’를 회생 제물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 (4) 즉 의기 양양하게 이스라엘 땅을 침공한 ‘곡의 무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낱 짐승의 밥이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까지 이방의 노예로 억눌림을 당한 처지에서 이제는 자신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비참해지는 모습을 보며 위로를 받게 된다(참조, 습 1:7).
- (5)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믿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들의 억울함과 한(恨)을 풀어 주실 것이다(참조, 사40:27-31).
14. **㉠** 용사와 세상 왕들은 무엇에 비유되었는가? (18-20절)
- ㉠** (1) 그들은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 그리고 염소나 수송아지에 비유되었다.
- (2) 이들 짐승은 모두 제사의 회생 제물로 사용되는 것으로 각기 희생된 ‘곡의 군대’의 사령관, 장군, 병사를 상징한다.
- (3) 한편 ‘바산’은 그 남부에 비옥한 목초 지대와 넉넉한 물로 짐승을 기르기에 적당했으며 그곳에서 자란 짐승들은 모두가 살지고 건강하였다(신 32:14; 시 22:12; 미 7:14).
- (4) 그러므로 막강한 ‘곡의 군대’는 바산의 살진 짐승에 비유되었다. 그들은 ‘내상(床)’ 곧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해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뜯기는 운명이 되었다(참조, 제 19:18).
- (5)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히는 자들은 비록 그들에게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참조, 시 1:5; 미 7:9; 제 18:20).
15. **㉠** ‘곡’의 침략과 멸망에서 열국과 이스라엘이 깨달을 바는 무엇인가? (21-24절)
- ㉠** (1) 이방의 열국들은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 (2) 또한 그들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3) 한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을 대적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께서는 자신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16:53, 54).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을 들을 수 있다(시 119:67; 고후 4:17).
16. **㉠**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하실 행동은 무엇인가? (25-27절)
- ㉠** (1) 그것은 열국이 보는 앞에서 사로잡혀 있던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고국으로 불러모으시는 것이다.
- (2)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신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대적자의 손에서 보호하시는 것을 볼 때 자신들의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또 그 소행(所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 (3)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새 신(神)을 부어 그들로 하여금 부드러운 마음

을 갖게 하심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행위는 그 자체가 사랑과 긍휼이다. 자신의 백성을 깨닫게 하시는 채찍질과 고통 중에 신음하는 백성을 감싸주시는 위로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 모두가 사랑과 긍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할 바는 단지 그 사랑을 결코 잊지 않는 것이다(참조 신 6:5; 7:8; 롬 5:8).

17. **Q**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은 무엇인가? (29절)

- A** (1)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자신의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셨다.
 (2)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어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이다. 즉 거듭난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그런데 본질의 이스라엘은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예표해 주고 있다. 따라서 거듭난 오늘날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간구해야 한다(시 51:11).

연구자료

유대교에 끼친 에스겔의 영향. 에스겔은 에스라와 더불어 유대교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그는 바벨론 포로 이전 시대에 태어나 친히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은 자로서 민족의 멸망을 가져왔던 우상 숭배에 대항하여 장래의 이스라엘을 보호할 제반 규례들을 재정립하는 일에 지대한 공헌을 끼쳤다. 이러한 규례에 대한 언급은 40-48장에 상세히 나오는데 곧 새 성전과 제사 제도에 관한 것들이다. 이처럼 에스겔은 유대교에서 강조되고 있는 의식주의(ritualism)를 존중한 자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유대인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되는 도덕적 규범과 그 가치를 무시한 것은 아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배도(背道) 행위와 그로 말미암은 시련, 바벨론 포로 생활 등과 같은 과거사에서 얻은 교훈을 기초로 하여 율법에 대한 엄격한 순종뿐 아니라 자신의 선한 양심을 좇아 행동할 것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한편 이상과 같은 제도적인 것 외에도 에스겔은 개인의 불멸 및 육체의 부활 등과 같은 유대교의 주요 교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참조, 37장). 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신비주의 사상은 에스겔이 본 여러 환상들에 영향을 입은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B. C. 2세기와 A. D. 2세기 사이에 광범위하게 생겨 났던 묵시 문학도 에스겔이 본 여러 환상들의 형식을 빌린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같은 작품들은 영감(靈感)된 것들이 아니며 정경(正經)으로 취급되지도 못하였다.

제 40 장 에스겔이 미래에 세워질 성전의 환상을 보다

단락구분 1-4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 성전을 환상 중에 보이시다 / 5-19 외곽을 설명하다 / 20-23 동편 문을 설명하다 / 24-31 남문과 부속 건물 / 32-38 동쪽과 남쪽을 향한 안뜰을 설명하다 / 39-43 식탁에 대해 설명하다 / 44-47 제사장들의 방 / 48-49 현관의 구조

1 우리가 사로잡힌 지 이십 오 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십 사 년 정월 십 일 곧 그날에 여호와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2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서 남으로 향하여 성을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3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늦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척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라

4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5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척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육척이라 그 담을 척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6 그가 동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통을 척량하니 장이 한 장대요 그 문 안통의 장도 한 장대며

7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장이 한 장대요 광이 한 장대요 매방 사이 벽이 오척이며 안 문통의 장이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8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척량하니 한 장대며

9 안문의 현관을 또 척량하니 팔 척이요 그 문 벽은 이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10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좌편에 셋이 있고 우편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한 척수요 그 좌우편 벽도 다 한 척수며

11 또 그 문통을 척량하니 광이 십 척이요 장이 십 삼 척이며

12 방 앞에 퇴가 있는데 이편 퇴도 일 척이요 저편 퇴도 일 척이며 그 방은 이편도 육 척이요 저편도 육 척이며

13 그가 그 문간을 척량하니 이 방 지붕 가에서 저 방 지붕 가까지 광이 이십 오 척인데 방 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14 그가 또 현관을 척량하니 광이 이십 척이요 현관 사면에 돌이 있으며

15 바깥 문통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오십 척이며

16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17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 뜰에 들어가니 뜰 삼 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삼십이며

18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광이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19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척량하니 그 광이 일백 척이며 동편과 북편이 일반이더라

20 그가 바깥 뜰 북향한 문간의 장광을 척량하니

21 장이 오십 척이요 광이 이십 오 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편에도 셋이요 저편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척량한 문간과 같으며

22 그 창과 현관의 장, 광과 종려나무가 다 동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일곱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23 안뜰에도 북편 문간과 동편 문간과 마주 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편 문간까지 척량하니 일백 척이더라

24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척량하니 먼저 척량한 것과 같고

25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장이 오십 척이요 광이 이십 오 척이며

26 또 그리로 올라가는 일곱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편, 저편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27 안뜰에도 남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편 문간까지 측량하니 일백 척이더라

28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으로 말미암아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간을 측량하니 척수는

29 장이 오십 척이요 광이 이십 오 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30 그 사면 현관의 장은 이십 오 척이요 광은 오 척이며

31 현관이 바깥 뜰로 향하였고 그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32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편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척수는

33 장이 오십 척이요 광이 이십 오 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34 그 현관이 바깥 뜰로 향하였고 그 이편, 저편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35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척수는

36 장이 오십 척이요 광이 이십 오 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37 그 현관이 바깥 뜰로 향하였고 그 이편, 저편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38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39 그 문의 현관 이편에 상 들이 있고 저편에 상 들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회생을 잡게 한 것이며

40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편에 상 들이 있고 문의 현관 저편에 상 들이 있으니

41 문 곁 이편에 상이 넷이 있고 저편에 상이 넷이 있어 합이 여덟 상이라 그 위에서 회생을 잡는 소용이며

42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서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각 장이 일 척 반이요 광이 일 척 반이요 고가 일 척이라 번제의 회생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43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면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회생의 고기가 있더라

44 안 문안 안뜰에는 방 들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으로 향하였더라

45 그가 내게 이르되 남향한 이 방은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쓸 것이며

46 북향한 방은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47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장이 일백 척이요 광이 일백 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전 앞에 있더라

48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광이 이편도 오 척이요 저편도 오 척이며 두께가 문 이편도 삼 척이요 문 저편도 삼 척이며

49 그 현관의 광은 이십 척이요 장은 십일 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 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편에 있고 하나는 저편에 있더라

1. ㉠ 본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환상을 요약하라.

- (A) (1) 본장에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루살렘에 인도되어 환상 가운데 새 성전의 자세한 모습을 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2) 그런데 환상 중에 언급된 건물의 치수는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 치수는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 (3) 또한 선지자는 이미 '솔로몬의 성전'을 보고 그보다 더 훌륭한 성전이 세워지기를 희망한 것 같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가 제사장 가문(家門)에서 태어나 바벨론에 포로가 되기 이전까지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1:3; 8장; 40: 46; 43:19; 44:10-15; 45:3-25; 48:11; 왕상 1장).
- (4) 한편 본장의 기록 목적은 바벨론의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새 성전을 지어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게 하는

데 있다.

3. Q 여호와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그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간 때는 언제인가? (1절)

- A (1) 그때는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25년이 되는 때로 예루살렘 성(城)이 함락(陷落)된 후 십사년 정월 십일이다.
- (2) 그런데 태양력으로는 그때가 B.C. 573년 3, 4월경에 해당되며 ‘정월 십일’은 그 해의 첫달인 아빍 월 10일 곧 민간력 7월 10일을 말한다(출 12:2).
- (3) 또한 그날은 유월절을 예비하는 날(출 12:3)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날이기도 하다(수 4:19).
- (4) 그러므로 이날은 사슬에 얽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과 해방을 얻는 날이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회복의 계시를 받는 날이 되었다.

4. Q 에스겔이 본 ‘눗같이 빛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가? (3절)

- A (1)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천사이다.
- (2) 그런데 우리는 ‘눗같이 빛난다’는 표현에서 1:5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9:2의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와도 비교가 된다.
- (3) 여기서 ‘눗’은 확실함과 견고함을 보여 주며 그가 지닌 ‘삼줄’과 ‘장대’는 목수들이 가진 먹줄과 자를 대신한다.
- (4) 그런데 이 측량 기구들은 파괴하는 기구들과(9:1) 대조를 이루어 새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을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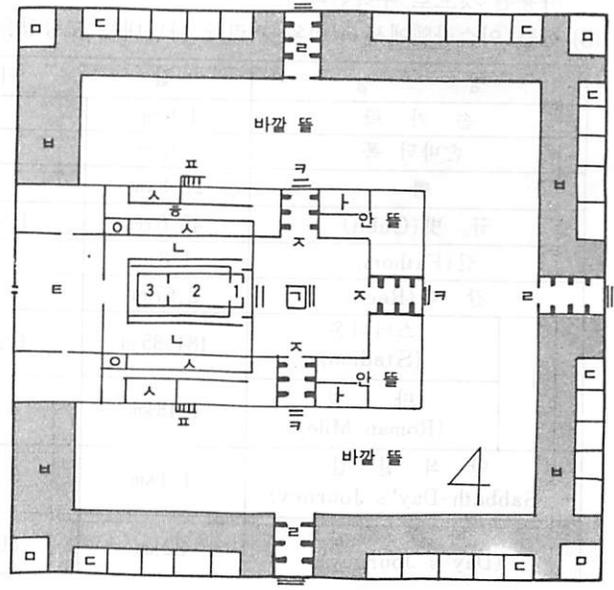
5. Q ‘눗같이 빛난 사람’이 에스겔에게 명한 내용은 무엇인가? (4절)

- A (1) 그는 에스겔에게 그가 보여 주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하여 본 것을 모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야 한다고 명했다.
- (2) 즉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본 것을 주의 깊게 살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려는 말씀을 정확히 전해야 하는 것이다.
- (3) 이와 같이 오늘날에 있어서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먼저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올바르게 깨닫고 전해야 한다.

6. Q 에스겔 성전의 평면도를 그려라 (5, 6절).

A 에스겔의 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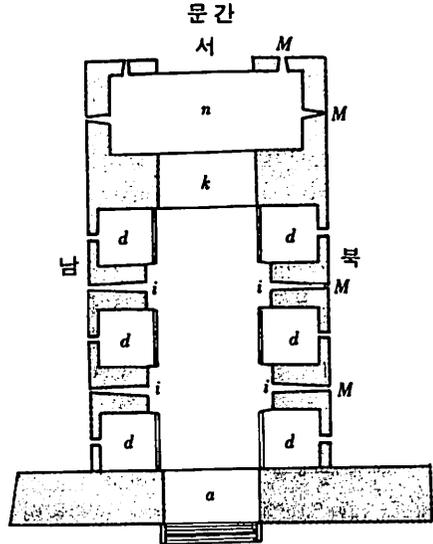
- ㄱ : 계단
- ㄴ : 구별된 장소
- ㄷ : 방
- ㄹ : 성전 바깥문
- ㅁ : 부엌
- ㅂ : 보도
- ㅅ : 제사장의 방
- ㅇ : 제사장의 부엌
- ㅈ : 성전 안문
- ㅊ : 성전 바깥벽
- ㅋ : 안문 계단
- ㅌ : 서편 뜰 뒷건물
- ㅍ : 통행구
- ㅎ : 통로
- ㅊ : 안문 결방
- 1 : 현관
- 2 : 성소 3 : 지성소



7. ㉠ 성전의 문에 대해 설명하라 (6-16절).

- ㉠ (1)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문은 성전의 삼면(三面) 곧 남쪽, 동쪽, 북쪽에 있었으며 바깥 문을 들어서서 바깥 뜰을 지나 성전 안뜰로 들어가려면 안문을 통과해야 한다.
 (2) 그런데 성전의 바깥 문과 안문은 구조와 치수가 모두 같았다.
 (3) 한편 성전 문간의 단면도를 그리면 다음과 같다.

a : 문통
 d : 문지기 방
 k : 현관
 n : 안 문
 i : 창
 M : 창



8. ㉠ 집 바깥 사면을 둘러싼 담의 치수는 얼마인가? (5절) 동

- ㉠ (1) 그 담은 두께가 육 척(尺)이며 높이도 육 척이었다(참조, ㉠6).
 (2) 여기서 척(尺)은 히브리 치수로 '규빗'에 해당하며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가리킨다.
 (3) 그런데 본절에서 언급된 규빗은 정상적인 규빗보다 손바닥 넓이만큼 더 길다. 그러므로 본절에서 언급된 '규빗'을 정상 규빗으로 따지면 6 규빗 6 손바닥 넓이만큼 길이가 된다.
 (4) 따라서 담의 두께와 높이를 미터로 환산하면 각각 약 3.2m가 된다. 그렇지만 고대 모세의 성전 규빗은 짧은 곧 정상 규빗이 사용되었으며 긴 규빗은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5) 한편 이스라엘에서 길이와 거리를 나타내는 도량형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명 칭		길	이	관계 성취
손 가 락		1.9 cm		렘 52:21
손바닥 폭		7.6 cm		출 25:25
뿔		22.8 cm		출 28:16
규 빗 (Cubit)		45.6 cm	1.5자	창 6:15
길 (Fathom)		1.8 m	6자	행 27:18
갈 대 (Reed)		2.67 m	9자	계 21:15
리	스타디온 (Stadion)	184.85 m	1/2리	마 14:24 눅 24:13
	마 일 (Roman Mile)	1.48 km	4 리	마 5:41
안 식 일 길 (Sabbath Day's Journey)		1.1 km	3 리	행 1:12
하 쫓 길 (Day's Journey)		32 km	80리	출 3:18; 요 3:34; 눅 2:24

(6) 그런데 이 도량형은 신약 시대에 사용되던 것으로 그 수치는 정확한 척도가 없이 일상 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것들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동시대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심했다.

9. **㉠ 동향(東向)한 문의 특징은 무엇인가? (6절)**

- ㉠** (1) 동향한 문 곧 동문(東門)은 남문, 북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는 세 입구 중 하나이다 (참조, **㉠**6).
- (2) 그런데 그 문통 곧 문지방의 길이(동에서 서로)는 6 규빗이며 문간을 지나 틀안으로 들어가는 문지방의 길이도 6 규빗이다(7절).
- (3) 그러므로 문통의 길이는 곧 외벽의 두께와 같았으며 성벽에 문통을 설치한 구조였다 (참조, **㉠**7).

10. **㉠ 문지기 방들의 용도는 무엇인가? (8절)**

- ㉠** (1) 그곳은 성전을 경비하는 자들이 거처하는 곳으로 사용되었다.
- (2) 이 문지기 방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성전의 기록을 지키기 위한 문지기들이 거처하던 곳이었다(44:11, 14).
- (3) 이처럼 거룩한 곳이나 존재는 더러운 것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져야 한다. 왜냐 하면 거룩한 것이 있음으로 인해 우리의 거룩한 생활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11. **㉠ 안문 현관의 치수는 얼마인가? (8, 9절)**

- ㉠** (1) 이 현관의 치수가 8절과 9절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간에 혼란이 많았으며 70인역(LXX)에서는 8절을 삭제해 버리기까지 했다.
- (2)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현관의 치수가 한 장대 곧 6규빗(3.1m)이라는 것은 현관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갠 길이로 이해할 수 있으며, 9절에서 8규빗(4.3m)이라는 것은 6규빗에 현관에서 바깥 뜰로 들어가는 중간에 있는 벽의 길이(2규빗)를 합한 치수로 이해할 수 있다(참조, **㉠**7).
- (3) 따라서 현관 자체의 길이와 벽까지 포함시킨 넓은 의미의 현관의 치수를 8 규빗으로 보면 8절과 9절의 혼란은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할 수 있다.

12. **㉠ 문지기의 방 앞에는 각각 무엇이 있었는가? (12절)**

- ㉠** (1) 방 앞에는 각 방마다 퇴 곧 난간이 있었다.
- (2) 그런데 각각 사방 1규빗 규격의 이 난간은 문지기 방과 별도의 공간이 아니라 벽에서 돌출한 부분들이 난간을 형성하였다.
- (3) 그리고 그 기능은 문지기들이 그곳에 서서 성전을 출입하는 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성전 뜰로 들어가려면 좌우 문지기 방들 앞에 있던 난간 사이를 통과해야 했다.

13. **㉠ 동문(東門)에서 창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16절)**

- ㉠** (1) 현관과 모든 문지기 방의 바깥 벽과 안쪽 벽에는 조그만 창이 있었다.
- (2) 그런데 이 창들은 빛이 들어올 수 있으며 통풍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 (3) 그러나 이 창들은 바깥 벽을 향해 썩기 모양을 하고 있었으므로 창을 통해 출입은 할 수 없었다.

14. **㉠ 각 문 벽 위에는 무엇을 새겼는가? (16절)**

- ㉠** (1) 문 좌우의 벽에는 문을 떠받치기 위해 버팀대가 있었는데 그 버팀대에는 종려(棕櫚) 나무가 새겨져 있다.
- (2)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식물의 생명력과 풍요로움 그리고 영광을 잘 나타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조각에 사용되었다.

(3) 이처럼 우리의 능력과 풍요는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항상 사용되어야 한다.

15. **㉠ 바깥 뜰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었는가? (17-19절)**

㉠ (1) 바깥 뜰 삼면에는 박석(礫石) 깔린 땅과 30개의 방이 있었다.

(2) 여기서 ‘박석 깔린 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리츠파>는 문자적으로는 포장을 ‘단단하게 하다’, ‘돌 덮개를 하다’라는 뜻으로 바닥을 덮는 돌을 말한다. 따라서 그것은 진흙이 묻지 않게 돌로 포장한 보도를 가리킨다(대하 7:3).

(3) 그런데 그 보도 위에는 30개의 방들이 있었는데 이 방들은 성전에 부속된 건물(히, 리쉬카)로 제사장들이 거주하거나 화목제 잔치를 위해 사용되던 곳이다.

(4) 한편 아래 문간 곧 바깥 뜰 문간과 그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안뜰 문간 사이의 거리는 100규빗(52.5m) 이었다.

16. **㉠ 북문과 남문의 구조와 크기를 설명하라 (20-27절).**

㉠ (1) 북문과 남문은 모두 그 구조와 크기 그리고 장식에 있어서 동문과 똑같았다.

(2) 그런데 성전 밖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려면 각 문 앞에 있는 일곱 계단을 올라서야 문간에 들어설 수 있었다.

17. **㉠ 안뜰로 들어가는 문의 구조와 크기는 바깥문과 어떻게 다른가? (28-37절)**

㉠ (1) 바깥문과 안뜰로 들어가는 문은 그 구조와 크기 그리고 장식까지도 모두 같았다.

(2) 그러나 바깥 뜰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문을 들어서려면 여덟 계단을 올라서야 했다.

18. **㉠ 북문의 현관 주위와 문간 결방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38-43절)**

㉠ (1) 현관 주위에서는 번제와 속건제 그리고 속죄제에 쓰일 희생 제물을 잡았으며 문간 결방은 번제물(燔祭物)을 씻는 방이었다(참조, ㉠ 7).

(2) 그리고 현관 양쪽에는 제물을 잡는 상이 각각 둘씩 있었고 현관 바깥에도 같은 용도의 상이 양쪽에 둘씩 있었다. 따라서 제물을 잡는 상은 현관 안과 바깥에 각각 네 개씩 모두 여덟 개였다.

(3) 또한 다듬은 돌로 만든 번제용 상이 네 개 있었는데 이 상들은 기구들을 두기 위한 상이었다.

(4) 한편 현관 안쪽 벽에는 희생 제물을 걸어 두기 위한 갈고리들이 걸려 있었다.

(5) 그러므로 이곳은 희생 제물을 잡고 제단에 올려 놓기 전에 그것을 최후로 손질하는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 **㉠ 안뜰 결방의 용도는 무엇인가? (44-46절)**

㉠ (1) 북문 곁에 있는 방은 성전을 맡은 제사장들을 위한 방이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제단을 맡은 제사장을 위한 방이었다(참조, ㉠ 6).

(2) 그런데 이들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중 사독의 자손들이었다(참조, 44장 ㉠ 9).

20. **㉠ 성전의 현관 구조를 설명하라 (48, 49절).**

㉠ (1) 현관의 좌우에는 길이가 5 규빗(2.6m), 폭이 3 규빗(1.6m)인 벽이 튀어 나와 있었다.

(2) 그리고 현관 내부는 폭이 20규빗(10.5m) 길이가 11규빗(6.3m)이었으며 안뜰에서 현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다.

(3) 한편 현관 입구 양쪽에는 기둥이 하나씩 있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이와 유사한 두 기둥을 ‘야긴’(뜻: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과 ‘보아스’(뜻: 저가 새우리라)란 이름을 붙여서 불렀다(왕상 7:15).

제 41 장 성전의 구조와 장식

단락구분 1-4 성소와 지성소의 규모 / 5-11 성소의 부속 건물 / 12-14 성전 뜰과 외부 건물 / 15-20 성전 벽의 장식 / 21-22 나무 제단 / 23-26 성소와 지성소의 문

1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척량하니 이편 두께도 육 척이요 저편 두께도 육 척이라 두께가 이와 같으며

2 그 문통의 광이 십 척이요 문통 이편 벽의 광이 오 척이요 저편 벽의 광이 오 척이며 그가 성소를 척량하니 그 장이 사십 척이요 그 광이 이십 척이며

3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통의 벽을 척량하니 두께가 이 척이요 문통이 육 척이요 문통의 벽의 광이 각기 칠 척이며

4 그가 내전을 척량하니 장이 이십 척이요 광이 이십 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5 전의 벽을 척량하니 두께가 육 척이며 전 삼면에 골방이 있는데 광이 각기 사 척이며

6 골방은 삼 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삼십이라 그 삼면 골방이 전 벽 밖으로 그 벽에 의지하였고 전 벽 속은 범하지 아니하였으며

7 이 두루 있는 골방이 그 층이 높아 갈수록 넓으므로 전에 돌린 이 골방이 높아 갈수록 전에 가까와졌으나 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윗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8 내가 보니 전 삼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밑 지대의 고가 한 장대 곧 큰 자로 육 척인데

9 전을 의지한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오 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10 전 골방 삼면에 광이 이십 척 되는 뜰이 둘러 있으며

11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러 있는 빈터의 광은 오 척이더라

12 서편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광이 칠십 척이요 장이 구십 척이며 그 사면 벽의 두께가 오 척이더라

13 그가 전을 척량하니 장이 일백 척이요 또 서편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장이 일백 척이요

14 전 전면의 광이 일백 척이요 그 앞 동향한 뜰의 광도 그러하며

15 그가 뒷뜰 뒤에 있는 건물을 척량하니 그 좌우편 다락까지 일백 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16 문통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러 있는 다락은 문통 안편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으로 가리웠고(창은 이미 닫히었더라)

17 문통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면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척량한 대소대로며

18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으며 매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19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편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편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전 사면이 다 그러하여

20 땅에서부터 문통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21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식양은 이러하니

22 곧 나무 제단의 고가 삼 척이요 장이 이 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의 상이라 하더라

23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24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집치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25 이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26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겼고 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1. ㉠ 성전의 구조는 어떻게 묘사되었는가?

㉠ (1) 앞장에서 문(동문, 북문, 남문)과 뜰(안뜰, 바깥 뜰)이 묘사된 것에 비해 본장에는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성전의 부속 건물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 (2) 그런데 본장의 내용은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에 있어서 성소와 지성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성소 문의 규격, 제사 용품을 보관하는 골방, 부속 건물 그리고 벽과 문의 장식을 설명한 것이다.
- (3) 특히 본장은 성전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 같은 환상은 불경건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함을 다시 회복할 마음을 갖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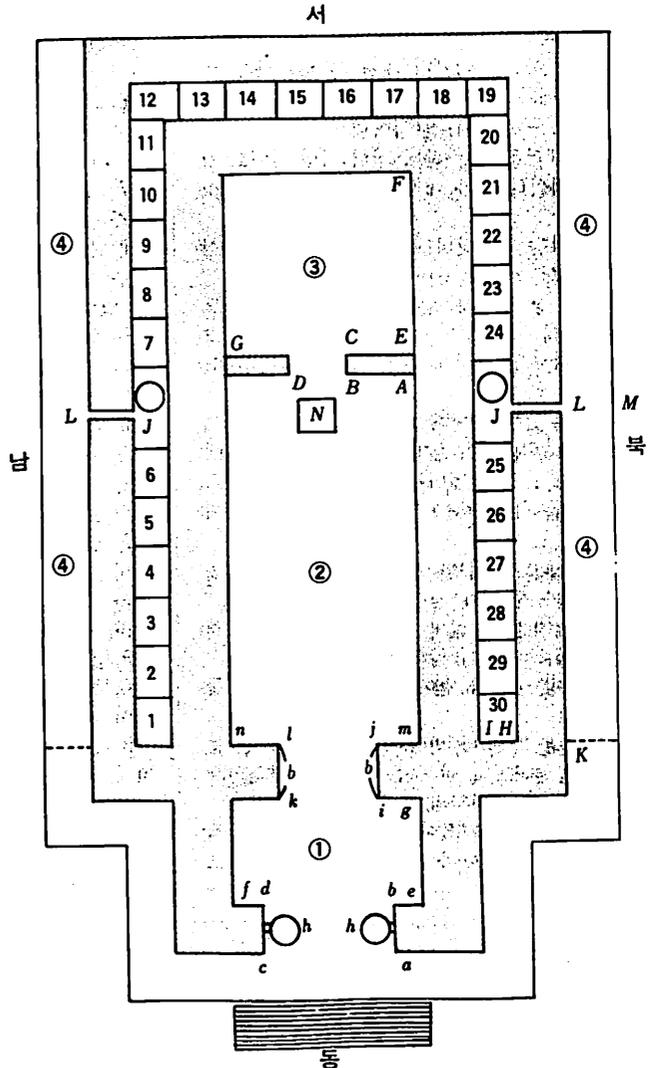
2. **㉠** 성소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가? (1절)

- ㉠** (1) 본절에서 '성소'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헤칼>은 '성소'와 '지성소' 모두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성전을 말한다.
- (2) 따라서 히브리어 <하헤칼>의 문자적 의미는 '왕궁' 혹은 '신전'을 가리킨다.
- (3) 그런데 에스겔은 지금 '성전'의 앞 끝 본당을 가리키는 '성소'의 문이 천사에 의해 척량되는 것을 보고 있다.

3. **㉠** 성전의 단면도를 그려라.

- ㉠** (1) 우측 단면도 참조.
- (2) 성전 각 부분의 명칭과 관련 성귀는 다음과 같다.

- ① 현관(40:48)
a-b, c-d; 40:48
b-e, d-e; 40:48
e-f; 40:49
e-g; 40:49
h; 40:49
- ② 성소(41:1)
i-j, k-l; 41:1
i-k, j-l; 41:2
j-m, l-n; 41:2
m-A; 41:2
m-n; 41:2
B-C, B-D; 41:3
B-A, C-E; 41:3
E-F, E-G; 41:4
- ③ 지성소(41:4)
m-H, H-I; 41:5
1-30; 골방(41:6)
J; 계단(41:7)
- ④ 골방 밑 지대(41:8, 11)
I-K; 41:9
L; 41:11
L-M; 41:11
N; 41:22



4. **㉠ 성소의 규격은 어떻게 되는가? (1, 2절)**

- ㉠** (1) 에스겔이 성전의 현관을 지나 성소의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천사가 성소의 문 벽을 재니 그 두께가 좌우 각각 6 규빗(3.2m)이었다(참조, ㉠3).
- (2) 그리고 문 곧 문지방의 폭은 10규빗(5.3m)이었으며 문 좌우 벽의 폭은 각각 5 규빗(2.6m)씩이었다(참조, ㉠3).
- (3) 따라서 성소의 폭은 20규빗(10.5m)이었으며 길이는 40규빗(21m)이었다(참조, ㉠3).

5. **㉠ 내전(内殿) 곧 지성소의 치수는 얼마나 되었는가? (3-5절)**

- ㉠** (1) 천사가 켈 지성소의 문 벽은 두께가 좌우 각각 2 규빗(1.1m)이었으며 문지방의 폭은 6 규빗(3.2m), 문 좌우 벽의 폭은 각각 7 규빗(3.7m)이었다(참조, ㉠3).
- (2) 그리고 지성소는 가로 세로 각각 20규빗(10.5m)씩의 정방형(正方形)이었다.
- (3) 한편 지성소의 벽은 성소 및 현관의 두께와 같은 6 규빗(3.2m)이었다(참조, ㉠3).

6. **㉠ 골방에 대해 설명하라(5-7절).**

- ㉠** (1) ‘골방’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첼라오트>는 ‘갈빛대’, ‘들보’, ‘늑골’이란 의미이다.
- (2) 그런데 여기서 이 같은 단어가 사용된 이유는 각 층마다 30개의 방이 3층 건물을 채우고 있어 마치 갈빛대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왕상 6:5).
- (3) 그리고 이 방들은 성소의 남쪽과 북쪽 그리고 서쪽 삼면(三面)을 돌아 가며 전벽(殿壁)에 의지하여 지어졌다(참조, ㉠3).
- (4) 한편 이 골방들은 성전의 비품과 제사 때 사용되는 도구를 보관하기 위해서, 또한 십일조와 제물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필요했다. 또한 어떤 학자는(Thenius) 이 방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침실로도 사용된 것으로 보았다(참조, 시 134:1).

7. **㉠ 골방들의 구조는 어떠한가? (7절)**

- ㉠** (1) 이 골방들은 아래층의 넓이(폭)가 4 규빗(2.1m), 가운데층은 5 규빗(2.6m) 맨 위층은 6 규빗(3.2m)이었다.
- (2) 즉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방의 넓이가 넓어지는데 반해 성전 벽은 1 규빗(53.2cm)씩 얇아졌다.
- (3) 그것은 골방의 들보가 성전 벽을 뚫지 않았고 계단식으로 된 성전 외벽에 골방들이 얹혀 있었기 때문이다.
- (4) 또한 이 골방의 출입문은 성전의 1층 남쪽과 북쪽 벽 중간에 있었으며 계단을 통하여 아래층에서 가운데층으로 그리고 위층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었다(참조, 왕상 6:8).
- (5) 그런데 골방의 들보가 성전 벽을 뚫지 않도록 만들어진 데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외적 요소가 침입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알 수 있다(참조, 왕상 6:7).
- (6) 이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역이 침범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역이 침범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을 사수하시기 위해 세상을 징계하시기 때문이다(참조, 시 99:9; 사 6:3; 계 15:4).

8. **㉠ 성전 주변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었는가? (8-11절)**

- ㉠** (1) 삼면의 골방은 6 규빗(3.2m) 높이의 지대(地臺) 위에 놓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 방들의 기초였다(참조, ㉠3).
- (2) 그리고 그 방들의 외벽 두께는 5 규빗(2.6m)이었으며 성전 지대 위 부분은 빈터였다.
- (3) 한편 골방 삼면에는 폭이 20규빗(10.5m) 되는 뜰이 있었으며 그 앞에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들이 있었다(참조, ㉠3).
- (4) 그런데 그 골방의 출입문은 성전 지대의 북쪽과 남쪽 빈터를 향하였으며 성전 지대에 있는 그 빈터의 폭은 5 규빗(2.6m)이었다.
- (5) 이 빈터는 사방에 있는 성전의 벽 앞에 있는 것으로 10.5m의 성전 뜰 사이의 공간 혹

은 통행로를 의미한다.

9. **㉠ 서편 뜰 뒤에 있는 건물에 대해 설명하라(12절).**

- ㉠** (1) 이 건물은 성전 뒤 곧 서쪽 안뜰에 위치한 건물로 성전과는 분리된 건물이다(참조, 40장 **㉠** 6).
- (2) 그런데 그 건물의 용도는 확실히 않으나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성전 뒤에 이와 유사한 건물들이 있었다(왕하 23:11; 대상 26:18).
- (3) 그러나 이 건물들은 완전히 성전과 분리된 길을 이용하여 출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건물이 성전에서 사용되고 남은 쓰레기나 오물을 처리하여 외부로 보내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된 것으로 추측할 따름이다.

10. **㉠ 성전의 벽과 창문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15-20절)**

- ㉠** (1) 성소(외전)와 지성소(내전)의 벽은 모두 널판으로 가리웠고 출입문 위에도 널판을 붙였으나 창문은 이미 닫혀 있었기 때문에 널판을 대지 않았다.
- (2) 그런데 그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으며 각 그룹들은 사람과 사자의 두 얼굴을 하였다.
- (3) 이 같은 장식은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찾아 볼 수 있으며(왕상 6:29) 그 장식은 그룹들이 지혜롭고 용감하다는 것을 상징하며 종려나무는 승리와 영광을 의미한다. 즉 그룹들은 어둠의 권세를 이길 확신이 있음을 보여 준다.

11. **㉠ 성소의 문설주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는가? (21절)**

- ㉠** (1) 그것은 사자 모양을 하고 있었다.
- (2) 보통 기둥들은 등근데 반해 네모졌다 문설주는 이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뜻을 이 땅에 점점 확대하실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Kliefoth).

12. **㉠ 지성소 전면(前面)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22절)**

- ㉠** (1) 여호와 앞의 상(床)이 있었다.
- (2) 그런데 그 상은 높이가 3 규빗(1.6m) 이고 가로 세로(장) 모두 2 규빗(1.1m)인 나무 제단이었다.
- (3) 이에 반해 솔로몬 성전의 단(왕상 6:20; 7:48)은 백향목에 금을 입힌 것이었다.
- (4) 따라서 이 제단은 번제를 위한 제단이나 향단이라기 보다는 촛대와 진설병의 상(대하 4:19, 20)이 없는 것으로 보아, 모세 오경에서 언급된 '진설병 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참조, 44:16; 말 1:7).
- (5) 한편 번제단은 성전의 앞마당 곧 성전의 안문을 들어선 안뜰에 있었다.

13. **㉠ 성소와 지성소의 문은 어떻게 설치되었는가? (23-25절)**

- ㉠** (1) 성소와 지성소에는 각각 문이 있었는데 그 문들은 각각 두 문짝으로 되어 접어서 열고 닫을 수 있었다.
- (2) 그리고 향단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부분에 위치해 있었다. 따라서 지성소의 바로 앞에 향단이 있었던 것이다.
- (3) 또한 그 문에는 성전 벽과 마찬가지로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 있었다.

14. **㉠ 현관 주위는 어떻게 장식되었는가? (25, 26절)**

- ㉠** (1) 현관과 골방 앞에는 나무로 된 디딤판이 있었으며 이 디딤판과 현관 좌우편 벽 모두에 종려나무가 새겨졌다.
- (2) 그런데 이 '디딤판'은 현관과 골방 출입구 위의 들보를 말한다. 즉 이 '디딤판'은 두꺼운 나무 판자로 되어 있어서 지붕을 받쳐 주는 역할을 한다.

제 42 장 제사장들의 방과 성전 안마당

단락구분 1-9 북편 뜰에 있는 방을 설명하다 / 10-12 남편 뜰의 방 / 13-14 제사장의 방들의 성격 / 15-20 성전 안마당의 측량

1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편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하나는 북편 건물을 향하였는데

2 그 방들의 자리의 장이 일백 척이요 광이 오십 척이며 그 문은 북을 향하였고

3 그 방 삼 층에 뿔마루들이 있는데 한 방의 뿔마루는 이십 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한 방의 뿔마루는 바깥 뜰 밖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4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광이 십 척이요 장이 일백 척이며 그 문들은 북을 향하였으며

5 그 상층의 방은 제일 좁으니 이는 뿔마루들을 인하여 하층과 중층보다 상층이 더 좁어짐이라

6 그 방이 삼 층이라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상층이 하층과 중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7 그 한 방의 바깥 담 골 뜰의 담과 마주 대한 담의 장이 오십 척이니

8 바깥 뜰로 향한 방의 장이 오십 척임이며 성전 앞뜰을 향한 방은 일백 척이며

9 이 방들 아래에 동편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 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10 남편 골방 뜰 맞은편과 남편 건물 맞은편에도 방 둘이 있는데

11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편 방 같고 그 장광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12 이 남편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편 길머리에 있더라

13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편 남편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며 이는 거룩한 곳이라

14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 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15 그가 안에 있는 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향한 문 길로 나가서 사면 담을 측량하는데

16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편을 측량하니 오백 척이요

17 그 장대로 북편을 측량하니 오백 척이요

18 그 장대로 남편을 측량하니 오백 척이요

19 서편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오백 척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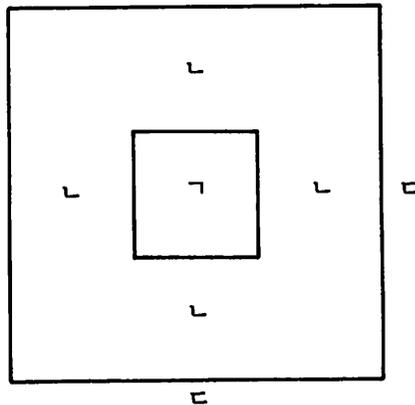
20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장과 광이 오백 척씩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1. ㉠ 본질의 환상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 ㉠ (1) 본장은 40장부터 시작된 성전의 환상이 끝나는 장으로 성전 주위의 방 곧 뜰에 있는 부속 건물에 대해 설명하며 성전 전체의 크기를 측량함으로써 성전에 대한 환상 설명을 끝마친다.
- (2) 그런데 본장에 언급된 성전 주위의 방들은 북편과 남편 뜰에 있는 방으로 제사장들이 제물을 두고 의복을 갈아입으며 지성물(至聖物)을 먹는 곳이다. 한편 천사가 성전의 바깥에 나가서 측량한 성전의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었다.
- (3) 그러므로 본장은 분리를 통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함을 보여 준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더럽힌 하나님의 거룩성과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상실한 거룩성이 회복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

2. **㉠** 북편 뜰에 있는 방들은 정확히 어디에 위치했는가? (1-4절)
㉠ (1) 그 방들은 두 채의 건물을 형성하였는데 한 채는 성전 안뜰을 향해 있었고 다른 한 채는 바깥 뜰에 있는 박석(礪石) 깔린 보도를 향해 있었다.
 (2) 그리고 이 건물은 모두 3층으로 되어 있었으며 문은 북쪽을 향해 있었고 두 건물 사이에 폭 10규빗(5.25m), 길이 100규빗(52.5m)의 통로가 있었다.
 (3) 따라서 이 건물들은 나란히 북쪽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그 건물들 사이에 등에서 서쪽으로 통로가 있었던 것이다(참조, 40장 ㉠6).
3. **㉠** 북쪽 뜰 방의 구조를 설명하라 (5, 6절).
㉠ (1) 그 건물은 두 채 모두 3층인데 3층의 방들이 아래층의 방들보다 더 좁았다.
 (2) 그 이유는 3층에만 있는 회랑이 많은 공간을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3) 또한 그 건물이 뜰에 있는 다른 건물들처럼 기둥으로 받쳐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40:17, 44) 3층의 방들은 중간층과 아래층보다 더 적었다.
4. **㉠** 북쪽 건물의 주변은 어떻게 지어졌는가? (7-9절)
㉠ (1) 이 건물과 평행하게 북쪽 바깥 뜰에는 길이 50규빗(26.3m)의 담이 있었으며 바깥 뜰을 향한 건물의 길이도 50규빗(26.3m)인데 반해 성전 쪽을 향한 건물은 길이가 100규빗(52.5m)이었다.
 (2) 그리고 이 건물 아래층에는 바깥 뜰 끝 동쪽에서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었다.
5. **㉠** 성전 뜰 안에 있던 방들은 어떤 용도에 사용되었는가? (13, 14 절)
㉠ (1) 그 방들은 거룩한 방으로 제사장들이 소제,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보관하는 곳이다(레 2:10).
 (2) 또한 그곳은 제사장들의 예식 의복을 보관하는 곳이기도 하다(레 6:9-11).
 (3) 여기서 제물이 거룩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며 제사장 이외에는 아무도 * 그것을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44:28-31; 레 6:25, 26; 7:7-10; 10:12, 15).
6. **㉠** 천사가 마지막으로 측량한 곳은 어디인가? (15-20절)
㉠ (1) 천사는 에스겔을 데리고 동문(東門)을 나가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사면(四面) 담을 측량했는데 각각의 길이는 장대로 측량하여 500장대 곧 500규빗이었다.
 (2) 그런데 이 치수는 이제까지 측량한 성전의 안뜰과 바깥 뜰을 합한 공간보다 길이에서 5배, 넓이에서 25배나 큰 공간의 치수가 된다.
 (3)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공간이 대단히 컸음을 알 수 있다.
 (4) 이처럼 그 주변 공간이 큰 이유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에 거리를 두어 구별하기 위함이다.
 (5) 한편 성전과 주변 공간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 안뜰과 바깥 뜰을 포함하는 성전
- └ : 주변 공간
- ≡ : 장과 광이 500장대 되는 공간



제 43 장 여호와와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다

단락구분 1-5 여호와와 영광이 돌아오다 / 6-9 우상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 10-12 새로운 성전의 법과 규례 / 13-17 제단에 대한 묘사 / 18-27 제단을 정결케 하라

- 1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 2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 3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이상 같고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 4 여호와와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 5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와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 6 들은즉 누구인지 전에서 내게 말하더니 사 람이 내 곁에 서서
- 7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를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 하리라
- 8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 9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 10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추락하게 하라
- 11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 12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위는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 13 제단의 척수는 이러하니라(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고가 일 척이요 그 사면 가장자리의 광이 일 척이며 그 가으로 들린 턱의 광이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 14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는 아래층의 고가 이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광이 일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이 층의 고가 사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광이 일 척이며
- 15 그 번째단 윗층의 고가 사 척이며 그 번째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 16 그 번째하는 바닥의 장이 십 이 척이요 광이 십 이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 17 그 아래층의 장이 십 사 척이요 광이 십 사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들린 턱의 광이 반 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광이 일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을 향하게 할지니라
- 18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가 이러하니라
- 19 나 주 여호와와가 말하노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하나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 20 내가 그 피를 취하여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면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케 하고
- 21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취하여 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지며
- 22 다음날에는 흠없는 수염소 하나를 속죄 제물을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케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케 함과 같이 하고
- 23 정결케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와 떼 가운데서 흠없는 수양 하나를 드리되
- 24 나 여호와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 25 칠 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하나와 떼 가운데서 수양 하나를 흠없는 것으로 갖추는 것이며

26 이와 같이 칠 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 제를 드려 정결케 하며 봉헌할 것이요
 27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 팔 일애와 그 다음

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 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 하시더라

1. **㉠ 본장의 내용은 주로 무엇에 관하여 말하는가?**

- ㉠** (1) 본장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던(10:18) 여호와와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내용과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새로운 성전 법과 규례가 기록되어 있다.
 (2) 그런데 다시 돌아온 여호와와 영광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다면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하실 것을 약속하신다.
 (3) 또한 본장 13절부터 46:24까지는 이스라엘의 신성한 예배에 대한 새로운 규범이 기록되어 있는데 본장에는 번제단과 그것의 정결에 대해 설명되어 있다.
 (4) 더우기 본장에서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심판하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오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법도를 제정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다.

2. **㉠ 여호와와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올 때의 상황은 어떠하였는가? (2절)**

- ㉠** (1)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 같았으며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났다.
 (2) 여기서 ‘땅’은 성전 입구나 성전에 국한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모든 곳을 말한다.
 (3) 그런데 나타나신 여호와와 영광은 이스라엘(유다)을 심판하시려고 오실 때의 형상과 같았다(10:15, 20).
 (4) 즉 이스라엘이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 때 심판의 하나님께서는 그 배후에 가지셨던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5)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와 관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즉 자기 백성의 잘못을 징계하시고, 용서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사랑을 베푸신다(요일 4:10).

3. **㉠ 에스겔에게 말한 존재는 누구인가? (6절)**

- ㉠** (1) 하나님 자신이다.
 (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자신의 대언자(代言者)로 내세워서 말씀하시고 계신다.
 (3) 따라서 본절에 나타난 사람은 앞에서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 주고 그것을 척량하던 천사와 같은 존재이다(40:3; 47:1).

4. **㉠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이신 새 성전을 어떠한 곳이라고 말씀하셨는가? (7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하나님 보좌의 처소, 하나님의 발을 두는 처소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과 영원히 거할 곳이라고 말씀하셨다.
 (2) 그런데 언약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새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지만 ‘내 발을 두는 처소’ 곧 하나님의 발등상은 지성소의 언약궤를 암시한다(출 25:22; 삼상 4:4; 사 60:13; 66:1).
 (3)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새 성전의 지성소에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말씀을 강조하셨다.

5. **㉠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성전을 더럽히게 되었는가? (7-9절)**

- ㉠** (1)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고 그 신전(神殿)을 바로 하나님의 성전 곁에 세워 가증스런 일을 행하였으며 왕들의 시체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2) 이것은 그들이 사신 하나님의 성전 곁에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산당을 세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사실을 가리킨다(참조, 왕상 12:28, 29).

- (3) 또한 '죽은 왕들의 시체'는 역대 왕들이 섬기던 시체와 같은 '우상'을 의미한다(왕하 21:4, 5-7).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마당(8:3)과 성전의 비밀스러운 곳(8:7-11)에서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였다(참조, 레 26:30; 렘 16:18).
- (4)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 숭배로 더럽힘으로써 심판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버리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 (5)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이외의 다른 어느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출 20:3, 4; 골 3:5; 딤후 3:3; 히 13:5).

6. **㉠ 새로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10, 11절)**

- ㉠** (1) 새 성전의 구조와 치수, 형상 등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의미를 깨달은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부끄러워하도록 해줄 것이다(36:31, 32; 롬 2:4).
- (2) 그런데 '제도'로 번역된 히브리어 <추라>는 일반적으로 성전의 모양 곧 성전의 형태를 말하며, '식양'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테쿠나트>는 성전의 구조나 건물의 배열을 의미하는데 이들 구조가 상징하는 바는 곧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어 백성을 회개케 하는 것이다.
- (3) 예를 들면 성전의 담은 백성의 거룩을 선포하며(42:20), 문지기 방은 더러운 것을 막는 역할을 담당하고 제사장들의 준비물은 죄를 상기시키며 또한 감사에 대한 교훈을 일깨운다.

7. **㉠ 성전의 법은 어떤 내용을 지니고 있는가? (12절)**

- ㉠** (1) 성전이 세워진 산꼭대기 주위는 지극히 거룩하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 (2) 즉 새 성전은 이전의 성전과는 달리 결코 오염될 수 없다는 사실과 함께 성전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여 그 거룩성이 영원히 유지되어야 함을 가리킨다.
- (3) 따라서 성전의 법은 거룩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성을 회복하라는 교훈을 주며 그들이 더럽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회복되어야 함을 가리킨다(레 19:2; 대상 16:29).
- (4) 이와 같이 현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먼저 자신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타락해 가는 현대 사회와 교회에 거룩함을 일깨워야 할 책임이 있다(교후 7:1).

8. **㉠ 새 성전의 제단이 사용되기 전에 행할 의식은 무엇인가? (18절)**

- ㉠** (1)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제단이 만들어지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의식을 행할 것을 명하셨다.
- (2) 이와 비슷하게 솔로몬 성전의 제단 봉헌은 7일 동안이나 행해졌으며(대하 7:9), 모세의 성막 제단 봉헌은 제단에 거룩한 기름을 일곱 번 뿌리는 의식에서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그 제단을 성결케 하기 위한 것이었다(레 8:11).
- (3) 그러나 에스겔의 제단 봉헌 의식은 기름 부음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제단의 정결을 위해 피뿌리는 의식이 명령되어 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떠한 물건이나 인격도 이와 같은 정결 의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 (4) 이처럼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피조물은 항상 내·외적인 정결이 유지되어야 한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깨끗함이 요청된다(참조, 레 19:2).

9. **㉠ 새 성전에서 제사 의식의 위임을 받은 자들은 누구인가? (19절)**

- ㉠** (1) 이들은 사독의 자손 레위인 제사장들이다.
- (2) 이 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자손들이 세습적으로 계승하게 되어 있었다(출 28:1-3).
- (3)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인들 중 특별히 사독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이유는 이

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따랐을 때 이들 사독의 자손들만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다(44:15).

- (4) 즉 남북 왕조 때 레위 지파는 다윗가(家)에 대항하여 북왕국에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가 하였다. 그러나 사독 자손들만 그 일에 가담치 않았다(참조, 왕상 12:28-32).
- (5) 이들은 다윗 때에도 신실한 제사장 가문이었다(참조, 삼하 8:17; 왕상 1:8-45).
- (6)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된 후 새 성전에서 봉사할 자들로서 우상에 물들지 않은 신실한 사독의 자손을 임명하실 것을 명하셨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용하시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준다. 즉 신앙의 절개와 순전한 인격의 소유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깨우쳐 준다(참조, 딤후 2:20, 21).

10. **㉠** 제단 봉헌을 위한 첫째 날의 제사 의식을 설명하라(19-21절).

- ㉠** (1) 그날에는 수송아지 하나를 제물로 하여 그 피를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면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贖罪)하여 제단을 정결케 한다. 그런 후에 속죄 제물인 수송아지를 성소 밖에서 불사른다.
- (2) 반면 제단 봉헌식은 제사장의 위임식과 함께 7일 동안 계속되었다(출 29:37; 레 8:33).
- (3) 또한 모세의 규례에서는 제단의 성결을 위해 기름을 부었다. 한편 제단에 피를 바르는 의식은 동일하였다(레 8:15).
- (4) 그러므로 성결을 위한 기름 부음이 빠진 에스겔의 제단 봉헌 의식에서는 피를 바르는 의식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결과 속죄를 잘 나타내고 있다.
- (5) 이처럼 이스라엘에 있어서 속죄와 정결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필요한 것이었다.
- (6)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자신을 바친다는 헌신의 자세를 가다듬는 기초가 된다(참조, 출 19:10, 11; 약 4:8; 뱀전 1:22).

11. **㉠** 제단 봉헌을 위한 둘째 날의 의식은 어떤 것인가? (22-24절)

- ㉠** (1) 먼저 수염소 하나를 제물로 하여 첫째 날에 수송아지로 정결케 함과 같이 하며 그 후에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소금을 쳐서 여호와께 번제로 드린다.
- (2) 제단을 정결케 하는 의식은 둘째 날에도 계속된다. 그런데 여기서 소금을 치는 것은 부정과 더러움을 제거하는 행위로서 번제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규례이다(레 2:13).
- (3) 또한 번제는 속죄제에서 부정을 제거하는 한 의식으로 중요성을 갖는다. 즉 부정한 것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 속에 있으려면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죄씻음을 받아야 한다(행 2:38-40; 롬 5:8-11).

12. **㉠** 제단 봉헌을 위한 속죄제는 얼마 동안 드리게 되는가? (25-27절)

- ㉠** (1) 7일 동안 드리게 된다.
- (2) 즉 7일 동안은 매일 수염소와 수송아지, 수양을 제물로 속죄제를 드리며 제 8일에는 번제와 감사제를 드려 정기적인 제사를 시작함으로써 제단 봉헌 제사를 마친다.
- (3) 이처럼 7일 동안 매일 제사를 드림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모든 엄격성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출 29:37; 대하 7:9). 한편 이 7일은 율법에 있어서 보편적으로는 위임식 기간으로 되어 있다(레 8:33).
- (4) 이 같은 제단 봉헌에 있어서 엄격하고 거룩한 순서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롬 12:1).

제 44 장 제사장들에 관한 규례

단락구분 1-3 성전 동편 문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 4-8 성전을 더럽힌 사실에 대해 질책하다 / 9-14 레위인들의 죄악과 새로운 직분 / 15-27 사독의 자손들의 직분 / 28-31 사독의 자손들이 얻을 기업

1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혀있더라

2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들지니라

3 왕은 왕인 까닭에 안 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4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와 영광이 여호와와 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대

5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와 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고

6 너는 패역한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7 대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전을 더럽히므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케 하는 것이 되었으며

8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9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0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하여 그 우상을 좇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11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전 문을 말을 것이며 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체의 회생과 및 다른 회생을 잡아 백성 앞에서 수종들게 되리라

12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죄악에 거치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로 그 죄악을 담당하여

13 내게 가까이 나아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욕과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14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위 전을 수직하게 하고 전에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15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아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6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아와 내게 수종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되

17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18 가는 베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베바지를 입고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19 그들이 바깥 뜰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케 할까 함이니라

20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21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22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은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23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24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케 하며

25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

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26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케 한 후에 칠 일을 더 지낼 것이요

27 성소에 수종들려 하여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와 의 말이니라

28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나는 그 산업이 됴이니라

29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음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30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열매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네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31 무릇 새나 육축의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긴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못할 것이니라

1. **㉠ 새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지킬 규례는 무엇인가?**

㉠ (1) 본장에는 특별히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제사장의 자격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갈 기업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 먼저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저지른 죄악을 지적하신 후 새 성전에서서는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던 사독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을 수 있다고 규정하셨다.

(3) 한편 그들에게는 엄격한 규례가 주어지는 대신 이스라엘 백성의 심일조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후의 제물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었다.

(4) 이처럼 본장에는 하나님 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규례와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규례가 서술되어 있다.

2. **㉠ 성전의 동쪽 문이 닫힌 이유는 무엇인가? (1, 2절)**

㉠ (1)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문을 통해 들어오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문은 아무도 통과할 수 없었다.

(2) 그러므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영광을 가르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지켜져야 함을 보았다. 이처럼 거룩성은 인간들에 의해 지켜져야 한다. 만일 그 거룩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인간의 존엄성도 상실되고 말 것이다(참조, 시 22:23; 딤편 1:17).

3. **㉠ 여호와 앞 곧 동문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3절)**

㉠ (1)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2) 여기서 왕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가 백성의 대표로서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음식을 먹는 것을 가리킨다(45:17-25).

(3) 이같이 본절에서 왕의 특권이 강조된 이유는 과거의 부패한 왕과는 달리 새 이스라엘의 왕은 경건과 진리를 사모하는 백성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4) 그러나 왕이 동문 안에서 음식을 먹으려면 그도 역시 동문을 통해서 성전 뜰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깥 북문이나 남문으로 들어와서 뜰을 지나 동쪽 문 앞에 앉아야 한다.

(5) 그러므로 이 왕은 이스라엘에서 모든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출 3:5).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뚜렷한 차이이다.

4. **㉠ 하나님께서 전(殿) 앞에 선 에스겔에 내리신 명령은 무엇인가? (4, 5절)**

㉠ (1) 그 명령은 에스겔로 하여금 전(殿)의 모든 규례와 율례를 듣고 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出口)를 주의하여 본 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을 대언하라는 것이다.

(2) 이 말씀은 40:4과 43:11, 12의 목적과 유사하다. 즉 에스겔은 자신이 들은 규례와 눈으로 본 성전의 구조가 의미하는 바를 깨닫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전할 책

입이 있었다.

(3) 이와 같이 목사와 교사들은 먼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자신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참조, 대하 18:23; 눅 5:17).

5. **㉠**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죄악은 무엇인가? (7절)

- ㉠** (1) 그들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異邦人)을 거룩한 여호와의 전(殿)에 들여 보내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깨뜨렸다.
- (2) 여기서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란 육신의 무할례 뿐만 아니라 마음마저 경건치 못한 자들을 가리킨다.
- (3)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이처럼 경건치 못하고 이방 종교에 젖은 자들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에도 성전에 들여보내 성전을 더럽혔던 것이다.
- (4)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힐 뿐 아니라 영적으로 구별된 자신의 특권마저도 버리는 행위이다(참조, 마 6:6).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와 그분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그에 대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6. **㉠** 여호와의 성물을 대신 지킨 자들은 누구인가? (8절)

- ㉠** (1) 원래 여호와의 성물은 제사장들이 관리하고 지키게 되어 있었으나 그들은 자신들의 직분을 소홀히함은 물론 이방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일을 대신케 하였다.
- (2) 이 사실은 미디안 사람 중 성전의 종으로 레위인에게 주어진 자들과(민 31:30, 47) 성전 호위병 가리 사람(왕하 11:4-8; 느 13:1-8) 그리고 느디뎨 사람으로 성전의 종이 된 솔로몬의 종의 자손들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다(스 2:55-58; 8:20; 느 7:46-60).
- (3) 이같이 이방인, 즉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자들을 성전에 들여보내는 것은 순수한 여호와 경배를 더럽히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 중 특별히 성별된 자들만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게 하셨기 때문이다(참조, 출 29:44; 30:30).

7. **㉠**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은 무엇인가? (10-13절)

- ㉠** (1) 이것은 왕국의 분단 시기에 레위 지파가 다윗 가문에 대항하여 지은 죄를 가리킨다.
- (2) 즉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B. C. 931-910)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할 때 레위인들도 그 일에 동조했다(참조, 12: 25-33).
- (3)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성물(至聖物)을 언지 못하게 하셨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직분을 소홀히 하며 게으름을 피우는 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저버리는 자이며 하나님의 형벌을 자초하는 자들이다(마 25:14-30).

8. **㉠** 제사장 직분을 잃은 레위인들에게 주어질 직책은 무엇인가? (11-14절)

- ㉠** (1) 타락한 레위인들에게는 전 문(殿門)을 지키는 직책과 번제에 쓰일 희생 제물을 잡는 직책이 주어질 것이다.
- (2) 이것은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성직자가 아니라 일반 백성과 같은 신분에 있게 됨을 가리키는 말이다.
- (3) 따라서 그들은 제단 위에 피를 뿌리거나 기름을 태우는 일은 할 수 없고 단지 희생 제물로 쓰일 짐승을 잡는 역할밖에는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제물로 사용된 짐승의 고기도 돌아가지 않게 되었다.

9. **㉠** 레위인 중 제사장직(職)을 수행할 자들은 누구인가? (15, 16절)

- ㉠** (1) 그들은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이다.

- (2) 그런데 사독의 자손들은 그들의 조상 사독 때부터 신실한 제사장 가문이었다. 즉 다윗 왕(B. C. 1010-970) 말기에 아도니야가 후계자를 자처하며 반역 행위를 하였을 때 사독은 그 반역에 가담치 않았다(왕상 1:5-8).
- (3) 뒤이어 그는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시켰다(왕상 1:39).
- (4) 이와 같이 사독은 다윗 가문(家門)에 충성된 제사장으로 다윗가(家)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役事)에 동참하였다(34:23).
- (5)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성전 제사장으로 사독의 자손들을 택하셨던 것이다.
- (6)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봉사는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영광을 가져온다(참조, 마 24:45-47; 눅 16:10-12).

10. ㉠ 제사장이 성전 안뜰 문과 전(殿) 안에서 입을 옷은 어떤 것인가? (17-19절)

- ㉠ (1) 그들은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어야 하며 가는 베 관(冠)을 머리에 쓰고 가는 베 바지를 입어야 했다.
- (2) 이같이 제사장들이 베옷을 입는 규정은 이미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었다(출 28:39-43). 그리고 양털 옷을 입지 못하는 규정은 제사장들이 털 옷을 입고 성전 봉사를 하면 민첩하지 못할 뿐 아니라 땀을 흘리게 되기 때문이다. 즉 제사장들은 땀을 흘려 불결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이다.
- (3) 한편 그들이 바깥 뜰에 있는 백성 앞에 나갈 때는 그 베옷 예복을 갈아입어야 했다. 이것은 제사장들 스스로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즉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일상 생활을 하는 자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참조, 레 21:1-8).
- (4)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백성들이 그 옷에 접촉하여 거룩하게 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11. ㉠ 제사장들의 머리털에 관한 규정을 설명하라 (20절).

- ㉠ (1)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면도로 밀어도 안 되며 길게 길러도 안 된다. 다만 머리털이 자라면 깎기만 해야 한다.
- (2) 이처럼 머리털을 미는 행위는 창조자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해서 이미 모세의 율법에서 금하고 있다(레 19:27; 21:5).
- (3) 또한 그들은 나실인들처럼 머리를 길게 길러서도 안 된다(레 10:6).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늘 백성들과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백성의 종교 지도자로서 거룩함과 정결함의 본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세상적이어서는 안 되며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서도 안 된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참조, 약 1:27).

12. ㉠ 제사장들에게 포도주를 금한 이유는 무엇인가? (21절)

- ㉠ (1) 그 이유는 성전 안뜰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사장들이 신실한 자세를 나타내어야 하기 때문이다.
- (2) 따라서 제사장들의 금주는 나실인들의 철저한 헌신을 위한 금주와는 성격이 다르다.
- (3) 즉 제사장들이 금주하는 이유는 영혼의 정결을 유지하며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가 마음과 행동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13. ㉠ 제사장들의 결혼 규정을 설명하라 (22절).

- ㉠ (1) 그들은 과부나 이혼(離婚)한 여인에게 장가들 수 없었으며 다만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수 있었다.
- (2) 이러한 규범이 모세의 율법에서는 대제사장에게만 적용되었지만 이곳에서는 일반 제사장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 (3) 실제로 레 21:14에서 과부와 결혼하는 일은 대제사장에게만 금지되었다.
- (4) 제사장들에 대한 이 같은 규정은 그들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제사장의 거룩은 곧 여호와와 거룩과 연결되기 때문이다(참조, 레 21:4, 15).
- (5) 이처럼 오늘날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양 떼를 맡은 목자들은 거룩함을 지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하며 양 떼는 물론 불신자들에게까지도 본이 되어야 한다(참조, 딤후 1:16; 2:2-4; 4:12).

14. **㉠** 제사장으로서 수행해야 할 일반 직무는 무엇인가? (23, 24절)

- ㉠** (1) 그들은 먼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차이에 관해 백성을 교육하는 직무를 가진다.
- (2) 즉 제사장은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서 행할 예배와 교리에 대해 가르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한 마음을 갖게 해야 한다(레 10:10, 11; 말 2:7).
- (3) 또한 그들은 백성의 재판관으로 백성의 송사(訟事)를 판단할 때는 ‘내 판단’ 곧 하나님의 판단으로 공의로운 재판을 하여야 한다(신 17:8-13; 19:17).
- (4)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모든 절기에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며 안식일에는 제사를 주관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안식일을 성결케 하도록 인도할 책임을 진다(레 23장).

15. **㉠** 제사장들의 정결에 관한 규례를 설명하라 (25-27절).

- ㉠** (1) 그들은 자신의 가까운 친척을 제외하고는 죽은 시체에 접촉할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의 가까운 친척의 죽음으로 더럽혔을 때는 7일의 기간이 지나야 정결케 되며 만일 안뜰과 성소에 들어가려 하면 속죄제를 드려야 들어갈 수 있다.
- (2) 이 같은 규례는 모세의 율법(레 21:1-3)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여기서 7일이란 기간은 거룩과 성결을 강조하기 위한 기간이다.
- (3) 이처럼 제사장들에게 엄한 규례를 명하는 이유는 곧 그들이 파피한 여호와와 율법과 규례를 재정립하기 위해서이다.

16. **㉠** 제사장이 얻을 기업은 무엇인가? (28-31절)

- ㉠** (1) 하나님께서 곧 그들의 유산이 되시며 재산이 되신다.
- (2) 즉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치는 몫을 받아 생활한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먹고 산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기 때문이다.
- (3) 그러므로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소유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첫 열매와 첫 밀가루 그리고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擧祭) 제물도 모두 그들이 차지한다(출 25:2).
- (4) 그런데 이 같은 예물은 드리는 자에게 축복이 됨을 나타내고 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물과 십일조를 드리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간구하기 때문이다.
- (5) 그러나 새나 짐승이 스스로 죽은 것과 짐승에게 찢긴 것은 하나님께 바칠 수도 없으며 제사장들도 그것을 먹지 못한다(레 17:15). 그 까닭은 그 모든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부정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순결한 제물과 온전한 헌신과 정결한 영혼을 요구하신다.

제 45 장 기록과 공의가 지켜질 나라

단락구분 1-4 성전을 위한 땅을 분할하다 / 5-8 나머지 땅들의 분할 / 9-12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장의 법령 / 13-17 이스라엘이 드릴 봉헌물 / 18-20 정월(正月)에 드릴 예물 / 21-25 유월절과 초막절에 드릴 예물

1 너희는 제비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지니 그 장은 이만 오천 척이요 광은 일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2 그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장이 오백 척이요 광이 오백 척이니 네모 반듯하며 그 외에 사면 오십 척으로 돌이 되게 하되

3 이 척량한 중에서 장 이만 오천 척과 광 일만 척을 척량하고 그 가운데 성소를 들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4 그 땅의 거룩한 구역이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서 성소에 서종드는 제사장에게 돌려 그 집을 위하여 있는 곳이 되게 하며 성소를 위하여 있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고

5 또 장 이만 오천 척과 광 일만 척을 척량하여 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산업을 삼아 촌 이십을 세우게 하고

6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광 오천 척과 장 이만 오천 척을 척량하여 성읍의 기지를 삼아 이스라엘 은 족속에게 돌리고

7 드린 바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바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편으로 향하여 서편 국경까지와 동편으로 향하여 동편 국경까지니 그 장이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8 이 땅으로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중에 기업을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나눠 줄지니라

9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처리자들이 너희에게 족하니라 너희는 강포와 겁탈을 제하여 버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토색함을 그칠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0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밧을 쓸지니

11 에바와 밧은 그 용량을 동일히 하되 호멸의 용량을 따라 밧은 호멸 십분지 일울 담게 하고 에바도 호멸 십분지 일울 담게 할 것이며

12 세겔은 이십 개라니 이십 세겔과 이십 오 세겔과 십 오 세겔로 너희 마네가 되게 하라

13 너희의 마땅히 드릴 예물이 이러하니 밧 한 호멜에서는 에바 육분지 일울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에바 육분지 일울 드리며

14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르에서 밧 십분지 일울 드릴지니 기름의 밧으로 말하면 한 고르는 십 밧 곧 한 호멜이며(십 밧은 한 호멜이라)

15 또 이스라엘 윤택한 초장의 떼 이백 마리에서는 한 어린 양을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로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삼을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6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로 이스라엘 왕에게 드리고

17 왕은 본분대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절기에 드릴지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추지니라

18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정월 초하룻날에 흠 없는 수송아지 하나를 취하여 성소를 정결케 하되

19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문설주와 제단 아랫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20 그 달 칠 일에도 모든 그릇 범피한자와 부지중에 범피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전을 속죄할지니라

21 정월 십 사 일에는 유월절 곧 칠 일 절기를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22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수송아지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23 또 절기 칠 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갖추되 곧 칠 일 동안에 매일 흠 없는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이며 또 매일 수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24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 하나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헌씩이며
25 칠 월 십 오 일 절기 칠 일 동안에도 이대

로 행하여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
을 드릴지니라

1. ㉠ 본장에 기록된 중요 내용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새로운 이스라엘에 있어서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율례가 기록되어 있다.
(2)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이스라엘은 거룩하여야 한다. 새 이스라엘에서는 땅도 새로이 정리되고 분할된다. 우선 성소와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땅은 거룩한 곳으로 미리 분할이 된다. 그 후 레위인, 성읍, 왕, 일반 백성의 순으로 분할된다.
(3) 둘째, 이스라엘은 정의로와야 한다. 지도자들은 공평과 공의로 백성을 다스려야 하며 백성은 저울눈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4) 셋째, 이스라엘은 여호와와의 절기를 거룩히 지키며 자신들의 본분에 맞게 예물을 바쳐야 한다.
(5) 결국 본장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상실한 거룩과 정의가 회복되며 새로운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이 올바르게 지켜져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2. ㉠ 거룩한 땅으로 정해진 지역은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가? (1-5절)

- ㉠ (1) 그 지역은 여호와께 드릴 예물로서 성소가 들어갈 구역과 성소에서 수종들 제사장들의 집이 들어설 구역으로 사용될 것이다.
(2) 그런데 이 거룩한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예물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함을 가리킨다. 즉 이때까지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생활했던 것을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을 삶의 우선권에 두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거룩한 땅을 먼저 구분했던 것이다(참조, 마 16:33).
(3) 한편 여기서 '장'은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길이를 말하며 '광'은 남쪽에서 북쪽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4) 그리고 '거룩한 지역'의 주위에는 성전에서 수종들 레위인들의 거처가 마련되었다. 그런데 이들에게 돌아간 지역도 역시 '거룩한 지역'에 포함된다.

3. ㉠ 이스라엘의 나머지 땅은 어떻게 분할될 것인가? (6-8절)

- ㉠ (1) '거룩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편은 성읍의 기지(基地)로 삼는다. 그런데 이 지역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땅으로 구별된 곳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살 수 있는 곳이다.
(2) 그리고 '성읍의 기지'를 중심으로 좌우편 곧 동(東)은 요단 강까지 서(西)는 지중해까지의 지역이 왕에게 속하게 된다. 그리고 그 폭은 한 지파 소유의 길이와 같았다.
(3) 그런데 왕에게 소속된 이 땅은 왕이 재산을 탐내지 않고 오로지 정치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에게 주어지는 땅이다. 그러므로 그는 재물 때문에 백성을 탄압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4) 마지막으로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의 지파대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이 모든 땅은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의 소유로 하나님과 모든 백성에게 소속된 땅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 가기 위한 기능에 의해 이처럼 분할된 것이다.
(5) 그러나 이같이 땅을 분할한 후에도 국가의 지도자들은 '분할 정책'의 뜻을 살려 국가를 잘 이끌어 가야 했다(참조, 창 31:38-40; 왕상 3:6-15).

4. ㉠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9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과거에 저지른 탄압을 지적하시면서 백성을 착취하지 말고 공정하고 옳은 일을 행하라고 명하셨다.
(2) 왜냐하면 통치자들의 행위는 곧 백성의 본이 되기 때문이다.

(3) 그러나 자기 자신의 권력과 부귀만을 생각하는 통치자들은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서 백성을 탄압하고 그들의 소유를 착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그들의 행위는 자신들의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모르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욥 1:21; 롬 13:1).

(4) 그러므로 통치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달아 겸손한 마음으로 국가를 올바르게 다스려야 한다(참조, 고전 4:2).

5.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명하신 것은 무엇인가? (10-12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공평과 정직을 준수할 것을 명하셨다.
 (2) 즉 이스라엘 백성은 공정한 저울을 사용해야 하며 돈과 물건을 올바르게 계산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3) 이것은 통치자들에게는 정의(正義)가 요구되는 것처럼 일반 백성에게는 공평과 정직이 요구됨을 말한다.
 (4) 한편 에바는 고체를 재는 단위이며 밧은 액체에 대한 척도 단위이다(사 5:10). 그런데 이 두 단위는 모두 호멜의 십분지 일에 해당하므로 같은 용량이다(참조, 4장 ㉠ 13).
 (5) 그리고 한 세겔은 이십 게라에 해당되며(참조, 4장 ㉠ 12, 출 30:13; 레 27:25; 민 3:47) 한 마네는 세 가지의 평가 기준이 있다. 즉 하나는 20세겔, 다른 하나는 25세겔, 또 다른 하나는 15세겔을 기준으로 하였다.
 (6) 이러한 무게 치수를 엄격히 지키지 않는 것은 이웃을 속이는 행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크나큰 범죄이다(참조, 잠 11:1; 암 8:4-7). 이와 같이 눈앞의 이익보다는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진실되게 살아가느냐 하는 몸부림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어야 할 행동 규범이다.

6. **㉠**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13-15절)

- ㉠** (1) 밀과 보리 한 호멜에서는 1/6 에바 곧 1/60 호멜을 바치며, 기름은 한 고르에서 밧 1/10을 바쳐야 하며, 양은 200마리에 한 마리씩 바쳐야 한다.
 (2) 여기서 ‘고르’는 기름을 되는 단위로 사용되고 있지만 원래는 ‘호멜’과 고체량이 같은 최대 고체량의 단위이다. 그러므로 이 ‘고르’는 밀가루(왕상 4:22)와 곡식(왕상 5:11; 대하 2:10)을 계량할 때 사용하며 개역 성경에는 ‘석’으로 번역되어 있다.
 (3) 한편 짐승은 ‘윤택한 초장’에서 자란 살진 짐승이어야 했다. 그런데 이 예물들은 백성을 속죄하기 위해 드리는 소제와 번제 그리고 감사 제물에 사용되었다.
 (4)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는 장자(長子), 첫 열매, 십일조를 제외하고 성전에 예물을 바치는 일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같은 헌물은 앞으로 있을 새 이스라엘에서는 규례로써 규정되고 의무로 정해질 것임을 보여 준다.

7. **㉠** 이스라엘 백성은 예물을 누구에게 드리는가? (16, 17절)

- ㉠** (1) 그들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 왕에게 드리고 왕은 백성의 대표로서 이스라엘의 정한 절기에 예배를 주관한다.
 (2) 즉 예배의 물질적 지출과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사를 인도할 제사장의 직분은 주어지지 않았다.
 (3)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은 정치 뿐만 아니라 국민의 종교 생활에까지도 신경을 써서 국민을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로 이끌어야 함을 알 수 있다.
 (4) 이것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국민의 통치자 되는 자들은 정의로운 정치를 하며 안정된 경제 정책을 펴야 함은 물론 국민을 하나님 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없는 정치는 결코 선정(善政)이 될 수 없다.

8. **㉠** 정월 초하룻날에 여호와께 드릴 특별한 제사는 무엇인가? (18-20절)

- ㉠** (1) 그날에 제사장은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를 제물로 하여 그 피를 성전의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발라 성소를 정결케 하는 속죄제를 드린다.

- (2) 그런데 이 정월 초하룻날에 드린 속죄제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 곧 고기와 피를 잘못 사용한 데 대한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이며 그 방법으로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이다.
- (3) 또한 정월 칠 일에도 그릇 범죄한 자와 부지중 범죄한 자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다. 그럼으로써 실수로 죄를 지은 자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
- (4) 한편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정월 초하룻날 곧 태양력 7월 1일에 수염소를 제물로 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성회로 모여 번제와 소제를 드리라고 되어 있다(민 29:1-5).
- (5) 그 뿐 아니라 연중 절기 곧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과 매일 초하룻날에 드리는 속죄제는 수염소를 제물로 삼았다(민 22:30; 28:15; 29:5-38).
- (6) 또한 모세의 율법에서는 피를 바르는 대신 성소의 휘장과 향단 뿔에 뿌리고 나머지는 번제단 앞에 있는 물두멍에 쏟았다(레 4:6, 7, 17, 18).
- (7) 그러므로 이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을 강요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정결을 요구하시며 비록 죄를 지은 자라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 주셨다(고후 5:18).

9. ㉠ 새 이스라엘에 있어서 유월절 절기는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가? (21-24절)

- ㉠ (1) 정월 14일에는 유월절(逾越節) 곧 '7일 절기'를 지키는데 그날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게 된다.
- (2) 여기서 정월(正月)은 '아빏 월' 곧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해 첫달을 가리킨다. 그런데 유월절이 7일 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에 '7일 절기'라고 불리어졌다(민 28:17).
- (3) 이때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위해 송아지를 잡아 속죄제를 드렸다. 또한 매일 번제로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 수염소 하나를 드렸다. 그리고 소제로는 수송아지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 그리고 수양에도 마찬가지로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힉씩이었다.
- (4) 이에 반해 모세의 율법에서 규정한 유월절 희생 제물은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 그리고 일 년 된 수양 일곱을 번제로 바쳤다(민 28:16-19). 그리고 그 소제로는 수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3/10 수양 하나에는 에바 2/10를, 수양 일곱에는 매 어린 양마다 에바 1/10씩을 드렸다(민 28:20).
- (5) 이처럼 모세의 율법에서 규정한 수보다 더 많은 희생 제물이 필요한 이유는 곧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이전보다 더 경건하고 충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0. ㉠ 장막절 절기는 어떻게 규정되었는가? (25절)

- ㉠ (1) 장막절은 7월 15일 곧 유대력 에다님 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내게 된다.
- (2) 그런데 장막절의 희생 제물의 종류와 수가 모두가 유월절의 그것과 동일하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수염소의 속죄제를 매일 드리는 일 외에도 70마리의 수송아지를 7일 동안 드리게 되는데 첫째 날에는 13마리를 바치고 매일 한 마리씩 줄여 가서 마지막 날에는 7마리를 드리게 된다(민 29:12-34).
- (3) 그 뿐 아니라 에스겔은 본장에서 이스라엘의 연례 절기 중 유월절과 장막절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모세의 율법에는 이외에도 오순절, 칠칠절, 나팔절과 7월 10일의 속죄일까지 언급되고 있다.
- (4) 이처럼 모세의 율법에서 정해져 있던 여러 절기가 생략된 데서 우리는 새 이스라엘에서는 연례 절기 중 유월절과 장막절만을 지키게 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새롭게 건설된 이스라엘에서는 죄로부터의 구원(참조, 고전 5:7; 히 11:28)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참조, 계 21:3,4)이 강조되는 것을 보여 준다.

제 46 장 제사의 규례

단락구분 1-5 안식일을 위한 제사 / 6-8 월삭을 위한 제사 / 9-12 절기에 문을 개방하는 규례 / 13-15 매일 드림 번제의 규례 / 16-18 왕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방법 / 19-24 제사용 부역을 묘사하다

1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향한 문을 일하는 육 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월삭에도 열고

2 왕은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3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에 이 문통에서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4 안식일에 왕이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여섯과 흠없는 수양 하나라

5 그 소제는 수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힉씩이니라

6 월삭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와 어린 양 여섯과 수양 하나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7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힉씩이며

8 왕이 올 때에는 그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9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거민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도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10 왕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의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11 절기와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수송아지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 하나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힉씩이며

12 만일 왕이 사원하여 번제를 갖추거나 혹은 사원하여 감사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13 아침마다 일 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하나로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14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에바 육분지 일과 기름 힉 삼분지 일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를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15 이와 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갖추어 항상 드리는 번제를 삼을지니라

16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왕이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어니와

17 왕이 만일 그 기업으로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회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왕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왕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니라

18 왕은 백성의 기업을 취하여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왕이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니라 백성으로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흠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19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북향한 거룩한 방에 들어가 시니 그 방 뒤 서편에 한 처소가 있더라

20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회생을 삼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 뜰로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21 나를 데리고 바깥 뜰로 나가서 나로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때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22 또 네 구석에 있는 그 뜰에 담이 둘렸으니 뜰의 장이 사십 척이요 광이 삼십 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한 척수며

23 그 작은 네 뜰 사면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면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24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전에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은 것이니라 하시더라

1. **㉠** 본장에 나타난 공중 예배의 규례에 대해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새 이스라엘에서 지켜야 할 제사에 대한 규례가 그 성격에 따라 달리 묘사되어 있다.
- (2) 즉 안식일과 월삭 그리고 매일 드릴 제사에 대한 규례와 그 제사들에서 왕과 백성이 취해야 할 행동이 기록되어 있다.
- (3) 또한 본장에는 왕이 자신의 소유 이상의 재산을 탐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다. 즉 왕은 자신의 소유 이상의 재산을 탐내서 자신의 권력으로 부당하게 백성의 재산을 탈취할 수 없게 되어 있다.
- (4) 이와 같이 본장은 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지켜야 할 종교적인 규례와 정치적인 도리가 기록되어 있다.

2. **㉠** 안식일과 월삭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지내는 절차를 설명하라 (1-3절).

- ㉠** (1) 이스라엘의 왕은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안문 벽 곁에 서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대표자가 되는 왕을 위해 번제와 감사제를 드린다. 제사가 끝나면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않는다.
- (2) 그런데 이 안뜰 동문도 바깥 뜰 동문과 마찬가지로 항상 닫혀 있으나 안식일과 월삭에는 열어 놓았다.
- (3) 이때 왕만은 바깥 뜰 동문을 통해 들어오지만 일반 백성은 북문과 남문을 통해 들어올 수 있다(9절).
- (4) 이렇게 바깥 뜰로 들어온 왕과 일반 백성은 모두가 같이 안뜰 동문의 문통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
- (5) 여기서 우리는 성전 출입시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왕권 사상을 엿볼 수 있다. 즉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는 장차 그들에게 임할 메시아와 비견됨을 알 수 있다.

3. **㉠** 안식일의 예물이 모세의 율법에 나타난 예물보다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4, 5절)

- ㉠** (1) 모세의 율법에 나타난 안식일의 제물은 수양 둘과 고운 가루 에바 2/10를 바쳤으나(민 28:9) 에스겔의 규례에 나타난 예물은 어린 양 여섯과 흙없는 수양 하나에다, 소제로 수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 그리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하게 되어 있다.
- (2) 이처럼 예물이 증가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침에 있어서 결코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말고 기쁨으로 자신들의 정성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 (3)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어떠한 예물을 바치든지 자신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혹시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든지 아까운 생각이 들면 오히려 드리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후 9:7).

4. **㉠** '그 힘대로 할 것이요'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7절)

- ㉠** (1)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아쉬르 야도타시그>인데 그 의미는 5절에 언급된 '그 힘대로 할 것이며'라는 뜻과는 달리 자기의 능력에 따라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레 14:30).
- (2) 즉 5절의 의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바쳐야 함을 말하고 있으나 본절에서는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맞게 예물을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 (3)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데 일시적인 감정과 충동적인 마음에서 자신의 경제력에 비해 과다한 헌금을 바치고 고통을 겪는 성도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말이다(참조, 행 5:1-11).

5. **㉠** 특별한 절기에 일반 백성이 성전을 출입하는 규례를 설명하라 (8-10절).

- ㉠** (1) 안식일과 월삭에 일반 백성은 반드시 성전에 나올 필요는 없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절기에는 모든 백성이 나와야 했다(신 16장).

- (2) 본 귀절에는 이러한 정한 절기에 모든 백성이 성전을 드나들 때 지켜야 할 규례가 언급되어 있다.
- (3) 즉 일반 백성 중에서 북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온 자들은 반드시 남문을 통해 나가야 하며, 남문을 통해 들어온 자들은 북문으로 나가야 한다.
- (4) 여기서 우리는 이 같은 행동에 대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신학적 해석으로 우리 성도들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앞만 보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 (5) 즉 신앙 생활에 있어서 우리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의 뜻을 바라보고 낙심치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빌 3:13).
- (6) 또 하나의 이유는 특별한 절기에는 성전이 매우 혼잡하므로 성전 출입에 있어서는 질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두가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하여야 했다는 것이다.
- (7) 그러므로 성전 출입시 지켜야 할 규례를 볼 때 우리는 성전의 구조와 예배,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40: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신이시다(참조, 고전 14:33, 40).

6. **㉠** '절기와 성회'는 어느 때를 말하는가? (11절)

- ㉠** (1) 이 말은 서로 밀접히 연관된 말로서 이스라엘의 절기에는 모든 백성이 성회(聖會)로 모이게 된다.
- (2) 그런데 그들이 성회로 모이는 때는 다음과 같다(레 23장).
 - ① 안식일 :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야 하는 안식일이다(출 23:12)
 - ② 유월절 : 정월(니산 월) 14일(무교절의 첫날)
 - ③ 무교절의 마지막 날 : 정월 21일
 - ④ 맥추절 : 곡물의 첫 이삭을 드리는 날
 - ⑤ 속죄일 : 매년 7월(에다님 월) 10일
 - ⑥ 나팔절 : 매년 7월 15일
 - ⑦ 초막절(장막절) : 매년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 (3) 한편 이때에 드리는 예물들은 그 소제에 있어서 모두 동일한 규칙을 가진다(45:17, 24; 46:5, 7).

7. **㉠** 왕이 자원(自願)하여 드리는 예물은 언제 드릴 수 있는가? (12절)

- ㉠** (1) 왕은 언제든지 자원 예물을 드릴 수 있었다. 그때 왕을 위해 안뜰 동문을 열어 놓는다.
- (2) 그러나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나면 그 문은 닫히게 된다. 이것이 안식일 및 월삭 때의 규정과 다른 규례이다(1, 2절).
- (3) 그런데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네다바>는 '추진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나담>에서 유래하였는데 이 말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쁨으로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는 내적 충동을 의미한다(시 51:14).

8. **㉠** 매일 드려야 할 제사의 규례에 대해 설명하라(13-15절).

- ㉠** (1) 백성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런데 이 제사는 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하여 주관하게 된다.
- (2) 그러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을 상번제(常燔祭)로 바쳤다(민 28:3, 4).
- (3) 그런데 에스겔의 규례에서는 저녁 제사를 생략한 반면 밀가루 예바 1/16과 기름 현 1/3을 소제에 더하였다.
- (4) 그러므로 전체적으로는 부족한 점이 없이 이스라엘에게 새 규례가 주어진 것이다.

9. **㉠** 왕은 자신의 기업 곧 자기 소유의 땅을 누구에게 물려주는가? (16-18절)

- (1) 왕은 자신의 땅을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으며 그 땅은 자손들에게 계속 기업이 된다.
 - (2) 한편 왕이 종에게 선물로 그 땅의 일부를 준다면 종은 회년(禧年)에 그 땅을 왕의 소유로 되돌려야 한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기업이 원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레 27:24).
 - (3) 이와 같이 왕의 소유가 계속 자손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지는 이유는 왕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백성의 재산을 뺏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45:8).
 - (4) 따라서 왕은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땅과 이스라엘의 치리권만을 갖게 된다.
- 10. **㉠** 제사장들의 부엌은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무슨 용도로 사용되는가? (19, 20절)
 - (1) 이곳은 성전의 북쪽과 남쪽에 붙어 있는 ‘거룩한 방’ 곧 제사장들이 지성물(至聖物)과 제물을 보관하며 의복을 갈아입는 방(42:13, 14)의 서편에 위치해 있다.
 - (2) 따라서 어떤 학자(Ewald)에 따르면 본장의 이 부분이 42:13, 14 다음에 삽입되어야 자연스럽다고 주장한다.
 - (3) 그런데 이곳은 제사장들이 속건제와 속죄제 제물을 삶는 곳이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로 사용되었다.
 - (4) 또한 이곳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린 후에 제물을 먹던 곳으로, 만일 제물을 바깥 뜰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들고 나가게 되면 백성들이 그 제물에 손을 대어 거룩하게 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안뜰 ‘거룩한 방’ 곁에 설치하게 되었다(참조, 42:14).
- 11. **㉠** 백성의 제물을 삶는 곳은 어디인가? (21-24절)
 - (1) 바깥 뜰 네 구석에 길이 40규빗(21m), 폭 30규빗(15.8m)인 작은 뜰이 각기 있는데 이 구석 뜰 안에 들로 쌓은 부엌이 있고 거기에 제물을 삶을 수 있는 설비가 되어 있다.
 - (2) 그런데 이곳은 ‘전(殿)에 수종드는 자’ 곧 제사장들과 구별되는 레위인들(44:11, 12)이 백성의 제물을 삶는 장소이다.
 - (3) 이같이 백성의 부엌이 따로 분리된 이유는 제사장들의 부엌과 인접해 있거나 백성이 제사장들과 부엌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그들 스스로 거룩하게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42:14).

본장의 요절



‘왕은 백성의 기업을
 취하여 그 산업(産業)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왕이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이니라 백성으로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18절).

제 47장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 나온 생명수와 성지(聖地)의 경계

단락구분 1-2 물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 나오다 / 3-5 물이 점점 불어나다 / 6-12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 나온 물이 아라바로 흘러내려가다 / 13-20 이스라엘 지파가 나누게 될 땅의 경계가 정해진다 / 21-23 외인(外人)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기업을 얻다

1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2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3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 척을 측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4 다시 일천 척을 측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 척을 측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5 다시 일천 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6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7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8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9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넬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11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12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

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움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13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 지계대로 이스라엘 십이 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분깃이니라

14 내가 옛적에 맹세하여 이 땅으로 너희 열조에게 주마 하였었나니 너희는 피차 없이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15 이 땅 지계는 이러하니라 북방은 대해에서 헤틀론 길로 말미암아 스닷 어귀까지니

16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지계와 하맛 지계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지계 곁에 있는 하셀핫디곤이라

17 그 지계가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지계에 있는 하살에는까지요 그 지계가 또 극북방에 있는 하맛 지계에 미쳤나니 이는 그 북방이요

18 동방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 강이니 북편 지계에서부터 동해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방이요

19 남방은 다말에서부터 므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방이요

20 서방은 대해라 남편 지계에서부터 맞은편 하맛 어귀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방이니라

21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22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외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23 외인이 우거하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나 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1. **㉠** 본장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본서에서 가장 희망과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 나오는 생명수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2) 즉 앞의 3장에 걸쳐서 성전과 제사의 규례를 지시하신 하나님은 본장에서 에스겔에게 생수에 대한 환상을 보여 주심으로써 장차 나타나게 될 기적을 예고해 주셨다.
- (3) 다시 말하면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흘러 나온 강이 죽음의 바다인 사해까지 흘러가서 사해에는 다시 생물들이 소생하게 되고 그 강둑에는 달마다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며 그 주변의 땅들은 옥토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 나온 물은 죽음에 이른 모든 생물 뿐만 아니라 무생물까지도 소생하게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 (5)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바로 이 보좌에서 흘러 나오는 생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7:38)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한다.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참조, 계 7:16, 17).

2. **㉠** 동쪽을 향해 있는 성전의 전면에서 에스겔은 어떤 환상을 보았는가? (1, 2절)

- ㉠** (1) 그는 성전 동쪽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그 물이 동으로 흐르다가 전(殿)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
- (2) 한편 성전 동쪽의 문지방 밑에서 나오기 시작한 물은 나중에 사람이 건너갈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강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러한 강의 근원이 성전이라는 사실이다.
- (3)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 나온 물은 결국 사해의 물을 정화시켜서 모든 생물이 살게 하는 근원이 되었는데 이 물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다.
- (4) 뿐만 아니라 이 물은 하늘 보좌에서 흘러 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상징한다(계 22:1-3).
- (5)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 생명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것이다.

3. **㉠**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흘러 나온 물은 어떻게 되었는가? (3-5절)

- ㉠** (1) 맨 처음 발목에 찻던 물은 무릎까지 오르고 다음에 허리까지 오르더니 마침내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기에 이르렀다.
- (2) 여기서 물은 상징적으로 영적인 생명을 공급해 주는 근원을 말하는데(참조, 요 7:37, 38) 이 물의 깊이가 점점 깊어져서 강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많아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 (3) 즉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때가 가까와 올수록 점점 확장되지만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실현된다.
- (4)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기도하면서 주의 뜻이 하루빨리 성취되기를 기도해야 한다(참조, 계 22:20).

4. **㉠** 물은 어디에서 흘러 어디로 내려갔는가? (8절)

- ㉠** (1) 물은 성전에서 흘러 동방으로 향하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렀다.
- (2)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원한 물은 동쪽으로 흘러내려 팔레스틴의 저지대 아라바로 내려가서 급기야 사해 바다에 이르른 것이다.
- (3) 그런데 '아라바'는 사막과 같은 척박한 토양을 가진 곳이다(참조, 사 35:1). 그러므로 물이 '아라바'로 흘러내려갔다는 것은 사막과 같은 척박한 땅에 생명의 물길이 닿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4) 물론 이 말은 에스겔이 본 이상이므로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

지만 이 물은 영적 생명을 구원하는 말씀(요 7:37, 38) 이므로 아라바와 같이 척박한 심령에 말씀의 물결이 흘러, 갈한 심령을 생수로 채워 주며 영혼의 신록을 움트게 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5. **Q** 바다에 이른 물은 바다를 어떻게 하였는가? (8절)

- A** (1) 그 물은 바다를 소성(蘇醒)하게 했다.
 (2) 이 바다는 사해 바다로서 죽음의 바다로 불렸다. 특히 사해 바다는 염분이 많아서 고기들이 전혀 살 수 없는 곳이다.
 (3) 또한 이 사해는 죄악의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장소이다(창 19:1-28). 그러므로 역사적으로도 심판으로 멸망한 죽음의 땅이기도 하다.
 (4) 이러한 곳에 생수가 흘러들어 죽음의 바다를 소생케 했다는 것이다.
 (5) 이와 마찬가지로 도저히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의 위기에 놓여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것이다(요 3:16; 5:24).
 (6) 복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러한 구원의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참조, 요 4:14).

6. **Q**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9, 10절)

- A** (1)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소성하여 살게 되었고 고기도 심히 많게 되어 어부들은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의 강가에 그물을 치게 되었다.
 (2) 여기에서 어부들은 인간에게 구원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뜻한다(참조, 마 4:19). 그러므로 어부들이 사해 서쪽 바닷가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엔게디에서 그 건너편인 에네글라임까지 친 그물은 제자들을 모으기 위한 전도 활동을 뜻한다.
 (3) 즉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소성할 수 없는 인간에게 복음을 허락하셔서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제자까지 불러모으시는 것이다.
 (4) 또한 이 말씀은 행 1:8의 전도 명령과도 많은 연관성이 있다. 주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따를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할 것이다(참조, 행 2:41).

7. **Q**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떤 곳이 소성하지 못한다고 하셨는가? (11절)

- A** (1) 하나님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고 하셨다.
 (2) 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이 소성하여 살게 되지만 사해에 우기가 닥치면 바닷물이 넘쳐 진펄의 낮은 지역을 덮는다. 그러나 그곳에 모인 물은 곧 증발하여 강한 소금 기운만 남아 생물이 살 수 없게 된다(참조, 신 29:22; 시 107:34; 습 2:9). 더우기 그곳은 강물이 이르지 못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생물이 소성할 수 없다.
 (3) 그리고 그곳에 남은 소금은 짜게 하여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한 소금의 기운으로 생명체와 열매 그리고 번영에 대해 해를 끼치는 역할을 한다(참조, 욕 38:6).
 (4)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소생함을 싫어하는 자들이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임을 상징한다(슌 14:17).
 (5) 소금이 진펄에 들어가서 오히려 생명을 해치는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 위에는 그 그릇이 부패하여 하나님의 복음마저도 왜곡시켜 사회와 교회에 해를 끼치는 교회나 기독교 단체들이 많다. 그들이 비록 지금은 잘되어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불의를 가만 두지 않을 것이다(마 23:33; 24:51).

8. **Q** 강 좌우 가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12절)

- A** (1) 물이 성소에서 나오기 때문에 강 좌우 가에는 각종 실과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실과가 많이 지 아니하였다. 또한 그 실과는 식용과 약 재료로도 쓰였다.
 (2) 성소로부터 공급되어 모든 생물을 소생케 하며 열매를 맺게 하는 물은 곧 멸망한 이스

라엘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상징한다(참조, 창 13:10; 사 12:3).

- (3)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에서 자기 백성에게 흘러내리시는 구원은 작은 데서 시작하여 점점 충만하고 풍성케 된다.
- (4) 결국 그 풍성은 스스로를 넘쳐 주위의 모든 것들마저 생명력 있게 만든다.
- (5) 이 같은 축복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하고 있다. 그런데 성도들이 생기 없는 삶을 사는 것은 단지 성도 개개인의 그릇이 그 축복을 담기에 너무 작기 때문이다.

9. **㉠** 여호와께서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3, 14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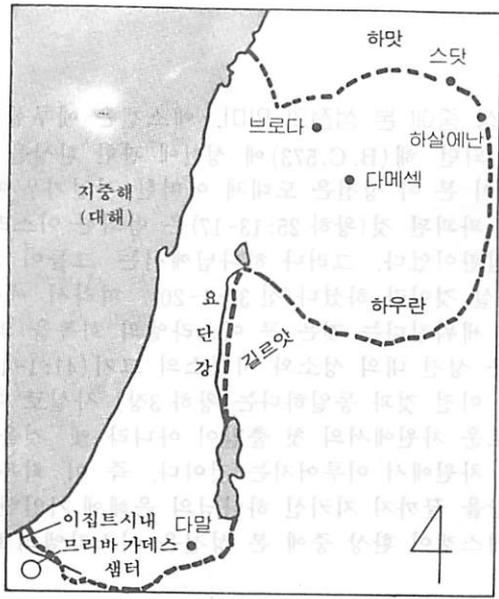
- ㉠** (1) 그것은 '하나님께서 옛적에 맹세하여 이 땅으로 열조에게 주마'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 (2)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창 12:7; 13:14-17; 28:13; 출 13:5, 11).
- (3) 이러한 기업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기업으로 임할 것이다(참조, 벰전 1:4).
- (4)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기업을 받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고(출 34:9) 말씀에 견고히 서야 한다(행 20:32).

10.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십 이 지파에게 허락하신 땅의 경계는 어떠한가? (15-20절)

- ㉠** (1) 먼저 이 땅의 북쪽 경계선은 대해(大海)에서 시작하여 헤들론을 거쳐 하맛 어귀에 이르렀다가 스닷, 브로다, 시브라임에까지 이른다(16절).
- (2) 동쪽 경계선은 하우란과 다메섹에서 시작하여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를 지나 사해에 흘러들어가는 요단 강까지이다(18절).
- (3)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시작하여 프리봇 가데스 샘터를 지나 애굽 시내를 거쳐 대해에 이르는데 이것이 남쪽 경계선이다(19절).
- (4) 서쪽 경계는 대해로서 이 바다가 경계선이 되어 하맛 어귀를 건너다보는 데까지 이른다(20절).

11. **㉠**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지도로 나타내 보라(15-20절).

㉠



12.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땅을 분배하라고 하셨는가? (21, 22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하라'고 명하셨다.
- (2) 여기에서 제비뽑기는 그 당시 근동 지방에 널리 유행했던 관습으로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그릇 속에 여러 가지 물건을 넣어 놓고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점을 치는 행위였다(참조, 레 16:8; 민 26:55; 수 18:10; 삼상 14:41; 예 3:7; 잠 16:33; 18:18; 은 1:7; 마 27:35; 행 1:26).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명하신 것은 이스라엘 열 두 지파에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시기 위해서였다.
- (4) 한편 '너희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던 이방인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땅을 허락해 주신 것은 장차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될 것을 상징한다(참조, 롬 4:16).

13. **㉠**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위해 어떻게 배려(配慮)하셨는가? (22, 23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 외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외인이 우거하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고 명령하셨으므로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22, 23절).
- (2) 이것은 장차 신약 시대에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뜻한다(참조, 롬 10:12; 갈 3:8, 9, 14; 골 3:11).
- (3)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요 3:16) 귀중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다(참조, 눅 12:8; 요 4:14; 행 10:43; 요일 5:1; 계 22:17).

연구자료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성전의 의미.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14년 되던 해(B.C.573)에 성전에 관한 환상을 보았다. 그러면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은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왕하 25:13-17)은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금 회복하실 것이라 하셨다(신 30:1-20). 따라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다시금 세워진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한다. 물론 이 회복은 성전 내의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41:1-11)가 솔로몬이 지었던 이전 것과 동일하다는(왕하 3장) 사실로 미루어 보아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의 첫 출발이 아니라 옛 것을 복구하고 개척시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이 회복은 분명히 당신의 사랑을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성전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계가 있다.

제 48장 열 두 지파의 지계(地界)

단락구분 1-7 성소 이북(以北)의 일곱 지파 / 8-12 제사장들의 거룩한 땅 / 13-14 레위인들의 분깃 / 15-20 성읍을 위한 분배 / 21-22 왕에게 속한 땅 / 23-29 성소 이남(以南)의 다섯 지파 / 30-35 성읍의 문(門)과 성읍의 새로운 이름

1 모든 지파의 이름대로 이 같을지니라 극북에서부터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지계에 있는 하살에논까지 곧 북으로 하맛 지계에 미치는 땅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단의 분깃이요

2 단 지계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아셀의 분깃이요

3 아셀 지계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납달리의 분깃이요

4 납달리 지계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므낫세의 분깃이요

5 므낫세 지계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에브라임의 분깃이요

6 에브라임 지계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르우벤의 분깃이요

7 르우벤 지계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유다의 분깃이요

8 유다 지계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광이 이만 오천 척이요 장은 다른 분깃의 동편에서 서편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9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장이 이만 오천 척이요 광이 일만 척이라

10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편으로 장이 이만 오천 척이요 서편으로 광이 일만 척이요 동편으로 광이 일만 척이요 남편으로 장이 이만 오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와 성소가 있게 하고

11 이 땅으로 사독의 자손 중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할 때에 레위 사람의 그릇한 것처럼 그릇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2 이 온 땅 중에서 예물로 드리는 땅 곧 레위 지계와 연결할 땅을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길지니라

13 제사장의 지계를 따라 레위 사람의 분깃을 주되 장이 이만 오천 척이요 광이 일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장이 이만 오천 척이요 광이 각기 일만 척이라

14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

하며 그 땅의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나 여호와에게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니라

15 이 이만 오천 척 다음으로 광 오천 척은 속된 땅으로 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하는 곳과 들을 삼되 성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16 그 척수는 북편도 사천 오백 척이요 남편도 사천 오백 척이요 동편도 사천 오백 척이요 서편도 사천 오백 척이며

17 그 성의 들은 북으로 이백 오십 척이요 남으로 이백 오십 척이요 동으로 이백 오십 척이요 서으로 이백 오십 척이며

18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결하여 남아 있는 땅의 장이 동으로 일만 척이요 서으로 일만 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결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은 성읍에서 역사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19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그 성읍에서 역사하는 자는 그 땅을 기경할지니라

20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도합은 장도 이만 오천 척이요 광도 이만 오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21 거룩히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왕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히 구별할 땅의 동향한 그 지계 앞 이만 오천 척과 서향한 그 지계 앞 이만 오천 척이라 다른 분깃들과 연결한 땅이니 이것을 왕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히 구별할 땅과 전의 성소가 그 중간에 있으리라

22 그런즉 왕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23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베냐민의 분깃이요

24 베냐민 지계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시므온의 분깃이요

25 시므온 지계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잇사갈의 분깃이요

- 26 잇사갈 지계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스불론의 분기이요
- 27 스불론 지계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갓의 분기이며
- 28 갓 지계 다음으로 남편 지계는 다말에서부터 트리바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 29 이것은 너희가 제비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분기이니라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
- 30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편의 광이 사천 오백 척이라
- 31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

- 을 따를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 32 동편의 광이 사천 오백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 33 남편의 광이 사천 오백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잇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 34 서편도 사천 오백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 35 그 사면의 도합이 일만 팔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삼마라 하니라

1. **㉠** 본장에 기록된 중요 내용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새 이스라엘 땅이 지파와 용도에 따라 새롭게 분배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땅의 용도와 그 땅에 대해 지킬 규례가 기록되어 있다.
- (2)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거룩한 땅을 경계로 하여 북쪽에는 일곱 지파가 남쪽에는 다섯 지파가 위치하게 된다. 한편 레위 지파의 분기는 제사장의 땅과 인접해 있으며 왕은 거룩히 구별된 땅과 성읍 기지의 좌우편 땅을 차지하게 된다.
- (3) 한편 성소가 위치한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 (4) 그러므로 본장은 새 이스라엘 건설을 위한 계획 중 모든 백성이 거할 지역의 분배를 확정지음으로써 이 계획의 기초를 다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5)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의 입안자(立案者)로서 자신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며 그들 중에 거하심을 확인시켜 주신다.

2. **㉠** 여호수아 시대의 땅 분배 방식과 본장에 나타난 분배 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1-7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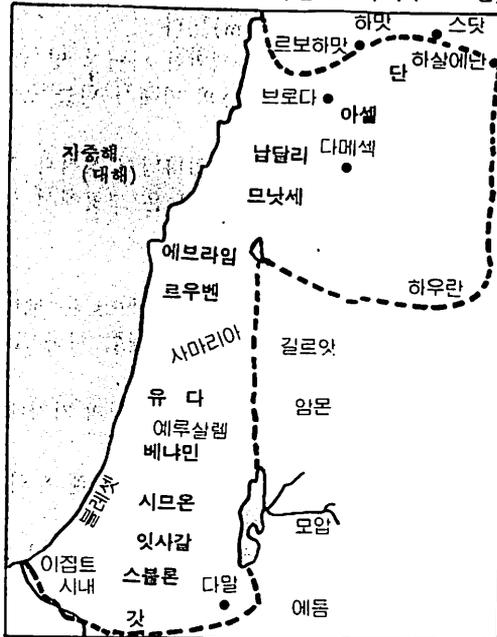
- ㉠** (1) 첫째, 모든 지파가 지중해(대해)를 서쪽 국경으로 하여 북에서 남으로 나란히 영토를 분할받았다.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정복할 수 있었던 땅 중에서 각 지파가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지파마다 영토의 넓이가 각기 달랐음은 물론 모두가 통일성이 없이 흩어져서 거주하였다(수 18:1-10; 19장).
- (2) 둘째, 모든 지파가 요단 서쪽과 북쪽의 땅에 위치했다. 반면에 여호수아 당시에는 므낫세 반 지파와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바산과 길르앗 지역을 원하였으므로 모세는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였다(민 32:33-42; 수 13:8-31). 그러므로 그들은 요단 동편에서 거주하였다.
- (3)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전(全) 영토의 1/5에 해당하는 지역이 성소가 위치할 거룩한 땅과 성읍의 기지(基地) 그리고 왕의 소유지로 구별되었다(45:1-8).
- (4) 우리는 여기서 이 같은 에스겔의 분배 방식이 공평하며, 거룩한 것을 구별하기 위해 특별히 계획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5) 이와 같이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계획 자체가 공평하고, 정의롭고, 거룩한 것을 생각해서 수립되었다면 일이 되어가는 과정과 결과가 모두 의롭고 선한 방향으로 되어질 것은 분명하다.

3. **㉠** 거룩한 땅을 중심으로 하여 그 이북(以北)에 있는 지파들을 살펴보라(1-7절).

- ㉡** (1) 그 지파들이 예루살렘을 향한 방향 곧 북에서 남으로 위치한 순서는 다음과 같다.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의 순이다.
- (2) 한편 단은 가장 북쪽에 위치하여 성소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가장 불경건한 지파였기 때문이다.
- (3) 그러나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항상 성소를 그 영토 내에 가지고 있어서 가장 우월한 위치에 있었다.
- (4) 이처럼 영토의 분배에 있어서도 경건하고 의로운 자들은 축복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4. **㉠** 새 이스라엘의 영토와 각 지파의 위치를 그려라(1-29절).

㉡



5. **㉠** 유다 지파 남쪽의 지역 중 특별히 구별된 땅에 대하여 살펴보라(8절).

- ㉡** (1) 그 땅은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길이가 다른 지파에게 분배될 땅의 동서 길이와 같으며 남북의 길이는 2만 5천 규빗(13.1km)이다. 그리고 성전은 그 지역 내에 위치하게 된다.
- (2) 그런데 이곳은 특별한 용도로 사용될 곳으로 성소와 레위인들의 지역, 제사장의 지역, 성의 기지 모두를 포함한 땅은 가로 세로 모두 13.1km인 정사각형 지역이다(20절).
- (3) 따라서 이곳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곳을 포함하며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다.

6. **㉠** 여호와의 예물로 드릴 땅은 어디를 말하는가? (9-12절)

- ㉡** (1) 그 땅은 제사장들이 소유할 몫이면서 하나님의 전이 들어갈 곳으로 동서의 길이가 2만 5천 규빗(13.1km), 남북의 길이가 1만 규빗(5.3km)이 되는 지역이다.
- (2)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사독의 자손 중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을 위해 마련하셨다(참조, 44장 9).

7. **㉠** 레위인들의 분깃은 무엇인가? (13, 14절)

- ㉡** (1) 그것은 제사장의 땅 경계선을 따라 길이 2만 5천 규빗(13.1km), 폭 1만 규빗(5.3km) 되는 지역의 땅인데 그 땅은 팔거나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수 없다는 특별한 지역이었다.
- (2)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 (3) 그러므로 그 땅에서 산출되는 첫 열매가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행위이다.
- (4) 따라서 레위인들이 땅을 분배받은 목적은 거룩한 곳의 거룩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였다.
- (5)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들은 그들에게 부여된 일에 충성할 수 있어야 한다 (10-12절).

8. **㉠** '속된 땅'이란 어디를 말하는가? (15-20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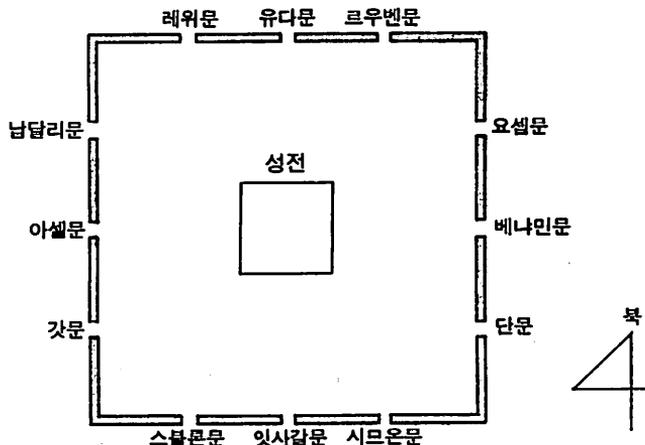
- ㉠** (1) 특별한 용도로 사용될 지역을 말한다.
- (2) 따라서 그곳은 일반 성(城)을 중심으로 하여 주택지와 빈 들로 되어 있는데 그 성의 크기는 가로 세로 4천 5백 규빗(약 2.4km)의 정사각형이다. 그리고 그 성의 빈 들은 성 사방으로 동서남북이 모두 2백 5십 규빗(131m)이다.
- (3) 한편 거룩한 땅과 인접한 성의 기지(基地)를 제외한 나머지 땅 곧 그 성의 좌우로 각각 깊이 1만 규빗(5.3km), 폭 5천 규빗(2.6km)의 땅에서 나는 농산물은 그 성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식량이 될 것이다.
- (4)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뽑혀 와 하나님의 성전과 거룩한 성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땅이 주어지고 그들은 그곳에서 농산물을 재배하여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할 것이다.

9. **㉠** 어떤 곳이 왕의 소유가 될 것인가? (21, 22절)

- ㉠** (1) 왕이 소유할 땅은 북으로는 유다 지파의 경계선까지, 남으로는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까지의 땅 중 거룩하게 구별된 땅과 성의 기지 그리고 레위 지파 소유의 땅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다(참조, ㉠ 4).
- (2) 즉 거룩하게 구별된 땅과 레위 지파 소유의 땅 그리고 성의 기지에서 동쪽으로는 국경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의 땅을 말한다.
- (3) 그러므로 거룩하게 구별된 땅과 성의 기지, 레위 지파의 땅과 왕의 소유를 모두 합하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소유의 땅 사이 모든 지역이 된다.

10. **㉠**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평면도를 그리고 성문을 표시하라 (30-35절).

- ㉠** (1) 이 성은 성의 기지(基地) 안에 위치해 있었으며 가로세로 각각 4천 5백 규빗(약 2.4 km)의 정사각형이다.
- (2) 그런데 성문은 성벽의 사면에 각각 세 개씩 있으며 그 성문들의 이름은 각 지파의 이름을 따서 붙였다(계 21:12).
- (3) 한편 예루살렘 성의 단면도를 그리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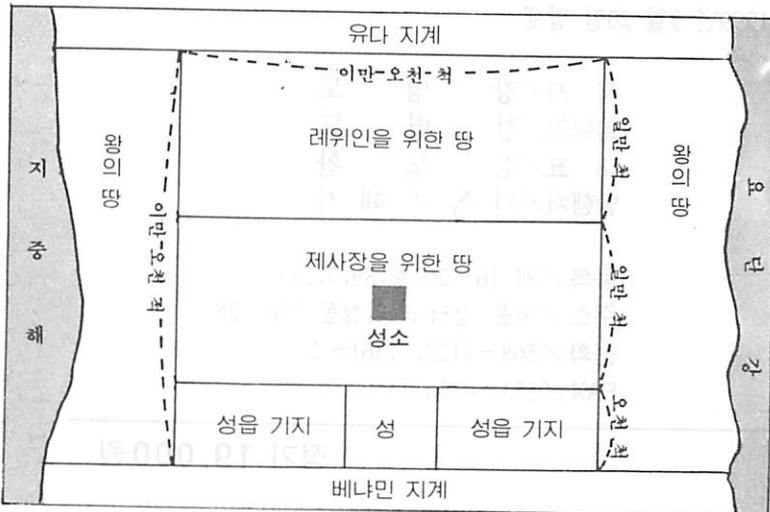


11. **Q** 성읍의 이름은 어떻게 불리어질 것인가? (35절)

- A** (1)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 라고 불리어 것이다.
- (2) 여기서 '그날 이후로'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미욘>은 '앞날에', '지금부터' 라는 뜻을 갖는다.
- (3) 또한 <삼마>로 표기된 히브리어 <쇠마>는 '거기에', '저기에', '그쪽에' 의 뜻 모두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 (4) 그러므로 본절의 의미는 이제까지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소에 계시는 날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 라 불리어 될 것이라는 뜻이다.
- (5) 한편 그 성읍 이름인 '여호와 삼마' 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말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나라의 규례와 제도 그리고 생활에 간섭하십시오 그들 속에 함께 하시고, 앞으로는 그들의 앞길에 영원한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다.
- (6) 또한 이 말 속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 가운데 모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랑을 전파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 (7) 그러므로 '여호와 삼마' 의 사상으로 귀결되는 본서 전체의 결론은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로와 새 희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다.

지도자료

하나님께 드릴 거룩히 구별된 땅. 본장과 45장에 언급되어 있는 이 땅은 유다 지파의 지계(地界)와 베나민 지파의 지계 사이에 위치한다. 이 땅 전체의 길이는 장광(長廣)이 모두 이만 오천 척인데(20절) 레위인을 위한 땅, 제사장을 위한 땅, 성읍 기지로 구분된다(10, 13, 15절). 그리고 그 좌우편의 땅은 왕에게 소속되는 땅이다(21절).



저자 소개

강병도 목사는 1923년 경남 진주에서 출생하였으며, 고려신학교(제 13회, 1959년)를 졸업한 후 30여년간 목회에 전념하고 있다. 그는 개혁주의적 목회의 일환으로 평신도 성경 공부에 관심을 쏟던 중 그간의 성경 연구 자료를 정리한 「성경 문답식 강해」(1973년)를 펴내어 교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진 바 있다. 초기에 4권으로 시작되었던 이 책이 독자의 호응에 힘입어 3년 사이에 6권으로 불어났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비쁜 목회 생활 중에 기존 저술의 보완 작업을 쉬지 않던 그는 이제 「QA시스템 성경 연구 시리즈」 전 15권의 저술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현재 자신이 개척한 부산 동래 성일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으며, 또한 기독교지혜사 발행인으로서 저술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성경 문답식 강해 증보판-

QA시스템 성경연구시리즈

⑨ 예레미야-에스겔

1999년 9월 10일 인쇄

1999년 9월 20일 발행

저 자/강 병 도
발행인/강 병 도
대 표/강 도 환
발행처/기 독 지 혜 사

등록/제 16-267호(89.7.21)

주소/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28

전화/568-8122, 1361~2

FAX/553-4830

정가 19,000원

제 36 장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

단락구분: 1-6 이방의 조롱거리가 된 이스라엘 / 7-15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예언 / 16-21 이스라엘의 죄와 그에 대한 심판 / 22-28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키는 이유 / 29-31 죄악을 깨닫는 이스라엘 / 32-36 이스라엘이 재건되리라 / 37-38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채우시리라

1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산들이 여호와와의 말씀을 들으라

2 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대적이 네게 대하여 말하기를 하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3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황무케 하고 너희 사망을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4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산들과 멧부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무한 사막들과 사면에 남아 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5 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무기로 남아 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니라

6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멧부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가 내 투기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욕을 당하였음이니라

7 그러므로 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 수욕을 정녕 당하리라

8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이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울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9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잡고 심을 것이며

10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앉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11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증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

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2 내가 사람으로 너희 위에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로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13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네 나라 백성을 제한 자라 하거니와

14 네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나라 백성을 제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15 내가 또 너로 열국의 수욕을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네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16 여호와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17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18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19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헤쳤더니

20 그들의 이름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21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22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3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와 의 말이 나라

24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25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26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29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30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육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31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밋게 보리라

32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이다

33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점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 인즉

34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35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36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7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 떼 같이 많아지게 하되

38 제사드릴 양 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 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였느니라

1. **㉠** 본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요약하라.

- ㉠** (1) 이스라엘 땅이 지금은 황폐하고 그 백성이 비록 이방의 포로가 되어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전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을 약속하신다.
- (2)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의 기쁨을 제공하실 것이다.
- (3)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조국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케 하시고 새 영(靈)을 그들에게 주셔서 다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다.
- (4)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과거의 죄를 부끄러워하게 만들고 자신들에게 복 주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는 사실을 깨우쳐 준다. 더우기 이 축복은 온 세상에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2. **㉠** '이스라엘 산들'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1절)

- ㉠** (1) 이스라엘의 땅과 백성을 가리킨다(6:2,3).
- (2)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으나 그 산들은 영원히 남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기억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 예언하라고 명령하셨다(창 49:26; 신 33:15; 시 125:2).
- (3)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쉽게 잊어버리고 재갈 길로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분임을 가르쳐 준다(미 7:20).

3. **㉠** 이스라엘의 대적자(對敵者)들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비웃었는가? (2, 3절)

- ㉠** (1) 그들은 '하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라고 이스라엘을 비웃었다.
- (2) 여기서 '옛적 높은 곳'이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이 있는 시온을 가리키거나 왕의

도성(都城)이 있던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3) 따라서 이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인 이스라엘 땅이 자신들의 소유가 되었다고 득의 양양(得意揚揚)해 하는 말이다.

(4) 이처럼 우리는 믿는 성도들이 죄를 짓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불신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은 물론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가리는 결과를 초래함을 알아야 한다(25:3;26:2;35:10,12).

4. **㉠**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는 누구인가? (2절)

㉠ (1) 본장과 35장에 있어서는 에돔을 가리키나(35:10) 넓은 의미로는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를 가리킨다.

(2) 그러므로 그들은 '남은 이방인', 즉 이스라엘(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 팔레스틴 지방에 남아 있던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참조, 25장).

(3) 이처럼 우리의 주위에는 항상 우리를 넘보는 사단의 무리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 사단의 무리들은 우리가 신앙 생활을 게을리하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찰 때는 가차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준비하고 있다.

(4)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 있어 대적자들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참조, 딤후 2:26; 뱀전 5:8).

5. **㉠**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상은 무엇인가? (4절)

㉠ (1) 이스라엘의 산들, 멧부리들, 시내들, 골짜기들, 황무한 사막들과 성읍들이었다.

(2) 그런데 이것들은 이스라엘 온 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6:3).

(3) 이 같은 표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보살피시고 지켜 보시는 분임을 알 수 있다(참조, 신 32:10; 시 17:8).

6. **㉠**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난 표현은 어떤 것들인가? (5, 6절)

㉠ (1) '내 맹렬한 투기'와 '내 투기와 내 분노'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에 지극한 관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2)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은(창 17장)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3) 따라서 하나님의 적이 이스라엘의 적이며 이스라엘의 적이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이다(참조, 출 23:22).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업신여기는 이방에 대해 맹렬한 분노와 투기를 나타내시는 것이다.

(4)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는 그분의 소유임과 동시에 그분과 영원한 계약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참조, 롬 4:13, 18).

7. **㉠** 하나님께서 이방을 향해 맹세하신 바는 무엇인가? (7절)

㉠ (1) 이스라엘의 사면(四面)에 있는 이방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2) 그들 이방인들은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무시하였으나 이제는 그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3)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복수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다.

(4) 이 세상에는 의로운 자들과 악한 자들이 악한 자들에게 수모(受侮)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에 대해 보복하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여길지 모르나 보복은 보복을 일으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5) 그러므로 복수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롬 12:19).

8.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실 축복은 무엇인가? (8-15절)

- ㉠** (1) 하나님께서는 황폐하게 버려진 땅에서 이제는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열매가 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다(8, 9절).
- (2) 또한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조국을 떠난 피난민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텅 빈 땅에 사람의 소리가 있게 하고 그들이 번성하여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다(10, 11절).
- (3) 따라서 그들은 바벨론에 의한 패망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11절).
- (4) 더우기 그들이 이방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은 물론 새 영(靈)을 받아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였기 때문에(26절) 그 땅에서는 착취와 폭력이 사라질 것이다(14절).
- (5) 따라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방의 멸시와 비난을 받지 않는 나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거하게 될 것이다.
- (6) 인간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자신의 뜻대로 살지만 이와 같이 한 나라나 개인도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만 번성하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16:13, 14; 단 6:28).

9. **㉠**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되기 이전, 즉 자신들의 고향에 있을 때의 행위는 무엇에 비유되었는가? (17절)

- ㉠** (1) 그들의 행위는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에 비유되었다.
- (2) 그런데 여인의 주기적인 월경(月經)을 부정한 것으로 보는 이유는 히브리인의 정결 개념에 있어서 피의 유출은 생명의 상실을 의미하는 동시에 죄를 뜻하기 때문이다. 즉 죽음은 죄의 결과로 온 것이기 때문에 피의 유출을 죄악시한 것이다.
- (3) 또한 모세의 율법에 있어서 월경 기간에 있는 여인은 외부와의 접촉이 금지되었으며 그 여인이 만진 것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다(레 15:19).
- (4) 한편 율법 이전 족장 시대의 아람 사람들간에도 이러한 규례가 있었다(창 31:35).
- (5) 그러나 여인의 월경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행위 자체를 이것에 비유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본절에 나타난 여인의 월경은 18절에 나오는 피와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더 적절하다.

10. **㉠** 이스라엘의 죄악 중 땅 위에 피를 쏟은 죄는 무엇을 말하는가? (18절)

- ㉠** (1) 이것은 그들의 사회에 폭력이 난무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가리킨다.
- (2) 이와 같이 유다가 멸망할 시기(B. C. 586)에는 사회가 극도로 혼란에 빠져 정치, 종교 등 모든 방면에 있어서 부패의 극을 달렸다.
- (3) 더우기 그들의 율법은 땅에 떨어져 사람을 죽이는 일을 예사로 여겼으며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
- (4) 이처럼 한 사회나 개인이 사람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근본은 그들이 생명의 근원되시는 하나님 곁을 떠났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 데서 비롯되었다(렘 2:13).

11. **㉠** 이스라엘(유다)의 멸망은 하나님께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20절)

- ㉠** (1) 유대인들이 멸망하여 온 백성이 여러 나라로 흩어진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 (2) 즉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백성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간 환난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할 수 없고 그의 땅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겼다.
- (3)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실추된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시기 위해서 포로되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모아 그들의 고국에서 평안히 거하게 할 것을 결심하셨다.
- (4)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에서 귀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자신이 전능하신 역사의 주관자임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역사(役事) 때문이었다고 하겠다(사 43:25; 48:11).

- (5) 그러므로 우리가 잘되고 선한 행위를 나타내면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질 것이며, 우리가 잘못을 범하고 추한 면을 보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질 것이다(참조, 스펀 3:17; 고후 2:15).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 여부에 얽매인 분이 라는 것을 강조하기 보다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깨우쳐 주는 교훈이다.

12. **㉠**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22, 23절)

- ㉠** (1) 그것은 이스라엘로 인해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 앞에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2)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또 그 징계를 받은 백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란 것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을 이방의 포로에서 구하셨다.
 (3)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것은 결코 우리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임을 알 수 있다(20:41, 42).

13. **㉠** 고국으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役事)는 무엇인가? (25절)

- ㉠** (1) 하나님께서는 고국으로 돌아올 자신의 백성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우상 숭배와 모든 더러운 것에서 그들을 정결(淨潔)케 하실 것이다.
 (2) 여기서 물로 씻는 것은 정결케 하는 것을 상징한다(참조, 민 19:17-19; 시 51:9).
 (3) 이것은 자신의 백성을 거룩한 민족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즉 포로 이전의 우상 숭배와 더러운 행실을 깨끗이 씻고 새로운 생활을 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인 것이다(사 4:4; 렘 33:8).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레 19:2).

14. **㉠** 사악하고 더러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은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가? (26, 27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영(靈)과 새 마음을 주셔서 그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실 뿐 아니라 새 신(神)을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2)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 윤리가 개선되고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 새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내적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이다(37:23).
 (3)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규례를 지키는 것은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 신(神), 즉 성령을 주시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다(11:19, 20; 렘 31:31-34).
 (4)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행 2:38). 그런데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분이시다(요 14:16-18, 23; 16:7-15). 이 약속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되었다(행 2:1-4).

15.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은혜는 그들의 심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28-31절)

- ㉠** (1) 하나님의 은혜로 비옥한 땅과 풍성한 열매 그리고 평안한 거처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로 인해 과거의 죄를 기억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중요할 것이다.
 (2)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행위와 처지를 돌아보게 하여 과거에 지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새 삶을 살기에 적합한 심령(心靈)으로 만든다(20:43).

(3) 이와 같이 믿음의 생활이란 먼저 자신의 행위와 더러운 마음의 죄악을 뉘우치고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참조, 시 34:18; 51:17).

16. **㉠** 하나님께서는 무슨 까닭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셨는가? (32절)

㉠ (1)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목전(目前)에서 더럽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이다.

(2)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후 그들에게 새 영과 새 신을 부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도록 하실 것이다. 그 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케 하실 것이다.

(3) 그런데 이 같은 일련(一連)의 계획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가깝게 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으로 이방인들에게 인식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20, 21절).

(4)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백성조차도 보호할 수 없는 무능한 신(神)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39:21).

17. **㉠** 황폐하던 이스라엘이 다시 건축되고 그곳에 사람이 다시 살게 됨을 보고 이방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33-36절)

㉠ (1) 그들은 이같이 놀라운 일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줄 깨달을 것이다.

(2) 즉 국토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폐허화되었고 온 국민은 이방의 여기저기로 흩어져 멸시를 당하던 민족이 이제는 다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와 경작하며 성을 건축하는 모습을 본 이방인들은 이 모든 일이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役事)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을 것이다.

(3)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35절에 나타난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놀랄을 정도로 번성할 것을 보여 준다.

(4) 특히 그들의 성채는 대단히 견고하여 다시는 그곳을 쫓겨 날 염려가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35절).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국가나 개인은 그 모든 일이 번성하여 두려울 것이 없다.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고전 9:27).

18. **㉠**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37, 38절)

㉠ (1) 이스라엘 백성을 양 떼같이 많이 하되 정한 절기의 양 떼같이 많이 하실 것이다.

(2) 즉 이스라엘 자손을 흩어진 열국(列國) 중에서 불러모으심이 마치 특별한 절기에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가지고 오는 양 떼와 같이 많이 하실 것이다(대하 35:7).

(3) 또한 이스라엘 절기에는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잃은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절기 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과 같이 그 백성의 수를 많이 하시리라고 약속하셨다(참조, 미 2:12).

(4)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하셨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그분을 의지하여야 함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참조, 단 9:2, 3).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면서도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그것을 위해 간구하기를 바라신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참조, 골 1:12; 3:15; 살전 5:18).

제 37 장 이스라엘 회복의 환상을 보이시다

단락구분 1-6 마른 뼈에 비유된 이스라엘 / 7-10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다 / 11-14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부르시다 / 15-23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되리라 / 24-28 그리스도의 왕국이 예언되다

1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2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3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4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이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5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6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7 이에 내가 명을 좇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8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9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방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11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은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12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내 백성들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 내 백성들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와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15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16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은 족속이라 쓰고

17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들이 하나가 되리라

18 네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19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라

20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21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 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22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23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법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24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25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 손
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
원히 그 왕이 되리라

26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
게 하리니

27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
는 그들의 하나님이니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
리라

28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
니 열국이 나탄 이스라엘을 거룩케 하는 여호
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1. **㉠ 본서의 환상을 요약 설명하라.**

- ㉠** (1) 앞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흠어진 이방으로부터 구원하여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으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였다.
- (2) 왜냐하면 현재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을 도와 줄 어느 누구도 없었기 때문이다.
- (3)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죽어서 뼈만 남은 앙상한 물골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드실 수 있음을 보이시면서 분열된 이스라엘을 재결합시킬 곳까지도 약속하셨다.
- (4) 그런데 이 같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결합은 장차 세워질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한다.

2. **㉠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이신 것은 무엇인가? (1, 2 절)**

- ㉠** (1) 하나님의 신은 에스겔을 인도하여 골짜기에 흠어진 마른 뼈들을 보이셨다.
- (2) 여기서 ‘신(神)이란 ‘호흡’, ‘바람’, ‘영’을 뜻하는 히브리어 <루아흐>로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이 ‘하나님의 신’의 인도로 골짜기에 흠어져 있는 마른 뼈를 보았다(3:22).
- (3) 그런데 이 마른 뼈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 것으로 그들은 전혀 생기가 없는 마른 뼈와 같아서 함께 모일 수도 없이 분열된 상태에 있었음을 잘 나타내 준다.
- (4) 그러나 이같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는 자는 오히려 구원의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눅 15:15-20).

3. **㉠ 마른 뼈들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슨 질문을 하셨는가? (3 절)**

- ㉠** (1)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들이 살 수 있는지를 물으셨다.
- (2) 그런데 이 질문의 의도는 인간의 생각에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에스겔은 다만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참조, 신 32:39).
- (3) 이처럼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지혜의 방법으로 인간들 눈앞에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모든 무릎들을 당신 앞에 꿇게 만드신다(참조, 사 45:22-25).

4. **㉠ 에스겔에게 대언(代言) 하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4, 5 절)**

- ㉠** (1)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너희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대언케 하셨다.
- (2)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세상 모든 것들이 복종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모든 것들이 그대로 따를 것을 보여 주는 명령이다.
- (3) 또한 ‘내가 생기(生氣)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시는 분’임을 보여 준다(창 2:7).
- (4) 그런데 여기서 ‘생기’(生氣)는 문자적으로 생명을 주는 ‘영’이나 ‘숨’을 가리킨다(참조, 창 6:17; 7:22).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생기’는 생명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5) 이처럼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던 해방을 이룰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6)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생기를 잃고 죽은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이 임하게 되면 그는 참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참조, 요 1:4; 딤후 1:10; 요일 1:2; 5:12).

5. **㉠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代言) 하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7, 8절)**

㉠ (1) 그때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면서 뼈가 서로 들어맞고 그 뼈에 살과 힘줄이 올랐다.

(2) 그런데 이 소리는 뼈들이 움직일 때 나는 소리로 간주해야 한다.

(3) 그리고 이 같은 기적은 이방의 여러 곳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드는 것을 상징한다.

(4)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어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참조, 엡 1:19).

6. **㉠ ‘사망을 당한 자’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9절)**

㉠ (1) 그것은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킨다.

(2) 그러나 본질에서 사망한 자가 생기를 얻는다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패망하여 죽은 자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소생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3) 한편 죽은 자를 살리는 ‘생기’는 ‘바람’이나 ‘영’이라기 보다는 생명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즉 생명의 근원이나 생명을 주관하신 신적 본질을 의미한다(참조, 창 2:7).

(4)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살해된 자, 즉 사망한 자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다시 살리신 것이다.

(5) 이처럼 하나님께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산 자를 죽은 자와 같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다.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생명의 근원되시는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아 늘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롬 12:2; 엡 4:23).

7. **㉠ 실의(失意)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12절)**

㉠ (1) 하나님께서는 무덤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나와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2) 하나님의 선민(選民)으로 자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완전히 실의(失意)에 빠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하였다(참조, 시 88:6).

(3) 따라서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죽은 사람과 같이 여겼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같은 포로 생활에서 그들을 구원시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4) 이와 같이 우리 인간들은 자신들이 의지하고 귀중하게 여기던 것을 잃게 되면 실의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고 전혀 구원이 없는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살피시고 베푸실 은혜를 준비하신다(참조, 고후 6:2).

8. **㉠ 하나님께서는 고국으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14절)**

㉠ (1)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神)을 두어 살게 하실 것이다.

(2)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경제적 회복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생활, 즉 종교의 회복을 가리킨다(사 14:1).

(3)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져야만 살 수 있는 언약(言約)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4)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신(神)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야만 올바르게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넘어지고 범죄한 길로만 가려고 하기 때문이다(참조, 수 24: 14-18).

9. **㉠**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하신 상징적 행동은 무엇인가? (16, 17절)

- ㉠ (1)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명하시길 막대기 하나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이라고 쓰게 하셨으며, 또 다른 막대기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은 족속' 이라고 쓰게 하셔서 둘을 하나가 되게 하라고 명하셨다(참조, 민 17:2).
- (2) 여기서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이란 남왕국 유다가 유다 족속 뿐만 아니라 베냐민과 시므온 그리고 레위 족속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 중 상당수의 사람들이 남유다로 이주한 사실을 가리킨다(참조, 대하 11:13; 15:9; 30:11, 18).
- (3) 또한 다른 막대기에 쓴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은 족속' 이라고 함은 나머지 북왕국의 지파들을 가리키는데, '에브라임의 막대기'라 함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열 지파의 핵심을 이루었기 때문이다(사 7:2-17).
- (4)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연합되지 않았던 남·북 이스라엘을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19절).
- (5) 그러므로 한 민족이 나뉘고 한 종교가 여러 분파로 나뉘는 것은 모두가 인간의 욕심과 교만으로 인한 결과이지 결코 하나님께서는 나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10. **㉠**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란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19절)

- ㉠ (1) 에브라임 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2)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따른 열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폭정에 반기를 들고 다윗의 왕가(王家)에서 떨어져 나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설하였다(왕상 11:31; 대하 10:16).
- (3) 이때에 에브라임 지파는 야곱의 축복과 예언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었다(참조, 창 48:19, 20; 암 5:15; 욥 1:18).

11. **㉠**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에 에스겔은 어떤 응답을 하여야 하는가? (20-23절)

- ㉠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둘로 나뉘었던 나라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응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야 한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후로 나뉘었던 민족을 하나 되게 만들어 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뜻을 갖고 계시었다(36:24-31).
- (3) 그런데 에스겔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상징적 행동으로 나타냄으로써(16-20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예언의 말씀의 효과를 증대시키려 하였다.
- (4) 이와 같이 오늘날의 목회자도 성도들이 물어 오는 질문에 효과적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위해 많은 기도와 개인적 지식의 축적이 필요하다(참조, 말 2:7).

12. **㉠** 이스라엘은 장차 어떤 정치 형태를 띠 것인가? (22절)

- ㉠ (1) 남북으로 나뉘었던 이스라엘은 한 임금이 다스리는 통합 국가를 형성할 것이다.
- (2) 앗수르에 의해 패망한 북왕국 이스라엘(B. C. 722)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왕국 유다는 흩어져 있던 열방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다(스 2장).
- (3) 그리고 그들을 다스릴 임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장차 나타날 메시아를 가리킨다(사 9:7; 32:1).
- (4) 또한 이 메시아가 다스릴 나라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의 모든 영적 이스라엘까지도 포함된다(참조, 롬 9:6-8; 갈 6:16).

13. **㉠**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23절)

- Ⓐ (1) 이것은 이스라엘이 처한 환경에서 그들이 죄를 지을 모든 요소를 제거한다는 말이다.
 (2) 즉 포로 이전의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의 영향을 받아 우상을 숭배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다(36:25-28).
 (3) 따라서 포로에서 귀환하여 고국을 찾은 이스라엘은 죄의 요소를 제거하고 정결함을 받아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이 될 것이다.
 (4)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과 밖에 있는 죄의 요소를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그 죄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롬 8:9).

14. Ⓒ **이스라엘의 왕이 될 하나님의 종 다윗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24절)**

- Ⓐ (1)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가리킨다.
 (2) 즉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통치로 인해 다시는 이방의 침략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우상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다.
 (3) 이 메시아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한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사 55:3; 렘 32:40).
 (4) 또한 이 메시아의 통치는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왕국과 부합되며 그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이방인까지도 포함된다(렘 31:31-34).

15. Ⓒ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질 곳은 어디인가? (26절)**

- Ⓐ (1) 그곳은 하나님께서 견고(堅固)하고 번성케 할 이스라엘 가운데이다.
 (2) 이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 제도가 외적(外的)으로 확고히 설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참조, 출 25:8).
 (3)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방을 구원할 메시아적 민족이라는 사실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사 49:3; 롬 3:2; 9:4, 5).
 (4)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전 3:16; 6:19).

16.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결케 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27절)**

- Ⓐ (1) 그것은 이방을 구원할 제사장 나라로서 부족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2) 이방과 온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신(참조, 딤후 2:4) 하나님께서는 그 임무를 수행할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정결하고 본을 보일 수 있기를 바라셨다.
 (3) 따라서 바벨론 포로 기간을 거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신(神)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수행할 자격이 있도록 변화되어야 했다.
 (4)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불신자들 앞에서 책잡힐 것이 없는 정결함을 유지하여야 한다(참조, 마 5:16).

17. Ⓒ **'열국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거룩케 하시는 분으로 알리라'라는 표현은 무엇을 암시하는가? (28절)**

- (1) 이것은 구원의 약속이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됨을 보이는 표현이다.
 (2) 즉 이스라엘을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는 이방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포함한 새로운 메시아 왕국 건설을 계획하시는 것이다.
 (3) 그런데 이 메시아 왕국은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 구원 받는 자들로 채워지며 이 교회의 확장은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는 것이다.
 (4) 이와 같이 우리도 처음에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에 합당한 일을 함이 마땅하다(롬 11:17).

제 38 장 이스라엘을 향한 곡의 침략

단락구분 1-6 곡이 침략 준비를 하다 / 7-9 이스라엘을 향한 곡의 침략 / 10-16 곡의 침략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 17-23 곡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1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3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4 너를 들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5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6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7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8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9 내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떼와 너와 함께 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10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피를 내어
 11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12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13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네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14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15 내가 네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16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곡아 끝 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17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18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19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20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21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22 내가 또 은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향으로 그와 그 모든 떼와 그 함께 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 듯하리라
 23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 ㉠ 본장의 예언을 요약하라.

- ㉠ (1) 본장의 예언은 이방의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평안히 살고 있던 이스라엘에 곡의 군대가 침략을 하지만 그 침략은 실패로 돌아가고 또한 그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 (2) 그런데 이 예언은 곡의 침략이 하나님의 주관하(主權下)에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거룩한 분이심을 세상에 알리려 하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3) 또한 이 예언의 목적은 비록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에서의 행복과 메시아 왕국을 확장시킬 특권을 가진 백성이 될 것이 약속되었지만 그들은 축복과 아울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을 가르치려는 것이었다(롬 8:17).

2. ㉡ ‘마곡 땅’은 어디를 가리키는가? (2절)

- ㉠ (1) 창 10장에 의하면 ‘마곡’은 야벳의 아들인데 그의 자손들은 흑해와 카스피 해 중간인 코카서스 북방 지역에 거주하였다.
- (2) 또한 ‘마곡’은 ‘로스’, ‘메섹’, ‘두발’의 통칭으로 통합된 민족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 (3) 그런데 이들은 극히 호전적이며 야만적인 민족으로 침략을 일삼았다. 따라서 이 ‘마곡’은 미래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힐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을 예표한다(계 20:8).

3. ㉢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은 누구인가? (3절)

- ㉠ (1) 그는 마곡 땅을 다스리는 ‘곡’이다.
- (2) 그런데 그는 열방과 자신의 백성에게 명성을 떨치고 있던 유명한 인물로 추정된다(7절).
- (3) 그러나 열방의 군대를 지휘하는 그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나 바사의 고레스와 같이 단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참조, 26:7).
- (4) 이처럼 이 세상을 호령하고 강대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모두는 역사의 주관자(主權者)가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참조, 대하 36:22, 23; 스 1:1-4).

4. ㉣ 곡의 군대는 어떻게 군대를 일으키게 되었는가? (4절)

- ㉠ (1) 그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로 온 군대가 중(重)무장을 한 채로 출병(出兵)했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평안히 거하는 이스라엘을 침공할 마음을 갖게 하셨다.
- (3) 한편 하나님에 의해 이끌림을 받는 곡의 군사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사 37:29).
- (4) 왜냐하면 곡의 군대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 (5) 이처럼 이 세상의 어떤 국가나 개인도 비록 그들이 강하고 지혜가 있을지라도 그 능력과 지혜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참조, 잠 21:1; 사 37:29).

5. ㉤ 곡의 지휘를 받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인가? (5, 6절)

- ㉠ (1) 그들은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족속이다.
- (2) 여기서 바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 극동에 있는 나라를 그리고 붓은 극서에 있는 나라를, 구스는 극남에 있는 나라를 가리킨다(참조, 27장 ㉠ 10). 또한 고멜과 도갈마 족속은 북방에 있는 나라들을 말한다(참조, 27장 ㉠ 14).
- (3) 그런데 이들은 당시 세상에 알려진 변경에서 왔으며 모두 ‘곡’에 의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 소집되었다(참조, 계 20:8).
- (4)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 즉 진실한 성도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셀 수 없이 많다.

(5)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같은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참조, 마 26:41; 고전 10:12; 벧전 5:8).

6. **㉠** 이스라엘이 '곡'의 침략을 받을 때는 언제인가? (8절)

- ㉠** (1) 이스라엘은 이방의 칼을 벗어나서 자신들의 고국 땅에서 평안히 거할 때 '곡'의 침략을 받는다.
 (2) 그런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평안히 거할 때로 최후의 때, 세상 종말이 올 때를 가리킨다.
 (3) 즉 이스라엘은 전쟁을 생각지도 않고 평화를 생각할 때 곡의 침공을 당할 것이다.
 (4) 이처럼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악한 존재들은 우리 주변에 상당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함으로써 이들의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참조, 마 26:41; 엘 6:18; 빌 4:6; 골 4:2; 살전 5:17; 딤후 2:8).

7. **㉠** '명령을 받고'란 귀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8절)

- ㉠** (1) '곡'은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데 이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한 '곡'의 침략이 자신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2) 한편 '명령을 받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티파케드>의 원래 의미는 '찾다', '탐구하다', '살펴보다'는 뜻으로 본절에서는 '방문하다', '찾아오다'란 뜻으로 사용되었다(참조, 사 24:22).
 (3) 따라서 '곡'은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된다.
 (4) 그러므로 이 사상은 곡이 하나님의 능력에 강제로 순종하게 됨을 보여 준다. 한편 계 20:8에서는 사단이 열방을 충동질하는 자로 묘사되는 반면, 본서에서는 열방의 주관자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다(참조, 삼하 24:1; 대상 21:1).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까지 자신의 주도권 아래에 들으로써 사단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음을 잘 나타내 준다(참조, 욥 1:6).

8. **㉠** '곡'은 어떠한 생각으로 이스라엘 땅을 침공할 것인가? (10절)

- ㉠** (1) 그는 야심과 탐욕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빼앗고 악한 피로 재물을 약탈할 것이다.
 (2) 그런데 이러한 악한 생각을 갖게 하는 '마음'은 히브리어로 <테바립>이라 하는데 이 말은 '사물들'이나 '말들'(words)을 의미하지 않고 마음속에 떠오르거나 들어온 생각을 가리킨다(참조, 막 7:21).
 (3) 이것은 유사한 뜻을 가진 히브리어 <하셉>의 뜻이 '생각을 품다', '악한 생각을 고안하다'인 것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4) 이와 같이 악한 생각은 항상 의로운 자를 상하게 하며 결국은 자신마저도 파멸로 이끌어 간다.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욕심에 이끌려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악한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있어야 한다(욥 28:28; 살전 5:22).

9. **㉠** '평원의 고을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1절)

- ㉠** (1) 그것은 외적이 침입하기 쉬운 곳으로 전혀 방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땅을 가리킨다.
 (2) 즉 문자적으로는 들판의 땅이나 방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고을을 말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음을 알려 준다(참조, 사 18:7, 8; 렘 49:31).
 (3) 그런데 이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성벽이나 문, 문빗장도 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음을 가르쳐 준다.
 (4)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두려움이 없

어졌음을 가리킨다.

- (5)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신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없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속 2:4, 5).

10. **㉠**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은 어느 민족을 가리키는가? (12절)

- ㉠** (1)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
 (2) 이것은 그들이 열방 중에서 가장 귀한 지위를 차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영광과 축복을 받게 됨을 가리키는 말이다.
 (3)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하여 침공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의 행위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침공하는 것이다.
 (4) 그런데 이러한 축복의 민족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5)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여야 한다(참조, 롬 6:4; 8:1; 고후 5:7; 엡 4:1; 5:2; 5:15; 골 2:6; 요일 1:7; 2:6).

11. **㉠** 이스라엘을 침공한 '곡'의 행위에 대해 열방은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 (13절)

- ㉠** (1)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商賈)와 그 부자들은 '곡'의 이스라엘 침공은 탐심이 원인이었다고 말할 것이다.
 (2) 그런데 여기서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商賈)에 대해 언급한 이유는 그들도 탐심이 가득한 자들로서 그들의 사나움과 매정함에 대한 소문이 세상에 이미 알려졌기에 비교가 되기 때문이다(참조, 27장 **㉠** 11, 14, 18).
 (3) 즉 악한 자들은 서로가 상대방의 마음을 자신의 악한 마음을 근거로 하여 평가하기에 자신들끼리는 그 행동을 보기만 하여도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다.
 (4) 이와 같이 악인들은 그 사고 방식이 모두 악에 기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늘 타인을 침해하고 이용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그러나 이같이 검은 마음은 우리들 속에서도 늘 움직일 기회를 엿보기 때문에 그 근본이 되는 욕심을 없애야 한다(약 1:14, 15).

12. **㉠** 모두 말을 타고 이스라엘 땅을 침공한 '곡의 무리'는 어느 민족인가? (15절)

- ㉠** (1) 고대의 유대인 전통과 비잔틴 그리고 아랍 학자들은 '곡의 무리'인 마곡 백성을 스키타아(Scythia) 족속으로 본다.
 (2) 한편 그리이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Herodotus)의 기록에 의하면 스키타아의 기마대는 B. C. 626년 앗수르를 침공한 후 그 여세를 몰아 남진(南進)하여 유대를 짓밟았으나 그들은 곧 돌아서 물러간 것으로 되어 있다.
 (3) 그들은 비록 강한 군대를 이끌고 무방비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그 땅을 점령하려 했으나 결국 자신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운명에 빠지고 말았다(39:2-6).

13. **㉠** 하나님께서 '곡의 무리'를 불러 이스라엘을 치게 하실 이유는 무엇인가? (16절)

- ㉠** (1)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앞에서 거룩하심을 나타내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이유에서였다.
 (2) 즉 하나님께서는 악한 '곡의 무리'들을 충동하여 평화롭고 무방비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을 침공케 하심으로써 악인이 범죄하였을 때 어떠한 형벌을 받는지를 공의의 심판을 통해 보여 주시려 하셨다.
 (3) 그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통해 악인은 멸하고 의인은 비록 악인의 억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평안을 누리게 됨을 보여 주시려 하셨다.
 (4) 그러므로 여러 나라를 침공한 '곡의 무리'를 아는 이방의 열국들은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볼 때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5) 이처럼 우리 주변의 여러 악한 존재들이 지금은 비록 악한 자들을 억압하고 괴롭힐지는 모르나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악인들의 행위에 대해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참조, 렘 17:10; 32:9; 마 16:27; 롬 2:6; 벰전 1:17; 계 2:23; 20:12; 22:12).

14. **㉠**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곡’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7절)

- ㉠** (1)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시기를 위한 것이었다.
- (2) 그러나 예전의 선지자들이 반드시 곡에 대해 예언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곡’이 예전에도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대적자란 사실을 말하려는 의도에서 ‘곡’에 대한 예언이 옛적에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 (3) 한편 옛적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영원한 주의 나라가 도래하리라는 예언을 하였다(사 10:6; 17:14; 25:5, 10-12; 26:21; 렘 30:23, 25; 욥 3:2-21).
- (4)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 같은 약속은 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믿는 성도들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아야 한다.

15. **㉠**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는 표현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18절)

- ㉠** (1) 이것은 하나님을 의인화(擬人化)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 (2) 그런데 ‘내 노’로 번역된 히브리어 <베아피>는 짧은 코의 숨을 의미한다(참조, 시 18:9, 16). 또 이 말은 성난 사람의 몸짓이나 짐승들의 성난 모습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
- (3) 이같이 자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진노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아끼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신 7:8; 시 146:8).
- (4)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과 대적자들로부터 자신의 백성인 우리를 지켜 주시리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신 32:10; 삼상 30:23; 시 145:20).

16. **㉠**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땅에 일어날 일은 무엇인가? (19, 20절)

- ㉠** (1) ‘곡’을 심판하여 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는 지진과 그로 인해 지면에 살아 있는 모든 피조물의 두려움 그리고 모든 산과 절벽과 성벽이 무너지는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 (2)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에 온 세상이 떠는 모습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일어난 사실에 근거한다(출 19:16; 욥 3:16; 숙 14:4, 5).
- (3) 이와 같이 인간의 합리적 사고를 초월하는 초자연적 현상들은 우리들에게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하여 우리가 축소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만물에게 나타내 보인다(시 18:7-15; 29편; 68:7-9; 습 1:14-18; 욥 2:31, 32).

17. **㉠** 이스라엘을 침략한 ‘곡의 군대’는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21, 22절)

- ㉠** (1) 그들은 서로의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며 질병과 자연의 재해로 멸절될 것이다.
- (2) 그런데 자신들의 칼로 서로 죽임을 당하는 심판은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 족속의 패배(삿 7:22)에서 그 전형적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대하 20:23).
- (3) 악인들의 이 같은 멸망은 곧 자신들의 악한 요소가 자신들을 스스로 파멸시키는 모습을 보여 준다.
- (4) 따라서 타인을 괴롭히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내부에 있는 악의 요소에 의해 스스로 파멸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이다(시 141:10; 잠 11:5; 12:26).

제 39 장 곡에게 여호와와 심판이 내리다

단락구분 1-7 곡의 파멸이 선언되다 / 8-10 곡의 무기가 불탈 것이다 / 11-16 그들의 시체가 땅에 묻힐 것이다 / 17-20 땅에 묻히지 못한 시체는 새들의 먹이가 되리라 / 21-24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이유 / 25-29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1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 발 왕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2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3 내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살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4 너와 네 모든 떼와 너와 함께 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5 내가 빈 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

6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밋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7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8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불지이다 그 일이 이르고 이루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니라

9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 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활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칠 년 동안 불 피우리라

10 이와 같이 그 병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며 삼림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누탈하던 자의 것을 누탈하리라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

11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편 사람의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것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12 이스라엘 족속이 일곱 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13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장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

14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장사할 사람으로 더불어 지면에 남아 있는 시체를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일곱 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15 순행하는 자가 그 땅으로 통행하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표를 세워 장사하는 자로 와서 하몬곡 골짜기에 장사하게 할 것이요

16 성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와 같이 그 땅을 정결케 하리라

17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망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이다

18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 듯할지라

19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쁨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토록 마시되

20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

21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22 그 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23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24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었느니라

25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은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26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27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라

28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

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29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 ㉠ 본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의 예언을 요약하라.

㉠ (1) 본장에는 38장에 이어 곡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과 이스라엘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약속되어 있다.

(2)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인 곡은 철저하게 파멸되어 매장지를 찾아야 하는 운명에 빠질 수밖에 없다.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이에 반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3)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잘 나타내 준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심판을 통해 자신의 의로움과 거룩하심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계셨다.

2. ㉠ ‘곡의 군대’가 싸움을 못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조처를 취할 것인가? (3절)

㉠ (1) 그들의 활을 쳐서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화살을 오른손에서 떨어뜨릴 것이다.

(2) 이스라엘 땅을 노략하러 온 ‘곡의 군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므로 자신들의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패하게 될 것이다.

(3) 이들을 전쟁터로 내보낸 분도 하나님이셨으며 그들에게 악한 마음을 발동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앞에 어떤 계획이 예비되었는지도 모르고 전쟁터로 달려들었고 이제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4) 이들의 이 같은 행동은 곧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인식치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마음에 악을 품고 타인을 해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대하 19:7).

(5) 이와 같이 악인은 자신의 마음대로, 즉 소욕(所欲)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으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아서 행동하므로 그 일이 형통할 수 있는 것이다(참조, 함 2:4).

3. ㉠ ‘곡’의 운명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4, 5절)

㉠ (1) 악인은 지혜와 능력이 있을지라도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2) 악인이 지금 누리는 부귀와 영화(榮華)가 비록 화려해 보이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지 모르나 그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城)과 같아서 곧 무너지고 말 것이다(마 7:26, 27).

(3)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결코 악한 방법이 아닌 선한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여야 하며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롬 2:7, 10; 8:28; 갈 6:9).

4. ㉠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란 무슨 의미인가? (6절)

㉠ (1) 그것은 ‘곡의 군대’에 대한 형벌이 그들의 고국(故國)과 이방 국가에도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

(2) 여기서 ‘불’은 그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형벌을 가리킨다(참조, 38:22; 제 20:9).

(3)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같은 형벌을 내리시는 이유는 ‘곡’을 비롯하여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참조, 28:18;30:8).

(4) 이처럼 자연적 재앙(38:22) 뿐만 아니라 세계의 정치적 변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계신다. 따라서 이 사실을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소유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 잠1:7;9:10).

5.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곡의 군대’를 심판하신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7절)

㉠ (1)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2) 즉 그들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며 우상을 숭배하고 포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22:2-12).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행동으로 자신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셨는가를 깨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알 뿐 아니라 다시는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36:23).

(3)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환난과 절고를 겪은 후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신앙은 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진실한 신앙이라 할 수 있다(욥 23:10; 시 66:10; 벰전 1:7).

6. **㉠** ‘그 일이 이르고 이루리니’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8절)

㉠ (1)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 일,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다.

(2) 왜냐하면 비록 이 예언이 훗날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3) 한편 ‘그 일이 이루어질 그날’은 심판 날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은 과거에도 자주 있었다(사 17:12-14;30:27-33;64:1-4; 습 1:14-18; 욥 2:28-32; 학 2:21; 습 14:3, 4).

(4) 비록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에는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으나 그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참조, 히 11:1; 약 5:7).

7. **㉠** 이스라엘 백성은 ‘곡의 군대’로부터 빼앗은 무기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9, 10절)

㉠ (1) 그들은 ‘곡의 군대’가 버리고 간 무기를 뿔감으로 7년간 사용하여 뿔감을 찾아 나서지 않을 것이다.

(2) 여기서 ‘곡의 군대’가 버리고 간 모든 무기를 태우는 이유는 그 대적의 흔적을 깨끗이 없애기 위한 것이며, 그것을 7년 동안 태운다는 데서 ‘7’이란 수자는 하나님의 심판 곧 신적(神的) 심판의 완전성을 상징한다(12절).

(3) 이처럼 아무리 강한 군대, 가공(可憐)할 무기라 할지라도 권능의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무용지물(無用之物)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참조, 왕하 19:28; 욥 12:19; 잠 21:1).

8. **㉠** ‘하몬곡의 골짜기’는 어디를 말하는가? (11절)

㉠ (1) 그곳은 하나님께서 ‘곡과 그 무리들’ 매장하기 위해 준비하신 곳으로 바다 동편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말한다.

(2) 그런데 그 골짜기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 사해(死海) 뒤편 골짜기가 가장 유력하다(47:8).

(3) 한편 그 골짜기는 애굽과 갈대아 사이를 왕래하는 여행자들이 지나던 길이었으나 그곳이 매장지가 됨으로써 더 이상 교통로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4) 그리고 그곳의 이름은 ‘하몬곡의 골짜기’로 불리울 것인데, 그 뜻은 ‘곡의 무리의 골짜기’란 뜻이다.

(5) 이처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결국 하나의 끝짜기를 대우는 존재에 불과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만일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가 있다면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삼상 12:15).

9. **㉠** 이스라엘 족속이 '곡의 무리'를 장사(葬事)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2, 13절)

㉠ (1) 그 이유는 그들의 시체로 이스라엘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2)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그 땅을 더럽히려는 의도(38:12)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 모두 이스라엘의 산과 들에 널린 시체로 변하고 만다(4, 5절). 따라서 이스라엘 족속은 이방인의 시체로 더럽혀진 자신의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해 '곡의 무리'를 매장하여야 한다.

(3) 과거 이방의 종교와 관습 그리고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통해 더럽혀진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들려진 새 땅에서 정결한 생활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침략으로 더럽혀진 땅을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참조, 신 21:23).

(4)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죄를 씻은 우리 성도들은 육체 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레 19:2; 고전 3:16).

10. **㉠** '곡의 무리'를 장사하는 행위는 결국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13절)

㉠ (1) 그 행위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행위이며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도 명성을 얻을 것이다.

(2) 즉 그들의 선한 행위는 곧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마 5:16)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는 그 백성도 이름을 높일 수 있게 된다.

(3) 이와 같이 대적자(對敵者)에게라도 자비를 베푸는 선행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이들에게 나타내는 결과를 가져오며 자신의 이름도 나타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이들은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참조, 마 5:16).

11. **㉠**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뽑은 자들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14, 15절)

㉠ (1) 그들은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니며 남은 시체를 장사(葬事)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하는 일을 맡을 것이다.

(2) 이들은 그 땅을 두루 다니다가 시체를 만나면 그곳에 표를 하고 그 표식을 본 장사하는 자들로 시체를 가져다가 '하몬곡의 끝짜기'에 장사하도록 돕는 일을 맡을 것이다.

(3) 그런데 이 일은 시체를 매장하는 7개월 동안 뿐만 아니라 묻히지 않은 뼈가 없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4) 이와 마찬가지로 개혁을 목표로 하는 국가나 교회 그리고 개인까지라도 정화(淨化)는 끊임없이 계속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개혁의 의지가 진행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곳에는 항상 더러운 것들이 끼어들게 마련이기 때문이다(참조, 사 1:16; 눅 1:74, 75).

12. **㉠** '하몬곡 끝짜기'가 있는 성읍의 이름은 무엇인가? (16절)

㉠ (1) 그 이름은 하모나이다.

(2)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땅을 정결케 한 사업을 기념하기 위해 그 성(城)에 새로운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어 <하몬>에서 유래한 <하모나>로서 곧 '무리'란 뜻이다(39:11).

(3) 이와 같은 사건과 사업을 후손들에게 교훈으로 남기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교육은 조상들의 슬기로운 업적을 기억하고 보존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이다(출 12:1-14; 수 4:6, 7; 7:26).

13. **㉠**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각종 새와 들짐승들을 불러모으라고 명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7절)

- ㉠** (1) 그것은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하신 잔치에 그들을 초대하여 피와 고기를 먹게 하기 위해서이다.
 (2) 그런데 본질은 ‘곡의 무리’를 장사지내는 부분과 연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4절과 연결된다.
 (3) 여기서 이스라엘의 회생 제사에 각종 짐승을 초대하는 것은 죄인인 ‘곡의 무리’를 회생 제물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4) 즉 의기 양양하게 이스라엘 땅을 침공한 ‘곡의 무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낱 짐승의 밥이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까지 이방의 노예로 억눌림을 당한 처지에서 이제는 자신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비참해지는 모습을 보며 위로를 받게 된다(참조, 습 1:7).
 (5)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믿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들의 억울함과 한(恨)을 풀어 주실 것이다(참조, 사 40:27-31).

14. **㉠** 용사와 세상 왕들은 무엇에 비유되었는가? (18-20절)

- ㉠** (1) 그들은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 그리고 염소나 수송아지에 비유되었다.
 (2) 이들 짐승은 모두 제사의 회생 제물로 사용되는 것으로 각기 희생된 ‘곡의 군대’의 사령관, 장군, 병사를 상징한다.
 (3) 한편 ‘바산’은 그 남부에 비옥한 목초 지대와 넉넉한 물로 짐승을 기르기에 적당했으며 그곳에서 자란 짐승들은 모두가 살지고 건강하였다(신 32:14; 시 22:12; 미 7:14).
 (4) 그러므로 막강한 ‘곡의 군대’는 바산의 살진 짐승에 비유되었다. 그들은 ‘내상(床)’ 곧 전장에서 죽임을 당해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뜯기는 운명이 되었다(참조, 제 19:18).
 (5)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히는 자들은 비록 그들에게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참조, 시 1:5; 미 7:9; 제 18:20).

15. **㉠** ‘곡’의 침략과 멸망에서 열국과 이스라엘이 깨달을 바는 무엇인가? (21-24절)

- ㉠** (1) 이방의 열국들은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2) 또한 그들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3) 한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을 대적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께서는 자신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16:53, 54).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을 들을 수 있다(시 119:67; 고후 4:17).

16. **㉠**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하실 행동은 무엇인가? (25-27절)

- ㉠** (1) 그것은 열국이 보는 앞에서 사로잡혀 있던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고국으로 불러모으시는 것이다.
 (2)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신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대적자의 손에서 보호하시는 것을 볼 때 자신들의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또 그 소행(所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3)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새 신(神)을 부어 그들로 하여금 부드러운 마음

을 갖게 하심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행위는 그 자체가 사랑과 긍휼이다. 자신의 백성을 깨닫게 하시는 채찍질과 고통 중에 신음하는 백성을 감싸주시는 위로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 모두가 사랑과 긍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할 바는 단지 그 사랑을 결코 잊지 않는 것이다(참조, 신 6:5; 7:8; 롬 5:8).

17. **Q**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은 무엇인가? (29절)

- A** (1)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자신의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셨다.
 (2)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어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이다. 즉 거듭난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그런데 본질의 이스라엘은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예표해 주고 있다. 따라서 거듭난 오늘날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간구해야 한다(시 51:11).

연구자료

유대교에 끼친 에스겔의 영향. 에스겔은 에스라와 더불어 유대교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그는 바벨론 포로 이전 시대에 태어나 친히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은 자로서 민족의 멸망을 가져왔던 우상 숭배에 대하여 장래의 이스라엘을 보호할 제반 규례들을 재정립하는 일에 지대한 공헌을 끼쳤다. 이러한 규례에 대한 언급은 40-48장에 상세히 나오는데 곧 새 성전과 제사 제도에 관한 것들이다. 이처럼 에스겔은 유대교에서 강조되고 있는 의식주의(ritualism)를 존중한 자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유대인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되는 도덕적 규범과 그 가치를 무시한 것은 아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배도(背道) 행위와 그로 말미암은 시련, 바벨론 포로 생활 등과 같은 과거사에서 얻은 교훈을 기초로 하여 율법에 대한 엄격한 순종뿐 아니라 자신의 선한 양심을 좇아 행동할 것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한편 이상과 같은 제도적인 것 외에도 에스겔은 개인의 불멸 및 육체의 부활 등과 같은 유대교의 주요 교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참조, 37장). 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신비주의 사상은 에스겔이 본 여러 환상들에 영향을 입은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B. C. 2세기와 A. D. 2세기 사이에 광범위하게 생겨 났던 묵시 문학도 에스겔이 본 여러 환상들의 형식을 빌린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같은 작품들은 영감(靈感)된 것들이 아니며 정경(正經)으로 취급되지도 못하였다.

제 40 장 에스겔이 미래에 세워질 성전의 환상을 보다

단락구분 1-4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 성전을 환상 중에 보이시다 / 5 외곽을 설명하다 / 6-19 동편 문을 설명하다 / 20-23 북문을 설명하다 / 24-31 남문과 부속 건물 / 32-38 동쪽과 남쪽을 향한 안뜰을 설명하다 / 39-43 식탁에 대해 설명하다 / 44-47 제사장들의 방 / 48-49 현관의 구조

1 우리가 사로잡힌 지 이십 오 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십 사 년 정월 십 일 곧 그날에 여호와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2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3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늦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척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4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5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척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육척이라 그 담을 척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6 그가 동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통을 척량하니 장이 한 장대요 그 문 안통의 장도 한 장대며

7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장이 한 장대요 광이 한 장대요 매방 사이 벽이 오척이며 안 문통의 장이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8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척량하니 한 장대며

9 안문의 현관을 또 척량하니 팔 척이요 그 문 벽은 이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10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좌편에 셋이 있고 우편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한 척수요 그 좌우편 벽도 다 한 척수며

11 또 그 문통을 척량하니 광이 십 척이요 장이 십 삼 척이며

12 방 앞에 퇴가 있는데 이편 퇴도 일 척이요 저편 퇴도 일 척이며 그 방은 이편도 육 척이요 저편도 육 척이며

13 그가 그 문간을 척량하니 이 방 지붕 가에서 저 방 지붕 가까지 광이 이십 오 척인데 방 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14 그가 또 현관을 척량하니 광이 이십 척이요 현관 사면에 돌이 있으며

15 바깥 문통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오십 척이며

16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17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 뜰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삼십이며

18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광이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19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척량하니 그 광이 일백 척이며 동편과 북편이 일반이더라

20 그가 바깥 뜰 북향한 문간의 장광을 척량하니

21 장이 오십 척이요 광이 이십 오 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편에도 셋이요 저편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척량한 문간과 같으며

22 그 창과 현관의 장, 광과 종려나무가 다 동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일곱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23 안뜰에도 북편 문간과 동편 문간과 마주 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편 문간까지 척량하니 일백 척이더라

24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척량하니 먼저 척량한 것과 같고

25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장이 오십 척이요 광이 이십 오 척이며

26 또 그리로 올라가는 일곱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편, 저편 문 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27 안뜰에도 남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편 문간까지 척량하니 일백 척이더라

28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으로 말미암아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간을 척량하니 척수는

29 장이 오십 척이요 광이 이십 오 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척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30 그 사면 현관의 장은 이십 오 척이요 광은 오 척이며

31 현관이 바깥 뜰로 향하였고 그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32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편으로 가서 그 문간을 척량하니 척수는

33 장이 오십 척이요 광이 이십 오 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척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34 그 현관이 바깥 뜰로 향하였고 그 이편, 저편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35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척량하니 척수는

36 장이 오십 척이요 광이 이십 오 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37 그 현관이 바깥 뜰로 향하였고 그 이편, 저편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38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39 그 문의 현관 이편에 상들이 있고 저편에 상들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회생을 잡게 한 것이며

40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편에 상들이 있고 문의 현관 저편에 상들이 있으니

41 문 곁 이편에 상이 넷이 있고 저편에 상이 넷이 있어 합이 여덟 상이라 그 위에서 회생을 잡는 소용이며

42 또 다들은 들로 만들어서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각 장이 일 척 반이요 광이 일 척 반이요 고가 일 척이라 번제의 회생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43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면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회생의 고기가 있더라

44 안 문안 안뜰에는 방들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으로 향하였더라

45 그가 내게 이르되 남향한 이 방은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쓸 것이요

46 북향한 방은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47 그가 또 그 뜰을 척량하니 장이 일백 척이요 광이 일백 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전 앞에 있더라

48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척량하니 광이 이편도 오 척이요 저편도 오 척이며 두께가 문 이편도 삼 척이요 문 저편도 삼 척이며

49 그 현관의 광은 이십 척이요 장은 십일 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 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편에 있고 하나는 저편에 있더라

1. ㉔ 본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환상을 요약하라.

- (A) (1) 본장에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루살렘에 인도되어 환상 가운데 새 성전의 자세한 모습을 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2) 그런데 환상 중에 언급된 건물의 치수는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 치수는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 (3) 또한 선지자는 이미 ‘솔로몬의 성전’을 보고 그보다 더 훌륭한 성전이 세워지기를 희망한 것 같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가 제사장 가문(家門)에서 태어나 바벨론에 포로가 되기 이전까지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1:3;8장;40:46;43:19;44:10-15;45:3-25;48:11;왕상 1장).
- (4) 한편 본장의 기록 목적은 바벨론의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새 성전을 지어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게 하는

데 있다.

3. **㉠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그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간 때는 언제인가? (1절)**

- ㉠ (1) 그때는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25년이 되는 때로 예루살렘 성(城)이 함락(陷落)된 후 십사년 정월 십일이다.
- (2) 그런데 태양력으로는 그때가 B. C. 573년 3, 4월경에 해당되며 ‘정월 십일’은 그 해의 첫달인 아빍 월 10일 곧 민간력 7월 10일을 말한다(출12:2).
- (3) 또한 그날은 유월절을 예비하는 날(출12:3)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날이기도 하다(수4:19).
- (4) 그러므로 이날은 사슬에 얽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과 해방을 얻는 날이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회복의 계시를 받는 날이 되었다.

4. **㉠ 에스겔이 본 ‘눗같이 빛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가? (3절)**

- ㉠ (1)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천사이다.
- (2) 그런데 우리는 ‘눗같이 빛난다’는 표현에서 1:5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9:2의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와도 비교가 된다.
- (3) 여기서 ‘눗’은 확실함과 견고함을 보여 주며 그가 지닌 ‘삼줄’과 ‘장대’는 목수들이 가진 먹줄과 자를 대신한다.
- (4) 그런데 이 측량 기구들은 파괴하는 기구들과(9:1) 대조를 이루어 새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을 상징한다.

5. **㉠ ‘눗같이 빛난 사람’이 에스겔에게 명한 내용은 무엇인가? (4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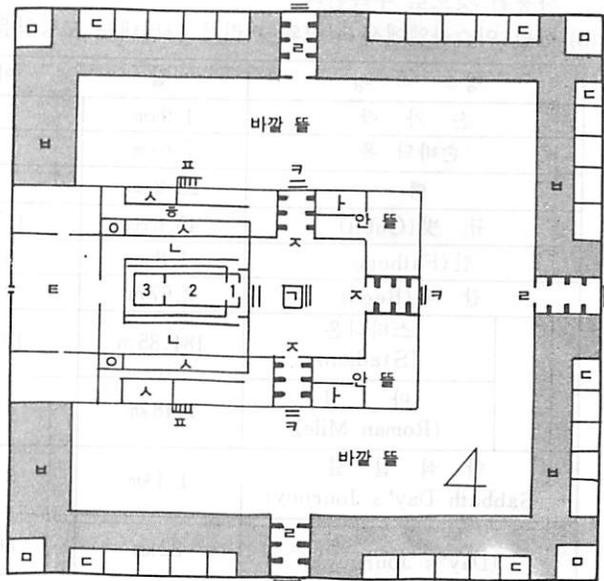
- ㉠ (1) 그는 에스겔에게 그가 보여 주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하여 본 것을 모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야 한다고 명했다.
- (2) 즉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본 것을 주의 깊게 살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려는 말씀을 정확히 전해야 하는 것이다.
- (3) 이와 같이 오늘날에 있어서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먼저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올바르게 깨닫고 전해야 한다.

6. **㉠ 에스겔 성전의 평면도를**

그러라 (5, 6절).

㉠ 에스겔의 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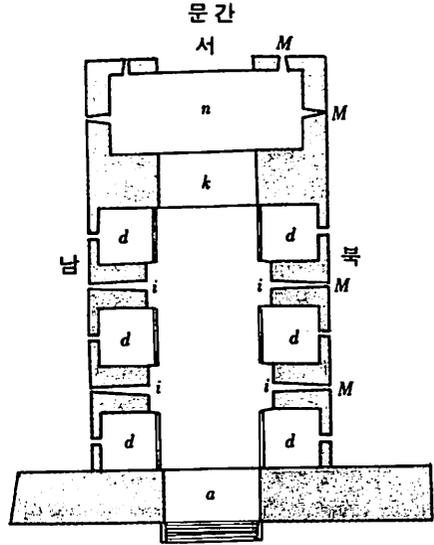
- ㄱ: 계단
- ㄴ: 구별된 장소
- ㄷ: 방
- ㄹ: 성전 바깥문
- ㅁ: 부엌
- ㅂ: 보도
- ㅅ: 제사장의 방
- ㅇ: 제사장의 부엌
- ㅈ: 성전 안문
- ㅊ: 성전 바깥벽
- ㅋ: 안문 계단
- ㅌ: 서편 뜰 뒷건물
- ㅍ: 통행구
- ㅎ: 통로
- ㅊ: 안문 결방
- 1: 현관
- 2: 성소 3: 지성소



7. ㉠ 성전의 문에 대해 설명하라 (6-16절).

- ㉠ (1)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문은 성전의 삼면(三面) 곧 남쪽, 동쪽, 북쪽에 있었으며 바깥 문을 들어서서 바깥 뜰을 지나 성전 안뜰로 들어가려면 안문을 통과해야 한다.
 (2) 그런데 성전의 바깥 문과 안문은 구조와 치수가 모두 같았다.
 (3) 한편 성전 문간의 단면도를 그리면 다음과 같다.

a : 문통
 d : 문지기 방
 k : 현관
 n : 안 문
 i : 창
 M : 창



8. ㉠ 집 바깥 사면을 둘러싼 담의 치수는 얼마인가? (5절) 동

- ㉠ (1) 그 담은 두께가 육 척(尺)이며 높이도 육 척이었다(참조, ㉠6).
 (2) 여기서 척(尺)은 히브리 치수로 '규빗'에 해당하며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가리킨다.
 (3) 그런데 본절에서 언급된 규빗은 정상적인 규빗보다 손바닥 넓이만큼 더 길다. 그러므로 본절에서 언급된 '규빗을 정상 규빗으로 따지면 6 규빗 6 손바닥 넓이 만큼 길이가 된다.
 (4) 따라서 담의 두께와 높이를 미터로 환산하면 각각 약 3.2m가 된다. 그렇지만 고대 모세의 성전 규빗은 짧은 곧 정상 규빗이 사용되었으며 긴 규빗은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5) 한편 이스라엘에서 길이와 거리를 나타내는 도량형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명 칭		길	이	관계 성취
손 가 락		1.9 cm		렘 52:21
손바닥 폭		7.6 cm		출 25:25
뿔		22.8 cm		출 28:16
규 빗(Cubit)		45.6 cm	1.5자	창 6:15
길(Fathom)		1.8 m	6자	행 27:18
갈 대(Reed)		2.67 m	9자	계 21:15
리	스타디온 (Stadion)	184.85 m	1/2리	마 14:24 눅 24:13
	마 일 (Roman Mile)	1.48 km	4 리	마 5:41
안 식 일 길 (Sabbath Day's Journey)		1.1 km	3 리	행 1:12
하 쫓 길 (Day's Journey)		32 km	80리	출 3:18; 요 3:34; 눅 2:24

(6) 그런데 이 도량형은 신약 시대에 사용되던 것으로 그 수치는 정확한 척도가 없이 일상 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것들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동시대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심했다.

9. **㉠ 동향(東向)한 문의 특징은 무엇인가? (6절)**

- ㉠** (1) 동향한 문 곧 동문(東門)은 남문, 북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는 세 입구 중 하나이다 (참조, ㉠6).
- (2) 그런데 그 문통 곧 문지방의 길이(동에서 서로)는 6 규빗이며 문간을 지나 뜰안으로 들어가는 문지방의 길이도 6 규빗이다(7절).
- (3) 그러므로 문통의 길이는 곧 외벽의 두께와 같았으며 성벽에 문통을 설치한 구조였다 (참조, ㉠7).

10. **㉠ 문지기 방들의 용도는 무엇인가? (8절)**

- ㉠** (1) 그곳은 성전을 경비하는 자들이 거처하는 곳으로 사용되었다.
- (2) 이 문지기 방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성전의 기록을 지키기 위한 문지기들이 거처하던 곳이었다(44:11, 14).
- (3) 이처럼 거룩한 곳이나 존재는 더러운 것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져야 한다. 왜냐하면 거룩한 것이 있음으로 인해 우리의 거룩한 생활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11. **㉠ 안문 현관의 치수는 얼마인가? (8,9절)**

- ㉠** (1) 이 현관의 치수가 8절과 9절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간에 혼란이 많았으며 70인역(LXX)에서는 8절을 삭제해 버리기까지 했다.
- (2)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현관의 치수가 한 장대 곧 6규빗(3.1m)이라는 것은 현관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갠 길이로 이해할 수 있으며, 9절에서 8규빗(4.3m)이라는 것은 6규빗에 현관에서 바깥 뜰로 들어가는 중간에 있는 벽의 길이(2규빗)를 합한 치수로 이해할 수 있다(참조, ㉠7).
- (3) 따라서 현관 자체의 길이와 벽까지 포함시킨 넓은 의미의 현관의 치수를 8 규빗으로 보면 8절과 9절의 혼란은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할 수 있다.

12. **㉠ 문지기의 방 앞에는 각각 무엇이 있었는가? (12절)**

- ㉠** (1) 방 앞에는 각 방마다 퇴 곧 난간이 있었다.
- (2) 그런데 각각 사방 1규빗 규격의 이 난간은 문지기 방과 별도의 공간이 아니라 벽에서 돌출한 부분들이 난간을 형성하였다.
- (3) 그리고 그 기능은 문지기들이 그곳에 서서 성전을 출입하는 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성전 뜰로 들어가려면 좌우 문지기 방들 앞에 있던 난간 사이를 통과해야 했다.

13. **㉠ 동문(東門)에서 창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16절)**

- ㉠** (1) 현관과 모든 문지기 방의 바깥 벽과 안쪽 벽에는 조그만 창이 있었다.
- (2) 그런데 이 창들은 빛이 들어올 수 있으며 통풍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 (3) 그러나 이 창들은 바깥 벽을 향해 썩기 모양을 하고 있었으므로 창을 통해 출입은 할 수 없었다.

14. **㉠ 각 문 벽 위에는 무엇을 새겼는가? (16절)**

- ㉠** (1) 문 좌우의 벽에는 문을 떠받치기 위해 버팀대가 있었는데 그 버팀대에는 종려(棕櫚) 나무가 새겨져 있다.
- (2)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식물의 생명력과 풍요로움 그리고 영광을 잘 나타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조각에 사용되었다.

(3) 이처럼 우리의 능력과 풍요는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항상 사용되어야 한다.

15. **㉠ 바깥 뜰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었는가? (17-19절)**

㉠ (1) 바깥 뜰 삼면에는 박석(礫石) 깔린 땅과 30개의 방이 있었다.

(2) 여기서 ‘박석 깔린 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리츠파>는 문자적으로는 포장을 ‘단단하게 하다’, ‘돌 덮개를 하다’라는 뜻으로 바닥을 덮는 돌을 말한다. 따라서 그것은 진흙이 묻지 않게 돌로 포장한 보도를 가리킨다(대하 7:3).

(3) 그런데 그 보도 위에는 30개의 방들이 있었는데 이 방들은 성전에 부속된 건물(히, 리쉬카)로 제사장들이 거주하거나 화목제 잔치를 위해 사용되던 곳이다.

(4) 한편 아래 문간 곧 바깥 뜰 문간과 그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안뜰 문간 사이의 거리는 100규빗(52.5m) 이었다.

16. **㉠ 북문과 남문의 구조와 크기를 설명하라 (20-27절).**

㉠ (1) 북문과 남문은 모두 그 구조와 크기 그리고 장식에 있어서 동문과 똑같았다.

(2) 그런데 성전 밖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려면 각 문 앞에 있는 일곱 계단을 올라서야 문간에 들어설 수 있었다.

17. **㉠ 안뜰로 들어가는 문의 구조와 크기는 바깥문과 어떻게 다른가? (28-37절)**

㉠ (1) 바깥문과 안뜰로 들어가는 문은 그 구조와 크기 그리고 장식까지도 모두 같았다.

(2) 그러나 바깥 뜰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문을 들어서려면 여덟 계단을 올라서야 했다.

18. **㉠ 북문의 현관 주위와 문간 결방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38-43절)**

㉠ (1) 현관 주위에서는 번제와 속건제 그리고 속죄제에 쓰일 희생 제물을 잡았으며 문간 결방은 번제물(燔祭物)을 씻는 방이었다(참조, ㉠ 7).

(2) 그리고 현관 양쪽에는 제물을 잡는 상이 각각 둘씩 있었고 현관 바깥에도 같은 용도의 상이 양쪽에 둘씩 있었다. 따라서 제물을 잡는 상은 현관 안과 바깥에 각각 네 개씩 모두 여덟 개였다.

(3) 또한 다듬은 돌로 만든 번제용 상이 네 개 있었는데 이 상들은 기구들을 두기 위한 상이었다.

(4) 한편 현관 안쪽 벽에는 희생 제물을 걸어 두기 위한 갈고리들이 걸려 있었다.

(5) 그러므로 이곳은 희생 제물을 잡고 제단에 올려 놓기 전에 그것을 최후로 손질하는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 **㉠ 안뜰 결방의 용도는 무엇인가? (44-46절)**

㉠ (1) 북문 곁에 있는 방은 성전을 맡은 제사장들을 위한 방이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제단을 맡은 제사장을 위한 방이었다(참조, ㉠ 6).

(2) 그런데 이들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중 사독의 자손들이었다(참조, 44장 ㉠ 9).

20. **㉠ 성전의 현관 구조를 설명하라 (48, 49절).**

㉠ (1) 현관의 좌우에는 길이가 5 규빗(2.6m), 폭이 3 규빗(1.6m)인 벽이 튀어 나와 있었다.

(2) 그리고 현관 내부는 폭이 20 규빗(10.5m) 길이가 11 규빗(6.3m)이었으며 안뜰에서 현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다.

(3) 한편 현관 입구 양쪽에는 기둥이 하나씩 있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이와 유사한 두 기둥을 ‘야긴’ (뜻: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과 ‘보아스’ (뜻: 저가 세우리라)란 이름을 붙여서 불렀다(왕상 7:15).

제 41 장 성전의 구조와 장식

단락구분 1-4 성소와 지성소의 규모 / 5-11 성소의 부속 건물 / 12-14 성전 뜰과 외부 건물 / 15-20 성전 벽의 장식 / 21-22 나무 제단 / 23-26 성소와 지성소의 문

1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척량하니 이편 두께도 육 척이요 저편 두께도 육 척이라 두께가 이와 같으며

2 그 문통의 광이 십 척이요 문통 이편 벽의 광이 오 척이요 저편 벽의 광이 오 척이며 그가 성소를 척량하니 그 장이 사십 척이요 그 광이 이십 척이며

3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통의 벽을 척량하니 두께가 이 척이요 문통이 육 척이요 문통의 벽의 광이 각기 칠 척이며

4 그가 내전을 척량하니 장이 이십 척이요 광이 이십 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5 전의 벽을 척량하니 두께가 육 척이며 전 삼면에 골방이 있는데 광이 각기 사 척이며

6 골방은 삼 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삼십이라 그 삼면 골방이 전 벽 밖으로 그 벽에 의지하였고 전 벽 속은 범하지 아니하였으며

7 이 두루 있는 골방이 그 층이 높아 갈수록 넓으므로 전에 돌린 이 골방이 높아 갈수록 전에 가까와졌으나 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윗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8 내가 보니 전 삼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밑 지대의 고가 한 장대 곧 큰 자로 육 척인데

9 전을 의지한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오 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10 전 골방 삼면에 광이 이십 척 되는 뜰이 둘러 있으며

11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러 있는 빈터의 광은 오 척이더라

12 서편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광이 칠십 척이요 장이 구십 척이며 그 사면 벽의 두께가 오 척이더라

13 그가 전을 척량하니 장이 일백 척이요 또 서편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장이 일백 척이요

14 전 전면의 광이 일백 척이요 그 앞 동향한 뜰의 광도 그러하며

15 그가 뒷뜰 뒤에 있는 건물을 척량하니 그 좌우편 다락까지 일백 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16 문통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러 있는 다락은 문통 안편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으로 가리웠고(창은 이미 닫혔더라)

17 문통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면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척량한 대소대로며

18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으며 매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19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편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편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전 사면이 다 그러하여

20 땅에서부터 문통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21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식양은 이러하니

22 곧 나무 제단의 고가 삼 척이요 장이 이 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의 상이라 하더라

23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24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치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25 이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26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겼고 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1. ㉠ 성전의 구조는 어떻게 묘사되었는가?

- ㉠ (1) 앞장에서 문(동문, 북문, 남문)과 뜰(안뜰, 바깥 뜰)이 묘사된 것에 비해 본장에는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성전의 부속 건물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 (2) 그런데 본장의 내용은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에 있어서 성소와 지성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성소 문의 규격, 제사 용품을 보관하는 골방, 부속 건물 그리고 벽과 문의 장식을 설명한 것이다.
- (3) 특히 본장은 성전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 같은 환상은 불경건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함을 다시 회복할 마음을 갖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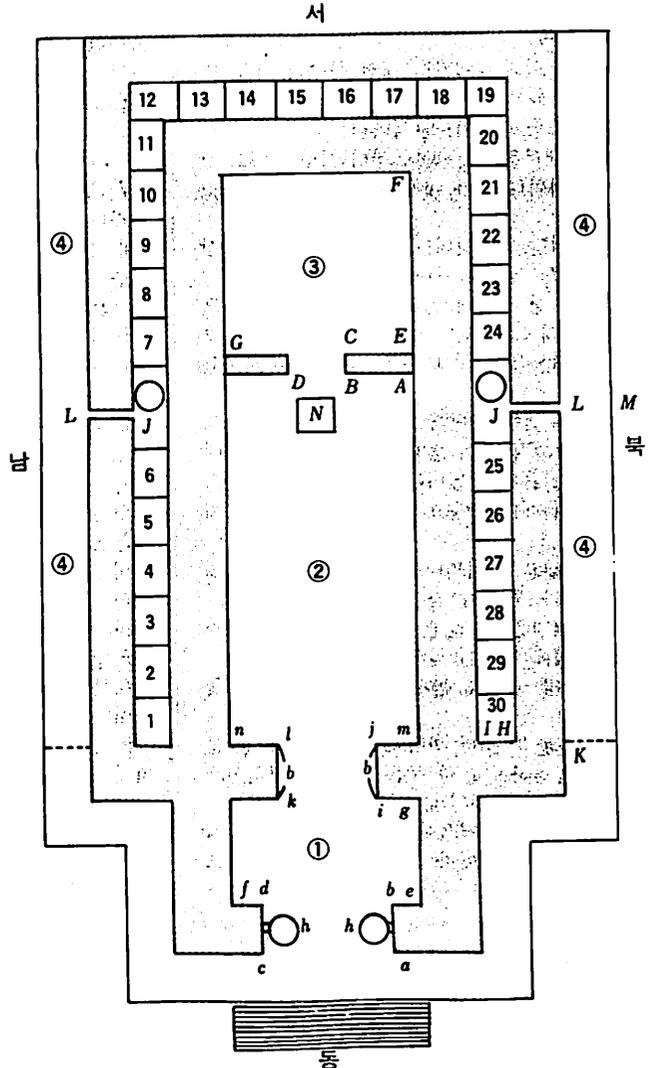
2. **㉠** 성소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가? (1절)

- ㉠** (1) 본절에서 '성소'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헤칼>은 '성소'와 '지성소' 모두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성전을 말한다.
- (2) 따라서 히브리어 <하헤칼>의 문자적 의미는 '왕궁' 혹은 '신전'을 가리킨다.
- (3) 그런데 에스겔은 지금 '성전'의 앞 끝 본당을 가리키는 '성소'의 문이 천사에 의해 척량되는 것을 보고 있다.

3. **㉠** 성전의 단면도를 그려라.

- ㉠** (1) 우측 단면도 참조.
- (2) 성전 각 부분의 명칭과 관련 성귀는 다음과 같다.

- ① 현관(40:48)
a-b, c-d; 40:48
b-e, d-e; 40:48
e-f; 40:49
e-g; 40:49
h; 40:49
- ② 성소(41:1)
i-j, k-l; 41:1
i-k, j-l; 41:2
j-m, l-n; 41:2
m-A; 41:2
m-n; 41:2
B-C, B-D; 41:3
B-A, C-E; 41:3
E-F, E-G; 41:4
- ③ 지성소(41:4)
m-H, H-I; 41:5
1-30; 골방(41:6)
J; 계단(41:7)
- ④ 골방 밑 지대(41:8, 11)
I-K; 41:9
L; 41:11
L-M; 41:11
N; 41:22



4. **㉠ 성소의 규격은 어떻게 되는가? (1, 2절)**

- ㉠** (1) 에스겔이 성전의 현관을 지나 성소의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천사가 성소의 문 벽을 재니 그 두께가 좌우 각각 6 규빗(3.2m)이었다(참조, ㉠3).
 (2) 그리고 문 곧 문지방의 폭은 10규빗(5.3m)이었으며 문 좌우 벽의 폭은 각각 5 규빗(2.6m)씩이었다(참조, ㉠3).
 (3) 따라서 성소의 폭은 20규빗(10.5m)이었으며 길이는 40규빗(21m)이었다(참조, ㉠3).

5. **㉠ 내전(内殿) 곧 지성소의 치수는 얼마나 되었는가? (3-5절)**

- ㉠** (1) 천사가 켄 지성소의 문 벽은 두께가 좌우 각각 2 규빗(1.1m)이었으며 문지방의 폭은 6 규빗(3.2m), 문 좌우 벽의 폭은 각각 7 규빗(3.7m)이었다(참조, ㉠3).
 (2) 그리고 지성소는 가로 세로 각각 20규빗(10.5m)씩의 정방형(正方形)이었다.
 (3) 한편 지성소의 벽은 성소 및 현관의 두께와 같은 6 규빗(3.2m)이었다(참조, ㉠3).

6. **㉠ 골방에 대해 설명하라(5-7절).**

- ㉠** (1) ‘골방’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첼라오트>는 ‘갈빛대’, ‘들보’, ‘늑골’이란 의미이다.
 (2) 그런데 여기서 이 같은 단어가 사용된 이유는 각 층마다 30개의 방이 3층 건물을 채우고 있어 마치 갈빛대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왕상 6:5).
 (3) 그리고 이 방들은 성소의 남쪽과 북쪽 그리고 서쪽 삼면(三面)을 돌아 가며 전벽(殿壁)에 의지하여 지어졌다(참조, ㉠3).
 (4) 한편 이 골방들은 성전의 비품과 제사 때 사용되는 도구를 보관하기 위해서, 또한 십일조와 제물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필요했다. 또한 어떤 학자는(Thenius) 이 방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침실로도 사용된 것으로 보았다(참조, 시 134:1).

7. **㉠ 골방들의 구조는 어떠한가? (7절)**

- ㉠** (1) 이 골방들은 아래층의 넓이(폭)가 4 규빗(2.1m), 가운데층은 5 규빗(2.6m) 맨 위층은 6 규빗(3.2m)이었다.
 (2) 즉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방의 넓이가 넓어지는데 반해 성전 벽은 1 규빗(53.2cm)씩 얇아졌다.
 (3) 그것은 골방의 들보가 성전 벽을 뚫지 않았고 계단식으로 된 성전 외벽에 골방들이 얹혀 있었기 때문이다.
 (4) 또한 이 골방의 출입문은 성전의 1층 남쪽과 북쪽 벽 중간에 있었으며 계단을 통하여 아래층에서 가운데층으로 그리고 위층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었다(참조, 왕상 6:8).
 (5) 그런데 골방의 들보가 성전 벽을 뚫지 않도록 만들어진 데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외적 요소가 침입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알 수 있다(참조, 왕상 6:7).
 (6) 이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역이 침범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역이 침범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을 사수하시기 위해 세상을 징계하시기 때문이다(참조, 시 99:9; 사 6:3; 계 15:4).

8. **㉠ 성전 주변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었는가? (8-11절)**

- ㉠** (1) 삼면의 골방은 6 규빗(3.2m) 높이의 지대(地臺) 위에 놓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 방들의 기초였다(참조, ㉠3).
 (2) 그리고 그 방들의 외벽 두께는 5 규빗(2.6m)이었으며 성전 지대 위 부분은 빈터였다.
 (3) 한편 골방 삼면에는 폭이 20규빗(10.5m) 되는 뜰이 있었으며 그 앞에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들이 있었다(참조, ㉠3).
 (4) 그런데 그 골방의 출입문은 성전 지대의 북쪽과 남쪽 빈터를 향하였으며 성전 지대에 있는 그 빈터의 폭은 5 규빗(2.6m)이었다.
 (5) 이 빈터는 사방에 있는 성전의 벽 앞에 있는 것으로 10.5m의 성전 뜰 사이의 공간 혹

은 통행로를 의미한다.

9. ㉠ 서편 뜰 뒤에 있는 건물에 대해 설명하라(12절).

- ㉠ (1) 이 건물은 성전 뒤 곧 서쪽 안뜰에 위치한 건물로 성전과는 분리된 건물이다(참조, 40장 ㉠6).
- (2) 그런데 그 건물의 용도는 확실치 않으나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성전 뒤에 이와 유사한 건물들이 있었다(왕하23:11; 대상26:18).
- (3) 그러나 이 건물들은 완전히 성전과 분리된 길을 이용하여 출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건물이 성전에서 사용되고 남은 쓰레기나 오물을 처리하여 외부로 보내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된 것으로 추측할 따름이다.

10. ㉠ 성전의 벽과 창문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15-20절)

- ㉠ (1) 성소(외전)와 지성소(내전)의 벽은 모두 널판으로 가리웠고 출입문 위에도 널판을 붙였으나 창문은 이미 닫혀 있었기 때문에 널판을 대지 않았다.
- (2) 그런데 그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으며 각 그룹들은 사람과 사자의 두 얼굴을 하였다.
- (3) 이 같은 장식은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찾아 볼 수 있으며(왕상6:29) 그 장식은 그룹들이 지혜롭고 용감하다는 것을 상징하며 종려나무는 승리와 영광을 의미한다. 즉 그룹들은 어둠의 권세를 이길 확신이 있음을 보여 준다.

11. ㉠ 성소의 문설주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는가? (21절)

- ㉠ (1) 그것은 사자 모양을 하고 있었다.
- (2) 보통 기둥들은 둥근데 반해 네모졌다 문설주는 이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뜻을 이 땅에 점점 확대하실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Kliefoth).

12. ㉠ 지성소 전면(前面)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22절)

- ㉠ (1) 여호와 앞의 상(床)이 있었다.
- (2) 그런데 그 상은 높이가 3규빗(1.6m)이고 가로 세로(장) 모두 2규빗(1.1m)인 나무제단이었다.
- (3) 이에 반해 솔로몬 성전의 단(왕상6:20;7:48)은 백향목에 금을 입힌 것이었다.
- (4) 따라서 이 제단은 번제를 위한 제단이나 향단이라기 보다는 촛대와 진설병의 상(대하4:19,20)이 없는 것으로 보아, 모세 오경에서 언급된 '진설병 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참조, 44:16; 말1:7).
- (5) 한편 번제단은 성전의 앞마당 곧 성전의 안문을 들어선 안뜰에 있었다.

13. ㉠ 성소와 지성소의 문은 어떻게 설치되었는가? (23-25절)

- ㉠ (1) 성소와 지성소에는 각각 문이 있었는데 그 문들은 각각 두 문짝으로 되어 접어서 열고 닫을 수 있었다.
- (2) 그리고 향단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부분에 위치해 있었다. 따라서 지성소의 바로 앞에 향단이 있었던 것이다.
- (3) 또한 그 문에는 성전 벽과 마찬가지로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 있었다.

14. ㉠ 현관 주위는 어떻게 장식되었는가? (25, 26절)

- ㉠ (1) 현관과 골방 앞에는 나무로 된 디딤판이 있었으며 이 디딤판과 현관 좌우편 벽 모두에 종려나무가 새겨졌다.
- (2) 그런데 이 '디딤판'은 현관과 골방 출입구 위의 들보를 말한다. 즉 이 '디딤판'은 두꺼운 나무 판자로 되어 있어서 지붕을 받쳐 주는 역할을 한다.

제 42장 제사장들의 방과 성전 안마당

단락구분 1-9 북편 뜰에 있는 방을 설명하다 / 10-12 남편 뜰의 방 / 13-14 제사장의 방들의 성격 / 15-20 성전 안마당의 측량

1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편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하나는 북편 건물을 향하였는데

2 그 방들의 자리의 장이 일백 척이요 광이 오십 척이며 그 문은 북을 향하였고

3 그 방 삼 층에 뿔마루들이 있는데 한 방의 뿔마루는 이십 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한 방의 뿔마루는 바깥 뜰 밖서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4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광이 십 척이요 장이 일백 척이며 그 문들은 북을 향하였으며

5 그 상층의 방은 제일 좁으니 이는 뿔마루들을 인하여 하층과 중층보다 상층이 더 좁아짐이라

6 그 방이 삼 층이라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상층이 하층과 중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7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 대한 담의 장이 오십 척이니

8 바깥 뜰로 향한 방의 장이 오십 척임이며 성전 앞뜰을 향한 방은 일백 척이며

9 이 방들 아래에 동편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 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10 남편 골방 뜰 맞은편과 남편 건물 맞은편에도 방 둘이 있는데

11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편 방 같고 그 장광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12 이 남편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편 길머리에 있더라

13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편 남편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들 것이며 이는 거룩한 곳이라

14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 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15 그가 안에 있는 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향한 문 길로 나가서 사면 담을 측량하는데

16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편을 측량하니 오백 척이요

17 그 장대로 북편을 측량하니 오백 척이요

18 그 장대로 남편을 측량하니 오백 척이요

19 서편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오백 척이라

20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장과 광이 오백 척씩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1. ㉠ 본질의 환상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 ㉠ (1) 본장은 40 장부터 시작된 성전의 환상이 끝나는 장으로 성전 주위의 방 곧 뜰에 있는 부속 건물에 대해 설명하며 성전 전체의 크기를 측량함으로써 성전에 대한 환상 설명을 끝마친다.
- (2) 그런데 본장에 언급된 성전 주위의 방들은 북편과 남편 뜰에 있는 방으로 제사장들이 제물을 두고 의복을 갈아입으며 지성물(至聖物)을 먹는 곳이다. 한편 천사가 성전의 바깥에 나가서 측량한 성전의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었다.
- (3) 그러므로 본장은 분리를 통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함을 보여 준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더럽힌 하나님의 거룩성과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상실한 거룩성이 회복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

2. **㉠** 북편 뜰에 있는 방들은 정확히 어디에 위치했는가? (1-4절)

- ㉠** (1) 그 방들은 두 채의 건물을 형성하였는데 한 채는 성전 안뜰을 향해 있었고 다른 한 채는 바깥 뜰에 있는 박석(礪石) 깔린 보도를 향해 있었다.
 (2) 그리고 이 건물은 모두 3층으로 되어 있었으며 문은 북쪽을 향해 있었고 두 건물 사이에는 폭 10규빗(5.25m), 길이 100규빗(52.5m)의 통로가 있었다.
 (3) 따라서 이 건물들은 나란히 북쪽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그 건물들 사이에 동에서 서쪽으로 통로가 있었던 것이다(참조, 40장 **㉠** 6).

3. **㉠** 북쪽 뜰 방의 구조를 설명하라 (5, 6절).

- ㉠** (1) 그 건물은 두 채 모두 3층인데 3층의 방들이 아래층의 방들보다 더 좁았다.
 (2) 그 이유는 3층에만 있는 회랑이 많은 공간을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3) 또한 그 건물이 뜰에 있는 다른 건물들처럼 기둥으로 받쳐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40:17, 44) 3층의 방들은 중간층과 아래층보다 더 적었다.

4. **㉠** 북쪽 건물의 주변은 어떻게 지어졌는가? (7-9절)

- ㉠** (1) 이 건물과 평행하게 북쪽 바깥 뜰에는 길이 50규빗(26.3m)의 담이 있었으며 바깥 뜰을 향한 건물의 길이도 50규빗(26.3m)인데 반해 성전 쪽을 향한 건물은 길이가 100규빗(52.5m)이었다.
 (2) 그리고 이 건물 아래층에는 바깥 뜰 끝 동쪽에서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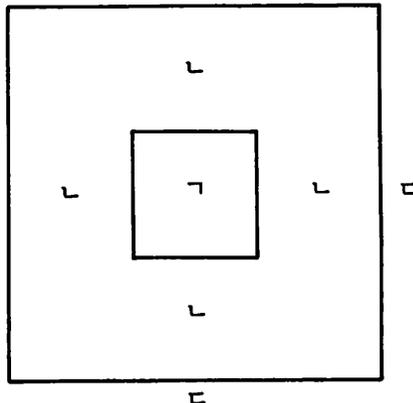
5. **㉠** 성전 뜰 안에 있던 방들은 어떤 용도에 사용되었는가? (13, 14절)

- ㉠** (1) 그 방들은 거룩한 방으로 제사장들이 소제,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보관하는 곳이다(레 2:10).
 (2) 또한 그곳은 제사장들의 예식 의복을 보관하는 곳이기도 하다(레 6:9-11).
 (3) 여기서 제물이 거룩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며 제사장 이외에는 아무도 * 그것을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44:28-31; 레 6:25, 26; 7:7-10; 10:12, 15).

6. **㉠** 천사가 마지막으로 측량한 곳은 어디인가? (15-20절)

- ㉠** (1) 천사는 에스겔을 데리고 동문(東門)을 나가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사면(四面) 담을 측량했는데 각각의 길이는 장대로 측량하여 500장대 곧 500규빗이었다.
 (2) 그런데 이 치수는 이제까지 측량한 성전의 안뜰과 바깥 뜰을 합한 공간보다 길이에서 5배, 넓이는 25배나 큰 공간의 치수가 된다.
 (3)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공간이 대단히 컸음을 알 수 있다.
 (4) 이처럼 그 주변 공간이 큰 이유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에 거리를 두어 구별하기 위함이다.
 (5) 한편 성전과 주변 공간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 안뜰과 바깥 뜰을 포함하는 성전
- └ : 주변 공간
- : 장과 광이 500장대 되는 공간



제 43 장 여호와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다

단락구분 1-5 여호와와의 영광이 돌아오다 / 6-9 우상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 10-12 새로운 성전의 법과 규례 / 13-17 제단에 대한 묘사 / 18-27 제단을 정결케 하라

- 1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 2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 3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이상 같고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 4 여호와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 5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 6 들은즉 누구인지 전에서 내게 말하더니 사 람이 내 곁에 서서
- 7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 하리라
- 8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 9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 10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추락하게 하라
- 11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 12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위는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 13 제단의 척수는 이러하니라(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고가 일 척이요 그 사면 가장자리의 광이 일 척이며 그 가으로 들린 턱의 광이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 14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는 아래층의 고가 이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광이 일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이 층의 고가 사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광이 일 척이며
- 15 그 번째단 윗층의 고가 사 척이며 그 번째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 16 그 번째하는 바닥의 장이 십 이 척이요 광이 십 이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 17 그 아래층의 장이 십 사 척이요 광이 십 사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들린 턱의 광이 반 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광이 일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을 향하게 할지니라
- 18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가 이러하니라
- 19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하나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 20 내가 그 피를 취하여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면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케 하고
- 21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취하여 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롭지며
- 22 다음날에는 흠없는 수염소 하나로 속죄 제물을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케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케 함과 같이 하고
- 23 정결케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와 떼 가운데서 흠없는 수양 하나를 드리되
- 24 나 여호와와 앞에 받들어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 25 칠 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하나와 떼 가운데서 수양 하나를 흠없는 것으로 갖추는 것이며

26 이와 같이 칠 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 제를 드려 정결케 하며 봉헌할 것이요
 27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 팔 일애와 그 다음

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 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 하시더라

1. **㉠ 본장의 내용은 주로 무엇에 관하여 말하는가?**

- ㉠** (1) 본장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던(10:18) 여호와와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내용과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새로운 성전 법과 규례가 기록되어 있다.
 (2) 그런데 다시 돌아온 여호와와 영광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다면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하실 것을 약속하신다.
 (3) 또한 본장 13절부터 46:24까지는 이스라엘의 신성한 예배에 대한 새로운 규범이 기록되어 있는데 본장에는 번제단과 그것의 정결에 대해 설명되어 있다.
 (4) 더우기 본장에서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심판하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오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법도를 제정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다.

2. **㉠ 여호와와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올 때의 상황은 어떠하였는가? (2절)**

- ㉠** (1)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 같았으며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났다.
 (2) 여기서 ‘땅’은 성전 입구나 성전에 국한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모든 곳을 말한다.
 (3) 그런데 나타나신 여호와와 영광은 이스라엘(유다)을 심판하시려고 오실 때의 형상과 같았다(10:15, 20).
 (4) 즉 이스라엘이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 때 심판의 하나님께서는 그 배후에 가지셨던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5)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와 관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즉 자기 백성의 잘못을 징계하시고, 용서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사랑을 베푸신다(요일 4:10).

3. **㉠ 에스겔에게 말한 존재는 누구인가? (6절)**

- ㉠** (1) 하나님 자신이다.
 (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자신의 대언자(代言者)로 내세워서 말씀하시고 계신다.
 (3) 따라서 본절에 나타난 사람은 앞에서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 주고 그것을 측량하던 천사와 같은 존재이다(40:3; 47:1).

4. **㉠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이신 새 성전을 어떠한 곳이라고 말씀하셨는가? (7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하나님 보좌의 처소, 하나님의 발을 두는 처소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과 영원히 거할 곳이라고 말씀하셨다.
 (2) 그런데 언약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새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지만 ‘내 발을 두는 처소’ 곧 하나님의 발등상은 지성소의 언약궤를 암시한다(출 25:22; 삼상 4:4; 사 60:13; 66:1).
 (3)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새 성전의 지성소에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말씀을 강조하셨다.

5. **㉠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성전을 더럽히게 되었는가? (7-9절)**

- ㉠** (1)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고 그 신전(神殿)을 바로 하나님의 성전 곁에 세워 가장스런 일을 행하였으며 왕들의 시체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2) 이것은 그들이 사신 하나님의 성전 곁에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산당을 세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사실을 가리킨다(참조, 왕상 12:28, 29).

(3) 또한 '죽은 왕들의 시체'는 역대 왕들이 섬기던 시체와 같은 '우상'을 의미한다(왕하 21:4, 5-7).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마당(8:3)과 성전의 비밀스러운 곳(8:7-11)에서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였다(참조, 레 26:30; 렘 16:18).

(4)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 숭배로 더럽힘으로써 심판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버리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5)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이외의 다른 어느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출 20:3, 4; 골 3:5; 딤후전 3:3; 히 13:5).

6. **㉠ 새로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10, 11절)**

㉠ (1) 새 성전의 구조와 치수, 형상 등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의미를 깨달은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부끄러워하도록 해줄 것이다(36:31, 32; 립 2:4).

(2) 그런데 '제도'로 번역된 히브리어 <추라>는 일반적으로 성전의 모양 곧 성전의 형태를 말하며, '식양'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테쿠나트>는 성전의 구조나 건물의 배열을 의미하는데 이들 구조가 상징하는 바는 곧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어 백성을 회개케 하는 것이다.

(3) 예를 들면 성전의 담은 백성의 거룩을 선포하며(42:20), 문지기 방은 더러운 것을 막는 역할을 담당하고 제사장들의 준비물은 죄를 상기시키며 또한 감사에 대한 교훈을 일깨운다.

7. **㉠ 성전의 법은 어떤 내용을 지니고 있는가? (12절)**

㉠ (1) 성전이 세워진 산꼭대기 주위는 지극히 거룩하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즉 새 성전은 이전의 성전과는 달리 결코 오염될 수 없다는 사실과 함께 성전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여 그 거룩성이 영원히 유지되어야 함을 가리킨다.

(3) 따라서 성전의 법은 거룩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성을 회복하라는 교훈을 주며 그들이 더럽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회복되어야 함을 가리킨다(레 19:2; 대상 16:29).

(4) 이와 같이 현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먼저 자신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타락해 가는 현대 사회와 교회에 거룩함을 일깨워야 할 책임이 있다(고후 7:1).

8. **㉠ 새 성전의 제단이 사용되기 전에 행할 의식은 무엇인가? (18절)**

㉠ (1)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제단이 만들어지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의식을 행할 것을 명하셨다.

(2) 이와 비슷하게 솔로몬 성전의 제단 봉헌은 7일 동안이나 행해졌으며(대하 7:9), 모세의 성막 제단 봉헌은 제단에 거룩한 기름을 일곱 번 뿌리는 의식에서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그 제단을 성결케 하기 위한 것이었다(레 8:11).

(3) 그러나 에스겔의 제단 봉헌 의식은 기름 부음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제단의 정결을 위해 피뿌리는 의식이 명령되어 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러지는 어떠한 물건이나 인격도 이와 같은 정결 의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4) 이처럼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피조물은 항상 내·외적인 정결이 유지되어야 한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깨끗함이 요청된다(참조, 레 19:2).

9. **㉠ 새 성전에서 제사 의식의 위임을 받은 자들은 누구인가? (19절)**

㉠ (1) 이들은 사독의 자손 레위인 제사장들이다.

(2) 이 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자손들이 세습적으로 계승하게 되어 있었다(출 28:1-3).

(3)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인들 중 특별히 사독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이유는 이

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따랐을 때 이들 사독의 자손들만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다(44:15).

- (4) 즉 남북 왕조 때 레위 지파는 다윗가(家)에 대항하여 북왕국에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가 하였다. 그러나 사독 자손들만 그 일에 가담치 않았다(참조, 왕상 12:28-32).
- (5) 이들은 다윗 때에도 신실한 제사장 가문이었다(참조, 삼하 8:17; 왕상 1:8-45).
- (6)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된 후 새 성전에서 봉사할 자들로서 우상에 물들지 않은 신실한 사독의 자손을 임명하실 것을 명하셨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용하시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준다. 즉 신앙의 절개와 순전한 인격의 소유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깨우쳐 준다(참조, 딤후 2:20, 21).

10. ㉠ 제단 봉헌을 위한 첫째 날의 제사 의식을 설명하라(19-21절).

- ㉠ (1) 그날에는 수송아지 하나를 제물로 하여 그 피를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면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贖罪)하여 제단을 정결케 한다. 그런 후에 속죄 제물인 수송아지를 성소 밖에서 불사른다.
- (2) 반면 제단 봉헌식은 제사장의 위임식과 함께 7일 동안 계속되었다(출 29:37; 레 8:33).
- (3) 또한 모세의 규례에서는 제단의 성결을 위해 기름을 부었다. 한편 제단에 피를 바르는 의식은 동일하였다(레 8:15).
- (4) 그러므로 성결을 위한 기름 부음이 빠진 에스겔의 제단 봉헌 의식에서는 피를 바르는 의식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결과 속죄를 잘 나타내고 있다.
- (5) 이처럼 이스라엘에 있어서 속죄와 정결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필요한 것이었다.
- (6)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자신을 바친다는 헌신의 자세를 가다듬는 기초가 된다(참조, 출 19:10, 11; 약 4:8; 벰전 1:22).

11. ㉠ 제단 봉헌을 위한 둘째 날의 의식은 어떤 것인가? (22-24절)

- ㉠ (1) 먼저 수염소 하나를 제물로 하여 첫째 날에 수송아지로 정결케 함과 같이 하며 그 후에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소금을 쳐서 여호와께 번제로 드린다.
- (2) 제단을 정결케 하는 의식은 둘째 날에도 계속된다. 그런데 여기서 소금을 치는 것은 부정과 더러움을 제거하는 행위로서 번제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규례이다(레 2:13).
- (3) 또한 번제는 속죄제에서 부정을 제거하는 한 의식으로 중요성을 갖는다. 즉 부정한 것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 속에 있으려면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죄씻음을 받아야 한다(행 2:38-40; 롬 5:8-11).

12. ㉠ 제단 봉헌을 위한 속죄제는 얼마 동안 드리게 되는가? (25-27절)

- ㉠ (1) 7일 동안 드리게 된다.
- (2) 즉 7일 동안은 매일 수염소와 수송아지, 수양을 제물로 속죄제를 드리며 제 8일에는 번제와 감사제를 드려 정기적인 제사를 시작함으로써 제단 봉헌 제사를 마친다.
- (3) 이처럼 7일 동안 매일 제사를 드림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모든 엄격성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출 29:37; 대하 7:9). 한편 이 7일은 율법에 있어서 보편적으로는 위임식 기간으로 되어 있다(레 8:33).
- (4) 이 같은 제단 봉헌에 있어서 엄격하고 거룩한 순서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롬 12:1).

제 44 장 제사장들에 관한 규례

단락구분 1-3 성전 동편 문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 4-8 성전을 더럽힌 사실에 대해 질책하다 / 9-14 레위인들의 죄악과 새로운 직분 / 15-27 사독의 자손들의 직분 / 28-31 사독의 자손들이 엄을 기업

1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혀있더라

2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들지니라

3 왕은 왕인 까닭에 안 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4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와 영광이 여호와와 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대

5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와 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고

6 너는 폐역한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7 대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전을 더럽히므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케 하는 것이 되었으며

8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9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0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하여 그 우상을 좇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11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전 문을 말할 것이며 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과 및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서 수종들게 되리라

12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죄악에 거치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로 그 죄악을 담당하여

13 내게 가까이 나아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욕과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14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위 전을 수직하게 하고 전에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15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아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6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아와 내게 수종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되

17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옷을 입을 것이니

18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19 그들이 바깥 뜰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케 할까 함이니라

20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21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22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은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23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24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케 하며

25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

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26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케 한 후에 칠 일을 더 지낼 것이요

27 성소에 수종들려 하여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 의 말이니라

28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나는 그 산업이 됴이니라

29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30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열매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네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31 무릇 새나 육축의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긴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못할 것이니라

1. **㉠ 새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지킬 규례는 무엇인가?**

㉠ (1) 본장에는 특별히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제사장의 자격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갈 기업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 먼저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저지른 죄악을 지적하신 후 새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던 사독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을 수 있다고 규정하셨다.

(3) 한편 그들에게는 엄격한 규례가 주어지는 대신 이스라엘 백성의 십일조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후의 제물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었다.

(4) 이처럼 본장에는 하나님 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규례와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규례가 서술되어 있다.

2. **㉠ 성전의 동쪽 문이 닫힌 이유는 무엇인가? (1, 2절)**

㉠ (1)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문을 통해 들어오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문은 아무도 통과할 수 없었다.

(2) 그러므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영광을 가르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지켜져야 함을 보았다. 이처럼 거룩성은 인간들에 의해 지켜져야 한다. 만일 그 거룩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인간의 존엄성도 상실되고 말 것이다(참조, 시 22:23; 딤페전 1:17).

3. **㉠ 여호와 앞 곧 동문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3절)**

㉠ (1)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2) 여기서 왕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가 백성의 대표로서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음식을 먹는 것을 가리킨다(45:17-25).

(3) 이같이 본절에서 왕의 특권이 강조된 이유는 과거의 부패한 왕과는 달리 새 이스라엘의 왕은 경건과 진리를 사모하는 백성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4) 그러나 왕이 동문 안에서 음식을 먹으려면 그도 역시 동문을 통해서 성전 뜰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깥 북문이나 남문으로 들어와서 뜰을 지나 동쪽 문 앞에 앉아야 한다.

(5) 그러므로 이 왕은 이스라엘에서 모든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출 3:5).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뚜렷한 차이이다.

4. **㉠ 하나님께서 전(殿) 앞에 선 에스겔에 내리신 명령은 무엇인가? (4, 5절)**

㉠ (1) 그 명령은 에스겔로 하여금 전(殿)의 모든 규례와 율례를 듣고 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出口)를 주의하여 본 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을 대언하라는 것이다.

(2) 이 말씀은 40:4과 43:11, 12의 목적과 유사하다. 즉 에스겔은 자신이 들은 규례와 눈으로 본 성전의 구조가 의미하는 바를 깨닫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전할 책

입이 있었다.

(3) 이와 같이 목사와 교사들은 먼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자신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참조, 대하 18:23; 눅 5:17).

5. **㉠**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죄악은 무엇인가? (7절)

- ㉠** (1) 그들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異邦人)을 거룩한 여호와의 전(殿)에 들여 보내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깨뜨렸다.
- (2) 여기서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란 육신의 무할례 뿐만 아니라 마음마저 경건치 못한 자들을 가리킨다.
- (3)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이처럼 경건치 못하고 이방 종교에 젖은 자들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에도 성전에 들여보내 성전을 더럽혔던 것이다.
- (4)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힐 뿐 아니라 영적으로 구별된 자신의 특권마저도 버리는 행위이다(참조, 마 6:6).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와 그분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그에 대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6. **㉠** 여호와의 성물을 대신 지킨 자들은 누구인가? (8절)

- ㉠** (1) 원래 여호와의 성물은 제사장들이 관리하고 지키게 되어 있었으나 그들은 자신들의 직분을 소홀히함은 물론 이방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일을 대신케 하였다.
- (2) 이 사실은 미디안 사람 중 성전의 종으로 레위인에게 주어진 자들과(민 31:30, 47) 성전 호위병 가리 사람(왕하 11:4-8; 느 13:1-8) 그리고 느디뎨 사람으로 성전의 종이 된 솔로몬의 종의 자손들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다(스 2:55-58; 8:20; 느 7:46-60).
- (3) 이같이 이방인, 즉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자들을 성전에 들여보내는 것은 순수한 여호와 경배를 더럽히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 중 특별히 성별된 자들만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게 하셨기 때문이다(참조, 출 29:44; 30:30).

7. **㉠**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은 무엇인가? (10-13절)

- ㉠** (1) 이것은 왕국의 분단 시기에 레위 지파가 다윗 가문에 대항하여 지은 죄를 가리킨다.
- (2) 즉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예로보암(B. C. 931-910)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할 때 레위인들도 그 일에 동조했다(참조, 12:25-33).
- (3)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성물(至聖物)을 얻지 못하게 하셨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직분을 소홀히 하며 게으름을 피우는 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저버리는 자이며 하나님의 형벌을 자초하는 자들이다(마 25:14-30).

8. **㉠** 제사장 직분을 잃은 레위인들에게 주어질 직책은 무엇인가? (11-14절)

- ㉠** (1) 타락한 레위인들에게는 전 문(殿門)을 지키는 직책과 번제에 쓰일 희생 제물을 잡는 직책이 주어질 것이다.
- (2) 이것은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성직자가 아니라 일반 백성과 같은 신분에 있게 됨을 가리키는 말이다.
- (3) 따라서 그들은 제단 위에 피를 뿌리거나 기름을 태우는 일은 할 수 없고 단지 희생 제물로 쓰일 짐승을 잡는 역할밖에는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제물로 사용된 짐승의 고기도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

9. **㉠** 레위인 중 제사장직(職)을 수행할 자들은 누구인가? (15, 16절)

- ㉠** (1) 그들은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이다.

- (2) 그런데 사독의 자손들은 그들의 조상 사독 때부터 신실한 제사장 가문이었다. 즉 다윗 왕(B. C. 1010-970) 말기에 아도니야가 후계자를 자처하며 반역 행위를 하였을 때 사독은 그 반역에 가담치 않았다(왕상 1:5-8).
- (3) 뒤이어 그는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시켰다(왕상 1:39).
- (4) 이와 같이 사독은 다윗 가문(家門)에 충성된 제사장으로 다윗가(家)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役事)에 동참하였다(34:23).
- (5)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성전 제사장으로 사독의 자손들을 택하셨던 것이다.
- (6)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봉사는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영광을 가져온다(참조, 마 24:45-47; 눅 16:10-12).

10. ㉠ 제사장이 성전 안뜰 문과 전(殿) 안에서 입을 옷은 어떤 것인가? (17-19절)

- ㉠ (1) 그들은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어야 하며 가는 베 관(冠)을 머리에 쓰고 가는 베 바지를 입어야 했다.
- (2) 이같이 제사장들이 베옷을 입는 규정은 이미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었다(출 28:39-43). 그리고 양털 옷을 입지 못하는 규정은 제사장들이 털 옷을 입고 성전 봉사를 하면 민첩하지 못할 뿐 아니라 땀을 흘리게 되기 때문이다. 즉 제사장들은 땀을 흘려 불결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이다.
- (3) 한편 그들이 바깥 뜰에 있는 백성 앞에 나갈 때는 그 베옷 예복을 갈아입어야 했다. 이것은 제사장들 스스로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즉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일상 생활을 하는 자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참조, 레 21:1-8).
- (4)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백성들이 그 옷에 접촉하여 거룩하게 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11. ㉠ 제사장들의 머리털에 관한 규정을 설명하라 (20절).

- ㉠ (1)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면도로 밀어도 안 되며 길게 길러도 안 된다. 다만 머리털이 자라면 깎기만 해야 한다.
- (2) 이처럼 머리털을 미는 행위는 창조자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해서 이미 모세의 율법에서 금하고 있다(레 19:27; 21:5).
- (3) 또한 그들은 나실인들처럼 머리를 길게 길러서도 안 된다(레 10:6).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늘 백성들과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백성의 종교 지도자로서 거룩함과 정결함의 본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세상적이어서는 안 되며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서도 안 된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참조, 약 1:27).

12. ㉠ 제사장들에게 포도주를 금한 이유는 무엇인가? (21절)

- ㉠ (1) 그 이유는 성전 안뜰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사장들이 신실한 자세를 나타내어야 하기 때문이다.
- (2) 따라서 제사장들의 금주는 나실인들의 철저한 헌신을 위한 금주와는 성격이 다르다.
- (3) 즉 제사장들이 금주하는 이유는 영혼의 정결을 유지하며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가 마음과 행동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13. ㉠ 제사장들의 결혼 규정을 설명하라 (22절).

- ㉠ (1) 그들은 과부나 이혼(離婚)한 여인에게 장가들 수 없었으며 다만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수 있었다.
- (2) 이러한 규범이 모세의 율법에서는 대제사장에게만 적용되었지만 이곳에서는 일반 제사장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 (3) 실제로 레 21:14에서 과부와 결혼하는 일은 대제사장에게만 금지되었다.
- (4) 제사장들에 대한 이 같은 규정은 그들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제사장의 거룩은 곧 여호와의 거룩과 연결되기 때문이다(참조, 레 21:4, 15).
- (5) 이처럼 오늘날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양 떼를 맡은 목자들은 거룩함을 지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하며 양 떼는 물론 불신자들에게까지도 본이 되어야 한다(참조, 딤후 1:16; 2:2-4; 4:12).

14. **㉠** 제사장으로서 수행해야 할 일반 직무는 무엇인가? (23, 24절)

- ㉠** (1) 그들은 먼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차이에 관해 백성을 교육하는 직무를 가진다.
- (2) 즉 제사장은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서 행할 예배와 교리에 대해 가르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한 마음을 갖게 해야 한다(레 10:10, 11; 말 2:7).
- (3) 또한 그들은 백성의 재판관으로 백성의 송사(訟事)를 판단할 때는 '내 판단' 곧 하나님의 판단으로 공의로운 재판을 하여야 한다(신 17:8-13; 19:17).
- (4)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모든 절기에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며 안식일에는 제사를 주관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안식일을 성결케 하도록 인도할 책임을 진다(레 23장).

15. **㉠** 제사장들의 정결에 관한 규례를 설명하라 (25-27절).

- ㉠** (1) 그들은 자신의 가까운 친척을 제외하고는 죽은 시체에 접촉할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의 가까운 친척의 죽음으로 더럽혔을 때는 7일의 기간이 지나야 정결케 되며 만일 안뜰과 성소에 들어가려 하면 속죄제를 드려야 들어갈 수 있다.
- (2) 이 같은 규례는 모세의 율법(레 21:1-3)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여기서 7일이란 기간은 거룩과 성결을 강조하기 위한 기간이다.
- (3) 이처럼 제사장들에게 엄한 규례를 명하는 이유는 곧 그들이 파괴한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재정립하기 위해서이다.

16. **㉠** 제사장이 얻을 기업은 무엇인가? (28-31절)

- ㉠** (1) 하나님께서 곧 그들의 유산이 되시며 재산이 되신다.
- (2) 즉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치는 몫을 받아 생활한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먹고 산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기 때문이다.
- (3) 그러므로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소유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첫 열매와 첫 밀가루 그리고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擧祭) 제물도 모두 그들이 차지한다(출 25:2).
- (4) 그런데 이 같은 예물은 드리는 자에게 축복이 됨을 나타내고 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물과 십일조를 드리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간구하기 때문이다.
- (5) 그러나 새나 짐승이 스스로 죽은 것과 짐승에게 찢긴 것은 하나님께 바칠 수도 없으며 제사장들도 그것을 먹지 못한다(레 17:15). 그 까닭은 그 모든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부정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순결한 제물과 온전한 헌신과 정결한 영혼을 요구하신다.

제 45 장 기록과 공의가 지켜질 나라

단락구분 1-4 성전을 위한 땅을 분할하다 / 5-8 나머지 땅들의 분할 / 9-12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장의 법령 / 13-17 이스라엘이 드릴 봉헌물 / 18-20 정월(正月)에 드릴 예물 / 21-25 유월절과 추막절에 드릴 예물

1 너희는 제비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지니 그 장은 이만 오천 척이요 광은 일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2 그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장이 오백 척이요 광이 오백 척이니 네모 반듯하며 그 외에 사면 오십 척으로 틀이 되게 하되

3 이 척량한 중에서 장 이만 오천 척과 광 일만 척을 척량하고 그 가운데 성소를 들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4 그 땅의 거룩한 구역이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서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에게 돌려 그 집을 위하여 있는 곳이 되게 하며 성소를 위하여 있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고

5 또 장 이만 오천 척과 광 일만 척을 척량하여 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산업을 삼아 촌 이십을 세우게 하고

6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광 오천 척과 장 이만 오천 척을 척량하여 성읍의 기지를 삼아 이스라엘은 족속에게 돌리고

7 드린 바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바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편으로 향하여 서편 국경까지와 동편으로 향하여 동편 국경까지니 그 장이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8 이 땅으로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중에 기업을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나눠 줄지니라

9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아 너희에게 족하니라 너희는 강포와 겁탈을 제하여 버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토색함을 그칠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0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빛을 쓸지니

11 에바와 빛은 그 용량을 동일히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빛은 호멜 십분지 일을 담게 하고 에바도 호멜 십분지 일을 담게 할 것이며

12 세겔은 이십 개라니 이십 세겔과 이십 호멜과 십 호멜로 너희 마네가 되게 하라

13 너희의 마땅히 드릴 예물이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에바 육분지 일을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에바 육분지 일을 드리며

14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르에서 밧 십분지 일을 드릴지니 기름의 밧으로 말하면 한 고르는 십 밧 곧 한 호멜이며(십 밧은 한 호멜이라)

15 또 이스라엘 윤택한 초장의 떼 이백 마리에서는 한 어린 양을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로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삼을지니라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

16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로 이스라엘 왕에게 드리고

17 왕은 본분대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절기에 드릴지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18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정월 초하룻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를 취하여 성소를 정결케 하되

19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전 문설주와 제단 아랫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20 그 달 칠 일에도 모든 그릇 범죄한 자와 부지중에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전을 속죄할지니라

21 정월 십 사 일에는 유월절 곧 칠 일 절기를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22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수송아지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23 또 절기 칠 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갖추되 곧 칠 일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이며 또 매일 수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24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 하나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헌씩이며
25 칠 월 십 오 일 절기 칠 일 동안에도 이대

로 행하여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
을 드릴지니라

1. ㉠ 본장에 기록된 중요 내용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새로운 이스라엘에 있어서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율례가 기록되어 있다.
(2)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이스라엘은 거룩하여야 한다. 새 이스라엘에서는 땅도 새로이 정리되고 분할된다. 우선 성소와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땅은 거룩한 곳으로 미리 분할이 된다. 그 후 레위인, 성읍, 왕, 일반 백성의 순으로 분할된다.
(3) 둘째, 이스라엘은 정의로와야 한다. 지도자들은 공평과 공의로 백성을 다스려야 하며 백성은 저울눈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4) 세째, 이스라엘은 여호와와의 절기를 거룩히 지키며 자신들의 본분에 맞게 예물을 바쳐야 한다.
(5) 결국 본장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상실한 거룩과 정의가 회복되며 새로운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이 올바르게 지켜져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2. ㉠ 거룩한 땅으로 정해진 지역은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가? (1-5절)

- ㉠ (1) 그 지역은 여호와께 드릴 예물로서 성소가 들어갈 구역과 성소에서 수종들 제사장들의 집이 들어설 구역으로 사용될 것이다.
(2) 그런데 이 거룩한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예물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함을 가리킨다. 즉 이때까지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생활했던 것을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을 삶의 우선권에 두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거룩한 땅을 먼저 구분했던 것이다(참조, 마16:33).
(3) 한편 여기서 '장'은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길이를 말하며 '광'은 남쪽에서 북쪽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4) 그리고 '거룩한 지역'의 주위에는 성전에서 수종들 레위인들의 거처가 마련되었다. 그런데 이들에게 돌아간 지역도 역시 '거룩한 지역'에 포함된다.

3. ㉠ 이스라엘의 나머지 땅은 어떻게 분할될 것인가? (6-8절)

- ㉠ (1) '거룩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편은 성읍의 기지(基地)로 삼는다. 그런데 이 지역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땅으로 구별된 곳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살 수 있는 곳이다.
(2) 그리고 '성읍의 기지'를 중심으로 좌우편 곧 동(東)은 요단 강까지 서(西)는 지중해까지의 지역이 왕에게 속하게 된다. 그리고 그 폭은 한 지파 소유의 길이와 같았다.
(3) 그런데 왕에게 소속된 이 땅은 왕이 재산을 탐내지 않고 오로지 정치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에게 주어지는 땅이다. 그러므로 그는 재물 때문에 백성을 탄압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4) 마지막으로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의 지파대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이 모든 땅은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의 소유로 하나님과 모든 백성에게 소속된 땅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 가기 위한 기능에 의해 이처럼 분할된 것이다.
(5) 그러나 이같이 땅을 분할한 후에도 국가의 지도자들은 '분할 정책'의 뜻을 살려 국가를 잘 이끌어 가야 했다(참조, 창31:38-40; 왕상3:6-15).

4. ㉠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9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과거에 저지른 탄압을 지적하시면서 백성을 착취하지 말고 공정하고 옳은 일을 행하라고 명하셨다.
(2) 왜냐하면 통치자들의 행위는 곧 백성의 본이 되기 때문이다.

- (3) 그러나 자기 자신의 권력과 부귀만을 생각하는 통치자들은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서 백성을 탄압하고 그들의 소유를 착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그들의 행위는 자신들의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모르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욥 1:21; 롬 13:1).
- (4) 그러므로 통치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달아 겸손한 마음으로 국가를 올바르게 다스려야 한다(참조, 고전 4:2).

5.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명하신 것은 무엇인가? (10-12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공평과 정직을 준수할 것을 명하셨다.
- (2) 즉 이스라엘 백성은 공정한 저울을 사용해야 하며 돈과 물건을 올바르게 계산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 (3) 이것은 통치자들에게는 정의(正義)가 요구되는 것처럼 일반 백성에게는 공평과 정직이 요구됨을 말한다.
 - (4) 한편 에바는 고체를 재는 단위이며 밧은 액체에 대한 척도 단위이다(사 5:10). 그런데 이 두 단위는 모두 호멜의 십분지 일에 해당하므로 같은 용량이다(참조, 4장 ㉠13).
 - (5) 그리고 한 세겔은 이십 게라에 해당되며(참조, 4장 ㉠12, 출 30:13; 레 27:25; 민 3:47) 한 마네는 세 가지의 평가 기준이 있다. 즉 하나는 20세겔, 다른 하나는 25세겔, 또 다른 하나는 15세겔을 기준으로 하였다.
 - (6) 이러한 무게 치수를 엄격히 지키지 않는 것은 이웃을 속이는 행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크나큰 범죄이다(참조, 잠 11:1; 암 8:4-7). 이와 같이 눈앞의 이익보다는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진실되게 살아가느냐 하는 몸부림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어야 할 행동 규범이다.

6. **㉠**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13-15절)

- ㉠** (1) 밀과 보리 한 호멜에서는 1/6 에바 곧 1/60 호멜을 바치며, 기름은 한 고르에서 밧 1/10을 바쳐야 하며, 양은 200마리에 한 마리씩 바쳐야 한다.
- (2) 여기서 ‘고르’는 기름을 되는 단위로 사용되고 있지만 원래는 ‘호멜’과 고체량이 같은 최대 고체량의 단위이다. 그러므로 이 ‘고르’는 밀가루(왕상 4:22)와 곡식(왕상 5:11; 대하 2:10)을 계량할 때 사용하며 개역 성경에는 ‘석’으로 번역되어 있다.
 - (3) 한편 짐승은 ‘윤택한 초장’에서 자란 살진 짐승이어야 했다. 그런데 이 예물들은 백성을 속죄하기 위해 드리는 소제와 번제 그리고 감사 제물에 사용되었다.
 - (4)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는 장자(長子), 첫 열매, 십일조를 제외하고 성전에 예물을 바치는 일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같은 헌물은 앞으로 있을 새 이스라엘에서는 규제로써 규정되고 의무로 정해질 것임을 보여 준다.

7. **㉠** 이스라엘 백성은 예물을 누구에게 드리는가? (16, 17절)

- ㉠** (1) 그들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 왕에게 드리고 왕은 백성의 대표로서 이스라엘의 정한 절기에 예배를 주관한다.
- (2) 즉 예배의 물질적 지출과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사를 인도할 제사장의 직분은 주어지지 않았다.
 - (3)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은 정치 뿐만 아니라 국민의 종교 생활에까지도 신경을 써서 국민을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로 이끌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4) 이것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국민의 통치자 되는 자들은 정의로운 정치를 하며 안정된 경제 정책을 펴야 함은 물론 국민을 하나님 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없는 정치는 결코 선정(善政)이 될 수 없다.

8. **㉠** 정월 초하룻날에 여호와께 드릴 특별한 제사는 무엇인가? (18-20절)

- ㉠** (1) 그날에 제사장은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를 제물로 하여 그 피를 성전의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발라 성소를 정결케 하는 속죄제를 드린다.

- (2) 그런데 이 정월 초하룻날에 드린 속죄제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 곧 고기와 피를 잘못 사용한 데 대한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이며 그 방법으로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이다.
- (3) 또한 정월 칠 일에도 그릇 범죄한 자와 부지중 범죄한 자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다. 그럼으로써 실수로 죄를 지은 자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
- (4) 한편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정월 초하룻날 곧 태양력 7월 1일에 수염소를 제물로 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성회로 모여 번제와 소제를 드리라고 되어 있다(민 29:1-5).
- (5) 그 뿐 아니라 연중 절기 곧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과 매월 초하룻날에 드리는 속죄제는 수염소를 제물로 삼았다(민 22:30; 28:15; 29:5-38).
- (6) 또한 모세의 율법에서는 피를 바르는 대신 성소의 휘장과 향단 뿔에 뿌리고 나머지는 번제단 앞에 있는 물두멍에 쏟았다(레 4:6, 7, 17, 18).
- (7) 그러므로 이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을 강조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정결을 요구하시며 비록 죄를 지은 자라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 주셨다(고후 5:18).

9. **㉠** 새 이스라엘에 있어서 유월절 절기는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가? (21-24절)

- ㉠** (1) 정월 14일에는 유월절(逾越節) 곧 '7일 절기'를 지키는데 그날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게 된다.
- (2) 여기서 정월(正月)은 '아빫 월' 곧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해 첫달을 가리킨다. 그런데 유월절이 7일 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에 '7일 절기'라고 불리어졌다(민 28:17).
- (3) 이때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위해 송아지를 잡아 속죄제를 드렸다. 또한 매일 번제로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 수염소 하나를 드렸다. 그리고 소제로는 수송아지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 그리고 수양에도 마찬가지로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힉씩이었다.
- (4) 이에 반해 모세의 율법에서 규정한 유월절 희생 제물은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 그리고 일 년 된 수양 일곱을 번제로 바쳤다(민 28:16-19). 그리고 그 소제로는 수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3/10 수양 하나에는 에바 2/10를, 수양 일곱에는 매 어린 양마다 에바 1/10씩을 드렸다(민 28:20).
- (5) 이처럼 모세의 율법에서 규정한 수보다 더 많은 희생 제물이 필요한 이유는 곧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이전보다 더 경건하고 충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0. **㉠** 장막절 절기는 어떻게 규정되었는가? (25절)

- ㉠** (1) 장막절은 7월 15일 곧 유대력 에다님 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내게 된다.
- (2) 그런데 장막절의 희생 제물의 종류와 수가 모두가 유월절의 그것과 동일하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수염소의 속죄제를 매일 드리는 일 외에도 70마리의 수송아지를 7일 동안 드리게 되는데 첫째 날에는 13마리를 바치고 매일 한 마리씩 줄여 가서 마지막 날에는 7마리를 드리게 된다(민 29:12-34).
- (3) 그 뿐 아니라 에스겔은 본장에서 이스라엘의 연례 절기 중 유월절과 장막절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모세의 율법에는 이외에도 오순절, 칠칠절, 나팔절과 7월 10일의 속죄일까지 언급되고 있다.
- (4) 이처럼 모세의 율법에서 정해져 있던 여러 절기가 생략된 데서 우리는 새 이스라엘에서는 연례 절기 중 유월절과 장막절만을 지키게 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새롭게 건설된 이스라엘에서는 죄로부터의 구원(참조, 고전 5:7; 히 11:28)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참조, 계 21:3, 4)이 강조되는 것을 보여 준다.

제 46 장 제사의 규례

단락구분 1-5 안식일을 위한 제사 / 6-8 월삭을 위한 제사 / 9-12 절기에 문을 개방하는 규례 / 13-15 매일 드림 번제의 규례 / 16-18 왕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방법 / 19-24 제사용 부역을 묘사하다

1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향한 문을 일하는 육 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월삭에도 열고

2 왕은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3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에 이 문통에서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4 안식일에 왕이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여섯과 흠없는 수양 하나라

5 그 소제는 수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힉씩이니라

6 월삭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와 어린 양 여섯과 수양 하나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7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힉씩이며

8 왕이 올 때에는 그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9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거민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도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10 왕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의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11 절기와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수송아지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 하나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힉씩이며

12 만일 왕이 사원하여 번제를 갖추거나 혹은 사원하여 감사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13 아침마다 일 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하나로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14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에바 육분지 일과 기름 힉 삼분지 일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를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15 이와 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갖추어 항상 드리는 번제를 삼을지니라

16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왕이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어니와

17 왕이 만일 그 기업으로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회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왕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왕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니라

18 왕은 백성의 기업을 취하여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왕이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니라 백성으로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흠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19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북향한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편에 한 처소가 있더라

20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회생을 삼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 뜰로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21 나를 데리고 바깥 뜰로 나가서 나로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22 또 네 구석에 있는 그 뜰에 담이 들렸으니 뜰의 장이 사십 척이요 광이 삼십 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한 척수며

23 그 작은 네 뜰 사면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면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24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전에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1. **㉠ 본장에 나타난 공중 예배의 규례에 대해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새 이스라엘에서 지켜야 할 제사에 대한 규례가 그 성격에 따라 달리 묘사되어 있다.
- (2) 즉 안식일과 월삭 그리고 매일 드릴 제사에 대한 규례와 그 제사들에서 왕과 백성이 취해야 할 행동이 기록되어 있다.
- (3) 또한 본장에는 왕이 자신의 소유 이상의 재산을 탐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다. 즉 왕은 자신의 소유 이상의 재산을 탐내서 자신의 권력으로 부당하게 백성의 재산을 탈취할 수 없게 되어 있다.
- (4) 이와 같이 본장은 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지켜야 할 종교적인 규례와 정치적인 도리가 기록되어 있다.

2. **㉠ 안식일과 월삭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지내는 절차를 설명하라(1-3절).**

- ㉠** (1) 이스라엘의 왕은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안문 벽 곁에 서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대표자가 되는 왕을 위해 번제와 감사제를 드린다. 제사가 끝나면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않는다.
- (2) 그런데 이 안뜰 동문도 바깥 뜰 동문과 마찬가지로 항상 닫혀 있으나 안식일과 월삭에는 열어 놓았다.
- (3) 이때 왕만은 바깥 뜰 동문을 통해 들어오지만 일반 백성은 북문과 남문을 통해 들어올 수 있다(9절).
- (4) 이렇게 바깥 뜰로 들어온 왕과 일반 백성은 모두가 같이 안뜰 동문의 문통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
- (5) 여기서 우리는 성전 출입시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왕권 사상을 엿볼 수 있다. 즉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는 장차 그들에게 임할 메시아와 비견됨을 알 수 있다.

3. **㉠ 안식일의 예물이 모세의 율법에 나타난 예물보다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4, 5절)**

- ㉠** (1) 모세의 율법에 나타난 안식일의 제물은 수양 둘과 고운 가루 에바 2/10를 바쳤으나(민 28:9) 에스겔의 규례에 나타난 예물은 어린 양 여섯과 흙없는 수양 하나에다, 소제로 수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 그리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하게 되어 있다.
- (2) 이처럼 예물이 증가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침에 있어서 결코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말고 기쁨으로 자신들의 정성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 (3)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어떠한 예물을 바치든지 자신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혹시 마음에 거리기는 것이 있든지 아까운 생각이 들면 오히려 드리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후 9:7).

4. **㉠ ‘그 힘대로 할 것이요’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7절)**

- ㉠** (1)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아쉬르 야도타시그>인데 그 의미는 5절에 언급된 ‘그 힘대로 할 것이며’라는 뜻과는 달리 자기의 능력에 따라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레 14:30).
- (2) 즉 5절의 의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바쳐야 함을 말하고 있으나 본절에서는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맞게 예물을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 (3)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데 일시적인 감정과 충동적인 마음에서 자신의 경제력에 비해 과다한 헌금을 바치고 고통을 겪는 성도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말이다(참조, 행 5:1-11).

5. **㉠ 특별한 절기에 일반 백성이 성전을 출입하는 규례를 설명하라(8-10절).**

- ㉠** (1) 안식일과 월삭에 일반 백성은 반드시 성전에 나올 필요는 없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절기에는 모든 백성이 나와야 했다(신 16장).

- (2) 본귀절에는 이러한 정한 절기에 모든 백성이 성전을 드나들 때 지켜야 할 규례가 언급되어 있다.
- (3) 즉 일반 백성 중에서 북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온 자들은 반드시 남문을 통해 나가야 하며, 남문을 통해 들어온 자들은 북문으로 나가야 한다.
- (4) 여기서 우리는 이 같은 행동에 대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신학적 해석으로 우리 성도들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앞만 보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 (5) 즉 신앙 생활에 있어서 우리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의 뜻을 바라보고 낙심치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빌 3:13).
- (6) 또 하나의 이유는 특별한 절기에는 성전이 매우 혼잡하므로 성전 출입에 있어서는 질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두가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하여야 했다는 것이다.
- (7) 그러므로 성전 출입시 지켜야 할 규례를 볼 때 우리는 성전의 구조와 예배,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40: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신이시다(참조, 고전 14:33, 40).

6. **㉠** '절기와 성회'는 어느 때를 말하는가? (11절)

- ㉠** (1) 이 말은 서로 밀접히 연관된 말로서 이스라엘의 절기에는 모든 백성이 성회(聖會)로 모이게 된다.
- (2) 그런데 그들이 성회로 모이는 때는 다음과 같다(레 23장).
 - ① 안식일 :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야 하는 안식일이다(출 23:12)
 - ② 유월절 : 정월(니산 월) 14일(무교절의 첫날)
 - ③ 무교절의 마지막 날 : 정월 21일
 - ④ 맥추절 : 곡물의 첫 이삭을 드리는 날
 - ⑤ 속죄일 : 매년 7월(에다님 월) 10일
 - ⑥ 나팔절 : 매년 7월 15일
 - ⑦ 초막절(장막절) : 매년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 (3) 한편 이때에 드리는 예물들은 그 소제에 있어서 모두 동일한 규칙을 가진다(45:17, 24; 46:5, 7).

7. **㉠** 왕이 자원(自願)하여 드리는 예물은 언제 드릴 수 있는가? (12절)

- ㉠** (1) 왕은 언제든지 자원 예물을 드릴 수 있었다. 그때 왕을 위해 안뜰 동문을 열어 놓는다.
- (2) 그러나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나면 그 문은 닫히게 된다. 이것이 안식일 및 월삭 때의 규정과 다른 규례이다(1, 2절).
- (3) 그런데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네다바>는 '추진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나답>에서 유래하였는데 이 말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쁨으로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는 내적 충동을 의미한다(시 51:14).

8. **㉠** 매일 드려야 할 제사의 규례에 대해 설명하라(13-15절).

- ㉠** (1) 백성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런데 이 제사는 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하여 주관하게 된다.
- (2) 그러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을 상번제(常燔祭)로 바쳤다(민 28:3, 4).
- (3) 그런데 에스겔의 규례에서는 저녁 제사를 생략한 반면 밀가루 예바 1/16과 기름 힌 1/3을 소제에 더하였다.
- (4) 그러므로 전체적으로는 부족한 점이 없이 이스라엘에게 새 규례가 주어진 것이다.

9. **㉠** 왕은 자신의 기업 곧 자기 소유의 땅을 누구에게 물려주는가? (16-18절)

- Ⓐ (1) 왕은 자신의 땅을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으며 그 땅은 자손들에게 계속 기업이 된다.
 (2) 한편 왕이 종에게 선물로 그 땅의 일부를 준다면 종은 회년(禧年)에 그 땅을 왕의 소유로 되돌려야 한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기업이 원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레 27:24).
 (3) 이와 같이 왕의 소유가 계속 자손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지는 이유는 왕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백성의 재산을 뺏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45:8).
 (4) 따라서 왕은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땅과 이스라엘의 치리권만을 갖게 된다.
10. Ⓒ 제사장들의 부엌은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무슨 용도로 사용되는가? (19, 20절)
 Ⓐ (1) 이곳은 성전의 북쪽과 남쪽에 붙어 있는 ‘거룩한 방’ 곧 제사장들이 지성물(至聖物)과 제물을 보관하며 의복을 갈아입는 방(42:13, 14)의 서편에 위치해 있다.
 (2) 따라서 어떤 학자(Ewald)에 따르면 본장의 이 부분이 42:13, 14 다음에 삽입되어야 자연스럽다고 주장한다.
 (3) 그런데 이곳은 제사장들이 속건제와 속죄제 제물을 삶는 곳이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로 사용되었다.
 (4) 또한 이곳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린 후에 제물을 먹던 곳으로, 만일 제물을 바깥 뜰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들고 나가게 되면 백성들이 그 제물에 손을 대어 거룩하게 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안뜰 ‘거룩한 방’ 곁에 설치하게 되었다(참조, 42:14).
11. Ⓒ 백성의 제물을 삶는 곳은 어디인가? (21-24절)
 Ⓐ (1) 바깥 뜰 네 구석에 길이 40규빗(21m), 폭 30규빗(15.8m)인 작은 뜰이 각기 있는데 이 구석 뜰 안에 돌로 쌓은 부엌이 있고 거기에 제물을 삶을 수 있는 설비가 되어 있다.
 (2) 그런데 이곳은 ‘전(殿)에 수종드는 자’ 곧 제사장들과 구별되는 레위인들(44:11, 12)이 백성의 제물을 삶는 장소이다.
 (3) 이같이 백성의 부엌이 따로 분리된 이유는 제사장들의 부엌과 인접해 있거나 백성이 제사장들과 부엌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그들 스스로 거룩하게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42:14).

본장의 요절



‘왕은 백성의 기업을
 취하여 그 산업(産業)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왕이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니라 백성으로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18절).

제 47장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 나온 생명수와 성지(聖地)의 경계

단락구분 1-2 물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 나오다 / 3-5 물이 점점 들어나다 / 6-12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 나온 물이 아라바로 흘러내려가다 / 13-20 이스라엘 지파가 나누게 될 땅의 경계가 정해지다 / 21-23 외인(外人)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기업을 얻다

1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2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3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 척을 측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4 다시 일천 척을 측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 척을 측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5 다시 일천 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6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7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8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9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넬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11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12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

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움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13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 지계대로 이스라엘 십이 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분깃이니라

14 내가 옛적에 맹세하여 이 땅으로 너희 열조에게 주마 하였었나니 너희는 피차 없이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15 이 땅 지계는 이러하니라 북방은 대해에서 헤틀론 길로 말미암아 스닷 어귀까지니

16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지계와 하맛 지계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지계 곁에 있는 하셀핫디곤이라

17 그 지계가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지계에 있는 하살에는까지요 그 지계가 또 극북방에 있는 하맛 지계에 미쳤나니 이는 그 북방이요

18 동방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밧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 강이니 북편 지계에서부터 동해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방이요

19 남방은 다말에서부터 므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방이요

20 서방은 대해라 남편 지계에서부터 맞은편 하맛 어귀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방이니라

21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22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뿔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외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23 외인이 우거하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나 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1. **㉠** 본장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본서에서 가장 희망과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 나오는 생수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2) 즉 앞의 3장에 걸쳐서 성전과 제사의 규례를 지시하신 하나님은 본장에서 에스겔에게 생수에 대한 환상을 보여 주심으로써 장차 나타나게 될 기적을 예고해 주셨다.
- (3) 다시 말하면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흘러 나온 강이 죽음의 바다인 사해까지 흘러가서 사해에는 다시 생물들이 소생하게 되고 그 강둑에는 달마다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며 그 주변의 땅들은 곡토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 나온 물은 죽음에 이른 모든 생물 뿐만 아니라 무생물까지도 소생하게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 (5)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바로 이 보좌에서 흘러 나오는 생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7:38)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한다.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참조, 계 7:16, 17).

2. **㉠** 동쪽을 향해 있는 성전의 전면에서 에스겔은 어떤 환상을 보았는가? (1, 2절)

- ㉠** (1) 그는 성전 동쪽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그 물이 동으로 흐르다가 전(殿)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
- (2) 한편 성전 동쪽의 문지방 밑에서 나오기 시작한 물은 나중에 사람이 건너갈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강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러한 강의 근원이 성전이라는 사실이다.
- (3)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 나온 물은 결국 사해의 물을 정화시켜서 모든 생물이 살게 하는 근원이 되었는데 이 물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다.
- (4) 뿐만 아니라 이 물은 하늘 보좌에서 흘러 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상징한다(계 22:1-3).
- (5)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 생명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것이다.

3. **㉠**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흘러 나온 물은 어떻게 되었는가? (3-5절)

- ㉠** (1) 맨 처음 발목에 찻던 물은 무릎까지 오르고 다음에 허리까지 오르더니 마침내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기에 이르렀다.
- (2) 여기서 물은 상징적으로 영적인 생명을 공급해 주는 근원을 말하는데(참조, 요 7:37, 38) 이 물의 깊이가 점점 깊어져서 강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많아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 (3) 즉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때가 가까와 올수록 점점 확장되지만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실현된다.
- (4)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기도하면서 주의 뜻이 하루빨리 성취되기를 기도해야 한다(참조, 계 22:20).

4. **㉠** 물은 어디에서 흘러 어디로 내려갔는가? (8절)

- ㉠** (1) 물은 성전에서 흘러 동방으로 향하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렀다.
- (2)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원한 물은 동쪽으로 흘러내려 팔레스틴의 저지대 아라바로 내려가서 급기야 사해 바다에 이르른 것이다.
- (3) 그런데 '아라바'는 사막과 같은 척박한 토양을 가진 곳이다(참조, 사 35:1). 그러므로 물이 '아라바'로 흘러내려갔다는 것은 사막과 같은 척박한 땅에 생명의 물길이 닿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4) 물론 이 말은 에스겔이 본 이상이므로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

지만 이 물은 영적 생명을 구원하는 말씀(요 7:37, 38) 이므로 아라바와 같이 척박한 심령에 말씀의 물결이 흘러, 갈한 심령을 생수로 채워 주며 영혼의 신록을 움트게 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5. **Q** 바다에 이른 물은 바다를 어떻게 하였는가? (8절)

- A** (1) 그 물은 바다를 소성(蘇醒)하게 했다.
 (2) 이 바다는 사해 바다로서 죽음의 바다로 불렸다. 특히 사해 바다는 염분이 많아서 고기들이 전혀 살 수 없는 곳이다.
 (3) 또한 이 사해는 죄악의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장소이다(창 19:1-28). 그러므로 역사적으로도 심판으로 멸망한 죽음의 땅이기도 하다.
 (4) 이러한 곳에 생수가 흘러들어 죽음의 바다를 소생케 했다는 것이다.
 (5) 이와 마찬가지로 도저히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의 위기에 놓여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것이다(요 3:16; 5:24).
 (6) 복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러한 구원의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참조, 요 4:14).

6. **Q**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9, 10절)

- A** (1)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소성하여 살게 되었고 고기도 심히 많게 되어 어부들은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의 강가에 그물을 치게 되었다.
 (2) 여기에서 어부들은 인간에게 구원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뜻한다(참조, 마 4:19). 그러므로 어부들이 사해 서쪽 바닷가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엔게디에서 그 건너편인 에네글라임까지 친 그물은 제자들을 모으기 위한 전도 활동을 뜻한다.
 (3) 즉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소성할 수 없는 인간에게 복음을 허락하셔서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제자까지 불러모으시는 것이다.
 (4) 또한 이 말씀은 행 1:8의 전도 명령과도 많은 연관성이 있다. 주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따를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할 것이다(참조, 행 2:41).

7. **Q**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떤 곳이 소성하지 못한다고 하셨는가? (11절)

- A** (1) 하나님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고 하셨다.
 (2) 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이 소성하여 살게 되지만 사해에 우기가 닥치면 바닷물이 넘쳐 진펄의 낮은 지역을 덮는다. 그러나 그곳에 모인 물은 곧 증발하여 강한 소금 기운만 남아 생물이 살 수 없게 된다(참조, 신 29:22; 시 107:34; 습 2:9). 더우기 그곳은 강물이 이르지 못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생물이 소성할 수 없다.
 (3) 그리고 그곳에 남은 소금은 짜게 하여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한 소금의 기운으로 생명체와 열매 그리고 번영에 대해 해를 끼치는 역할을 한다(참조, 욕 38:6).
 (4)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소생함을 싫어하는 자들이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임을 상징한다(슌 14:17).
 (5) 소금이 진펄에 들어가서 오히려 생명을 해치는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 위에는 그 그릇이 부패하여 하나님의 복음마저도 왜곡시켜 사회와 교회에 해를 끼치는 교회나 기독교 단체들이 많다. 그들이 비록 지금은 잘되어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불의를 가만 두지 않을 것이다(마 23:33; 24:51).

8. **Q** 강 좌우 가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12절)

- A** (1) 물이 성소에서 나오기 때문에 강 좌우 가에는 각종 실과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였다. 또한 그 실과는 식용과 약 재료로도 쓰였다.
 (2) 성소로부터 공급되어 모든 생물을 소생케 하며 열매를 맺게 하는 물은 곧 멸망한 이스

라엘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상징한다(참조, 창 13:10; 사 12:3).

- (3)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에서 자기 백성에게 흘러내리시는 구원은 작은 데서 시작하여 점점 충만하고 풍성케 된다.
- (4) 결국 그 풍성은 스스로를 넘쳐 주위의 모든 것들마저 생명력 있게 만든다.
- (5) 이 같은 축복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하고 있다. 그런데 성도들이 생기 없는 삶을 사는 것은 단지 성도 개개인의 그릇이 그 축복을 담기에 너무 작기 때문이다.

9. **Q** 여호와께서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3, 14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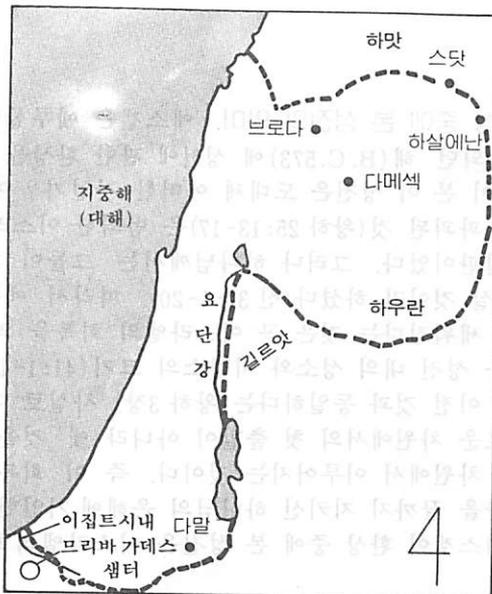
- A** (1) 그것은 '하나님께서 옛적에 맹세하여 이 땅으로 열조에게 주마'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 (2)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창 12:7; 13:14-17; 28:13; 출 13:5, 11).
- (3) 이러한 기업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기업으로 임할 것이다(참조, 벰전 1:4).
- (4)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기업을 받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고(출 34:9) 말씀에 견고히 서야 한다(행 20:32).

10. **Q**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십이 지파에게 허락하신 땅의 경계는 어떠한가? (15-20절)

- A** (1) 먼저 이 땅의 북쪽 경계선은 대해(大海)에서 시작하여 헤들론을 거쳐 하맛 어귀에 이르렀다가 스닷, 브로다, 시브라임에까지 이른다(16절).
- (2) 동쪽 경계선은 하우란과 다메섹에서 시작하여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를 지나 사해에 흘러들어가는 요단 강까지이다(18절).
- (3)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시작하여 트리봇 가데스 샹터를 지나 애굽 시내를 거쳐 대해에 이르는데 이것이 남쪽 경계선이다(19절).
- (4) 서쪽 경계는 대해로서 이 바다가 경계선이 되어 하맛 어귀를 건너다보는 데까지 이른다(20절).

11. **Q**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지도로 나타내 보라(15-20절).

A



12.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땅을 분배하라고 하셨는가? (21, 22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하라'고 명하셨다.
- (2) 여기에서 제비뽑기는 그 당시 근동 지방에 널리 유행했던 관습으로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그릇 속에 여러 가지 물건을 넣어 놓고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점을 치는 행위였다(참조, 레 16:8; 민 26:55; 수 18:10; 삼상 14:41; 에 3:7; 잠 16:33; 18:18; 은 1:7; 마 27:35; 행 1:26).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명하신 것은 이스라엘 열 두 지파에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시기 위해서였다.
- (4) 한편 '너희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던 이방인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땅을 허락해 주신 것은 장차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될 것을 상징한다(참조, 롬 4:16).

13. ㉠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위해 어떻게 배려(配慮)하셨는가? (22, 23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 외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외인이 우거하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즐지니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22, 23절).
- (2) 이것은 장차 신약 시대에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뜻한다(참조, 롬 10:12; 갈 3:8, 9, 14; 골 3:11).
- (3)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요 3:16) 귀중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다(참조, 눅 12:8; 요 4:14; 행 10:43; 요일 5:1; 계 22:17).

연구자료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성전의 의미.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14년 되던 해(B.C. 573)에 성전에 관한 환상을 보았다. 그러면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은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왕하 25:13-17)은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금 회복하실 것이라 하셨다(신 30:1-20). 따라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다시금 세워진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한다. 물론 이 회복은 성전 내의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41:1-11)가 솔로몬이 지었던 이전 것과 동일하다는(왕하 3장) 사실로 미루어 보아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의 첫 출발이 아니라 옛 것을 복구하고 개척시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이 회복은 분명히 당신의 사랑을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성전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계가 있다.

제 48장 열 두 지파의 지계(地界)

단락구분 1-7 성소 이북(以北)의 일곱 지파 / 8-12 제사장들의 거룩한 땅 / 13-14 레위인들의 분깃 / 15-20 성읍을 위한 분배 / 21-22 왕에게 속한 땅 / 23-29 성소 이남(以南)의 다섯 지파 / 30-35 성읍의 문(門)과 성읍의 새로운 이름

1 모든 지파의 이름대로 이 같을지니라 극북에서부터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지계에 있는 하살에는까지 곧 북으로 하맛 지계에 미치는 땅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단의 분깃이요

2 단 지계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아셀의 분깃이요

3 아셀 지계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납달리의 분깃이요

4 납달리 지계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므낫세의 분깃이요

5 므낫세 지계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에브라임의 분깃이요

6 에브라임 지계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르우벤의 분깃이요

7 르우벤 지계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유다의 분깃이요

8 유다 지계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광이 이만 오천 척이요 장은 다른 분깃의 동편에서 서편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9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장이 이만 오천 척이요 광이 일만 척이라

10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편으로 장이 이만 오천 척이요 서편으로 광이 일만 척이요 동편으로 광이 일만 척이요 남편으로 장이 이만 오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와 성소가 있게 하고

11 이 땅으로 사독의 자손 중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할 때에 레위 사람의 그릇한 것처럼 그릇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2 이 온 땅 중에서 예물로 드리는 땅 곧 레위 지계와 연결할 땅을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길지니라

13 제사장의 지계를 따라 레위 사람의 분깃을 주되 장이 이만 오천 척이요 광이 일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장이 이만 오천 척이요 광이 각기 일만 척이라

14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

하며 그 땅의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나 여호와에게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니라

15 이 이만 오천 척 다음으로 광 오천 척은 속된 땅으로 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하는 곳과 들을 삼되 성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16 그 척수는 북편도 사천 오백 척이요 남편도 사천 오백 척이요 동편도 사천 오백 척이요 서편도 사천 오백 척이며

17 그 성의 들은 북으로 이백 오십 척이요 남으로 이백 오십 척이요 동으로 이백 오십 척이요 서으로 이백 오십 척이며

18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결하여 남아 있는 땅의 장이 동으로 일만 척이요 서으로 일만 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결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은 성읍에서 역사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19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그 성읍에서 역사하는 자는 그 땅을 기경할지니라

20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도합은 장도 이만 오천 척이요 광도 이만 오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임이라

21 거룩히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왕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히 구별할 땅의 동향한 그 지계 앞 이만 오천 척과 서향한 그 지계 앞 이만 오천 척이라 다른 분깃들과 연결한 땅이니 이것을 왕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히 구별할 땅과 전의 성소가 그 중간에 있으리라

22 그런즉 왕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23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베냐민의 분깃이요

24 베냐민 지계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시므온의 분깃이요

25 시므온 지계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잇사갈의 분깃이요

- 26 잇사갈 지계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스블론의 분기이요
- 27 스블론 지계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갓의 분기이며
- 28 갓 지계 다음으로 남편 지계는 다말에서부터 트리바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 29 이것은 너희가 제비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분기이니라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
- 30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편의 땅이 사천 오백 척이라
- 31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

- 을 따를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 32 동편의 땅이 사천 오백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 33 남편의 땅이 사천 오백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잇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블론 문이며
- 34 서편도 사천 오백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남달리 문이며
- 35 그 사면의 도합이 일만 팔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삼마라 하니라

1. **㉠** 본장에 기록된 중요 내용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새 이스라엘 땅이 지파와 용도에 따라 새롭게 분배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땅의 용도와 그 땅에 대해 지킬 규례가 기록되어 있다.
- (2)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거룩한 땅을 경계로 하여 북쪽에는 일곱 지파가 남쪽에는 다섯 지파가 위치하게 된다. 한편 레위 지파의 분기는 제사장의 땅과 인접해 있으며 왕은 거룩히 구별된 땅과 성읍 기지의 좌우편 땅을 차지하게 된다.
- (3) 한편 성소가 위치한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 (4) 그러므로 본장은 새 이스라엘 건설을 위한 계획 중 모든 백성이 거할 지역의 분배를 확정지음으로써 이 계획의 기초를 다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5)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의 입안자(立案者)로서 자신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며 그들 중에 거하심을 확인시켜 주신다.

2. **㉠** 여호수아 시대의 땅 분배 방식과 본장에 나타난 분배 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1-7절)

- ㉠** (1) 첫째, 모든 지파가 지중해(대해)를 서쪽 국경으로 하여 북에서 남으로 나란히 영토를 분할받았다.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정복할 수 있었던 땅 중에서 각 지파가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지파마다 영토의 넓이가 각기 달랐음은 물론 모두가 통일성이 없이 흩어져서 거주하였다(수 18:1-10; 19장).
- (2) 둘째, 모든 지파가 요단 서쪽과 북쪽의 땅에 위치했다. 반면에 여호수아 당시에는 므낫세 반 지파와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바산과 길르앗 지역을 원하였으므로 모세는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였다(민 32:33-42; 수 13:8-31). 그러므로 그들은 요단 동편에서 거주하였다.
- (3)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전(全) 영토의 1/5에 해당하는 지역이 성소가 위치할 거룩한 땅과 성읍의 기지(基地) 그리고 왕의 소유지로 구별되었다(45:1-8).
- (4) 우리는 여기서 이 같은 에스겔의 분배 방식이 공평하며, 거룩한 것을 구별하기 위해 특별히 계획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5) 이와 같이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계획 자체가 공평하고, 정의롭고, 거룩한 것을 생각해서 수립되었다면 일이 되어가는 과정과 결과가 모두 의롭고 선한 방향으로 되어질 것은 분명하다.

- (3) 그러므로 그 땅에서 산출되는 첫 열매가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행위이다.
- (4) 따라서 레위인들이 땅을 분배받은 목적은 거룩한 곳의 거룩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였다.
- (5)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들은 그들에게 부여된 일에 충성할 수 있어야 한다 (10-12절).

8. **㉠** '속된 땅'이란 어디를 말하는가? (15-20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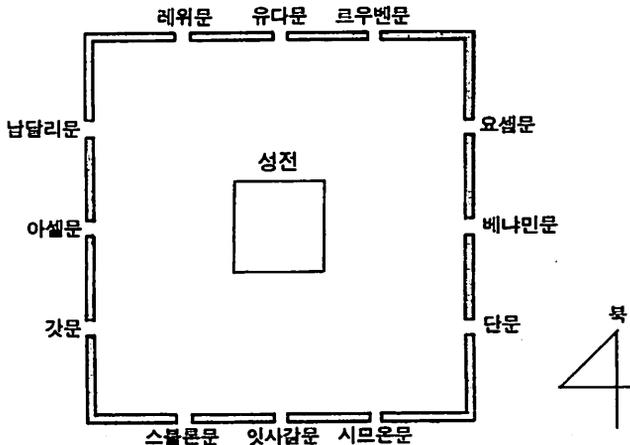
- ㉠** (1) 특별한 용도로 사용될 지역을 말한다.
- (2) 따라서 그곳은 일반 성(城)을 중심으로 하여 주택지와 빈 들로 되어 있는데 그 성의 크기는 가로 세로 4천 5백 규빗(약 2.4km)의 정사각형이다. 그리고 그 성의 빈 들은 성 사방으로 동서남북이 모두 2백 5십 규빗(131m)이다.
- (3) 한편 거룩한 땅과 인접한 성의 기지(基地)를 제외한 나머지 땅 곧 그 성의 좌우로 각각 깊이 1만 규빗(5.3km), 폭 5천 규빗(2.6km)의 땅에서 나는 농산물은 그 성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식량이 될 것이다.
- (4)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뽑혀 와 하나님의 성전과 거룩한 성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땅이 주어지고 그들은 그곳에서 농산물을 재배하여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할 것이다.

9. **㉠** 어떤 곳이 왕의 소유가 될 것인가? (21, 22절)

- ㉠** (1) 왕이 소유할 땅은 북으로는 유다 지파의 경계선까지, 남으로는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까지의 땅 중 거룩하게 구별된 땅과 성의 기지 그리고 레위 지파 소유의 땅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다(참조. **㉠** 4).
- (2) 즉 거룩하게 구별된 땅과 레위 지파 소유의 땅 그리고 성의 기지에서 동쪽으로는 국경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의 땅을 말한다.
- (3) 그러므로 거룩하게 구별된 땅과 성의 기지, 레위 지파의 땅과 왕의 소유를 모두 합하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소유의 땅 사이 모든 지역이 된다.

10. **㉠**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평면도를 그리고 성문을 표시하라 (30-35절).

- ㉠** (1) 이 성은 성의 기지(基地) 안에 위치해 있었으며 가로세로 각각 4천 5백 규빗(약 2.4 km)의 정사각형이다.
- (2) 그런데 성문은 성벽의 사면에 각각 세 개씩 있으며 그 성문들의 이름은 각 지파의 이름을 따서 붙였다(계 21:12).
- (3) 한편 예루살렘 성의 단면도를 그리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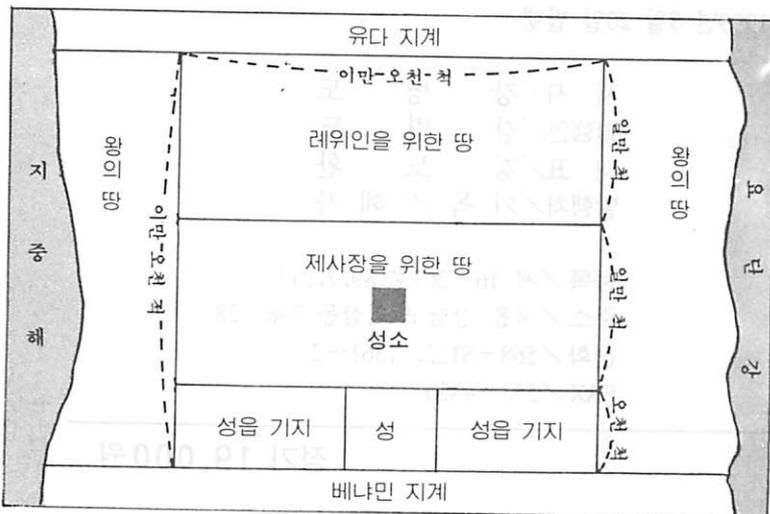


11. **Q** 성읍의 이름은 어떻게 불리어질 것인가? (35절)

- A** (1)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 라고 불리어 것이다.
 (2) 여기서 '그날 이후로'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미욘>은 '앞날에', '지금부터' 라는 뜻을 갖는다.
 (3) 또한 <삼마>로 표기된 히브리어 <쇠마>는 '거기에', '저기에', '그쪽에' 의 뜻 모두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4) 그러므로 본절의 의미는 이제까지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소에 계시는 날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 라 불리어 될 것이라는 뜻이다.
 (5) 한편 그 성읍 이름인 '여호와 삼마' 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말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나라의 규례와 제도 그리고 생활에 간섭하심으로써 그들 속에 함께 하시고, 앞으로는 그들의 앞길에 영원한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다.
 (6) 또한 이 말 속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 가운데 모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랑을 전파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7) 그러므로 '여호와 삼마' 의 사상으로 귀결되는 본서 전체의 결론은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로와 새 희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다.

지도자료

하나님께 드릴 거룩히 구별된 땅. 본장과 45장에 언급되어 있는 이 땅은 유다 지파의 지계(地界)와 베나민 지파의 지계 사이에 위치한다. 이 땅 전체의 길이는 장광(長廣)이 모두 이만 오천 척인데(20절) 레위인을 위한 땅, 제사장을 위한 땅, 성읍 기지로 구분된다(10, 13, 15절). 그리고 그 좌우편의 땅은 왕에게 소속되는 땅이다(21절).



저자 소개

강병도 목사는 1923년 경남 진주에서 출생하였으며, 고려신학교(제 13회, 1959년)를 졸업한 후 30여년간 목회에 전념하고 있다. 그는 개혁주의적 목회의 일환으로 평신도 성경 공부에 관심을 쏟던 중 그간의 성경 연구 자료를 정리한 「성경 문답식 강해」(1973년)를 펴내어 교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진 바 있다. 초기에 4권으로 시작되었던 이 책이 독자의 호응에 힘입어 3년 사이에 6권으로 늘어났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바쁜 목회 생활 중에 기존 저술의 보완 작업을 쉬지 않던 그는 이제 「QA시스템 성경 연구 시리즈」 전 15권의 저술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현재 자신이 개척한 부산 동래 성일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으며, 또한 기독교지혜사 발행인으로서 저술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성경 문답식 강해 증보판-

QA시스템 성경연구시리즈

⑨ 예레미야-에스겔

1999년 9월 10일 인쇄

1999년 9월 20일 발행

저 자/강 병 도
발행인/강 병 도
대 표/강 도 환
발행처/기 독 지 혜 사

등록/제 16-267호(89.7.21)

주소/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28

전화/568-8122, 1361~2

FAX/553-4830

정가 19,000원